

연구보고서 2019-26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조성호
변수정 · 김문길 · 김지민

【책임연구자】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26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발 행 일 2019년 12월

저 자 조 성 호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주)삼일기획

발간사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1980년대 초반 인구대체 수준보다 낮아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결혼과 출산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결혼은 곧 출산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조혼인율뿐만 아니라 결혼 건수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부터 조혼인율과 결혼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출산이 증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몇 가지로 한정할 수는 없으나 최근의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및 주거가 가장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의 전 단계인 이성 교제에서도 안정적인 직업 등의 경제적 안정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안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주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결혼하면서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신혼집 마련 비용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임차하기보다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커서 결혼을 하면서 대부분 새롭게 집을 장만하려 하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거 비용 때문에 신혼집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서까지 금융권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결혼 및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생애주기적인 과정의 일부로 파악하고, 대표적인 이벤트 시점에서의 일자리와 주거의 변화를 파악한다. 즉,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자리를 갖고, 배우자를 만나 교제하고, 결혼하여 출산하는 과정에서의 일자리와 주거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만남에서부터 결혼·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동태적으로(dynamic) 파악하여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이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일자리 및 주거와 결혼·출산 관련 문헌 검토	18
제2절 기존의 청년 관련 조사 검토	25
제3절 청년 조사와 본 조사의 특징	52

제3장 조사 설계 및 구성	57
제1절 표본 설계 및 조사 실시	57
제2절 조사 내용 및 구성	72
제3절 조사 완료 실험부부의 일반적 특성	91

제2부 조사 결과 I (미혼기)

제4장 최종학교 졸업	99
제1절 최종학교 특성	99



제2절 주거 특성	101
제3절 소결	109
제5장 첫 일자리	110
제1절 첫 일자리 특성	110
제2절 주거 특성	132
제3절 소결	142
제6장 배우자와의 교제	145
제1절 일자리 특성	145
제2절 주거 특성	163
제3절 배우자와 알게 된 경로	172
제4절 교제 이전의 활동 참여도	177
제5절 소결	184

제3부 조사 결과 II(결혼 이후)

제7장 배우자와의 결혼	189
제1절 혼인 상태 및 과정	189
제2절 결혼 전후의 가치관 변화	199
제3절 일자리 특성	223
제4절 주거 특성 및 결혼 비용	239
제5절 소결	253

제8장 임신·출산	259
제1절 임신	259
제2절 출산	268
제3절 첫 자녀 출산 시 주거 특성	296
제4절 소결	301

제9장 양육 및 일·가정 양립	305
제1절 양육	305
제2절 일·가정 양립	340
제3절 소결	347

제4부 조사 결과 Ⅲ(현재 특성 및 가치관·정책 욕구)
--

제10장 현재의 경제적 특성	355
제1절 일자리 특성	355
제2절 주거 특성	374
제3절 금융 자산 및 부채	378
제4절 소결	384

제11장 부모 관련 사항 및 부부간의 관계·가치관 특성	387
제1절 부모 관련 사항	387
제2절 부부간의 관계 및 가치관 특성	390
제3절 소결	469

제12장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475
제1절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475
제2절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485
제3절 소결	502

제5부 결론부

제13장 종합분석	507
제1절 신혼부부의 일자리 변화	507
제2절 신혼부부의 주거 변화	513
제3절 신혼부부 특성에 따른 분석	520
 제14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23
제1절 요약	52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525
 참고문헌	 531
 부록	 539

표 목차

〈표 2-1〉 청년패널2001, 청년패널2007 문항 비교	27
〈표 2-2〉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2013, 2015 주요 문항 비교	31
〈표 2-3〉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2016, 2017 주요 문항 비교	33
〈표 2-4〉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문항	35
〈표 2-5〉 한국노동패널 청년부가조사 연도별 비교	37
〈표 2-6〉 주거실태조사 주요 조사 항목	40
〈표 2-7〉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주요 조사 항목	44
〈표 2-8〉 신혼부부통계 항목	47
〈표 2-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주요 조사 내용	49
〈표 3-1〉 혼인 연차와 해당 기간	59
〈표 3-2〉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의 시도별 혼인 연차별 분포	60
〈표 3-3〉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의 시도별 아내연령대별 분포	61
〈표 3-4〉 시도별 신혼부부 가구수와 1차 추출단위 할당 결과 및 표본 가구수	63
〈표 3-5〉 시도별 혼인 연차별 수정모집단	65
〈표 3-6〉 시도별 아내 연령대별 수정모집단	66
〈표 3-7〉 조사원 교육 일정 및 참석자	70
〈표 3-8〉 실사과정에서 사용된 보조자료	71
〈표 3-9〉 예비 조사 FGI 참석자	73
〈표 3-10〉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 가구 대표자	75
〈표 3-11〉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교육·경제활동 및 경제적 상황): 개인	77
〈표 3-12〉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주거 및 결혼 준비 영역): 개인	79
〈표 3-13〉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배우자와의 교제 및 결혼 영역): 개인	80

〈표 3-1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임신·출산): 개인	81
〈표 3-15〉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양육 및 일·가정 양립): 개인	82
〈표 3-16〉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부모 관련 사항 및 부부간의 관계·가치관): 개인	83
〈표 3-17〉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개인	84
〈표 3-18〉 가구 대표자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척도 출처	85
〈표 3-19〉 개인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척도 출처	88
〈표 3-20〉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연령 분포	92
〈표 3-21〉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연령 차이(동갑 여부) 분포	92
〈표 3-22〉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연령 차이 분포	93
〈표 3-23〉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학력 분포	93
〈표 3-24〉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학력 차이 분포	94
〈표 3-25〉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	94
〈표 3-26〉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상태 차이(맞벌이 여부) 분포	94
〈표 3-27〉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혼인 상태 분포	95
〈표 3-28〉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혼인 상태 차이 분포	95
〈표 3-29〉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혼인 연차 분포	96
〈표 3-30〉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지역 분포	96
〈표 4-1〉 교육 수준(남편)	99
〈표 4-2〉 교육 수준(아내)	100
〈표 4-3〉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 같이 산 사람	102
〈표 4-4〉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 주택 유형	103
〈표 4-5〉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 점유 형태	105
〈표 4-6〉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 주택 비용	107
〈표 4-7〉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 주택 규모	108
〈표 5-1〉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일자리 유무	112

〈표 5-2〉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일자리 유무	113
〈표 5-3〉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직종	114
〈표 5-4〉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직종	115
〈표 5-5〉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종사상 지위	116
〈표 5-6〉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종사상 지위	117
〈표 5-7〉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형태	118
〈표 5-8〉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형태	119
〈표 5-9〉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정규직 여부	120
〈표 5-10〉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정규직 여부	121
〈표 5-11〉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월평균 소득	122
〈표 5-12〉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월평균 소득	123
〈표 5-13〉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124
〈표 5-14〉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125
〈표 5-15〉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종사자수	126
〈표 5-16〉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종사자수	127
〈표 5-17〉 첫 일자리를 그만둔 가장 주된 이유(남편)	129
〈표 5-18〉 첫 일자리를 그만둔 가장 주된 이유(남편)(계속)	130
〈표 5-19〉 첫 일자리를 그만둔 가장 주된 이유(아내)	131
〈표 5-20〉 첫 일자리를 그만둔 가장 주된 이유(아내)(계속)	131
〈표 5-21〉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같이 산 사람(남편)	133
〈표 5-22〉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같이 산 사람(아내)	134
〈표 5-23〉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주택 유형(남편)	135
〈표 5-24〉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주택 유형(아내)	136
〈표 5-25〉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점유 형태(남편)	138
〈표 5-26〉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점유 형태(아내)	138
〈표 5-27〉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주택 비용(남편)	140
〈표 5-28〉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주택 비용(아내)	140
〈표 5-29〉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주택 규모	142

〈표 6-1〉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일자리 유무	145
〈표 6-2〉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일자리 유무	146
〈표 6-3〉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직종	148
〈표 6-4〉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직종	149
〈표 6-5〉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종사상 지위	150
〈표 6-6〉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종사상 지위	151
〈표 6-7〉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형태	152
〈표 6-8〉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형태	153
〈표 6-9〉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정규직 여부	154
〈표 6-10〉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정규직 여부	155
〈표 6-11〉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월평균 소득	156
〈표 6-12〉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월평균 소득	157
〈표 6-13〉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158
〈표 6-14〉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159
〈표 6-15〉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종사자수	161
〈표 6-16〉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종사자수	162
〈표 6-17〉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같이 산 사람(남편)	164
〈표 6-18〉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같이 산 사람(아내)	164
〈표 6-19〉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주택 유형(남편)	166
〈표 6-20〉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주택 유형(아내)	166
〈표 6-21〉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점유 형태(남편)	168
〈표 6-22〉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점유 형태(아내)	168
〈표 6-23〉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주택 비용(남편)	169
〈표 6-24〉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주택 비용(아내)	170
〈표 6-25〉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주택 규모	171
〈표 6-26〉 배우자를 알게 된 경로(남편)	172
〈표 6-27〉 배우자를 알게 된 경로(남편)(계속)	173
〈표 6-28〉 배우자를 알게 된 경로(아내)	174

〈표 6-29〉 배우자를 알게 된 경로(아내)(계속)	175
〈표 6-30〉 배우자를 처음 만나 교제하기까지의 소요 기간	176
〈표 6-31〉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취미·학원 등의 활동 참여도(남편)	177
〈표 6-32〉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취미·학원 등의 활동 참여도(아내)	178
〈표 6-33〉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종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 참여도(남편)	179
〈표 6-34〉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종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 참여도(아내)	180
〈표 6-35〉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교류 참여율(남편)	181
〈표 6-36〉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교류 참여도(아내)	182
〈표 6-37〉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친구들과의 만남 정도(남편)	183
〈표 6-38〉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친구들과의 만남 정도(아내)	184
〈표 7-1〉 현재 혼인 상태(남편)	189
〈표 7-2〉 현재 혼인 상태(아내)	190
〈표 7-3〉 결혼식 및 혼인신고를 한 비율	191
〈표 7-4〉 결혼식 및 혼인신고 순서	192
〈표 7-5〉 배우자와의 결혼식과 혼인신고까지의 소요 기간	193
〈표 7-6〉 결혼 결심 후 실제로 수월하게 결혼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194
〈표 7-7〉 결혼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주된 이유(남편)	195
〈표 7-8〉 결혼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주된 이유(남편)(계속)	196
〈표 7-9〉 결혼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주된 이유(아내)	197
〈표 7-10〉 결혼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주된 이유(아내)(계속)	198
〈표 7-11〉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남편): 생활수준	200
〈표 7-12〉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아내): 생활수준	201
〈표 7-13〉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남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203
〈표 7-14〉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아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204
〈표 7-15〉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남편): 취직 및 승진 기회	206
〈표 7-16〉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아내): 취직 및 승진 기회	207
〈표 7-17〉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남편):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판	209
〈표 7-18〉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아내):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판	210

〈표 7-19〉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남편): 마음의 안정(행복감 등)	211
〈표 7-20〉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아내): 마음의 안정(행복감 등)	212
〈표 7-21〉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남편): 주변 사람과의 관계	214
〈표 7-22〉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아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215
〈표 7-23〉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 남편	218
〈표 7-24〉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 아내	219
〈표 7-25〉 결혼 만족도: 남편	220
〈표 7-26〉 결혼 만족도: 아내	221
〈표 7-27〉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일자리 유무	223
〈표 7-28〉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일자리 유무	224
〈표 7-29〉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직종	225
〈표 7-30〉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직종	226
〈표 7-31〉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종사상 지위	227
〈표 7-32〉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종사상 지위	228
〈표 7-33〉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형태	229
〈표 7-34〉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형태	230
〈표 7-35〉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정규직 여부	231
〈표 7-36〉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정규직 여부	232
〈표 7-37〉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월평균 소득	233
〈표 7-38〉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월평균 소득	233
〈표 7-39〉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235
〈표 7-40〉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236
〈표 7-41〉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종사자수	237
〈표 7-42〉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종사자수	238
〈표 7-43〉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같이 산 사람	239
〈표 7-44〉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주택 유형	241
〈표 7-45〉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점유 형태	242
〈표 7-46〉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마련 방법	243

〈표 7-47〉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주택 비용(금액)	244
〈표 7-48〉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주택 비용(비율)	245
〈표 7-49〉 신혼집 주거: 주택 비용	246
〈표 7-50〉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명의	247
〈표 7-51〉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주택 규모	248
〈표 7-52〉 주택 이외 결혼 관련 지출 비용 (남편)	249
〈표 7-53〉 주택 이외 결혼 관련 지출 비용 (아내)	250
〈표 7-54〉 결혼 비용 부담 여부 (남편)	252
〈표 7-55〉 결혼 비용 부담 여부 (아내)	252
〈표 8-1〉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	259
〈표 8-2〉 임신이 어려워서 의료기관에 간 경험 (남편)	261
〈표 8-3〉 임신이 어려워서 의료기관에 간 경험 (아내)	262
〈표 8-4〉 임신 준비 기간 경험 유무	263
〈표 8-5〉 임신 준비 기간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기간	264
〈표 8-6〉 임신 준비 기간을 가진 경험이 없는 경우, 앞으로의 계획 유무	266
〈표 8-7〉 임신 준비 기간을 가진 적이 없으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경우, 그 기간	267
〈표 8-8〉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 (아내만 응답)	269
〈표 8-9〉 결혼 전과 결혼 후 희망 자녀수의 변동 여부	270
〈표 8-10〉 결혼 전 희망 자녀수	271
〈표 8-11〉 결혼 후 희망 자녀수	272
〈표 8-12〉 이상적인 자녀 성별 조합	273
〈표 8-13〉 향후 자녀 출산 의향: 남편	275
〈표 8-14〉 향후 자녀 출산 의향: 아내	276
〈표 8-15〉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다음 자녀 출산 시기: 남편	277
〈표 8-16〉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다음 자녀 출산 시기: 아내	278
〈표 8-17〉 곧바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남편)	280
〈표 8-18〉 곧바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남편) (계속)	281
〈표 8-19〉 곧바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아내)	282

〈표 8-20〉 곧바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아내) (계속)	283
〈표 8-21〉 앞으로 더 낳고자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	284
〈표 8-22〉 향후에 자녀를 낳으려는 이유 (남편)	286
〈표 8-23〉 향후에 자녀를 낳으려는 이유 (남편) (계속)	287
〈표 8-24〉 향후에 자녀를 낳으려는 이유 (아내)	288
〈표 8-25〉 향후에 자녀를 낳으려는 이유 (아내) (계속)	289
〈표 8-26〉 향후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남편)	292
〈표 8-27〉 향후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남편) (계속)	293
〈표 8-28〉 향후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아내)	294
〈표 8-29〉 향후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아내) (계속)	295
〈표 8-30〉 첫 자녀 출산 시 주거와 첫 집(신혼집)이 같은 비율	296
〈표 8-31〉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같이 산 사람	297
〈표 8-32〉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주택 유형	298
〈표 8-33〉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점유 형태	299
〈표 8-34〉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주택 비용	300
〈표 8-35〉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주택 규모	301
〈표 9-1〉 사교육 외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미취학): 첫째 자녀	306
〈표 9-2〉 사교육 외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미취학): 둘째 자녀 이상	307
〈표 9-3〉 사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미취학): 첫째 자녀	309
〈표 9-4〉 사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미취학): 둘째 자녀 이상	311
〈표 9-5〉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복수 응답): 첫째 자녀	313
〈표 9-6〉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복수 응답): 첫째 자녀(계속)	314
〈표 9-7〉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복수 응답): 둘째 자녀 이상	316
〈표 9-8〉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복수 응답): 둘째 자녀 이상(계속)	317
〈표 9-9〉 양육 비용(월평균): 첫째 자녀	319
〈표 9-10〉 양육 비용(월평균): 둘째 자녀 이상	321
〈표 9-11〉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간(남편)	323
〈표 9-12〉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간(아내)	324

〈표 9-13〉 자녀 양육에서 가장 힘든 점(남편)	326
〈표 9-14〉 자녀 양육에서 가장 힘든 점(아내)	327
〈표 9-15〉 가사 분담 비율	328
〈표 9-16〉 육아 분담 비율	330
〈표 9-17〉 가사 시간(평일)	332
〈표 9-18〉 가사 시간(주말)	334
〈표 9-19〉 육아시간(평일)	337
〈표 9-20〉 육아시간(주말)	339
〈표 9-2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남편)	341
〈표 9-2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아내)	342
〈표 9-23〉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	344
〈표 9-24〉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의 중요도	345
〈표 10-1〉 현재 일자리(남편): 일자리 유무	355
〈표 10-2〉 현재 일자리(아내): 일자리 유무	357
〈표 10-3〉 현재 일자리(남편): 직종	358
〈표 10-4〉 현재 일자리(아내): 직종	359
〈표 10-5〉 현재 일자리(남편): 종사상 지위	360
〈표 10-6〉 현재 일자리(아내): 종사상 지위	361
〈표 10-7〉 현재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형태	362
〈표 10-8〉 현재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형태	363
〈표 10-9〉 현재 일자리(남편): 정규직 여부	364
〈표 10-10〉 현재 일자리(아내): 정규직 여부	365
〈표 10-11〉 현재 일자리(남편): 월평균 소득	366
〈표 10-12〉 현재 일자리(아내): 월평균 소득	367
〈표 10-13〉 현재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369
〈표 10-14〉 현재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370
〈표 10-15〉 현재 일자리(남편): 종사자수	372
〈표 10-16〉 현재 일자리(아내): 종사자수	373

〈표 10-17〉 이전 주거와 현재 주거가 같은 비율	374
〈표 10-18〉 현재 주거: 주택 유형	375
〈표 10-19〉 현재 주거: 점유 형태	376
〈표 10-20〉 현재 주거: 주택 비용	377
〈표 10-21〉 현재 주거: 주택 규모	378
〈표 10-22〉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남편)	379
〈표 10-23〉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아내)	381
〈표 10-24〉 현재 부채 총액(남편)	382
〈표 10-25〉 현재 부채 총액(아내)	383
〈표 11-1〉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부모에게 주는 금액	388
〈표 11-2〉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부모에게 받는 금액	389
〈표 11-3〉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가사 분담	391
〈표 11-4〉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가사 분담	392
〈표 11-5〉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경제적 문제	393
〈표 11-6〉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경제적 문제	395
〈표 11-7〉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본인 취미 및 휴일 시간 사용	396
〈표 11-8〉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본인 취미 및 휴일 시간 사용	397
〈표 11-9〉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배우자 취미 및 휴일 시간 사용	399
〈표 11-10〉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배우자 취미 및 휴일 시간 사용	400
〈표 11-11〉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성생활	402
〈표 11-12〉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성생활	403
〈표 11-13〉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본인 친구관계	404
〈표 11-14〉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본인 친구관계	405
〈표 11-15〉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배우자 친구관계	407

〈표 11-16〉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배우자 친구관계	408
〈표 11-17〉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본인 부모와의 관계	410
〈표 11-18〉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본인 부모와의 관계	411
〈표 11-19〉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412
〈표 11-20〉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413
〈표 11-21〉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자녀를 갖는 문제	415
〈표 11-22〉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자녀를 갖는 문제	416
〈표 11-23〉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자녀 양육 문제	418
〈표 11-24〉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자녀 양육 문제	419
〈표 11-25〉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본인 음주 및 흡연 문제	420
〈표 11-26〉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본인 음주 및 흡연 문제	422
〈표 11-27〉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배우자 음주 및 흡연 문제	423
〈표 11-28〉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배우자 음주 및 흡연 문제	424
〈표 11-29〉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기타	426
〈표 11-30〉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기타	427
〈표 11-31〉 평일 기준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429
〈표 11-32〉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도(남편)	431
〈표 11-33〉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도(아내)	432
〈표 11-34〉 대화 주제(남편) - 1순위	434
〈표 11-35〉 대화 주제(아내) - 1순위	435
〈표 11-36〉 대화 주제 - 2순위: 남편, 아내	436
〈표 11-37〉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한 견해: 남편	437
〈표 11-38〉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한 견해: 아내	438
〈표 11-39〉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를 갖는 것이다」에 대한 견해: 남편	439

〈표 11-40〉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를 갖는 것이다」에 대한 견해: 아내	440
〈표 11-41〉 「자녀가 어릴 때 엄마가 일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에 대한 견해: 남편	442
〈표 11-42〉 「자녀가 어릴 때 엄마가 일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에 대한 의견: 아내	443
〈표 11-43〉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가 가정을 지키는 삶의 방식은 바람직하다」에 대한 견해: 남편	445
〈표 11-44〉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가 가정을 지키는 삶의 방식은 바람직하다」에 대한 견해: 아내	446
〈표 11-45〉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부모는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견해: 남편	448
〈표 11-46〉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부모는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견해: 아내	449
〈표 11-47〉 「결혼하면 가정을 위해 자신의 개성과 인생을 반 정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대한 견해: 남편	451
〈표 11-48〉 「결혼하면 가정을 위해 자신의 개성과 인생을 반 정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대한 견해: 아내	452
〈표 11-49〉 「결혼을 했더라도 인생에서는 배우자 및 가족과는 다른 자신만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견해: 남편	453
〈표 11-50〉 「결혼을 했더라도 인생에서는 배우자 및 가족과는 다른 자신만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견해: 아내	454
〈표 11-51〉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에 대한 견해: 남편	456
〈표 11-52〉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에 대한 견해: 아내	457
〈표 11-53〉 결혼 전 상황(남편): 아거나 어린아이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었다	459
〈표 11-54〉 결혼 전 상황(아내): 아거나 어린아이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었다	460
〈표 11-55〉 결혼 전 상황(남편):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부럽다고 생각했다	462

〈표 11-56〉 결혼 전 상황(아내):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부럽다고 생각했다	463
〈표 11-57〉 결혼 전 상황(남편): 결혼한 주변 친구를 보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464
〈표 11-58〉 결혼 전 상황(아내): 결혼한 주변 친구를 보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465
〈표 11-59〉 결혼 전 상황(남편): 같은 또래의 친구나 형제자매 중 자녀가 있는 이들이 많았다	467
〈표 11-60〉 결혼 전 상황(아내): 같은 또래의 친구나 형제자매 중 자녀가 있는 이들이 많았다	468
〈표 12-1〉 정책에 대한 의견(남편): 국가에서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6
〈표 12-2〉 정책에 대한 의견(아내): 국가에서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7
〈표 12-3〉 정책에 대한 의견(남편): 국가의 결혼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478
〈표 12-4〉 정책에 대한 의견(아내): 국가의 결혼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479
〈표 12-5〉 정책에 대한 의견(남편):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81
〈표 12-6〉 정책에 대한 의견(아내):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82
〈표 12-7〉 정책에 대한 의견(남편):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483
〈표 12-8〉 정책에 대한 의견(아내):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484
〈표 12-9〉 정책에 대한 의견: 임대주택 지원 인지도	485
〈표 12-10〉 정책에 대한 의견: 임대주택 지원 이용도	487
〈표 12-11〉 정책에 대한 의견: 임대주택 지원 도움 정도	488
〈표 12-12〉 정책에 대한 의견: 청년 일자리 정책 인지도	490
〈표 12-13〉 정책에 대한 의견: 청년 일자리 정책 이용도	491
〈표 12-14〉 정책에 대한 의견: 청년 일자리 정책 도움 정도	493
〈표 12-15〉 정책에 대한 의견: 임신·출산 정책 인지도	494

〈표 12-16〉 정책에 대한 의견: 임신·출산 정책 이용도	495
〈표 12-17〉 정책에 대한 의견: 임신·출산 정책 도움 정도	497
〈표 12-18〉 정책에 대한 의견: 보육·돌봄 정책 인지도	498
〈표 12-19〉 정책에 대한 의견: 보육·돌봄 정책 이용도	499
〈표 12-20〉 정책에 대한 의견: 보육·돌봄 정책 도움 정도	501
〈표 13-13〉 신혼부부 속성에 따른 자녀수의 차이	522

그림 목차

[그림 1-1]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1970~2018년	9
[그림 13-1] 가족 형성기 시점별 일자리 유무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508
[그림 13-2] 가족 형성기 시점별 사무 종사자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509
[그림 13-3] 가족 형성기 시점별 서비스 종사자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510
[그림 13-4] 가족 형성기 시점별 정규직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511
[그림 13-5] 결혼 이전 같이 산 사람(부모 및 조부모)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514
[그림 13-6] 결혼 이전 혼자 산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514
[그림 13-7] 결혼 이전 아파트/주상복합에서 산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515
[그림 13-8] 결혼 이전 다세대 주택(원룸 등)에서 산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515
[그림 13-9] 결혼 이전 무상으로 살고 있던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517
[그림 13-10] 결혼 이전 전세로 살고 있던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517
[그림 13-11] 결혼 이후 주거 유형 변화 추이: 신혼부부 주거	519
[그림 13-12] 결혼 이후 주거 점유 형태 변화 추이: 신혼부부 주거	520

Abstract <<

A Survey Study of Marriage and Childbirth Trends among Young Adults

Project Head: Sung-Ho Cho

Among the various reasons affecting marriage and childbirth in Korean Society, economic stability and housing seem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But it's getting harder to get a house for young people because the cost of housing continues its upward trend.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jobs and housing, which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arriage and childbirth. Due to the lack of data, the survey was conducted on newlyweds. In the survey, jobs and housing situations were identified at the time of graduation, first employment, beginning of the relationship with current spouse, marriage and childbirth, which are representative events of the life cyc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ynamic process from the encounter of couple to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m.

***Key words:** a newly-wed couple, work, housing, marriage, childbirth

Co-Researchers: Soo-Jung Byoun, Moon-Kil Kim, Ji-Min Kim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출산과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 자리와 주거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출산율 감소 배경의 특성 및 정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 변동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은 신혼부부(결혼지속기간 5년 이하)가 전체 출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신혼부부의 출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출산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조사 시점에서 출산을 한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이성 교제, 결혼, 출산을 경험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생애주기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미혼 시절에 대한 회고적 조사(retrospective survey)가 필요하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생애주기 중에서 가족 형성기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가족 형성기는 이성교제와 만나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시기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현재의 문제점과 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본 조사는 신혼부부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부부간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주요 연구 결과

결혼 형성기의 남편 일자리 비율은 첫 일자리 시점에서 88.6%,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74.6%, 결혼 시점에서 81.5%로 나타났고, 아내는 첫 일자리 비율이 84.7%,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68.1%, 결혼 시점은 65.1%로 조사되었다. 이 중 정규직 비율은 남편의 경우 첫 일자리 시점에서 84.5%,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94.3%, 결혼 시점에서 96.8%였으나 현재는 96.9%로 첫 일자리 시점 이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는 첫 일자리 시점에서 79.7%,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88.0%, 결혼 시점에서 89.7%로 점차 증가하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87.6%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소득은 272만 1000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는 326만 1000원, 결혼 시점에서는 337만 9000원, 현재 시점에서는 345만 9000원으로 첫 일자리 이후 점차 증가했다. 한편, 아내의 경우도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소득은 210만 4000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는 239만 2000원, 결혼 시점에서는 249만 5000원, 현재 소득은 259만 3000원으로 점차 증가했으나, 남편과의 소득 차이는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61만 7000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86만 6000원으로 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주거에서 주택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이 64.7%, 연립주택이 12.6%,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10.7%로 나타났고, 점유 형태가 전세인 경우가 53.7%로 가장 높고, 자가가 29.7%, 보증부 월세가 8.6%로 나타났다. 신혼집 마련 방법은 새로 구입한 경우가 87.4%로 가장 높고, 남편이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6.6%, 아내가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신혼집을 새로 마련한 경우의 비용은 남편(부모 포함)의 부담이 79.5%로 나타났고, 새로 마련한 신혼집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72.0%, 아내가 7.1%이며, 공동인 경우도 17.9%로 조사되었다.

신혼집 주거 비용을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2억 6188만 원, 전세가 1억 8171만 원,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282만 원에 월세 33만 1000 원, 보증금 없는 월세가 20만 7000원, 기타가 47만 9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신혼집의 경우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는데 서울·경기 신혼집과 그 외 지역의 비용 격차는 자가의 경우 2억 3145만 원, 전세는 1억 1766만 원으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것이 본 조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을 살려 분석한 결과, 자녀수는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경우, 남편의 연령이 아내보다 많은 경우에 가장 많고, 또한, 결혼의 목적이 자녀를 갖는 것이라고 남편과 아내 모두가 긍정할 때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속성 차이가 이들의 행동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남편과 아내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일자리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결혼으로 이행한 신혼부부들의 일자리 비율 및 정규직 비율이 같은 연령대의 미혼 남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안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결혼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년 고용 정책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혼부부는 전세 및 보증부 월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려 하며, 다세

대 주택 및 연립 주택에서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집을 새로 마련하는 비율이 매우 높는데, 비용이 높은 수준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조사 결과에서 서울과 지방의 주거 비용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정책의 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로 분절되어 있고, 일자리, 주거, 보육 및 교육으로 나뉘어 다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 ‘청년 생애주기 정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신혼부부,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제 1 부

도입부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장 조사 설계 및 구성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19년 8월,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 0.98을 기록했다고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명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여 1980년대 초반 인구대체수준인 2.1명 밑으로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1-1]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1970~2018년



자료: 통계청. (2018).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62004&themald=A#A2.2에서 2019. 10. 29. 인출.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은 점차 감소하여 2018년 합계출산율은 2명이 결 혼하여 1명의 자녀도 낳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출생아 수

는 1970년 100만 명이 넘었으나 2002년에 50만 명 선 밑으로 떨어졌고, 2018년은 약 32만 명이었다.

출산을 감소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계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만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임기 여성의 수와 이들이 출산한 출생아 수(자녀의 수)라고 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연령(15~49세)의 여성이 출산한 자녀수를 가임기 여성의 수로 나누어 더한 수치로 설명된다.¹⁾ 따라서 출산율의 감소는 분모인 가임기 여성이 증가하거나 이들이 출산한 자녀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 나타나는 구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모인 가임기 여성의 수에서 미혼 여성의 수이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이 0에 가깝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의 분모에는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만혼이 지속되어 미혼 여성이 증가하게 된다면 분모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 30대 초반(30~34세)의 미혼인구 비율은 1990년 9.7%에서 2015년 46.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²⁾ 생애미혼율³⁾은 남성이 10.9%, 여성이 5.0%로 나타났다.⁴⁾ 그뿐만 아니라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도 1990년 9.3%에서 2017년 5.2%로 감소하였다.⁵⁾ 이러한 현상은 만혼은 물론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비혼을 선택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출산

1) $TFR = \sum_{15}^{49} \frac{b_x}{p_x}$, p_x 는 x세의 여성 인구수, b_x 는 x세 여성의 출생아 수

2) KOSIS,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3) 50세 시점의 미혼율을 의미함.

4) 조성호, 스가 케이타, 와타나베 유이치, 시카타 마사토, 김유경, 김지민. (2017).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KOSIS,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을 감소 요인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혼 여성의 경우는 이들이 출산하는 자녀수, 즉 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이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증가한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출산 증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종합하면, 미혼 여성의 감소와 기혼 여성의 출산 증가가 합계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미혼 여성을 감소시키는 것, 즉 결혼을 하는 것이 첫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의 만남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성 교제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조성호(2018)의 연구에서 경제적인 요인이 이성 교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성 교제 상대와 결혼을 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이성 교제 연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혼인구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에도 현재 청년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비혼 선택, 혼인 이행 및 혼인·가족 가치관, 혼인과 관련된 조건 등을 다양하게 다루는 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뒤에서 언급하겠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혼인 및 출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표본 선정이 기혼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혼자 표본 선정에서 편향(bias)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미혼 남녀 조사는 조사의 부수적인 형태로 조사 대상자 수(현재 2,500명 내외)와 조사 문항 범위에 한계가 있어 청년 미혼인구의 실태를 충분히 담지 못한 단점이 있다.

한편, 출산은 신혼부부(결혼지속기간 5년 이하)의 출산이 전체 출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며(이상림, 이지혜, 2018), 이는 곧 신혼부부의 출산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출산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으나 2014년부터 실시되었던 ‘신혼부부 주거실태 패널조사’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고,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통계는 별도의 조사가 아닌 통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신혼부부를 추출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료의 내용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출산을 중단한 이유 중에서 연령 및 계획한 자녀를 낳은 경우를 제외했을 때, 일자리를 포함한 자녀의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⁶⁾ 그리고 미혼 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에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 및 신혼집 마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⁷⁾ 이것은 결혼과 출산에서 일자리(소득) 및 주거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출산율 감소 배경의 특성 및 정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출산율 변동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과 출산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청년의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 방향 수정 및 설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동향을 국제적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해 해외

6) 이소영 외(2018)에 따르면,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 중단 이유(1순위)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16.8%, 자녀 양육비 부담이 14.2%, 고용 상태 불안정(비정규직, 일용직, 실업 등) 및 소득이 적은 이유가 7.9%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일자리의 비중이 다른 요인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결혼을 하는 이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의 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7) 미혼 남성(30~44세)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이 적어서’가 10.9%,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가 8.3%로 둘째, 셋째로 높게 나타났다(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유사 조사들[예: 일본의 출생동향조사 중 미혼조사, Generation & Gender Program(GGP) 등]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일자리와 주거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생애주기 중에서 가족 형성기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가족 형성기는 이성과 만나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시기라고 정의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자리와 주거를 중심으로 가족 형성기에 걸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 형성기는 이성과 만나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상기 시점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의 변화를 파악한다. 그러나 일자리를 갖기 이전의 최종학교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종 학교 졸업 → 첫 일자리 → 이성 교제 → 결혼 → 출산 → 현재 시점에서의 일자리, 주거, 소득 등의 상황을 동태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자료가 필요하다.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행동을 파악하려면 적어도 이제 갓 성인이 된 이를 10~15년 이상 추적 조사 해야 하고, 만일 교육 과정까지 고려한다면 15~20년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⁸⁾

8)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시작되어 20여 년 진행되어 온 데이터로서 생애주기에 따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 이름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고용·취업 등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행동 및 가치관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대상은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교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조사 시점에서 출산을 한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이성교제, 결혼, 출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회고적 조사(retrospective survey)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는 미혼 남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연구 진행 과정의 내부 연구진 회의 및 자문회의 등에서 인터넷 조사의 샘플 편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샘플 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조사를 면접조사로 변경하였고, 한정된 예산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미혼인구 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신혼부부의 미혼 시절을 회고 조사 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조사 대상을 신혼부부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미혼인구에 대한 조사는 현재 이들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미혼인구 안에는 앞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혼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혼으로 이행한 이들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의 차이가 미혼 기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차이는 미혼조사에서 발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갓 결혼으로 이행한 이들의 미혼 시절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결혼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는 먼저 부부 공통으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을 모아 가구 대표자 조

사표를 구성하고, 일자리, 가치관 등의 개인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개인 조사표로 구성하였다. 일자리와 주거 변화는 각각 개인 조사표에서 조사하나, 결혼 이후의 주거 변화는 개인 조사표에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가구 대표자 조사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하였다.

개인 조사에서는 먼저 교육을 어디까지 이수했는지 파악하고, 첫 일자에 대하여 조사한다. 일자리는 근무 시기, 직종, 종사상 지위, 소득, 근로시간, 종사자수에 대해 파악하고, 주거는 같이 산 사람,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비용, 주택 규모, 지역에 대해 조사한다. 일자리의 경우는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첫 일자리, 현재 배우자와 교제할 당시,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현재를 조사하고, 주거 변화는 최종학교 졸업 당시, 첫 일자리 당시, 현재 배우자와 교제할 당시,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첫째 자녀 출산 당시, 현재를 파악한다.⁹⁾ 일자리와 주거 변화 이외에 배우자를 알게 된 계기, 부부관계 및 가족 관련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신혼부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추출된 표본을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수행하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일 낮에 이들을 만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정 횟수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방문 유치법을 병행한다.

9) 단, 출산과 일자리 변화의 경우, 남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여성은 출산 시점보다는 그 이후에 일자리가 유지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의 일자리를 조사한다. 또한, 본 조사의 대상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출산과 현재와의 간격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편의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출산 시점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직후 퇴직하는 비율이 많은 경우에는 출산 시점에서의 비율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박중서, 김문길, 임지영(2016)에 따르면 2015년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의 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 비율(395일 후)은 71.1%, 육아휴직 이용자의 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 비율(395일 후)은 2015년 67.8%로 나타나 둘의 모수가 같지 않아 절대적 비교는 불가하나, 만일 모수가 같다고 한다면 전체의 48.3%만이 실제 남아 있는 비율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과대평가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의 특징 중 하나로는 부부를 같이 조사하는 쌍(pair) 조사라는 점이다.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조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출산의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을 하는 주체가 여성일지라도 자녀를 갖는 것 자체는 부부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치관 등에서 부부의 차이를 볼 수 있고, 부부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은 태어나서 영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보내고 성인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갖게 되고, 부모로부터 경제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독립을 한다. 이후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들을 독립시키고 여생을 마치게 되는 과정을 지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순서가 다른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고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Arnett, 2000; Keeley, 1977; Furstenberg, 2010).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가족형성기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팬츠는 일자리가 부족해 첫 입직이 늦어지게 되면, 결혼이 늦어지게 되고, 출산 또한 늦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결혼 및 출산 이행에 있어서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 및 주거가 중요한 요인이며(Hughes, 2003; Oppenheimer, 1988), 경제적 상황 또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Gibson-Davis, 2009). 즉 성인기의 개인에게 주거가 경제적 상황과 상관성이 크고, 경제적 상황은 곧 일자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장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일자리와 주거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가족형성기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즉 한 개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자리를 갖고 이성 교제를 거쳐 결혼을 하고

이후 출산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자리와 주거가 결혼과 출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단,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이 매우 큰 국가이기 때문에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곧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산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개요 및 문항 그리고 해당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논문을 검토하여 기존 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본 조사의 지향점 및 특징에 대하여 논한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청년 중에서 미혼인구를 따로 조사하지 않지만, 회고 조사를 이용하여 미혼 시절을 조사하기 때문에 기존 청년 조사 중에 미혼인구를 포함하여 검토한다.

제1절 일자리 및 주거와 결혼·출산 관련 문헌 검토

1. 일자리와 결혼·출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상황과 결혼·출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먼저 일자리와 결혼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일자리와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가. 일자리와 결혼

박가열, 천영민(2011)의 연구는 2005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의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고용의 질과 결혼과의 관계를 검토했는데, 종사자 규모, 정규직 여부, 월평균 임금 변수를 일자리 질의 대리변수로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상기 세 개의 변수 모두 결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자영(2012)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2008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산 시간 생존 분석(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단, 박가열, 천영민(2011)에서와는 다르게 성별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졌다. 일자리와 관련된 변수는 결혼 시점에서의 일자리 유무, 정규직 여부 등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는 일자리가 있거나 정규직일 경우 결혼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반대로 결혼으로의 이행이 더디게 나타났다.

최필선, 민인식(2015)은 청년패널의 1차~7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산 시간 생존 분석으로 취업과 임금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취업일 경우에는 남녀 모두 결혼 해저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결혼 해저드는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호(2016)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의 1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Cox의 비례 해저드 모델(proportional-hazard regression model)로 분석하였다. 일자리 관련 변수는 결혼 시점에서의 취업 여부로 하였는데, 분석

결과, 결혼 시점에 취업한 상태의 여성은 결혼 해저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호 외(2017)는 청년 패널을 이용하여 Cox의 비례 해저드 모델, 이상 시간 생존 모형 등의 여러 분석법을 통해 취업 관련 변수와 결혼 해저드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취업 관련 변수는 취업 여부 등의 변화와 정규직 여부를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취업 변화, 즉 취업을 하게 되면 양쪽 모두 결혼 해저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규직의 경우는 남성에게만 결혼 해저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자리와 결혼의 관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이것은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이 다른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Becker, 1973; Keeley, 1977).

나. 일자리와 출산

다음으로 일자리와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민현주(2007)는 한국노동패널 자료(1998~2004년)를 이용하여 취업과 출산(둘째)의 관계를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을 했을 경우 및 비정규직일 경우에 출산 해저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98~2008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첫째 자녀 출산과의 관계도 분석했는데, 둘째 자녀 출산과 유사하게 취업을 했을 경우에 출산 해저드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민현주, 김은지, 2011).

류기철, 박영화(2009)의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1,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 출산 전후로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첫째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출산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삼식, 최효진(2014)에서는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형태와 출산 이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일자리 관련 변수는 취업 여부로 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을 한 경우 출산 확률이 감소하였다.

결혼 분석에서 살펴봤던 조성호(2016)에는 첫째부터 셋째 자녀까지의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단, 셋째 자녀의 경우는 취업 관련 변수가 부재하여 취업의 영향은 둘째 자녀까지만 분석되었다. 결과를 보면, 첫째, 둘째 모두 출산 당시 전후로 취업한 상태인 경우에 출산 해저드가 감소하였다.

일자리와 출산의 관계는 결혼과의 관계와 이론적으로 다르지만, 여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취업을 하거나 정규직일 경우에 결혼과 유사하게 출산 해저드도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출산은 기회비용의 산정에서 결혼과 다르다. 즉, 결혼은 본인만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되지만, 출산은 부부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결혼과 출산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여성의 기회비용이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에서도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주거와 결혼·출산

이번 소절에서는 주거와 결혼·출산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있는데, 주거와 결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나라는 결혼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결혼 이전의 주거는 대부분 부모님 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거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결혼 전 부모님 집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를 상세하게 조사한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노동패널조사는 조사 기간에 분가한 상태인 경우는 분가한 자녀를 조사하였지만, 조사 이전에 분가한 자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독립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주거와 결혼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전의 주거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¹⁰⁾

이에 반해 주거와 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주거에 비중을 둔 조사 데이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거와 출산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국 출산력 및 보건·복지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서미숙(2013)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변화와 출산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택매매, 전세 및 기타 주택 가격을 기본으로 변화율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6년과 2009년 자료를 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출산(종속변수)의 정의는 2004년 이후 출산 여부와 2007년 이후 출산 여부를 파악하여 이항 변수로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 매매가가 증가하면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증가하나, 전세 등의 경우에는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매가 상승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마련 비용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출산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저자는 설명하였다.

배호중, 한창근(2016)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신혼

10) 단, 변수정, 조성호, 이지혜(2018)에서는 청년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수집한 데이터로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의향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음.

초기 주택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존분석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혼인 당시 자가인 경우에 출산 해저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 해저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주거와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주거비 부담과 점유 형태, 거주 면적이 신혼부부의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2016)의 연구, 신혼부부가 출산을 지연하는 요인으로서의 주거 요인뿐만 아니라 상대적 임금을 도입한 연구가 있다.

천현숙 외(2016)는 ‘2014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거비 부담과 점유 형태, 거주 면적이 신혼부부의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로짓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 관련 비용이 증가할수록, 주택 규모가 작은 곳에 거주할수록, 점유 형태가 임차일수록 출산 연기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로 곽윤철(2017)에서는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조사’ 데이터로 주거비 부담 비율과 상대적 임금을 도입하여 출산을 미루려는 의향을 로짓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자녀일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 형태가 자가이면 출산 지연이 완화되었으나, 주거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면 출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임금은 본문에서 해석하지 않았지만, 출산 지연과 양(+)의 관계를 보여 주는데 성별에 따른 분석을 하지 않아 단언할 수 없으나, 이것은 아내의 기회비용 효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주거비 관련 변수는 출산 지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2개의 분석은 실제 출산으로 이행하는 경우를 분석한 것이지만, 앞으로 출산할 계획 등의 출산 의향도 현재 주택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상포, 노정현(2017)은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택의 여러 속성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 계획은 주택이 자가일 경우에는 증가하고 전세 이외의 임차일 경우에는 감소하였다. 박서연(2019)은 ‘2016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계선형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상포, 노정현(20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차일 경우에 비하여 자가일 경우 출산 의향이 증가하고, 지역 평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출산 의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주거와 출산의 관계를 분석한 몇몇 연구 중에는 출산과 주거 상황의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이 있었다. 즉, 현재의 출생아 수를 종속변수, 현재의 주거 상황을 독립변수로 두고 분석하였는데 이것은 출산 당시와 현재의 주거가 같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이는 결과에 편의를 발생시키기에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

주거와 출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주택 가격 및 소유 형태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가의 경우가 임차의 경우보다 출산 확률(해저드) 및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택 가격(주거비 부담 비율 포함)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조사’는 가구 대표자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출산 의향 등과 관련하여 부부 중 한쪽 정보만 파악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분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¹¹⁾

11) 만일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게 되면 그것은 부부의 의향이라기보다는 가구 대표자의 성별에 따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 2014년 데이터에서 남녀 비율을 보면, 남성의 비율이 22%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제2절 기존의 청년 관련 조사 검토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청년 관련 조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각 조사의 개요 그리고 각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을 정리하여 각 조사들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 조사가 지향하는 영역을 파악하고 본 조사의 특징 및 본 조사가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한다.

1. 청년패널조사

가. 청년패널조사의 개요

청년패널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청년패널2001(YP2001)이 실시되었고, 2007년부터는 청년패널2007(YP2007)이 실시되고 있다. 청년패널2001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조사)’의 부가조사로, 청년층의 학교생활부터 사회 경제 활동, 가계 배경 등 청년 노동시장 정책 수립 및 청년 실업 해소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년패널2007에서는 기존 패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저연령대 청년 통계를 보완하였고 청년노동시장 및 학교생활의 시의성을 확보하고자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만15~29세 청년을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청년패널2001은 당시 만 15~29세 청년 5,956명을 6년간 추적조사하였고 청년패널2007은 당시 만 15-29세 청년층 1만 206명을 추적조사하고 있다. 청년패널2007의 경우, 표본 유지율은 2차 조사에서 91.2%, 3차 조사에서 86.5%이었고 가장 최근 조사인 11차 조사(2017년)에서는

70.6%의 표본 유지율을 보였다. 2007년 당시 만 15~29세였던 패널응답자의 연령은 2017년 조사에서 만 25~39세 표본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청년 패널의 궁극적 목적인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은 용이해졌으나 기존 조사 연령인 15~29세 연령은 대표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5년에 15~22세 추가패널 3516명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92.4%의 표본 유지율을 보였다.

조사 방법의 경우 청년패널2001은 면접원이 조사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질문하고 그 응답을 기록하는 면접타개식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문지를 유치하여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청년패널2007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개인 면접조사(CAPI)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편조사와 전화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공통문항과 응답자 유형에 따른 문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통문항은 혼인 상태, 군 경험, 가구 및 부모 배경, 지난 조사 시점과 현재 조사 시점 사이의 일자리 정보, 자격증 및 직업훈련 관련 사항 등이다. 응답자 유형에 따른 문항은 응답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생활 관련 문항, 아르바이트 및 진로 관련 문항 등으로, 취업자인 경우 현 직장(동시 일자리 포함) 중심으로, 학생이 아니면서 미취업자인 경우에는 구직활동, 구직 동기에 관한 심리척도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청년패널 2001과 청년패널2007의 문항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 청년패널2001, 청년패널2007 문항 비교

대상	청년패널2001	청년패널2007
가구용 설문 (모든 유형 공통 설문)	• 가구원의 인적사항 • 변동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 • 주거상태변화 • 가구의 소득 • 패널유형 판정	• 개인공통(현 거주지, 만 14세 무렵 독립 여부, 부모학력, 부모 현재 직업, 군복무 경험, 혼인 상태, 가족관계) • 일자리 경험(지난 조사와 현재 조사 사이에 경험한 일자리) • 취업준비(준비시작시기, 취업을 위한 노력, 취업 준비 시 어려운 점, 구직정보 획득경로, 희망연봉 등) • 취업자의 경우 이직준비 • 시험준비(고시, 자격증 등 시험 준비기간, 방법 비용 등) • 해외연수 경험 • 진로결정(진로결정 여부, 졸업 후 예상 진로, 희망직업, 직업선택기준) • 진로지도(상담) 경험 • 직업교육훈련 경험 • 자격증 보유 여부 • 직장체험프로그램 경험
고등학생 (2007부터는 중고등학생)	• 학교생활 변화 관련 문항 • 아르바이트 경험 • 사교육, 해외연수 경험, 여가활동 • 진로(진로결정 여부, 졸업 후 예상 진로, 희망직업, 직업선택기준) • 취업준비(준비시작시기, 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정보 획득경로 등) • 진로지도(상담) 경험 • 5차 조사 이후 일자리 경험 • 직업훈련 및 자격증 • 개인공통(부모님 현재 직업, 군복무 경험)	• 현재학교생활(입학경로, 현재학년, 학교성적, 학비부담, 학교명, 학교 소재지, 계열, 희망최종학위) • 아르바이트 경험 • 사교육 경험 • 진로(진로결정 여부, 졸업 후 예상 진로, 희망 직업, 직업선택기준) • 진로발달(심리척도)
대학생 및 대학원생	• 학교생활 변화 관련 문항 • 아르바이트 경험 • 교육평가(15개 능력의 중요척도, 고등학교교육의 각 능력별 도움 여부) • 사교육, 취업 사교육, 해외연수 경험, 여가활동 • 진로(진로결정 여부, 졸업 후 예상 진로, 희망직업, 직업선택기준)	• 현재학교생활(입학경로, 현재학년, 학교성적, 학비부담, 학교명, 학교 소재지, 계열, 희망최종학위) • 아르바이트 경험 • 휴학 경험 • 취업사교육 경험 • 진로발달(심리척도)

28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대상	청년패널2001	청년패널2007
	• 취업준비(준비시작시기, 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정보 획득경로 등) • 시험준비(고시, 자격증 등 시험 준비기간, 방법, 비용 등) • 진로지도(상담) 경험 • 5차 조사 이후 일자리 경험 • 직업훈련 및 자격증 • 개인공통(혼인 상태 변화, 부모님 현재 직업, 군복무 경험)	
취업자	• 현 직장(산업, 직업, 근무시작시기, 종사상 지위, 직무만족도, 근무시간, 임금 등) • 동시일자리(산업, 직업,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임금 등) • 교육평가(15개 능력의 중요척도, 최종학교교육의 각 능력별 도움 여부) • 진로(현 직장 지속 여부, 앞으로의 계획) • 직업전환준비(준비시작시기, 취업을 위한 노력, 희망직업 등) • 시험준비(고시, 자격증 등 시험 준비기간, 방법, 비용 등) • 재학학교 관련 문항 •진로지도(상담) 경험 • 5차 조사 이후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및 자격증 • 개인공통(혼인 상태 변화, 부모님 현재 직업, 군복무 경험)	• 현 직장(산업, 직업, 근무시작시기, 종사상 지위, 직무만족도, 근무시간, 임금 등) • 동시일자리(산업, 직업,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임금 등) • (취업자 중 학교 재학인 경우)현재학교생활(입학경로, 현재학년, 학교성적, 학비부담, 학교명, 학교 소재지, 계열, 희망최종학위)
미취업자	• 경제활동상황 • 구직활동(구직기간, 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정보 획득경로 등) •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항목 • 시험준비(고시, 자격증 등 시험 준비기간, 방법, 비용 등) • 교육평가(15개 능력의 중요척도, 최종학교교육의 각 능력별 도움 여부) • 진로지도(상담) 경험 • 5차 조사 이후 일자리 경험 • 직업훈련 및 자격증 • 개인공통(혼인 상태 변화, 부모님 현재 직업, 군복무 경험)	• 경제활동상황 • 구직활동(구직기간, 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정보 획득경로, 희망연봉 등) •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문항 • (미취업자 및 취업준비생만 응답)구직동기(심리척도)

대상	청년패널2001	청년패널2007
기타	-	• 시간활용 및 인상적 경험력(YP2007 2차 조사에서만 조사) • 부모와의 문화적 교류(중고등학생 유형만 YP2007 2차 조사에서만 조사) • 건강과 스트레스(3, 6, 9차 조사)

자료: 박상현, 장재호, 최형아, 김귀성, 조지용, 김기현 ... , 최영섭. (2007). 청년패널 종합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조민수, 박정아. (2018). 청년패널2007 11차(2017) 조사 기초 분석보고서.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나. 청년패널조사의 특징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패널조사는 설문지 첫 페이지에서 “본 조사는 청년층의 취업형태, 직업이동과정, 학교생활, 직업교육 훈련, 자격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청년층 고용안정과 정부정책 수립 및 청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라고 조사의 목적을 정의하였다. 즉, 청년의 고용 동향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청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청년패널조사는 주로 청년취업자의 특성, 취업준비, 이직, 실업자 유형 및 특성, 노동시장 이행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청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정호(2004)의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 1라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이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주희진, 주효진(2017)에서는 청년실업자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청년실업자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김경범, 이주현, 노진원, 권영대(2016)는 청년 취업자들이 이직을 준비하게 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문영만, 홍장표(2017)는 이직 결정요인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임금효과를 검토했다. 임금효과와 관련된 다른 연구로

는 노조에 가입하는 결정요인과 노조가입에 따른 임금효과를 검토한 김정우(2015)의 연구가 있다.

강순희(2010)는 1라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를 탐색하고 있으며, 탐색 방법에 따라 취업 성과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 다른 관점에서의 취업 성과는 류장수(2005)의 연구로서 1라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했다. 이 외에 고용노동자로서가 아닌 경영자로서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박미려, 양영석, 김명숙(2017)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청년 창업자의 역량과 경영성과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청년층의 학력과잉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김주섭(2005)은 고학력화가 증가함에 따라 하향취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의 학력과잉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서, 1차 라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력과잉 발생확률 결정요인과 학력과잉 상태변화, 학력과잉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분석했다. 또한 황광훈(2018)에서도 학력과잉에 따른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강순희(2014, 2018)는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을 일정 기간 사이마다의 이행과 취업결정요인을 통하여 분석했고(강순희, 2014),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해서도 분석했다(강순희, 2018).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대하여는 외환위기 직후와 국제금융위기 직전의 두 코호트 간의 비교를 통하여 이행과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노동 시장과 관련된 분석 이외의 연구로서는 백순근, 길혜지, 김미림, 박경인(2012)의 대학(원)생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분석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라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업을 위한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 및 사교육비,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과목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외에 첫 입직과 결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조성호 외, 2017).

2.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개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2013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전국 청년의 삶과 일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이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일과 노동, 주거, 결혼과 가정, 여가와 소비, 사회적 인식, 미디어와 소통 총 7개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2015년에는 2013년 조사의 지표체계를 검토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표본은 동일하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000명을 조사하였다. 2013년과 2015년의 조사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2013, 2015 주요 문항 비교

영역	2013	2015
교육	교육욕구 및 인식, 대학전공선택 이유, 대학등록금 마련 방법 및 실태, 생활비 지출 규모, 스펙경쟁에 따른 스트레스 등	2013년 문항 + 각종 스펙쌓기 여부, 취업 유예 경험 및 기간, 일-학습병행제 인지 및 의견, 고시생/공시생 시험 여부 등
일/노동	취업자 취업경로, 하향취업 여부, 근로여건 만족도, 창업희망 여부 및 분야, 창업 시 애로사항,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 등	2013년 문항 + 니트 경험 여부, 취업관/기업가정신에 관한 의견 등
주거	주거 형태, 주거비 및 대출실태, 주거생활 및 이동, 주거 부담으로 인한 영향, 주거 만족도, 주거 관련 인식 등	2013년 문항 + 출산/양육지원 정책 평가 등
결혼과 가정	결혼실태, 출산(희망)시기 및 그 이유, 육아 부담 실태,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여부 등	좌동
여가/소비	비중이 큰 소비활동, 저축실태 및 방해요인 등	좌동

32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영역	2013	2015
사회적 인식	주관적 삶의 질, 성공에 대한 인식, 사회참여 활동, 사회적 불안요인 및 해결 조건 등	좌동
미디어와 소통	뉴스를 주로 접하는 매체, 주로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이유, 평균 포스팅 횟수, 진로 및 인생 설계 등	좌동

자료: 배상률, 황여정, 김소라. (2013). 2013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2015).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서울: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부터는 2016~2020년 5개년 계획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하에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현시대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5-39세 일반 국민으로, 2016년에는 목표표본을 2500명으로 설정하여 2534명이 조사에 응하였고 2018년에는 목표 표본을 확대하여 3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하였고 실제 응답자수는 3133명이었다. 조사는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를 활용하고 종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가구 방문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부터 조사되고 있는 설문 내용은 크게 인구와 가족, 교육, 경제,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와 가족 영역은 원가정으로부터의 독립,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과 관련 계획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 영역에는 입시경쟁과 우리 사회의 교육 관행에 대한 의견, 대학 진학과 졸업, 취업준비와 직업 훈련에 관한 인식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선호하는 일자리, 적정 최저임금과 실제 생활비, 창업에 대한 생각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관한 내용, 이직 의사 등을 질문하였다. 주거 영역에서는 집에 대한 인식과 공동주거 등의 내용을, 건강 영역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 운동

여부와 외모나 성형수술에 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문화와 가치관 영역은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계와 참여 영역은 청년들의 사회적 경험과 외출이나 혼자 지내는 생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2017년 조사 주요 문항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3〉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2016, 2017 주요 문항 비교

영역	2016	2017
인구와 가족	청년층 인구수 청년 연령규정 등	청년 연령규정 결혼을 망설인 이유 확대해야 하는 출산 및 육아대책 등 2025년 출산율에 대한 생각 등
교육	대학등록금 대학졸업 소요기간 졸업 유예 등	2025년 입시경쟁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 교육 관행에 대한 의견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등
경제	경제활동 참여율 청년 소득 선호 일자리 직무 불일치 등	선호 일자리 유형 2019년 걱정 최저임금 직무 불일치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등
주거	청년 가구 비율 청년 주거 빈곤 부모 동거 공동주거 등	부모 동거 공동주거 경험 및 의향 현재 주거 형태 등
건강	비만율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등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 규칙적 운동 여부 및 빈도 등
문화와 가치관	여가생활 여가활동 대상 계층의식 생활 만족도 등	가치항목별 선호도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및 요건을 갖춘 정도 등
관계와 참여	사회적 관계망 세대갈등 의견 표명 행동 정치 성향 등	사회적 관계망 세대갈등 의견 표명 행동 정치적 효능감 등

3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영역	2016	2017
사회적응	-	평소 외출 정도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및 지속기간 혼자 식사 및 술을 마신 경험 여부 등

주: 2018년은 보고서에 주요문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표에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b).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II -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특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개요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의 고용이 부진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
 에서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먼저 살펴본 한국고
 용정보원의 청년 패널 조사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부가조사로서 니트
 (NEET), 학교졸업자, 하향취업자¹²⁾ 등을 특별 주제로 삼아 고유한 조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아직 자유롭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분석보고서 등의 연구원 내부의 보고서 정도만을 연구
 성과로 찾아볼 수 있다(배상률, 황여정, 김소라, 2013;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a;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b; 김기현, 배상률, 성재
 민, 2018).

12) 니트는 2018년, 학교졸업자는 2019년에 이루어지고, 하향취업자는 2020년 이루어질
 예정임(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3.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 부가조사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 부가조사의 개요

거시경제 분석, 인력자원 개발 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국민의 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만 15~34세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층 부가조사의 목적은 청년층의 취업 현황 및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만 15~34세이지만 조사 결과는 만 15~29세를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다. 조사 항목은 24개로, 최근의 학력 관련 현황, 교육 및 직업훈련 경험, 취업 경험 등이다. 조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4〉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문항

영역	항목 및 문항
교육 및 훈련	- 가장 최근에 다닌 학교 • 입학·편입시기 및 졸업·중퇴·휴학시기 • 학제 • 재학 중 휴학 유무 및 사유 • 편입 여부 및 시기
	- 학교교육 외 직업훈련 경험 여부 및 시기
	- 직업훈련 기관
	- 취업시험 준비 여부 및 분야
직업	-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취업 포함) 유무 및 형태
	-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취업 포함) 기간
	- 졸업·중퇴 후 취업횟수
	- 첫 직장 • 종사상 지위

영역	항목 및 문항
	• 취업 당시 월평균 임금(수입) • 취직·이직시기, 이직사유 • 산업, 직업
	- 직장 취업경로
	- 전공과의 일치 정도
	- 미취업 기간
	- 미취업 기간 동안 활동상태

자료: 통계청, (2019. 7. 16.)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통계청 보도자료.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511&call_from=seoul_paper.에서 2019. 9. 11. 인출.

나.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 부가조사의 특징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추가됨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고용 관련 통계가 풍부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단편적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었던 것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기까지의 기간, 임금 수준, 첫 일자리 평균 근속 기간,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시험 준비 등에 대하여 상세한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배경으로 하여 모든 청년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금재호, 2012a),¹³⁾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는지에 대한 분석(금재호, 2012b), 청년들의 재취업 과정이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금재호, 2013).

13) 단, 상기의 연구는 청년층 부가조사만이 아닌 본 조사를 병행하여 분석했다.

4. 한국노동패널조사 - 청년부가조사

가. 한국노동패널조사 - 청년부가조사의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3차(2000년), 9차(2006년), 19차(2016년) 조사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진행하였다. 부가조사에서 청년 연령은 3차 조사의 경우 만 15~30세 미만, 9차 조사에서는 만 15~35세 이하, 19차 조사에서는 만 15~34세 이하로 조사마다 상이하다. 각 부가조사별 조사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5〉 한국노동패널 청년부가조사 연도별 비교

조사 시기	3차 연도(2000년)	9차 연도(2006)	19차 연도(2016)
조사 대상	만 15~30세 미만	만 15~35세 이하	만 15~34세 이하
조사 목적	청년 실업 문제와 청년 유휴인력 문제, 학교에 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 에 관한 심층적 규명	청년층의 성장 당시 가 족 및 학교생활과 현재 의 구직활동, 취업, 임 금 등과 같은 노동시장 행태와의 연관성 파악	청년층의 교육과 취업, 청년고용정책 및 주관적 인식 등 파악
조사 내용	학력, 자격증 및 훈련, 구직활동, 첫 일자리	취학 전, 취학 이후 초 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의 사교육, 성적, 일자 리 경험, 첫 일자리의 특성, 가족 들과의 일상적 관계, 청 년층 무업자(NEET)의 행태 등	교육, 취업준비, 취업의 사, 첫 일자리, 현재 상 태(NEET), 청년고용정 책, 주관적 인식 등

자료: 김유빈, 이지은, 신선옥, 이혜정, 정현상. (2018). 한국노동패널유저가이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나. 한국노동패널조사 - 청년부가조사의 특징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1차 이래, 2019년 22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패널조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조사 조사에서는 그동안 청년과 관련된 부가조사가 세 번 실시되었는데, 이 조사의 장점은 메인 조사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조사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조사와 비교하면 가구 정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부가조사와 결합하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의 표본수가 적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이용한 분석을 살펴보면, 안주엽, 홍서연(2002)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상승하는 현실을 배경으로 2000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최종학교를 마치고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분석을 했고, 이병희(2002)에서는 2000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첫 일자리로의 이행 과정과 임금과의 관계, 또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경향이 지속되면 앞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부가조사를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앞의 선행 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인 조사를 이용하여 결혼·출산 관련 분석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민현주, 2007; 민현주, 김은지, 2011; 배호중, 한창근, 2016; 윤자영, 2012).

5. 주거실태조사 - 신혼부부 조사, 청년 가구 조사

가. 주거실태조사의 개요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국토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조사이다. 조사 목적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파악하고 다양한 국민계층의 특성에 부응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일반조사와 정책조사(특성가구 조사)를 격년으로 번갈아 실시하였고 2017년부터는 표본 규모가 확대되어 매년 일반가구 조사를 시행하고 일반가구 조사에 특성가구 조사를 포함하였다. 특성가구는 청년 가구(가구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신혼부부 가구 1(혼인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아내 연령이 4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2(혼인한 지 7년 이내이면서 아내 연령이 49세 이하), 노인 가구, 저소득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표본수는 6만 1275가구이고 이 중 청년 가구는 13.2%, 신혼부부 가구는 5년 이내 8.1%, 7년 이내 10.6%가 조사되었다.¹⁴⁾

조사 내용은 공통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조사 내용과 가구특성별로 추가되는 추가조사 내용이 있다. 우선 일반조사의 조사 내용은 주택 마련, 주택 및 주거 환경 관련 문항, 이사 경험 및 의향, 계획에 대한 문항,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도 등, 가구 소득과 자산을 비롯한 가구 기본 사항, 배경 문항 등이다. 특성가구 조사 문항 중 청년과 신혼부부 조사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가구 중 무주택 가구에겐 주택

14) 특성가구는 중복집계로, 청년이면서 신혼부부인 경우 양쪽에 집계되었다(강미나 외, 2019, p. 15).

구입 의향 및 예상 소요 연수 등을 추가로 질문한다.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가족계획, 자녀 보육시설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고 자가 소유 가구에는 주택 마련 방법을, 무주택 가구에는 주택 구입 의향 및 예상 소요 연수, 부모와의 동거 계획 및 그 이유 등을 질문한다. 조사 항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6〉 주거실태조사 주요 조사 항목

대분류	중분류	기본 조사 항목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 마련	가구주가 된 연도, 현재주택 거주 연도, 점유 형태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경험(시기, 마련 기간, 규모) 거주 외 주택 보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자가: 주택 마련 시기, 주택 마련 방법, 주택 가격, 구입 자금 조달 방법 차가: 임대주택 유형, 임차료, 재계약 여부, 계약 변동 사항 및 금액, 임차 자금 마련 방법, 임대료 인상 대응 방안 및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 임차로 살면서 느끼는 불안감 주택의 임차료 및 월대출 상환 부담 수준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 유형, 주택 위치, 주택 건축 연도, 주택구조, 주택 면적, 주택 내부시설 사용 형태, 주택상태,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
주거의식 및 주거계획	이사 경험	이사 경험 여부, 이사 횟수, 직전 주택 지역, 직전 주택 주택 유형, 직전 주택 점유 형태, 직전 주택 위치, 직전 주택 구조, 직전 주택 면적
	이사 의향 및 이사 계획	이사 계획, 이사 이유(현재/향후), 이사 계획 중인 지역, 이사 계획 중인 주택 유형, 이사 계획 중인 점유 형태
	주거의식 조사	주택보유의식
정책평가 및 정책 수요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프로그램 인지 여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만족도, 공공임대주택 만족 및 불만족 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및 그 이유, 공유주택(세어하우스) 입주 의향
		주거상담 프로그램 인지 여부, 주거상담 이용 경험, 이용하지 않는 이유, 주거상담 이용 의향, 원하는 주거상담 방법
가구 사항	가구 현황	가구구성(출생연도, 성별,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실제동거 여부, 장애 여부), 혼인 10년 이내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수급급여 종류
	가구소득 및 자산	가구 월소득, 가구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주거관리비(동절기, 하절기, 간절기),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 총자산, 부채 유무 및 부채액

대분류	중분류	기본 조사 항목
배경 문항	가구주 학력, 경제활동 여부(직업, 근무형태, 고용형태, 통근수단, 통근시간)	
특수가구 추가조사 문항	신혼부부	(자가) 주택 마련 방법, (무주택가구) 주택 구입 의향 및 예상 소요 연수, 부모와의 동거 계획 및 그 이유, 자녀 보육시설, 가족계획
	노인가구	주택개조 경험 유무 및 향후 개조 필요성, 주택개조 시 어려움
	청년가구	(무주택가구) 주택 구입 의향 및 예상 소요 연수

자료: 강미나, 김혜승, 김근용, 이수옥, 박미선, 이재춘, ... 권건우. (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세종: 국토연구원.

나. 주거실태조사의 특징

국토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는 “가구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주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다양한 분석을 이끌어 내어 정부가 적절한 주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근용 외, 2007, p. 1). 조사가 시작된 지 10년 이상 지났고, 조사 데이터가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실태조사는 특성가구 조사로 청년 가구 및 신혼부부 가구, 노인 가구, 저소득 가구도 조사되어 있으며, 특히 청년 가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현정(2015)의 연구에서는 2012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34세의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 실태를 지역별로 비교하였고, 유사한 연구로서 문소희, 이현정(2017)의 연구에서는 2014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년 1인 임차가구를 유형화하고 현재 주거 실태와 다음 주거 기대에 대해 집단별로 비교분석 했다. 신혼부부와 관련해서는 박천규, 이영(2010)이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혼 후 3년 이내 출산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 및 현재 주택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했다.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어 왔는데, 2010년 데이터로 주거 이동 특성이 현재의 주거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권기현, 정지은, 전명진, 2013), 2012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 주택의 거주 특성 및 점유 특성이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주거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정병호, 정재호, 2015), 2016년 데이터로 생애 주기적인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사이의 주거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손희주, 남궁미, 2018).

주택 점유 형태와 관련된 연구로 유창형(2015)의 연구에서는 주택 점유 형태의 선택 요인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시 계획 수립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손상락, 윤동준(2011)은 귀농·귀촌 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주거 선택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도시 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연구로서 임세희(2015)는 2014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서안나, 여창환, 김재익(2016)의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면적과 시설로 분류하여 이들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외에 그동안 농촌 지역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이들의 주거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배경하에, 이연숙, 박지연, 이동주(2015)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 지역 장애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주거를 계획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가.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개요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는 횡단면 조사인 주거실태조사가 주거의 동태적 연속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책적 실효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실시되었다. 조사는 종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1:1 대면 면접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신혼부부를 혼인 후 5년 이내와 7년 이내로 하였으나,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서는 신혼부부를 혼인 후 5년 이내로 한정하였다. 표본설계는 인구동태통계의 혼인통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2014년 1차 조사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초혼 가구 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김남정 외, 2014).

조사 내용은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주거경험과 계획,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 가족구성 및 가계상황 등이다. 또한, 당시 일반 가구 대상이었던 주거실태조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문항은 주거실태조사와 같게 구성하였다. 특히, 신혼부부 대상 정부정책이 강화되는 추이를 반영하여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별 선호도, 필요도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는 기존 주거실태조사와의 중복 문제 및 신혼부부의 일부가 매년 바뀌는 문제¹⁵⁾ 그리

15) 신혼부부 주거실태 패널조사에서는 신혼부부를 혼인 후 5년 이내로 정의하였는데, 1년 후에는 5년 차의 부부가 신혼부부가 아니게 되어 패널 표본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표본을 추적 조사 하는 패널의 기본적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조사 개시 후 5년 후에는 1차 연도의 표본이 전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로 제3차 조사인 2016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조사 항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7〉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주요 조사 항목

구분		조사 내용
기본정보		혼인신고 시기, 실제 결혼시기, 남편과 아내의 나이 및 국적
주거	결혼 준비	결혼 전 독립 기간 거주 특성(거주 기간·주택 유형·점유 형태·주택 비용·주택 비용 마련 방법), 결혼 전 희망 주택 특성(주택 유형·점유 형태·주택 비용)
	주택 마련 거주주택	주택위치 고려 사항, 부모집과의 거리, 주택 선택 고려 사항, 주택 마련 방법, 주택노후도, 주택 규모, 점유 형태, 주택가격, 전·월세 보증금 인상 시 대응 방법, 소유주택 수, 주택 비용 마련 방법, 결혼 이후 최초 자가주택 마련 시기
	주거만족	주택 기본환경 만족도, 주택환경 만족도, 주거지역환경 만족도
	주거이동	이사 경험(이사 경험 유무, 이사 횟수, 직전 주택의 유형·점유 형태·지역 및 변화, 이사 동기 및 특성), 이사계획(이사계획 유무·주택위치 고려사항·부모 집과의 거리·주택선택 고려사항·이사지역·이사이유·이사 할 주택의 유형·주택 규모·점유 형태·가격·주택 비용 마련 방법), 직전 연도 주거이동 계획과의 변동 이유
	주거의식	내집마련 필요성 및 이유, 내집마련 예상 소요기간, 내집마련 여건 변화, 적정 주택 규모, 수용 가능 주택 노후도, 거주주택과 직장과의 적정 거리, 공공 임대주택 입주 의향 및 관련 정보 습득 방법, 공공임대주택 입주 선호 환경
	주거정책	주택자금 마련 대출상품 이용 경험 및 계획, 정보습득 방법, 신혼부부 지원정책 선호도(확대 또는 강화 필요 정책·육아정책 중요도·주택마련정책 중요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필요 정책
생활	생활	문화·외식·여행·쇼핑 빈도, 최대 관심 사항
	자녀	자녀 유무, 자녀수, 자녀계획 및 이유, 육아·보육 장소 및 방법
	세대	동거가족 수, 세대구성, 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이유, 분가·합가 계획 및 목적, 부모집과의 거리
	직업	남편과 아내의 직업종류 및 근무형태,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 및 교통수단, 직장변동 계획, 맞벌이 및 외벌이 이유
	소득	세전 연소득, 세후 월소득
	지출	월 지출내역(항목 및 지출액)
	저축, 보험	저축목적, 주택 마련 청약상품 가입 여부 및 가입 목적
	대출, 융자	부모로부터의 생활보조 지원 유무, 대출·융자 현황(이용 유무 및 목적·이용 기관·상환부담·상환방법·부담 가능 상환금액)

주: 결혼 준비 항목은 혼인 1년 차 응답자에게만 질문함.
 자료: 김남정 외. (2016). 3차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나.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특징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는 기존 주거실태조사가 횡단면으로 매번 새로운 표본으로 구성되어 동일한 개인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측면에서 시작된 조사로서 특히 앞으로 새로운 주택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큰 신혼부부에 대해 추적 조사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 조사 실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혼부부 정의의 특성상 패널 데이터가 될 수 없는 한계 등으로 인하여 3년 만에 조사가 중단되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년 만에 조사가 중단되었음에도 이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매우 많이 발견된다. 이는 누구라도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저출산 기조에서 주거가 결혼 및 출산의 장애로 인식되면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신혼부부에 대한 데이터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까지 신혼부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가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를 이용한 연구는 최근 나날이 높아지는 주거 비용이 결혼 및 출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규명하려는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경제적 활동을 시작한 직후거나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거 마련을 위한 주변 및 금융기관의 지원 실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종훈, 이

성우(2017)에서는 부모의 지원과 신혼부부 간의 주거경제적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고, 이와 유사하게 정관석, 이재우(2018)에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주거 점유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했다.

또한 신혼부부가 언제 자가 주택을 구입하고 이러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이창효(2015)의 연구, 신혼부부가 자가를 선택하는지 차가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전세를 선택하는지 월세를 선택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신영식, 이현석(2017)의 연구는 신혼부부의 주거 점유 형태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이 외에 앞의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주거와 출산 의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다수 있다(곽윤철, 2017; 이상포, 노정현, 2017; 박서연, 2019; 천현숙 외, 2016).

7. 신혼부부통계

가. 신혼부부통계의 개요

신혼부부통계는 통계청에서 201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자료로, 신혼 부부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공공기관 및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자료와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통계로 구축하여 발표하는 자료이다. 통계자료 구축의 목적은 저출산 주요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 통계를 2016년에 발표한 이후 2018년에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신혼부부통계 결과가 발표된 상황이다.

신혼부부통계는 혼인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이며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한다. 혼인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또는 혼

인을 했음에도 신고를 미루고 있는 부부는 통계에서 제외되므로 자료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계 항목은 가구 및 세대 구성(인구, 가구 DB), 주택소유 현황(주택소유통계), 맞벌이 여부(일자리 행정통계), 영유아 보육 형태(보육자료), 소득(소득자료)과 소득구간별 신혼부부 분포 및 출산 현황, 금융권 가계대출(금융권 대출자료)이다. 신혼부부통계의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8〉 신혼부부통계 항목

구분	항목
인구 특성	혼인 연차, 혼인 종류, 혼인 연령, 직업, 교육 정도, 다문화 혼인
가구	세대 구성, 가구원수
자녀	출산 자녀수, 첫째 자녀의 출산 소요 기간, 첫째 출산 후 둘째 자녀의 출산 소요 기간, 영유아 보육 형태
경제활동	맞벌이 여부, 소득(부부의 근로·사업소득),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	거처 유형, 주택 소유물건 수, 소유주택 명의, 주택자산 가액

자료: 통계청, (2018. 12. 11.)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m.kostat.go.kr/board/file_dn.jsp?aSeq=371979&ord=2에서 2019. 8. 30. 인출.

나. 신혼부부통계의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신혼부부통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먼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수로 통계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통계는 신혼부부를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부부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기간 내에 혼인신고한 모든 신혼부부의 수 그리고 혼인신고 시에 제출된 정보(생년월일, 학

력 등)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표본조사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표본 편향성(bias)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라는 키 변수(key variable)를 이용하면 인구주택총조사의 정보까지 통계 산출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산출할 수 있는 통계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즉, 혼인신고를 할 때의 정보와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한 정보 그리고 최근의 통계에서는 금융권 가계대출 정보까지 연계하여 수치를 산출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실적 정보 및 실물적 정보만을 산출한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가치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¹⁶⁾ 참고로 신혼부부통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개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6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1979년부터는 3년 주기로 실시되어 2018년도에 24번째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목적은 결혼·출산·양육에 관한 가임기 기혼 여성의 가치관 및 행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20~44세 미혼인구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8년 조사에서는 총 1만 2207명의 15-49세 기혼 여성과 2464명의 20-44세 미혼인구가 조사에 응하였다. 조사 내용은 결혼 관련 문항(전통

16) 물론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추가 계획 자녀수 등의 출산 의향에 대해서 묻고 있으나 그 외에는 매우 한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적 가치규범의 수용도, 전통적인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인 가족 관 및 가족 유형에 대한 견해 등), 자녀 가치관 관련 문항(자녀의 가치 등), 임신과 출산 관련 문항(피임 실패, 난임 실패 및 난임 시술 관련 애로사항, 산전후 관리 등), 자녀 양육 문항(부부간 가사 육아 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 실제 가사 육아 참여 시간 차이, 부부의 성역할 인식과 양육에 대한 책임 등),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경력단절 실패, 육아휴직 경험 등), 정책 관련 문항(결혼·출산·양육 관련, 일·가정 양립 관련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이다. 조사 대상별 주요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주요 조사 내용

공통 문항	- 가구원 및 비동거 가구원 사항 - 가구 및 개인의 일반 특성
기혼 여성 문항	- 결혼에 관한 사항: 결혼 전 거주지 관련 사항, 결혼에 관한 태도, 본인의 결혼 실패, 본인의 결혼 비용 -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피임에 관한 사항, 난임에 관한 사항 - 산전·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수유에 관한 사항 -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부부의 육아가사 분담, 취학 전 자녀의 돌봄,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 자녀 양육비 -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미혼 남녀 문항	- 이성 교제 및 결혼에 관한 사항 -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가치와 태도 -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

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특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및 보건·복지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지 약 40년 된 전통 있는 조사로서 기혼 여성의 출산과 관련

된 다양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조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는 최근 10년 이내의 연구만을 살펴본다. 먼저 김승권(2010)은 자녀 양육 책임과 양육비 지출 실태에 대해 분석했고, 최효진(2016)은 아동의 성장단계별로 돌봄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 분석했다.

이 조사는 제목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출산력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과 관련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서미숙(2013)은 주택가격의 변화가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했고,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2016)은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의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력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김현식(2018)은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인 여성의 출산력 차이에 대해 분석했다.

이 외에 김연우(2012)는 한부모 가족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에 대한 분석, 박종서(2013)는 가족 내 가사 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양성평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이소영(2016)은 산전·산후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9. 지역 단위 조사

가. 전주시 청년종합실태조사

전주시 청년종합실태조사는 2016년~2017년에 걸쳐 정량 조사와 정성 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 목적은 지역 정체성을 담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위하여 전주시 청년층의 현황, 정책 욕구들을 파악하는 것

이다(김재우, 남춘호, 김혜경, 이순미, 이순아, 2018).

조사 대상은 조사 시점 당시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성인이며 총 706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조사 내용은 일반사항, 주거와 교통, 고용과 일자리, 일-삶의 균형과 여가, 복지와 건강, 가족관계와 친밀성, 사회적 연계성과 사회통합, 소득·소비·부채, 지역 정책 및 정체성 영역 등이다(김재우 외, 2018).

나. 부산 청년종합실태조사

부산광역시에서는 청년 문제의 심각성과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산시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8년에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김종욱, 김형균, 김도관, 박경옥, 2018).

조사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1200명으로, 청년의 연령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만 18세~만 34세로 정의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경제활동 및 일자리 현황, 아르바이트 및 고용 환경, 자영업자 현황, 진로계획, 청년 어젠다, 금융(소득, 부채, 지출 현황), 문화/여가(교류활동 포함), 주거, 삶의 질/건강, 부산시 청년 정책 체감도 등이다(김종욱 외, 2018).

다. 제주 청년종합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주 청년의 활동과 자립을 근본적으로 독려하는 종합적 지원체계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2017년 제

주청년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김학모 외, 2017).

조사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000명으로, 설문은 1:1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주거 및 교통생활 관련 사항, 문화/여가생활 관련 사항, 교류 및 관계형성 관련 사항, 삶의 가치관,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관련 사항, 고용 및 일자리 관련 사항,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 관련 사항, 응답자 기본사항 등이다(김학모 외, 2017).

제3절 청년 조사와 본 조사의 특징

앞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조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절에서는 청년 조사들의 특징에 대해 요약 및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조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1. 청년 관련 조사의 특징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실시된 조사는 ‘청년패널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가 있으며, 본 조사는 아니지만 부가조사의 형태로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있다. 이 조사들은 청년들의 고용이 점점 어려워져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교육훈련·취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한국노동패널의 청년층 부가조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네 개의 조사는 대부분 교육에서 취업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파악하

기 위해서 청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취업 그리고 이직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년들의 교육, 취업, 이직 등에 대해 분석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이들의 교육, 취업, 이직 등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청년 중에서도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조사가 있는데, ‘주거실태조사’의 특성가구 조사인 ‘신혼부부 조사’와 ‘청년가구 조사’,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신혼부부통계’를 들 수 있다. 이 중 ‘주거실태조사의 신혼부부 조사, 청년가구 조사’,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는 조사 제목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주거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 조사이다. 한편, ‘신혼부부통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통계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사로, 예를 들어, 인구동향조사(혼인·이혼·출생), 인구·가구·일자리행정통계, 주택소유통계 DB, 보육자료, 소득자료, 가계대출(금융권)자료 등을 키 변수로 결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으나,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는 2014년에 시작되어 2016년의 제3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거실태조사’에서 신혼부부가구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것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 표본 중에서 혼인 연차로 신혼부부를 분류하고, 약간의 추가적 문항을 더한 것으로 순수한 신혼부부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주거 마련 비용, 출산, 자녀 관련 정보 등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 외에 신혼부부가구의 대표자만 조사하고 있는 관계로 출산 의향 등이 한쪽만 조사되고 있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1964년부터 실시되어 온 매우 전통 있는 조사이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조사 초기에는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통계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도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가 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회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가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5년부터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로 통합되어, 기존에 실시되지 않았던 미혼 남녀 조사가 추가된 형태로 조사되고 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제목에도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여성의 출산 관련 정보가 매우 상세하게 조사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미혼 남녀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가치관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본 조사의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까지의 청년 관련 조사는 영역이 매우 다양하였다. 즉, 청년의 일자리 및 신혼부부의 주거, 기혼 여성의 출산 관련 정보 및 미혼 남녀의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기존 조사에서는 청년 미혼인구 및 신혼부부에 대한 실태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엄밀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과 관련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 및 출산 이행에 초점을 둔 대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생성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혼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논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상 및 정책적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조사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청년세대 중 미혼인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비혼·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내용에 비중을 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착안할 수 있다.

이에 본 조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자리, 결혼·출산, 주거를 총망라하여 조사한다. 또한, 출산의 대부분은 신혼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조사 데이터의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 출산은 취업, 주거 등의 요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본 조사의 특징은 선행 조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을 가족 형성 측면에서 재구성한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학교 졸업 → 첫 입직 → 이성 교제 → 결혼 → 출산 시점에서의 일자리, 주거, 소득 등을 파악하여 각 시점에서의 상황을 파악한다. 가족 형성 시점에서의 이성 교제는 배우자와의 결혼·출산에서 빠질 수 없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성 교제에 대한 분석은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성과 반드시 결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이미 결혼으로 이행한 이들의 이성 교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특성을 가진 이들이 이성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지를 동태적(dynamic)으로 파악하려 한다.

그런데 상기 시점에서의 정보는 매년 동일한 개인을 장기간 추적조사

해야 하는 종단면 자료(패널조사)에서나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본 조사는 일정 시점에서의 정보만을 파악하는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의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조사에서는 각 시점에서의 상황을 회고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회고 조사가 기억에 의존하는 특성상, 종단면 조사보다 불안정할 수도 있으나, 인생에서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시점만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생각되며, 종단면 조사의 최대 약점인 매년 표본이 탈락(attrition)하는 현상과 비교하면 각각의 방법에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방법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조사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부부 쌍(pair) 조사라는 점이다. 부부의 가족형성 과정은 어느 한쪽의 특성으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부 양쪽의 특성을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혼과 출산 관련 행동 및 가치관 등은 여성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결혼 및 출산 관련 행동 및 가치관은 부부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 이들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쌍 조사는 부부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1절 표본 설계 및 조사 실시

1. 표본 설계

가. 신혼부부 정의

신혼부부의 ‘신혼(新婚)’은 새롭게 결혼한 부부라는 뜻을 내포한다. 그러나 새롭게 결혼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신혼부부의 범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관습적으로 정하는 신혼부부는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법령에 나타난 신혼부부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다.

법령에서 신혼부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주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지닌 특별한 의미와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차원에서 주택법에 ‘주거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는 항이 2010년 4월에 추가되었다.¹⁷⁾ 이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에 주거 마련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신혼부부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주택법에서는 2012년 12월에 신혼부부를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부부’로 정의하여, 이 근거에 따라 2014년부터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가 시작되었다

17) 기존 조사 검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에 시작되었지만 법령에 규정된 것은 2010년이다. 이전까지는 2005년 5월 부동산대책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된 것이 조사 시행의 근거였다고 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조사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신혼부부인 2년 이내의 부부가 아닌 5년 이내를 신혼부부로 정의하여 조사하였고, 그 이유를 ‘정책자료로서의 활용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명시하였다(김남정 외, 2014). 이는 아마도 조사 당시 신혼부부를 5년 이내로 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¹⁸⁾

그런데 2018년 12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공주택 입주 자격 부부가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신혼희망타운주택, 행복주택 등의 모든 공공주택 입주 자격의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가 되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신혼부부 자격도 7년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도 최근 정책 대상의 확대 경향에 맞추어 신혼부부를 혼인 후 7년 이내로 정의하여 조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이 ‘정책자료로서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조사에서의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재혼을 포함하며, 서울시의 경우 사실혼의 부부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어 동거 및 사실혼의 경우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연령 범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기존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서는 특별히 연령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혼인 이후의 기간으로만 정의한 반면,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여성 배우자의 연령을 만 49세 이하로 정의하였다. 보통 여성의 가임 기간을 15~49세로 정의하기 때문에 ‘주거실태조사’의 신혼부부 연령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 형성 관점에서 생각할 때, 앞으로 생애미혼율(50세의 미혼율)의 증

18)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정책 대상인 신혼부부를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로 정의하였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재혼도 포함하였다.

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도 여성 배우자의 연령을 만 50세 미만으로 정의하되, 남편의 나이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았다.

나. 모집단 정의

조사 시점에서 전국의 일반 국민 중에서 신혼부부 가구를 목표 모집단으로 정의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모집단은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혼인 7년 차 이내의 신혼부부 가구로 정의하고, 조사 대상 아내의 연령을 2019년 기준 만 18~49세로 제한하며, 재혼과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하였다. 정의된 조사모집단의 혼인 연차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혼인 연차와 해당 기간

혼인 연차	해당 기간(실제 같이 살기 시작한 기준)
1년 차	2018. 8.~2019. 7.
2년 차	2017. 8.~2018. 7.
3년 차	2016. 8.~2017. 7.
4년 차	2015. 8.~2016. 7.
5년 차	2014. 8.~2015. 7.
6년 차	2013. 8.~2014. 7.
7년 차	2012. 8.~2013. 7.

다. 모집단 분석 및 총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혼인 통계자료에서 2012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들의 시도별과 혼인 연차별 분포를 아래와 같이

〈표 3-2〉에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차까지 총 161만 8867쌍이며 혼인 1년 차 신혼부부가 14만 6482쌍으로 가장 적고 연차가 오래될수록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가 많아져서 혼인신고 7년 차 신혼부부가 27만 4072쌍으로 가장 많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가 40만 3719쌍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울이 37만 2824쌍으로 많다.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대와 혼인 연차를 층화변수로 선택하였고 또한 생활환경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시도를 층화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3-3〉에는 신혼부부 아내의 연령대와 시도를 기준으로 층별 분포 특성을 정리하였는데 전체적으로 30대가 1,117,281명으로 69.0%, 다음으로는 20대가 302,190명으로 18.7%, 40대는 199,396명으로 12.3%를 차지하였다.

〈표 3-2〉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의 시도별 혼인 연차별 분포

구분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합계
서울	32,998	44,022	50,482	55,752	61,675	63,375	64,520	372,824
부산	8,638	12,305	15,203	16,751	18,179	19,011	19,796	109,883
대구	6,507	9,003	10,372	11,243	12,225	12,449	13,011	74,810
인천	8,632	10,871	13,326	14,390	14,838	15,463	15,336	92,856
광주	4,158	5,505	6,332	7,090	7,693	8,058	8,000	46,836
대전	4,369	6,137	7,082	7,851	8,368	8,626	8,789	51,222
울산	3,489	4,156	5,132	5,658	6,327	6,204	6,289	37,255
세종	1,199	1,506	1,204	1,216	1,071	554	539	7,289
경기	38,951	50,580	55,995	61,754	64,292	66,066	66,081	403,719
강원	3,890	4,827	5,386	5,924	6,246	6,144	6,199	38,616
충북	4,387	5,556	6,496	7,015	7,589	7,620	7,850	46,513
충남	5,638	7,374	8,322	8,968	9,737	9,297	9,645	58,981
전북	4,086	5,476	6,411	7,063	7,784	8,170	8,308	47,298
전남	3,810	5,243	6,176	7,000	7,258	7,668	7,682	44,837
경북	6,080	8,474	9,945	11,177	12,063	12,150	12,727	72,616

구분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합계
경남	7,862	10,872	12,961	14,579	15,627	16,155	16,305	94,361
제주	1,788	2,552	2,745	2,967	2,957	2,947	2,995	18,951
합계	146,482	194,459	223,570	246,398	263,929	269,957	274,072	1,618,867

자료: 인구동향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do>에서 2019. 08.14.에 데이터 다운로드.

〈표 3-3〉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의 시도별 아내연령대별 분포

구분	만 18~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합계
서울	50,198	278,126	44,500	372,824
부산	17,580	78,673	13,630	109,883
대구	13,579	52,584	8,647	74,810
인천	18,839	62,273	11,744	92,856
광주	8,917	32,195	5,724	46,836
대전	10,352	35,083	5,787	51,222
울산	7,572	25,239	4,444	37,255
세종	1,842	4,705	742	7,289
경기	78,548	274,260	50,911	403,719
강원	9,059	24,014	5,543	38,616
충북	11,014	29,980	5,519	46,513
충남	14,780	37,018	7,183	58,981
전북	10,490	30,887	5,921	47,298
전남	10,468	28,684	5,685	44,837
경북	16,017	48,009	8,590	72,616
경남	18,961	63,558	11,842	94,361
제주	3,974	11,993	2,984	18,951
합계	302,190	1,117,281	199,396	1,618,867

자료: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3&conn_path=I2에서 2019. 8. 14.에 인출.

라. 표본크기와 표본추출단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조사의 신뢰성과 주어진 예산을 고려하여 2000가구로 정하였으며, 남편과 아내를 모두 조사하므로 조사 대상은 총 4000명이다. 2000가구에 대한 기대표본오차의 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하면 $\pm 2.19\%$ 포인트이다.

$$D_0 = z_{\alpha/2} \sqrt{\frac{N-n}{N-1} \frac{pq}{n}}$$

여기서 N 과 n 은 각각 모집단크기와 표본크기를 나타내고 $z_{\alpha/2}$ 는 $(1-\alpha)*100\%$ 신뢰수준에서 신뢰계수이고 일반적으로 1.96을 적용한다.

2) 표본추출단위

조사모집단에 해당하는 2019년 7월 말 기준 혼인 7년 차까지의 신혼 부부 명부를 이용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층화변수를 기준으로 표본을 할당한 후에 해당 가구를 표본추출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가구명부가 없고 시도별 분포 특성만 알 수 있으므로 시도별로 조사 대상 표본을 할당한 후, 동읍동을 선정하여 조사원이 동읍면에서 신혼부부를 탐색하여 조사해야 한다. 이에 1차 표본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는 동읍면으로 정의하고 최종추출단위(FSU: final sampling unit)는 신혼부부 가구로 정의하였다.

마. 표본할당과 표본추출

1) 표본할당

1차 추출단위인 읍읍면을 시도에서 선정한 후에 읍읍면에서 평균적으로 15가구를 조사한다는 가정하에 선정한 1차 추출단위는 134개이다. 134개 읍읍면의 배분은 시도별로 3개를 우선 할당한 후에 나머지를 비례 배분 하여 신흠부부의 가구수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도 최소한 45가구를 조사하여 시도별 특성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도별로 할당된 1차 추출단위와 모집단의 특성을 아래 <표 3-4>에 정리하였다.

<표 3-4> 시도별 신흠부부 가구수와 1차 추출단위 할당 결과 및 표본 가구수

시도	신흠부부 가구수	할당	
		읍면동	가구수
서울	372,824	22	330
부산	109,883	9	135
대구	74,810	7	105
인천	92,856	8	120
광주	46,836	5	75
대전	51,222	6	90
울산	37,255	5	75
세종	7,289	3	45
경기	403,719	24	360
강원	38,616	5	75
충북	46,513	5	75
충남	58,981	6	90
전북	47,298	5	75
전남	44,837	5	75
경북	72,616	7	105
경남	94,361	8	120
제주	18,951	4	60
합계	1,618,867	134	2,010

자료: 신흠부부 가구수 - 인구동향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do>에서 2019. 8. 14.에 인출.

단, 본 조사는 짧은 일정 내에 명부가 없는 상태에서 신혼부부를 쌍으로 조사하는 난도가 높은 조사로서 실제 조사 현황은 표본 할당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2) 표본추출

행정안전부 2019년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시도 내의 동읍면별로 조사 대상 연령 인구수를 기준으로 <표 3-4>에 주어진 할당된 1차 추출단위를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여 조사 용이성과 표본 대표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추출된 동읍면 내에서 조사 지점은 가능한 한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또는 주택단지를 선정한 후에 조사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탐문조사로 조사 적격 가구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바. 조사모집단 수정

조사모집단의 층별 분포 특성으로 주어진 <표 3-5>의 시도별 신혼부부 혼인 연차별 분포와 <표 3-6>에 주어진 시도별 신혼부부의 아내 연령대별 분포 특성은 모두 혼인신고 한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었으나 본 과제의 조사 대상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제 혼인관계가 있는 부부까지 포함하였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실태는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조사모집단을 수정하여 표본가중치를 산출해야 한다.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를 통합하기 위해서 아내 연령대별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사실혼 부부의 비율을 산출하여 조사모집단의

규모를 수정하였다.

파라미터를 이용한 수정모집단의 분포는 아래 <표 3-5>, <표 3-6>에 정리하였으며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의 신혼부부는 57,492쌍으로 나타났으므로 조사모집단의 규모는 1,618,867쌍에서 1,676,359쌍으로 증가하였다.

<표 3-5> 시도별 혼인 연차별 수정모집단

구분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합계
서울	34,427	45,732	52,261	57,547	63,529	65,205	66,360	385,061
부산	9,032	12,814	15,772	17,318	18,752	19,579	20,370	113,637
대구	6,815	9,390	10,770	11,639	12,613	12,824	13,388	77,439
인천	9,045	11,341	13,860	14,909	15,332	15,949	15,798	96,234
광주	4,354	5,742	6,581	7,343	7,944	8,306	8,236	48,506
대전	4,582	6,410	7,364	8,133	8,645	8,891	9,048	53,073
울산	3,657	4,343	5,341	5,864	6,532	6,397	6,474	38,608
세종	1,256	1,570	1,251	1,258	1,106	572	557	7,570
경기	40,790	52,757	58,179	63,945	66,400	68,106	68,058	418,235
강원	4,082	5,045	5,611	6,149	6,466	6,345	6,394	40,092
충북	4,609	5,816	6,768	7,284	7,850	7,863	8,092	48,282
충남	5,923	7,711	8,671	9,318	10,089	9,606	9,947	61,265
전북	4,285	5,719	6,677	7,332	8,052	8,433	8,566	49,064
전남	4,000	5,481	6,431	7,270	7,514	7,922	7,922	46,540
경북	6,378	8,855	10,357	11,596	12,477	12,535	13,113	75,311
경남	8,241	11,354	13,479	15,113	16,148	16,657	16,791	97,783
제주	1,873	2,664	2,854	3,077	3,060	3,042	3,089	19,659
합계	153,349	202,744	232,227	255,095	272,509	278,232	282,203	1,676,359

〈표 3-6〉 시도별 아내 연령대별 수정모집단

구분	만 18~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합계
서울	53,935	284,809	46,317	385,061
부산	18,888	80,563	14,186	113,637
대구	14,590	53,848	9,001	77,439
인천	20,241	63,770	12,223	96,234
광주	9,581	32,969	5,956	48,506
대전	11,123	35,926	6,024	53,073
울산	8,136	25,846	4,626	38,608
세종	1,979	4,819	772	7,570
경기	84,395	280,851	52,989	418,235
강원	9,733	24,591	5,768	40,092
충북	11,834	30,702	5,746	48,282
충남	15,881	37,907	7,477	61,265
전북	11,272	31,630	6,162	49,064
전남	11,249	29,374	5,917	46,540
경북	17,209	49,162	8,940	75,311
경남	20,373	65,085	12,325	97,783
제주	4,270	12,282	3,107	19,659
합계	324,689	1,144,134	207,536	1,676,359

2. 가중치

표본가중치는 조사된 표본데이터의 분포 특성과 모집단의 분포 특성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승수이며 표본가중치는 조사된 표본단위의 값이 모집단의 몇 개 단위의 값을 대변하는지를 나타낸다.

표본가중치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본 분포의 특성과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답을 보정하는 승수와 층화변수로 반영되지 않은 변수의 분포를 조정하는 사후층화보정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표본추출과정을 반영한 가중치를 설계가중치라고 하며 표본추출률의 역

수로 계산하고 무응답보정가중치는 무응답단위의 특성은 응답한 단위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가정에서 응답률의 역수로 산출한다. 사후층화보정가중치는 표본가중치를 반영한 사후층화변수들의 분포와 행정자료에서 주어진 분포를 조정하는 승수로 사후층화보정가중치라고 하며 최종가중치는 이들 3종의 가중치를 곱해서 산출한다.

위에서 3종의 가중치의 산출은 세부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단계(설계 가중치): 시도별 가구가중치 계산

$$W_{ijkl} = \frac{N_{ijk}}{n_{ijk}}$$

: i 시도, j 연령대, k 혼인 연차, l 은 표본실험부부

무응답 보정가중치는 할당된 모든 표본 실험부부는 응답 거부 시 예비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하여 '1'이 되므로 산출 과정에서 생략하고 사후층화보정가중치는 연령대와 혼인 연차별로 2단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2단계(연령대 사후층화보정)

: 시도별 연령대 가중치 합계와 모집단규모 대비 보정계수

$$W_{2ijkl} = \frac{N_{ai}}{\sum_{ai} W_{ijkl}}$$

: i 시도에서 a 연령대의 혼인가구 합계와 가중치 합계의 비

3단계(혼인 연차 사후층화보정)

: 시도별 혼인 연차별 인구수와 가중치 합계의 대비 보정계수

$$W_{3ijkl} = W_{1ijkl} \cdot W_{2ijkl}$$

: 1단계 가중치 * 2단계 가중치

$$W_{4ijkl} = \frac{N_{yi}}{\sum_{yi} W_{3ijkl}}$$

: i 시도에서 y 혼인 연차의 혼인가구 합계와 가중치 합계의 비

4단계 : 최종가중치는 3종의 가중치를 곱해서 산출한다.

$$W_{ijkl} = W_{1ijkl} \cdot W_{2ijkl} \cdot W_{3ijkl}$$

5단계(최종가중치 보정)

: 4단계의 최종가중치를 적용하여 2단계와 3단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후에 결과가 수렴한 가중치를 최종가중치로 사용한다. 단, 소수점 차이 등으로 최종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일부 층이 있을 수 있다.

3. 조사 실시

가. 실사 개요

본 조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 쌍 조사로 진행된다. 신혼집 등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 중 가구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가구대표용 조사표에 응답한 후, 남편과 아내 각자가 개인용 조사표에 응답한다. 뒤에서 구체적인 조사 문항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문항 중에는 결혼 생활 만족도 등 부부가 같이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부부를 따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내부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으로 본 조사에 서는 가능한 한 IRB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였다.¹⁹⁾

조사 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태블릿을 이용하여 조사(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실시 하였다. 그러나 신혼부부의 특성상 맞벌이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부부를 쌍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이는 평일 낮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 조사표를 전달하고 응답한 종이 조사표를 나중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받는 형태를 병행하였다.

나. 면접원 선발 및 교육

본 조사는 선정된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혼부부 가구를 찾고, 부부를 함께 조사해야 하는 실사 난도가 매우 높은 조사이다. 또한 각 시점에서의 일차리와 주거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표의 내용 또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본 조사에서는 최종학교 졸업과 첫 일자리를 묻는데, 최종학교 졸업이 첫 일자리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사 과정과 조사표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사원을 선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조사원 교육은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루어졌고, 조사는 9월 2일 오후부터 이루어졌으나, 마지막 교육 일정인 제주는 교육 이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원 교육은 사전에 작성된 조사원 지침서를 활용하여 진행되

19) 문서번호 제2019-63호, 2019년 8월 22일 심사결과 통보.

었다. 모든 일정에는 연구진이 참가하여 조사의 목적과 의미 등을 직접 설명하였고,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표 3-7〉 조사원 교육 일정 및 참석자

날짜	지역	참석 연구진	조사회사 담당자	참석 조사원 수
8월 29일(월)	서울	조성호 부연구위원	이성화 차장	15명
	광주	김지민 연구원	고진주 부장	16명
	대전	조성호 부연구위원	고진주 부장	14명
8월 30일(금)	강원	조성호 부연구위원	조민수 연구원	6명
9월 2일(월)	부산	김지민 연구원	고진주 부장	17명
	대구	조성호 부연구위원	조민수 연구원	12명
9월 3일(화)	제주	조성호 부연구위원	조민수 연구원	3명

다. 실사 과정

실사는 조사원이 표본 읍면동을 찾아가서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빌라, 주택 단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지점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점차 반경을 넓혀 가구를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실사 과정에서 활용된 보조 자료들은 아래와 같다.

가구를 방문하면,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적격 가구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 협조를 구한다. 조사 협조를 구한 뒤에는 조사 참여 동의서를 먼저 작성하였다. 그 후, 가구 대표용 조사표를 먼저 작성한 후, 남편용 조사표와 아내용 조사표를 작성한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날짜 혹은 시간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가구는, 조사원이 해당 가구와 약속을 잡은 후 해당 날짜, 시간에 재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부

부 중 한 명만 만나 조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조사받을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여 해당 시간에 재방문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늦은 밤 등으로 한정된 경우, 조사표를 유치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표 3-8〉 실사과정에서 사용된 보조자료

[illegible]

라. 데이터클리닝

본 조사는 기본 내검 기능이 구현된 태블릿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동 에디팅이 진행되었다. 태블릿 내검 기능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조사회사 연구원이 함께 검토하였다. 이후 조사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데이터의 논리적 오류나 이상치 등에 대한 클리닝 및 검증을 진행하여 최종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제2절 조사 내용 및 구성

조사 항목은 연구진이 작성한 후, 전문가들에게 여러 차례 자문하여 완성하였다.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으나, 기존의 조사뿐만 아니라 연구진이 고안한 문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국제조사와의 비교 가능성을 위하여 국제조사의 문항을 상당 부분 참조하였다. 자문받은 전문가 중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책임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책임자를 비롯하여 국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조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차로 완성된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 항목이 적절한지 실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초점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형식으로 신혼부부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은 연령대 및 혼인 연차에 따라 응답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하였으며, 쌍 조사의 특성상 신혼부부 2쌍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FGI 결과, 대부분의 경우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한다면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혼동될 수 있는 문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하였다.

〈표 3-9〉 예비 조사 FGI 참석자

성별	연령	배우자 연령	결혼 연차	자녀 유무(나이)	참석 인원
여성	33	32	5	3세	부부
남성	32	31	1	없음	부부
여성	28	33	1	없음	개인
여성	35	40	5	없음	개인
여성	36	36	5	2세	개인
남성	40	40	3	2세	개인
남성	40	33	2	없음	개인
남성	43	33	5	5세, 1세	개인

1. 조사 영역 및 구성

가. 가구 대표자 조사

조사 내용은 부부가 공통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은 가구 대표자에게 묻는 것으로 하였다. 먼저 본 조사의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문항으로 결혼 여부, 본인의 생년월 및 성별, 배우자의 생년월, 배우자와 같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조사된다. 본 조사의 대상이 여성을 기준으로 만 18~50세 미만이기 때문에 연도를 기준으로 1970년 이전 출생자이거나 2001년 이후 출생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본 조사에서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2012년 8월 이후 혼인한 부부에게 응

답을 받게 된다.

다음은 가구원 및 주거 관련 사항으로 가구원 수 및 가구원과의 관계, 생년월, 성별, 동거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그리고 부부가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집(신혼집)에 대해서 같이 산 사람,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비용, 주택 규모, 거주지역에 대해 묻고, 만일 신혼집을 결혼하면서 새로 마련했다면 구체적인 비용, 신혼집 명의에 대해 응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결혼 이후의 주거는 부부 공통이기 때문에 출산 시점에서의 주거를 묻는다. 그리고 현재의 주거가 첫 자녀 출산 시점에서의 주거와 같은지를 확인하고, 만일 다르다면 현재의 주거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다만,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은 가구원 정보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가족형성 및 육아·가사 영역에서는 주로 배우자와 처음 만난 시기, 교제 시작 시기, 결혼식 여부와 시기, 혼인신고 여부와 시기와 육아·가사 분담 비율을 조사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상황 영역에서는 현재 거주하는 집을 제외하고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 조사한다. 보통 부채와 자산 등은 가구 대표자 조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자산 이외의 부채 및 금융 자산 등은 각자 개인에게 조사하였다.

〈표 3-10〉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 가구 대표자

영역	구분	항목
조사 대상 식별		- 결혼 여부, 본인의 생년월 및 성별, 배우자의 생년월, 배우자와 같이 살기 시작한 시기
가구원 및 주거관련	가구원	- 가구원 수 및 가구원과의 관계, 생년월, 성별, 동거 여부
	신혼집	- 같이 산 사람,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비용, 주택 규모, 거주지역 - 마련 방법, 마련 비용, 명의
	첫 자녀 출산 시점 주거	- 같이 산 사람,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비용, 주택 규모, 거주지역
	현재 주거	-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비용, 주택 규모, 거주지역
가족 형성 및 육아·가사		- 배우자와 처음 만난 시기, 교제 시작 시기, 결혼식 여부와 시기, 혼인 신고 여부와 시기 - 육아·가사 분담 비율
경제적 상황		- 부부의 부동산 자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나. 개인 조사

개인 조사는 가족 형성 과정(시점)에서의 일자리와 주거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로 구성하였다. 가족 형성 시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학교 졸업 → 첫 입직 → 이성 교제 → 결혼 → 출산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최종학교에 대해서 조사한다. 최종학교에서는 대학 이상을 졸업했을 때 학교 소재지, 입학연월, 졸업 여부, 졸업연월에 대해서 조사한다.

1) 교육·경제활동 및 경제적 상황

본 영역에서는 먼저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 일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지

에 대해 파악하고, 일자리를 가진 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만일 졸업 이후 일자리를 가진 적이 없으면 다음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만 19세 이후에 취업 경험이 있는지부터 조사했다.²⁰⁾ 만일 만 19세 이후에 일자리 경험이 있다면 첫 일자리가 최종학교 입학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파악하고, 최종학교 입학 이전이면 최종학교 입학 이전의 일자리에 대해 조사한다. 일자리에서는 근로 시기,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정규직 여부, 월평균 소득, 근로시간, 종사자수에 대해 묻는다.

첫 일자리가 최종학교 입학 이후라면 다음으로 넘어가 최종학교 졸업 이후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으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앞서 질문했던 문항과 같을 경우에는 앞의 정보를 끌어오고, 다를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조사한다. 그러나 앞의 최종학교 이전의 일자리에서 최종학교 입학 이후로 응답하고, 최종학교 졸업 이후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최종학교 졸업 이후 일자리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예’라고 대답하고 ‘최종학교 입학 이전 일자리와 다름’을 응답하게 하여 졸업 이후 일자리를 파악하였다. 최종학교 졸업 이후의 일자리는 몇 가지의 정의를 두었는데, 최종학교 재학 당시의 일자리,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는 응답하지 않도록 하였고, 졸업 이후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정규직을 응답하도록 하였다.²¹⁾ 예를 들어,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정규직을 응답하게 된다.

20) 본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전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음.

21) 이러한 정의를 두는 이유는 대졸자 평균 구직 기간이 10.8개월 정도이기 때문이다(통계청, 2019).

〈표 3-11〉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교육·경제활동 및 경제적 상황): 개인

구분	항목
최종 학력	- 학교 소재지, 입학연월, 졸업 여부, 졸업연월
최종학교 입학 전후 일자리	- 근로 시기,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정규직 여부, 월평균 소득, 근로시간, 종사자수
최종학교 졸업 이후 일자리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	
현재 일자리	- 근로 시기,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정규직 여부, 월평균 소득, 근로시간, 종사자수 - 첫 일자리 퇴사 이유
경제적 상황	- 월평균 소득, 금융자산, 부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이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일자리,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의 일자리, 현재 일자리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조사한다. 다만,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동일한지 아닌지 파악하여, 현재의 일자리가 첫 일자리와 다를 경우에는 첫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해 파악한다.

일자리 정의의 경우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일자리 정의를 차용하였다(김유빈, 이지은, 최승주, 신선옥, 이해정, 정현상, 2018).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주 1시간 이상 일하여 소득을 창출한 경우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데, 만일 급여를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인 경우는 주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일자리로 정의한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두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둘 중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일자리를 응답하지만,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수입이 많은 쪽을 응답한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계

약기간 없이 본인의 의지로 지속적인 노동이 가능한 경우, 임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년 이내 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 일정한 장소 없이 일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로 나뉘는데, 시간제는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동일한 업무 종사자보다 단시간 일하는 경우,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전일제는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 외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포함하였고, 종사자수는 전체 계열사를 모두 합한 수를 응답하도록 했다.

경제적 상황은 월평균 소득, 금융자산, 부채를 조사한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직접 금액을 묻고 있는데 금액을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카테고리 응답할 수 있게 구성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간에 서로 자산 관리를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조사에서 금융자산과 부채를 조사한다.

2) 주거 및 결혼 준비

주거 및 결혼 준비 영역에서는 주거 변화와 결혼을 위한 지출에 대해 조사한다. 현재 주거를 조사하기 이전에 먼저 만 14세(중학교 졸업)일 무렵 주로 성장한 곳에 대해 묻고 주거 변화에 대해 조사한다. 가구 대표자 조사에서 결혼 당시 시점에서의 주거와, 첫째 자녀 출산 시점에서의 주거를 모두 파악했으므로, 개인 조사에서는 최종학교 졸업 시점,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자리를 시작한 시점,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한 시점에서의 주거 변화를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세 시점의 순서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점의 순서를 묻고 주거 변화를 파악했다. 만일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경우에는 가구 대표자 응답의 현재 집으로 대체하였다.²²⁾ 주거에서는 같이 산 사람,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비용, 주택 규모, 거주 지역에 대해 조사했고, 결혼 준비는 주택 이외에 본인 및 부모님이 지출한 비용,²³⁾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해 조사한다.

〈표 3-12〉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주거 및 결혼 준비 영역): 개인

구분	항목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	- 같이 산 사람,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비용, 주택 규모, 거주 지역
첫 직장 입사 당시 주거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주택 이외에 지출한 비용	- 본인 지출 금액, 본인 부모님 지출 금액, 기타 -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3) 배우자와의 교제 및 결혼

본 영역에서는 배우자와 교제 및 결혼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성향을 알기 위해 설계된 문항이다. 그리고 배우자와 알게 된 계기, 현재 혼인 상태, 결혼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이유, 결혼 전후의 생활 변화, 배우자와 별거 및 이혼 고려 여부, 결혼 생활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다.

22) 단, 가구 대표자 조사에서 현재 집 응답에서 같이 산 사람은 가구원 명부 정보에서 산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주거 변화에서의 같이 산 사람 선택지에 맞춰 산출하였다.

23) 주택 이외에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결혼식 비용(결혼식장, 결혼예복, 사진촬영 등), 예단 및 혼수, 신혼여행 등 결혼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표 3-13〉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배우자와의 교제 및 결혼 영역): 개인

구분	항목
배우자와의 교제	- 배우자와의 교제 이전의 활동, 배우자와 알게 된 계기
혼인 상태	- 혼인 상태
결혼 관련 정보	- 결혼 연기 여부, 이유 - 결혼 전후의 생활 변화 - 배우자와의 별거 및 이혼 고려 여부 - 결혼 생활 만족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4) 임신·출산

임신·출산 영역에서는 임신을 위한 준비, 출산, 자녀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본 영역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이력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만 질문하도록 구성했다. 자녀 출산은 이미 출산한 자녀를 성별에 따라 조사하며, 만일 현재 임신 중이라면 성별이 확인된 경우에는 성별을 파악하고 아닌 경우에는 ‘성별 모름’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임신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데, 만일 어려움이 있었다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는지, 없었으면 앞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려 하는지 묻는다.²⁴⁾ 그리고 결혼 전에 희망했던 자녀수와 현재 희망하는 자녀수가 같은지에 대해 파악하고, 만일 다르다고 하면 결혼 전후의 자녀수를 확인한다. 또한, 자녀의 성별 선호 조합에 대해서 묻고,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려는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다. 만일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

24) 호정균, 박문일(2011)에 따르면, 임신 준비는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닌 남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임신 준비에 대해 남편에게도 묻는다.

려는 의향이 있으면, 언제 자녀를 낳고 싶은지 묻고, 시간을 두고 자녀를 가지려 하면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다. 이어서 앞으로 자녀를 몇 명 더 낳을 계획인지 자녀를 낳으려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앞으로 낳으려는 의향이 없으면 왜 의향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묻는다.

〈표 3-1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임신·출산): 개인

구분	항목
자녀 출산(아내)	- 성별에 따른 자녀수, 임신한 경우의 자녀수도 기입
임신 관련	- 임신의 어려움, 임신의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에 간 경험 - 임신 준비 기간, 가질 계획
출산 계획	- 희망 및 이상 자녀수 - 출산 의향, 예정, 이유 - 추가 출산 자녀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5) 양육 및 일·가정 양립

본 영역에서는 자녀의 양육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단,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는 아내에게만 질문하였다.²⁵⁾ 자녀 양육 문항에서는 사교육 외 돌봄 서비스, 사교육,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에 대해 묻는데, 취학 여부에 따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취학 자녀와 취학 자녀로 나누어 파악한다.

그리고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를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서 힘든 점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하루 기준 평균 가사·육아 시간에 대해서도 묻는다.

25) 당초 자녀 양육은 가구 대표자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조사표 완성 후 예비 조사 실시 결과, 가구 대표자가 남편일 경우, 자녀의 양육 관련 문항에 응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기 때문에 아내 조사표에 포함하였다.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는 먼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는지를 조사한다.

〈표 3-15〉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양육 및 일·가정 양립): 개인

구분	항목
자녀 양육	- 사교육 외 돌봄 서비스, 사교육,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아내) - 자녀 경제적 지원 기간, 자녀 양육의 어려움 - 가사·육아 시간
일·가정 양립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 어려움 - 직장과 가정생활 중요성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6) 부모 관련 사항 및 부부간의 관계·가치관

부모 관련 사항 및 부부간의 관계·가치관 영역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정보, 배우자와 관계뿐만 아니라 가치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부모 관련 사항에서는 생존 여부를 알아보고, 생존해 계신다면 경제적 교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생존하지 않는다면 생년과 학력만 파악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배우자와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 빈도로 측정했는데 가사 분담, 친구관계, 음주 등의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에 대해서도 파악하는데, 최근 SNS 등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를 이용한 소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묻는데, 이때에는 SNS 등의 전반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했

다. 또한, 부부간의 전반적인 대화 주제에 대해 파악하고, 특정 의견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결혼 전까지의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한다. 결혼 전 주변 상황은 본인의 자녀관 및 결혼관에 영향을 줄 만한 상황, 예를 들어, 아거나 어린아이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결혼한 주변 친구들이 행복할 것 같은지 등에 대한 정도를 묻는다.

〈표 3-16〉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부모 관련 사항 및 부부간의 관계·가치관): 개인

구분	항목
부모님 관련 사항	- 생존 여부, 생년, 학력
부부간의 관계·가치관	-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 정도 - 평소 대화 시간, 배우자와의 대화(소통) 만족도 - 평소 대화 주제 - 결혼 전 주변 상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7)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본 영역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다. 먼저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생각,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알고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이용해 본 적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한다.

〈표 3-17〉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항목(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개인

구분	항목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 결혼 장려 정책 - 출산 장려 정책
정책 인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 임대주택 지원 - 청년 일자리 정책 - 임신·출산 정책 - 보육·돌봄 정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2. 조사 문항 구성²⁶⁾

본 조사의 문항은 신혼부부 실태를 파악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신력 있는 조사 항목을 차용하고,²⁷⁾ 이 외에는 본 조사만의 독자적인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먼저 가구원 및 주거 관련 사항 영역 중 가구 대표자 조사의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조사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항목은 제외하고, 신혼집인 경우에서의 조사 항목인 같이 산 사람,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비용, 주택 규모, 시군구는 김남정 외(2014)에서 실시한 신혼부부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문항을 참조하였다. 여기에서 점유 형태에는 무상이 선택지로 포함되어 있는데, 무상은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 친척 집, 사택, 관사 등에 사는 경우이다. 만일 부모님과 공적인 계약을 통하여 자가 및 전세를 마련한 경우라면 무상이라고 할 수 없다.

가족 형성 영역의 만남, 교제 시기, 결혼식 여부 및 시기, 혼인신고 여

26) 본 소절의 전체적인 틀(표 등)은 양계민, 강경균, 김주영(2017)을 참조함.

27) 예를 들어, 일자리 관련 문항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주거와 관련된 문항은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주거실태 패널조사', 출산 및 양육 관련 문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및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주로 참조함.

부 및 시기는 본 조사의 연구진이 구성한 문항이다. 또한, 육아·가사 분담 비율도 연구진이 고안한 것으로 본인의 비율은 직접 응답하고 배우자는 100%에서 차감하여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상황에서 부동산 시가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에서 참조하였다.

〈표 3-18〉 가구 대표자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척도 출처

구분		조사 항목	하위 문항	출처	
가구원 및 주거 관련 사항	신혼집, 첫 자녀 출산 당시 주거, 현재 집	같이 산 사람		연구진 작성	
		주택 유형		김남정 외(2014)	
		점유 형태			
		주택 비용	비용		
		주택 비용 (신혼집)	마련 경로	연구진 작성	김남정 외(2014)
			비용 마련		
			명의		
		주택 규모			
시군구					
가족형성 및 육아·가사	만남·교제 및 결혼식·혼인 신고	만남		연구진 작성	
		교제 시기			
		결혼식			
		혼인신고			
	육아·가사	가사 분담 비율			
		육아 분담 비율			
경제적 상황		부동산 시가		김유빈 외(2018)	

다음으로 개인 설문지를 살펴보면, 교육에서는 김기현 외(2018)에서 조사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청년 조사표를 참고하였다. 최종학교 입학 전후 일자리부터 현재의 일자리, 경제적 상황에서의 금융자산, 부채

까지는 대부분 김유빈 외(2018)의 ‘노동패널조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주거는 가구 대표자의 주거와 동일하며, 결혼 준비 영역에서 결혼 비용은 본 조사의 연구진이 작성한 것으로 주택 이외의 결혼 비용에 대하여 본인, 부모님, 기타(대출 등)로 나누어 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우자와의 교제 영역에서는 교제 이전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데 이것은 經濟産業省(2006)에서 실시한 미혼 조사에 바탕을 둔다. 經濟産業省(2006)은 일본의 미혼·만혼화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혼 인구의 이성 교제와 관련된 조사(결혼상담·결혼정보 서비스에 관한 조사 2005)를 실시하였다. 그중에 이성 교제라는 행동이 개인의 활동 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취미·학원 등의 활동, 종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교류,²⁸⁾ 친구들과과의 만남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배우자를 알게 된 경로는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7)에서 실시하는 ‘출생동향기본조사’의 기혼조사표를 참조하였다.

결혼 영역의 혼인 상태, 결혼 연기 여부 및 이유는 연구진이 작성하였다. 결혼 연기는 결혼식 등이 연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 본인들이 생각했던 시기에 결혼을 못 했을 경우도 포함한다. 가치관은 결혼 전후 변화, 별거 및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현재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하는데, 결혼 전후 생활 변화는 Generation & Gender Program(GGP)의 조사표를 참고하여, 생활수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취직 및 승진 기회,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판, 마음의 안정(행복감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별거 및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3개 척도, 결혼 만족도에 대해 10개 척도로 구성하였다.

28) 본 문항은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할 수 있음.

출산과 임신 영역은 대부분 연구진이 작성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와 함께 임신 중인 경우도 고려하여 응답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고, 임신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 간 경험과 기간에 대해 조사한다. 출산 계획 영역에서는 연구진이 작성한 희망 자녀수에 대해 결혼 전후에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했으며, GGP의 문항을 참조하여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이유를 조사하였다. 반면,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소영 외(2018)의 ‘출산력 및 보건·복지 실태 조사’를 참조하였다.

양육 영역의 돌봄과 가치관, 육아·가사 부분도 ‘출산력 및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참조하였으나, 양육의 어려움은 연구진이 직접 고안하여 도입하였고, 육아·가사 시간은 이소영 외(2018)의 ‘출산력 및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참조하였으나, 간략하게 주말과 휴일을 통합하였다.

일·가정 양립 영역도 대부분 연구진이 작성하였는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5개 척도,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0개 척도로 하였고, 수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과 가정의 중요성은 총 100%를 양쪽에 분배하는 식으로 조사하였다.

부모 관련 사항 영역에서의 생존 여부는 GGP를 참조하였고, 경제적 교류는 연구진이 작성하였으나, 생년과 학력은 GGP JAPAN과 ‘출생동향기본조사’에서 차용하였다.

부부간 관계 및 가치관에서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 여부는 GGP의 조사표를 참조하여 가사 분담, 경제적 문제, 본인 및 배우자의 취미 및 휴일의 시간 사용, 성생활, 본인 및 배우자의 친구관계,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자녀를 갖는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 및 흡연 문제, 기타에 대해 4개 척도로 조사하였다. 부부간의 대화에서 대화 시간과 대화 만족도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년 가족실

태조사'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대화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고안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족 관련 가치관은 GGP JAPAN의 내용을 참고하였는데, 대부분 젠더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혼 전 주변 상황은 결혼 및 출산 의향과 관련된 문항으로 주변에서 어린아이를 많이 만나는 환경이나 부모님 또는 결혼한 부부를 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영역에서는 정책에 대한 견해와 정책 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출산 장려 정책과 결혼 장려 정책으로 나누었고, 이에 대한 인지와 도움 정도에 대해 4개 척도로 조사한다.

〈표 3-19〉 개인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척도 출처

구분		조사 항목	하위 문항	출처
교육	최종학력	학력		김기현 외(2018)
		학교 소재지		
		졸업 여부		
		졸업연월		
경제활동	최종학교 입학 전후 및 모든 일자리 공통	시기		김유빈 외(2018)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정규직 여부		
		월평균 소득		
		근로시간	정규근로시간 유무	
			주당근무일수	
			초과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	
		종사자수		
	현재 일자리	첫 일자리 퇴사 이유		

구분		조사 항목	하위 문항	출처
경제적 상황		금융 자산		
		부채		
주거	최종학교 졸업 당시 및 모든 주거 공통	같이 산 사람		김남정 외(2014), 国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 究所(2017)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비용		
		주택 규모		
		시군구		
결혼 준비	결혼 비용 관 련	결혼 비용	본인 지출	연구진 작성
			부모님 지출	
			기타	
		결혼 비용 부담	부담 정도 (4개 척도)	
배우자와 교제		교제 이전 활동	취미·학원	經濟産業省(2006)
			종교·봉사	
			직장 동료 및 상사	
			친구	
		배우자를 알게 된 경로		国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 究所(2017)
결혼		혼인 상태		연구진 작성
		결혼 연기 여부	(연기한 경우) 이유	
	가치관	결혼 전후 생활 변화	생활수준	GGP
			자유	
			취직 및 승진	
			평판	
			마음의 안정	
			주변 사람 관계	
	별거 및 이혼	3개 척도	연구진 작성	
결혼 만족도	10개 척도			
출산		자녀수	임신한 경우 자녀수	연구진 작성
임신	임신의 어려움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이용 경험		
	임신 준비	(있는 경우) 기간		

90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조사 항목	하위 문항	출처
출산 계획		희망 자녀수	결혼 전 희망 자녀수	연구진 작성
			결혼 후 희망 자녀수	
	출산 의향	(있는 경우) 시기	(시기에 따라) 자녀수 및 이유	GGP
(없는 경우) 이유			이소영 외 (2018)	
양육	돌봄	돌봄 서비스		이소영 외 (2018)
	가치관	경제적 지원		
			양육 어려움	
	육아·가사	가사 시간		이소영 외 (2018)
		육아시간		
일·가정 양립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5개 척도	연구진 작성
		직장과 가정 병행 어려움	10개 척도	
		직장과 가정 중요성	비율	
부모 관련 사항		생존 여부		GGP
		경제적 교류	(있는 경우) 주는 금액	연구진 작성
			(있는 경우) 받는 금액	
		생년		GGP JAPAN,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7)
		학력		
부부간 관계·가치관	부부간 관계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 여부	가사	GGP
			경제적 문제	
			취미 및 휴일 시간	
			성생활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를 갖는 문제	
			자녀 양육	

구분		조사 항목	하위 문항	출처
			음주 및 흡연 문제	
			기타	
	부부간 대화	대화 시간		장혜경 외(2015)
		대화 만족도		
		대화 주제		연구진 작성
	가치관	가족 관련 가치관	4개 척도	GGP JAPAN
		결혼 전 주변 상황	4개 척도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7)
정책	정책에 대한 견해	출산 장려	4개 척도	연구진 작성
		결혼 장려	4개 척도	
	정책 인지	(인지할 경우) 경험	(경험 있을 경우) 도움 정도	

제3절 조사 완료 신혼부부의 일반적 특성

조사 결과 1779가구의 3558명의 신혼부부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절에서는 조사가 완료된 신혼부부의 일반적 특성과 부부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먼저 조사가 완료된 신혼부부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남편이 7.0%, 아내가 19.4%, 30대 남편이 72.3%, 아내가 68.3%, 40대 남편이 20.7%, 아내가 12.4%로 나타났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편의 경우 연령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대 남성이 소수 포함되어 있다.²⁹⁾

29) 50세 이상의 남편 수는 15명이며, 이후의 분석에서는 40대 이상으로 표기함.

〈표 3-20〉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연령 분포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20대	7.0	19.4
30대	72.3	68.3
40대 이상	20.7	12.4
합계 (N)	100.0 (1,779)	

주: 남편의 경우는 50대 남성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조사 완료 신혼부부의 연령 차이 중 동갑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부부가 동갑인 경우는 18.0%, 남편의 연령이 높은 경우는 73.1%, 아내의 연령이 높은 경우는 9.0%로 나타났다.

〈표 3-21〉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연령 차이(동갑 여부) 분포

(단위: %, 명)

구분	비율
동갑	18.0
남편이 높은 경우	73.1
아내가 높은 경우	9.0
합계 (N)	100.0 (1,7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부부의 연령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들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연령이 높은 경우, 아내와 한 살 차이가 나는 비율은 19.4%, 두 살은 28.4%, 세 살은 23.7%, 네 살은 12.5%, 다섯 살은 6.4%, 여섯 살 이상은 9.7%이고, 아내의 연령이 높은 경우 남편과의 연령 차이가 한 살인 비율은 43.7%, 두 살은 26.0%, 세 살은 11.7%, 네 살은 7.8%, 다섯 살은 2.7%, 여섯 살 이상은 8.1%로 나타났다. 대체로 신혼부부의 연령 차이는 세 살 이내가 대부분(남편이 높은 경우: 71.5%, 아내가 높은 경우: 81.4%)으로 나타났고, 아내가 높은 경우에는 남편이 높

은 경우에 비하여 한 살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22〉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연령 차이 분포 (단위: %, 명)

구분	남편이 높은 경우	아내가 높은 경우
한 살	19.4	43.7
두 살	28.4	26.0
세 살	23.7	11.7
네 살	12.5	7.8
다섯 살	6.4	2.7
여섯 살 이상	9.7	8.1
합계 (N)	100.0 (1,300)	100.0 (16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고졸 이하는 12.7%, 대졸이 84.1%, 대학원 졸이 3.2%로 나타났고, 아내는 고졸 이하가 15.6%, 대졸이 82.2%, 대학원 졸이 2.2%로 나타나 남편 전체와 아내 전체의 학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학력 분포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고졸 이하	12.7	15.6
대졸	84.1	82.2
대학원 졸	3.2	2.2
합계 (N)	100.0 (1,7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과 아내의 학력 차이를 살펴보면, 같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69.2%로 나타났고, 남편이 높은 경우는 22.3%, 아내가 높은 경우는 8.5%로 나타났다.

〈표 3-24〉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학력 차이 분포

(단위: %, 명)

구분	비율
같음	69.2
남편이 높은 경우	22.3
아내가 높은 경우	8.5
합계 (N)	100.0 (1,7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는 일하고 있는 남편은 78.9%, 아내는 42.4%로 아내의 경우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일하고 있음	78.9	42.4
일하지 않음	21.1	57.6
합계 (N)	100.0 (1,7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상태의 차이, 즉 맞벌이인지 남편 혹은 아내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맞벌이는 34.5%, 남편만 일하는 경우는 44.5%, 아내만 일하는 경우는 7.9%로 나타났다.

〈표 3-26〉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상태 차이(맞벌이 여부) 분포

(단위: %, 명)

구분	비율
맞벌이	34.5
남편만 일하는 경우	44.5
아내만 일하는 경우	7.9
기타	13.2
합계 (N)	100.0 (1,7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신혼부부의 혼인 상태는 초혼이 대부분으로 남편이 초혼인 경우는 98.3%, 재혼은 1.7%, 아내가 초혼인 경우는 98.1%, 재혼은 1.9%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상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둘 다 초혼인 경우는 97.8%로 나타났고, 둘 다 재혼인 경우가 1.4%, 남편이 초혼이고 아내가 재혼인 경우는 0.6%, 남편이 재혼이고 아내가 초혼인 경우는 0.3%로 나타났다.

〈표 3-27〉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혼인 상태 분포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초혼	98.3	98.1
재혼	1.7	1.9
합계 (N)	100.0 (1,724)	

주: 동거·사실혼은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3-28〉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혼인 상태 차이 분포

(단위: %, 명)

구분	비율
둘 다 초혼	97.8
둘 다 재혼	1.4
남편 초혼, 아내 재혼	0.6
남편 재혼, 아내 초혼	0.3
합계 (N)	100.0 (1,724)

주: 동거·사실혼은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신혼부부의 혼인 연차 분포를 살펴보면 1~2년이 21.2%, 3~5년이 45.3%, 6~7년이 33.4%로 나타났고, 지역 분포는 서울·경기가 47.9%, 광역시 25.5%, 그 외 지역이 26.6%로 나타났다.

〈표 3-29〉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혼인 연차 분포

(단위: %, 명)

구분	비율
1~2년	21.2
3~5년	45.3
6~7년	33.4
합계 (N)	100.0 (1,7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3-30〉 조사 완료된 신혼부부의 지역 분포

(단위: %, 명)

구분	비율
서울·경기	47.9
광역시	25.5
그 외 지역	26.6
합계 (N)	100.0 (1,7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 2 부

조사 결과 I (미혼기)

제4장 최종학교 졸업

제5장 첫 일자리

제6장 배우자와의 교제

제1절 최종학교 특성

조사에 응답한 신혼부부 중 남편의 교육 수준은 대졸이 84.1%로 가장 많고, 고졸 이하가 12.7%, 대학원 이상이 3.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비율은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대졸 및 대학원 이상 학력은 수도권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편이다. 혼인지속기간별로는 고졸의 비율이 1~2년 차에 15.4%로 가장 높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낮아졌다. 그리고 현재 소득의 경우 고졸 이하의 비율은 소득 250만 원 미만 집단에서 29.6%로 가장 높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아졌으며 대졸의 비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소득 350만 원 이상 집단의 대졸자 비율이 88.6%였다.

〈표 4-1〉 교육 수준(남편)

(단위: %, 명)

구분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계(%)	(N)
전체	12.7	84.1	3.2	100.0	(1,779)
지역 ($\chi^2=122.2^{***}$)					
서울·경기	6.8	89.5	3.7	100.0	(852)
광역시	8.8	88.6	2.6	100.0	(454)
그 외	27.1	70.0	2.8	100.0	(473)
연령 ($\chi^2=46.8^{***}$)					
20대	28.1	66.7	5.2	100.0	(125)
30대	9.8	87.2	3.0	100.0	(1,286)
40대 이상	17.7	79.1	3.2	100.0	(368)
혼인지속기간 ($\chi^2=3.8$)					

구분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계(%)	(N)
1~2년	15.4	81.6	3.1	100.0	(378)
3~5년	12.1	85.0	2.8	100.0	(806)
6~7년	11.8	84.5	3.7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70.8^{***}$)					
250만 원 미만	29.6	64.3	6.1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15.7	82.3	2.1	100.0	(671)
350만 원 이상	7.9	88.6	3.5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조사에 응답한 신혼부부 중 아내의 교육 수준은 대졸이 82.8%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15.6%, 대학원 이상이 2.2%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고졸 이하의 비율이 높아지고,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소득별로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졸의 비율이 20.0%로 가장 높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대학원 이상의 경우 고졸 비율과 반대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져 소득 350만 원 이상에서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 교육 수준(아내)

(단위: %, 명)

구분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계(%)	(N)
전체	15.6	82.2	2.2	100.0	(1,779)
지역 ($\chi^2=97.8^{***}$)					
서울·경기	9.2	88.2	2.6	100.0	(852)
광역시	13.1	84.5	2.4	100.0	(454)
그 외	29.3	69.2	1.5	100.0	(473)
연령 ($\chi^2=28.7^{***}$)					
20대	15.9	82.5	1.5	100.0	(345)
30대	13.3	84.2	2.5	100.0	(1,214)
40대	27.3	70.7	2.0	100.0	(220)

구분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계(%)	(N)
혼인지속기간 ($\chi^2=12.9^*$)					
1~2년	13.8	83.6	2.7	100.0	(378)
3~5년	13.7	84.8	1.5	100.0	(806)
6~7년	19.2	77.9	2.9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46.3^{***}$)					
250만 원 미만	20.0	78.3	1.7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9.1	88.5	2.3	100.0	(529)
350만 원 이상	8.3	86.6	5.1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2절 주거 특성

최종학교를 졸업할 당시 같이 산 사람을 살펴보면,³⁰⁾ 남편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가 80.8%, 형제자매 및 친인척이 37.4%, 혼자 산 경우가 15.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일수록 혼자 사는 비율이 19.2%로 높은 편이고, 서울·경기 지역은 부모 및 조부모의 비율도 높은 편이지만(81.0%), 형제자매 및 친인척(48.9%)이 같이 살고 있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혼자 사는 비율이 26.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 졸의 경우 24.3%로 혼자 사는 비율이 높고, 현 배우자(당시 애인)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16.0%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부모 및 조부모가 84.3%, 형제자매 및 친인척은 40.8%, 혼자 산 경우가 12.3%로 나타났다. 혼자 산 경우를 지역별로 보면, 그 외 지역에서 19.6%로 가장 높은 반면, 연령에 따른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30) 복수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율의 합이 100%를 넘음.

러나 대학원 졸의 경우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비율(19.7%)과 현 배우자(당시 애인)와 같이 살고 있는 비율(16.6%)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4-3〉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 같이 산 사람

(단위: %, 명)

구분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 및 지인	없음 (혼자)	현 배우자 (당시 애인)	기타	(N)
남편 전체	80.8	37.4	2.3	15.0	1.2	0.6	(1,779)
지역							
서울·경기	81.0	48.9	2.8	14.1	1.2	0.3	(852)
광역시	85.1	28.5	1.3	12.4	0.7	0.4	(454)
그 외	76.2	25.4	2.2	19.2	1.8	1.4	(473)
연령							
20대	62.9	24.3	7.3	26.3	3.4	1.1	(125)
30대	82.3	38.6	1.9	13.7	1.3	0.6	(1,286)
40대 이상	81.4	37.7	1.7	15.8	0.4	0.4	(368)
학력							
고졸 이하	73.5	27.3	7.3	17.6	0.6	-	(226)
대졸	83.0	39.2	1.2	14.3	0.8	0.3	(1,496)
대학원 졸	50.4	30.4	9.3	24.3	16.0	11.2	(56)
아내 전체	84.3	40.8	1.4	12.3	0.9	0.1	(1,779)
지역							
서울·경기	85.1	52.9	1.5	10.9	1.2	-	(852)
광역시	90.8	31.3	0.7	7.4	0.3	-	(454)
그 외	76.6	28.2	1.8	19.6	0.8	0.4	(473)
연령							
20대	81.9	37.8	1.2	14.1	1.4	0.1	(345)
30대	85.5	42.6	1.2	11.3	0.9	0.1	(1,214)
40대	81.4	35.9	2.6	15.2	-	-	(220)
학력							
고졸 이하	82.1	37.5	3.5	13.5	0.2	-	(277)
대졸	85.6	41.6	0.9	11.9	0.6	0.0	(1,463)
대학원 졸	52.0	34.2	3.0	19.7	16.6	3.3	(40)

주: 복수 응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최종학교를 졸업할 당시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아파트/주상복합이 44.1%, 일반 단독 주택이 27.9%,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1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일반 단독 주택은 그 외 지역에서 41.6%로 유의하게 가장 높고, 다세대 주택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12.2%로 높은 경향이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 단독 주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낮을수록 다세대 주택(원룸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의 경우, 다세대 주택(원룸 등)의 비율이 23.1%로 다른 층에 비해 높고, 고졸 이하의 경우 일반 단독 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아파트/주상복합이 50.1%, 일반 단독 주택이 23.5%,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9.1%로 나타났다. 아내에서도 남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 단독 주택은 그 외 지역에서 35.4%로 높고, 다세대 주택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12.8%로 높은 경향이 있다. 연령별로 보면, 아파트/주상복합과 다세대 주택(원룸 등)은 20대(52.3%, 11.6%)에서 높고, 학력별로 보면, 일반 단독 주택은 고졸 이하(37.6%), 아파트/주상복합은 대졸(53.8%), 다세대 주택(원룸 등)은 대학원 졸(26.2%)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4-4〉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 주택 유형

(단위: %, 명)

구분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 단독 주택	아파트 /주상 복합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오피스 텔	기타	계(%)	(N)
남편 전체	27.9	7.0	44.1	6.9	10.4	0.9	2.7	100.0	(1,779)
지역 ($\chi^2=120.7^{***}$)									
서울·경기	19.5	10.3	44.0	8.9	12.2	1.4	3.7	100.0	(852)
광역시	29.5	6.3	48.2	6.7	8.0	0.7	0.6	100.0	(454)
그 외	41.6	1.8	40.2	3.7	9.5	0.2	3.0	100.0	(473)

구분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 단독 주택	아파트 /주상 복합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오피스 텔	기타	계(%)	(N)
연령 ($\chi^2=72.5^{***}$)									
20대	23.5	2.5	37.6	8.4	18.0	0.7	9.3	100.0	(125)
30대	25.6	7.2	46.2	7.0	11.2	0.6	2.2	100.0	(1,286)
40대 이상	37.6	8.0	38.8	6.2	5.0	2.0	2.4	100.0	(368)
학력 ($\chi^2=69.4^{***}$)									
고졸 이하	43.2	6.0	27.2	8.9	8.3	0.4	6.0	100.0	(226)
대졸	26.1	7.4	46.4	6.6	10.3	1.0	2.2	100.0	(1,496)
대학원 졸	15.6	-	49.4	8.1	23.1	1.7	2.1	100.0	(56)
아내 전체	23.5	6.9	50.1	8.1	9.1	0.3	2.1	100.0	(1,779)
지역 ($\chi^2=138.9^{***}$)									
서울·경기	17.1	10.1	47.4	10.5	12.8	0.4	1.8	100.0	(852)
광역시	23.1	5.9	60.5	6.5	3.1	0.2	0.8	100.0	(454)
그 외	35.4	2.1	44.9	5.3	8.3	0.2	3.8	100.0	(473)
연령 ($\chi^2=14.3$)									
20대	17.7	6.7	52.3	8.7	11.6	0.6	2.4	100.0	(345)
30대	24.4	6.9	49.6	7.8	9.0	0.2	2.0	100.0	(1,214)
40대	27.4	7.0	49.1	8.6	6.1	-	1.8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37.6	7.1	32.5	11.9	8.3	0.3	2.3	100.0	(277)
대졸	21.1	7.0	53.8	7.3	8.8	0.3	1.8	100.0	(1,463)
대학원 졸	13.5	2.8	34.3	11.6	26.2	-	11.7	100.0	(4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최종학교를 졸업할 당시의 주거에서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무상³¹⁾이 49.2%로 가장 높고, 자가가 34.4%, 전세와 보증부 월세가 각각 6.5%, 6.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무

31) 여기에서 무상은 부모님 집, 친척 집, 사택, 관사 등 별도의 주거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을 통칭함.

상의 비율이 50.7%로 유의하게 가장 높고, 연령대로 보면, 20대의 무상의 비율이 43.7%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보증부 월세가 10.5%, 기타(고시촌, 기숙사 등)의 비율이 9.8%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20대 청년들이 공시 및 고시 준비, 취업 준비로 대학 주변에서 생활하는 패턴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에서 보증부 월세 13.8%, 기타 13.2%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이 20대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향 그리고 학교에 재적하면서 각종 시험 준비 및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내의 경우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무상이 51.1%, 자가 33.4%, 전세가 7.3%, 보증부 월세가 5.7%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지방일수록 무상의 비율이 낮아지고,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무상의 비율이 낮으며(47.7%), 대학원 졸에서 보증부 월세(18.7%)와 기타의 비율(8.3%)이 높은 것 등 여러 측면에서 남편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준다.

〈표 4-5〉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무상	계(%)	(N)
남편 전체	34.4	6.5	6.4	0.8	2.7	49.2	100.0	(1,779)
지역 ($\chi^2=51.3^{***}$)								
서울·경기	32.8	6.3	4.8	0.6	4.8	50.7	100.0	(852)
광역시	38.6	7.7	4.9	0.5	0.4	47.8	100.0	(454)
그 외	33.3	5.7	10.6	1.3	1.2	48.0	100.0	(473)
연령 ($\chi^2=52.1^{***}$)								
20대	25.2	10.9	10.5	-	9.8	43.7	100.0	(125)
30대	36.9	6.0	5.8	1.1	2.4	47.8	100.0	(1,286)
40대 이상	28.9	6.5	7.0	-	1.3	56.3	100.0	(368)
학력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무상	계(%)	(N)
고졸 이하	30.2	7.7	6.0	2.2	4.2	49.6	100.0	(226)
대졸	35.3	6.3	6.1	0.6	2.1	49.6	100.0	(1,496)
대학원 졸	29.4	5.1	13.8	-	13.2	38.4	100.0	(56)
아내 전체	33.4	7.3	5.7	0.5	2.1	51.1	100.0	(1,779)
지역 ($\chi^2=38.9^{***}$)								
서울·경기	31.3	7.7	4.7	0.4	2.7	53.2	100.0	(852)
광역시	37.5	7.1	3.4	0.2	0.2	51.6	100.0	(454)
그 외	33.1	6.8	9.6	0.8	2.9	46.8	100.0	(473)
연령 ($\chi^2=8.1$)								
20대	34.4	8.6	6.9	0.8	1.7	47.7	100.0	(345)
30대	33.0	6.9	5.2	0.4	2.4	52.2	100.0	(1,214)
40대	34.0	7.4	6.6	0.5	1.1	50.5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37.1	9.7	5.0	1.4	1.8	45.0	100.0	(277)
대졸	33.1	6.7	5.4	0.3	2.0	52.5	100.0	(1,463)
대학원 졸	18.2	13.7	18.7	-	8.3	41.1	100.0	(40)

주: 1) * $p<0.05$, ** $p<0.01$, *** $p<0.001$

2) 반전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연세·사글세·일세·기숙사 등은 기타이고, 부모님 집·친척 집·사택·관사 등은 무상에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최종학교를 졸업할 당시 주거의 주택 비용(납편)은 자가의 경우 2억 6800만 원, 전세가 1억 3913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 2408만 원에 월세가 29만 8000원, 월세는 39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의 자가는 3억 6510만 원, 전세는 2억 759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 4238만 원에 월세 32만 9000원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의 금액이 낮아지는 반면, 전세 금액은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아내의 경우에는 자가가 2억 5206만 원, 전세가 1억 4975만 원, 보증

부 월세에서 보증금이 4401만 원, 월세가 28만 5000원, 월세는 41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속성에 따른 경향은 남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6〉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 주택 비용

(단위: 만 원,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매매가	보증금	보증금	월세	월세	
남편 전체	26,799.8	13,913.4	2,407.8	29.8	39.1	37.1
지역						
서울·경기	36,509.6	20,758.5	4,238.1	32.9	49.6	35.5
광역시	20,364.1	8,605.8	2,261.0	27.9	23.3	17.1
그 외	16,685.9	7,178.3	993.9	28.1	35.0	55.4
연령						
20대	26,449.6	13,161.3	3,621.6	27.2	-	46.2
30대	27,738.2	13,513.6	2,443.1	31.2	39.1	35.9
40대 이상	22,715.9	15,648.3	1,685.4	27.0	-	21.9
학력						
고졸 이하	14,213.9	6,929.4	1,187.8	29.2	40.4	53.6
대졸	28,431.7	15,035.3	2,620.7	29.6	38.4	33.2
대학원 졸	26,812.7	19,379.2	2,039.3	33.6	-	32.5
(N)	(613)	(115)	(113)	(113)	(14)	(49)
아내 전체	25,206.1	14,975.0	4,401.3	28.5	41.2	31.6
지역						
서울·경기	33,248.5	21,229.3	2,063.1	32.4	53.5	36.3
광역시	20,647.3	8,808.3	3,132.1	30.3	50.0	30.0
그 외	16,464.1	8,353.0	6,881.9	24.5	27.5	23.9
연령						
20대	26,883.4	15,651.6	2,578.4	30.1	33.7	29.9
30대	25,195.7	14,307.3	5,840.9	27.9	43.7	33.9
40대	22,604.9	17,200.2	1,149.6	28.7	50.0	8.1
학력						
고졸 이하	16,049.4	10,586.1	2,376.7	21.7	46.4	30.2
대졸	27,224.9	16,424.6	5,084.5	28.5	36.6	29.7
대학원 졸	20,002.0	10,765.4	887.0	41.9	-	49.9
(N)	(594)	(130)	(101)	(101)	(8)	(37)

주: 매매가는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 보증금은 점유 형태가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 경우, 월세는 점유 형태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기타인 경우에 해당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의 크기는 남편은 29.2평, 아내는 29.1평으로 나타났고,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가 큰 경향이 있다(남편: 30.4평, 아내: 29.7평). 연령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없으나, 대졸의 경우가 가장 크기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남편: 30.0평, 아내: 29.7평).

〈표 4-7〉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 주택 규모

(단위: 평, 명)

구분	남편		아내	
	평	(N)	평	(N)
전체	29.2	(1,779)	29.1	(1,779)
지역				
서울·경기	30.4	(852)	29.7	(852)
광역시	28.8	(454)	30.0	(454)
그 외	27.6	(473)	27.0	(473)
연령				
20대	25.8	(125)	28.3	(345)
30대	29.6	(1,286)	29.3	(1,214)
40대	28.9	(368)	28.8	(220)
학력				
고졸 이하	25.2	(226)	26.0	(277)
대졸	30.0	(1,496)	29.7	(1,463)
대학원 졸	25.5	(56)	26.2	(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조사가 완료된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의 교육 수준, 최종학교 졸업 시점에서의 주거와 일자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남편의 교육 수준은 대졸이 84.1%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12.7%, 대학원 이상이 3.2%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방에서 학력의 분포가 낮은 경향이 있었으며, 소득도 낮은 경향이 있었다. 아내의 교육 수준도 대졸이 82.8%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15.6%, 대학원 이상이 2.2%로 남편과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주거 관련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최종학교 졸업 당시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같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학력이 대학원 졸업 경우에는 혼자 사는 비율과 현 배우자(당시 애인)과 같이 사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아파트/주상복합, 일반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원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 대학원 졸업의 경우는 다세대 주택(원룸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것도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점유 형태는 무상(부모님 집 등),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약 50% 정도가 무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의 특징은 20대에서 보증부 월세 및 기타(고시촌, 기숙사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대학원 졸업의 고스펙과 연결되면서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각종 시험 준비 및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할 당시의 주거는 약 50%가 무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 부모의 주거와 동일하다고 생각되나, 대학원 졸업의 경우는 같이 산 사람에서도 혼자 사는 비율 및 현 배우자와 같이 사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 독립해 사

는 주거라고 생각된다. 즉, 최종학교 졸업 당시의 주거는 부모와 본인 및 배우자의 주거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종학교 졸업 당시 주거의 크기는 남편은 29.2평, 아내는 29.1평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의 첫 일자리를 파악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먼저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 일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일자리를 가진 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한다.³²⁾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만 19세 이후에 취업 경험이 있는지부터 조사한다. 단, 본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전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았다.

제1절 첫 일자리 특성

조사가 완료된 신혼부부의 남편 중에서 응답자 1779명 중 88.6%가 만 19세 이후에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경우가 90.5%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자리 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학력이 대졸인 경우가 8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일자리의 상세에 대해 묻기 때문에 표본수가 변화하게 됨. 이후의 장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문항일 경우에도 표본수가 변화하는 것에 유의해야 함.

〈표 5-1〉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일자리 유무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유무		계(%)	(N)
	있음	없음		
전체	88.6	11.4	100.0	(1,779)
지역 ($\chi^2=7.8^*$)				
서울·경기	90.5	9.5	100.0	(852)
광역시	88.3	11.7	100.0	(454)
그 외	85.5	14.5	100.0	(473)
연령 ($\chi^2=3.7$)				
20대	86.2	13.8	100.0	(125)
30대	88.0	12.0	100.0	(1,286)
40대 이상	91.3	8.7	100.0	(368)
학력 ($\chi^2=3.0$)				
고졸 이하	87.2	12.8	100.0	(226)
대졸	89.0	11.0	100.0	(1,496)
대학원 졸	81.9	18.1	100.0	(5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아내의 경우 응답자 1779명 중 84.7%가 만 19세 이후에 일 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경우 86.9%가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연령별로는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자리 경험 비율도 높아졌다. 그리고 대졸일 때 일자리를 가져 본 비율이 85.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일자리 유무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유무		계(%)	(N)
	있음	없음		
전체	84.7	15.3	100.0	(1,779)
지역 ($\chi^2=6.3^*$)				
서울·경기	86.9	13.1	100.0	(852)
광역시	82.9	17.1	100.0	(454)
그 외	82.5	17.5	100.0	(473)
연령 ($\chi^2=10.4^{**}$)				
20대	79.1	20.9	100.0	(345)
30대	85.9	14.1	100.0	(1,214)
40대	86.9	13.1	100.0	(220)
학력 ($\chi^2=1.7$)				
고졸 이하	84.5	15.5	100.0	(277)
대졸	85.0	15.0	100.0	(1,463)
대학원 졸	77.6	22.4	100.0	(4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의 직종은 사무종사자가 48.7%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자가 13.2%, 판매종사자 9.7%의 순이며 기타를 제외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관련 종사자의 비율은 서울·경기에서 각각 4.1%, 8.5%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반대로 서비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등의 비율은 서울·경기에서 각각 10.0%, 4.3%로 가장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연령별로 보면,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율은 20대에서 각각 9.9%, 11.4%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으며,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높아져 40대 이상에서 16.9%로 가장 높다. 학력별로는 서비스종사자, 판매

종사자 등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전문가·관련 종사자의 경우만 학력이 높아질수록 종사자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3〉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직종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N)
전체	3.5	7.2	48.7	13.2	9.7	0.3	8.6	5.6	2.3	1.0	-	100.0	(1,574)
지역 ($\chi^2=138.9^{***}$)													
서울·경기	4.1	8.5	56.3	10.0	9.8	-	4.3	4.0	1.7	1.4	-	100.0	(769)
광역시	3.8	6.4	47.7	13.4	11.9	-	11.5	4.7	0.5	0.0	-	100.0	(400)
그 외	2.3	5.4	35.2	19.2	7.1	1.1	13.8	9.4	5.3	1.3	-	100.0	(404)
연령 ($\chi^2=55.6^{***}$)													
20대	3.9	8.0	36.2	11.7	9.4	0.4	9.9	11.4	5.3	3.7	-	100.0	(108)
30대	3.1	7.9	51.3	12.2	9.2	0.1	8.6	5.2	1.4	1.0	-	100.0	(1,130)
40대 이상	4.9	4.4	44.0	16.9	11.1	0.9	8.2	5.0	4.3	0.3	-	100.0	(336)
학력													
고졸 이하	3.2	2.5	8.7	23.5	19.7	2.2	19.0	13.0	6.5	1.6	-	100.0	(197)
대졸	3.6	6.9	55.1	12.0	8.3	-	7.3	4.5	1.4	0.9	-	100.0	(1,330)
대학원 졸	3.5	35.3	35.9	2.9	6.2	-	-	4.2	10.6	1.4	-	100.0	(46)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관리자,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업·림업·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경우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의 직종은 사무종사자가 58.7%로 가장 높고, 서비스종사자가 20.4%, 판매종사자 8.8% 순이며 농업·림업·숙련종사자가 0.0%, 군인이 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은 서울·경기에서 67.1%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전문가·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는 서울·경기에서 각각 6.2%, 15.3%, 7.5%로 가장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연령별로는 전문직, 사무직은 20대에 비해 30대에

높아졌다가 40대에 다시 낮아지고, 반대로 서비스직, 판매직은 30대에 낮아졌다가 40대에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서비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비율이 고졸 이하 학력에서 가장 높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5-4〉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직종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N)
전체	1.0	6.8	58.7	20.4	8.8	-	2.6	0.9	0.5	0.1	0.2	100.0	(1,503)
지역													
서울·경기	1.4	6.2	67.1	15.3	7.5	-	1.1	0.8	-	0.1	0.4	100.0	(741)
광역시	0.5	7.3	57.0	20.8	10.0	-	4.0	0.2	0.2	-	-	100.0	(374)
그 외	0.6	7.7	44.2	29.7	10.2	-	4.0	1.7	1.7	0.2	-	100.0	(387)
연령													
20대	1.8	4.9	54.5	24.9	9.9	-	2.8	0.4	0.3	0.6	-	100.0	(270)
30대	0.9	8.1	59.6	19.2	8.3	-	2.1	1.0	0.5	0.0	0.3	100.0	(1,042)
40대	-	3.0	59.4	20.4	10.3	-	4.8	1.3	0.7	-	-	100.0	(191)
학력													
고졸 이하	1.2	-	25.8	39.3	21.6	-	7.5	2.9	1.7	-	-	100.0	(234)
대졸	0.8	7.3	65.6	17.0	6.4	-	1.7	0.6	0.3	0.1	0.3	100.0	(1,238)
대학원 졸	5.5	40.3	28.3	14.8	8.0	-	-	-	-	3.1	-	100.0	(31)

주: ① 관리자,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82.4%로 가장 높았고 임시직이 9.6%, 자영업이 4.7% 순이며 가족종사자가 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은 서울·경기에서 85.9%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지만 반대로 임시직 비율은 서울·경기에서 6.8%로 가장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의 경우 상용직은 20대와 30대에서 80%대를 유지하다가 40대 이상에서 77.8%로 낮아지고, 임시직 비율은 20대에 6.9%로 가장 낮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학력별로는 자영업이 고졸 이하에서 7.8%로 가장 높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표 5-5〉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가족 종사자	계(%)	(N)
전체	82.4	9.6	2.9	4.7	0.4	100.0	(1,574)
지역 ($\chi^2=27.1^{**}$)							
서울·경기	85.9	6.8	2.8	4.0	0.4	100.0	(769)
광역시	81.5	10.7	1.4	6.1	0.2	100.0	(400)
그 외	76.4	13.8	4.7	4.7	0.4	100.0	(404)
연령							
20대	81.9	6.9	6.0	5.1	-	100.0	(108)
30대	83.8	9.4	2.2	4.3	0.4	100.0	(1,130)
40대 이상	77.8	11.3	4.5	6.1	0.3	100.0	(336)
학력							
고졸 이하	68.3	17.7	5.4	7.8	0.8	100.0	(197)
대졸	84.8	8.3	2.4	4.3	0.3	100.0	(1,330)
대학원 졸	73.2	14.2	8.5	4.1	-	100.0	(46)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족종사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지칭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83.2%로 가장 높았고 임시직이 12.7%, 자영업이 2.1% 순이며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종사자가 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상용직이 86.4%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반대로 임시직과 일용직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각각 9.6%, 1.5%로

가장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연령의 경우 임신직이 20대에 16.7%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남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직 비율이 높아진 것과 반대되는 경향이다.

〈표 5-6〉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가족 종사자	계(%)	(N)
전체	83.2	12.7	1.6	2.1	0.4	100.0	(1,503)
지역 ($\chi^2=23.2^{**}$)							
서울·경기	86.4	9.6	1.5	1.9	0.7	100.0	(741)
광역시	83.1	12.5	1.6	2.5	0.2	100.0	(374)
그 외	77.3	18.8	1.7	2.1	-	100.0	(387)
연령							
20대	79.9	16.7	1.2	2.2	-	100.0	(270)
30대	84.3	11.9	1.5	1.7	0.5	100.0	(1,042)
40대	82.1	11.5	2.4	4.0	-	100.0	(191)
학력							
고졸 이하	72.2	22.5	0.9	3.4	1.0	100.0	(234)
대졸	85.7	10.6	1.5	1.9	0.3	100.0	(1,238)
대학원 졸	68.0	21.5	10.5	-	-	100.0	(31)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족종사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지칭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의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91.5%로 시간제의 8.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연령, 혼인지속기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남편의 91% 정도가 전일제 일자리로 첫 일자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학력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원 졸 이상인 경우 전일제 일자리가 74.7%로 대졸(92.7%)이나 고졸 이하(87.8%)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전일제	계(%)	(N)
전체	8.5	91.5	100.0	(1,574)
지역 ($\chi^2=1.0$)				
서울·경기	8.1	91.9	100.0	(769)
광역시	8.1	91.9	100.0	(400)
그 외	9.5	90.5	100.0	(404)
연령 ($\chi^2=0.0$)				
20대	8.1	91.9	100.0	(108)
30대	8.5	91.5	100.0	(1,130)
40대 이상	8.4	91.6	100.0	(336)
학력 ($\chi^2=23.6^{***}$)				
고졸 이하	12.2	87.8	100.0	(197)
대졸	7.3	92.7	100.0	(1,330)
대학원 졸	25.3	74.7	100.0	(46)
혼인지속기간 ($\chi^2=2.2$)				
1~2년	10.2	89.8	100.0	(324)
3~5년	7.4	92.6	100.0	(697)
6~7년	8.7	91.3	100.0	(552)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전일제가 시간제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지역, 연령, 혼인지속기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남편의 경우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 광역시에서는 전일제의 비율이 각각 90.3%, 91.8%인 것에 비해 그 외 지역에서는 87.0%로 다소 낮게 나타났고, 연령의 경우 40대의 90.9%, 30대의 90.3%가 전일제로 첫 일자리를 시작한 것에 반해, 20대는 87.5%만이 전일제로 첫 일자리를 시

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의 경우 대학원 졸 이상인 경우 전일제 일자리가 70.5%로 대졸(90.9%)이나 고졸 이하(86.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8〉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전일제	계(%)	(N)
전체	10.2	89.8	100.0	(1,503)
지역 ($\chi^2=4.9$)				
서울·경기	9.7	90.3	100.0	(741)
광역시	8.2	91.8	100.0	(374)
그 외	13.0	87.0	100.0	(387)
연령 ($\chi^2=2.3$)				
20대	12.5	87.5	100.0	(270)
30대	9.7	90.3	100.0	(1,042)
40대	9.1	90.9	100.0	(191)
학력 ($\chi^2=16.3^{***}$)				
고졸 이하	13.3	86.7	100.0	(234)
대졸	9.1	90.9	100.0	(1,238)
대학원 졸	29.5	70.5	100.0	(3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의 정규직 여부는 정규직이 84.5%로 비정규직(15.5%)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85.4%, 광역시의 경우 87.1%가 정규직으로 첫 일자를 시작한 것에 비해, 그 외 지역은 80.0%만이 정규직으로 첫 일자를 시작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75.6%로 30대, 40대 이상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별로 보면, 대졸의 87.2%가 정규직이었으나 고졸 이하는 69.4%, 대학원 졸

인 경우 65.0%만이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다.

〈표 5-9〉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정규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N)
전체	84.5	15.5	100.0	(1,447)
지역 ($\chi^2=7.9^*$)				
서울·경기	85.4	14.6	100.0	(713)
광역시	87.1	12.9	100.0	(369)
그 외	80.0	20.0	100.0	(365)
연령 ($\chi^2=6.0$)				
20대	75.6	24.4	100.0	(96)
30대	85.0	15.0	100.0	(1,053)
40대 이상	85.5	14.5	100.0	(299)
학력 ($\chi^2=48.2^{***}$)				
고졸 이하	69.4	30.6	100.0	(170)
대졸	87.2	12.8	100.0	(1,237)
대학원 졸	65.0	35.0	100.0	(4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정규직 여부는 정규직이 79.7%로 비정규직(20.3%)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남편의 84.5%가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80.4%, 광역시가 82.8%가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한 것에 비해 그 외 지역은 75.3%만이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대가 74.8%로 30대(79.7%), 40대(86.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별로 보면, 대졸의 82.4%가 정규직이었으나 고졸 이하는 69.0%, 대학원 졸인 경우 49.4%만이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제 비율도 높았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었는데 이는 시간 강사 등의 일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이유일 수 있다.

〈표 5-10〉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정규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N)
전체	79.7	20.3	100.0	(1,442)
지역 ($\chi^2=7.0^*$)				
서울·경기	80.4	19.6	100.0	(712)
광역시	82.8	17.2	100.0	(358)
그 외	75.3	24.7	100.0	(372)
연령 ($\chi^2=10.1^{**}$)				
20대	74.8	25.2	100.0	(261)
30대	79.7	20.3	100.0	(1,002)
40대	86.9	13.1	100.0	(179)
학력 ($\chi^2=36.6^{***}$)				
고졸 이하	69.0	31.0	100.0	(221)
대졸	82.4	17.6	100.0	(1,193)
대학원 졸	49.4	50.6	100.0	(28)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의 월평균 소득은 272만 1000원이었다. 서울·경기 지역이 278만 4000원, 광역시가 277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고, 그 외 지역은 254만 9000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5만 원 정도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76만 8000원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254만 600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소득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였는데, 고졸 이하는 219만 3000원, 대졸은 278만 9000원, 대학원 졸은 301만 2000원으로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표 5-11〉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월평균 소득
(단위: 만 원, 명)

구분	월평균 소득	(N)
전체	272.1	(1,574)
지역		
서울·경기	278.4	(769)
광역시	277.3	(400)
그 외	254.9	(404)
연령		
20대	254.6	(108)
30대	276.8	(1,130)
40대 이상	261.6	(336)
학력		
고졸 이하	219.3	(197)
대졸	278.9	(1,330)
대학원 졸	301.2	(4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210만 4000원으로 남편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 272만 1000원에 비해 61만 7000원 적었다.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216만 3000원, 광역시는 215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고, 그 외 지역은 194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5만 원 정도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14만 6000원으로 가장 높고, 30대가 212만 1000원, 40대가 195만 3000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는데, 고졸 이하는 157만 6000원, 대졸은 218만 7000원, 대학원 졸은 280만 4000원으로 높아졌다.

〈표 5-12〉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월평균 소득
(단위: 만 원, 명)

구분	월평균 소득	(N)
전체	210.4	(1,503)
지역		
서울·경기	216.3	(741)
광역시	215.3	(374)
그 외	194.5	(387)
연령		
20대	214.6	(270)
30대	212.1	(1,042)
40대	195.3	(191)
학력		
고졸 이하	157.6	(234)
대졸	218.7	(1,238)
대학원 졸	280.4	(3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의 근로시간은 우선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직장에 종사한 경우가 88.5%, 이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8.2시간씩 주 5.2일이며, 2.1시간씩 주 2.8일 정도를 초과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장에 종사한 경우 8.3시간씩 주 5.4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89.7%), 연령별로는 20대(90.4%)에서 가장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근로시간이 주 47.9시간³³⁾으로 가장 짧고 지방으로 갈수록 길어져 그 외 지역에서는 주 5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의 근로시간을 보면, 연령과 혼인지속기간에 따른 경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역과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3) (정규근로 시간×일)+(초과근로 시간×일)

경기 지역에서 45.9시간으로 가장 길고, 지방으로 갈수록 짧아졌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에서 46.2시간으로 가장 길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짧아져 대학원 졸 이상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35.7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5-13〉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일, 명)

구분	정규 근로 시간 유무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N)	실제 근로시간		(N)
	있음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전체	88.5	8.2	5.2	2.1	2.8	(1,393)	8.3	5.4	(181)
지역 ($\chi^2=2.1$)									
서울·경기	89.7	8.2	5.2	2.1	2.5	(690)	8.5	5.4	(79)
광역시	87.7	8.2	5.3	2.1	3.0	(351)	8.3	5.4	(49)
그 외	87.0	8.3	5.3	2.2	3.1	(352)	8.1	5.4	(52)
연령 ($\chi^2=7.1^*$)									
20대	90.4	8.4	5.2	2.4	3.0	(97)	9.3	4.9	(10)
30대	89.5	8.2	5.2	2.1	2.8	(1,012)	8.4	5.5	(118)
40대 이상	84.4	8.2	5.3	2.1	2.7	(283)	7.9	5.3	(52)
학력 ($\chi^2=21.2^{***}$)									
고졸 이하	79.8	8.5	5.5	2.6	3.1	(157)	8.4	5.5	(40)
대졸	90.1	8.2	5.2	2.1	2.7	(1,198)	8.4	5.4	(132)
대학원 졸	81.0	8.5	5.2	2.8	3.2	(37)	7.0	5.1	(9)

주: 1) * $p<0.05$, ** $p<0.01$, *** $p<0.001$
 2) 표본수(N)는 전체 일하는 경우를 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근로시간은 우선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직장에 종사한 경우가 88.7%, 이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8.1시간씩 주 5.2일이었고, 1.9시간씩 주 2.7일 정도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장에 종사한 경우 7.7시간씩 주 5.4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

우의 근로시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근로시간이 주 47.1시간으로 가장 짧고, 지방으로 갈수록 길어져 그 외 지역에서는 주 49.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는 주 46.3시간을 일하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도 길어져 40대에는 48.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의 실제근로시간을 보면, 지역과 학력에 관한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39.2시간으로 가장 짧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일, 명)

구분	정규 근로 시간 여부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N)	실제 근로시간		(N)
	있음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전체	88.7	8.1	5.2	1.9	2.7	(1,334)	7.7	5.4	(169)
지역 ($\chi^2=4.3$)									
서울·경기	89.9	8.1	5.2	1.9	2.6	(666)	7.7	5.2	(75)
광역시	85.8	8.1	5.2	1.9	2.7	(321)	8.0	5.5	(53)
그 외	89.4	8.2	5.3	1.9	3.0	(346)	7.4	5.4	(41)
연령 ($\chi^2=0.7$)									
20대	88.4	8.1	5.1	1.9	2.6	(239)	7.4	5.3	(31)
30대	89.1	8.1	5.2	2.0	2.7	(928)	7.6	5.4	(114)
40대	87.2	8.2	5.4	1.7	2.7	(167)	8.6	5.3	(25)
학력 ($\chi^2=26.6^{***}$)									
고졸 이하	79.8	8.5	5.6	1.8	2.9	(187)	8.2	5.6	(47)
대졸	90.7	8.1	5.2	1.9	2.7	(1,123)	7.5	5.3	(116)
대학원 졸	78.5	7.7	5.3	3.2	2.5	(24)	8.6	5.6	(7)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종사자수는 30~99인이 27.3%로 가장 높고, 5~29인이 24.4%, 100~299인이 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30~99인 규모의 직장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한 경우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30.3%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5~29인 규모의 직장은 20대에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으나 30~99인 규모의 직장은 반대로 20대에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높아졌다.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300~999인, 1000인 이상 규모 직장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한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대학원 졸 집단에서 각각 15.4%, 11.3%로 가장 높았다.

〈표 5-15〉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남편): 종사자수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전체	12.7	24.4	27.3	19.2	9.7	5.3	1.4	100.0	(1,574)
지역 ($\chi^2=35.4^{***}$)									
서울·경기	9.5	22.0	30.3	20.4	9.3	6.6	1.8	100.0	(769)
광역시	16.6	27.8	25.7	16.3	10.2	2.6	0.9	100.0	(400)
그 외	15.0	25.5	23.1	20.0	10.0	5.3	1.1	100.0	(404)
연령 ($\chi^2=24.1^*$)									
20대	14.8	26.3	23.3	17.8	11.1	3.0	3.8	100.0	(108)
30대	11.7	24.3	26.6	20.3	10.6	5.7	0.9	100.0	(1,130)
40대 이상	15.7	24.1	31.0	16.2	6.2	4.6	2.2	100.0	(336)
학력 ($\chi^2=106.0^{***}$)									
고졸 이하	31.7	30.7	21.3	9.2	4.3	2.3	0.5	100.0	(197)
대졸	9.8	23.7	28.5	20.7	10.3	5.5	1.4	100.0	(1,330)
대학원 졸	15.9	16.3	17.7	19.4	15.4	11.3	3.9	100.0	(46)
혼인지속기간 ($\chi^2=14.2$)									
1~2년	11.0	23.6	25.6	22.6	10.9	5.0	1.3	100.0	(324)
3~5년	12.1	24.5	30.0	18.5	9.6	4.0	1.4	100.0	(697)
6~7년	14.6	24.7	24.8	18.2	9.2	7.0	1.5	100.0	(552)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1~4인, ② 5~29인, ③ 30~99인, ④ 100~299인, ⑤ 300~999인, ⑥ 1,000인 이상,

⑦ 잘 모르겠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종사자수는 5-29인이 33.3%로 가장 높고, 30-99인이 27.5%, 1-4인이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4인 규모의 직장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한 경우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11.8%로 가장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졌으며 300-999인 규모의 직장은 반대로 서울·경기에서 8.6%로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5-29인, 300-999인 규모의 직장은 20대에 각각 31.1%, 5.3%로 가장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졌으나 100-299인 규모의 직장은 반대로 20대에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5-2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은 고졸 이하에서 35.2%로 가장 높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으나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등 대규모 직장의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표 5-16〉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후 첫 일자리(아내): 종사자수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전체	15.6	33.3	27.5	12.1	6.9	3.6	1.1	100.0	(1,503)
지역 ($\chi^2=48.4^{***}$)									
서울·경기	11.8	31.4	31.8	11.4	8.6	4.2	0.8	100.0	(741)
광역시	16.1	36.3	21.2	16.6	5.8	2.6	1.4	100.0	(374)
그 외	22.2	34.1	25.2	9.0	4.8	3.4	1.3	100.0	(387)
연령 ($\chi^2=20.0$)									
20대	18.9	31.1	23.3	16.5	5.3	3.5	1.4	100.0	(270)
30대	14.0	33.3	29.4	11.5	7.0	3.7	1.0	100.0	(1,042)
40대	19.1	36.1	22.7	9.1	9.0	3.0	1.1	100.0	(191)
학력									
고졸 이하	33.6	35.2	22.0	7.1	0.7	1.2	0.2	100.0	(234)
대졸	11.9	33.6	28.7	12.9	8.0	3.9	0.9	100.0	(1,238)
대학원 졸	23.5	7.7	16.9	17.8	10.3	8.8	14.9	100.0	(31)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혼인지속기간 ($\chi^2=20.6$)									
1~2년	13.9	32.7	26.0	12.0	10.7	3.4	1.2	100.0	(316)
3~5년	15.0	33.8	28.7	13.5	4.9	3.6	0.5	100.0	(673)
6~7년	17.3	32.9	26.6	10.4	7.3	3.7	1.8	100.0	(514)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1~4인, ② 5~29인, ③ 30~99인, ④ 100~299인, ⑤ 300~999인, ⑥ 1,000인 이상,

⑦ 잘 모르겠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2.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남편이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만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 가장 많은 응답은 ‘소득이나 보수 등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로 22.4%였고, 다음은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의 장래성이 없어서’가 17.3%,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가 16.3%였다. 그다음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등의 근로 여건이 나빠서’가 10.5%, ‘개인 또는 가족 관련 이유(결혼·육아·가사 등) 때문에’가 9.2%, ‘적성, 지식, 기술 등이 맞지 않아서’가 7.5%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다양한 이유는 모두 5.0% 이하의 비율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기억에서는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등 근로 여건이 나빠서’라는 이유가 13.0%와 ‘적성, 지식, 기술 등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10.9%로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이유는 광역시나 그 외 지역보다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9.8%로 서울·경기와 광역시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20대에서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라는 이유로 첫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비율이 33.8%

로 높게 나타나 30, 40대 이상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한 남편인 경우 ‘임시직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라는 응답 비율이 32.3%로 고졸 이하나 대졸과 비교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 졸의 경우 ‘적성, 지식, 기술 등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등 근로 여건이 나빠서’에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의 장래성이 없어서’라는 이유와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진학으로 인하여’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5-17〉 첫 일자리를 그만둔 가장 주된 이유(남편)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2.7	1.3	-	16.3	22.4	17.3	7.5	10.5	3.2
지역									
서울·경기	0.3	0.7	-	16.1	22.4	17.5	10.9	13.0	2.7
광역시	5.0	2.2	-	13.2	22.6	17.0	4.4	7.8	3.1
그 외	5.2	1.4	-	19.8	22.1	17.4	4.3	8.7	4.3
연령									
20대	2.0	4.6	-	33.8	15.1	9.5	4.4	7.1	0.0
30대	2.8	1.5	-	15.7	22.5	18.1	6.2	10.3	2.7
40대 이상	2.7	0.0	-	14.3	23.5	16.8	11.8	11.9	5.2
학력									
고졸 이하	5.9	1.6	-	11.3	18.0	16.1	6.1	11.6	3.6
대졸	2.3	1.3	-	16.5	23.4	17.2	8.1	10.7	3.3
대학원 졸	0.0	0.0	-	32.3	17.3	25.0	1.6	3.9	0.0

주: ① 직장 파산, 폐업, 휴업, ② 일감이 없거나 정리해고 및 권고사직 등으로, ③ 정년 및 명예퇴직, ④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⑤ 소득·보수 등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 ⑥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의 장래성이 없어서, ⑦ 적성, 지식, 기술 등이 맞지 않아서, ⑧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등의 근로여건이 나빠서, ⑨ 자기(가족) 사업을 하기 위해, ⑩ 개인 또는 가족 관련 이유로 (결혼·육아·가사 등), ⑪ 건강 및 고령 등의 이유로, ⑫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⑬ 전근·발령을 받아서, ⑭ 회사 및 자택 이사, ⑮ 진학으로 인하여, ⑯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5-18〉 첫 일자리를 그만둔 가장 주된 이유(남편)(계속)

(단위: %, 명)

구분	⑩	⑪	⑫	⑬	⑭	⑮	⑯	계(%)	(N)
전체	9.2	1.3	0.9	0.7	0.1	4.6	1.9	100.0	(855)
지역									
서울·경기	9.4	0.9	0.8	0.6	0.3	3.5	1.1	100.0	(416)
광역시	9.5	1.3	1.5	1.0	0.0	7.2	4.2	100.0	(227)
그 외	8.5	2.0	0.7	0.4	0.0	4.1	1.2	100.0	(212)
연령									
20대	11.4	0.0	0.9	1.3	0.0	4.0	6.0	100.0	(43)
30대	10.3	1.7	0.6	0.6	0.2	4.8	2.1	100.0	(593)
40대 이상	5.8	0.4	2.0	0.6	0.0	4.3	0.8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18.2	3.3	0.9	0.0	0.0	0.0	3.4	100.0	(131)
대졸	7.7	1.0	0.7	0.8	0.2	5.3	1.7	100.0	(693)
대학원 졸	4.7	0.0	5.4	0.0	0.0	9.8	0.0	100.0	(31)

주: ① 직장 파산, 폐업, 휴업, ② 일감이 없거나 정리해고 및 권고사직 등으로, ③ 정년 및 명예퇴직, ④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⑤ 소득·보수 등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 ⑥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의 장래성이 없어서, ⑦ 적성, 지식, 기술 등이 맞지 않아서, ⑧ 근로시간 및 근로 환경 등의 근로여건이 나빠서, ⑨ 자기(가족) 사업을 하기 위해, ⑩ 개인 또는 가족 관련 이유(결혼·육아·가사 등)로, ⑪ 건강 및 고령 등의 이유로, ⑫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⑬ 전근·발령을 받아서, ⑭ 회사 및 자택 이사, ⑮ 진학으로 인하여, ⑯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 또는 가족 관련 이유(결혼·육아·가사 등)’로, 51.6%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다음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소득이나 보수 등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13.3%로 나타났다.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의 장래성이 없어서’라는 이유는 8.2%,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는 8.2%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도 20대에서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1.7%로 30대, 40대와 비교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20대 아내의 경우는 30대와 40대에 비해 ‘개인 또는 가족 관련 이유(결혼·육아·가사 등)’의 비율이 42.0%로 다소 낮았다.

구분	⑩	⑪	⑫	⑬	⑭	⑮	⑯	계(%)	(N)
고졸 이하	51.0	1.1	0.4	-	0.4	0.7	0.6	100.0	(210)
대졸	51.6	1.1	1.5	0.2	0.3	2.4	2.3	100.0	(929)
대학원 졸	56.6	-	-	-	-	14.3	-	100.0	(15)

주: ① 직장 파산, 폐업, 휴업, ② 일감이 없거나 정리해고 및 권고사직 등으로, ③ 정년 및 명예퇴직, ④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⑤ 소득·보수 등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 ⑥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의 장래성이 없어서, ⑦ 적성, 지식, 기술 등이 맞지 않아서, ⑧ 근로시간 및 근로 환경 등의 근로여건이 나빠서, ⑨ 자기(가족) 사업을 하기 위해, ⑩ 개인 또는 가족 관련 이유로 (결혼·육아·가사 등), ⑪ 건강 및 고령 등의 이유로, ⑫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⑬ 전근·발령을 받아서, ⑭ 회사 및 자택 이사, ⑮ 진학으로 인하여, ⑯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2절 주거 특성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에서 같이 산 사람³⁴⁾은 남편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가 76.3%, 형제자매 및 친인척이 36.1%,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은 19.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외 지역에서 혼자 사는 비율이 27.4%로 가장 높고, 형제자매 및 친인척은 서울·경기 지역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혼자 사는 비율이 32.6%로 가장 높고,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의 경우 혼자 사는 비율이 3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 및 조부모(82.0%), 형제자매 및 친인척(43.1%)과 같이 사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자 사는 비율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아내의 경우는 부모 및 조부모가 81.0%, 형제자매 및 친인척이 41.1%,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은 15.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12.7%), 광역시(13.8%), 그 외 지역(21.2%)으로 갈수록 혼자 사

34) 복수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율의 합이 100%를 넘음.

는 비율이 높아지나, 그 수준은 남편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연령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이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학력에서 대학원 졸의 경우 혼자 사는 비율이 2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졸 이하: 16.8%, 대졸: 14.6%). 그리고 당시 소득이 높을수록 혼자 사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편과는 반대의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21〉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같이 산 사람(남편)

(단위: %, 명)

구분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 및 지인	없음 (혼자)	현 배우자 (당시 애인)	기타	(N)
전체	76.3	36.1	2.7	19.4	0.8	0.5	(1,512)
지역							
서울·경기	78.9	48.6	2.8	16.9	0.5	0.2	(732)
광역시	81.3	24.4	1.9	16.2	0.4	0.4	(389)
그 외	66.2	24.3	3.4	27.4	1.9	1.2	(391)
연령							
20대	55.0	19.1	9.4	32.6	3.0	2.1	(102)
30대	77.6	38.0	2.0	18.9	0.8	0.4	(1,090)
40대 이상	78.6	34.9	3.0	17.1	0.3	0.3	(320)
학력							
고졸 이하	65.1	24.1	8.1	23.4	2.0	1.7	(197)
대졸	78.1	37.8	2.0	18.6	0.6	0.3	(1,292)
대학원 졸	67.0	39.9	0.0	33.0	0.0	0.0	(22)
당시 소득							
250만 원 미만	74.0	37.1	3.1	20.8	0.8	0.5	(583)
250~350만 원 미만	74.4	29.6	3.2	21.1	0.7	0.3	(530)
350만 원 이상	82.0	43.1	1.6	15.2	0.9	0.8	(39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5-22〉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같이 산 사람(아내)

(단위: %, 명)

구분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 및 지인	없음 (혼자)	현 배우자 (당시 애인)	기타	(N)
전체	81.0	41.1	1.9	15.1	0.8	0.4	(1,464)
지역							
서울·경기	83.3	53.0	1.8	12.7	0.5	-	(722)
광역시	83.8	31.0	1.4	13.8	0.4	0.4	(366)
그 외	73.9	28.0	2.7	21.2	1.7	1.0	(376)
연령							
20대	79.5	37.0	1.7	16.1	1.9	0.8	(266)
30대	82.1	43.5	1.6	14.6	0.5	0.3	(1,016)
40대	77.0	33.6	4.3	16.9	0.9	-	(182)
학력							
고졸 이하	76.3	37.6	4.3	16.8	1.2	1.0	(234)
대졸	82.4	41.9	1.4	14.6	0.6	0.1	(1,208)
대학원 졸	56.7	31.8	5.3	27.5	6.3	6.3	(23)
당시 소득							
250만 원 미만	81.0	40.5	2.4	14.7	0.6	0.3	(1,003)
250~350만 원 미만	81.7	40.7	1.0	15.8	1.1	0.1	(388)
350만 원 이상	78.2	50.7	0.7	18.5	1.9	1.9	(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아파트/주상복합이 43.9%, 일반 단독 주택이 25.6%,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12.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반 단독 주택은 그 외 지역에서 37.5%로 유의하게 가장 높고, 다세대 주택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14.1%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으면 일반 단독 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다세대 주택(원룸 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주상복합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주상복합

의 비율이 높아진다.

아내의 경우, 아파트/주상복합이 50.3%, 일반 단독 주택이 22.6%,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10.3%로 나타났다. 속성에 따른 비율은 대부분 남편과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주택 유형(남편)

(단위: %, 명)

구분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 단독 주택	아파트 /주상 복합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오피스 텔	기타	계(%)	(N)
전체	25.6	7.4	43.9	7.0	12.0	1.5	2.7	100.0	(1,512)
지역 ($\chi^2=109.3^{***}$)									
서울·경기	17.2	10.8	43.6	9.3	14.1	2.2	2.8	100.0	(732)
광역시	29.5	6.6	47.9	5.9	8.5	0.9	0.7	100.0	(389)
그 외	37.5	1.7	40.4	4.0	11.4	0.6	4.4	100.0	(391)
연령 ($\chi^2=45.4^{***}$)									
20대	20.1	6.7	38.3	4.9	19.2	1.9	8.9	100.0	(102)
30대	23.4	7.5	45.3	7.4	12.9	1.2	2.3	100.0	(1,090)
40대 이상	35.1	7.2	40.6	6.6	6.4	2.1	1.9	100.0	(320)
학력 ($\chi^2=42.5^{***}$)									
고졸 이하	36.4	7.8	30.7	7.7	9.8	1.0	6.5	100.0	(197)
대졸	24.0	7.4	45.7	6.9	12.4	1.5	2.1	100.0	(1,292)
대학원 졸	23.2	0.0	54.7	6.4	6.6	4.7	4.4	100.0	(22)
당시 소득 ($\chi^2=33.4^{**}$)									
250만 원 미만	27.5	8.6	37.3	8.2	13.6	1.5	3.4	100.0	(583)
250~350만 원 미만	26.4	5.9	45.3	4.9	12.9	1.6	2.9	100.0	(530)
350만 원 이상	21.9	7.5	51.5	8.1	8.4	1.2	1.4	100.0	(39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5-24〉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주택 유형(아내)

(단위: %, 명)

구분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 단독 주택	아파트 /주상 복합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오피스 텔	기타	계(%)	(N)
전체	22.6	6.4	50.3	7.7	10.3	1.2	1.5	100.0	(1,464)
지역 ($\chi^2=100.2^{***}$)									
서울·경기	16.0	9.0	48.2	10.4	13.1	1.8	1.5	100.0	(722)
광역시	23.9	6.7	57.5	4.3	5.6	0.9	1.0	100.0	(366)
그 외	34.0	1.0	47.1	5.7	9.6	0.4	2.2	100.0	(376)
연령 ($\chi^2=20.2$)									
20대	18.0	5.3	54.2	5.6	14.9	1.6	0.5	100.0	(266)
30대	23.2	6.4	50.4	7.8	9.5	1.2	1.6	100.0	(1,016)
40대	26.2	7.5	43.8	10.4	8.6	0.9	2.5	100.0	(182)
학력									
고졸 이하	33.8	6.9	33.2	12.7	10.3	0.5	2.5	100.0	(234)
대졸	20.4	6.4	54.0	6.7	10.2	1.2	1.1	100.0	(1,208)
대학원 졸	22.9	-	25.7	10.9	17.0	7.4	16.1	100.0	(23)
당시 소득 ($\chi^2=37.2^{***}$)									
250만 원 미만	26.0	5.3	48.3	8.2	9.4	1.3	1.4	100.0	(1,003)
250~350만 원 미만	14.8	8.3	54.6	6.9	12.9	0.5	2.0	100.0	(388)
350만 원 이상	17.2	10.5	53.2	4.7	10.2	3.5	0.7	100.0	(7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의 점유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무상이 48.3%로 가장 높고, 자가가 32.9%, 보증부 월세와 전세가 각각 8.2%, 8.0%로 나타났다.³⁵⁾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무상의 비율이 51.1%로 유의하게 가장 높고, 연령대로 보면, 20대의 무상의 비율이 43.0%로

35) 본 조사에는 부모와의 공적인 계약을 통해 집을 마련한 경우에는 무상이 아닌 것으로 하였으나, 만일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원룸 등을 계약할 경우에는 자가로 응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클 경우, 자가의 비율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나고, 보증부 월세가 16.0%, 전세가 12.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봤던 최종학교를 졸업한 당시의 학력의 경향과 비교하면, 대학원을 졸업한 이들이 기타와 보증부 월세의 비율이 높은 데 반하여, 첫 직장을 입사할 경우에는 이러한 비율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낮아진 비율은 자가와 무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을 당시에 결혼을 하여 자가를 구입해 나가거나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³⁶⁾ 또한, 당시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250만 원 미만의 경우) 자가의 비율이 낮고(27.0%), 보증부 월세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10.4%), 소득이 높으면(350만 원 이상의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에 비해서 보증부 월세의 비율이 낮고(4.7%), 자가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36.3%).

아내의 경우는 무상이 50.1%로 가장 높고, 자가가 32.3%, 전세와 보증부 월세 각각 8.5%, 7.2%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에서 무상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46.8%)은 남편과 유사한 특징이지만, 대학원 졸에서 보증부 월세가 10.8%, 기타가 11.8%로 나타난 것이 남편과 다른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남편과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36) 단, 일을 한 경험이 없는 이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5-25〉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점유 형태(남편)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무상	계(%)	(N)
전체	32.9	8.0	8.2	1.0	1.6	48.3	100.0	(1,512)
지역 ($\chi^2=122.2^{***}$)								
서울·경기	31.1	6.8	8.2	0.5	2.4	51.1	100.0	(732)
광역시	38.4	9.7	5.4	0.5	0.6	45.3	100.0	(389)
그 외	30.8	8.6	10.8	2.5	1.2	46.0	100.0	(391)
연령 ($\chi^2=41.0^{***}$)								
20대	22.9	12.3	16.0	0.0	5.8	43.0	100.0	(102)
30대	35.1	8.0	7.6	1.3	1.4	46.6	100.0	(1,090)
40대 이상	28.6	6.7	7.4	0.4	0.8	56.0	100.0	(320)
학력								
고졸 이하	27.3	11.0	7.6	3.7	3.2	47.1	100.0	(197)
대졸	33.6	7.5	8.3	0.6	1.4	48.6	100.0	(1,292)
대학원 졸	39.1	9.0	6.6	0.0	0.4	44.9	100.0	(22)
당시 소득 ($\chi^2=39.9^{***}$)								
250만 원 미만	27.0	6.2	10.4	2.0	2.1	52.4	100.0	(583)
250~350만 원 미만	36.9	8.6	8.3	0.8	1.3	44.1	100.0	(530)
350만 원 이상	36.3	9.7	4.7	0.0	1.3	48.0	100.0	(399)

주: 1) * $p<0.05$, ** $p<0.01$, *** $p<0.001$

2) 반전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연세·사글세·일세·기숙사 등은 기타이고, 부모님 집·친척 집·사택·관사 등은 무상에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5-26〉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점유 형태(아내)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무상	계(%)	(N)
전체	32.3	8.5	7.2	0.5	1.4	50.1	100.0	(1,464)
지역 ($\chi^2=49.3^{***}$)								
서울·경기	30.1	8.5	6.0	0.1	2.2	53.1	100.0	(722)
광역시	36.0	11.3	4.7	0.2	-	47.8	100.0	(366)
그 외	33.0	5.9	11.8	1.6	1.2	46.6	100.0	(376)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무상	계(%)	(N)
연령 ($\chi^2=6.1$)								
20대	32.3	9.6	9.7	0.6	1.0	46.8	100.0	(266)
30대	31.6	8.8	6.6	0.5	1.5	51.1	100.0	(1,016)
40대	36.2	5.1	6.9	0.5	1.7	49.6	100.0	(182)
학력								
고졸 이하	31.3	13.7	7.2	1.1	1.2	45.5	100.0	(234)
대졸	32.5	7.7	7.1	0.4	1.3	51.1	100.0	(1,208)
대학원 졸	33.6	-	10.8	-	11.8	43.8	100.0	(23)
당시 소득 ($\chi^2=9.3$)								
250만 원 미만	31.1	8.5	7.5	0.7	1.3	50.9	100.0	(1,003)
250~350만 원 미만	33.7	9.3	6.7	0.2	1.7	48.4	100.0	(388)
350만 원 이상	41.6	4.5	5.0	-	0.7	48.3	100.0	(74)

주: 1) * $p<0.05$, ** $p<0.01$, *** $p<0.001$

2) 반전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연세·사글세·일세·기숙사 등은 기타이고, 부모님 집·친척 집·사택·관사 등은 무상에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남편 주거의 주택 비용은 자가의 경우 2억 7501만 원, 전세가 1억 3012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 1906만 원에 월세 29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가는 3억 7835만 원, 전세는 2억 761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은 2452만 원, 월세는 33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연령과 학력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시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 전세의 금액이 높은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에는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남편과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7〉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주택 비용(남편)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매매가	보증금	보증금	월세	월세	
전체	27,500.7	13,011.7	1,905.7	29.8	34.3	36.9
지역						
서울·경기	37,834.7	20,761.4	2,451.7	33.1	38.1	37.9
광역시	21,214.2	8,993.0	1,984.0	27.5	23.3	16.4
그 외	15,747.9	6,112.1	1,093.7	26.5	35.4	43.2
연령						
20대	24,507.6	11,407.9	3,021.9	30.6	-	37.0
30대	29,478.9	13,524.7	1,671.8	30.7	34.8	36.6
40대 이상	19,991.3	11,866.2	1,955.8	26.2	30.0	38.8
학력						
고졸 이하	13,417.8	5,572.3	1,530.8	32.8	37.0	43.9
대졸	29,302.0	14,482.5	1,977.8	29.3	31.9	34.6
대학원 졸	24,588.2	22,804.0	500.0	35.0	-	10.0
당시 소득						
250만 원 미만	23,528.1	9,481.9	1,960.6	29.6	32.4	30.3
250~350만 원 미만	27,657.7	11,815.1	1,396.4	32.0	39.9	37.0
350만 원 이상	31,596.5	17,752.8	2,915.9	25.5	-	51.8
(N)	(497)	(121)	(123)	(123)	(15)	(24)

주: 매매가는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 보증금은 점유 형태가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 경우, 월세는 점유 형태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기타인 경우에 해당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5-28〉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주택 비용(아내)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매매가	보증금	보증금	월세	월세	
전체	26,442.6	15,106.4	1,709.5	27.8	30.5	30.3
지역						
서울·경기	34,991.8	19,583.9	2,266.3	31.7	50.0	36.0
광역시	21,223.3	11,136.1	1,539.1	24.6	30.0	-
그 외	17,034.3	10,148.3	1,229.1	25.3	27.1	9.7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매매가	보증금	보증금	월세	월세	월세
연령						
20대	27,977.0	14,466.2	2,334.8	30.4	41.3	38.0
30대	26,829.6	15,601.9	1,612.2	28.2	30.0	34.4
40대	22,549.8	12,073.2	932.2	20.2	15.0	3.3
학력						
고졸 이하	16,250.4	10,786.8	1,065.9	24.1	35.0	26.6
대졸	28,525.7	16,599.8	1,856.7	28.5	28.2	27.4
대학원 졸	17,005.6	-	1,000.0	28.0	-	51.0
당시 소득						
250만 원 미만	22,199.9	11,962.3	1,527.5	26.9	30.5	27.1
250~350만 원 미만	32,715.5	22,280.5	1,831.6	30.0	30.0	38.7
350만 원 이상	42,913.7	17,884.1	4,574.3	31.4	-	2.0
(N)	(473)	(125)	(105)	(105)	(7)	(21)

주: 매매가는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 보증금은 점유 형태가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 경우, 월세는 점유 형태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기타인 경우에 해당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택의 크기는 남편이 28.6평, 아내가 28.7평으로 나타났고, 주택의 크기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큰 경향이 있다(남편: 29.6평, 아내: 29.2평). 남편과 아내 모두 연령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파악할 수 없으나, 대졸의 경우, 주택의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남편: 29.2평, 아내: 29.4평).

〈표 5-29〉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 주택 규모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평	(N)	평	(N)
전체	28.6	(1,512)	28.7	(1,464)
지역				
서울·경기	29.6	(732)	29.2	(722)
광역시	28.4	(389)	29.1	(366)
그 외	26.8	(391)	27.2	(376)
연령				
20대	25.2	(102)	27.8	(266)
30대	28.9	(1,090)	29.1	(1,016)
40대	28.3	(320)	27.5	(182)
학력				
고졸 이하	24.4	(197)	25.6	(234)
대졸	29.2	(1,292)	29.4	(1,208)
대학원 졸	28.7	(22)	23.7	(23)
당시 소득				
250만 원 미만	26.9	(583)	28.4	(309)
250~350만 원 미만	28.7	(530)	28.8	(658)
350만 원 이상	30.8	(399)	28.7	(49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첫 일자리를 가졌던 시점에서의 일자리 관련 사항과 주거 관련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남편의 경우 만 19세 이후에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는 비율은 88.6%, 아내는 84.7%로 나타났다고, 남편과 아내에서 공통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일자리 경험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첫 일자리 직종은 사무종사자가

48.7%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자가 13.2%, 판매종사자 9.7% 순이며 기타를 제외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내는 사무종사자가 58.7%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자가 20.4%, 판매종사자 8.8% 순이며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0.0%, 군인이 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를 첫 일자리로 갖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를 보면, 남편의 경우, 상용직이 82.4%로 가장 높았고 임시직이 9.6%, 자영업이 4.7% 순이며 가족종사자가 0.4%로 가장 낮았고, 아내는 상용직이 83.2%로 가장 높았고 임시직이 12.7%, 자영업이 2.1% 순이며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종사자가 0.4%로 남편과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형태는 남편의 경우, 전일제가 91.5%, 아내는 89.8%로 둘 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규직 여부는 남편이 84.5%, 아내가 79.7%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단, 남편과 아내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제 비중도 높았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시간 강사 등의 일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이유일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272만 1000원, 아내는 210만 4000원으로 보고되었고, 아내가 남편보다 61만 7000원 적었다.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직장에 종사한 경우가 남편이 88.5%, 아내가 88.7%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로시간은 남편의 경우 하루 평균 2.1시간에 주 평균 2.8일, 아내의 경우 하루 평균 1.9시간에 주 평균 2.7일로 조사되었다. 종사자수는 남편의 경우, 30-99인이 27.3%, 5-29인이 24.4%, 아내의 경우는 5-29인이 33.3%, 30-99인이 27.5%로 나타났다.

현재의 일자리가 첫 일자리와 다른 경우에는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남편의 경우, ‘소

득이나 보수 등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가 22.4%로 나타났고,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의 장래성이 없어서'가 17.3%,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가 16.3%로 나타났고, 아내는 '개인 또는 가족 관련 이유(결혼·육아·가사 등)'로'가 51.6%, '소득이나 보수 등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가 13.3%,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의 장래성이 없어서'가 8.2%로 파악되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서 남편은 소득 및 처우였고, 아내는 결혼·육아·가사 등의 이유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둘 간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거 관련 분석 결과는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주거에서 같이 산 사람, 주택 유형 등 최종학교를 졸업할 당시의 주거에서 보인 경향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먼저하고 졸업을 하는 경우 등, 이 두 이벤트 사이의 기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다른 특징은 대학원을 졸업한 남편은 첫 직장을 얻을 당시에 자가를 구입해 나가거나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6

배우자와의 교제 <<

제1절 일자리 특성

남편의 경우 일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1779명 중 74.6%가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 일자리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 77.4%, 광역시 74.8%, 그 외 지역 69.5%순으로 현 배우자와 교제 당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57.6%, 30대 73.9%, 40대 이상 83.0%로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73.7%, 대졸의 75.6%가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 일자리가 있었던 것에 비해 대학원 졸업 경우 52.2%만이 일자리가 있었다. 이는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최종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이 늦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1〉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일자리 유무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유무		계(%)	(N)
	있음	없음		
전체	74.6	25.4	100.0	(1,779)
지역 ($\chi^2=10.0^{**}$)				
서울·경기	77.4	22.6	100.0	(852)
광역시	74.8	25.2	100.0	(454)
그 외	69.5	30.5	100.0	(473)
연령 ($\chi^2=32.7^{***}$)				
20대	57.6	42.4	100.0	(125)
30대	73.9	26.1	100.0	(1,286)

구분	일자리 유무		계(%)	(N)
	있음	없음		
40대 이상 학력 ($\chi^2=16.3^{***}$)	83.0	17.0	100.0	(368)
고졸 이하	73.7	26.3	100.0	(226)
대졸	75.6	24.4	100.0	(1,496)
대학원 졸	52.2	47.8	100.0	(5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경우 일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1779명 중 68.1%가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 일자리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71.9%로 가장 높고,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은 64% 정도로 현 배우자와 교제 당시 일자리가 있었던 비율이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낮다. 연령별로는 20대 56.9%, 30대 69.6%, 40대 77.0%로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의 69.9%, 대졸의 68.0%가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 일자리가 있었던 것에 비해 대학원 졸업 경우 57.6%만이 일자리가 있었다. 이 역시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최종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이 늦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2〉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일자리 유무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유무		계(%)	(N)
	있음	없음		
전체	68.1	31.9	100.0	(1,779)
지역 ($\chi^2=11.4^{**}$)				
서울·경기	71.9	28.1	100.0	(852)
광역시	64.1	35.9	100.0	(454)
그 외	64.9	35.1	100.0	(473)

구분	일자리 유무		계(%)	(N)
	있음	없음		
연령 ($\chi^2=28.8^{***}$)				
20대	56.9	43.1	100.0	(345)
30대	69.6	30.4	100.0	(1,214)
40대	77.0	23.0	100.0	(220)
학력 ($\chi^2=2.5$)				
고졸 이하	69.9	30.1	100.0	(277)
대졸	68.0	32.0	100.0	(1,463)
대학원 졸	57.6	42.4	100.0	(4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이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직종은 사무종사자가 50.6%로 가장 높고, 서비스종사자가 10.7%, 판매종사자 9.7%의 순이며 기타를 제외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각각 5.1%, 10.2%, 56.6%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반대로 서비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등은 서울·경기에서 각각 9.4%, 4.2%로 가장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연령별로는 전문가·관련 종사자가 20대에서 10.1%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는 고졸 이하 학력에서 각각 24.7%, 15.6%로 가장 많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적어지는 반면, 전문가·관련 종사자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종사자 비율도 높아지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직종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N)
전체	4.0	7.9	50.6	10.7	9.7	0.4	9.1	6.1	0.6	1.0	-	100.0	(1,328)
지역													
서울·경기	5.1	10.2	56.6	9.4	9.2	-	4.2	3.6	0.5	1.1	-	100.0	(660)
광역시	3.4	6.1	50.6	10.3	11.6	-	11.8	5.8	0.4	0.0	-	100.0	(339)
그 외	2.5	5.1	38.3	13.9	8.7	1.5	16.1	11.4	0.9	1.7	-	100.0	(328)
연령													
20대	4.4	10.1	36.2	11.8	12.0	0.7	7.7	11.5	0.8	4.9	-	100.0	(72)
30대	3.3	8.3	52.3	10.4	9.5	-	9.4	5.3	0.6	0.9	-	100.0	(951)
40대 이상	6.2	5.9	48.5	11.5	9.8	1.4	8.6	7.2	0.6	0.3	-	100.0	(305)
학력													
고졸 이하	3.9	2.6	7.3	24.7	15.6	2.9	21.9	16.9	1.9	2.4	-	100.0	(167)
대졸	4.2	7.9	57.0	8.9	8.9	-	7.4	4.5	0.4	0.7	-	100.0	(1,132)
대학원 졸	0.4	36.0	48.8	1.0	5.0	-	-	6.5	-	2.2	-	100.0	(29)

주: ① 관리자,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
무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경우 만 19세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직종은 사무종사자가 60.7%로 가장 높고, 서비스종사자가 18.7%, 판매종사자 7.9% 순이며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68.8%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각각 13.8%, 6.6%로 가장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전문가·관련 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의 학력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전문가·관련 종사자의 경우 고졸 이하에서는 0.8%, 대학원 졸 이상에서는 51.9%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졌고, 서비스종사자의 경우 고졸 이하에서는 40.2%, 대학원 졸 이상에서는 7.0%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6-4〉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직종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N)
전체	0.9	8.1	60.7	18.7	7.9	0.0	2.7	0.5	0.1	0.1	0.3	100.0	(1,211)
지역													
서울·경기	1.1	7.3	68.8	13.8	6.6	-	1.3	0.5	-	-	0.5	100.0	(613)
광역시	0.3	9.1	59.5	17.5	8.9	-	4.4	0.3	-	-	-	100.0	(291)
그 외	1.0	8.7	45.7	29.7	9.8	0.1	3.7	0.5	0.4	0.4	-	100.0	(307)
연령													
20대	1.7	4.0	55.4	24.2	10.7	-	2.9	0.5	-	0.5	-	100.0	(196)
30대	0.9	9.4	62.4	17.1	7.1	0.0	2.2	0.5	0.1	0.0	0.4	100.0	(845)
40대	-	6.6	58.7	20.2	8.8	-	4.9	0.5	0.2	-	-	100.0	(170)
학력													
고졸 이하	0.2	0.8	24.9	40.2	24.3	0.2	7.7	1.5	0.2	-	-	100.0	(193)
대졸	1.0	8.5	68.4	14.8	4.7	-	1.7	0.3	0.1	0.1	0.3	100.0	(994)
대학원 졸	-	51.9	30.3	7.0	10.8	-	-	-	-	-	-	100.0	(23)

주: ① 관리자,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
노무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이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자의 종
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87.4%로 가장 높고, 자영업 8.7%, 임시직 2.2%
순이며 가족종사자가 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임시
직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특히 그 외 지역
의 임시직비율이 3.7%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임시직과 일용
직은 연령과 반비례하고, 자영업은 비례하는 추세를 보인다. 즉, 임시직
과 일용직은 20대에 각각 5.2%, 3.8%로 가장 높고, 자영업은 40대 이상
에 13.6%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상용직의 비율도 높아져 대학원 졸의 경우는 91.6%에 달했고, 자영업은
고졸 이하에서 15.4%로 나타났지만, 학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여 대학
원 졸 이상에서는 1%만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가족 종사자	계(%)	(N)
전체	87.4	2.2	1.6	8.7	0.1	100.0	(1,328)
지역 ($\chi^2=9.5$)							
서울·경기	89.0	1.3	1.8	7.7	0.2	100.0	(660)
광역시	85.9	2.3	1.1	10.7	-	100.0	(339)
그 외	85.9	3.7	1.8	8.6	-	100.0	(328)
연령							
20대	85.8	5.2	3.8	5.2	-	100.0	(72)
30대	88.8	2.1	1.7	7.4	0.1	100.0	(951)
40대 이상	83.7	1.7	1.0	13.6	-	100.0	(305)
학력							
고졸 이하	77.3	2.5	4.7	15.4	-	100.0	(167)
대졸	88.8	2.0	1.2	7.9	0.1	100.0	(1,132)
대학원 졸	91.6	7.4	-	1.0	-	100.0	(29)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족종사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지칭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88.7%로 가장 높고, 임시직 5.8%, 자영업 4.4% 순이며 일용직이 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상용직 비율이 92.2%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상용직이 낮아지며, 반대로 임시직 비율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3.1%로 가장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져 그 외 지역에서는 10.5%가 임시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자영업의 비율이 20대에 3.0%에서 40대에 10.0%로 연령 증가에 따라 비율도 증가하고, 학력의 경우에는 반대로 고졸 이하에서 6.5%, 대졸은 4.1%, 대학원 졸 이상은 0.0%로 학력 상승에 따라 비율이 감소하였다.

〈표 6-6〉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가족 종사자	계(%)	(N)
전체	88.7	5.8	0.5	4.4	0.5	100.0	(1,211)
지역							
서울·경기	92.2	3.1	-	3.8	0.9	100.0	(613)
광역시	87.2	6.6	1.0	4.9	0.3	100.0	(291)
그 외	83.1	10.5	1.0	5.3	0.1	100.0	(307)
연령							
20대	85.9	9.9	1.1	3.0	0.2	100.0	(196)
30대	90.5	5.0	0.1	3.7	0.7	100.0	(845)
40대	82.9	5.4	1.7	10.0	-	100.0	(170)
학력							
고졸 이하	79.1	13.7	0.6	6.5	-	100.0	(193)
대졸	90.8	4.1	0.3	4.1	0.7	100.0	(994)
대학원 졸	78.1	12.5	9.5	-	-	100.0	(23)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족종사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지칭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이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자의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96.0%로 시간제(4.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과 광역시는 95% 정도로 유사하나 그 외 지역은 97.2%로 타 지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95.0%, 30대 95.4%, 40대 이상 97.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일제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은 고졸 이하 96.4%, 대졸 96.1%, 대학원 졸 86.6로 대학원 졸인 경우의 전일제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6-7〉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전일제	계(%)	(N)
전체	4.0	96.0	100.0	(1,328)
지역 ($\chi^2=1.9$)				
서울·경기	4.5	95.5	100.0	(660)
광역시	4.2	95.8	100.0	(339)
그 외	2.8	97.2	100.0	(328)
연령 ($\chi^2=4.6$)				
20대	5.0	95.0	100.0	(72)
30대	4.6	95.4	100.0	(951)
40대 이상	2.1	97.9	100.0	(305)
학력 ($\chi^2=7.2^*$)				
고졸 이하	3.6	96.4	100.0	(167)
대졸	3.9	96.1	100.0	(1,132)
대학원 졸	13.4	86.6	100.0	(2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94.2%로 시간제(5.8%)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비율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95.1%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20대 91.5%, 30대 94.6%, 40대 이상 95.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일제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 92.6%, 대졸 94.8%, 대학원 졸 80.6%로 대학원 졸의 전일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6-8〉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전일제	계(%)	(N)
전체	5.8	94.2	100.0	(1,211)
지역 ($\chi^2=4.0$)				
서울·경기	4.9	95.1	100.0	(613)
광역시	5.6	94.4	100.0	(291)
그 외	8.0	92.0	100.0	(307)
연령 ($\chi^2=3.5$)				
20대	8.5	91.5	100.0	(196)
30대	5.4	94.6	100.0	(845)
40대	4.9	95.1	100.0	(170)
학력 ($\chi^2=7.5^*$)				
고졸 이하	7.4	92.6	100.0	(193)
대졸	5.2	94.8	100.0	(994)
대학원 졸	19.4	80.6	100.0	(23)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이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에서 정규직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규직이 94.3%이고, 지역별로는 광역시가 96.4%로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79.7%, 30대 94.3%, 40대 이상 97.7%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인 경우 95.3%가 정규직이었으나 고졸 이하는 90.2%, 대학원 졸 이상인 경우 74.8%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그리고 교제 당시의 소득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높을수록 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350만 원 이상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정규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N)
전체	94.3	5.7	100.0	(1,190)
지역 ($\chi^2=3.1$)				
서울·경기	93.6	6.4	100.0	(596)
광역시	96.4	3.6	100.0	(299)
그 외	93.5	6.5	100.0	(294)
연령 ($\chi^2=30.2^{***}$)				
20대	79.7	20.3	100.0	(66)
30대	94.3	5.7	100.0	(863)
40대 이상	97.7	2.3	100.0	(260)
학력 ($\chi^2=24.4^{***}$)				
고졸 이하	90.2	9.8	100.0	(133)
대졸	95.3	4.7	100.0	(1,027)
대학원 졸	74.8	25.2	100.0	(29)
교제당시소득 ($\chi^2=129.3^{***}$)				
250만 원 미만	79.7	20.3	100.0	(251)
250~350만 원 미만	96.9	3.1	100.0	(518)
350만 원 이상	99.7	0.3	100.0	(42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자의 정규직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정규직이 88.0%로 남편의 경우 교제를 시작할 당시 94.3%가 정규직이었던 것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89.3%, 광역시가 89.4%로 그 외 지역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의 90.5%가 정규직이었으나 고졸 이하는 78.0%, 대학원 졸인 경우 62.5%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다. 교제 당시 소득에 따른 정규직 비율은 250만 원 미만이 8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정규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N)
전체	88.0	12.0	100.0	(1,144)
지역 ($\chi^2=5.0$)				
서울·경기	89.3	10.7	100.0	(584)
광역시	89.4	10.6	100.0	(273)
그 외	84.3	15.7	100.0	(287)
연령 ($\chi^2=10.0$)				
20대	82.0	18.0	100.0	(188)
30대	88.6	11.4	100.0	(807)
40대	92.6	7.4	100.0	(150)
학력 ($\chi^2=35.3^{***}$)				
고졸 이하	78.0	22.0	100.0	(180)
대졸	90.5	9.5	100.0	(944)
대학원 졸	62.5	37.5	100.0	(21)
교제당시소득 ($\chi^2=62.5^{***}$)				
250만 원 미만	81.5	18.5	100.0	(653)
250~350만 원 미만	97.1	2.9	100.0	(428)
350만 원 이상	93.9	6.1	100.0	(63)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이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자의 월 평균 소득은 326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339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고, 광역시는 318만 3000원, 그 외 지역은 307만 5000원으로 지방으로 갈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 배우자와 교제할 당시의 월평균 소득도 높아져, 20대(263만 3000원)와 40대 이상(366만 9000원) 간에 100만 원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 또한, 학력도 연령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소득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고졸 이하는 293만 7000원, 대졸은 329만 9000원, 대학원 졸은 363만 6000원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11〉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월평균 소득
(단위: 만 원, 명)

구분	월평균 소득	(N)
전체	326.1	(1,328)
지역		
서울·경기	339.3	(660)
광역시	318.3	(339)
그 외	307.5	(328)
연령		
20대	263.3	(72)
30대	317.7	(951)
40대 이상	366.9	(305)
학력		
고졸 이하	293.7	(167)
대졸	329.9	(1,132)
대학원 졸	363.6	(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월평균 소득은 239만 2000원으로 남편(326만 1000원)에 비해 87만 원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254만 5000원으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연령별 월평균 소득은 20대에 221만 7000원인 것에 비해 30대나 40대에는 242만 6000원으로 상승하지만 그 차이는 남편의 경우만큼 크지 않아, 20대의 평균(221만 7000원)과 30대, 40대 평균(242만 6000원)의 차이가 2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고졸 이하는 190만 9000원, 대졸은 246만 8000원, 대학원 졸 이상은 315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표 6-12〉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월평균 소득

(단위: 만 원, 명)

구분	월평균 소득	(N)
전체	239.2	(1,211)
지역		
서울·경기	254.5	(613)
광역시	232.4	(291)
그 외	215.0	(307)
연령		
20대	221.7	(196)
30대	242.6	(845)
40대	242.6	(170)
학력		
고졸 이하	190.9	(193)
대졸	246.8	(994)
대학원 졸	315.6	(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이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자의 근로시간은 우선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직장에 종사한 경우가 90.7%로 이 경우 정규근로시간은 8.2시간씩 주 5.2일, 초과근로시간은 2.1시간씩 주 2.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장
에 종사한 경우 8.8시간씩 주 5.5일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근로시간
이 정해져 있는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91.3%로 가
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비율도 높아져 대학원 졸의 경우 9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총근로시간을 지
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근로시간이 길어져 그 외 지역의 총근
로시간은 50.3시간³⁷⁾으로 산출된다. 이 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시

37) (정규근로 시간×일)+(초과근로 시간×일)

간이 짧아져 20대의 근로시간이 50.8시간으로 가장 길고, 40대 이상의 근로시간이 48.66시간으로 가장 짧은 특징을 보여 준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의 실제근로시간을 보면, 지역과 학력에 따른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지역별로는 지방으로 갈수록 근로시간이 길어져 그 외 지역의 총근로시간이 49.8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실제근로시간이 짧아져 대학원 졸업인 경우 총근로시간이 37.4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6-13〉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일, 명)

구분	정규 근로 시간 유무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N)	실제 근로시간		(N)
	있음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전체	90.7	8.2	5.2	2.1	2.7	(1,204)	8.8	5.5	(124)
지역 ($\chi^2=1.9$)									
서울·경기	91.3	8.2	5.2	2.1	2.4	(603)	8.7	5.5	(57)
광역시	91.2	8.2	5.2	2.2	3.1	(310)	9.0	5.4	(30)
그 외	88.8	8.4	5.2	2.2	3.0	(292)	8.9	5.6	(37)
연령 ($\chi^2=1.5$)									
20대	89.2	8.4	5.2	2.4	3.0	(64)	9.8	5.0	(8)
30대	91.2	8.3	5.2	2.1	2.7	(867)	8.6	5.5	(83)
40대 이상	89.3	8.2	5.3	2.0	2.6	(272)	9.2	5.7	(33)
학력 ($\chi^2=16.8^{***}$)									
고졸 이하	82.2	8.6	5.4	2.8	2.9	(137)	9.1	5.7	(30)
대졸	91.9	8.2	5.2	2.0	2.6	(1,040)	8.7	5.5	(92)
대학원 졸	93.0	8.1	5.2	3.0	3.9	(27)	8.7	4.3	(2)
혼인지속기간 ($\chi^2=0.2$)									
1~2년	90.0	8.3	5.2	2.0	2.7	(246)	9.0	5.5	(27)
3~5년	90.8	8.3	5.2	2.2	2.6	(525)	8.6	5.4	(54)
6~7년	91.0	8.1	5.2	2.0	2.7	(433)	9.0	5.7	(43)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의 근로시간은 우선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직장에 종사한 경우가 93.1%로 이 경우 정규근로시간은 8.1시간씩 주 5.2일이었고 1.9시간씩 주 2.5일 정도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장에 종사한 경우 8시간씩 주 5.4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은 주 46.5시간으로 가장 짧고, 지방으로 갈수록 길어져 그 외 지역에서는 주 50.1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보면, 20대에는 주 46.3시간을 일하는데 비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이 약간씩 길어져 40대에는 47.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의 근로시간을 보면, 지역과 학력에 관한 경향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로 20대에서 38.5시간으로 가장 짧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14〉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일, 명)

구분	정규 근로 시간 유무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N)	실제 근로시간		(N)
	있음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전체	93.1	8.1	5.2	1.9	2.5	(1,127)	8.0	5.4	(84)
지역 ($\chi^2=11.1^{**}$)									
서울·경기	95.4	8.1	5.2	1.9	2.3	(585)	7.5	5.2	(28)
광역시	90.0	8.1	5.2	2.0	2.3	(262)	8.7	5.7	(29)
그 외	91.3	8.3	5.3	1.9	3.2	(280)	7.8	5.4	(27)
연령 ($\chi^2=0.6$)									
20대	94.4	8.1	5.1	1.9	2.6	(185)	7.7	5.0	(11)
30대	92.8	8.1	5.2	1.9	2.5	(784)	7.9	5.5	(61)
40대	92.8	8.2	5.2	1.8	2.4	(157)	8.9	5.5	(12)

구분	정규 근로 시간 유무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N)	실제 근로시간		(N)
	있음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학력 ($\chi^2=28.5^{***}$)									
고졸 이하	85.0	8.5	5.5	1.9	2.7	(164)	9.2	5.7	(29)
대졸	94.8	8.1	5.2	1.9	2.5	(943)	7.2	5.3	(51)
대학원 졸	83.3	8.4	5.2	3.0	2.3	(19)	10.3	5.7	(4)
혼인지속기간 ($\chi^2=4.7$)									
1~2년	93.8	8.1	5.1	1.9	2.4	(248)	7.4	5.0	(17)
3~5년	94.5	8.2	5.2	1.9	2.5	(484)	8.0	5.6	(28)
6~7년	91.0	8.1	5.3	1.9	2.5	(394)	8.4	5.5	(3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이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의 종사자수는 30-99인 27.5%, 5-29인 22.5%, 100-299인 20.7%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30-99인 규모의 직장 비율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29.3%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30-9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은 20대에 19.7%로 가장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학력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면, 1-4인, 5-2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100-299인, 1,000인 이상 규모 직장의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5〉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남편): 종사자수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전체	12.6	22.5	27.5	20.7	9.7	5.9	1.0	100.0	(1,328)
지역 ($\chi^2=32.1^{**}$)									
서울·경기	9.3	23.3	29.3	20.7	8.6	7.7	1.0	100.0	(660)
광역시	16.4	24.8	26.4	17.5	11.3	2.7	1.0	100.0	(339)
그 외	15.4	18.3	25.1	24.1	10.2	5.8	1.0	100.0	(328)
연령 ($\chi^2=21.7^*$)									
20대	15.4	30.0	19.7	22.7	8.8	0.7	2.8	100.0	(72)
30대	12.0	21.8	27.9	20.3	10.8	6.6	0.6	100.0	(951)
40대 이상	13.9	22.9	28.2	21.6	6.4	5.0	2.0	100.0	(305)
학력 ($\chi^2=78.2^{***}$)									
고졸 이하	26.8	34.1	18.5	13.3	5.1	1.4	0.8	100.0	(167)
대졸	10.6	20.9	29.0	21.7	10.4	6.4	0.9	100.0	(1,132)
대학원 졸	10.0	16.1	23.5	23.2	8.3	12.7	6.2	100.0	(29)
혼인지속기간 ($\chi^2=13.8$)									
1~2년	13.4	18.8	26.7	23.6	11.3	5.0	1.2	100.0	(273)
3~5년	13.8	22.1	28.8	20.8	8.9	4.8	0.9	100.0	(579)
6~7년	10.8	25.1	26.4	19.0	9.7	7.9	1.0	100.0	(476)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1~4인, ②5~29인, ③30~99인, ④100~299인, ⑤300~999인, ⑥1,000인 이상,

⑦잘 모르겠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자의 종사자수는 5-29인이 31.0%로 가장 높고, 30-99인이 30.0%, 1-4인과 100-299인이 각각 13.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4인 규모 직장의 비율은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져 그 외 지역에서 22.0%로 가장 높고, 300-999인, 1,000인 규모 직장의 비율은 서울·경기가 9.5%, 5.2%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연령별로 보면, 100-29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은 20대에 15.2%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낮아진 것에 반해 300-99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높아져 40대에 9.5%로 가장 높다. 학력별로는 5-2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이 고졸 이하에서 40.0%로 높던 것이 학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여 대학원 졸에서는 10.4%로 나타났고, 특히 1,000인 이상 규모 직장의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대학원 졸에서 1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6〉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내): 종사자수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전체	13.4	31.0	30.0	13.4	7.0	4.0	1.2	100.0	(1,211)
지역 ($\chi^2=59.4^{***}$)									
서울·경기	8.6	29.7	33.9	12.0	9.5	5.2	1.0	100.0	(613)
광역시	14.2	34.5	23.7	18.7	4.7	2.8	1.5	100.0	(291)
그 외	22.0	30.3	28.3	11.1	4.3	2.7	1.4	100.0	(307)
연령 ($\chi^2=17.0$)									
20대	17.2	33.6	26.1	15.2	5.9	1.4	0.5	100.0	(196)
30대	11.7	30.5	31.3	13.6	6.8	4.7	1.4	100.0	(845)
40대	17.0	30.8	28.1	10.4	9.5	3.0	1.3	100.0	(170)
학력									
고졸 이하	27.5	40.0	23.7	7.2	0.9	0.7	-	100.0	(193)
대졸	10.4	29.7	31.6	14.7	8.2	4.4	1.0	100.0	(994)
대학원 졸	21.3	10.4	18.1	9.5	6.5	11.9	22.3	100.0	(23)
혼인지속기간 ($\chi^2=26.9^{**}$)									
1~2년	13.0	29.0	28.8	14.0	10.9	3.3	0.9	100.0	(265)
3~5년	13.3	33.2	29.9	14.9	5.3	3.2	0.2	100.0	(513)
6~7년	13.6	29.6	31.0	11.3	6.6	5.3	2.6	100.0	(433)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1~4인, ②5~29인, ③30~99인, ④100~299인, ⑤300~999인, ⑥1,000인 이상,

⑦잘 모르겠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2절 주거 특성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에서 같이 산 사람³⁸⁾은 남편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가 69.3%, 형제자매 및 친인척이 32.1%,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은 27.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외 지역에서 혼자 사는 비율이 35.1%로 가장 높고, 서울·경기가 24.1%, 광역시가 24.9%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서울·경기 지역이 42.7%로 가장 높고, 광역시가 24.4%, 그 외가 20.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혼자 사는 비율이 35.8%로 가장 높고, 30대가 25.8%, 40대 이상이 29.2%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의 경우 혼자 사는 비율이 41.7%로 가장 높고, 고졸 이하가 35.3%, 대졸이 25.4%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의 소득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내의 경우는 부모 및 조부모가 75.5%, 형제자매 및 친인척이 36.1%,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은 20.9%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19.6%, 광역시가 14.9%, 그 외 지역이 29.2%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과 소득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이 파악되지 않지만, 학력에서 대학원 졸의 경우 혼자 사는 비율이 4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8) 복수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율의 합이 100%를 넘음.

〈표 6-17〉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같이 산 사람(남편)

(단위: %, 명)

구분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 및 지인	없음 (혼자)	현 배우자 (당시 애인)	기타	(N)
전체	69.3	32.1	1.9	27.2	1.0		(1,779)
지역							
서울·경기	72.4	42.7	1.7	24.1	1.2	-	(852)
광역시	73.4	24.4	1.7	24.9	0.1	-	(454)
그 외	59.8	20.5	2.7	35.1	1.6	-	(473)
연령							
20대	53.6	20.4	8.7	35.8	2.0	-	(125)
30대	71.3	33.5	1.6	25.8	1.0	-	(1,286)
40대 이상	68.0	31.4	0.9	29.2	0.8	-	(368)
학력							
고졸 이하	55.6	19.6	6.1	35.3	2.5	-	(226)
대졸	72.2	34.4	1.2	25.4	0.6	-	(1,496)
대학원 졸	48.5	22.6	5.0	41.7	4.8	-	(56)
당시 소득							
250만 원 미만	68.3	28.9	2.8	27.1	1.2	-	(726)
250~350만 원 미만	68.0	29.8	1.2	28.8	0.8	-	(547)
350만 원 이상	72.2	39.3	1.4	25.5	1.0	-	(5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6-18〉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같이 산 사람(아내)

(단위: %, 명)

구분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 및 지인	없음 (혼자)	현 배우자 (당시 애인)	기타	(N)
전체	75.5	36.1	1.5	20.9	0.8	-	(1,779)
지역							
서울·경기	77.3	46.2	1.2	19.6	0.8	-	(852)
광역시	81.6	28.0	1.7	14.9	0.7	-	(454)
그 외	66.3	25.8	1.8	29.2	0.8	-	(473)
연령							
20대	77.8	34.7	2.2	18.3	0.5	-	(345)

구분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 및 지인	없음 (혼자)	현 배우자 (당시 애인)	기타	(N)
30대	76.3	37.8	0.8	21.0	0.8	-	(1,214)
40대	67.6	28.7	4.6	24.7	0.9	-	(220)
학력							
고졸 이하	66.1	31.1	2.2	29.6	1.3	-	(277)
대졸	78.2	37.5	1.4	18.6	0.5	-	(1,463)
대학원 졸	42.6	21.1	-	47.5	5.0	-	(40)
당시 소득							
250만 원 미만	73.8	33.8	1.7	22.1	1.1	-	(1,246)
250~350만 원 미만	80.4	38.9	1.3	17.1	-	-	(452)
350만 원 이상	74.9	56.1	-	23.6	-	-	(8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주택 유형을 보면, 남편의 경우, 아파트/주상복합이 46.3%, 일반 단독 주택이 22.7%,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12.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일반 단독 주택이 그 외 지역에서 32.7%로 유의하게 가장 높고, 다세대 주택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14.2%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일반 단독 주택의 비율이 높고(27.2%), 연령이 낮을수록 다세대 주택(원룸 등)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주상복합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아내의 경우는 아파트/주상복합이 52.0%, 일반 단독 주택이 20.0%,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11.5%로 나타났다. 속성에 따른 비율은 대부분 남편과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대학원 졸의 경우, 다세대 주택(원룸 등)에 사는 비율이 26.1%로 나타나고, 기타의 경우도 8.7%로 남편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 6-19〉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주택 유형(남편)

(단위: %, 명)

구분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 단독 주택	아파트 /주상 복합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오피 스텔	기타	계(%)	(N)
전체	22.7	7.0	46.3	7.0	12.4	2.4	2.1	100.0	(1,779)
지역 ($\chi^2=125.5^{***}$)									
서울·경기	14.6	9.5	47.9	9.0	14.2	3.5	1.4	100.0	(852)
광역시	27.5	6.4	48.6	6.2	8.0	2.3	0.9	100.0	(454)
그 외	32.7	3.0	41.4	4.3	13.4	0.5	4.7	100.0	(473)
연령 ($\chi^2=59.1^{***}$)									
20대	22.1	4.5	36.8	7.2	21.4	0.1	7.9	100.0	(125)
30대	21.5	7.2	47.7	7.2	12.7	1.9	1.9	100.0	(1,286)
40대 이상	27.2	7.0	44.9	6.5	8.4	5.0	1.0	100.0	(368)
학력 ($\chi^2=54.0^{***}$)									
고졸 이하	32.6	7.2	32.4	9.8	12.8	-	5.2	100.0	(226)
대졸	21.4	7.2	48.3	6.5	12.3	2.6	1.7	100.0	(1,496)
대학원 졸	17.5	-	49.7	10.7	12.4	7.3	2.5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5.3$)									
1~2년	19.8	6.7	49.8	6.8	11.8	1.5	3.6	100.0	(378)
3~5년	22.8	6.9	45.0	6.9	13.3	2.7	2.4	100.0	(806)
6~7년	24.4	7.3	45.9	7.4	11.6	2.6	0.9	100.0	(59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6-20〉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주택 유형(아내)

(단위: %, 명)

구분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 단독 주택	아파트 /주상 복합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오피 스텔	기타	계(%)	(N)
전체	20.0	6.3	52.0	7.6	11.5	1.5	1.2	100.0	(1,779)
지역 ($\chi^2=118.7^{***}$)									
서울·경기	13.8	8.6	50.4	9.6	14.4	2.4	0.8	100.0	(852)
광역시	21.2	6.3	60.2	4.7	6.7	0.7	0.2	100.0	(454)
그 외	30.1	2.2	46.8	6.7	10.8	0.5	2.8	100.0	(473)

구분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 단독 주택	아파트 /주상 복합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오피 스텔	기타	계(%)	(N)
연령 ($\chi^2=12.0$)									
20대	16.8	6.1	53.7	7.5	12.0	1.7	2.2	100.0	(345)
30대	20.8	6.1	52.5	7.4	11.1	1.2	0.9	100.0	(1,214)
40대	20.8	7.9	46.6	8.5	12.8	2.3	1.1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28.6	7.1	35.4	12.7	12.8	1.0	2.3	100.0	(277)
대졸	18.7	6.3	55.4	6.5	10.8	1.5	0.7	100.0	(1,463)
대학원 졸	7.7	1.6	40.8	10.9	26.1	4.2	8.7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8.7$)									
1~2년	19.3	7.8	49.5	9.3	11.5	1.0	1.6	100.0	(378)
3~5년	20.9	5.4	52.8	6.6	11.7	1.3	1.2	100.0	(806)
6~7년	19.2	6.6	52.4	7.8	11.2	2.0	0.8	100.0	(59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점유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에 무상이 44.4%로 가장 높고, 자가가 32.5%, 보증부 월세가 10.6%, 전세가 10.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무상의 비율이 47.7%로 유의하게 가장 높고, 광역시가 41.8%, 그 외가 40.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무상의 비율이 40.1%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보증부 월세가 16.4%, 기타가 8.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세의 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 준다.

아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무상이 46.9%로 가장 높고, 자가가 32.6%, 전세가 10.2%, 보증부 월세가 8.5%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남편과 유사하지만(49.3%), 대학원 졸에서 보증부 월세가 19.4%, 기타가 7.7%로 나타난 것이 남편과 달랐다.

〈표 6-21〉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점유 형태(남편)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무상	계(%)	(N)
전체	32.5	10.5	10.6	0.2	1.8	44.4	100.0	(1,779)
지역 ($\chi^2=36.9^{***}$)								
서울·경기	29.5	10.9	9.8	-	2.1	47.7	100.0	(852)
광역시	37.8	11.8	7.9	0.2	0.5	41.8	100.0	(454)
그 외	32.8	8.3	14.7	0.7	2.5	40.9	100.0	(473)
연령 ($\chi^2=49.6^{***}$)								
20대	22.0	13.1	16.4	-	8.3	40.1	100.0	(125)
30대	34.5	10.4	10.0	0.3	1.5	43.3	100.0	(1,286)
40대 이상	29.0	9.6	11.1	0.1	0.4	49.8	100.0	(368)
학력								
고졸 이하	30.0	11.9	13.2	0.8	3.4	40.8	100.0	(226)
대졸	33.0	10.5	10.0	0.2	1.5	44.9	100.0	(1,496)
대학원 졸	29.3	4.2	17.3	-	3.2	46.0	100.0	(56)

주: 1) * $p<0.05$, ** $p<0.01$, *** $p<0.001$

2) 반전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연세·사글세·일세·기숙사 등은 기타이고, 부모님 집·친척 집·사택·관사 등은 무상에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6-22〉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점유 형태(아내)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무상	계(%)	(N)
전체	32.6	10.2	8.5	0.4	1.4	46.9	100.0	(1,779)
지역 ($\chi^2=38.1^{***}$)								
서울·경기	29.9	11.3	7.1	0.4	2.0	49.3	100.0	(852)
광역시	37.1	10.9	6.2	0.2	0.2	45.4	100.0	(454)
그 외	33.2	7.6	13.4	0.6	1.4	43.8	100.0	(473)
연령								
20대	33.3	10.8	7.7	0.5	1.8	45.9	100.0	(345)
30대	32.5	9.9	8.5	0.4	1.2	47.4	100.0	(1,214)
40대	32.0	11.0	10.0	-	1.7	45.3	100.0	(220)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무상	계(%)	(N)
학력								
고졸 이하	32.9	12.4	11.0	0.9	1.9	40.9	100.0	(277)
대졸	32.8	9.8	7.8	0.3	1.1	48.2	100.0	(1,463)
대학원 졸	22.5	10.8	19.4	-	7.7	39.5	100.0	(40)

주: 반전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연세·사글세·일세·기숙사 등은 기타이고, 부모님 집·친척 집·사택·관사 등은 무상에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의 주택 비용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자가는 2억 7668만 원, 전세가 1억 4527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 2461만 원에 월세 32만 1000원, 월세 28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비용을 보면, 자가는 3억 8527만 원, 전세는 1억 9819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은 3584만 원, 월세는 36만 3000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연령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의 경우는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남편과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3〉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주택 비용(남편)

(단위: 만 원,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매매가	보증금	보증금	월세	월세	월세
전체	27,668.4	14,526.8	2,461.0	32.1	28.0	34.7
지역						
서울·경기	38,527.3	19,819.1	3,583.5	36.3	-	41.0
광역시	21,245.8	10,374.4	2,359.0	30.7	30.0	16.4
그 외	17,190.3	7,625.3	1,163.3	27.7	27.6	28.6
연령						
20대	27,533.9	11,279.4	2,743.2	31.8	-	35.7
30대	28,643.2	15,037.7	2,430.9	32.3	29.4	35.0
40대 이상	23,633.8	14,098.0	2,413.7	31.5	15.0	23.1

170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매매가	보증금	보증금	월세	월세	
학력						
고졸 이하	15,818.3	10,041.1	1,633.3	29.8	24.3	34.6
대졸	29,359.6	15,151.1	2,478.8	30.6	30.9	35.5
대학원 졸	25,791.0	24,185.0	4,711.0	61.2	-	25.5
혼인지속기간						
1~2년	30,969.7	14,540.6	2,561.1	32.3	15.0	33.2
3~5년	27,220.2	14,600.8	2,579.3	33.6	30.0	34.1
6~7년	26,205.2	14,399.7	2,209.6	29.6	28.3	40.4
(N)	(578)	(186)	(189)	(189)	(4)	(31)

주: 매매가는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 보증금은 점유 형태가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 경우, 월세는 점유 형태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기타인 경우에 해당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6-24〉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주택 비용(아내)

(단위: 만 원,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매매가	보증금	보증금	월세	월세	
전체	27,235.0	14,738.3	1,699.6	28.6	38.6	32.6
지역						
서울·경기	37,151.6	18,543.7	2,233.7	33.0	50.7	35.1
광역시	21,182.2	11,068.3	1,733.3	26.3	30.0	30.0
그 외	17,616.6	9,647.5	1,178.3	25.5	26.8	26.6
연령						
20대	27,244.6	14,934.2	2,070.9	29.9	41.3	34.0
30대	27,829.2	15,071.8	1,694.5	28.4	37.8	36.1
40대	23,891.8	12,784.0	1,277.5	28.5	-	16.6
학력						
고졸 이하	17,305.2	11,923.6	1,322.1	24.3	35.0	26.1
대졸	29,212.6	15,462.6	1,758.5	28.7	40.7	31.4
대학원 졸	22,111.5	13,056.7	2,326.7	45.4	-	50.5
혼인지속기간						
1~2년	29,339.8	14,843.9	2,160.6	29.2	34.6	39.7
3~5년	27,666.9	14,328.8	1,643.4	29.9	49.3	33.6
6~7년	25,300.3	15,291.7	1,448.5	26.7	27.2	9.3
(N)	(580)	(182)	(152)	(152)	(7)	(25)

주: 매매가는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 보증금은 점유 형태가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 경우, 월세는 점유 형태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기타인 경우에 해당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택의 크기는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28.2평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의 크기는 지방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 남편과 아내 모두 연령과 학력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파악할 수 없다.

〈표 6-25〉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 주택 규모

(단위: 평, 명)

구분	남편		아내	
	평	(N)	평	(N)
전체	28.2	(1,779)	28.2	(1,779)
지역				
서울·경기	29.3	(852)	28.6	(852)
광역시	28.1	(454)	29.0	(454)
그 외	26.3	(473)	26.5	(473)
연령				
20대	25.3	(125)	27.8	(345)
30대	28.6	(1,286)	28.6	(1,214)
40대	27.7	(368)	26.5	(220)
학력				
고졸 이하	24.9	(226)	25.0	(277)
대졸	28.7	(1,496)	28.9	(1,463)
대학원 졸	27.2	(56)	23.9	(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3절 배우자와 알게 된 경로

남편이 배우자를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가 35.7%로 가장 높고, ‘소개팅을 통해서’가 29.8%, ‘직장 및 일(아르바이트 포함) 관계로’가 10.4%, ‘학교에서’가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 소득이 높아지면 친구나 지인 만남에서 배우자를 만난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소개팅을 통해서’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와 같이 현재 소득에서 경향성이 발견되었는데, 250만 원 미만의 비율이 15.0%로 250~350만 원 미만의 30.8%, 350만 원 이상의 31.5%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한편, ‘학교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표 6-26〉 배우자를 알게 된 경로(남편)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7.4	10.4	4.5	3.4	29.8	35.7	2.9
지역 ($\chi^2=37.5^*$)							
서울·경기	8.0	9.2	5.9	4.4	29.3	34.5	2.8
광역시	6.2	9.8	3.6	3.4	28.3	38.1	3.4
그 외	7.5	13.2	2.8	1.8	32.2	35.7	2.6
연령							
20대	23.9	13.6	8.7	3.2	22.9	23.5	0.5
30대	7.4	9.4	4.4	3.2	31.0	36.4	2.2
40대 이상	1.7	12.8	3.5	4.5	28.2	37.4	6.0
학력							
고졸 이하	3.2	11.9	8.4	1.8	24.8	42.4	2.0
대졸	7.7	10.2	3.8	3.6	30.8	35.2	2.9
대학원 졸	15.2	9.4	6.9	7.0	24.8	22.7	5.9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혼인지속기간 ($\chi^2=53.0^{***}$)							
1~2년	9.0	11.6	3.6	4.8	30.5	32.0	1.5
3~5년	10.1	8.6	4.9	3.4	27.1	37.0	3.3
6~7년	2.8	12.1	4.5	2.6	33.0	36.4	3.1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13.7	15.3	7.7	6.2	15.0	31.1	2.7
250~350만 원 미만	7.0	11.5	4.8	3.4	30.8	34.4	2.0
350만 원 이상	6.7	8.9	3.8	3.0	31.5	37.4	3.5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학교에서, ② 직장 및 일(아르바이트 포함) 관계로, ③ 어릴 적부터 친구 및 가까이에서, ④ 학교 이외의 동아리나 학원 등에서, ⑤ 소개팅을 통해서, ⑥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⑦ 결혼을 전제로 한 선을 봐서, ⑧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⑨ 길거리나 여행 중에 알게 되어서, ⑩ 종교 및 봉사활동 하는 곳에서, ⑪ 기타, ⑫ 잘 모름/무응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6-27〉 배우자를 알게 된 경로(남편)(계속)

(단위: %, 명)

구분	⑧	⑨	⑩	⑪	⑫	계(%)	(N)
전체	0.3	2.0	2.5	0.1	0.9	100.0	(1,779)
지역 ($\chi^2=37.5^*$)							
서울·경기	0.2	2.4	2.7	0.1	0.5	100.0	(852)
광역시	0.5	2.1	3.4	0.0	1.1	100.0	(454)
그 외	0.1	1.2	1.3	0.3	1.5	100.0	(473)
연령							
20대	0.0	1.7	1.7	0.0	0.4	100.0	(125)
30대	0.2	2.0	2.6	0.2	1.0	100.0	(1,286)
40대 이상	0.7	2.0	2.4	0.0	0.8	100.0	(368)
학력							
고졸 이하	0.0	1.0	2.3	0.6	1.6	100.0	(226)
대졸	0.2	2.2	2.4	0.1	0.8	100.0	(1,496)
대학원 졸	2.6	0.0	5.5	0.0	0.0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53.0^{***}$)							
1~2년	0.1	2.1	3.6	0.3	0.8	100.0	(378)
3~5년	0.1	2.1	2.3	0.0	1.1	100.0	(806)
6~7년	0.6	1.8	2.1	0.1	0.7	100.0	(595)

구분	⑧	⑨	⑩	⑪	⑫	계(%)	(N)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0.0	0.0	5.7	0.6	2.0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0.2	2.2	2.9	0.1	0.8	100.0	(671)
350만 원 이상	0.3	2.2	1.7	0.1	0.8	100.0	(955)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학교에서, ② 직장 및 일(아르바이트 포함) 관계로, ③ 어릴 적부터 친구 및 가까이에
 살아서, ④ 학교 이외의 동아리나 학원 등에서, ⑤ 소개팅을 통해서, ⑥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⑦ 결혼을 전제로 한 선을 봐서, ⑧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⑨ 길거
 리나 여행 중에 알게 되어서, ⑩ 종교 및 봉사활동 하는 곳에서, ⑪ 기타, ⑫ 잘 모름/무응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배우자를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에
 서’가 37.0%로 가장 높고, ‘소개팅을 통해서’가 28.1%, ‘직장 및 일(아르
 바이트 포함) 관계로’가 11.9%, ‘학교에서’가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학력
 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학교에서’ 만난 아내의 특징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표 6-28〉 배우자를 알게 된 경로(아내)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7.0	11.9	4.1	3.8	28.1	37.0	3.0
지역 ($\chi^2=27.7$)							
서울·경기	7.8	12.2	4.6	4.3	27.3	35.6	3.3
광역시	5.8	9.9	4.6	4.1	27.1	38.5	3.1
그 외	6.8	13.1	2.6	2.5	30.5	38.0	2.5
연령							
20대	13.0	11.4	4.6	3.8	26.0	32.9	1.3
30대	6.3	11.8	3.7	3.7	28.8	37.7	3.1
40대	1.9	12.9	5.7	4.1	27.5	38.9	5.1
학력							
고졸 이하	1.9	13.6	5.0	2.3	22.1	46.9	2.3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졸	8.0	11.5	3.7	4.1	29.3	35.5	3.0
대학원 졸	9.6	12.9	11.3	2.4	25.1	22.5	9.4
혼인지속기간 ($\chi^2=57.4^{***}$)							
1~2년	8.2	11.6	3.8	5.4	29.5	33.8	1.4
3~5년	9.4	10.3	4.8	2.9	26.0	38.0	3.6
6~7년	3.1	14.1	3.4	3.9	30.1	37.5	3.3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6.5	11.6	4.4	3.9	27.8	37.7	3.2
250~350만 원 미만	7.5	12.0	4.4	2.9	27.1	38.2	2.3
350만 원 이상	9.1	13.3	1.0	5.7	32.5	29.1	3.9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학교에서, ② 직장 및 일(아르바이트 포함) 관계로, ③ 어릴 적부터 친구 및 가까이에
살아서, ④ 학교 이외의 동아리나 학원 등에서, ⑤ 소개팅을 통해서, ⑥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⑦ 결혼을 전제로 한 선을 봐서, ⑧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⑨ 길거
리나 여행 중에 알게 되어서, ⑩ 종교 및 봉사활동 하는 곳에서, ⑪ 기타, ⑫ 잘 모름/무응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6-29〉 배우자를 알게 된 경로(아내)(계속)

(단위: %, 명)

구분	⑧	⑨	⑩	⑪	⑫	계(%)	(N)
전체	0.2	1.4	2.5	0.2	0.8	100.0	(1,779)
지역 ($\chi^2=27.7$)							
서울·경기	0.1	1.6	2.6	0.3	0.3	100.0	(852)
광역시	0.5	1.3	3.5	-	1.6	100.0	(454)
그 외	0.1	1.2	1.3	0.2	1.1	100.0	(473)
연령							
20대	-	2.3	2.5	0.7	1.5	100.0	(345)
30대	0.2	1.0	2.9	0.1	0.8	100.0	(1,214)
40대	1.0	2.4	0.3	-	-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0.4	1.0	3.2	0.3	1.1	100.0	(277)
대졸	0.2	1.5	2.3	0.2	0.8	100.0	(1,463)
대학원 졸	-	-	6.7	-	-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57.4^{***}$)							
1~2년	0.1	1.6	3.9	0.3	0.3	100.0	(378)

구분	⑧	⑨	⑩	⑪	⑫	계(%)	(N)
3~5년	0.2	1.3	2.0	-	1.5	100.0	(806)
6~7년	0.4	1.4	2.3	0.4	0.2	100.0	(59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0.1	1.2	2.6	0.3	0.7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0.5	2.3	2.5	-	0.3	100.0	(529)
350만 원 이상	0.4	-	1.8	-	3.2	100.0	(181)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학교에서, ② 직장 및 일(아르바이트 포함) 관계로, ③ 어릴 적부터 친구 및 가까이
살아서, ④ 학교 이외의 동아리나 학원 등에서, ⑤ 소개팅을 통해서, ⑥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⑦ 결혼을 전제로 한 선을 봐서, ⑧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⑨ 길거
리나 여행 중에 알게 되어서, ⑩ 종교 및 봉사활동 하는 곳에서, ⑪ 기타, ⑫ 잘 모름/무응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현재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교제까지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6.0개월로 나타났다. 혼인지속기간이 1~2년 차인 경우 배우자를 처음 만나 교제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렸고,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소요 기간이 짧았다.

〈표 6-30〉 배우자를 처음 만나 교제하기까지의 소요 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소요 기간(개월)	(N)
전체	6.0	(1,779)
지역		
서울·경기	6.9	(852)
광역시	5.4	(454)
그 외	5.0	(473)
혼인지속기간		
1~2년	7.1	(378)
3~5년	5.8	(806)
6~7년	5.6	(595)

주: 배우자를 처음 만나 교제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4절 교제 이전의 활동 참여도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취미·학원 등의 활동 참여율³⁹⁾은 남편의 경우 약 70% 정도가 월 1회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의 경우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고졸 이하의 경우 53.9%가 월 1회 이상 취미나 학원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것에 비해 대학원 졸의 경우 87.4%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활동 참여도는 72.6%로 남편보다 4.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의 활동 참여도가 높은 편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동 참여도가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20대에는 68.4%가 월 1회 이상 활동에 참여한 것에 비해 40대에는 74%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31〉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취미·학원 등의 활동 참여도(남편)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 함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계(%)	(N)
전체	31.7	32.3	23.9	12.1	100.0	(1,779)
지역 ($\chi^2=13.3^*$)						
서울·경기	31.8	30.9	24.4	12.8	100.0	(852)
광역시	27.6	37.7	24.7	9.9	100.0	(454)
그 외	35.5	29.5	22.2	12.7	100.0	(473)
연령 ($\chi^2=12.4$)						
20대	34.6	30.5	17.5	17.3	100.0	(125)
30대	31.1	32.1	24.0	12.8	100.0	(1,286)
40대 이상	33.0	33.5	25.7	7.8	100.0	(368)

39) 100%에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을 차감한 수치임.

구분	전혀 안 함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계(%)	(N)
학력 ($\chi^2=47.0^{***}$)						
고졸 이하	46.1	25.8	18.2	9.9	100.0	(226)
대졸	30.3	33.1	24.9	11.7	100.0	(1,496)
대학원 졸	12.6	37.7	19.5	30.2	100.0	(5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6-32〉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취미·학원 등의 활동 참여도(아내)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 함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계(%)	(N)
전체	27.4	34.2	24.5	13.9	100.0	(1,779)
지역 ($\chi^2=35.2^{***}$)						
서울·경기	25.3	30.3	28.4	16.0	100.0	(852)
광역시	24.6	41.1	21.7	12.6	100.0	(454)
그 외	33.9	34.6	20.2	11.3	100.0	(473)
연령 ($\chi^2=9.2$)						
20대	31.6	28.9	26.5	13.0	100.0	(345)
30대	26.5	34.8	24.3	14.5	100.0	(1,214)
40대	26.0	39.3	22.6	12.0	100.0	(220)
학력 ($\chi^2=40.9^{***}$)						
고졸 이하	40.5	35.3	16.8	7.4	100.0	(277)
대졸	24.9	34.2	26.0	15.0	100.0	(1,463)
대학원 졸	28.7	26.8	25.2	19.2	100.0	(4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종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 참여율⁴⁰⁾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은 38.8%의 활동 참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연령, 현재 소득 간의 경향성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40) 100%에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을 차감한 수치임.

종교·봉사 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아내는 45.3%로 남편보다 6.5%포인트 높은 비율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활동 참여도가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참여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 준다.

〈표 6-33〉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종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 참여도(남편)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 함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계(%)	(N)
전체	61.2	16.6	14.9	7.3	100.0	(1,779)
지역 ($\chi^2=39.1^{***}$)						
서울·경기	58.9	15.1	18.7	7.4	100.0	(852)
광역시	57.1	18.9	14.8	9.3	100.0	(454)
그 외	69.5	17.4	8.1	5.0	100.0	(473)
연령 ($\chi^2=9.6$)						
20대	67.3	13.5	10.7	8.6	100.0	(125)
30대	60.8	17.0	14.4	7.8	100.0	(1,286)
40대 이상	60.6	16.6	18.0	4.8	100.0	(368)
학력 ($\chi^2=15.0^*$)						
고졸 이하	67.7	16.0	12.1	4.2	100.0	(226)
대졸	60.8	16.8	14.9	7.5	100.0	(1,496)
대학원 졸	45.8	15.8	24.5	13.9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8.9$)						
1~2년	59.8	15.1	14.9	10.2	100.0	(378)
3~5년	61.3	16.5	15.9	6.3	100.0	(806)
6~7년	62.1	17.9	13.5	6.6	100.0	(59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6-34〉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종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 참여도(아내)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 함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계(%)	(N)
전체	54.7	19.6	17.3	8.4	100.0	(1,779)
지역 ($\chi^2=46.9^{***}$)						
서울·경기	49.9	18.8	22.4	8.9	100.0	(852)
광역시	52.6	23.9	14.3	9.2	100.0	(454)
그 외	65.3	16.7	11.1	6.9	100.0	(473)
연령 ($\chi^2=5.1$)						
20대	59.4	17.5	15.8	7.3	100.0	(345)
30대	54.0	19.7	17.7	8.6	100.0	(1,214)
40대	51.2	22.0	17.4	9.4	100.0	(220)
학력 ($\chi^2=20.8^{**}$)						
고졸 이하	65.0	18.1	11.2	5.7	100.0	(277)
대졸	52.8	20.1	18.2	8.9	100.0	(1,463)
대학원 졸	51.3	10.2	28.6	9.8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3.4$)						
1~2년	54.2	19.4	16.6	9.9	100.0	(378)
3~5년	54.5	18.7	18.0	8.7	100.0	(806)
6~7년	55.2	20.8	16.9	7.1	100.0	(59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교류 참여율⁴¹⁾에 대해 살펴보면, 96.9%의 남편이 월 1회 이상 직장 동료 및 상사와 교류를 하며, 특히 월 3회 이상의 비율이 61.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 동료 및 상사와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아내의 경우는 교류 참여도가 91.8%로 남편보다 5.1%포인트 낮게 나

41) 100%에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을 차감한 수치이며, 직장 경험이 없는 경우 응답을 하지 않음.

타나고 있다. 월 3회 이상의 비율은 50.1%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교류 참여도가 낮은 경향이 나타나지만, 다른 속성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표 6-35〉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교류 참여율(남편)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 함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계(%)	(N)
전체	3.1	35.5	35.7	25.7	100.0	(1,533)
지역 ($\chi^2=17.7^{**}$)						
서울·경기	3.2	31.5	37.9	27.5	100.0	(744)
광역시	1.8	37.7	33.4	27.2	100.0	(397)
그 외	4.1	41.1	33.8	20.9	100.0	(391)
연령 ($\chi^2=33.3^{***}$)						
20대	9.8	35.0	28.5	26.6	100.0	(100)
30대	3.3	35.0	37.6	24.2	100.0	(1,097)
40대 이상	0.3	37.6	31.5	30.5	100.0	(336)
학력 ($\chi^2=19.6^{**}$)						
고졸 이하	4.0	45.5	31.3	19.1	100.0	(196)
대졸	2.7	34.0	36.5	26.7	100.0	(1,297)
대학원 졸	9.2	35.5	28.9	26.3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7.9$)						
1~2년	3.8	32.3	37.6	26.3	100.0	(311)
3~5년	3.8	36.0	35.5	24.7	100.0	(674)
6~7년	1.6	36.9	34.7	26.8	100.0	(548)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6-36〉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교류 참여도(아내)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 함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계(%)	(N)
전체	8.2	41.7	31.1	19.0	100.0	(1,470)
지역 ($\chi^2=36.9^{***}$)						
서울·경기	6.8	37.9	35.6	19.6	100.0	(714)
광역시	7.0	40.7	29.5	22.7	100.0	(372)
그 외	12.1	49.7	24.1	14.2	100.0	(383)
연령 ($\chi^2=11.2$)						
20대	10.5	36.3	35.4	17.7	100.0	(261)
30대	7.6	43.8	30.4	18.3	100.0	(1,019)
40대	8.5	37.8	29.0	24.6	100.0	(190)
학력 ($\chi^2=22.1^{**}$)						
고졸 이하	10.6	48.7	29.6	11.0	100.0	(232)
대졸	7.6	40.6	31.7	20.2	100.0	(1,208)
대학원 졸	16.7	30.7	19.1	33.5	100.0	(30)
혼인지속기간 ($\chi^2=9.4$)						
1~2년	6.3	41.6	31.1	21.1	100.0	(306)
3~5년	9.5	40.4	33.5	16.7	100.0	(652)
6~7년	7.8	43.5	28.0	20.7	100.0	(512)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에 친구들과 만남 정도⁴²⁾를 보면, 98.3%의 남편이 월 1회 이상 친구들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5회 이상도 34.5%로 나타났다. 월 5회 이상 친구들을 만나는 정도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38.4%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 5회 이상 친구를 만나는 비율도 높아져 40대 이상은 36.6%가 월 5회 이상 친구들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는 97.2%의 비율로 월 1회 이상 친구들을 만나는 경향이 있

42) 100%에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을 차감한 수치임.

고, 월 5회 이상 만나는 비율도 32.5%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대체로 남편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월 5회 이상 친구를 만난 비율은 서울·경기 지역이 35.9%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7〉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친구들과의 만남 정도(남편)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 함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계(%)	(N)
전체	1.7	31.0	32.8	34.5	100.0	(1,779)
지역 ($\chi^2=27.8^{***}$)						
서울·경기	2.6	31.0	28.1	38.4	100.0	(852)
광역시	0.7	30.2	36.1	33.0	100.0	(454)
그 외	1.0	31.8	38.2	29.0	100.0	(473)
연령 ($\chi^2=8.3$)						
20대	2.6	30.8	35.6	31.0	100.0	(125)
30대	1.7	32.4	31.5	34.3	100.0	(1,286)
40대 이상	1.2	25.9	36.3	36.6	100.0	(368)
학력 ($\chi^2=23.0^{**}$)						
고졸 이하	4.9	33.4	35.4	26.3	100.0	(226)
대졸	1.3	30.5	32.3	36.0	100.0	(1,496)
대학원 졸	-	35.5	34.8	29.8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9.9$)						
1~2년	2.0	28.4	34.9	34.7	100.0	(378)
3~5년	2.1	32.9	29.9	35.2	100.0	(806)
6~7년	0.9	30.1	35.5	33.6	100.0	(59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6-38〉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친구들과의 만남 정도(아내)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 함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계(%)	(N)
전체	2.8	31.7	33.0	32.5	100.0	(1,779)
지역 ($\chi^2=29.7^{***}$)						
서울·경기	4.1	31.7	28.2	35.9	100.0	(852)
광역시	1.2	29.9	37.5	31.5	100.0	(454)
그 외	2.1	33.4	37.2	27.3	100.0	(473)
연령 ($\chi^2=7.5$)						
20대	3.9	28.5	35.2	32.4	100.0	(345)
30대	2.8	32.0	33.3	32.0	100.0	(1,214)
40대	1.6	34.7	28.0	35.7	100.0	(220)
학력 ($\chi^2=34.1^{***}$)						
고졸 이하	3.3	37.5	38.0	21.2	100.0	(277)
대졸	2.5	30.8	32.0	34.7	100.0	(1,463)
대학원 졸	11.8	23.0	34.7	30.4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7.9$)						
1~2년	1.3	28.2	35.5	35.0	100.0	(378)
3~5년	3.5	33.0	32.0	31.6	100.0	(806)
6~7년	3.0	32.2	32.7	32.1	100.0	(59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일자리와 주거에 대해 분석하였고, 배우자와 만나게 된 경로 및 그 시기의 활동 참여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일자리에 대해 정리하면, 그 당시 일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한 남편의 비율은 74.6%, 아내의 비율은 68.1%였다. 남편의 직종은 사무종사자가 50.6%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자가 10.7%, 판매종사자 9.7% 순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사무종사자가 60.7%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자가 18.7%, 판매종사자 7.9% 순으로 조사되었다.

당시의 종사상 지위는 남편의 경우, 상용직이 87.4%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 8.7%, 임시직 2.2%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경우, 88.7%로 가장 높았고 임시직 5.8%, 자영업 4.4%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남편의 경우 96.0%, 아내의 경우 94.2%이고, 정규직 여부는 남편이 94.3%, 아내가 88.0%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남편이 326만 1000원, 아내가 239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을 살펴보면, 첫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이 남편 272만 1000원, 아내 210만 4000원이었는데, 교제 당시에는 첫 일자리에 비해 남편은 약 50만원, 아내는 약 30만 원이 증가했다.

당시 일자리의 근로시간은 우선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직장종사한 경우가 남편이 90.7%, 아내가 93.1%로 나타났고, 초과근무는 남편이 하루 평균 2.1시간에 주 평균 2.7일, 아내는 하루 평균 1.9시간에 주 평균 2.5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이 당시 종사하던 일자리의 종사자수는 30-99인 27.5%, 5-29인 22.5%, 100-299인 20.7%, 아내는 5-29인 31.0%, 30-99인 30.0%, 100-299인 13.4%로 나타나 남편의 직장 규모가 아내보다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중에서 특히 남편의 30-9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은 20대에 19.7%로 가장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첫 일자리의 경우에도 30-9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이 20대에 가장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졌던 것과 같다.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거에서 같이 산 사람의 비율 구성은 최종 학교를 졸업할 당시와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와 유사하게 나타나지

만,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혼자 사는 경우를 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최종 학교를 졸업할 당시 < 첫 직장에 입사할 당시 < 현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도 이전 시점들(최종학교, 첫 직장)과 유사한 특징이 있었다. 점유 형태도 이전 시점들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와 만나게 된 계기는 남편의 경우,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가 35.7%로 가장 높고, '소개팅을 통해서'가 29.8%, '직장 및 일(아르바이트 포함) 관계로'가 10.4%, '학교에서'가 7.4%로 나타났고, 아내의 경우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가 37.0%로 가장 높고, '소개팅을 통해서'가 28.1%, '직장 및 일(아르바이트 포함) 관계로'가 11.9%, '학교에서'가 7.0%의 순으로 나타나 남편과 아내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 만나 교제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0개월로 나타났고,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취미·학원 등의 활동 참여도는 남편과 아내 모두 높은 수준이었고 남편과 아내 모두 학력이 높아질수록 참여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종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 참여율은 아내가 남편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편과 아내 모두 학력이 높아질수록 종교·봉사 활동 참여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교류 참여율은 남편과 아내 모두 월 1회 이상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에 친구들과 만나는 정도를 살펴보면, 만나는 비율뿐만 아니라 월 5회 이상 만나는 비율이 지방에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남편과 아내에게 모두 나타났다.

제 3 부

조사 결과 II (결혼 이후)

제7장 배우자와의 결혼

제8장 임신·출산

제9장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제1절 혼인 상태 및 과정

현재 혼인 상태는 남편의 경우 초혼이 95.3%, 동거·사실혼이 3.1%, 재혼이 1.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초혼 비율은 서울·경기 지역(97.0%)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재혼 비율은 그 외 지역(2.5%)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재혼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으나, 동거·사실혼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혼인지속기간이 짧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특징이 있으며, 특히 20대에서 12.3%, 혼인지속기간 1~2년 차에 8.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동거·사실혼 비율이 350만 원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250만 원 미만: 6.4%, 250~350만 원 미만: 4.1%, 350만 원 이상: 1.9%). 아내의 혼인 상태는 대부분 남편과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현재 혼인 상태(남편)

(단위: %, 명)

구분	동거·사실혼	초혼	재혼	계(%)	(N)
전체	3.1	95.3	1.6	100.0	(1,779)
지역 ($\chi^2=13.8^{**}$)					
서울·경기	1.9	97.0	1.1	100.0	(852)
광역시	4.9	93.6	1.6	100.0	(454)
그 외	3.6	93.9	2.5	100.0	(473)
연령 ($\chi^2=78.6^{***}$)					
20대	12.3	87.7	-	100.0	(125)
30대	2.4	96.9	0.7	100.0	(1,286)
40대 이상	2.3	92.4	5.3	100.0	(368)

190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동거·사실혼	초혼	재혼	계(%)	(N)
학력					
고졸 이하	6.8	87.5	5.8	100.0	(226)
대졸	2.5	96.5	1.0	100.0	(1,496)
대학원 졸	4.1	95.7	0.2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68.4^{***}$)					
1~2년	8.9	88.0	3.2	100.0	(378)
3~5년	2.3	95.9	1.8	100.0	(806)
6~7년	0.5	99.1	0.4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14.1^{**}$)					
250만 원 미만	6.4	92.2	1.4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4.1	93.9	2.0	100.0	(671)
350만 원 이상	1.9	96.8	1.4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2〉 현재 혼인 상태(아내)

(단위: %, 명)

구분	동거·사실혼	초혼	재혼	계(%)	(N)
전체	3.1	95.0	1.9	100.0	(1,779)
지역 ($\chi^2=15.7^{**}$)					
서울·경기	1.9	96.6	1.6	100.0	(852)
광역시	4.9	94.1	1.1	100.0	(454)
그 외	3.6	93.2	3.2	100.0	(473)
연령 ($\chi^2=106.9^{***}$)					
20대	7.3	92.4	0.3	100.0	(345)
30대	2.0	97.1	0.9	100.0	(1,214)
40대	2.6	87.7	9.7	100.0	(220)
학력 ($\chi^2=22.2^{***}$)					
고졸 이하	4.8	90.1	5.1	100.0	(277)
대졸	2.8	95.9	1.3	100.0	(1,463)
대학원 졸	2.5	97.5	-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63.5^{***}$)					
1~2년	8.9	88.2	2.9	100.0	(378)
3~5년	2.3	95.4	2.2	100.0	(806)

구분	동거·사실혼	초혼	재혼	계(%)	(N)
6~7년	0.5	98.8	0.7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6.2$)					
250만 원 미만	3.2	94.7	2.1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3.8	94.6	1.6	100.0	(529)
350만 원 이상	0.6	98.2	1.2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식 및 혼인신고를 한 비율은 각각 97.2%, 96.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혼인지속기간별로는 연차가 낮을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혼인신고의 경우 1~2년 차가 91.1%로 6~7년의 99.5%보다 8.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표 7-3〉 결혼식 및 혼인신고를 한 비율

(단위: %, 명)

구분	결혼식	(N)	혼인신고	(N)
전체	97.2	(1,779)	96.9	(1,779)
지역 (결혼식: $\chi^2=38.8^{***}$)				
서울·경기	99.1	(852)	98.1	(852)
광역시	97.3	(454)	95.1	(454)
그 외	93.5	(473)	96.4	(473)
혼인지속기간 (결혼식: $\chi^2=13.5^{**}$)				
1~2년	95.8	(378)	91.1	(378)
3~5년	96.7	(806)	97.7	(806)
6~7년	98.7	(595)	99.5	(595)
가구소득 (결혼식: $\chi^2=7.4$)				
450만 원 미만	96.5	(638)	97.2	(638)
450~600만 원 미만	97.0	(529)	95.9	(529)
600만 원 이상	98.0	(612)	97.5	(612)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본 조사에서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연월로 응답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순서별로 재구성하였다. 각 이벤트가 먼저 일어난 경우에는 그대로 처리하였으나, 두 이벤트의 연월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로 처리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시기에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일어난 경우가 51.9%로 가장 많고, 결혼식을 먼저 한 경우가 42.5%이고,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는 5.5%로 낮은 경향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의 경우, 결혼식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혼인 연차가 짧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식을 먼저 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4〉 결혼식 및 혼인신고 순서

(단위: %, 명)

구분	결혼식 먼저	(N)	혼인신고 먼저	(N)	같은 시기에	(N)
전체	42.5	(721)	5.5	(94)	51.9	(881)
지역						
서울·경기	40.7	(339)	4.7	(39)	54.6	(455)
광역시	48.7	(208)	5.0	(21)	46.3	(198)
그 외	39.9	(174)	7.6	(33)	52.5	(229)
혼인지속기간						
1~2년	38.3	(130)	5.6	(19)	56.0	(189)
3~5년	42.6	(329)	5.6	(43)	51.8	(400)
6~7년	44.8	(263)	5.4	(32)	49.8	(292)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45.5	(276)	6.8	(41)	47.8	(290)
450~600만 원 미만	43.6	(218)	5.6	(28)	50.9	(254)
600만 원 이상	38.6	(228)	4.2	(25)	57.2	(337)

주: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같은 월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시기’로 산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난 후,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2.5개월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으로 갈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소요 기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배우자와의 결혼식과 혼인신고까지의 소요 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소요 기간(개월)	(N)
전체	32.5	(1,756)
지역		
서울·경기	34.7	(848)
광역시	32.2	(446)
그 외	29.0	(461)
혼인지속기간		
1~2년	33.7	(369)
3~5년	33.6	(795)
6~7년	30.5	(593)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33.3	(628)
450~600만 원 미만	31.9	(520)
600만 원 이상	32.3	(607)

주: 1)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까지 소요된 기간

2)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둘 중 하나만 한 경우에는 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둘 다 안 한 경우는 비해당으로 처리함. 단, 둘 다 안 한 경우에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도 할 의향이 없는 경우도 2 가주 존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을 결심한 이후 수월하게 결혼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그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응답한 남편이 89.4%로 나타났다. 지역, 현재 소득에 따른 뚜렷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령이 30대(90.1%), 학력이 대졸(90.3%)에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1~2년: 87.4%, 3~5년: 88.5%, 6~7년: 91.9%), 유의하게 결혼이 잘 진행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예’로 응답한 비율이 87.9%로 나타나 남편이 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지역과 연령에서 뚜렷한 경향성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학력이 높을수록(고졸 이하: 82.7%, 대졸: 88.7%, 대학원 졸: 93.8%),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1~2년: 86.7%, 3~5년: 87.1%, 6~7년: 89.8%),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250만 원 미만: 87.5%, 250~350만 원 미만: 87.4%, 350만 원 이상: 91.6%), 결혼이 실제로 수월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결혼 결심 후 실제로 수월하게 결혼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예	아니요	계(%)	(N)	예	아니요	계(%)	(N)
전체	89.4	10.6	100.0	(1,779)	87.9	12.1	100.0	(1,779)
지역 (남편: $\chi^2=4.7$) (아내: $\chi^2=15.8^{***}$)								
서울·경기	90.8	9.2	100.0	(852)	90.7	9.3	100.0	(852)
광역시	87.0	13.0	100.0	(454)	83.3	16.7	100.0	(454)
그 외	89.2	10.8	100.0	(473)	87.2	12.8	100.0	(473)
연령 (남편: $\chi^2=7.1^*$) (아내: $\chi^2=1.1$)								
20대	82.4	17.6	100.0	(125)	86.6	13.4	100.0	(345)
30대	90.1	9.9	100.0	(1,286)	88.5	11.5	100.0	(1,214)
40대	89.6	10.4	100.0	(368)	86.6	13.4	100.0	(220)
학력 (남편: $\chi^2=9.5^{**}$) (아내: $\chi^2=9.8^{**}$)								
고졸 이하	83.5	16.5	100.0	(226)	82.7	17.3	100.0	(277)
대졸	90.3	9.7	100.0	(1,496)	88.7	11.3	100.0	(1,463)
대학원 졸	88.8	11.2	100.0	(56)	93.8	6.2	100.0	(40)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6.5^*$) (아내: $\chi^2=2.9$)								
1~2년	87.4	12.6	100.0	(378)	86.7	13.3	100.0	(378)
3~5년	88.5	11.5	100.0	(806)	87.1	12.9	100.0	(806)
6~7년	91.9	8.1	100.0	(595)	89.8	10.2	100.0	(595)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11.9^{**}$) (아내: $\chi^2=2.8$)								
250만 원 미만	89.5	10.5	100.0	(153)	87.5	12.5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86.3	13.7	100.0	(671)	87.4	12.6	100.0	(529)
350만 원 이상	91.6	8.4	100.0	(955)	91.6	8.4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가 37.7%로 가장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해서’가 14.2%,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12.0%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못해서’로 응답한 남편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에서 42.6%(광역시: 35.2%, 그 외: 33.2%), 연령에서는 30대에서 44.1%(20대: 27.8%, 40대 이상: 22.1%), 학력에서는 대학원 졸에서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의 응답에서 본인의 경제적인 이유를 추출하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업 상태여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나의 소득이 적어서’, ‘집 장만 이외의 결혼 비용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등이다. 이 항목들의 비율을 합하면 70.7%가 되어 결혼 진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내의 경우는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가 33.1%,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15.6%로 남편과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 장만 이외의 결혼 비용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가 10.9%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 항목의 합은 59.0%로 남편보다 11.7%포인트 낮은 경향이 있다.

〈표 7-7〉 결혼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주된 이유(남편)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0.2	14.2	37.7	0.3	10.3	1.5	12.0	8.3
지역								
서울·경기	-	15.5	42.6	-	9.3	1.9	8.0	6.6
광역시	-	12.4	35.2	1.0	9.0	1.4	20.2	7.9
그 외	0.9	14.2	33.2	-	13.2	0.9	8.7	11.5
연령								

196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0대	-	26.7	27.8	-	18.0	-	5.8	4.3
30대	0.3	9.7	44.1	0.5	7.7	2.2	12.8	10.1
40대 이상	-	21.8	22.1	-	14.4	-	12.9	4.6
학력								
고졸 이하	-	24.0	30.6	-	12.6	1.3	5.2	7.4
대졸	0.3	12.3	39.0	0.4	10.1	1.6	13.1	9.0
대학원 졸	-	-	50.0	-	-	-	27.0	-
혼인지속기간								
1~2년	0.9	8.8	36.0	-	7.6	-	19.8	9.8
3~5년	-	14.1	42.9	0.6	8.0	2.5	8.0	6.0
6~7년	-	19.6	29.3	-	17.3	1.0	11.9	11.3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	21.9	6.2	-	23.6	12.1	6.9	5.7
250~350만 원 미만	-	16.4	45.0	-	10.1	-	9.7	10.7
350만 원 이상	0.5	10.1	35.7	0.8	7.8	1.0	15.7	6.2

주: ①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업 상태여서, ②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해서, ③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④ 상대방의 소득이 적어서, ⑤ 나의 소득이 적어서, ⑥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⑦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⑧ 집 장만 이외의 결혼 비용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⑨ 학업 때문에, ⑩ 집안의 반대로 인하여, ⑪ 상대 집안의 부담한 요구 때문에, ⑫ 건강문제로 인하여, 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⑭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8〉 결혼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주된 이유(남편)(계속)

(단위: %, 명)

구분	⑨	⑩	⑪	⑫	⑬	⑭	계(%)	(N)
전체	0.8	12.2	0.3	2.2	-	-	100.0	(188)
지역								
서울·경기	1.2	10.4	-	4.7	-	-	100.0	(78)
광역시	-	11.2	1.0	0.7	-	-	100.0	(59)
그 외	1.0	16.4	-	-	-	-	100.0	(51)
연령								
20대	-	17.3	-	-	-	-	100.0	(22)
30대	1.1	7.8	0.5	3.2	-	-	100.0	(128)
40대 이상	-	24.3	-	-	-	-	100.0	(38)
학력								

구분	⑨	⑩	⑪	⑫	⑬	⑭	계(%)	(N)
고졸 이하	2.5	16.3	-	-	-	-	100.0	(37)
대졸	-	11.1	0.4	2.8	-	-	100.0	(144)
대학원 졸	7.8	15.2	-	-	-	-	100.0	(6)
혼인지속기간								
1~2년	2.0	12.8	1.2	0.9	-	-	100.0	(48)
3~5년	0.5	13.3	-	3.9	-	-	100.0	(93)
6~7년	-	9.6	-	-	-	-	100.0	(48)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5.8	17.7	-	-	-	-	100.0	(16)
250~350만 원 미만	-	7.0	0.6	0.5	-	-	100.0	(92)
350만 원 이상	0.6	17.2	-	4.6	-	-	100.0	(80)

주: ①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업 상태여서, ②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해서, ③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④ 상대방의 소득이 적어서, ⑤ 나의 소득이 적어서, ⑥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⑦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⑧ 집 장만 이외의 결혼 비용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⑨ 학업 때문에, ⑩ 집안의 반대로 인하여, ⑪ 상대 집안의 부담한 요구 때문에, ⑫ 건강문제로 인하여, 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⑭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9〉 결혼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주된 이유(아내)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2.2	7.1	33.1	8.5	5.7	1.8	15.6	10.9
지역								
서울·경기	1.5	7.2	29.5	8.7	5.6	3.3	21.4	7.8
광역시	4.7	3.6	41.8	12.0	2.1	-	15.0	12.0
그 외	-	11.2	26.8	3.8	10.4	2.2	8.9	13.5
연령								
20대	2.5	13.8	21.7	12.9	7.6	2.5	13.7	10.2
30대	1.0	4.9	38.2	6.5	6.3	1.1	17.8	9.7
40대	7.3	6.4	26.7	11.0	-	4.4	8.3	17.8
학력								
고졸 이하	2.9	7.5	33.0	10.6	5.8	2.7	5.0	11.1
대졸	2.0	7.0	33.6	8.0	5.8	1.6	17.5	11.0
대학원 졸	-	-	-	-	-	-	100.0	-
혼인지속기간								

198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2년	-	6.2	39.6	5.6	9.4	-	10.4	10.7
3~5년	4.5	7.7	30.0	9.9	4.6	1.1	20.0	7.9
6~7년	-	6.7	33.0	8.5	4.5	4.6	12.5	16.2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1.9	8.5	37.9	7.5	7.3	2.1	12.3	11.4
250~350만 원 미만	3.2	5.7	25.6	9.9	3.7	1.7	21.9	5.6
350만 원 이상	-	-	23.5	10.4	-	-	17.4	29.5

주: ①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업 상태여서, ②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해서, ③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④ 상대방의 소득이 적어서, ⑤ 나의 소득이 적어서, ⑥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⑦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⑧ 집 장만 이외의 결혼 비용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⑨ 학업 때문에, ⑩ 집안의 반대로 인하여, ⑪ 상대 집안의 부담한 요구 때문에, ⑫ 건강문제로 인하여, 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⑭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10〉 결혼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주된 이유(아내)(계속)

(단위: %, 명)

구분	⑨	⑩	⑪	⑫	⑬	⑭	계(%)	(N)
전체	1.0	12.5	0.2	1.3	-	0.2	100.0	(215)
지역								
서울·경기	1.1	13.9	-	-	-	-	100.0	(79)
광역시	1.6	5.9	0.6	0.6	-	-	100.0	(76)
그 외	-	18.7	-	3.8	-	0.8	100.0	(60)
연령								
20대	2.9	11.2	-	1.0	-	-	100.0	(46)
30대	0.6	11.7	0.3	1.6	-	0.3	100.0	(140)
40대	-	18.1	-	-	-	-	100.0	(29)
학력								
고졸 이하	-	18.5	-	2.9	-	-	100.0	(48)
대졸	1.3	10.9	0.3	0.8	-	0.3	100.0	(165)
대학원 졸	-	-	-	-	-	-	100.0	(2)
혼인지속기간								
1~2년	1.8	15.6	-	0.9	-	-	100.0	(50)
3~5년	-	12.1	-	2.2	-	-	100.0	(104)
6~7년	2.0	10.5	0.7	-	-	0.8	100.0	(61)
본인현재소득								

구분	⑨	⑩	⑪	⑫	⑬	⑭	계(%)	(N)
250만 원 미만	1.3	8.3	0.3	0.7	-	0.4	100.0	(133)
250~350만 원 미만	0.7	19.1	-	2.7	-	-	100.0	(67)
350만 원 이상	-	19.3	-	-	-	-	100.0	(15)

주: ①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업 상태여서, ②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해서, ③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④ 상대방의 소득이 적어서, ⑤ 나의 소득이 적어서, ⑥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⑦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⑧ 집 장만 이외의 결혼 비용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⑨ 학업 때문에, ⑩ 집안의 반대로 인하여, ⑪ 상대 집안의 부담한 요구 때문에, ⑫ 건강문제로 인하여, 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⑭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2절 결혼 전후의 가치관 변화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생활수준이 결혼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⁴³⁾이 44.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51.0%)에서 유의하게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수준이 좋아졌다는 비율도 유의하게 높아졌다(20대: 40.5%, 30대: 42.5%, 40대 이상: 52.4%), 학력의 경우는 고졸 이하(44.9%), 대졸(43.6%)보다 대학원 졸(64.0%)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도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1~2년: 36.6%, 3~5년: 44.8%, 6~7년: 48.9%), 외벌이(42.5%)보다는 맞벌이(45.9%)에서 생활수준이 높아진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없는 경우(38.8%)보다는 자녀가 있는 경우(1명: 47.7%, 2명 이상: 46.5%)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0만

43) '조금 좋아짐'과 '매우 좋아짐'을 합한 수치임.

원 미만: 40.7%, 250~350만 원 미만: 44.6%, 350만 원 이상: 44.9%).

아내의 경우는 결혼 이전보다 생활수준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41.3%로 나타나 남편보다 3.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편과 유사하게 광역시(47.7%)에서 유의하게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좋아진 비율도 높아졌다(20대: 40.1%, 30대: 40.6%, 40대: 47.4%). 학력의 경우 남편과 유사하게 대학원 졸에서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높았다(1~2년: 35.5%, 3~5년: 42.2%, 6~7년: 43.8%). 그리고 남편과 유사하게 맞벌이(42.4%)가 외벌이(40.2%)보다 좋아진 비율이 높고, 자녀가 없는 경우(34.9%)보다 있는 경우(1명: 44.3%, 2명 이상: 45.3%)가 높은 경향이 있다. 소득의 경우도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의 생활수준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0만 원 미만: 39.0%, 250~350만 원 미만: 44.9%, 350만 원 이상: 45.1%).

〈표 7-11〉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남편): 생활수준

(단위: %, 명)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전체	0.7	8.7	46.2	39.6	4.9	3.4	100.0	(1,779)
지역 ($\chi^2=27.5^{**}$)								
서울·경기	0.5	8.8	50.6	36.4	3.6	3.3	100.0	(852)
광역시	0.5	6.5	42.0	46.1	4.9	3.5	100.0	(454)
그 외	1.1	10.7	42.2	39.0	7.1	3.4	100.0	(473)
연령 ($\chi^2=28.2^{***}$)								
20대	2.7	15.0	41.7	33.8	6.7	3.3	100.0	(125)
30대	0.6	9.0	47.9	38.0	4.5	3.4	100.0	(1,286)
40대 이상	0.3	5.6	41.7	46.9	5.5	3.5	100.0	(368)
학력								
고졸 이하	3.4	12.8	38.9	38.6	6.3	3.3	100.0	(226)
대졸	0.2	8.0	48.1	39.4	4.2	3.4	100.0	(1,496)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대학원 졸	1.5	10.6	23.8	47.6	16.4	3.7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22.3^{**}$)								
1~2년	0.6	9.5	53.3	32.1	4.5	3.3	100.0	(378)
3~5년	1.1	9.8	44.2	40.0	4.8	3.4	100.0	(806)
6~7년	0.2	6.7	44.2	43.7	5.2	3.5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30.7^{***}$)								
맞벌이	1.2	5.6	47.3	41.8	4.1	3.4	100.0	(613)
외벌이	0.5	9.6	47.4	38.2	4.3	3.4	100.0	(932)
자녀수 ($\chi^2=19.4^*$)								
0명	0.7	8.8	51.6	33.0	5.8	3.3	100.0	(601)
1명	0.9	8.5	42.9	43.4	4.3	3.4	100.0	(764)
2명 이상	0.2	8.9	44.3	42.0	4.5	3.4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52.3^{***}$)								
250만 원 미만	1.3	18.1	39.8	29.0	11.7	3.3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1.0	10.1	44.3	41.1	3.5	3.4	100.0	(671)
350만 원 이상	0.4	6.2	48.5	40.2	4.7	3.4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12〉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아내): 생활수준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전체	0.9	10.7	47.1	38.0	3.3	3.3	100.0	(1,779)
지역 ($\chi^2=57.8^{***}$)								
서울·경기	0.7	12.0	51.7	33.0	2.6	3.3	100.0	(852)
광역시	1.1	6.2	44.9	46.6	1.1	3.4	100.0	(454)
그 외	0.9	12.7	40.9	39.0	6.5	3.4	100.0	(473)
연령 ($\chi^2=15.3$)								
20대	1.3	13.1	45.5	37.1	3.0	3.3	100.0	(345)
30대	0.9	10.9	47.6	37.7	2.9	3.3	100.0	(1,214)
40대	-	5.8	46.8	41.5	5.9	3.5	100.0	(220)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학력								
고졸 이하	2.1	10.9	43.7	39.2	4.1	3.3	100.0	(277)
대졸	0.6	10.2	48.3	37.8	3.0	3.3	100.0	(1,463)
대학원 졸	2.4	25.6	25.4	38.9	7.7	3.2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4.0$)							100.0	
1~2년	2.0	10.8	51.7	32.2	3.3	3.2	100.0	(378)
3~5년	0.6	11.2	45.9	39.3	2.9	3.3	100.0	(806)
6~7년	0.5	9.9	45.8	40.0	3.8	3.4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7.0$)								
맞벌이	0.6	11.8	45.2	39.5	2.9	3.3	100.0	(613)
외벌이	0.9	9.6	49.2	36.7	3.5	3.3	100.0	(932)
자녀수 ($\chi^2=23.4^{**}$)								
0명	0.9	13.3	50.9	31.9	3.0	3.2	100.0	(601)
1명	0.8	9.9	45.0	41.7	2.6	3.4	100.0	(764)
2명 이상	0.9	8.4	45.4	40.2	5.1	3.4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25.1^{**}$)								
250만 원 미만	1.5	10.8	48.8	35.3	3.7	3.3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	9.6	45.5	42.9	2.0	3.4	100.0	(529)
350만 원 이상	-	13.2	41.7	40.2	4.9	3.4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중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⁴⁴⁾은 24.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34.8%), 연령에서는 20대(28.0%), 혼인 연차가 3~5년(25.7%), 외벌이(25.8%), 자녀수가 1명(26.2%), 소득이 250만 원 미만(26.8%)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⁴⁵⁾ 그러나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44) '조금 좋아짐'과 '매우 좋아짐'을 합한 수치임.

로 평가한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졸 이하: 22.0%, 대졸: 24.6%, 대학원 졸: 39.0%).

아내의 경우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23.2%로 남편의 24.7%보다 1.5%포인트 낮고, 모든 속성 변수(지역, 연령, 학력, 혼인지속기간, 맞벌이 여부, 자녀수, 본인현재소득)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광역시(27.6%), 연령에서는 40대(27.9%),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25.3%), 혼인 연차에서는 1~2년 차(26.2%), 외벌이(24.0%)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수가 적을수록(0명: 26.4%, 1명: 22.9%, 2명 이상: 18.9%), 소득이 적을수록(250만 원 미만: 23.6%, 250~350만 원 미만: 23.5%, 350만 원 이상: 19.1%)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7-13〉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남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전체	3.9	36.1	35.2	20.2	4.5	2.9	100.0	(1,779)
지역 ($\chi^2=83.3^{***}$)								
서울·경기	2.6	42.3	34.2	18.6	2.4	2.8	100.0	(852)
광역시	2.1	29.3	33.8	26.4	8.4	3.1	100.0	(454)
그 외	8.1	31.5	38.4	17.1	4.8	2.8	100.0	(473)
연령 ($\chi^2=20.7^{**}$)								
20대	9.1	25.5	37.4	21.3	6.7	2.9	100.0	(125)
30대	3.3	35.8	36.4	20.3	4.2	2.9	100.0	(1,286)
40대 이상	4.4	40.8	30.3	19.3	5.2	2.8	100.0	(368)
학력 ($\chi^2=27.7^{**}$)								
고졸 이하	8.3	28.1	41.6	18.6	3.4	2.8	100.0	(226)
대졸	3.3	37.5	34.5	20.0	4.6	2.9	100.0	(1,496)
대학원 졸	2.3	30.5	28.2	32.0	7.0	3.1	100.0	(56)

45) 속성 변수 중 맞벌이 여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남.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혼인지속기간 ($\chi^2=20.0^*$)								
1~2년	4.5	29.3	43.3	18.2	4.6	2.9	100.0	(378)
3~5년	3.7	36.0	34.6	21.1	4.6	2.9	100.0	(806)
6~7년	3.8	40.6	30.9	20.2	4.4	2.8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4.4$)								
맞벌이	2.8	36.5	38.3	17.1	5.3	2.9	100.0	(613)
외벌이	4.2	37.0	32.9	21.7	4.1	2.8	100.0	(932)
자녀수 ($\chi^2=29.3^{***}$)								
0명	2.8	30.7	42.0	19.0	5.4	2.9	100.0	(601)
1명	4.5	39.2	30.1	22.5	3.7	2.8	100.0	(764)
2명 이상	4.5	38.3	34.7	17.7	4.8	2.8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6.9^*$)								
250만 원 미만	7.7	30.5	35.0	19.5	7.3	2.9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4.2	37.1	36.8	18.7	3.2	2.8	100.0	(671)
350만 원 이상	3.2	36.3	34.1	21.3	5.0	2.9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14〉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아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전체	6.3	39.1	31.4	20.1	3.1	2.8	100.0	(1,779)
지역 ($\chi^2=46.8^{***}$)								
서울·경기	4.1	44.6	30.2	19.4	1.7	2.7	100.0	(852)
광역시	6.4	35.3	30.7	22.7	4.9	2.8	100.0	(454)
그 외	10.1	32.8	34.4	18.7	4.0	2.7	100.0	(473)
연령 ($\chi^2=22.3^{***}$)								
20대	3.4	40.1	29.5	23.3	3.7	2.8	100.0	(345)
30대	7.6	38.4	32.7	18.6	2.6	2.7	100.0	(1,214)
40대	3.3	41.3	27.4	23.0	4.9	2.9	100.0	(220)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학력 ($\chi^2=16.5^{**}$)								
고졸 이하	6.3	38.1	30.4	23.5	1.8	2.8	100.0	(277)
대졸	6.0	39.4	31.9	19.5	3.2	2.8	100.0	(1,463)
대학원 졸	18.7	36.5	22.3	16.0	6.4	2.6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22.0^{***}$)								
1~2년	3.3	35.2	35.2	20.7	5.5	2.9	100.0	(378)
3~5년	6.8	39.1	31.8	19.6	2.6	2.7	100.0	(806)
6~7년	7.4	41.6	28.5	20.2	2.2	2.7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8.9^*$)								
맞벌이	4.2	39.0	34.0	18.4	4.5	2.8	100.0	(613)
외벌이	7.1	38.5	30.5	21.4	2.6	2.7	100.0	(932)
자녀수 ($\chi^2=66.5^{***}$)								
0명	1.5	33.6	38.6	22.5	3.9	2.9	100.0	(601)
1명	7.7	42.4	27.0	19.7	3.2	2.7	100.0	(764)
2명 이상	10.7	41.1	29.3	17.1	1.8	2.6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34.8^{***}$)								
250만 원 미만	7.8	40.1	28.5	21.4	2.2	2.7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2.8	38.8	34.8	18.6	4.9	2.8	100.0	(529)
350만 원 이상	7.6	34.2	39.1	16.4	2.7	2.7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하고 난 이후 취직 및 승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⁴⁶⁾이 남편의 경우 36.4%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광역시(41.2%), 연령에서는 30대(36.7%)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고졸 이하(31.0%), 대졸(36.8%), 대학원 졸(50.0%)로 갈수록 높아지고, 혼인 연차 또한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맞벌이(35.3%)보다는 외벌이(37.4%)에서 비율이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46) '조금 좋아짐'과 '매우 좋아짐'을 합한 수치임.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이후 취직 및 승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에는 22.7%로 남편의 36.4%와 비교하면 13.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광역시(24.6%), 연령은 40대(26.3%), 맞벌이(29.1%),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27.8%)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남편): 취직 및 승진 기회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명
전체	0.5	5.5	57.5	31.2	5.2	3.4	100.0	(1,779)
지역 ($\chi^2=16.4^*$)								
서울·경기	0.9	6.8	56.9	30.3	5.1	3.3	100.0	(852)
광역시	-	4.8	54.0	35.4	5.8	3.4	100.0	(454)
그 외	0.4	3.9	61.9	28.8	5.0	3.3	100.0	(473)
연령 ($\chi^2=7.1$)								
20대	0.8	9.6	56.2	26.8	6.6	3.3	100.0	(125)
30대	0.4	5.3	57.5	31.3	5.4	3.4	100.0	(1,286)
40대	0.7	4.8	58.1	32.3	4.0	3.3	100.0	(368)
학력								
고졸 이하	2.1	10.2	56.6	28.4	2.6	3.2	100.0	(226)
대졸	0.3	4.7	58.3	31.6	5.2	3.4	100.0	(1,496)
대학원 졸	-	9.1	40.8	32.4	17.6	3.6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6.8^*$)								
1~2년	0.5	6.0	61.8	28.3	3.4	3.3	100.0	(378)
3~5년	0.7	6.3	58.4	28.7	5.9	3.3	100.0	(806)
6~7년	0.3	4.3	53.6	36.4	5.5	3.4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5.8$)								
맞벌이	0.7	5.0	59.1	30.9	4.4	3.3	100.0	(613)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명
외별이	0.6	6.1	55.9	31.9	5.5	3.4	100.0	(932)
기타	-	4.9	59.7	29.2	6.3	3.4	100.0	(234)
자녀수 ($\chi^2=14.3$)								
0명	0.7	6.9	60.5	26.6	5.3	3.3	100.0	(601)
1명	0.5	4.3	57.5	33.1	4.7	3.4	100.0	(764)
2명 이상	0.4	5.9	53.2	34.4	6.1	3.4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40.7^{***}$)								
250만 원 미만	2.1	14.5	56.5	20.5	6.4	3.2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0.4	5.9	56.6	32.7	4.4	3.4	100.0	(671)
350만 원 이상	0.4	3.9	58.3	31.8	5.6	3.4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16〉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아내): 취직 및 승진 기회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전체	4.9	17.4	55.0	19.8	2.9	3.0	100.0	(1,779)
지역 ($\chi^2=22.6^{**}$)								
서울·경기	3.1	19.2	54.3	19.6	3.9	3.0	100.0	(852)
광역시	6.1	15.1	54.3	22.3	2.3	3.0	100.0	(454)
그 외	7.1	16.5	56.8	17.7	1.9	2.9	100.0	(473)
연령 ($\chi^2=27.3^{**}$)								
20대	1.8	11.8	60.8	23.1	2.5	3.1	100.0	(345)
30대	6.1	19.1	53.6	18.2	3.0	2.9	100.0	(1,214)
40대	3.6	16.5	53.6	23.2	3.1	3.1	100.0	(220)
학력 ($\chi^2=36.8^{***}$)								
고졸 이하	4.9	18.3	57.6	17.4	1.9	2.9	100.0	(277)
대졸	4.9	16.8	55.4	20.1	2.8	3.0	100.0	(1,463)
대학원 졸	5.6	31.8	22.9	23.9	15.8	3.1	100.0	(40)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혼인지속기간 ($\chi^2=46.7^{***}$)								
1~2년	1.2	11.1	62.4	22.1	3.3	3.2	100.0	(378)
3~5년	4.8	16.7	56.1	19.4	3.0	3.0	100.0	(806)
6~7년	7.5	22.3	48.7	18.9	2.7	2.9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72.6^{***}$)								
맞벌이	0.9	11.1	58.9	25.7	3.4	3.2	100.0	(613)
외벌이	7.1	20.8	52.2	17.0	2.8	2.9	100.0	(932)
자녀수 ($\chi^2=82.0^{***}$)								
0명	1.0	10.6	63.2	22.0	3.2	3.2	100.0	(601)
1명	5.3	20.0	52.6	19.3	2.8	2.9	100.0	(764)
2명 이상	10.0	22.4	47.3	17.3	2.9	2.8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68.0^{***}$)								
250만 원 미만	7.1	21.4	51.8	16.9	2.9	2.9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1.2	11.1	59.9	24.4	3.4	3.2	100.0	(529)
350만 원 이상	3.4	12.3	59.5	23.1	1.8	3.1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 이후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판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의견⁴⁷⁾은 남편이 51.3%로 과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54.0%), 혼인 연차가 3~5년(52.6%) 외벌이(53.9%)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연령·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아내는 42.9%로 남편의 51.3%와 비교하면 8.4%포인트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48.4%), 20대(45.1%), 외벌이(44.4%), 자녀수가 1명(44.4%),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

47) '조금 좋아짐'과 '매우 좋아짐'을 합한 수치임.

(45.6%)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단, 학력이 낮을수록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판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표 7-17〉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남편):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판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전체	0.3	3.0	45.4	43.8	7.5	3.6	100.0	(1,779)
지역 ($\chi^2=8.7$)								
서울·경기	0.5	3.0	47.4	42.3	6.7	3.5	100.0	(852)
광역시	-	2.7	43.3	45.2	8.8	3.6	100.0	(454)
그 외	0.1	3.1	43.8	45.3	7.7	3.6	100.0	(473)
연령								
20대	1.9	4.0	45.8	40.3	8.1	3.5	100.0	(125)
30대	0.2	3.2	45.4	43.9	7.3	3.6	100.0	(1,286)
40대 이상	0.1	1.8	45.3	44.7	8.1	3.6	100.0	(368)
학력								
고졸 이하	0.7	2.8	47.7	41.8	7.0	3.5	100.0	(226)
대졸	0.2	2.9	45.3	44.0	7.6	3.6	100.0	(1,496)
대학원 졸	-	5.1	40.0	47.6	7.3	3.6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2.1$)								
1~2년	0.5	4.1	48.4	39.0	8.0	3.5	100.0	(378)
3~5년	0.3	3.3	43.7	45.6	7.0	3.6	100.0	(806)
6~7년	0.1	1.7	45.9	44.4	7.9	3.6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6.4^*$)								
맞벌이	0.2	3.1	49.1	41.4	6.1	3.5	100.0	(613)
외벌이	0.4	2.4	43.3	46.4	7.5	3.6	100.0	(932)
자녀수 ($\chi^2=17.4^*$)								
0명	0.6	4.5	46.9	39.8	8.2	3.5	100.0	(601)
1명	0.1	2.1	45.7	45.7	6.4	3.6	100.0	(764)
2명 이상	0.1	2.3	42.9	46.3	8.5	3.6	100.0	(41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1.2	2.4	55.6	31.1	9.6	3.5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0.2	4.1	45.8	44.9	5.0	3.5	100.0	(671)
350만 원 이상	0.2	2.2	43.5	45.2	8.9	3.6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18〉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아내):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판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전체	0.3	4.5	52.3	38.5	4.4	3.4	100.0	(1,779)
지역 ($\chi^2=19.5^*$)								
서울·경기	0.5	5.3	54.1	35.4	4.7	3.4	100.0	(852)
광역시	-	2.4	49.1	45.2	3.2	3.5	100.0	(454)
그 외	0.3	4.9	52.3	37.6	4.8	3.4	100.0	(473)
연령 ($\chi^2=14.5$)								
20대	0.1	7.0	47.8	40.3	4.8	3.4	100.0	(345)
30대	0.5	4.0	53.4	38.3	3.9	3.4	100.0	(1,214)
40대	-	2.7	53.8	37.1	6.3	3.5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0.3	4.7	49.0	44.1	1.9	3.4	100.0	(277)
대졸	0.4	3.8	53.5	37.7	4.6	3.4	100.0	(1,463)
대학원 졸	-	26.5	33.8	28.9	10.8	3.2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20.0^*$)								
1~2년	0.3	3.7	55.9	34.1	5.9	3.4	100.0	(378)
3~5년	0.5	6.0	48.9	40.8	3.8	3.4	100.0	(806)
6~7년	0.1	2.9	54.7	38.2	4.2	3.4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3.9$)								
맞벌이	0.1	2.9	54.7	37.5	4.8	3.4	100.0	(613)
외벌이	0.5	4.9	50.1	40.4	4.0	3.4	100.0	(932)
자녀수 ($\chi^2=11.9$)								
0명	0.6	4.0	54.2	36.4	4.8	3.4	100.0	(601)
1명	0.1	5.8	49.7	40.5	3.9	3.4	100.0	(764)
2명 이상	0.4	2.6	54.6	37.8	4.6	3.4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6.0^*$)								
250만 원 미만	0.5	5.8	50.6	39.1	4.0	3.4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0.2	2.4	56.0	36.7	4.7	3.4	100.0	(529)
350만 원 이상	-	2.3	52.0	40.4	5.2	3.5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행복감 등)을 느끼게 되었다는 의견⁴⁸⁾은 남편의 경우 71.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혼인 연차가 3~5년 차(73.5%), 맞벌이(71.4%), 자녀가 없는 경우(71.7%)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경우는 68.2%로 남편에 비하여 3.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는 다르게 지역, 연령, 학력에 따른 뚜렷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재 소득이 많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남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역이 광역시(71.9%), 연령이 40대(70.4%), 학력이 대졸(68.6%), 혼인 연차가 3~5년(70.6%), 맞벌이(69.5%), 자녀가 없는 경우(71.9%)에 마음의 안정감을 결혼 이전보다 더 느끼게 되었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7-19〉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남편): 마음의 안정(행복감 등)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전체	0.3	2.9	25.7	51.3	19.9	3.9	100.0	(1,779)
지역 ($\chi^2=14.8$)								
서울·경기	0.5	3.5	27.1	49.1	19.9	3.8	100.0	(852)
광역시	-	1.3	26.1	53.0	19.7	3.9	100.0	(454)
그 외	0.1	3.6	22.7	53.6	20.0	3.9	100.0	(473)
연령								
20대	0.7	5.4	28.9	44.2	20.8	3.8	100.0	(125)
30대	0.3	3.0	25.4	51.6	19.8	3.9	100.0	(1,286)
40대 이상	0.1	1.8	25.6	52.6	20.0	3.9	100.0	(368)
학력								
고졸 이하	0.8	3.6	25.6	52.3	17.6	3.8	100.0	(226)

48) '조금 좋아짐'과 '매우 좋아짐'을 합한 수치임.

212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대졸	0.2	2.7	26.0	51.3	19.8	3.9	100.0	(1,496)
대학원 졸	-	6.6	16.6	46.7	30.1	4.0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0.2$)								
1~2년	0.2	3.4	26.8	50.3	19.3	3.9	100.0	(378)
3~5년	0.5	3.0	23.0	52.0	21.5	3.9	100.0	(806)
6~7년	0.1	2.5	28.5	50.9	18.1	3.8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4.7$)								
맞벌이	0.6	1.9	26.0	51.9	19.5	3.9	100.0	(613)
외벌이	0.1	3.3	25.6	52.3	18.7	3.9	100.0	(932)
자녀수 ($\chi^2=12.2$)								
0명	0.6	3.7	24.1	48.8	22.9	3.9	100.0	(601)
1명	0.2	2.9	26.3	52.8	17.8	3.9	100.0	(764)
2명 이상	0.1	1.9	26.8	51.9	19.4	3.9	100.0	(41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0.6	10.1	20.6	47.2	21.5	3.8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0.6	3.2	26.8	54.1	15.3	3.8	100.0	(671)
350만 원 이상	0.0	1.6	25.7	49.9	22.8	3.9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20>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아내): 마음의 안정(행복감 등)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명
전체	0.2	4.7	26.9	53.1	15.1	3.8	100.0	(1,779)
지역 ($\chi^2=22.0^{**}$)								
서울·경기	0.4	5.4	28.7	48.2	17.3	3.8	100.0	(852)
광역시	-	3.4	24.7	60.4	11.5	3.8	100.0	(454)
그 외	0.2	4.5	25.6	55.0	14.7	3.8	100.0	(473)
연령 ($\chi^2=5.0$)								
20대	-	5.1	25.1	53.1	16.7	3.8	100.0	(345)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명
30대	0.4	4.4	27.9	52.7	14.7	3.8	100.0	(1,214)
40대	-	5.5	24.0	55.4	15.0	3.8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0.1	3.4	29.7	57.1	9.7	3.7	100.0	(277)
대졸	0.3	4.2	26.8	53.0	15.6	3.8	100.0	(1,463)
대학원 졸	-	30.5	8.0	28.0	33.5	3.6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2.0$)								
1~2년	-	3.2	28.6	51.2	17.1	3.8	100.0	(378)
3~5년	0.3	5.2	23.9	54.9	15.7	3.8	100.0	(806)
6~7년	0.3	4.9	29.8	51.9	13.0	3.7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5.2$)								
맞벌이	0.3	3.5	26.7	54.4	15.1	3.8	100.0	(613)
외벌이	0.2	5.1	27.6	52.3	14.8	3.8	100.0	(932)
기타	0.5	5.9	24.3	52.7	16.5	3.8	100.0	(234)
자녀수 ($\chi^2=14.9$)								
0명	0.4	5.1	22.7	54.1	17.8	3.8	100.0	(601)
1명	0.1	3.9	30.1	52.6	13.3	3.8	100.0	(764)
2명 이상	0.4	5.5	27.0	52.6	14.5	3.8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5.8^*$)								
250만 원 미만	0.4	5.3	27.1	53.4	13.8	3.8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	4.3	26.9	53.8	15.0	3.8	100.0	(529)
350만 원 이상	-	2.2	25.3	49.2	23.3	3.9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의견⁴⁹⁾은 남편이 50.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56.5%), 혼인지속기간이 6~7년(51.6%), 맞벌이(51.1%), 자녀수가 1명(52.1%)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49) '조금 좋아짐'과 '매우 좋아짐'을 합한 수치임.

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관계가 좋아졌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를 보면, 좋아졌다는 비율이 44.8%로 남편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52.2%), 연령은 40대(45.6%), 혼인 연차가 3~5년(45.8%), 맞벌이(45.6%), 자녀수가 1명(45.4%)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적을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남편): 주변 사람과의 관계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명
전체	0.4	4.6	44.1	44.4	6.5	3.5	100.0	(1,779)
지역 ($\chi^2=21.0^{**}$)								
서울·경기	0.6	5.1	48.0	39.7	6.5	3.5	100.0	(852)
광역시	-	4.3	39.3	51.3	5.2	3.6	100.0	(454)
그 외	0.4	4.1	41.6	46.4	7.6	3.6	100.0	(473)
연령 ($\chi^2=27.2^{**}$)								
20대	2.7	10.6	39.8	39.5	7.5	3.4	100.0	(125)
30대	0.3	4.3	44.9	44.5	6.1	3.5	100.0	(1,286)
40대	0.1	3.9	42.6	46.0	7.4	3.6	100.0	(368)
학력								
고졸 이하	0.2	5.7	44.8	43.7	5.6	3.5	100.0	(226)
대졸	0.5	4.2	44.1	44.6	6.7	3.5	100.0	(1,496)
대학원 졸	-	12.5	39.9	43.2	4.4	3.4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1.0$)								
1~2년	0.7	6.6	44.2	42.6	5.9	3.5	100.0	(378)
3~5년	0.5	4.8	43.2	44.7	6.8	3.5	100.0	(806)
6~7년	0.1	3.1	45.2	45.2	6.4	3.6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24.9^{**}$)								
맞벌이	0.3	4.0	44.5	45.8	5.3	3.5	100.0	(613)
외벌이	0.4	4.4	45.1	44.5	5.6	3.5	100.0	(932)
기타	0.7	7.4	38.8	40.4	12.7	3.6	100.0	(234)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명
재년수 ($\chi^2=14.5$)								
0명	0.9	6.0	43.6	41.8	7.7	3.5	100.0	(601)
1명	0.2	4.5	43.2	46.7	5.4	3.5	100.0	(764)
2명 이상	0.1	3.0	46.3	44.1	6.5	3.5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59.2^{***}$)								
250만 원 미만	1.8	11.1	44.2	32.9	10.0	3.4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0.4	7.2	43.6	43.3	5.6	3.5	100.0	(671)
350만 원 이상	0.2	1.8	44.4	47.1	6.5	3.6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22〉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아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전체	0.3	6.3	48.7	39.9	4.9	3.4	100.0	(1,779)
지역 ($\chi^2=25.6^{**}$)								
서울·경기	0.4	6.2	53.2	35.2	5.0	3.4	100.0	(852)
광역시	-	5.1	42.7	48.3	3.9	3.5	100.0	(454)
그 외	0.3	7.5	46.2	40.4	5.7	3.4	100.0	(473)
연령 ($\chi^2=4.7$)								
20대	-	7.2	48.2	38.5	6.0	3.4	100.0	(345)
30대	0.4	6.0	48.8	40.2	4.5	3.4	100.0	(1,214)
40대	-	6.0	48.4	40.3	5.3	3.5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0.1	8.3	43.6	45.7	2.2	3.4	100.0	(277)
대졸	0.3	4.9	50.3	39.5	5.0	3.4	100.0	(1,463)
대학원 졸	-	41.8	23.7	12.8	21.6	3.1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2.7$)								
1~2년	-	4.7	49.9	38.3	7.1	3.5	100.0	(378)
3~5년	0.5	7.2	46.5	41.6	4.2	3.4	100.0	(806)
6~7년	0.1	6.0	50.8	38.6	4.4	3.4	100.0	(595)

구분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	(N)
맞벌이 여부 ($\chi^2=9.4$)								
맞벌이	0.3	4.5	49.7	40.9	4.7	3.5	100.0	(613)
외벌이	0.2	6.8	48.6	39.8	4.5	3.4	100.0	(932)
자녀수 ($\chi^2=12.7$)								
0명	0.4	5.6	49.8	37.3	6.9	3.5	100.0	(601)
1명	0.1	6.6	47.9	41.6	3.8	3.4	100.0	(764)
2명 이상	0.5	6.5	48.5	40.5	4.0	3.4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2.0$)								
250만 원 미만	0.4	7.3	47.9	40.1	4.3	3.4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	4.8	50.8	39.0	5.4	3.5	100.0	(529)
350만 원 이상	-	4.3	46.8	41.6	7.3	3.5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배우자와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아내와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비율⁵⁰⁾이 20.3%로 나타났는데, 그중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3.0%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24.0%)에서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비율이 유의하게 많은 경향이 있고, 특히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4.4%로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에서는 20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7.2%로 다른 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 졸에서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는데(고졸 이하: 24.6%, 대졸: 19.3%, 대학원 졸: 30.8%), 무엇보다 심각하게 생각해 본 비율이 1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의 특

50)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를 합한 수치임.

징은 고졸 이하와 대학원 졸에서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고졸 이하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경험은 4.0%로 대학원 졸의 14.2%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현재 소득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맞벌이(18.5%)보다 외벌이(22.3%)에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내가 남편과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25.2%로 남편의 20.3%보다 4.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서울·경기 지역의 비율(27.7%)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편에서는 연령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내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나 이혼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대: 19.4%, 30대: 25.8%, 40대: 30.9%).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남편과 유사하게 대학원 졸에서 남편과 별거나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17.0%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혼인지속기간별로 살펴보면, 남편과 유사하게 연차가 높을수록 비율도 높아지고, 남편의 결과에서는 현재 소득에 따른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아내에서는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250만 원 미만: 29.6%, 250~350만 원 미만: 20.0%, 350만 원 이상: 13.5%). 그리고 맞벌이(23.1%)보다는 외벌이(27.5%)에서 비율이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남편과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 남편

(단위: %, 명)

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계(%)	(N)
전체	3.0	17.3	79.7	100.0	(1,779)
지역 ($\chi^2=18.3^{**}$)					
서울·경기	4.4	19.6	76.1	100.0	(852)
광역시	1.8	16.8	81.4	100.0	(454)
그 외	1.8	13.7	84.5	100.0	(473)
연령 ($\chi^2=14.5^{**}$)					
20대	7.2	18.8	74.0	100.0	(125)
30대	2.7	16.0	81.3	100.0	(1,286)
40대 이상	2.8	21.4	75.9	100.0	(368)
학력 ($\chi^2=28.8^{***}$)					
고졸 이하	4.0	20.6	75.4	100.0	(226)
대졸	2.5	16.8	80.7	100.0	(1,496)
대학원 졸	14.2	16.6	69.3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9$)					
1~2년	2.6	15.2	82.2	100.0	(378)
3~5년	3.0	17.7	79.3	100.0	(806)
6~7년	3.3	18.0	78.6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4.9$)					
맞벌이	2.4	16.1	81.4	100.0	(613)
외벌이	3.6	18.7	77.8	100.0	(932)
자녀수 ($\chi^2=6.1$)					
0명	2.8	14.8	82.4	100.0	(601)
1명	2.7	17.8	79.4	100.0	(764)
2명 이상	3.9	19.9	76.2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8.4$)					
250만 원 미만	4.7	23.2	72.0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2.3	16.0	81.7	100.0	(671)
350만 원 이상	3.3	17.2	79.5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24〉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 아내

(단위: %, 명)

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계(%)	(N)
전체	4.7	20.5	74.9	100.0	(1,779)
지역 ($\chi^2=25.3^{***}$)					
서울·경기	7.1	20.6	72.3	100.0	(852)
광역시	2.1	22.9	75.0	100.0	(454)
그 외	2.9	17.8	79.3	100.0	(473)
연령 ($\chi^2=13.5^{**}$)					
20대	5.3	14.1	80.6	100.0	(345)
30대	4.6	21.2	74.3	100.0	(1,214)
40대	4.4	26.5	69.1	100.0	(220)
학력 ($\chi^2=16.4^{**}$)					
고졸 이하	4.2	21.2	74.6	100.0	(277)
대졸	4.4	20.2	75.3	100.0	(1,463)
대학원 졸	17.0	24.2	58.8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1.6^*$)					
1~2년	4.2	15.4	80.4	100.0	(378)
3~5년	4.1	22.8	73.1	100.0	(806)
6~7년	5.8	20.4	73.7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8.5^{**}$)					
맞벌이	2.5	20.6	76.8	100.0	(613)
외벌이	6.7	20.8	72.5	100.0	(932)
기타	2.5	18.6	78.9	100.0	(234)
자녀수 ($\chi^2=16.7^{**}$)					
0명	3.9	16.8	79.3	100.0	(601)
1명	4.9	20.1	75.0	100.0	(764)
2명 이상	5.5	26.4	68.1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41.7^{***}$)					
250만 원 미만	6.6	23.0	70.4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1.9	18.1	80.0	100.0	(529)
350만 원 이상	1.3	12.2	86.5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 만족도는 남편이 10점 척도에서 7.7점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시가 7.9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경기 지역이 7.5점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7.7점, 학력에서는 대학원 졸업이 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지속기간별로는 1~2년이 7.8점으로 높은 편이고, 맞벌이(7.8점)가 외벌이(7.6점)보다 높고, 자녀가 없을 때의 결혼 만족도가 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의 결혼 만족도는 7.5점으로 남편의 7.7점보다 0.2점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7.3점으로 가장 낮고,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이 7.7점으로 동일하다. 연령은 20~30대가 7.5점, 40대가 7.4점으로 나타났고,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가 7.3점, 대졸과 대학원 졸업이 각각 7.6점, 7.3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만족도도 낮은 경향이 있고, 맞벌이(7.6점)가 외벌이(7.5점)보다 높고, 자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반면,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25〉 결혼 만족도: 남편

구분	평균(0~10점)	(단위: 점, 명)
		(N)
전체	7.7	(1,779)
지역		
서울·경기	7.5	(852)
광역시	7.9	(454)
그 외	7.8	(473)
연령		
20대	7.4	(125)
30대	7.7	(1,286)
40대 이상	7.6	(368)

구분	평균(0~10점)	(N)
학력		
고졸 이하	7.3	(226)
대졸	7.7	(1,496)
대학원 졸	7.8	(56)
혼인지속기간		
1~2년	7.8	(378)
3~5년	7.7	(806)
6~7년	7.6	(595)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	(613)
외벌이	7.6	(932)
기타	7.8	(234)
자녀수		
0명	7.8	(601)
1명	7.6	(764)
2명 이상	7.6	(41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7.6	(153)
250~350만 원 미만	7.6	(671)
350만 원 이상	7.8	(95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26〉 결혼 만족도: 아내

(단위: 점, 명)		
구분	평균(0~10점)	(N)
전체	7.5	(1,779)
지역		
서울·경기	7.3	(852)
광역시	7.7	(454)
그 외	7.7	(473)
연령		
20대	7.5	(345)
30대	7.5	(1,214)
40대	7.4	(220)

222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평균(0~10점)	(N)
학력		
고졸 이하	7.3	(277)
대졸	7.6	(1,463)
대학원 졸	7.3	(40)
혼인지속기간		
1~2년	7.7	(378)
3~5년	7.5	(806)
6~7년	7.4	(595)
맞벌이 여부		
맞벌이	7.6	(613)
외벌이	7.5	(932)
기타	7.6	(234)
자녀수		
0명	7.7	(601)
1명	7.4	(764)
2명 이상	7.3	(41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7.4	(1,069)
250~350만 원 미만	7.6	(529)
350만 원 이상	7.8	(1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3절 일자리 특성

조사가 완료된 신혼부부 중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비율은 81.5%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 응답자의 83.8%, 광역시 응답자의 80.9%, 그 외 지역 응답자의 78.0%가 결혼할 당시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77.9%, 30대 81.0%, 40대 이상 84.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자리를 가진 비율이 높아지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78.4%)에 비해 대졸(82.7%)의 일자리 비율이 높지만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63.8%로 낮게 나타났다.

〈표 7-27〉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일자리 유무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유무		계(%)	(N)
	있음	없음		
전체	81.5	18.5	100.0	(1,779)
지역 ($\chi^2=6.9^*$)				
서울·경기	83.8	16.2	100.0	(852)
광역시	80.9	19.1	100.0	(454)
그 외	78.0	22.0	100.0	(473)
연령 ($\chi^2=3.6$)				
20대	77.9	22.1	100.0	(125)
30대	81.0	19.0	100.0	(1,286)
40대 이상	84.5	15.5	100.0	(368)
학력 ($\chi^2=13.9^{**}$)				
고졸 이하	78.4	21.6	100.0	(226)
대졸	82.7	17.3	100.0	(1,496)
대학원 졸	63.8	36.2	100.0	(5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아내의 65.1%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71.6%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그 외 지역에서는 53.6%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18%포인트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66.5%로 가장 높고 40대가 59.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51.6%)에 비해 대졸(67.7%)의 일자리 비율이 높지만,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63.3%로 낮은 특징이 있다.

〈표 7-28〉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일자리 유무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유무		계(%)	(N)
	있음	없음		
전체	65.1	34.9	100.0	(1,779)
지역 ($\chi^2=44.1^{***}$)				
서울·경기	71.6	28.4	100.0	(852)
광역시	64.7	35.3	100.0	(454)
그 외	53.6	46.4	100.0	(473)
연령 ($\chi^2=4.3$)				
20대	63.6	36.4	100.0	(345)
30대	66.5	33.5	100.0	(1,214)
40대	59.6	40.4	100.0	(220)
학력 ($\chi^2=26.5^{***}$)				
고졸 이하	51.6	48.4	100.0	(277)
대졸	67.7	32.3	100.0	(1,463)
대학원 졸	63.3	36.7	100.0	(4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이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갖고 있던 일자리의 직종은 사무종사자가 52.5%로 가장 높고, 서비스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가 9.1%, 판매종사자가 8.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관리

자, 전문가·관련 종사자, 사무직의 비율은 서울·경기에서 각각 5.7%, 10.2%, 57.7%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반대로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율은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져 그 외 지역에서 각각 15.8%, 11.0%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문가·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20대에 9.3%로 가장 높고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력별로는 서비스, 판매종사자의 비율이 고졸 이하에서 각각 21.1%, 16.5%로 가장 많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 전문가·관련 종사자의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대학원 졸 이상에서 4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9〉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직종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N)
전체	4.5	8.1	52.5	9.1	8.4	0.5	9.1	6.3	0.4	0.9	-	100.0	(1,450)
지역													
서울·경기	5.7	10.2	57.7	8.1	8.0	0.2	4.8	3.9	0.1	1.3	-	100.0	(714)
광역시	3.5	6.7	54.3	7.8	10.5	0.3	10.8	6.2	-	0.0	-	100.0	(367)
그 외	3.4	5.5	40.8	12.5	7.2	1.5	15.8	11.0	1.2	1.1	-	100.0	(369)
연령													
20대	4.7	9.3	38.5	10.2	10.9	0.5	8.6	10.7	1.6	5.0	-	100.0	(98)
30대	3.6	8.7	54.8	8.5	8.2	0.3	9.5	5.3	0.2	0.8	-	100.0	(1,042)
40대 이상	7.6	5.9	49.2	11.1	8.2	1.4	8.0	8.0	0.5	0.1	-	100.0	(311)
학력													
고졸 이하	5.0	2.5	8.1	21.1	16.5	3.1	21.5	19.1	0.9	2.2	-	100.0	(177)
대졸	4.5	7.9	59.3	7.6	7.4	0.2	7.6	4.4	0.3	0.7	-	100.0	(1,237)
대학원 졸	4.4	44.3	38.1	2.0	4.1	-	-	5.4	-	1.8	-	100.0	(36)

주: ① 관리자,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
노무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갖고 있던 일자리의 직종은 사무종사자가 63.1%로 가장 높고, 서비스종사자가 15.6%, 전문가·관련 종사자가 9.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69.8%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서비스종사자, 판매직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는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져 그 외 지역에서 각각 24.5%, 10.1%, 3.5%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전문가·관련 종사자 비율은 고졸 이하 1.0%, 대졸 9.4%, 대학원 졸 이상 45.7%로 학력에 따라 급격히 높아지고, 서비스 종사자는 고졸 이하 39.0%, 대졸 12.5%, 대학원 졸 3.9%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7-30〉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직종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N)
전체	1.3	9.1	63.1	15.6	7.6	-	2.2	0.7	0.0	0.1	0.3	100.0	(1,158)
지역													
서울·경기	2.1	7.8	69.8	11.7	5.6	-	1.6	1.0	-	-	0.5	100.0	(611)
광역시	-	10.8	61.0	15.9	9.6	-	2.4	0.3	-	-	-	100.0	(294)
그 외	0.9	10.5	49.5	24.5	10.1	-	3.5	0.5	0.2	0.4	-	100.0	(253)
연령													
20대	2.5	6.7	60.0	18.9	8.6	-	2.5	0.4	-	0.3	-	100.0	(219)
30대	1.2	10.1	64.9	14.2	6.7	-	1.7	0.8	-	0.0	0.4	100.0	(807)
40대	-	7.2	57.0	18.5	11.5	-	4.7	0.7	0.3	-	-	100.0	(131)
학력													
고졸 이하	1.6	1.0	21.8	39.0	28.1	-	6.0	2.2	0.3	-	-	100.0	(143)
대졸	1.3	9.4	69.6	12.5	4.6	-	1.7	0.5	-	0.1	0.3	100.0	(990)
대학원 졸	-	45.7	40.6	3.9	9.8	-	-	-	-	-	-	100.0	(25)

주: ① 관리자,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이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갖고 있던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8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영업(10.1%)으로, 상용직과 자영업이 전체의 98.7%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비율은 지역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연령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여 20대 5.7%, 30대 8.9%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업에 차이가 있었는데, 상용직의 경우 고졸 이하는 78.7%, 대졸은 90.1%로 대졸이 11.4%포인트 많았고 자영업의 경우 고졸 이하 17.7%, 대졸 9.0%로 고졸 이하가 8.7%포인트 많게 나타났다.

〈표 7-31〉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가족 종사자	계(%)	(N)
전체	88.6	0.4	0.7	10.1	0.1	100.0	(1,450)
지역							
서울·경기	90.4	-	0.6	8.9	0.1	100.0	(714)
광역시	86.4	0.7	0.4	12.5	-	100.0	(367)
그 외	87.4	1.0	1.2	10.2	0.2	100.0	(369)
연령							
20대	89.0	2.1	3.2	5.7	-	100.0	(98)
30대	90.1	0.3	0.5	8.9	0.2	100.0	(1,042)
40대 이상	83.4	0.3	0.5	15.8	-	100.0	(311)
학력							
고졸 이하	78.7	0.3	2.8	17.7	0.4	100.0	(177)
대졸	90.1	0.4	0.4	9.0	0.1	100.0	(1,237)
대학원 졸	84.2	2.4	-	13.4	-	100.0	(36)

주: 가족종사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지칭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88.9%로 가장 높고, 자영업 6.0%, 임시직 4.1% 순이며 일용직이 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상용직 비율이 92.9%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반대로 임시직 비율은 서울·경기에서 가장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져 그 외 지역에서 10.2%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임시직의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자영업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증가하여 40대에 16.2%로 가장 높다. 그리고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용직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고졸 이하에서 76.7%로 가장 낮고 대학원 졸 이상에서 91.4%로 가장 높아 14.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표 7-32〉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가족 종사자	계(%)	(N)
전체	88.9	4.1	0.4	6.0	0.7	100.0	(1,158)
지역							
서울·경기	92.9	1.5	-	4.6	1.1	100.0	(611)
광역시	86.7	4.2	1.2	7.7	0.3	100.0	(294)
그 외	81.8	10.2	0.4	7.4	0.2	100.0	(253)
연령							
20대	89.3	6.7	0.4	3.3	0.2	100.0	(219)
30대	90.4	3.5	0.2	5.0	0.9	100.0	(807)
40대	78.9	3.2	1.6	16.2	-	100.0	(131)
학력							
고졸 이하	76.7	12.1	-	10.4	0.8	100.0	(143)
대졸	90.6	3.0	0.2	5.5	0.7	100.0	(990)
대학원 졸	91.4	-	8.6	-	-	100.0	(25)

주: 가족종사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지칭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이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갖고 있던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97.7%로 시간제(2.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형태에서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과 광역시는 97% 정도로 유사하고, 그 외 지역은 98.4%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96.6%, 30대 97.7%, 40대 이상 98.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일제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 96.9%, 대졸 98.2%, 대학원 졸 이상 84.7%로 대학원 졸 이상인 경우의 전일제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 7-33〉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전일제	계(%)	(N)
전체	2.3	97.7	100.0	(1,450)
지역 ($\chi^2=1.2$)				
서울·경기	2.5	97.5	100.0	(714)
광역시	2.6	97.4	100.0	(367)
그 외	1.6	98.4	100.0	(369)
연령 ($\chi^2=0.5$)				
20대	3.4	96.6	100.0	(98)
30대	2.3	97.7	100.0	(1,042)
40대 이상	2.0	98.0	100.0	(311)
학력				
고졸 이하	3.1	96.9	100.0	(177)
대졸	1.8	98.2	100.0	(1,237)
대학원 졸	15.3	84.7	100.0	(3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갖고 있던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95.2%로 시간제(4.8%)에 비해 많은 경향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일제의 근로시간 형태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96.4%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의 경우 20대 92.8%, 30대 95.8%, 40대 이상 95.7%로 나타나 20대에 비해 30대 이상의 전일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와 대학원 졸 이상이 동일하게 91.4%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대졸자(95.8%)에 비해 다소 낮다.

〈표 7-34〉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전일제	계(%)	(N)
전체	4.8	95.2	100.0	(1,158)
지역 ($\chi^2=5.1$)				
서울·경기	3.6	96.4	100.0	(611)
광역시	5.3	94.7	100.0	(294)
그 외	7.2	92.8	100.0	(253)
연령 ($\chi^2=3.6$)				
20대	7.2	92.8	100.0	(219)
30대	4.2	95.8	100.0	(807)
40대	4.3	95.7	100.0	(131)
학력 ($\chi^2=5.7$)				
고졸 이하	8.6	91.4	100.0	(143)
대졸	4.2	95.8	100.0	(990)
대학원 졸	8.6	91.4	100.0	(2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이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가지고 있던 일자의 정규직 여부는 정규직이 96.8%로 비정규직(3.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여부는 지역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율도 높아져 40대 이상의 정규직 비율은 99.3%에 달하는데 이는 20대의 정규직 비율과 비교하면 12.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학력에 따라서도 정규직 비율의 차이가 있었는데, 대졸의 정규직 비율이 97.7%로 가장 높고, 대학원 졸의 정규직 비율이 80.9%로 가장 낮아 두 집단 간에 16.8%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5〉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정규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N)
전체	96.8	3.2	100.0	(1,291)
지역 ($\chi^2=3.4$)				
서울·경기	96.3	3.7	100.0	(646)
광역시	98.3	1.7	100.0	(319)
그 외	96.6	3.4	100.0	(326)
연령 ($\chi^2=30.8^{***}$)				
20대	87.1	12.9	100.0	(89)
30대	97.1	2.9	100.0	(943)
40대 이상	99.3	0.7	100.0	(260)
학력				
고졸 이하	93.4	6.6	100.0	(140)
대졸	97.7	2.3	100.0	(1,120)
대학원 졸	80.9	19.1	100.0	(3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갖고 있던 일자의 정규직 여부는 정규직이 89.7%로 비정규직(10.3%)에 비해 확연히 많았으나, 남편의 경우 96.8%가 정규직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 광역시는 각각 90.9%, 91.6%로 90%대로 나타났지만, 그 외 지역은 84.7%로 지방의 정규직 비율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낮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율도 높아져 40대의 94.3%가 정규직이고, 학력별로는

대졸의 정규직 비율이 91.7%로 가장 높고, 대학원 졸의 경우 72.2%에 걸쳐 2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6〉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정규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N)
전체	89.7	10.3	100.0	(1,076)
지역 ($\chi^2=8.9^*$)				
서울·경기	90.9	9.1	100.0	(576)
광역시	91.6	8.4	100.0	(267)
그 외	84.7	15.3	100.0	(233)
연령 ($\chi^2=6.3^*$)				
20대	85.9	14.1	100.0	(210)
30대	90.1	9.9	100.0	(758)
40대	94.3	5.7	100.0	(108)
학력 ($\chi^2=26.8^{***}$)				
고졸 이하	78.6	21.4	100.0	(127)
대졸	91.7	8.3	100.0	(926)
대학원 졸	72.2	27.8	100.0	(23)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이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의 월평균 소득은 337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354만 2000원으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월평균 소득도 증가하여 20대의 소득(282만 1000원)과 40대 이상의 소득(380만 2000원)사이에는 98만 1000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월평균 소득도 증가하여, 고졸 이하의 소득(305만 7000원)과 대학원 졸의 소득(416만 8000원)사이에는 111만 1000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7〉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월평균 소득

(단위: 만 원, 명)

구분	월평균 소득	(N)
전체	337.9	(1,450)
지역		
서울·경기	354.2	(714)
광역시	327.4	(367)
그 외	316.7	(369)
연령		
20대	282.1	(98)
30대	330.5	(1,042)
40대 이상	380.2	(311)
학력		
고졸 이하	305.7	(177)
대졸	340.2	(1,237)
대학원 졸	416.8	(3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의 월평균 소득은 249만 5000원으로 남편의 소득과 비교하면 88만 4000원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261만 9000원으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학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 고졸 이하의 소득(199만 6000원)과 대학원 졸의 소득(308만 9000원) 간에 109만 3000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8〉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월평균 소득

(단위: 만 원, 명)

구분	월평균 소득	(N)
전체	249.5	(1,158)
지역		
서울·경기	261.9	(611)
광역시	241.2	(294)

구분	월평균 소득	(N)
그 외	229.2	(253)
연령		
20대	235.9	(219)
30대	253.0	(807)
40대	250.8	(131)
학력		
고졸 이하	199.6	(143)
대졸	255.2	(990)
대학원 졸	308.9	(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가지고 있던 일자리의 근로시간은 우선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직장에 종사한 경우가 91.6%이고, 이 경우의 정규 근로시간은 8.2시간씩 주 5.2일이었으며, 2.1시간씩 주 2.7일 정도를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장에 종사한 경우 9.2시간씩 주 5.7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92.7%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졸 이상이 98.2%로 가장 높은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근로시간이 주 47.9시간⁵¹⁾으로 가장 짧고, 지방으로 갈수록 길어져 그 외 지역에서는 주 49.8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총근로시간이 50.6시간으로 가장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근로시간이 짧아져 40대 이상은 주당 48.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 조사에서는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묻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시간×일수)+초과근로시간(시간×일수)」로 계산된 수치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음. 단, 정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의 표본수가 적어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표 7-39〉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일, 명)

구분	정규 근로 시간 유무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N)	실제 근로시간		(N)
	있음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전체	91.6	8.2	5.2	2.1	2.7	(1,329)	9.2	5.7	(122)
지역 ($\chi^2=2.6$)									
서울·경기	92.7	8.2	5.2	2.1	2.5	(662)	9.2	5.7	(52)
광역시	91.1	8.2	5.2	2.2	3.0	(334)	9.3	5.5	(33)
그 외	90.1	8.3	5.2	2.2	3.0	(332)	9.1	5.7	(37)
연령 ($\chi^2=5.2$)									
20대	92.3	8.4	5.2	2.3	3.0	(90)	10.0	5.3	(8)
30대	92.5	8.3	5.2	2.2	2.7	(964)	9.1	5.6	(78)
40대 이상	88.5	8.1	5.3	2.1	2.5	(275)	9.2	5.7	(36)
학력 ($\chi^2=11.2^{**}$)									
고졸 이하	85.5	8.6	5.4	2.8	2.9	(152)	9.0	5.7	(26)
대졸	92.3	8.2	5.2	2.1	2.7	(1,142)	9.3	5.6	(95)
대학원 졸	98.2	8.1	5.2	2.5	3.2	(35)	8.0	5.0	(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의 근로시간은 우선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직장에 종사한 경우가 93.0%이고, 이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8.1시간씩 주 5.2일 그리고 1.9시간씩 주 2.5일 정도의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장에 종사한 경우 7.8시간씩 주 5.7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에 93.9%,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근로시간이 주 45.7시간으로 가장 짧고, 지방으로 갈수록 길어져 그 외 지역에서는 주 49.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의 근로시간을 보면⁵²⁾,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20대의 총근로시간이 41.8시간으로 가장 짧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에는 50.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와 40대의 근로시간에는 8.4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40〉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일, 명)

구분	정규 근로 시간 유무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N)	실제 근로시간		(N)
	있음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전체	93.0	8.1	5.2	1.9	2.5	(1,077)	7.8	5.7	(81)
지역 ($\chi^2=15.2^{**}$)									
서울·경기	95.8	8.1	5.1	1.9	2.3	(585)	7.9	5.6	(26)
광역시	89.5	8.1	5.2	1.9	2.4	(263)	8.1	5.8	(31)
그 외	90.5	8.3	5.2	1.9	3.2	(229)	7.4	5.5	(24)
연령 ($\chi^2=1.3$)									
20대	93.9	8.2	5.1	1.9	2.6	(206)	7.6	5.5	(13)
30대	93.1	8.1	5.2	1.9	2.4	(752)	7.8	5.6	(56)
40대	91.1	8.3	5.2	1.8	2.6	(120)	8.5	5.9	(12)
학력 ($\chi^2=25.3^{***}$)									
고졸 이하	82.9	8.5	5.5	1.7	2.6	(118)	8.7	6.1	(24)
대졸	94.6	8.1	5.1	1.9	2.4	(936)	7.3	5.4	(54)
대학원 졸	91.4	8.4	5.2	2.9	2.9	(23)	12.0	7.0	(2)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의 종사자수는 30~99인이 28.1%, 5~29인이 21.2%, 100~299인이 20.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52) 정규근로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근로시간을 응답함.

로 보면, 5~29인, 30~9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각각 23.4%, 29.8%로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0~29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40대 이상에서 20.4%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5~2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은 고졸 이하에서 30.7%로 가장 높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으며, 300~999인, 1,000인 규모 직장의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높아져 대학원 졸 이상에서 각각 22.9%, 1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1〉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남편): 종사자수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전체	12.5	21.2	28.1	20.0	11.2	5.8	1.1	100.0	(1,450)
지역 ($\chi^2=43.8^{***}$)									
서울·경기	8.6	23.4	29.8	20.0	9.4	7.5	1.3	100.0	(714)
광역시	16.5	22.1	27.1	17.5	13.8	2.2	0.8	100.0	(367)
그 외	16.0	16.1	26.1	22.6	12.1	6.3	0.9	100.0	(369)
연령 ($\chi^2=28.6^{**}$)									
20대	15.0	27.2	23.2	18.4	8.9	3.3	4.2	100.0	(98)
30대	11.4	20.1	29.2	20.1	12.4	6.3	0.5	100.0	(1,042)
40대 이상	15.2	23.2	26.2	20.4	8.1	5.0	2.0	100.0	(311)
학력 ($\chi^2=91.7^{***}$)									
고졸 이하	28.8	30.7	18.4	12.7	7.0	1.6	0.8	100.0	(177)
대졸	10.1	20.3	29.9	21.1	11.5	6.2	1.0	100.0	(1,237)
대학원 졸	13.6	7.2	17.2	19.6	22.9	14.5	5.0	100.0	(36)
혼인지속기간 ($\chi^2=12.1$)									
1~2년	12.7	19.0	27.5	22.0	12.1	5.7	1.1	100.0	(300)
3~5년	13.3	20.5	30.3	20.1	10.3	4.4	1.0	100.0	(640)
6~7년	11.4	23.4	25.8	18.8	11.8	7.6	1.1	100.0	(510)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1~4인, ② 5~29인, ③ 30~99인, ④ 100~299인, ⑤ 300~999인, ⑥ 1,000인 이상,

⑦ 잘 모르겠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가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의 종사자수는 30~99인이 29.1%, 5~29인이 27.8%, 100~299인이 14.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 보면, 1~4인 규모 직장의 비율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8.1%로 가장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져 그 외 지역에서 21.6%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5~29인, 100~29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이 20대에서 각각 29.6%, 18.1%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학력에 따른 변화를 보면, 1~4인, 5~29인 규모 직장의 비율은 고졸 이하에서 각각 30.8%, 34.2%로 가장 높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으며, 100~299인, 1,000인 규모 직장의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높아져 대학원 졸 이상에서 각각 18.1%, 17.6%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7-42〉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아내): 종사자수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전체	13.3	27.8	29.1	14.5	8.2	5.5	1.6	100.0	(1,158)
지역 ($\chi^2=60.8^{***}$)									
서울·경기	8.1	28.4	33.7	12.7	10.1	5.8	1.3	100.0	(611)
광역시	17.1	28.8	21.0	20.6	5.9	5.1	1.5	100.0	(294)
그 외	21.6	25.0	27.6	11.7	6.3	5.1	2.6	100.0	(253)
연령 ($\chi^2=21.9^*$)									
20대	13.9	29.6	26.4	18.1	6.1	4.5	1.3	100.0	(219)
30대	11.8	27.4	30.7	14.3	8.1	6.0	1.7	100.0	(807)
40대	21.9	26.9	24.1	9.3	12.2	3.9	1.6	100.0	(131)
학력									
고졸 이하	30.8	34.2	23.7	8.5	1.2	0.9	0.6	100.0	(143)
대졸	10.9	27.4	30.1	15.3	9.3	5.8	1.3	100.0	(990)
대학원 졸	10.5	6.9	20.7	18.1	5.9	17.6	20.3	100.0	(25)
혼인지속기간 ($\chi^2=21.9^*$)									
1~2년	11.8	28.2	26.4	15.7	12.2	4.6	1.2	100.0	(263)
3~5년	13.0	28.0	30.3	16.5	6.1	5.3	0.9	100.0	(506)
6~7년	14.8	27.3	29.5	11.0	8.3	6.3	2.9	100.0	(389)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1~4인, ② 5~29인, ③ 30~99인, ④ 100~299인, ⑤ 300~999인, ⑥ 1,000인 이상,

⑦ 잘 모르겠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4절 주거 특성 및 결혼 비용

1. 주거 특성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에서 같이 산 사람의 비율은 배우자 이외에 부모 및 조부모와 같이 살게 된 비율이 1.2%이고, 이 외 기타도 0.2%이다. 여기에서 배우자란이 2개가 있는데 원편은 평상시에 같이 사는 부부를 의미하고, 오른편은 주말에만 만나게 되는 주말부부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항시 같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말부부도 2.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은 주말부부가 0.6%로 나타났으나, 광역시와 그 외 지역에서는 각각 6.2%, 4.0%로 서울·경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 외 지역에서 부모 및 조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이 2.1%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지속기간별로는 3~5년의 신혼부부의 주말부부 비율이 3.5%로 가장 높고, 부모 및 조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도 3~5년의 신혼부부가 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별로 주말부부의 비율을 보면, 600만 원 이상일 때 3.5%로 가장 높고, 부모 및 조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은 450만 원 미만의 경우 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3〉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같이 산 사람

(단위: %)

구분	배우자 (항시)	배우자 (주말부부)	부모 및 조부모	기타
전체	97.1	2.9	1.2	0.2
지역				
서울·경기	99.4	0.6	0.9	-
광역시	93.8	6.2	0.7	0.2

구분	배우자 (항시)	배우자 (주말부부)	부모 및 조부모	기타
그 외	96.0	4.0	2.1	0.6
혼인지속기간				
1~2년	96.9	3.1	0.5	0.3
3~5년	96.5	3.5	1.7	0.2
6~7년	98.0	2.0	0.8	0.2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97.3	2.7	1.5	0.5
450~600만 원 미만	97.5	2.5	0.8	-
600만 원 이상	96.5	3.5	1.1	0.1

주: 총표본수(N)는 1,779가구이며 복수응답이 가능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이 64.7%로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연립주택이 12.6%,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10.7% 순이다. 이 외에 일반 단독 주택과 다가구 단독 주택은 각각 5.2%, 5.8%로 나타났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아파트/주상복합의 비율이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이 75.7%, 74.7%인 것에 반하여 서울·경기는 53.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경기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18.8%, 14.3%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혼인지속기간별로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아파트/주상복합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다른 유형들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의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은 경우(600만 원 이상) 아파트/주상복합의 비율이 높았으며(65.6%), 연립주택의 비율(16.0%)도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 단독 주택의 비율(3.0%)은 낮은 특징이 있다.

〈표 7-44〉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주택 유형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전체	5.2	5.8	64.7	12.6	10.7	0.9	0.1	100.0	(1,779)
지역 ($\chi^2=138.5^{***}$)									
서울·경기	4.0	8.1	53.3	18.8	14.3	1.4	0.1	100.0	(852)
광역시	4.8	2.1	75.7	8.3	8.4	0.8	-	100.0	(454)
그 외	7.8	5.2	74.7	5.6	6.5	0.2	0.1	100.0	(473)
혼인지속기간 ($\chi^2=34.4^{**}$)									
1~2년	5.5	4.7	58.0	15.1	14.0	2.3	0.3	100.0	(378)
3~5년	4.6	7.4	64.9	12.5	9.9	0.8	-	100.0	(806)
6~7년	5.8	4.2	68.6	11.2	9.8	0.3	0.1	100.0	(595)
가구소득 ($\chi^2=34.6^{**}$)									
450만 원 미만	7.7	6.1	65.4	10.0	9.2	1.3	0.2	100.0	(638)
450~600만 원 미만	4.8	5.9	62.7	11.8	14.0	0.8	-	100.0	(529)
600만 원 이상	3.0	5.3	65.6	16.0	9.5	0.6	-	100.0	(612)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일반 단독 주택, ② 다가구 단독 주택, ③ 아파트/주상복합,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 주택 (원룸 등), ⑥ 오피스텔, ⑦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신혼집의 점유 형태에서는 전세가 53.7%로 가장 높고, 자가가 29.7%,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가 8.6%로 나타났는데, 그 이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등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님 집, 친척 집, 사택, 관사 등의 무상이 7.2%로 보증부 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세는 서울·경기 지역이 66.9%로 가장 높고,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은 각각 48.6%, 34.9%로 낮아지는 반면, 자가의 비율은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에서는 전세 비율은 낮아지지만 자가가 높아지는 경향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혼인지속기간이 짧을수록 전세의 비율이 높

고, 길어질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표 7-45〉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점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N)
전체	29.7	53.7	8.6	0.2	0.6	7.2	100.0	(1,779)
지역								
서울·경기	18.8	66.9	7.0	-	0.5	6.8	100.0	(852)
광역시	37.0	48.6	8.0	0.2	-	6.2	100.0	(454)
그 외	42.2	34.9	12.3	0.6	1.2	8.9	100.0	(473)
혼인지속기간								
1~2년	18.0	61.1	11.7	-	0.7	8.5	100.0	(378)
3~5년	29.1	53.3	8.6	0.4	0.8	7.8	100.0	(806)
6~7년	37.9	49.6	6.8	-	0.2	5.5	100.0	(595)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29.7	48.8	10.7	0.3	0.6	9.9	100.0	(638)
450~600만 원 미만	26.0	57.7	9.7	0.3	0.6	5.7	100.0	(529)
600만 원 이상	32.7	55.3	5.7	-	0.5	5.8	100.0	(612)

주: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기타(연세, 사글세, 일세, 기숙사 등), ⑥ 무상(부모님 집, 친척 집, 사택, 관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신혼집 마련 방법은 새로 마련한 경우가 87.4%로 가장 높았으나, 남편이 혼자 살던 집이 6.6%, 아내가 혼자 살던 집이 2.4%, 남편 또는 아내의 가족·친척이 거주하던 집도 3.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의 새로 마련한 비율이 91.0%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고, 혼인 연차가 높으면(6~7년) 90.2%,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600만 원 이상)에 89.2%로 높은 경향이 있다.

〈표 7-46〉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마련 방법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N)
전체	6.6	2.4	3.7	87.4	-	100.0	(1,641)
지역 ($\chi^2=16.5^*$)							
서울·경기	6.6	2.1	5.4	85.9	-	100.0	(790)
광역시	5.9	2.0	1.2	91.0	-	100.0	(426)
그 외	7.2	3.2	3.1	86.5	-	100.0	(425)
혼인지속기간 ($\chi^2=14.3^*$)							
1~2년	6.6	2.0	2.5	88.9	-	100.0	(343)
3~5년	7.2	2.9	5.4	84.5	-	100.0	(737)
6~7년	5.7	1.9	2.2	90.2	-	100.0	(561)
가구소득 ($\chi^2=10.7$)							
450만 원 미만	6.4	3.3	3.4	86.9	-	100.0	(571)
450~600만 원 미만	6.6	3.0	4.5	85.9	-	100.0	(496)
600만 원 이상	6.8	.9	3.2	89.2	-	100.0	(574)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결혼 전부터 남편이 혼자 살던 집, ② 결혼 전부터 아내가 혼자 살던 집, ③ 남편 또는 아내의 가족·친척이 거주하던 집, ④ 결혼하면서 새로 마련한 집, ⑤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신혼집의 주택 비용⁵³⁾ 조달은 금융권 대출을 제외한 순수 남편의 지출 금액 평균은 4855만 원(31.3%), 금융권 대출을 제외한 순수 아내 지출 금액은 1866만 원(10.3%), 남편의 금융권 대출 금액은 4338만 원(21.6%), 아내의 금융권 대출 금액은 638만 원(3.5%), 남편 부모로부터의 지원은 6222만 원(26.6%), 아내 부모로부터의 지원은 1425만 원(6.6%)으로 총합은 1억 9352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남편(금융권 대출 및 부모의 지원 포함)의 부담 비율을 산출하면, 79.5%로 나타나 남편 쪽의 부담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합계는 서울·경기가 2억 3978만 원으로 가장 높고, 광역시가 1억 7614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53) 신혼집 비용은 신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응답함.

2626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의 부모 부담 비율은 29.0%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지속 기간이 길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신혼집의 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혼부부 주택 비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최근의 신혼부부로 올수록 남편 부모의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표 7-47〉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주택 비용(금액)

(단위: 만 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N)
전체	4,854.9	1,866.4	4,337.7	637.7	6,221.5	1,425.0	9.1	19,352.3	(1,433)
지역									
서울·경기	5,271.0	2,255.8	4,946.7	582.7	9,027.1	1,894.8	-	23,978.1	(679)
광역시	5,416.2	1,894.9	4,279.9	712.7	3,983.8	1,326.8	-	17,614.3	(387)
그 외	3,493.4	1,115.7	3,271.9	660.3	3,390.1	659.6	35.4	12,626.4	(367)
혼인지속기간									
1~2년	3,919.0	1,528.0	3,887.5	540.8	5,683.3	1,405.7	-	16,964.3	(305)
3~5년	4,502.6	1,553.7	4,343.6	722.2	6,069.4	1,366.3	10.4	18,568.3	(621)
6~7년	5,852.1	2,454.4	4,601.9	592.3	6,733.0	1,508.9	12.9	21,755.4	(506)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4,811.4	1,612.0	3,826.7	572.8	4,796.7	949.4	13.1	16,582.0	(495)
450~600만 원 미만	4,342.2	1,494.2	3,870.9	628.1	5,599.9	1,567.1	1.3	17,503.7	(426)
600만 원 이상	5,324.0	2,422.1	5,220.4	708.5	8,116.7	1,766.6	11.6	23,570.0	(512)

주: ① (금융권 대출을 제외한) 순수 남편 지출 금액, ② (금융권 대출을 제외한) 순수 아내 지출 금액, ③ 남편 금융권 대출 금액, ④ 아내 금융권 대출 금액, ⑤ 남편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 ⑥ 아내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 ⑦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48〉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주택 비용(비율)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전체	31.3	10.3	21.6	3.5	26.6	6.6	0.1	100.0	(1,433)
지역									
서울·경기	29.2	11.0	20.3	2.8	29.0	7.8	-	100.0	(679)
광역시	32.9	10.2	25.1	3.7	21.8	6.4	-	100.0	(387)
그 외	33.5	9.3	20.5	4.6	27.1	4.6	0.4	100.0	(367)
혼인지속기간									
1~2년	27.7	9.9	22.3	3.3	29.2	7.7	-	100.0	(305)
3~5년	30.7	9.4	21.6	4.2	27.8	6.1	0.2	100.0	(621)
6~7년	34.2	11.8	21.2	2.8	23.4	6.6	0.1	100.0	(506)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33.7	9.9	20.8	3.3	26.5	5.5	0.2	100.0	(495)
450~600만 원 미만	30.9	9.2	21.5	3.5	27.7	7.1	0.0	100.0	(426)
600만 원 이상	29.3	11.7	22.5	3.6	25.6	7.2	0.1	100.0	(512)

주: ① (금융권 대출을 제외한) 순수 남편 지출 금액, ② (금융권 대출을 제외한) 순수 아내 지출 금액, ③ 남편 금융권 대출 금액, ④ 아내 금융권 대출 금액, ⑤ 남편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 ⑥ 아내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 ⑦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신혼집의 주택 비용을 점유 형태별로 나타내면, 자가의 경우, 2억 6188만 원, 전세가 1억 8171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이 5282만 원에 월세가 33만 1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는 20만 7000원, 기타가 47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모든 범주에서 평균보다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가의 경우 4억 482만 원, 전세가 2억 1753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이 7624원에 월세가 37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지역의 신혼집과 그 외 지역의 신혼집의 비용 차이는 자가의 경우, 2억 3145만 원, 전세가 1억 1766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와 전세의 금액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49〉 신흠집 주거: 주택 비용

(단위: 만 원,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매매가	보증금	보증금	월세	월세	월세
전체	26,188.0	18,171.5	5,282.2	33.1	20.7	47.9
지역						
서울·경기	40,481.9	21,753.4	7,623.6	37.7	-	42.4
광역시	23,052.2	15,031.4	5,677.8	29.2	30.0	-
그 외	17,336.4	9,987.4	2,639.9	30.9	18.2	52.2
혼인지속기간						
1~2년	23,182.9	17,207.0	5,663.3	32.7	-	30.9
3~5년	26,797.3	17,542.2	4,807.2	35.8	20.7	54.5
6~7년	26,459.1	19,843.2	5,675.3	29.0	-	48.0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20,594.6	16,863.6	4,446.1	33.9	21.3	35.2
450~600만 원 미만	23,923.3	16,721.6	6,129.2	28.0	20.0	42.4
600만 원 이상	33,043.7	20,681.2	5,673.7	39.2	-	71.5
(N)	(528)	(956)	(154)	(154)	(3)	(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신흠집 명의는 남편이 72.0%, 아내가 7.1%, 공동이 17.9%, 남편의 부모/조부모가 2.3%, 아내의 부모/조부모는 0.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에서 공동 명의 비율이 22.6%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광역시: 13.4%, 그 외: 13.2%). 혼인지속기간에 따른 차이는 연차가 높은 경우 남편 명의 비율이 높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남편 명의의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동 명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주택 비용 부담과 명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비율은 주택 비용 부담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서울·경기 지역의 공동 명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하여, 주택 비용 부담 비율은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 새로운 경향으로 생각된다.⁵⁴⁾

〈표 7-50〉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명의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공동	남편 부모/ 조부모	아내 부모/ 조부모	기타	계(%)	(N)
전체	72.0	7.1	17.9	2.3	0.7	-	100.0	(1,483)
지역 ($\chi^2=37.5^{***}$)								
서울·경기	67.4	5.8	22.6	3.2	0.9	-	100.0	(730)
광역시	78.2	7.0	13.4	1.4	-	-	100.0	(388)
그 외	74.6	9.9	13.2	1.4	0.8	-	100.0	(364)
혼인지속기간 ($\chi^2=11.0$)								
1~2년	71.7	7.7	18.1	1.8	0.7	-	100.0	(299)
3~5년	71.2	7.4	17.1	3.6	0.7	-	100.0	(664)
6~7년	73.2	6.4	18.8	0.9	0.6	-	100.0	(520)
가구소득 ($\chi^2=23.3^{**}$)								
450만 원 미만	74.1	9.0	13.8	1.7	1.4	-	100.0	(501)
450~600만 원 미만	72.7	6.8	17.3	2.8	0.4	-	100.0	(443)
600만 원 이상	69.6	5.6	22.3	2.3	0.2	-	100.0	(53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신혼집의 크기는 평균 24.7평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때 주택 규모도 가장 컸으며, 혼인 1~2년 차에 주택 규모가 가장 작고 3~5년 차, 6~7년 차에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54) 서울·경기 지역의 남편 부담 비율(부모 부담 포함)은 78.5%, 광역시는 79.8%, 그 외 지역은 81.1%로 지방에서의 남편 부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51〉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 주택 규모

(단위: 평, 명)

구분	주택 규모(평)	(N)
전체	24.7	(1,779)
지역		
서울·경기	23.8	(852)
광역시	25.3	(454)
그 외	25.6	(473)
혼인지속기간		
1~2년	23.1	(378)
3~5년	25.1	(806)
6~7년	25.1	(595)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24.7	(638)
450~600만 원 미만	24.1	(529)
600만 원 이상	25.2	(6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2. 결혼 비용

주택 이외 결혼 관련 지출 비용⁵⁵⁾을 보면, 남편의 지출이 1778만 원, 남편 부모님 지출이 1805만 원, 남편 기타가 434만 원으로 남편이 주택 이외의 결혼 관련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4017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의 총액(4319만 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고, 본인 지출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데 반하여, 총금액은 꼭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30대(4233만 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40대 이상에 비하여 20, 30대에서 부모님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 이상에서 비용이 4202만 원으로 가장 높았

55) 주택 이외에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결혼식 비용(결혼식장, 결혼예복, 사진촬영), 예단 및 혼수, 신혼여행 등 결혼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칭함.

으며,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본인 지출 금액이 많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총액과 혼인 연차와의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지출 금액과 총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의 경우는 아내 본인 지출이 1789만 원, 아내 부모님 지출이 1598만 원, 아내 기타가 102만 원으로 아내가 주택 이외의 결혼 관련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3489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에서의 총지출 금액이 3950만 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남편의 경우 광역시에서 가장 높았던 것과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는 남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내 본인 지출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총금액은 반드시 그러한 경향이 있지는 않았다. 학력별로는 남편과 다르게 대졸일 경우가 365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혼인지속기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본인 지출 금액과 총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52〉 주택 이외 결혼 관련 지출 비용 (남편)

(단위: 만 원, 명)

구분	본인 지출	부모님 지출	기타	총금액	(N)
전체	1,777.6	1,804.8	434.7	4,017.1	(1,779)
지역					
서울·경기	1,805.6	1,847.5	441.6	4,094.7	(852)
광역시	1,936.1	1,881.9	500.7	4,318.7	(454)
그 외	1,575.2	1,653.8	359.2	3,588.2	(473)
연령					
20대	1,224.5	1,821.3	346.2	3,392.0	(125)
30대	1,791.2	1,956.3	485.4	4,232.9	(1,286)
40대 이상	1,918.6	1,269.0	287.7	3,475.3	(368)
학력					
고졸 이하	1,593.8	1,479.6	514.0	3,587.4	(226)

250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본인 지출	부모님 지출	기타	총금액	(N)
대출	1,789.0	1,858.2	428.0	4,075.2	(1,496)
대학원 졸	2,213.9	1,692.5	295.6	4,202.0	(56)
혼인지속기간					
1~2년	1,730.1	2,078.6	669.2	4,477.9	(378)
3~5년	1,743.4	1,642.8	438.3	3,824.5	(806)
6~7년	1,854.2	1,850.4	281.0	3,985.6	(59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1,244.4	1,717.5	548.0	3,509.9	(153)
250~350만 원 미만	1,705.0	1,712.2	483.7	3,900.9	(671)
350만 원 이상	1,914.2	1,883.8	382.2	4,180.2	(955)

주: 본인 및 부모님 지출은 금융기관 및 타인에게 빌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타는 본인 및 부모님의 대출 및 차용 등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53〉 주택 이외 결혼 관련 지출 비용 (아내)

(단위: 만 원, 명)

구분	본인 지출	부모님 지출	기타	총금액	(N)
전체	1,788.7	1,598.3	102.3	3,489.3	(1,779)
지역					
서울·경기	2,021.0	1,806.2	122.8	3,950.0	(852)
광역시	1,716.8	1,560.3	84.3	3,361.4	(454)
그 외	1,438.7	1,259.8	82.5	2,781.0	(473)
연령					
20대	1,307.9	1,653.9	107.7	3,069.5	(345)
30대	1,845.7	1,651.6	108.3	3,605.6	(1,214)
40대	2,226.6	1,217.4	60.7	3,504.7	(220)
학력					
고졸 이하	1,534.7	1,038.8	69.3	2,642.8	(277)
대출	1,849.5	1,699.4	102.7	3,651.6	(1,463)
대학원 졸	1,318.1	1,772.5	315.6	3,406.2	(40)
혼인지속기간					
1~2년	1,703.5	1,706.4	117.0	3,526.9	(378)
3~5년	1,692.1	1,564.0	150.0	3,406.1	(806)

구분	본인 지출	부모님 지출	기타	총금액	(N)
6~7년	1,973.7	1,576.0	28.2	3,577.9	(59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1,648.2	1,538.8	115.3	3,302.3	(1,069)
250~350만 원 미만	1,896.3	1,603.9	103.2	3,603.4	(529)
350만 원 이상	2,302.9	1,932.6	22.8	4,258.3	(181)

주: 본인 및 부모님 지출은 금융기관 및 타인에게 빌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타는 본인 및 부모님의 대출 및 차용 등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 비용의 부담 여부는 남편의 경우 ‘그렇다’가 58.3%, ‘매우 그렇다’가 20.6%로 이 둘을 합한 78.9%의 남편들이 결혼 비용이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81.5%), 연령은 30대(80.2%), 학력은 대졸(80.1%), 혼인 연차가 1~2년 차(83.2%)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⁵⁶⁾ 그리고 현재 소득이 높아질수록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내의 경우는 ‘그렇다’가 59.4%, ‘매우 그렇다’가 18.4%로 이들의 합인 77.8%가 결혼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차이는 1.1%포인트로 이 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아내의 지출 비용 부담 경향은 지방으로 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비용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특히 학력에서 대학원 졸의 경우 64.9%로, 다른 층(고졸 이하: 73.5%, 대졸: 78.9%)에 비해 낮은 특징이 있다.

56)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표 7-54〉 결혼 비용 부담 여부 (남편)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2.5	18.5	58.3	20.6	100.0	(1,779)
지역 ($\chi^2=24.4^{***}$)						
서울·경기	2.6	18.5	60.4	18.5	100.0	(852)
광역시	0.7	17.8	54.5	27.0	100.0	(454)
그 외	4.1	19.1	58.4	18.4	100.0	(473)
연령 ($\chi^2=11.6$)						
20대	5.6	23.3	47.0	24.1	100.0	(125)
30대	2.2	17.7	59.6	20.6	100.0	(1,286)
40대 이상	2.8	19.9	57.8	19.6	100.0	(368)
학력 ($\chi^2=27.4^{***}$)						
고졸 이하	6.9	19.8	50.0	23.3	100.0	(226)
대졸	1.9	18.1	59.9	20.2	100.0	(1,496)
대학원 졸	2.7	25.4	50.4	21.6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8.5^{**}$)						
1~2년	1.9	15.0	58.6	24.6	100.0	(378)
3~5년	3.8	19.0	58.7	18.5	100.0	(806)
6~7년	1.3	20.1	57.7	21.0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22.4^{**}$)						
250만 원 미만	7.5	21.7	48.4	22.4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2.6	18.5	57.0	21.9	100.0	(671)
350만 원 이상	1.7	18.0	60.8	19.4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7-55〉 결혼 비용 부담 여부 (아내)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3.0	19.2	59.4	18.4	100.0	(1,779)
지역 ($\chi^2=15.0^*$)						
서울·경기	3.5	17.2	60.6	18.7	100.0	(85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광역시	1.8	19.1	57.4	21.7	100.0	(454)
그 외	3.3	22.8	59.3	14.6	100.0	(473)
연령 ($\chi^2=6.9$)						
20대	3.8	16.3	63.5	16.3	100.0	(345)
30대	2.7	19.3	58.9	19.0	100.0	(1,214)
40대	3.5	22.8	55.8	18.0	100.0	(220)
학력 ($\chi^2=16.2^*$)						
고졸 이하	5.1	21.3	56.1	17.4	100.0	(277)
대졸	2.5	18.5	60.6	18.3	100.0	(1,463)
대학원 졸	7.0	28.2	38.2	26.7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8.2$)						
1~2년	2.4	15.9	59.9	21.8	100.0	(378)
3~5년	3.4	21.2	58.1	17.3	100.0	(806)
6~7년	2.9	18.6	60.8	17.7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17.4^{**}$)						
250만 원 미만	3.9	19.4	58.1	18.7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1.4	17.0	64.8	16.8	100.0	(529)
350만 원 이상	2.5	24.3	51.8	21.5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신혼부부가 결혼할 당시의 특성 및 결혼에 따른 생활 변화 및 부부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당시 남편과 아내의 일자리와 주거에 대해서도 조사하였고,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하면서 마련하는 신혼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혼인 상태는 남편의 경우 초혼이 95.3%, 동거·사실혼이

3.1%, 재혼이 1.6%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경우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결혼식 및 혼인신고를 한 비율은 남편과 아내 각각 97.2%, 96.9%였고, 혼인신고를 한 비율은 결혼 연차가 짧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과 혼인신고 순서는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경우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고, 결혼식을 먼저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난 후,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까지 기간은 32.5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결심한 이후 수월하게 결혼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남편은 89.4%, 아내는 87.9%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남편 아내 모두 결혼이 잘 진행되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결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못해서',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이유를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남편이 70.7%, 아내가 59.0%로 11.7%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중 생활수준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남편은 44.5%, 아내는 41.3%로 나타나 긍정적인 의견은 남편이 3.2%포인트 높았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남편이 24.7%, 아내는 23.2%로 남편이 1.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취직 및 승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남편의 경우 36.4%인 반면, 아내는 22.7%로 남편보다 13.7%포인트 낮았다.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판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남편이 51.3%, 아내가 42.9%로 아내가 8.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마음의 안정(행복감 등)을 느끼게 되었다는 의견은 남편의 경우 71.2%, 아내는 68.2%로 남편이

3.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의견은 남편이 50.9%, 아내가 44.8%로 남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남편의 비율은 20.3%, 아내는 25.2%로 아내가 4.9%포인트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대학원 졸의 경우, 심각하게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남편과 아내는 각각 14.2%, 17.0%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에 비하여 아내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나 이혼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는 남편이 10점 척도에서 7.7점, 아내가 7.5점으로 남편이 0.2점 높은 수준이었다. 대체로 서울·경기 지역의 만족도가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일자리에 대해 정리하면, 남편의 81.5%는 당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아내는 65.1%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당시 직종은 남편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52.5%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가 9.1%, 판매종사자가 8.4%, 아내는 사무종사자가 63.1%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자 15.6%, 전문가·관련 종사자 9.1% 순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88.6%, 자영업이 10.1%이고, 아내는 상용직이 88.9%, 자영업이 6.0%, 임시직 4.1%, 가족종사자가 0.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인 경우가 남편의 97.7%, 아내의 95.2%로 나타났고, 정규직 여부는 남편이 96.8%, 아내가 89.7%로 나타났다.

당시 남편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337만 9000원으로 첫 직장 당시 월급 272만 1000원에 비해 65만 8000원, 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소득 326만 1000원에 비해 11만 8000원 많아졌다. 아내의 소득은 249만 5000원으로 첫 직장 당시의 210만 4000원에 비해 39만 1000원, 교제를 시작할 당시의 239만 2000원에 비하여 10만 3000원 많아졌으나, 남

편에 비해서는 여전히 88만 4000원 적은 수준이다. 당시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직장에 종사한 경우가 남편이 91.6%, 아내가 93.0%로 남편은 하루 평균 2.1시간에 주 평균 2.7일, 아내는 하루 평균 1.9시간에 주 평균 2.5일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당시 일자리의 종사자수는 남편의 경우, 30~99인이 28.1%, 5~29인이 21.2%, 100~299인이 20.0%, 아내의 경우, 30~99인이 29.1%, 5~29인이 27.8%, 100~299인이 14.5%로 조사되었다.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신혼집에서 같이 산 사람은 배우자 이외에 부모 및 조부모와 같이 살게 된 비율이 1.2%이고, 이 외 기타도 0.2%로 나타났다. 주말부부도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첫 신혼집 주택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의 아파트/주상복합 비율이 서울·경기 지역보다 높았다. 점유 형태는 전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경기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던 반면,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전세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전세가 낮아지면서 자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동일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세에서 자가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혼집은 새로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남편·아내·친척 등이 살던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12%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혼집의 주택 비용은 평균 1억 935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남편의 금융 대출과 부모의 지원을 포함한 남편의 비용 부담 비율은 79.5%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은 서울·경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일수록 남편 부모의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부모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집의 주택 비용을 점유 형태별로 살펴보

면, 자가의 경우, 2억 6188만 원, 전세가 1억 8171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이 5282만 원에 월세가 33만 1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는 20만 7000원, 기타가 47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중에서 서울의 주택 비용을 보면, 자가의 경우 4억 482만 원, 전세가 2억 1753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이 7624만 원에 월세가 37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지역의 신혼집과 그 외 지역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자가의 경우 2억 3145만 원, 전세가 1억 1766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혼집의 명의는 대부분 남편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공동 명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혼집의 크기는 평균 24.7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이외의 결혼 관련 지출 비용은 남편이 4017만 원, 아내가 3489만 원으로 남편이 528만 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 지출이 높아지는 데 반하여, 총액은 오히려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40대에 비하여 20, 30대에서 부모님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비용의 부담 여부는 남편의 경우 78.9%, 아내의 경우는 77.8%로 남편과 아내 모두 유사하게 결혼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절 임신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남편은 전체의 7.3%를 나타내는데, 다른 연령대보다 20대에서 10.4%로 높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대학원 졸업에서 26.5%로 유의하게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남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내의 경우는 9.6%로 남편보다 2.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속성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표 8-1〉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예	아니요	계(%)	(N)	예	아니요	계(%)	(N)
전체	7.3	92.7	100.0	(1,779)	9.6	90.4	100.0	(1,779)
지역 (남편: $\chi^2=0.1$) (아내: $\chi^2=6.7^*$)								
서울·경기	7.1	92.9	100.0	(852)	8.1	91.9	100.0	(852)
광역시	7.6	92.4	100.0	(454)	9.8	90.2	100.0	(454)
그 외	7.5	92.5	100.0	(473)	12.4	87.6	100.0	(473)
연령 (남편: $\chi^2=1.9$) (아내: $\chi^2=8.9^*$)								
20대	10.4	89.6	100.0	(125)	7.1	92.9	100.0	(345)
30대	7.1	92.9	100.0	(1,286)	9.5	90.5	100.0	(1,214)

구분	남편				아내			
	예	아니요	계(%)	(N)	예	아니요	계(%)	(N)
40대	7.2	92.8	100.0	(368)	14.7	85.3	100.0	(220)
학력 (남편: $\chi^2=33.5^{***}$) (아내: $\chi^2=12.7^{**}$)								
고졸 이하	8.4	91.6	100.0	(226)	11.4	88.6	100.0	(277)
대졸	6.4	93.6	100.0	(1,496)	8.9	91.1	100.0	(1,463)
대학원 졸	26.5	73.5	100.0	(56)	24.0	76.0	100.0	(40)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4.5$) (아내: $\chi^2=11.8^{**}$)								
1~2년	5.6	94.4	100.0	(378)	4.9	95.1	100.0	(378)
3~5년	8.7	91.3	100.0	(806)	11.0	89.0	100.0	(806)
6~7년	6.5	93.5	100.0	(595)	10.9	89.1	100.0	(595)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8.3^*$) (아내: $\chi^2=3.0$)								
없음	-	-	-	-	9.7	90.3	100.0	(586)
250만 원 미만	12.9	87.1	100.0	(153)	10.3	89.7	100.0	(483)
250~350만 원 미만	7.1	92.9	100.0	(671)	8.0	92.0	100.0	(529)
350만 원 이상	6.6	93.4	100.0	(955)	12.3	87.7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의료기관에 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면, 남편의 경우, 과거 및 현재에도 치료를 받지 않는 비율은 26.0%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연령이 높은 경우 높아지고,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졸에서 11.4%로 고졸 이하 23.6%, 대졸 28.8%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8-2〉 임신이 어려워서 의료기관에 간 경험 (남편)

(단위: %, 명)

구분	특히 의료기관에 간 적은 없음	과거에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현재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있음	계(%)	(N)
전체	26.0	50.5	23.4	100.0	(130)
지역($\chi^2=6.2$)					
서울·경기	19.1	50.1	30.8	100.0	(60)
광역시	36.9	46.9	16.2	100.0	(34)
그 외	27.3	54.8	18.0	100.0	(35)
연령($\chi^2=3.6$)					
20대	22.4	42.2	35.4	100.0	(13)
30대	26.0	48.5	25.5	100.0	(91)
40대 이상	27.8	61.8	10.5	100.0	(26)
학력					
고졸 이하	23.6	53.6	22.8	100.0	(19)
대졸	28.8	46.6	24.6	100.0	(96)
대학원 졸	11.4	71.8	16.8	100.0	(15)
혼인지속기간($\chi^2=1.9$)					
1~2년	26.5	44.3	29.2	100.0	(21)
3~5년	28.4	48.3	23.3	100.0	(70)
6~7년	21.4	58.0	20.6	100.0	(39)
본인현재소득($\chi^2=0.7$)					
250만 원 미만	31.4	50.8	17.8	100.0	(20)
250~350만 원 미만	25.0	47.9	27.0	100.0	(47)
350만 원 이상	25.1	52.4	22.5	100.0	(63)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경우, 임신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은 22.5%로 남편보다 3.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연령 별로는 20대에서 37.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혼인지속기간이 1~2년인 경우는 17.6%이지만, 3년 이상이 되면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임신이 어려워서 의료기관에 간 경험 (아내)

(단위: %, 명)

구분	특별히 의료기관에 간 적은 없음	과거에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현재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있음	계(%)	(N)
전체	22.5	56.2	21.4	100.0	(172)
지역($\chi^2=2.5$)					
서울·경기	20.2	58.1	21.7	100.0	(69)
광역시	17.7	62.2	20.2	100.0	(44)
그 외	28.9	49.3	21.8	100.0	(59)
연령($\chi^2=4.0$)					
20대	37.2	40.9	21.9	100.0	(24)
30대	19.9	58.1	22.0	100.0	(115)
40대	20.6	60.7	18.7	100.0	(32)
학력($\chi^2=6.1$)					
고졸 이하	32.3	42.8	24.9	100.0	(32)
대졸	21.8	57.4	20.8	100.0	(131)
대학원 졸	-	83.6	16.4	100.0	(10)
혼인지속기간($\chi^2=8.1$)					
1~2년	17.6	56.1	26.3	100.0	(19)
3~5년	23.7	48.4	27.9	100.0	(88)
6~7년	22.3	66.7	11.0	100.0	(65)
본인현재소득($\chi^2=3.5$)					
없음	19.7	63.5	16.7	100.0	(57)
250만 원 미만	26.4	49.6	24.0	100.0	(50)
250~350만 원 미만	24.5	49.2	26.3	100.0	(43)
350만 원 이상	17.1	65.2	17.8	100.0	(22)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임신을 위하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등의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진 적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9.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준비하는 기간을 가진 적이 있는 비율도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에서 27.7%로 고졸 이하나 대졸 이하보다 유

의하게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혼인지속기간에 따라서는 3~5년의 경우 10.9%로 가장 높았고, 6~7년은 9.5%, 1~2년은 5.9%로 3년 이상과 비교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임신 준비 기간이 있는 비율이 13.8%로 나타나 남편보다 4.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임신을 위해 몸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진 적이 있는 비율도 유의하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그리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유의하게 비율도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표 8-4〉 임신 준비 기간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있었음	없었음	계(%)	(N)	있었음	없었음	계(%)	(N)
전체	9.4	90.6	100.0	(1,779)	13.8	86.2	100.0	(1,779)
지역 (남편: $\chi^2=0.9$) (아내: $\chi^2=2.2$)								
서울·경기	8.7	91.3	100.0	(852)	12.6	87.4	100.0	(852)
광역시	9.7	90.3	100.0	(454)	15.4	84.6	100.0	(454)
그 외	10.2	89.8	100.0	(473)	14.4	85.6	100.0	(473)
연령 (남편: $\chi^2=7.0^*$) (아내: $\chi^2=21.0^{***}$)								
20대	5.7	94.3	100.0	(125)	7.5	92.5	100.0	(345)
30대	8.8	91.2	100.0	(1,286)	14.3	85.7	100.0	(1,214)
40대	12.6	87.4	100.0	(368)	20.8	79.2	100.0	(220)
학력 (남편: $\chi^2=24.2^{***}$) (아내: $\chi^2=8.9^*$)								
고졸 이하	8.9	91.1	100.0	(226)	10.6	89.4	100.0	(277)
대졸	8.7	91.3	100.0	(1,496)	14.1	85.9	100.0	(1,463)
대학원 졸	27.7	72.3	100.0	(56)	26.8	73.2	100.0	(40)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7.9^*$) (아내: $\chi^2=16.1^{***}$)								
1~2년	5.9	94.1	100.0	(378)	8.0	92.0	100.0	(378)
3~5년	10.9	89.1	100.0	(806)	14.2	85.8	100.0	(806)
6~7년	9.5	90.5	100.0	(595)	16.9	83.1	100.0	(595)

구분	남편				아내			
	있었음	없었음	계(%)	(N)	있었음	없었음	계(%)	(N)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3.3$) (아내: $\chi^2=4.7$)								
없음	-	-	-	-	13.0	87.0	100.0	(586)
250만 원 미만	7.4	92.6	100.0	(153)	14.8	85.2	100.0	(483)
250~350만 원 미만	8.2	91.8	100.0	(671)	12.3	87.7	100.0	(529)
350만 원 이상	10.5	89.5	100.0	(955)	18.4	81.6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임신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 보면, 남편은 평균 5.9개월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임신 준비 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속성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아내의 경우는 준비 기간이 6.3개월로 나타나 남편보다 0.4개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편과 유사하게 지방으로 갈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속성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표 8-5〉 임신 준비 기간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남편		아내	
	기간	(N)	기간	(N)
전체	5.9	(167)	6.3	(246)
지역				
서울·경기	4.8	(74)	5.5	(107)
광역시	6.5	(44)	6.3	(70)
그 외	7.2	(48)	7.7	(68)

구분	남편		아내	
	기간	(N)	기간	(N)
연령				
20대	7.0	(7)	7.3	(26)
30대	5.6	(113)	5.9	(174)
40대	6.6	(46)	7.5	(46)
학력				
고졸 이하	7.1	(20)	8.8	(29)
대졸	5.8	(131)	6.0	(206)
대학원 졸	5.7	(16)	5.1	(11)
혼인지속기간				
1~2년	5.3	(22)	5.2	(30)
3~5년	5.6	(88)	6.4	(115)
6~7년	6.7	(56)	6.6	(101)
본인현재소득				
없음	-	-	6.4	(76)
250만 원 미만	7.4	(11)	5.9	(71)
250~350만 원 미만	5.7	(55)	7.5	(65)
350만 원 이상	5.9	(100)	5.1	(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임신 준비 기간을 가진 경험이 없는 경우에 앞으로 준비 기간을 가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남편은 5.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7.3%로 가장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앞으로 준비 기간을 가질 의향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 연차가 짧을수록 의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혼인 1~2년 차에서 14.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7.2%로 나타나 남편보다 1.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8.3%로 광역시의 5.6%와 그 외 지역 6.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준비 기간을 가질 의향이 있는 비율이 낮아지는데, 40세 이상에서는 0.9%로 매우 낮아져 여성의 연령에 따른 의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혼인지속기간별로 보면, 남편과 유사하게 1~2년 차에 15.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3~5년이 6.8%, 6~7년이 2.0%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8-6〉 임신 준비 기간을 가진 경험이 없는 경우, 앞으로의 계획 유무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있음	없음	계(%)	(N)	있음	없음	계(%)	(N)
전체	5.9	94.1	100.0	(1,612)	7.2	92.8	100.0	(1,533)
지역 (남편: $\chi^2=7.1^*$) (아내: $\chi^2=2.8$)								
서울·경기	7.3	92.7	100.0	(778)	8.3	91.7	100.0	(745)
광역시	5.8	94.2	100.0	(410)	5.6	94.4	100.0	(384)
그 외	3.4	96.6	100.0	(424)	6.6	93.4	100.0	(405)
연령 (남편: $\chi^2=11.4^{**}$) (아내: $\chi^2=13.5^{**}$)								
20대	9.6	90.4	100.0	(118)	10.0	90.0	100.0	(319)
30대	6.5	93.5	100.0	(1,173)	7.3	92.7	100.0	(1,040)
40대	2.2	97.8	100.0	(321)	0.9	99.1	100.0	(174)
학력 (남편: $\chi^2=0.6$) (아내: $\chi^2=5.8$)								
고졸 이하	4.9	95.1	100.0	(206)	3.5	96.5	100.0	(247)
대졸	6.0	94.0	100.0	(1,366)	7.9	92.1	100.0	(1,257)
대학원 졸	7.1	92.9	100.0	(41)	5.5	94.5	100.0	(29)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65.5^{***}$) (아내: $\chi^2=53.8^{***}$)								
1~2년	14.3	85.7	100.0	(356)	15.1	84.9	100.0	(348)
3~5년	5.0	95.0	100.0	(718)	6.8	93.2	100.0	(692)
6~7년	1.6	98.4	100.0	(538)	2.0	98.0	100.0	(494)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2.1$) (아내: $\chi^2=8.4^*$)								
없음	-	-	-	-	4.8	95.2	100.0	(510)
250만 원 미만	7.8	92.2	100.0	(142)	8.2	91.8	100.0	(412)
250~350만 원 미만	6.4	93.6	100.0	(616)	9.3	90.7	100.0	(464)
350만 원 이상	5.2	94.8	100.0	(855)	5.7	94.3	100.0	(148)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임신 준비 기간을 가진 경험이 없는 경우에 앞으로 준비 기간을 가질 의향이 있는지 묻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질 것인지 알아보았다. 남편의 경우, 평균 6.4개월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의 경우 4.4개월로 낮았고, 혼인지속기간이 6~7년인 경우도 4.9개월로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소득이 3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7.5개월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6.4개월로 남편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5.7개월로 가장 짧고, 그 외 지역은 7.8개월로 긴 편이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파악된다.

〈표 8-7〉 임신 준비 기간을 가진 적이 없으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남편		아내	
	기간	(N)	기간	(N)
전체	6.4	(95)	6.4	(110)
지역				
서울·경기	6.5	(57)	5.7	(62)
광역시	6.2	(24)	6.4	(22)
그 외	6.4	(15)	7.8	(27)
연령				
20대	6.1	(11)	5.9	(32)
30대	6.4	(77)	6.7	(76)
40대 이상	6.8	(7)	1.0	(2)
학력				
고졸 이하	6.8	(10)	8.6	(9)
대졸	6.4	(82)	6.2	(100)
대학원 졸	4.4	(3)	4.8	(2)
혼인지속기간				
1~2년	6.1	(51)	6.5	(53)
3~5년	7.3	(36)	6.0	(47)
6~7년	4.9	(8)	7.5	(10)

구분	남편		아내	
	기간	(N)	기간	(N)
본인현재소득				
없음			6.7	(25)
250만 원 미만	5.7	(11)	7.4	(34)
250~350만 원 미만	5.4	(40)	5.5	(43)
350만 원 이상	7.5	(44)	5.6	(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2절 출산

조사가 완료된 신혼부부가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의 평균은 1.4명으로 나타났다.⁵⁷⁾ 이들의 특성을 먼저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은 33.8%, 1명이 42.9%, 2명이 21.8%, 3명 이상이 1.5%이다.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비율을 속성별로 살펴보면(0명일 경우), 서울·경기 지역(35.4%), 20대(58.9%), 대학원 졸(36.4%), 혼인 연차 1~2년(85.3%)에 높은 비율로 분포한다. 1명의 경우는 서울·경기 지역(44.3%), 40대(50.1%), 고졸 이하(44.3%), 혼인 연차 3~5년(55.3%)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명인 경우는 그 외 지역(24.6%), 40대(27.1%), 고졸 이하(23.0%), 혼인 연차 6~7년(43.5%)에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57) 평균 자녀수는 0명을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수치임.

〈표 8-8〉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 (아내만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	(N)	평균
전체	33.8	42.9	21.8	1.5	100.0	(1,779)	1.4
지역 ($\chi^2=11.3$)							
서울·경기	35.4	44.3	19.1	1.2	100.0	(852)	1.3
광역시	31.9	43.0	23.9	1.2	100.0	(454)	1.4
그 외	32.7	40.3	24.6	2.4	100.0	(473)	1.4
연령 ($\chi^2=139.0^{***}$)							
20대	58.9	33.2	7.2	0.8	100.0	(345)	1.2
30대	29.0	44.4	25.0	1.6	100.0	(1,214)	1.4
40대	20.6	50.1	27.1	2.2	100.0	(220)	1.4
학력 ($\chi^2=2.7$)							
고졸 이하	30.7	44.3	23.0	2.0	100.0	(277)	1.4
대졸	34.3	42.7	21.6	1.5	100.0	(1,463)	1.4
대학원 졸	36.4	42.0	21.6	-	100.0	(40)	1.3
혼인지속기간 ($\chi^2=785.9^{***}$)							
1~2년	85.3	13.9	0.8	-	100.0	(378)	1.1
3~5년	28.9	55.3	15.6	0.2	100.0	(806)	1.2
6~7년	7.7	44.6	43.5	4.2	100.0	(595)	1.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 전과 후의 희망 자녀수가 같은 비율은 남편이 70.8%, 많아진 경우가 6.3%, 적어진 경우가 23.0%인 반면, 적어진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속성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내의 경우는 같은 비율이 71.9%, 많아진 경우가 7.5%, 적어진 경우가 20.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길수록 희망 자녀수가 결혼 전과 후와 비교해서 적어진 비율이 모두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9〉 결혼 전과 결혼 후 희망 자녀수의 변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같음	많아짐	적어짐	계(%)	(N)	같음	많아짐	적어짐	계(%)	(N)
전체	70.8	6.3	23.0	100.0	(1,779)	71.9	7.5	20.7	100.0	(1,779)
지역 (남편: $\chi^2=19.7^{**}$) (아내: $\chi^2=27.2^{***}$)										
서울·경기	72.9	3.7	23.4	100.0	(852)	76.5	5.2	18.3	100.0	(852)
광역시	68.3	9.7	21.9	100.0	(454)	67.8	11.5	20.7	100.0	(454)
그 외	69.3	7.5	23.1	100.0	(473)	67.4	7.7	24.9	100.0	(473)
연령 (남편: $\chi^2=22.1^{***}$) (아내: $\chi^2=15.2^{**}$)										
20대	80.5	2.0	17.5	100.0	(125)	76.3	5.8	17.9	100.0	(345)
30대	71.6	7.0	21.4	100.0	(1,286)	71.4	8.5	20.1	100.0	(1,214)
40대	64.5	5.1	30.4	100.0	(368)	67.7	4.2	28.1	100.0	(220)
학력 (남편: $\chi^2=3.3$) (아내: $\chi^2=7.8$)										
고졸 이하	69.2	6.6	24.1	100.0	(226)	66.6	9.1	24.3	100.0	(277)
대졸	71.2	6.3	22.5	100.0	(1,496)	72.8	7.4	19.9	100.0	(1,463)
대학원 졸	65.0	3.4	31.6	100.0	(56)	74.8	-	25.2	100.0	(40)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20.8^{***}$) (아내: $\chi^2=10.5^*$)										
1~2년	76.0	4.2	19.8	100.0	(378)	76.8	5.0	18.2	100.0	(378)
3~5년	71.7	4.8	23.5	100.0	(806)	72.4	7.2	20.4	100.0	(806)
6~7년	66.2	9.5	24.3	100.0	(595)	68.0	9.3	22.7	100.0	(595)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0.5$) (아내: $\chi^2=15.5^*$)										
없음	-	-	-	-	-	74.2	8.3	17.5	100.0	(586)
250만 원 미만	69.8	5.8	24.3	100.0	(153)	69.1	7.7	23.2	100.0	(483)
250~350만 원 미만	71.5	6.0	22.5	100.0	(671)	74.5	5.4	20.1	100.0	(529)
350만 원 이상	70.4	6.5	23.1	100.0	(955)	64.2	10.0	25.8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 전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남편이 1.7명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평균 희망 자녀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소득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아내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1.6명으로 남편보다 0.1명 적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편과 유사하게 지방으로 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평균 희망 자녀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희망 자녀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8-10〉 결혼 전 희망 자녀수

(단위: 명)

구분	남편		아내	
	자녀수	(N)	자녀수	(N)
전체	1.7	(1,779)	1.6	(1,779)
지역				
서울·경기	1.6	(852)	1.6	(852)
광역시	1.6	(454)	1.6	(454)
그 외	1.7	(473)	1.7	(473)
연령				
20대	1.6	(125)	1.5	(345)
30대	1.6	(1,286)	1.6	(1,214)
40대	1.7	(368)	1.6	(220)
학력				
고졸 이하	1.6	(226)	1.6	(277)
대졸	1.6	(1,496)	1.6	(1,463)
대학원 졸	1.8	(56)	1.8	(40)
혼인지속기간				
1~2년	1.5	(378)	1.5	(378)
3~5년	1.6	(806)	1.5	(806)
6~7년	1.8	(595)	1.8	(595)
본인현재소득				
없음	-	-	1.6	(586)
250만 원 미만	1.7	(153)	1.7	(483)
250~350만 원 미만	1.6	(671)	1.5	(529)
350만 원 이상	1.7	(955)	1.5	(1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 후 현재의 희망 자녀수 평균은 남편이 1.5명으로 나타났다. 상세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희망 자녀수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내의 현재 평균 희망 자녀수는 1.4명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유사하게 지방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평균 희망 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높을수록 희망 자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1〉 결혼 후 희망 자녀수

(단위: 명)

구분	남편		아내	
	자녀수	(N)	자녀수	(N)
전체	1.5	(1,779)	1.4	(1,779)
지역				
서울·경기	1.4	(852)	1.4	(852)
광역시	1.5	(454)	1.5	(454)
그 외	1.5	(473)	1.5	(473)
연령				
20대	1.4	(125)	1.4	(345)
30대	1.5	(1,286)	1.5	(1,214)
40대	1.4	(368)	1.3	(220)
학력				
고졸 이하	1.4	(226)	1.4	(277)
대졸	1.5	(1,496)	1.4	(1,463)
대학원 졸	1.5	(56)	1.5	(40)
혼인지속기간				
1~2년	1.3	(378)	1.3	(378)
3~5년	1.4	(806)	1.4	(806)
6~7년	1.6	(595)	1.6	(595)
본인현재소득				
없음	-	-	1.5	(586)
250만 원 미만	1.4	(153)	1.5	(483)
250~350만 원 미만	1.4	(671)	1.3	(529)
350만 원 이상	1.5	(955)	1.3	(1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이상적인 성별 조합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15.4%의 남편이 이상적인 성별 조합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이상적인 성별 조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 보면, 특히 대학원 졸에서 이상적인 성별 조합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1%로 다른 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를 보면, 17.8%의 비율로 이상적인 성별 조합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편과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갈수록 이상적인 성별 조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대학원 졸 이상 학력의 경우 32.7%가 이상적 자녀 성별 조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12〉 이상적인 자녀 성별 조합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있음	없음	계(%)	(N)	있음	없음	계(%)	(N)
전체	15.4	84.6	100.0	(1,779)	17.8	82.2	100.0	(1,779)
지역 (남편: $\chi^2=35.1^{***}$) (아내: $\chi^2=25.3^{***}$)								
서울·경기	10.2	89.8	100.0	(852)	14.1	85.9	100.0	(852)
광역시	19.4	80.6	100.0	(454)	17.0	83.0	100.0	(454)
그 외	21.1	78.9	100.0	(473)	25.2	74.8	100.0	(473)
연령 (남편: $\chi^2=0.8$) (아내: $\chi^2=1.8$)								
20대	14.1	85.9	100.0	(125)	15.4	84.6	100.0	(345)
30대	15.9	84.1	100.0	(1,286)	18.5	81.5	100.0	(1,214)
40대	14.2	85.8	100.0	(368)	17.8	82.2	100.0	(220)
학력 (남편: $\chi^2=11.8^{**}$) (아내: $\chi^2=7.3^*$)								
고졸 이하	18.2	81.8	100.0	(226)	19.8	80.2	100.0	(277)
대졸	14.5	85.5	100.0	(1,496)	17.0	83.0	100.0	(1,463)
대학원 졸	30.1	69.9	100.0	(56)	32.7	67.3	100.0	(40)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2.2$) (아내: $\chi^2=10.8^{**}$)								
1~2년	15.3	84.7	100.0	(378)	16.3	83.7	100.0	(378)
3~5년	14.3	85.7	100.0	(806)	15.4	84.6	100.0	(806)

구분	남편				아내			
	있음	없음	계(%)	(N)	있음	없음	계(%)	(N)
6~7년	17.1	82.9	100.0	(595)	22.0	78.0	100.0	(595)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14.8^{**}$) (아내: $\chi^2=18.8^{***}$)								
없음	-	-	-	-	15.7	84.3	100.0	(586)
250만 원 미만	22.9	77.1	100.0	(153)	24.2	75.8	100.0	(483)
250~350만 원 미만	11.7	88.3	100.0	(671)	14.8	85.2	100.0	(529)
350만 원 이상	16.9	83.1	100.0	(955)	16.4	83.6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앞으로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는지⁵⁸⁾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편은 37.6%가 낳을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에서 66.1%로 가장 높았으나, 3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혼인지속기간이 1~2년 차인 경우에 72.4%로 가장 높은 반면, 연령과 마찬가지로 혼인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낳을 의향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의 의향은 35.3%로 나타나 남편의 37.6%보다 2.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편과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났고, 20대에서 58.9%로 가장 높았으나, 30대 이후에는 남편과 유사하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연령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출산 의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득이 따른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58) '반드시 낳을 것임'과 '낳을 것임'을 합한 수치임.

〈표 8-13〉 향후 자녀 출산 의향: 남편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낳을 것임	낳을 것임	낳지 않을 것임	절대 낳지 않을 것임	모름	계(%)	(N)
전체	6.4	31.2	27.4	15.0	19.9	100.0	(1,779)
지역 ($\chi^2=37.8^{***}$)							
서울·경기	5.7	34.6	27.2	16.0	16.6	100.0	(852)
광역시	8.6	28.5	23.5	12.0	27.4	100.0	(454)
그 외	5.8	27.5	31.7	16.2	18.9	100.0	(473)
연령 ($\chi^2=165.6^{***}$)							
20대	14.1	52.0	13.9	9.2	10.8	100.0	(125)
30대	7.5	34.4	25.9	12.5	19.7	100.0	(1,286)
40대 이상	0.2	12.8	37.5	25.8	23.8	100.0	(368)
학력 ($\chi^2=17.4^*$)							
고졸 이하	8.5	26.6	27.2	18.6	19.0	100.0	(226)
대졸	5.8	32.2	27.5	14.4	20.0	100.0	(1,496)
대학원 졸	15.3	20.3	25.7	18.0	20.6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416.2^{***}$)							
1~2년	11.4	61.0	9.5	4.1	14.0	100.0	(378)
3~5년	8.2	32.5	25.5	12.0	21.8	100.0	(806)
6~7년	1.0	10.4	41.4	26.1	21.2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33.7^{***}$)							
250만 원 미만	11.4	36.9	21.4	13.7	16.5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5.7	35.8	26.3	11.5	20.7	100.0	(671)
350만 원 이상	6.2	27.0	29.2	17.7	19.9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8-14〉 향후 자녀 출산 의향: 아내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낳을 것임	낳을 것임	낳지 않을것임	절대 낳지 않을 것임	모름	계(%)	(N)
전체	4.3	31.0	28.8	18.7	17.3	100.0	(1,779)
지역 ($\chi^2=19.8^*$)							
서울·경기	4.0	33.4	27.4	20.1	15.1	100.0	(852)
광역시	5.3	29.5	27.0	16.4	21.8	100.0	(454)
그 외	3.6	27.9	33.3	18.3	16.8	100.0	(473)
연령 ($\chi^2=179.7^{***}$)							
20대	7.7	51.2	14.1	9.6	17.3	100.0	(345)
30대	3.9	28.8	30.7	18.5	18.2	100.0	(1,214)
40대	1.0	11.1	41.9	34.1	12.0	100.0	(220)
학력 ($\chi^2=12.7$)							
고졸 이하	3.7	24.8	28.2	22.4	20.9	100.0	(277)
대졸	4.2	32.3	29.2	17.9	16.4	100.0	(1,463)
대학원 졸	8.2	25.1	21.6	21.5	23.6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419.9^{***}$)							
1~2년	10.6	60.0	9.4	6.1	13.8	100.0	(378)
3~5년	3.2	33.6	27.6	16.1	19.3	100.0	(806)
6~7년	1.6	8.9	42.8	30.1	16.6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114.9^{***}$)							
없음	1.7	19.3	37.8	25.3	15.9	100.0	(586)
250만 원 미만	4.7	35.8	25.3	14.4	19.9	100.0	(483)
250~350만 원 미만	6.6	38.7	22.0	14.4	18.4	100.0	(529)
350만 원 이상	4.8	33.2	29.4	21.5	11.2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향후에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곧’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 ‘3년 이내’가 48.9%로 나타났다. ‘곧’ 출산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 ‘곧’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1%, ‘3년 이내’가 50.7%로 나타났다. ‘곧’ 출산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남편과는 다르게 연령의 경향성을 발견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증가하고, 본인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단, 혼인지속기간이 6~7년 차인 경우, 남편의 의향이 아내보다 9.4%포인트 높은 경향이 있다.

〈표 8-15〉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다음 자녀 출산 시기: 남편 (단위: %, 명)

구분	곧	3년 이내	3-4년 후	5년 이상 후	모름	계(%)	(N)
전체	37.4	48.9	6.1	0.9	6.8	100.0	(669)
지역 ($\chi^2=8.5$)							
서울·경기	35.4	49.9	7.1	1.5	6.1	100.0	(343)
광역시	42.7	47.0	3.8	0.4	6.1	100.0	(168)
그 외	35.8	48.5	6.3	0.2	9.0	100.0	(157)
연령							
20대	27.1	54.3	9.4	3.5	5.7	100.0	(83)
30대	38.4	48.5	5.8	0.6	6.6	100.0	(538)
40대 이상	43.3	42.9	3.1	-	10.7	100.0	(48)
학력							
고졸 이하	36.6	40.9	6.6	3.2	12.7	100.0	(79)
대졸	37.4	49.9	6.2	0.6	5.8	100.0	(569)
대학원 졸	37.9	49.8	1.0	-	11.4	100.0	(20)
혼인지속기간							
1~2년	32.9	51.9	9.5	2.2	3.5	100.0	(274)
3~5년	37.9	50.7	3.4	-	8.0	100.0	(327)
6~7년	52.6	27.6	5.4	-	14.4	100.0	(68)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27.8	47.2	6.7	4.7	13.6	100.0	(74)
250~350만 원 미만	39.3	45.7	8.7	0.6	5.8	100.0	(278)
350만 원 이상	37.9	52.0	3.6	0.3	6.1	100.0	(317)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8-16〉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다음 자녀 출산 시기: 아내

(단위: %, 명)

구분	곧	3년 이내	3~4년 후	5년 이상 후	모름	계(%)	(N)
전체	34.1	50.7	7.5	1.1	6.6	100.0	(626)
지역 ($\chi^2=8.9$)							
서울·경기	36.1	48.6	9.2	1.4	4.7	100.0	(319)
광역시	33.3	52.4	4.8	0.4	9.2	100.0	(158)
그 외	30.8	53.5	6.5	1.2	7.9	100.0	(149)
연령							
20대	23.3	62.1	7.1	2.8	4.8	100.0	(203)
30대	39.9	45.6	8.2	0.3	6.0	100.0	(397)
40대	30.1	40.6	-	-	29.3	100.0	(27)
학력							
고졸 이하	37.8	43.1	5.1	5.1	8.9	100.0	(79)
대졸	33.6	51.9	8.0	0.5	5.9	100.0	(534)
대학원 졸	31.5	48.7	-	-	19.7	100.0	(13)
혼인지속기간							
1~2년	31.8	55.6	8.2	1.7	2.7	100.0	(267)
3~5년	34.3	49.7	7.9	0.8	7.3	100.0	(297)
6~7년	43.2	34.4	2.2	-	20.2	100.0	(62)
본인현재소득							
없음	33.4	50.6	4.6	1.1	10.2	100.0	(123)
250만 원 미만	29.9	54.3	7.6	1.4	6.8	100.0	(195)
250~350만 원 미만	34.8	50.0	9.5	1.1	4.7	100.0	(239)
350만 원 이상	45.1	43.2	5.5	-	6.2	100.0	(6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앞서 살펴본 출산 의향에서 시기를 ‘곧’이라고 하지 않은 이들에게 ‘곧’ 출산을 의도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남편의 경우,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가 23.9%로 가장 높고, ‘자녀를 돌

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가 19.2%, '자녀양육비용 때문에'가 18.0%로 나타났다.

당분간 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한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그 외 지역이 31.7%로 가장 높고, 광역시가 24.1%, 서울·경기 지역이 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낮을수록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돌봐줄 시설이 없어서 당분간 출산을 할 의향이 없다고 한 비율을 속성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원 졸에서 48.1%로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높으면 자녀를 돌봐줄 시설이 없어서 당분간 출산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자녀의 양육 비용으로 인해 시간을 두고 출산을 하려 하는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20.7%로 가장 높고, 또한 대학원 졸이 19.7%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내의 경우는 남편과 다른 경향이 나타났는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가 20.8%로 가장 높고, '자녀양육비용 때문에'가 20.6%,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가 16.4%로 나타났다.

자녀를 돌봐줄 시설이 없어서 당분간 출산을 할 의향이 없다고 한 비율을 속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로는 지방으로 갈수록 시설 부족으로 인해 당분간 출산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높아졌고, 연령별로는 40대에서 34.7%로 높은 경향이 있다. 학력별로는 특히 대학원 졸에서 35.0%로 다른 층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 비용으로 인해 곧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비

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 외에 아내의 결과에서는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어서’가 10.8%로 남편(8.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17〉 곧바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남편)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10.5	8.1	6.4	18.0	19.2	1.7	8.1
지역							
서울·경기	10.4	5.6	8.6	20.7	19.3	1.7	10.7
광역시	13.2	9.5	2.2	14.1	24.6	2.7	6.6
그 외	8.3	12.5	5.8	15.9	13.6	0.8	4.1
연령							
20대	0.6	20.4	11.6	16.9	8.8	3.6	7.2
30대	10.7	5.8	5.9	19.4	21.0	1.5	8.7
40대 이상	30.5	10.1	1.5	3.1	19.7	-	3.7
학력							
고졸 이하	5.4	11.5	12.8	17.7	9.0	1.8	3.8
대졸	11.3	7.9	5.8	18.0	19.6	1.8	9.1
대학원 졸	11.3	1.5	-	19.7	48.1	-	-
혼인지속기간							
1~2년	3.8	9.0	6.8	12.6	20.6	2.5	10.6
3~5년	17.0	7.7	6.9	22.0	17.3	1.3	7.2
6~7년	8.6	6.1	1.3	24.2	22.6	-	-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4.7	18.0	8.4	21.5	10.6	0.9	5.4
250~350만 원 미만	10.6	9.6	7.7	15.6	14.5	1.3	9.5
350만 원 이상	12.1	4.2	4.8	19.1	25.5	2.3	7.7

주: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으나 그 시기는 곧바로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① 터울을 조정하기 위하여, ② 소득이 적어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④ 자녀양육비용 때문에, 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⑥ 출산으로 인해 경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차별받을까 봐, ⑦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⑧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 ⑨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⑩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의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8-18〉 곧바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남편) (계속)

(단위: %, 명)

구분	⑧	⑨	⑩	⑪	계(%)	(N)
전체	23.9	1.9	-	2.0	100.0	(419)
지역						
서울·경기	20.2	1.1	-	1.8	100.0	(222)
광역시	24.1	1.2	-	1.8	100.0	(96)
그 외	31.7	4.5	-	2.8	100.0	(101)
연령						
20대	27.1	2.5	-	1.3	100.0	(60)
30대	23.0	1.8	-	2.1	100.0	(332)
40대 이상	26.8	2.1	-	2.6	100.0	(27)
학력						
고졸 이하	35.0	2.9	-	-	100.0	(50)
대졸	22.7	1.9	-	2.1	100.0	(356)
대학원 졸	12.5	-	-	6.9	100.0	(13)
혼인지속기간						
1~2년	31.4	1.4	-	1.5	100.0	(184)
3~5년	17.3	2.5	-	0.7	100.0	(203)
6~7년	22.4	1.4	-	13.4	100.0	(32)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25.0	-	-	5.7	100.0	(53)
250~350만 원 미만	25.2	4.1	-	1.9	100.0	(169)
350만 원 이상	22.4	0.6	-	1.2	100.0	(197)

주: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으나 그 시기는 곧바로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① 터울을 조정하기 위하여, ② 소득이 적어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④ 자녀양육비용 때문에, 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⑥ 출산으로 인해 경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차별받을까 봐, ⑦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⑧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 ⑨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⑩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의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8-19〉 곧바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아내)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7.8	6.0	4.0	20.6	20.8	8.6	10.8
지역 ($\chi^2=34.0^*$)							
서울·경기	8.7	5.8	3.4	24.3	18.1	9.3	12.3
광역시	9.2	3.4	1.1	18.5	21.4	11.4	13.6
그 외	4.5	8.9	8.3	15.5	25.8	4.3	5.1
연령							
20대	0.8	7.9	1.2	25.5	19.5	10.7	10.7
30대	12.9	4.3	4.6	19.0	20.7	7.9	10.9
40대	-	11.0	21.3	-	34.7	-	11.6
학력							
고졸 이하	3.1	10.0	12.5	18.9	21.4	4.0	3.7
대졸	8.2	5.0	3.0	21.0	20.4	9.4	11.8
대학원 졸	17.5	20.4	-	15.6	35.0	-	11.5
혼인지속기간							
1~2년	4.4	4.7	3.1	15.1	24.0	11.4	11.3
3~5년	10.7	7.0	5.6	24.3	16.6	7.5	11.7
6~7년	8.8	6.4	-	28.6	27.9	-	3.9
본인현재소득							
없음	21.3	8.7	5.4	26.7	16.2	-	2.0
250만 원 미만	7.3	7.5	5.9	24.1	21.4	6.4	6.1
250~350만 원 미만	1.9	4.0	0.7	14.8	25.5	14.0	20.6
350만 원 이상	4.4	2.4	8.1	18.6	9.9	12.8	6.5

주: 1) * $p<0.05$, ** $p<0.01$, *** $p<0.001$

2)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으나 그 시기는 곧바로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① 터울을 조정하기 위하여, ② 소득이 적어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④ 자녀양육비용 때문에, 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⑥ 출산으로 인해 경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의 차별받을까 봐, ⑦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⑧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신혼 생활을 즐기기 위해), ⑨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⑩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의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8-20〉 곧바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아내) (계속)

(단위: %, 명)

구분	⑧	⑨	⑩	⑪	계(%)	(N)
전체	16.4	1.9	-	3.0	100.0	(413)
지역 ($\chi^2=34.0^*$)						
서울·경기	15.4	0.5	-	2.2	100.0	(204)
광역시	15.1	4.1	-	2.2	100.0	(105)
그 외	19.6	2.5	-	5.5	100.0	(103)
연령						
20대	20.1	1.8	-	1.8	100.0	(156)
30대	14.7	1.8	-	3.2	100.0	(238)
40대	5.7	4.9	-	10.8	100.0	(19)
학력						
고졸 이하	12.5	3.8	-	10.0	100.0	(49)
대졸	17.3	1.7	-	2.2	100.0	(355)
대학원 졸	-	-	-	-	100.0	(9)
혼인지속기간						
1~2년	23.8	0.9	-	1.2	100.0	(182)
3~5년	11.2	2.7	-	2.6	100.0	(195)
6~7년	6.5	2.6	-	15.2	100.0	(35)
본인현재소득						
없음	13.7	4.4	-	1.6	100.0	(82)
250만 원 미만	13.7	0.8	-	6.7	100.0	(137)
250~350만 원 미만	16.7	0.8	-	0.9	100.0	(156)
350만 원 이상	30.3	5.2	-	1.8	100.0	(38)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터울을 조정하기 위하여, ② 소득이 적어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④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 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⑥ 출산으로 인해 경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차별받을까 봐, ⑦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⑧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 ⑨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⑩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의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앞으로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는 경우, 몇 명을 더 낳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평균 1.3명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편의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1.2명으로 낮은 편이고, 연령은 20대에서 1.5명으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획 자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은 대학원 졸이 1.5명으로 가장 높고, 혼인 연차는 1~2년 차에 1.4명으로 계획 자녀수가 가장 많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때 계획 자녀수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감소하였다.

아내의 응답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낮고, 연령은 20대에서 1.4명으로 가장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력은 대학원 졸이 1.1명으로 가장 낮고, 혼인 연차는 1~2년 차에 1.4명으로 가장 많다가, 혼인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때 계획 자녀수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계획 자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1〉 앞으로 더 낳고자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

(단위: 명)

구분	남편		아내	
	자녀수	(N)	자녀수	(N)
전체	1.3	(669)	1.3	(626)
지역				
서울·경기	1.2	(343)	1.2	(319)
광역시	1.4	(168)	1.4	(158)
그 외	1.4	(157)	1.3	(149)
연령				
20대	1.5	(83)	1.4	(203)
30대	1.3	(538)	1.3	(397)

구분	남편		아내	
	자녀수	(N)	자녀수	(N)
40대	1.2	(48)	1.2	(27)
학력				
고졸 이하	1.2	(79)	1.2	(79)
대졸	1.3	(569)	1.3	(534)
대학원 졸	1.5	(20)	1.1	(13)
혼인지속기간				
1~2년	1.4	(274)	1.4	(267)
3~5년	1.2	(327)	1.2	(297)
6~7년	1.2	(68)	1.2	(62)
본인현재소득				
없음	-	-	1.2	(123)
250만 원 미만	1.4	(74)	1.4	(195)
250~350만 원 미만	1.3	(278)	1.3	(239)
350만 원 이상	1.2	(317)	1.2	(69)

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인 자녀는 제외하였고 더 이상 낳지 않고자 하는 경우는 0명으로 응답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향후에 자녀를 낳으려는 의향이 있는 경우, 자녀를 낳으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가 35.5%, ‘본인 및 배우자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가 18.0%, ‘첫째 아이를 위해서’가 13.6%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에서 40.0%, 연령별로는 30대에 36.3%로 가장 높았다. ‘본인 및 배우자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9.5%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낮아졌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에서 30.0%로 가장 높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감소하였다. ‘첫째 아이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첫째아이를 위해 향후에 자

녀를 낳고자 계획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가 35.3%, ‘본인 및 배우자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가 15.6%, ‘부모님, 주변 어른들의 권유 때문에’가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에서 43.6%로 가장 높고, 대졸이 34.2%, 대학원 졸이 3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에 대해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12.6%로 가장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졌으며, 혼인 연차의 경우는 1~2년 차에 16.2%로 가장 높고,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특징이 보인다. 그리고 ‘부모님, 주변 어른들의 권유 때문에’에 대해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17.8%로 가장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지속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표 8-22〉 향후에 자녀를 낳으려는 이유 (남편)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2.4	5.7	2.4	18.0	35.5
지역 ($\chi^2=48.4^{***}$)					
서울·경기	11.3	5.4	2.9	13.9	32.1
광역시	12.9	7.0	2.8	26.1	40.0
그 외	14.2	5.0	0.7	18.4	38.3
연령 ($\chi^2=16.2$)					
20대	11.7	7.7	3.3	19.5	34.2
30대	12.1	5.6	2.5	18.3	36.3
40대 이상	16.9	2.8	-	12.8	28.8
학력					
고졸 이하	17.5	5.2	2.4	17.6	38.5

구분	①	②	③	④	⑤
대졸	11.7	5.7	2.5	17.7	35.5
대학원 졸	11.9	7.3	-	30.0	25.7
혼인지속기간 ($\chi^2=38.5^{***}$)					
1~2년	11.9	8.0	4.0	19.0	38.8
3~5년	13.7	4.7	1.3	17.0	31.4
6~7년	7.7	1.4	1.1	18.8	42.3
본인현재소득 ($\chi^2=15.0$)					
250만 원 미만	16.0	8.1	1.0	20.8	28.4
250~350만 원 미만	9.4	6.6	1.8	20.4	39.6
350만 원 이상	14.1	4.4	3.3	15.3	33.7

주: 1) * $p<0.05$, ** $p<0.01$, *** $p<0.001$

2)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①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에 생활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②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③ 직장을 그만두고(직장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④ 본인 및 배우자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⑤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⑥ 부모님, 주변 어른들의 권유 때문에, ⑦ 첫째 아이를 위해서, ⑧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8-23〉 향후에 자녀를 낳으려는 이유 (남편) (계속)

(단위: %, 명)

구분	⑥	⑦	⑧	계(%)	(N)
전체	12.4	13.6	-	100.0	(669)
지역 ($\chi^2=48.4^{***}$)					
서울·경기	19.2	15.3	-	100.0	(343)
광역시	1.8	9.4	-	100.0	(168)
그 외	9.0	14.4	-	100.0	(157)
연령 ($\chi^2=16.2$)					
20대	16.8	6.7	-	100.0	(83)
30대	11.8	13.4	-	100.0	(538)
40대 이상	11.2	27.4	-	100.0	(48)
학력					
고졸 이하	6.9	11.9	-	100.0	(79)
대졸	13.4	13.6	-	100.0	(569)
대학원 졸	5.3	19.7	-	100.0	(20)

구분	⑥	⑦	⑧	계(%)	(N)
혼인지속기간 ($\chi^2=38.5^{***}$)					
1~2년	12.4	5.8	-	100.0	(274)
3~5년	13.4	18.5	-	100.0	(327)
6~7년	7.5	21.2	-	100.0	(68)
본인현재소득 ($\chi^2=15.0$)					
250만 원 미만	12.2	13.7	-	100.0	(74)
250~350만 원 미만	10.8	11.4	-	100.0	(278)
350만 원 이상	13.8	15.5	-	100.0	(317)

주: 1) * $p<0.05$, ** $p<0.01$, *** $p<0.001$

- 2)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①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에 생활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②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③ 직장을 그만두고(직장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④ 본인 및 배우자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⑤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⑥ 부모님, 주변 어른들의 권유 때문에, ⑦ 첫째 아이를 위해서, ⑧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8-24〉 향후에 자녀를 낳으려는 이유 (아내)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7.8	8.4	5.7	15.6	35.3
지역 ($\chi^2=30.6^{**}$)					
서울·경기	7.1	8.1	7.0	12.6	32.4
광역시	5.6	13.3	5.0	16.2	41.5
그 외	11.5	3.8	3.6	21.4	35.0
연령					
20대	9.0	9.5	5.6	16.4	32.2
30대	7.7	7.3	5.9	15.0	37.7
40대	-	14.6	3.2	17.9	23.4
학력					
고졸 이하	3.0	9.3	2.0	13.3	43.6
대졸	8.5	8.4	6.4	16.2	34.2
대학원 졸	7.9	-	-	4.7	31.6
혼인지속기간 ($\chi^2=44.3^{***}$)					
1~2년	10.9	8.2	7.7	16.2	37.9

구분	①	②	③	④	⑤
3~5년	5.7	7.4	4.1	15.9	34.1
6~7년	4.2	13.6	4.7	11.7	30.5
본인현재소득 ($\chi^2=49.5^{***}$)					
없음	11.0	10.9	5.0	12.6	21.1
250만 원 미만	6.3	8.2	7.7	15.5	36.2
250~350만 원 미만	8.5	7.4	4.7	14.8	39.9
350만 원 이상	3.7	7.8	4.7	23.8	42.5

주: 1) * $p<0.05$, ** $p<0.01$, *** $p<0.001$

- 2)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①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에 생활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②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③ 직장을 그만두고(직장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④ 본인 및 배우자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⑤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⑥ 부모님, 주변 어른들의 권유 때문에, ⑦ 첫째 아이를 위해서, ⑧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8-25〉 향후에 자녀를 낳으려는 이유 (아내) (계속)

(단위: %, 명)

구분	⑥	⑦	⑧	계(%)	(N)
전체	15.0	12.3	-	100.0	(626)
지역 ($\chi^2=30.6^{**}$)					
서울·경기	17.8	15.0	-	100.0	(319)
광역시	9.4	9.0	-	100.0	(158)
그 외	14.8	9.9	-	100.0	(149)
연령					
20대	19.0	8.2	-	100.0	(203)
30대	12.7	13.6	-	100.0	(397)
40대	18.0	22.9	-	100.0	(27)
학력					
고졸 이하	13.9	15.0	-	100.0	(79)
대졸	15.2	11.1	-	100.0	(534)
대학원 졸	14.0	41.9	-	100.0	(13)
혼인지속기간 ($\chi^2=44.3^{***}$)					
1~2년	15.7	3.5	-	100.0	(267)
3~5년	15.2	17.6	-	100.0	(297)
6~7년	10.9	24.4	-	100.0	(62)

구분	⑥	⑦	⑧	계(%)	(N)
본인현재소득 ($\chi^2=49.5^{***}$)					
없음	13.2	26.2	-	100.0	(123)
250만 원 미만	13.3	12.8	-	100.0	(195)
250~350만 원 미만	17.7	7.1	-	100.0	(239)
350만 원 이상	13.5	4.1	-	100.0	(69)

주: 1) * $p<0.05$, ** $p<0.01$, *** $p<0.001$

- 2)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①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에 생활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②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③ 직장을 그만두고(직장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④ 본인 및 배우자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⑤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⑥ 부모님, 주변 어른들의 권유 때문에, ⑦ 첫째 아이를 위해서, ⑧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앞서 자녀를 낳으려는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가 32.6%, ‘이미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가 31.7%,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가 13.7%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로 응답한 비율을 속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적으로는 광역시에서 35.5%, 연령에서는 30대에서 37.6%,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가 33.8%,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일 경우 38.4%로 나타나 이들이 각 속성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았거나, 별다른 이유는 없지만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33.8%로 가장 높고, 광역시가 33.5%이며, 그 외 지역이 2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대에서 39.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23.3%로 높은 편이다.

아내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가 29.8%, ‘이미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가 29.0%,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가 13.6%로 남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지역적으로는 그 외 지역에서 33.8%, 연령에서는 30대에서 32.1%,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가 33.8%, 혼인 연차는 6~7년이 31.4%,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33.5%로 이들이 각 속성에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광역시에서 34.4%, 학력에서는 대졸이 30.6%,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에서 35.1%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대에서 17.4%로 가장 높고, 30대가 13.6%, 40대가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 연차별로 살펴보면, 1~2년 차가 15.8%로 가장 높고, 다음은 3~5년 차가 14.6%, 6~7년 차가 12.5%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가 24.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아내가 남편과 다른 점은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가 10.4%로 남편 3.8%의 2.7배 정도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8-26〉 향후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남편)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32.6	3.8	8.8	0.1	0.3	1.1	13.7
지역							
서울·경기	30.4	4.8	11.2	-	0.3	0.9	10.4
광역시	35.5	3.2	5.7	-	0.5	1.1	17.0
그 외	34.1	2.7	7.2	0.4	-	1.3	16.6
연령							
20대	27.2	3.3	5.4	-	-	3.6	39.7
30대	37.6	4.1	7.9	0.2	0.4	0.6	14.1
40대 이상	22.7	3.3	11.3	-	-	1.8	9.6
학력							
고졸 이하	33.8	1.5	2.8	0.8	1.9	2.9	17.4
대졸	32.4	4.1	9.9	-	-	0.8	13.2
대학원 졸	33.0	6.0	7.9	-	-	-	10.2
혼인지속기간							
1~2년	40.3	4.3	14.2	-	-	0.8	15.9
3~5년	34.2	3.2	9.3	-	0.4	1.3	15.8
6~7년	30.4	4.2	7.8	0.2	0.2	0.9	11.8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30.4	3.3	4.8	-	-	-	23.3
250~350만 원 미만	38.4	2.3	10.1	-	0.3	1.3	18.3
350만 원 이상	29.6	4.8	8.6	0.2	0.3	1.0	9.9

주: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 ②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③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④ 본인이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⑤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⑥ 본인의 질환 및 건강 때문에, ⑦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⑧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⑨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⑩ 이미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8-27〉 향후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남편) (계속)

(단위: %, 명)

구분	⑧	⑨	⑩	⑪	계(%)	(N)
전체	1.9	5.5	31.7	0.5	100.0	(756)
지역						
서울·경기	1.6	6.5	33.8	-	100.0	(368)
광역시	0.2	2.5	33.5	0.9	100.0	(161)
그 외	3.7	6.0	26.8	1.2	100.0	(226)
연령						
20대	-	7.8	13.0	-	100.0	(29)
30대	1.0	5.1	28.6	0.6	100.0	(494)
40대 이상	4.3	6.1	40.5	0.6	100.0	(232)
학력						
고졸 이하	6.9	5.5	24.4	2.2	100.0	(104)
대졸	1.0	5.3	33.1	0.2	100.0	(627)
대학원 졸	4.8	10.9	25.6	1.7	100.0	(25)
혼인지속기간						
1~2년	-	4.5	19.9	-	100.0	(51)
3~5년	1.6	5.6	27.9	0.6	100.0	(303)
6~7년	2.5	5.5	36.0	0.5	100.0	(401)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6.5	11.7	18.2	1.8	100.0	(54)
250~350만 원 미만	1.5	5.7	21.3	0.9	100.0	(253)
350만 원 이상	1.7	4.6	39.2	0.2	100.0	(448)

주: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 ②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③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④ 본인이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⑤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⑥ 본인의 질환 및 건강 때문에, ⑦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⑧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⑨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⑩ 이미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8-28〉 향후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아내)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29.8	10.4	6.1	0.3	0.8	2.5	13.6
지역							
서울·경기	28.1	13.4	6.7	0.2	0.7	2.0	13.5
광역시	28.4	5.7	6.5	0.3	1.3	2.8	14.4
그 외	33.8	9.4	4.9	0.5	0.7	2.9	13.2
연령							
20대	24.2	5.7	15.4	2.0	1.2	2.6	17.4
30대	32.1	10.8	5.0	0.2	1.0	1.4	13.6
40대	24.4	11.5	5.6	-	-	6.2	11.9
학력							
고졸 이하	33.8	7.8	5.5	-	-	3.1	24.2
대졸	29.3	11.1	5.9	0.4	1.0	1.8	11.6
대학원 졸	16.2	7.7	20.1	-	-	23.6	8.6
혼인지속기간							
1~2년	30.9	9.5	12.7	2.7	1.6	2.0	15.8
3~5년	27.7	12.1	7.4	0.2	0.4	3.6	14.6
6~7년	31.4	9.2	4.2	0.1	1.1	1.6	12.5
본인현재소득							
없음	31.9	6.2	5.9	0.3	0.6	2.5	14.1
250만 원 미만	33.5	7.3	9.1	0.3	0.7	1.8	19.8
250~350만 원 미만	20.4	14.8	4.8	0.5	0.5	4.1	11.9
350만 원 이상	33.4	24.9	3.7	-	2.9	-	2.2

주: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 ②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③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④ 본인이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⑤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⑥ 본인의 질환 및 건강 때문에, ⑦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⑧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⑨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⑩ 이미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8-29〉 향후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아내) (계속)

(단위: %, 명)

구분	⑧	⑨	⑩	⑪	계(%)	(N)
전체	1.9	5.5	29.0	-	100.0	(846)
지역						
서울·경기	1.1	6.4	28.0	-	100.0	(405)
광역시	3.9	2.1	34.4	-	100.0	(198)
그 외	1.8	6.6	26.2	-	100.0	(244)
연령						
20대	1.4	6.2	24.0	-	100.0	(83)
30대	1.2	5.1	29.6	-	100.0	(596)
40대	4.7	6.5	29.3	-	100.0	(167)
학력						
고졸 이하	1.1	3.0	21.5	-	100.0	(140)
대졸	2.1	6.1	30.6	-	100.0	(689)
대학원 졸	-	-	23.8	-	100.0	(17)
혼인지속기간						
1~2년	0.6	5.8	18.3	-	100.0	(59)
3~5년	1.5	7.3	25.2	-	100.0	(353)
6~7년	2.4	4.0	33.6	-	100.0	(434)
본인현재소득						
없음	1.0	5.6	31.8	-	100.0	(369)
250만 원 미만	1.2	6.1	20.3	-	100.0	(193)
250~350만 원 미만	3.7	4.2	35.1	-	100.0	(192)
350만 원 이상	3.2	6.4	23.2	-	100.0	(92)

주: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 ②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③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④ 본인이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⑤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⑥ 본인의 질환 및 건강 때문에, ⑦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⑧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⑨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⑩ 이미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3절 첫 자녀 출산 시 주거 특성

첫 자녀 출산 시의 주거⁵⁹⁾와 신혼집이 같은 비율은 87.6%, 다른 비율(이사한 비율)은 12.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에서 이사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혼인지속기간 별로는 연차가 높을수록 이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구 소득에 따른 뚜렷한 경향은 파악되지 않는다.

〈표 8-30〉 첫 자녀 출산 시 주거와 첫 집(신혼집)이 같은 비율

(단위: %, 명)

구분	같은	다름	계(%)	(N)
전체	87.6	12.4	100.0	(1,176)
지역 ($\chi^2=1.8$)				
서울·경기	86.6	13.4	100.0	(551)
광역시	87.3	12.7	100.0	(308)
그 외	89.7	10.3	100.0	(317)
혼인지속기간 ($\chi^2=7.3^*$)				
1~2년	96.1	3.9	100.0	(55)
3~5년	89.0	11.0	100.0	(574)
6~7년	85.4	14.6	100.0	(548)
가구소득 ($\chi^2=4.0$)				
450만 원 미만	87.0	13.0	100.0	(503)
450~600만 원 미만	90.8	9.2	100.0	(313)
600만 원 이상	85.8	14.2	100.0	(36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에는 대부분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가 2.1%, 부모 및 조부모도 함께 사는 비율은 0.7%로

59) 단, 첫 자녀 출산 시 주거가 첫 신혼집과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첫 신혼집의 정보가 포함됨.

나타났다. 주말부부 비율은 신혼 당시에 유사하게 광역시(4.8%), 그 외 지역(2.6%)이 서울·경기 지역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혼인 지속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부모 및 조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은 혼인 연차가 1~2년 차일 때 2.7%로 가장 높다. 가구 소득은 450~600만 원 미만일 경우 주말부부가 2.3%로 가장 높고, 6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모 및 조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이 1.1%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8-31〉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같이 산 사람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주말부부	부모 및 조부모	기타
전체	97.9	2.1	0.7	0.1
지역				
서울·경기	99.8	0.2	0.7	-
광역시	95.2	4.8	0.2	-
그 외	97.4	2.6	1.3	0.3
혼인지속기간				
1~2년	95.4	4.6	2.7	-
3~5년	98.0	2.0	0.7	0.1
6~7년	98.1	1.9	0.5	0.1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98.0	2.0	0.7	0.2
450~600만 원 미만	97.7	2.3	0.3	-
600만 원 이상	98.0	2.0	1.1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이 70.4%로 가장 높고, 연립주택이 12.2%,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일반 단독 주택은 5.1%, 다가구 단독 주택은 4.3%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아파트/주상복합의 비율은 서울·경

기 지역이 60.9%인 반면,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은 각각 79.4%, 7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립주택 비율이 서울·경기에서 18.2%로 높지만, 다른 지역은 낮은 경향이 있다(광역시: 8.1%, 그 외: 5.7%). 이와 유사하게 서울·경기는 다세대 주택의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서울·경기: 11.2%, 광역시: 6.1%, 그 외: 3.8%). 혼인지속기간별로 보면, 3~5년 차의 아파트/주상복합의 비율이 72.0%이고, 연립주택 비율이 13.0%로 다른 연차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450만 원~600만 원일 때 아파트/주상복합 비율이 72.1%로 가장 높고, 연립주택의 비율은 6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14.5%로 가장 높다.

〈표 8-32〉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주택 유형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전체	5.1	4.3	70.4	12.2	7.9	0.1	0.0	100.0	(1,176)
지역									
서울·경기	3.6	5.8	60.9	18.2	11.2	0.3	-	100.0	(551)
광역시	5.0	1.5	79.4	8.1	6.1	-	-	100.0	(308)
그 외	8.0	4.4	78.0	5.7	3.8	0.1	0.1	100.0	(317)
혼인지속기간									
1~2년	4.3	3.7	71.8	7.7	12.5	-	-	100.0	(55)
3~5년	4.6	4.5	72.0	13.0	5.9	-	-	100.0	(574)
6~7년	5.8	4.2	68.4	11.7	9.4	0.3	0.1	100.0	(548)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7.1	5.2	70.3	10.3	6.8	0.3	0.1	100.0	(503)
450~600만 원 미만	3.4	2.4	72.1	12.5	9.5	0.1	-	100.0	(313)
600만 원 이상	4.0	4.8	68.9	14.5	7.9	-	-	100.0	(361)

주: ① 일반 단독 주택, ② 다가구 단독 주택, ③ 아파트/주상복합,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 주택(원룸 등), ⑥ 오피스텔, ⑦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점유 형태는 전세가 51.8%로 가장 높고, 자가 34.7%, 무상 6.7%, 보증부 월세가 6.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전세 비율이 66.8%로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의 자가 비율이 4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 비율에서 서울·경기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차이가 약 2배인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혼인지속기간별로 살펴보면, 연차가 짧을수록 전세, 높아질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구 소득이 높으면 자가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8-33〉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N)
전체	34.7	51.8	6.1	0.4	0.4	6.7	100.0	(1,176)
지역								
서울·경기	23.5	66.8	3.6	-	-	6.1	100.0	(551)
광역시	42.2	44.0	5.9	1.2	-	6.7	100.0	(308)
그 외	47.0	33.2	10.5	0.3	1.5	7.5	100.0	(317)
혼인지속기간								
1~2년	21.1	58.9	7.2	0.5	-	12.3	100.0	(55)
3~5년	32.1	54.0	5.4	0.5	0.6	7.4	100.0	(574)
6~7년	38.8	48.8	6.6	0.3	0.2	5.3	100.0	(548)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33.2	49.7	8.0	0.4	0.4	8.3	100.0	(503)
450~600만 원 미만	32.0	57.6	4.8	-	0.3	5.2	100.0	(313)
600만 원 이상	39.2	49.5	4.4	0.7	0.5	5.7	100.0	(361)

주: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기타(연세, 사글세, 일세, 기숙사 등), ⑥ 무상(부모님 집, 친척 집, 사택, 관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비용을 살펴보면, 자가의 경우, 2억 7043만 원, 전세가 1억 9548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이 4946만 원에 월세가 31만 9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는 34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모든 범주에서 평균보다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가의 경우 4억 1726만 원, 전세가 2억 3348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이 7533만 원에 월세가 37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세 금액만 혼인 연차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와 전세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8-34〉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주택 비용

(단위: 만 원,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매매가	보증금	보증금	월세	월세	
전체	27,042.7	19,547.6	4,946.0	31.9	34.0	59.7
지역						
서울·경기	41,726.0	23,347.8	7,533.2	37.0	-	-
광역시	22,820.6	16,724.6	5,621.1	31.7	38.9	-
그 외	17,976.3	9,915.7	3,049.6	28.9	15.0	59.7
혼인지속기간						
1~2년	24,482.7	17,127.3	4,852.8	40.2	45.0	-
3~5년	28,069.3	18,610.4	4,960.2	33.5	31.1	64.4
6~7년	26,293.2	20,924.3	4,943.9	29.5	38.1	48.0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21,456.9	17,707.0	5,182.9	31.9	27.6	46.0
450~600만 원 미만	24,218.8	18,654.1	4,305.5	26.7	-	50.0
600만 원 이상	35,638.2	23,027.8	4,959.8	36.8	39.8	77.7
(N)	(408)	(609)	(71)	(71)	(5)	(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규모는 평균 25.5평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24.7평, 광역시가 25.8평, 그 외 지역이 26.4평으로 그 외 지역이 가장 넓다. 혼인지속기간별로는 3~5년(25.8평)에서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5〉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거: 주택 규모

		(단위: 평, 명)
구분	주택 규모(평)	(N)
전체	25.5	(1,176)
지역		
서울·경기	24.7	(551)
광역시	25.8	(308)
그 외	26.4	(317)
혼인지속기간		
1~2년	23.9	(55)
3~5년	25.8	(574)
6~7년	25.2	(548)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25.0	(503)
450~600만 원 미만	25.2	(313)
600만 원 이상	26.4	(36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신혼부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분석하였다. 임신 준비 과정에서 정부터 출산한 자녀수 및 출산 의향, 출산 의향 유무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출산 당시의 주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먼저 임신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남편은 7.3%, 아내의 경우는 9.6%로 남편보다 2.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2.3%의 남편은 아내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의료기관에 간 경험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과거 및 현재에도 의료기관에 간 적이 없는 비율이 26.0%, 아내는 22.5%로 남편이 아내보다 의료기관에 간 적이 없는 비율이 3.5%포인트 높게 보고되었다.

임신을 위하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등의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진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남편의 9.4%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아내의 13.8%가 그렇다고 응답해 아내의 비율이 남편보다 4.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학력이 높을수록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임신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은 평균 5.9개월, 아내는 6.3개월로 나타나 아내가 남편보다 0.4개월 길었다. 임신 준비 기간을 가진 경험이 없는 경우에 앞으로 준비 기간을 가질 의향이 있는 남편은 5.9%, 아내는 7.2%로 남편보다 1.3%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의향이 감소하는 경향이 남편과 아내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임신 준비 기간을 가진 경험이 없는 경우에 앞으로 준비 기간을 가질 의향이 있는지 묻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질 것인지 알아보았는데, 남편과 아내 모두 6.4개월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산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 수 평균은 1.4명으로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은 33.8%, 1명이 42.9%, 2명이 21.8%, 3명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결혼 전과 후의 희망 자녀수가 같은 비율은 남편이 70.8%, 많아진 경우가 6.3%, 적어진 경

우가 23.0%이고, 아내가 71.9%, 많아진 경우가 7.5%, 적어진 경우가 20.7%로 남편과 아내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혼 전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남편이 1.7명, 아내가 1.6명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0.1명 많게 나타났다. 평균 희망 자녀수는 남편과 아내 모두 지방으로 갈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 후 현재의 희망 자녀수 평균은 남편이 1.5명으로 결혼 전(1.7명)과 비교하여 0.2명 감소했고, 아내의 현재 평균 희망 자녀수는 1.4명으로 결혼 전(1.6명)과 비교하여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이상적인 성별 조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15.4%, 아내의 17.8%가 자녀의 이상적인 성별 조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앞으로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는 남편은 37.6%, 아내는 35.3%로 나타나 남편보다 2.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출산 의향에서 가장 특징적인 경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출산 의향이 감소하는 것이다. 향후에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곧’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 ‘3년 이내’가 48.9%, 아내의 경우, ‘곧’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1%, ‘3년 이내’가 50.7%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곧’ 출산할 의향이 없는 부부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남편의 경우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가 23.9%로 가장 높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가 19.2%, ‘자녀양육비용 때문에’가 18.0%이고, 아내의 경우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가 20.8%로 가장 높고, ‘자녀양육비용 때문에’가 20.6%,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가 16.4%로 남편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아내의 결과에서는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어서’(10.8%)가 남편(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는 경우, 몇 명 더 낳고 싶은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1.3명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길수록, 현재 소득이 많을수록 앞으로 낳고자 하는 자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향후에 자녀를 낳으려는 의향이 있는 경우, 자녀를 낳으려는 이유로 남편의 경우,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가 35.5%, ‘본인 및 배우자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가 18.0%, ‘첫째 아이를 위해서’가 13.6%의 순이었고, 아내의 경우는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가 35.3%, ‘본인 및 배우자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가 15.6%로 두 번째까지는 남편과 유사하지만, ‘부모님, 주변 어른들의 권유 때문에’가 15.0%로 세 번째 높은 것은 남편과 차이가 있었다.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에 신혼집에서 이사한 비율은 12.4%로 서울·경기 지역 및 결혼 연차가 길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다.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 주말부부의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의 비율이 높고, 연립 주택 및 다세대 주택(원룸 등) 비율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 점유 형태는 전세, 자가, 무상, 보증부 월세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세의 비율이 서울·경기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차이가 약 2배인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주거 비용은 자가의 경우, 2억 7043만 원, 전세가 1억 9548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이 4946만 원에 월세가 31만 9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는 34만 원이었으며, 주택 규모는 25.5평으로 나타났다.

제1절 양육

미취학 자녀의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자녀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정 민간 어린이집’이 37.5%로 가장 높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15.6%, ‘사립 유치원’이 13.9%로 나타났다. ‘가정 민간 어린이집’은 서울·경기 지역(41.7%), 30대(40.7%), 대졸(37.9%), 혼인지속기간 3~5년(43.0%), 자녀 나이 0~2세(36.2%),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40.6%), 상용직(37.7%), 종사자수 5~30명 미만(41.1%)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광역시(16.1%), 30대(16.8%), 고졸 이하(19.8%), 혼인지속기간 6~7년(17.8%), 자녀 나이 3세 이상(19.4%), 현재 소득 350만 원 이상(21.0%),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26.2%), 종사자수 30~100명 미만(24.2%)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사립 유치원’은 서울·경기 지역(15.6%), 40대(30.8%), 대학원 졸(21.3%), 혼인지속기간 6~7년(24.1%), 자녀 나이 3세 이상(20.8%),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20.8%), 자영업·가족종사자(23.2%), 종사자수가 5~30명 미만(20.7%)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 취학자녀의 경우는 표본수가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⁶⁰⁾

60) 표본수는 8개로 나타남.

〈표 9-1〉 사교육 외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미취학): 첫째 자녀

(단위: %, 명)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이용 안 함	(N)
전체	15.6	37.5	1.4	2.4	8.0	13.9	-	21.7	(1,171)
지역									
서울·경기	15.4	41.7	1.2	1.7	6.4	15.6	-	17.9	(549)
광역시	16.1	31.0	1.3	1.7	10.9	13.5	-	25.9	(308)
그 외	15.3	36.4	1.8	4.3	8.0	11.1	-	24.3	(314)
연령									
20대	11.7	29.1	2.3	3.0	2.6	2.1	-	49.2	(142)
30대	16.8	40.7	1.5	2.4	6.6	12.5	-	19.8	(859)
40대	12.6	28.3	-	2.1	19.6	30.8	-	8.7	(171)
학력									
고졸 이하	19.8	36.8	1.1	3.9	9.9	12.5	-	17.8	(190)
대졸	14.7	37.9	1.5	2.1	7.9	14.0	-	22.2	(956)
대학원 졸	17.7	26.4	-	2.3	-	21.3	-	32.4	(25)
혼인지속기간									
1~2년	1.6	19.2	0.5	0.8	-	2.6	-	75.3	(55)
3~5년	14.8	43.0	1.4	1.9	2.1	5.2	-	31.6	(570)
6~7년	17.8	33.5	1.4	3.0	15.0	24.1	-	6.1	(547)
자녀 나이									
0~2세	8.3	36.2	0.9	1.4	-	0.7	-	52.5	(402)
3세 이상	19.4	38.1	1.6	2.9	12.2	20.8	-	5.7	(769)
본인현재소득									
없음	15.8	36.1	0.7	1.3	8.6	10.9	-	26.9	(510)
250만 원 미만	11.6	39.0	0.2	5.2	9.3	16.7	-	19.6	(285)
250~350만 원 미만	17.3	40.6	3.8	1.5	7.2	13.8	-	15.9	(267)
350만 원 이상	21.0	32.2	1.9	2.4	4.4	20.8	-	17.3	(109)
종사상 지위									
상용직	17.4	37.7	3.3	2.1	7.5	16.2	-	17.0	(283)
임시·일용직	26.2	36.8	-	4.1	13.7	7.6	-	14.6	(25)
자영업·가족종사자	18.6	34.9	2.0	1.3	9.8	23.2	-	10.1	(50)
종사자수									
5인 미만	20.7	39.2	1.4	2.9	11.4	16.8	-	7.5	(71)
5~30명 미만	7.9	41.1	-	8.3	13.0	20.7	-	15.2	(67)
30~100명 미만	24.2	31.1	6.2	-	8.1	15.3	-	15.1	(106)
100명 이상	18.5	38.9	2.6	-	3.9	14.9	-	21.2	(1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미취학인 둘째 자녀 이상의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가정 민간 어린이집’이 39.7%로 가장 높고, ‘이용 안 함’이 36.4%, ‘국공립 어린이집’이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는 광역시(50.1%), 40대(52.8%), 대졸(40.6%), 혼인 연차 6~7년 차(44.9%), 자녀 나이 3세 이상(50.3%), 현재 소득 250만 원 미만(48.8%), 상용직(46.0%), 종사자수 5~30명 미만(53.4%)과 100명 이상(53.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용 안 함’의 경우는 그 외 지역(41.1%), 20대(45.1%), 대졸(37.7%), 혼인 연차 5년 이하(59.1%), 자녀 나이가 0~2세(51.7%), 현재 소득 없음⁶¹⁾(40.8%), 종사자수가 30~100명 미만(34.0%)에서 높았다.⁶²⁾ ‘국공립 어린이집’은 광역시(17.3%), 40대(22.5%), 고졸 이하(20.6%), 혼인 연차가 6~7년 차(19.8%), 자녀 나이가 3세 이상(24.7%),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22.0%), 종사자수가 30~100명 미만(24.3%)에서 높은 편이다. 단, 취학자녀의 경우는 표본수가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⁶³⁾

〈표 9-2〉 사교육 외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미취학): 둘째 자녀 이상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이용 안 함	(N)
전체	16.4	39.7	0.9	0.8	1.8	4.1	-	36.4	(414)
지역									
서울·경기	17.2	37.2	0.7	-	2.2	4.9	-	37.8	(173)
광역시	17.3	50.1	-	-	1.2	2.6	-	28.9	(114)
그 외	14.5	33.8	1.9	2.7	1.6	4.4	-	41.1	(127)
연령									

61) 현재 소득이 없는 것은 일을 하지 않음과 같은 것으로 정의함.

62) 단,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일용직의 경우 0%이고 자영업·가족종사자의 표본수가 15로 적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음.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분석에서도 동일함.

63) 표본수는 1개로 나타남.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이용 안 함	(N)
20대	11.2	37.9	4.2	-	1.6	-	-	45.1	(27)
30대	15.6	37.3	0.8	0.6	2.1	3.3	-	40.4	(323)
40대	22.5	52.8	-	2.6	-	9.9	-	12.2	(63)
학력									
고졸 이하	20.6	37.0	3.1	2.0	-	4.4	-	32.9	(69)
대졸	15.9	40.6	0.4	0.4	2.2	2.8	-	37.7	(336)
대학원 졸	-	26.1	-	6.6	-	53.6	-	13.7	(9)
혼인지속기간									
5년 이하	9.0	28.4	0.8	0.3	0.6	1.8	-	59.1	(131)
6~7년	19.8	44.9	0.9	1.1	2.3	5.2	-	25.9	(283)
자녀 나이									
0~2세	11.7	33.7	0.6	0.1	-	2.1	-	51.7	(265)
3세 이상	24.7	50.3	1.3	2.1	4.9	7.7	-	9.1	(149)
본인현재소득									
없음	17.7	38.6	0.7	0.2	-	2.0	-	40.8	(208)
250만 원 미만	19.0	48.8	-	1.6	3.7	8.0	-	18.9	(87)
250~350만 원 미만	7.2	35.1	-	0.8	4.2	7.7	-	45.1	(79)
350만 원 이상	22.0	34.6	5.2	2.5	1.9	-	-	33.8	(4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4.3	46.0	1.5	1.0	4.4	4.4	-	28.4	(75)
임시·일용직	35.1	32.2	-	-	10.0	22.7	-	-	(8)
자영업·가족종사자	15.9	27.7	-	4.3	-	14.3	-	37.7	(15)
종사자수									
5인 미만	17.7	40.5	-	2.9	-	13.8	-	25.2	(23)
5~30명 미만	21.9	53.4	-	7.7	8.3	4.4	-	4.4	(10)
30~100명 미만	24.3	32.5	-	-	5.5	3.6	-	34.0	(33)
100명 이상	6.3	53.2	3.6	-	4.8	3.9	-	28.1	(3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자녀는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69.2%를 차지한다. 그리고 ‘학습지’가 15.0%, ‘시간제 학원’이 13.2%, ‘반일제 이상 학원’이 7.3%로 나타났다.

다. 먼저 이용을 안 하는 경우는 서울·경기 지역(66.9%), 40대(41.8%), 고졸 이하(68.8%), 혼인 연차가 6~7년 차(52.6%), 자녀 나이가 3세 이상(56.8%),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59.1%),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가족종사자(60.5%), 종사자수 5인 미만(63.1%)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기 열거한 층에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습지’는 광역시(16.2%), 40대(27.1%), 고졸 이하(16.6%), 혼인 연차가 6~7년 차(21.3%), 자녀 나이가 3세 이상(21.3%),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19.4%),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가족종사자(18.5%), 종사자수가 5인 미만(18.9%)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 학원’은 서울·경기 지역(16.9%), 40대(30.5%), 대졸(14.0%), 혼인 연차 6~7년 차(21.9%), 자녀 나이 3세 이상(19.2%),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20.0%),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가족종사자(25.2%), 종사자수가 5인 미만(21.0%)과 100명 이상(21.0%)에서 높은 편이다. ‘반일제 이상 학원’은 서울·경기 지역(9.4%), 40대(14.1%), 대학원 졸(12.4%), 혼인 연차 6~7년 차(11.0%), 자녀 나이 3세 이상(9.5%), 현재 소득 350만 원 이상(10.3%),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가족종사자(13.1%), 종사자수가 5인 미만(10.6%)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자녀 중 취학자녀의 경우는 표본수가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⁶⁴⁾

〈표 9-3〉 사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미취학): 첫째 자녀

(단위: %, 명)

구분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학원	과외	학습지	기타	이용 안 함	(N)
전체	7.3	13.2	0.3	15.0	0.5	69.2	(1,171)
지역							
서울·경기	9.4	16.9	-	13.3	0.4	66.9	(549)

64) 표본수는 8개로 나타남.

310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학원	과외	학습지	기타	이용 안 함	(N)
광역시	7.1	12.0	0.7	16.2	0.3	68.3	(308)
그 외	4.0	8.1	0.5	16.8	0.9	74.0	(314)
연령							
20대	7.2	3.6	0.6	6.8	-	84.4	(142)
30대	6.0	11.4	0.3	13.9	0.4	72.1	(859)
40대	14.1	30.5	-	27.1	1.2	41.8	(171)
학력							
고졸 이하	6.2	11.1	0.5	16.6	0.9	68.8	(190)
대졸	7.4	14.0	0.3	14.9	0.4	69.1	(956)
대학원 졸	12.4	1.6	-	5.8	3.0	77.1	(25)
혼인지속기간							
1~2년	1.6	3.4	-	3.5	-	94.8	(55)
3~5년	4.4	5.9	0.3	10.0	0.6	82.7	(570)
6~7년	11.0	21.9	0.3	21.3	0.5	52.6	(547)
자녀 나이							
0~2세	3.1	1.9	0.2	2.9	0.8	92.9	(402)
3세 이상	9.5	19.2	0.4	21.3	0.4	56.8	(769)
본인현재소득							
없음	6.2	10.8	0.3	16.8	0.7	70.8	(510)
250만 원 미만	6.4	12.8	-	14.7	-	70.7	(285)
250~350만 원 미만	9.2	15.6	0.2	10.1	0.6	68.6	(267)
350만 원 이상	10.3	20.0	1.7	19.4	0.8	59.1	(109)
종사상 지위							
상용직	5.2	19.3	0.3	11.4	0.6	67.9	(283)
임시·일용직	-	6.1	-	11.2	-	84.5	(25)
자영업·가족종사자	13.1	25.2	-	18.5	-	60.5	(50)
종사자수							
5인 미만	10.6	21.0	-	18.9	1.2	63.1	(71)
5~30명 미만	3.4	14.4	-	10.2	-	74.2	(67)
30~100명 미만	2.8	19.5	0.8	13.0	-	70.4	(106)
100명 이상	8.1	21.0	-	9.7	-	64.3	(1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사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습지’는 7.8%를 차지한다.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 외 지역(89.3%), 30대(91.0%), 고졸 이하(91.8%), 혼인 연차가 5년 이하(93.2%), 자녀 나이가 0~2세(93.6%),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89.9%),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91.1%), 종사자수가 30~100명 미만(97.1%)에서 높은 편이다. 반면, ‘학습지’는 서울·경기 지역(9.1%), 40대(17.6%), 대졸(8.8%), 혼인 연차가 6~7년(9.3%), 자녀 나이가 3세 이상(16.4%),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10.2%),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10.0%), 종사자수가 5~30명 미만(12.3%)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둘째 자녀 중 취학자녀의 경우는 표본수가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⁶⁵⁾

〈표 9-4〉 사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미취학): 둘째 자녀 이상

(단위: %, 명)

구분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학원	과외	학습지	기타	이용 안 함	(N)
전체	1.8	3.0	-	7.8	-	87.8	(414)
지역							
서울·경기	1.7	1.8	-	9.1	-	87.4	(173)
광역시	2.1	5.6	-	6.0	-	86.6	(114)
그 외	1.8	2.5	-	7.5	-	89.3	(127)
연령							
20대	1.4	6.5	-	5.8	-	86.3	(27)
30대	1.7	1.6	-	6.0	-	91.0	(323)
40대	2.6	9.2	-	17.6	-	72.1	(63)
학력							
고졸 이하	1.9	3.8	-	3.8	-	91.8	(69)
대졸	1.2	3.0	-	8.8	-	87.3	(336)
대학원 졸	26.0	-	-	-	-	74.0	(9)

65) 표본수는 1개로 나타남.

구분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학원	과외	학습지	기타	이용 안 함	(N)
혼인지속기간							
5년 이하	1.3	1.1	-	4.4	-	93.2	(131)
6~7년	2.0	4.0	-	9.3	-	85.3	(283)
자녀 나이							
0~2세	1.8	1.6	-	2.9	-	93.6	(265)
3세 이상	1.8	5.6	-	16.4	-	77.3	(149)
본인현재소득							
없음	1.0	1.6	-	8.3	-	89.9	(208)
250만 원 미만	6.2	4.5	-	7.6	-	81.7	(87)
250~350만 원 미만	-	5.6	-	5.4	-	89.0	(79)
350만 원 이상	-	2.7	-	10.2	-	87.2	(4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3	2.8	-	4.8	-	91.1	(75)
임시·일용직	9.1	12.8	-	10.0	-	68.1	(8)
자영업·가족종사자	-	15.9	-	9.1	-	75.0	(15)
종사자수							
5인 미만	-	15.4	-	10.3	-	74.3	(23)
5~30명 미만	11.4	-	-	12.3	-	76.4	(10)
30~100명 미만	-	1.9	-	1.0	-	97.1	(33)
100명 이상	1.8	4.8	-	6.3	-	87.0	(3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돌봄 서비스 기관 또는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시간 이외에 첫째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가 79.3%, ‘조부모 및 삼촌·이모 등’은 28.6%로 나타났다.⁶⁶⁾ ‘부모’는 서울·경기 지역(84.9%), 20대(83.6%), 고졸 이하(83.7%), 혼인 연차가 1~2년 차(79.9%), 자녀 나이가 3세 이상(80.5%), 현재 소득 없음(93.6%),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84.5%), 종사자수가 5인 미만(68.4%)일 경우에 높은 수준이다. ‘조부모

66) 본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합이 100%를 넘는 경우가 있음.

및 삼촌·이모 등'은 광역시(30.3%), 20대(33.9%), 대학원 졸(38.3%), 혼인 연차가 3~5년 차(31.1%), 자녀 나이 0~2세(34.9%),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48.3%),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52.4%), 종사자수가 100명 이상(59.9%)에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5〉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복수 응답): 첫째 자녀

(단위: %, 명)

구분	부모	조부모, 삼촌·이모 등	친구·지인	기타 친인척	아이돌보미 서비스	출퇴근 베이비시터
전체	79.3	28.6	0.9	0.8	1.3	2.1
지역						
서울·경기	84.9	28.7	0.7	0.4	1.9	3.0
광역시	73.4	30.3	1.1	1.2	0.8	2.3
그 외	75.4	26.7	1.2	1.2	0.8	0.3
연령						
20대	83.6	33.9	0.6	0.2	0.7	1.2
30대	79.6	27.6	0.9	1.1	1.7	1.6
40대	74.4	29.1	1.1	-	-	5.0
학력						
고졸 이하	83.7	28.3	-	0.4	0.9	1.4
대졸	78.7	28.4	1.1	0.9	1.4	2.1
대학원 졸	69.0	38.3	-	-	1.7	6.6
혼인지속기간						
1~2년	79.9	29.9	-	0.5	-	2.5
3~5년	77.7	31.1	0.9	0.9	0.9	2.2
6~7년	81.0	25.8	1.0	0.7	1.9	1.9
자녀 나이						
0~2세	77.0	34.9	1.0	0.6	0.6	2.4
3세 이상	80.5	25.3	0.9	0.9	1.7	1.9
본인현재소득						
없음	93.6	14.1	0.9	0.2	0.3	-
250만 원 미만	75.7	31.2	0.8	1.8	1.9	1.4
250~350만 원 미만	58.0	45.5	0.9	0.9	3.3	6.8
350만 원 이상	74.7	48.3	1.5	0.8	-	2.2

31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부모	조부모, 삼촌·이모 등	친구·지인	기타 친인척	아이돌보미 서비스	출퇴근 베이비시터
종사상 지위						
상용직	60.2	52.4	0.3	1.9	3.2	5.6
임시·일용직	84.5	10.2	-	-	10.9	-
자영업·가족종사자	68.4	40.3	-	-	-	7.2
종사자수						
5인 미만	68.4	42.9	-	0.6	1.3	5.1
5~30명 미만	53.3	37.3	-	3.6	7.2	11.3
30~100명 미만	66.9	44.4	0.8	1.6	1.3	5.5
100명 이상	62.5	59.9	-	0.8	4.6	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9-6〉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복수 응답): 첫째 자녀(계속)

(단위: %, 명)

구분	입주 베이비시터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지냄	기타	(N)
전체	-	0.1	0.4	-	(1,178)
지역					
서울·경기	-	-	0.3	-	(551)
광역시	-	-	0.3	-	(309)
그 외	-	0.2	0.9	-	(318)
연령					
20대	-	-	-	-	(142)
30대	-	0.1	0.3	-	(862)
40대	-	-	1.7	-	(175)
학력					
고졸 이하	-	-	0.7	-	(192)
대졸	-	0.1	0.4	-	(961)
대학원 졸	-	-	-	-	(25)
혼인지속기간					
1~2년	-	-	1.8	-	(56)
3~5년	-	-	0.6	-	(574)
6~7년	-	0.1	0.2	-	(549)
자녀 나이					

구분	입주 베이비시터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지냄	기타	(N)
0~2세	-	-	-	-	(402)
3세 이상	-	0.1	0.7	-	(776)
본인현재소득					
없음	-	-	0.5	-	(513)
250만 원 미만	-	-	0.6	-	(288)
250~350만 원 미만	-	0.3	0.3	-	(269)
350만 원 이상	-	-	-	-	(109)
종사상 지위					
상용직	-	0.2	-	-	(284)
임시·일용직	-	-	-	-	(26)
자영업·가족종사자	-	-	2.8	-	(52)
종사자수					
5인 미만	-	-	1.5	-	(73)
5~30명 미만	-	-	-	-	(68)
30~100명 미만	-	0.6	-	-	(107)
100명 이상	-	-	0.3	-	(1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 기관 또는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시간 이외에 둘째 자녀 이상을 돌봐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8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조부모 및 삼촌·이모 등’으로 21.9%로 나타났다. ‘부모’는 서울·경기 지역(91.9%), 20대(84.2%), 고졸 이하(85.8%), 혼인지속기간 5년 이하(85.0%), 자녀 나이 3세 이상(84.4%), 현재 소득 없음(96.7%),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93.2%), 종사자수가 30~100명 미만(77.4%)에서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 및 삼촌·이모 등’은 광역시(29.2%), 30대(22.9%), 대학원 졸(37.6%), 혼인 연차가 6~7년(22.6%), 자녀 나이가 0~2세(22.4%),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39.2%),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가족 종사자(57.7%), 종사자수가 5~30인 미만(56.2%)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표 9-7〉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복수 응답): 둘째 자녀 이상

(단위: %, 명)

구분	부모	조부모, 삼촌·이모 등	친구·지인	기타 친인척	아이돌보미 서비스	출퇴근 베이비시터
전체	83.7	21.9	0.4	0.5	1.6	0.4
지역						
서울·경기	91.9	18.6	-	0.7	2.5	0.7
광역시	76.2	29.2	-	-	0.5	0.5
그 외	79.3	19.9	1.4	0.6	1.4	-
연령						
20대	84.2	20.1	-	-	-	-
30대	84.1	22.9	0.3	0.6	1.6	0.5
40대	81.4	17.6	1.4	-	2.6	-
학력						
고졸 이하	85.8	18.9	-	1.2	-	1.7
대졸	83.8	22.1	0.5	0.4	1.5	0.2
대학원 졸	60.2	37.6	-	-	19.3	-
혼인지속기간						
5년 이하	85.0	20.3	-	-	-	0.4
6~7년	83.1	22.6	0.6	0.7	2.4	0.4
자녀 나이						
0~2세	83.3	22.4	0.3	-	2.1	0.7
3세 이상	84.4	20.9	0.6	1.3	0.8	-
본인현재소득						
없음	96.7	6.4	0.4	-	-	-
250만 원 미만	69.8	32.0	-	2.3	7.0	0.7
250~350만 원 미만	70.3	39.2	-	-	0.7	1.5
350만 원 이상	72.9	45.8	2.1	-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63.7	48.3	-	1.1	4.3	-
임시·일용직	93.2	17.4	-	-	6.8	-
자영업·가족종사자	66.0	57.7	-	-	-	-
종사자수						
5인 미만	59.4	56.1	-	1.8	2.6	-
5~30명 미만	49.6	56.2	-	4.0	-	-
30~100명 미만	77.4	37.9	-	-	-	-
100명 이상	66.6	42.8	-	-	10.7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9-8〉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복수 응답): 둘째 자녀 이상(계속)

(단위: %, 명)

구분	입주 베이비시터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혼자 지냄	기타	(N)
전체	-	0.4	0.2	-	(415)
지역					
서울·경기	-	-	-	-	(173)
광역시	-	0.8	-	-	(114)
그 외	-	0.5	0.7	-	(128)
연령					
20대	-	-	-	-	(27)
30대	-	0.5	-	-	(323)
40대	-	-	1.5	-	(64)
학력					
고졸 이하	-	-	-	-	(69)
대졸	-	0.5	0.3	-	(337)
대학원 졸	-	-	-	-	(9)
혼인지속기간					
5년 이하	-	-	-	-	(131)
6~7년	-	0.6	0.3	-	(284)
자녀 나이					
0~2세	-	0.3	-	-	(265)
3세 이상	-	0.5	0.6	-	(150)
본인현재소득					
없음	-	-	-	-	(208)
250만 원 미만	-	-	-	-	(87)
250~350만 원 미만	-	0.9	1.2	-	(80)
350만 원 이상	-	2.3	-	-	(40)
종사상 지위					
상용직	-	2.1	1.3	-	(76)
임시·일용직	-	-	-	-	(8)
자영업·가족종사자	-	-	-	-	(15)
종사자수					
5인 미만	-	-	-	-	(23)
5~30명 미만	-	-	-	-	(10)
30~100명 미만	-	2.0	2.8	-	(34)
100명 이상	-	3.0	-	-	(3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첫째 자녀의 월평균 양육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⁶⁷⁾ ‘사교육 외 돌봄 서비스’는 12만 1000원,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은 8만 6000원, ‘사교육’은 4만 8000원의 순으로 총액은 25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총액은 서울·경기 지역(31만 1000원), 40대(41만 6000원), 대학원 졸(54만 5000원), 혼인 연차가 6~7년 차(30만 8000원), 자녀 나이 3세 이상(29만 9000원),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46만 9000원),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가족종사자(39만 2000원), 종사자수가 100명 이상(45만 2000원)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외 돌봄 서비스’는 서울·경기 지역(15만 1000원), 40대(19만 3000원), 대학원 졸(18만 8000원), 혼인지속기간이 6~7년(15만 9000원), 자녀 나이가 3세 이상(15만 4000원),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18만 2000원),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가족종사자(14만 3000원), 종사자수가 100명 이상(17만 3000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은 서울·경기 지역과 광역시(9만 5000원), 40대(11만 3000원), 대학원 졸(30만 8000원), 혼인 연차가 3~5년(9만 9000원), 자녀 나이가 0~2세(10만 4000원),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20만 4000원),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23만 9000원), 종사자수가 5~30명 미만(24만 7000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은 서울·경기 지역(6만 5000원), 40대(11만 원), 대졸(5만 1000원), 혼인지속기간이 6~7년(7만 4000원), 자녀 나이가 3세 이상(6만 9000원), 현재 소득은 350만 원 이상(9만 2000원),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가족종사자(7만 1000원), 종사자수가 100명 이상(7만 4000원)에서 높은 특징이 있다.

67) 양육 비용은 0원을 포함하여 평균한 금액을 나타냄.

〈표 9-9〉 양육 비용(월평균): 첫째 자녀

(단위: 만 원, 명)

구분	사교육 외 돌봄서비스	사교육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	총액	(N)
전체	12.1	4.8	8.6	25.5	(1,178)
지역					
서울·경기	15.1	6.5	9.5	31.1	(551)
광역시	10.3	3.0	9.5	22.8	(309)
그 외	8.6	3.7	6.1	18.4	(318)
연령					
20대	5.9	2.0	5.0	12.9	(142)
30대	11.6	4.0	8.6	24.2	(862)
40대	19.3	11.0	11.3	41.6	(175)
학력					
고졸 이하	9.5	3.7	4.2	17.4	(192)
대졸	12.4	5.1	8.9	26.4	(961)
대학원 졸	18.8	4.9	30.8	54.5	(25)
혼인지속기간					
1~2년	3.3	0.7	4.8	8.8	(56)
3~5년	9.2	2.8	9.9	21.9	(574)
6~7년	15.9	7.4	7.5	30.8	(549)
자녀 나이					
0~2세	5.7	0.9	10.4	17.0	(402)
3세 이상	15.4	6.9	7.6	29.9	(776)
본인현재소득					
없음	10.1	3.9	0.5	14.5	(513)
250만 원 미만	11.8	4.7	7.8	24.3	(288)
250~350만 원 미만	13.6	5.1	20.4	39.1	(269)
350만 원 이상	18.2	9.2	19.5	46.9	(109)
종사상 지위					
상용직	13.8	5.6	23.9	43.3	(284)
임시·일용직	9.1	2.7	3.3	15.1	(26)
자영업·가족종사자	14.3	7.1	17.9	39.3	(52)
종사자수					
5인 미만	12.2	5.9	16.6	34.7	(73)
5~30명 미만	11.9	3.3	24.7	39.9	(68)
30~100명 미만	11.6	5.1	22.9	39.6	(107)
100명 이상	17.3	7.4	20.5	45.2	(1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둘째 자녀 이상의 월평균 양육 비용은⁶⁸⁾ ‘사교육 외 돌봄 서비스’는 6만 7000원,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은 3만 7000원, ‘사교육’은 1만 3000원의 순으로 총액은 11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총액은 광역시(14만 원), 40대(20만 2000원), 대학원 졸(49만 원),⁶⁹⁾ 혼인지속기간 6~7년(13만 1000원), 자녀 나이 3세 이상(15만 8000원), 현재 소득 250만 원 미만(18만 3000원),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가족종사자(36만 7000원),⁷⁰⁾ 종사자수 5인 미만(36만 7000원)에서 높은 특징이 있다.

‘사교육 외 돌봄 서비스’는 서울·경기 지역(7만 8000원), 40대(12만 5000원), 대학원 졸(32만 원), 혼인지속기간 6~7년(7만 9000원), 자녀 나이 3세 이상(10만 1000원), 현재 소득 250만 원 미만(10만 6000원),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14만 6000원), 종사자수 5인 미만(10만 4000원)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이 외에 돌봐주는 사람’은 광역시(5만 4000원), 40대(4만 2000원), 대학원 졸(6만 7000원), 혼인 연차가 6~7년 차(3만 7000원),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9만 3000원), 종사자수 5인 미만(23만 5000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 나이에서는 모두 3만 7000원으로 차이가 없었다. ‘사교육’은 서울·경기(1만 6000원), 40대(3만 5000원), 대학원 졸(10만 3000원), 혼인지속기간 6~7년(1만 5000원), 자녀 나이 3세 이상(2만 원),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2만 4000원),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4만 원), 종사자수 5인 미만(2만 8000원)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8) 양육 비용은 0원을 포함하여 평균한 금액을 나타냄.

69) 대학원 졸의 표본수가 9개인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70) 단,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가족종사자의 표본수가 적은 것에 유의해야 함.

〈표 9-10〉 양육 비용(월평균): 둘째 자녀 이상

(단위: 만 원, 명)

구분	사교육 외 돌봄서비스	사교육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	총액	(N)
전체	6.7	1.3	3.7	11.7	(415)
지역					
서울·경기	7.8	1.6	2.5	11.9	(173)
광역시	7.5	1.1	5.4	14.0	(114)
그 외	4.3	1.0	3.7	9.0	(128)
연령					
20대	5.1	1.8	1.7	8.6	(27)
30대	5.6	0.8	3.7	10.1	(323)
40대	12.5	3.5	4.2	20.2	(64)
학력					
고졸 이하	5.4	0.9	3.5	9.8	(69)
대졸	6.3	1.1	3.6	11.0	(337)
대학원 졸	32.0	10.3	6.7	49.0	(9)
혼인지속기간					
5년 이하	4.0	0.7	3.6	8.3	(131)
6~7년	7.9	1.5	3.7	13.1	(284)
자녀 나이					
0~2세	4.7	0.9	3.7	9.3	(265)
3세 이상	10.1	2.0	3.7	15.8	(150)
본인현재소득					
없음	5.4	0.9	0.2	6.5	(208)
250만 원 미만	10.6	2.4	5.3	18.3	(87)
250~350만 원 미만	6.1	1.1	7.9	15.1	(80)
350만 원 이상	5.9	1.2	9.3	16.4	(40)
종사상 지위					
상용직	6.6	0.9	10.6	18.1	(76)
임시·일용직	14.6	4.0	0.7	19.3	(8)
자영업·가족종사자	10.1	2.7	24.0	36.8	(15)
종사자수					
5인 미만	10.4	2.8	23.5	36.7	(23)
5~30명 미만	5.9	2.0	14.9	22.8	(10)
30~100명 미만	5.9	0.3	4.6	10.8	(34)
100명 이상	7.6	1.6	7.2	16.4	(3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자녀를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남편이 생각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12.7%, ‘대학교 졸업까지’가 45.9%, ‘취직할 때까지’가 28.1%, ‘결혼할 때까지’가 11.7%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한 비율은 그 외 지역(14.2%), 20대(20.0%), 고졸 이하(24.7%), 혼인지속기간이 3~5년(13.9%), 현재 소득이 250만원 미만(20.5%)인 경우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까지’라고 한 비율은 서울·경기 지역(49.9%), 30대(46.6%), 대학원 졸(50.6%), 혼인지속기간이 1~2년과 6~7년(각각 48.7%), 현재 소득이 350만원 이상(46.9%)일 경우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직할 때까지’는 광역시(34.6%), 30대(28.7%), 대졸(29.5%). 혼인지속기간이 3~5년(29.7%), 현재 소득이 250~350만원 미만(29.7%)일 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결혼할 때까지’는 광역시(14.2%), 40대 이상(12.8%), 고졸 이하(12.5%), 혼인 연차가 3~5년 차(12.9%), 현재 소득이 350만원 이상(12.4%)에서 높은 특징이 있다. 그 외에 ‘평생’이 1.0%, ‘손자녀 양육까지’가 0.5%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13.7%, ‘대학교 졸업까지’가 44.6%, ‘취직할 때까지’가 28.5%, ‘결혼할 때까지’가 11.3%로 나타나, 남편의 생각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한 비율은 서울·경기(14.6%), 40대(14.8%), 대학원 졸(25.7%), 혼인지속기간이 3~5년(15.3%), 현재 소득이 250만원 미만(15.6%)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까지’라고 한 경우는 서울·경기(46.1%), 40대(45.7%), 대학원 졸(46.3%), 혼인지속기간이 6~7년(48.4%), 현재 소득이 250~350만원 미만(45.4%)일 때 높다. ‘취직할 때까지’는 광역시(32.5%), 30대(29.2%), 대졸(29.2%), 혼인 연차가 3~5년 차(29.6%), 현재 소득이 350만원 이상(33.4%)에서 높은 특징이 있다. ‘결혼할 때까지’

의 경우는 그 외 지역(15.3%), 20대(13.3%), 고졸 이하(14.4%), 혼인지속기간이 3~5년(12.7%), 현재 소득 350만 원 이상(15.4%)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평생’이 1.5%, ‘손자녀 양육까지’가 0.4%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1〉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간(남편)

(단위: %, 명)

구분	고등학교 졸업까지	대학교 졸업까지	취직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자녀 양육까지	평생	계(%)	(N)
전체	12.7	45.9	28.1	11.7	0.5	1.0	100.0	(1,779)
지역								
서울·경기	12.6	49.9	27.3	9.4	0.5	0.3	100.0	(852)
광역시	11.2	38.4	34.6	14.2	-	1.6	100.0	(454)
그 외	14.2	46.0	23.4	13.5	1.1	1.7	100.0	(473)
연령 ($\chi^2=14.0$)								
20대	20.0	44.1	26.1	8.9	-	0.9	100.0	(125)
30대	11.5	46.6	28.7	11.6	0.6	0.8	100.0	(1,286)
40대 이상	14.2	44.0	26.8	12.8	0.4	1.8	100.0	(368)
학력 ($\chi^2=43.3^{***}$)								
고졸 이하	24.7	40.4	21.1	12.5	-	1.2	100.0	(226)
대졸	10.7	46.6	29.5	11.6	0.6	1.1	100.0	(1,496)
대학원 졸	18.2	50.6	19.9	11.3	-	-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8.3$)								
1~2년	11.0	48.7	28.4	9.6	0.4	2.0	100.0	(378)
3~5년	13.9	42.6	29.7	12.9	0.4	0.5	100.0	(806)
6~7년	12.1	48.7	25.9	11.4	0.8	1.1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20.1^*$)								
250만 원 미만	20.5	46.3	20.2	10.2	0.6	2.1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13.4	44.5	29.7	11.0	0.2	1.2	100.0	(671)
350만 원 이상	10.9	46.9	28.3	12.4	0.7	0.7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9-12〉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간(아내)

(단위: %, 명)

구분	고등학교 졸업까지	대학교 졸업까지	취직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자녀 양육까지	평생	계(%)	(N)
전체	13.7	44.6	28.5	11.3	0.4	1.5	100.0	(1,779)
지역 ($\chi^2=37.6^{***}$)								
서울·경기	14.6	46.1	29.7	7.9	0.3	1.4	100.0	(852)
광역시	12.7	40.6	32.5	13.4	-	0.8	100.0	(454)
그 외	13.0	45.8	22.4	15.3	0.9	2.6	100.0	(473)
연령 ($\chi^2=15.2$)								
20대	14.5	43.9	25.8	13.3	0.6	1.8	100.0	(345)
30대	13.2	44.6	29.2	11.5	0.2	1.2	100.0	(1,214)
40대	14.8	45.7	28.4	6.9	1.2	2.9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22.0	36.6	25.5	14.4	0.6	1.0	100.0	(277)
대졸	11.8	46.1	29.2	11.0	0.3	1.7	100.0	(1,463)
대학원 졸	25.7	46.3	23.9	-	4.2	-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5.7$)								
1~2년	12.2	46.3	28.1	10.5	0.7	2.2	100.0	(378)
3~5년	15.3	41.0	29.6	12.7	0.1	1.2	100.0	(806)
6~7년	12.5	48.4	27.1	9.8	0.6	1.6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21.4^*$)								
250만 원 미만	15.6	44.2	26.7	11.5	0.4	1.5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12.7	45.4	30.3	9.5	0.3	1.8	100.0	(529)
350만 원 이상	5.0	44.7	33.4	15.4	0.5	1.0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자녀 양육에서 힘든 점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돌봄 및 교육 비용’이 37.6%, ‘없음’이 22.7%, ‘의식주 비용’이 11.9%, ‘체력’이 11.2%로 나타났다. ‘돌봄 및 교육 비용’의 경우는 그 외 지역(42.8%), 30대(38.7%), 고졸 이하(40.9%), 혼인 연차가 6~7년 차(39.5%),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40.5%)에서 높게 나타났다. ‘없음’은 서울·경기

(23.9%), 20대(28.4%), 대졸(24.3%), 혼인지속기간이 3~5년(24.4%),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24.1%)에서 높은 편이다. '의식주 비용'은 광역시(13.7%), 30대(12.6%), 고졸 이하(15.5%), 혼인지속기간이 6~7년(12.4%),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15.7%)일 경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력'의 경우 광역시(12.2%), 20대(17.7%), 대학원 졸(22.0%), 혼인지속기간이 1~2년(22.1%),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17.1%)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진학·가정 교육'이 9.9%, '나의 일을 하지 못함'이 6.7%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돌봄 및 교육 비용'이 28.0%로 가장 높은 것이 남편과 유사하다. 그러나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체력'으로 24.8%이고, '나의 일을 하지 못함'이 18.0%, '없음'이 16.7%로 나타났다. '돌봄 및 교육 비용'은 그 외 지역(32.7%), 30대(29.2%), 고졸 이하(37.8%), 혼인지속기간이 6~7년(31.9%),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33.9%)의 경우 높은 편이다. '체력'은 서울·경기(27.3%), 20대(26.4%), 대졸(26.0%), 혼인 연차가 1~2년(39.3%),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26.9%)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나의 일을 하지 못함'의 경우, 광역시(21.7%), 40대(24.9%), 대졸(18.8%), 혼인지속기간이 3~5년(19.2%),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27.8%)에서 높게 나타났다. '없음'은 그 외 지역(20.1%), 20대(22.5%), 고졸 이하(17.4%), 혼인지속기간이 3~5년(17.4%),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17.3%)의 경우 높은 경향이 있다. 이 외 '진학·가정 교육'이 6.4%, '의식주 비용'이 6.1%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편의 경우 경제적인 비용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라고 선택한 반면, 아내의 경우는 비용 뿐만 아니라 체력과 경력 단절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또한 경력 단절 요인은 현재 소득이 높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표 9-13〉 자녀 양육에서 가장 힘든 점(남편)

(단위: %, 명)

	돌봄 및 교육 비용	의식주 비용	진학· 가정 교육	체력	나의 일을 하지 못함	기타	없음	계(%)	(N)
전체	37.6	11.9	9.9	11.2	6.7	-	22.7	100.0	(1,178)
지역 ($\chi^2=12.8$)									
서울·경기	34.0	12.7	10.7	11.9	6.7	-	23.9	100.0	(551)
광역시	38.9	13.7	9.1	12.2	6.4	-	19.7	100.0	(309)
그 외	42.8	8.7	9.2	8.8	7.1	-	23.4	100.0	(318)
연령 ($\chi^2=14.2$)									
20대	18.8	8.0	15.8	17.7	11.3	-	28.4	100.0	(33)
30대	38.7	12.6	8.8	10.1	6.6	-	23.2	100.0	(831)
40대 이상	36.8	10.4	12.1	13.4	6.7	-	20.6	100.0	(314)
학력 ($\chi^2=19.6^*$)									
고졸 이하	40.9	15.5	12.2	11.4	7.8	-	12.2	100.0	(133)
대졸	37.6	11.5	9.3	10.7	6.6	-	24.3	100.0	(1,008)
대학원 졸	27.0	8.2	18.5	22.0	6.8	-	17.5	100.0	(38)
혼인지속기간 ($\chi^2=10.3$)									
1~2년	28.3	10.4	9.7	22.1	8.1	-	21.4	100.0	(56)
3~5년	36.8	11.5	10.4	10.8	6.1	-	24.4	100.0	(574)
6~7년	39.5	12.4	9.3	10.5	7.3	-	21.0	100.0	(549)
본인현재소득 ($\chi^2=23.4^{**}$)									
250만 원 미만	31.1	15.7	13.7	17.1	8.8	-	13.5	100.0	(72)
250~350만 원 미만	40.5	15.4	8.2	7.9	6.1	-	21.9	100.0	(400)
350만 원 이상	36.7	9.5	10.4	12.4	6.9	-	24.1	100.0	(70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9-14〉 자녀 양육에서 가장 힘든 점(아내)

(단위: %, 명)

	돌봄 및 교육 비용	의식주 비용	진학· 가정 교육	체력	나의 일을 하지 못함	기타	없음	계(%)	(N)
전체	28.0	6.1	6.4	24.8	18.0	-	16.7	100.0	(1,178)
지역 ($\chi^2=23.4^{**}$)									
서울·경기	26.5	7.1	5.7	27.3	18.0	-	15.4	100.0	(551)
광역시	25.9	3.9	6.3	26.7	21.7	-	15.6	100.0	(309)
그 외	32.7	6.7	7.8	18.5	14.3	-	20.1	100.0	(318)
연령 ($\chi^2=16.4$)									
20대	22.4	7.5	3.8	26.4	17.5	-	22.5	100.0	(142)
30대	29.2	6.0	7.3	24.4	16.6	-	16.4	100.0	(862)
40대	26.6	5.6	4.0	25.4	24.9	-	13.5	100.0	(175)
학력 ($\chi^2=31.6^{***}$)									
고졸 이하	37.8	4.5	6.4	20.0	13.9	-	17.4	100.0	(192)
대졸	26.3	6.1	6.1	26.0	18.8	-	16.8	100.0	(961)
대학원 졸	20.1	21.6	18.2	13.4	17.4	-	9.3	100.0	(25)
혼인지속기간 ($\chi^2=20.8^*$)									
1~2년	23.4	2.3	2.0	39.3	18.5	-	14.5	100.0	(56)
3~5년	24.7	6.2	5.7	26.7	19.2	-	17.4	100.0	(574)
6~7년	31.9	6.5	7.6	21.3	16.6	-	16.2	100.0	(549)
본인현재소득 ($\chi^2=33.2^{***}$)									
250만 원 미만	25.9	7.5	7.1	26.9	15.3	-	17.3	100.0	(801)
250~350만 원 미만	33.9	2.6	4.1	22.1	21.8	-	15.4	100.0	(269)
350만 원 이상	28.9	5.1	7.2	15.4	27.8	-	15.5	100.0	(10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사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⁷¹⁾ 남편의 가사 분담 비율은 34.1%로 나타났고, 서울·경기 지역이 36.1%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사 분담 비율이 높아지며, 맞벌이(38.3%)를 하는 경우가 외벌이(31.7%)보다 가사 분담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소득이 낮아지면서 분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자영업·가족종사자가 35.1%, 종사자수 5~30명 미만에서 35.2%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가사 분담 비율은 65.9%로 나타나 남편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⁷²⁾

〈표 9-15〉 가사 분담 비율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본인 비율	(N)	본인 비율	(N)
전체	34.1	(1,779)	65.9	(1,779)
지역				
서울·경기	36.1	(852)	63.9	(852)
광역시	31.3	(454)	68.7	(454)
그 외	33.2	(473)	66.8	(473)
연령				
20대	38.7	(125)	62.9	(345)
30대	34.8	(1,286)	66.0	(1,214)
40대	30.1	(368)	69.7	(220)

71) 가사 분담 비율은 가구 대표자에게 질문한 것으로 배우자의 비율은 100%에서 본인의 비율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음.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비율 합이 100%가 되지만, 이것은 총샘플일 경우에만 타당하며, 남편과 아내의 속성이 다를 경우에는 100%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72)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사 분담 비율은 100%에서 차감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아내의 가사 분담 경향은 남편의 경향과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함.

구분	남편		아내	
	본인 비율	(N)	본인 비율	(N)
학력				
고졸 이하	33.6	(226)	70.0	(277)
대졸	34.0	(1,496)	65.5	(1,463)
대학원 졸	39.4	(56)	52.8	(40)
혼인지속기간				
1~2년	39.5	(378)	60.5	(378)
3~5년	34.0	(806)	66.0	(806)
6~7년	30.9	(595)	69.1	(595)
자녀수				
0명	40.4	(601)	59.6	(601)
1명	31.5	(764)	68.5	(764)
2명 이상	29.9	(415)	70.1	(4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3	(613)	61.7	(613)
외벌이	31.7	(932)	68.3	(932)
본인현재소득				
없음	61.5	(25)	71.4	(586)
250만 원 미만	39.7	(128)	66.1	(483)
250~350만 원 미만	33.5	(671)	62.1	(529)
350만 원 이상	33.1	(955)	58.6	(181)
종사상 지위				
상용직	33.1	(1,218)	60.2	(627)
임시·일용직	24.8	(10)	66.6	(39)
자영업·가족종사자	35.1	(176)	61.6	(88)
종사자수				
5인 미만	33.9	(182)	63.6	(134)
5~30명 미만	35.2	(292)	62.7	(172)
30~100명 미만	32.7	(392)	60.0	(214)
100명 이상	32.4	(525)	58.7	(2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육아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⁷³⁾ 남편의 육아 분담 비율은 36.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그 외 지역(37.5%), 연령이 40대(37.1%), 학력이 대졸(36.8%), 혼인 연차가 3~5년(37.8%)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의 경우는 1명과 2명 이상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2명 이상 일 경우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1명: 36.2%, 2명 이상: 37.0%). 그리고 맞벌이(39.0%)의 경우가 외벌이(35.3%)보다 비율이 높고,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3%로 다른 층보다 높으며⁷⁴⁾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가족종사자(41.3%), 종사자수가 5인 미만(39.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육아 분담 비율은 63.5%로 나타났다.

〈표 9-16〉 육아 분담 비율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본인 비율	(N)	본인 비율	(N)
전체	36.5	(1,178)	63.5	(1,178)
지역				
서울·경기	36.7	(551)	63.3	(551)
광역시	35.1	(309)	64.9	(309)
그 외	37.5	(318)	62.6	(318)
연령				
20대	36.8	(33)	61.6	(142)
30대	36.2	(831)	64.7	(862)
40대	37.1	(314)	59.1	(175)
학력				
고졸 이하	35.4	(133)	67.5	(192)
대졸	36.8	(1,008)	62.9	(961)
대학원 졸	33.0	(38)	58.0	(25)

73) 육아 분담 비율은 자녀가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가사 분담과 동일하게 100%에서 차감하여 아내의 분담비율을 산출하였음. 따라서 가사 분담 비율과 동일하게 아내의 경향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함.

74) 남편의 표본 중 소득이 없는 경우는 12개로 매우 적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하였음.

구분	남편		아내	
	본인 비율	(N)	본인 비율	(N)
혼인지속기간				
1~2년	35.0	(56)	65.0	(56)
3~5년	37.8	(574)	62.2	(574)
6~7년	35.3	(549)	64.7	(549)
자녀수				
1명	36.2	(764)	63.8	(764)
2명 이상	37.0	(415)	63.0	(4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0	(293)	61.0	(293)
외벌이	35.3	(727)	64.7	(727)
본인현재소득				
없음	55.1	(12)	65.2	(513)
250만 원 미만	38.3	(60)	64.2	(288)
250~350만 원 미만	35.4	(400)	63.2	(269)
350만 원 이상	36.6	(706)	54.6	(109)
종사상 지위				
상용직	35.3	(819)	61.0	(284)
임시·일용직	22.8	(4)	59.5	(26)
자영업·가족종사자	41.3	(128)	60.1	(52)
종사자수				
5인 미만	39.8	(126)	60.2	(73)
5~30명 미만	34.7	(185)	65.5	(68)
30~100명 미만	35.3	(261)	59.9	(107)
100명 이상	36.0	(368)	60.0	(1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평일 남편의 가사 시간은 하루 평균 66.1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68.6분), 학력이 고졸 이하(74.7분), 외벌이(64.9분), 종사자수가 5~30명 미만(65.6분)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⁷⁵⁾

반면, 아내는 하루 평균 162.2분으로 남편보다 96.1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174.9분), 연령에서는 30대(166.5분), 외벌이(185.8분),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188.9분),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187.2분), 종사자수가 5인 미만(140.8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적을수록 가사 시간이 짧아지는 특징이 있다.

종합하면, 남편의 평일 가사 시간은 서울·경기 지역의 20대로 고졸 이하이면서 혼인 연차가 1~2년 차, 자녀가 없거나 외벌이를 하고, 소득이 낮으면서 종사자수가 5~30명 미만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긴 것을 알 수 있다. 아내는 광역시의 30대로 고졸 이하에 혼인 연차가 6~7년이고, 자녀가 2명 이상에 외벌이를 하고, 소득이 낮고 임시·일용직이면서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 가사 시간이 긴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7〉 가사 시간(평일)

(단위: 분, 명)

구분	남편		아내	
	평균 시간	(N)	평균 시간	(N)
전체	66.1	(1,779)	162.2	(1,779)
지역				
서울·경기	68.6	(852)	148.5	(852)
광역시	63.8	(454)	174.9	(454)
그 외	63.7	(473)	174.7	(473)
연령				
20대	76.7	(125)	148.2	(345)
30대	70.6	(1,286)	166.5	(1,214)
40대	46.6	(368)	160.5	(220)

75) 종사상 지위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본수가 10개로 매우 적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하였음.

구분	남편		아내	
	평균 시간	(N)	평균 시간	(N)
학력				
고졸 이하	74.7	(226)	181.7	(277)
대졸	64.5	(1,496)	158.8	(1,463)
대학원 졸	71.8	(56)	154.5	(40)
혼인지속기간				
1~2년	75.6	(378)	126.6	(378)
3~5년	65.4	(806)	164.4	(806)
6~7년	60.9	(595)	182.0	(595)
자녀수				
0명	79.0	(601)	128.4	(601)
1명	60.0	(764)	174.3	(764)
2명 이상	58.6	(415)	189.0	(4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6	(613)	115.3	(613)
외벌이	64.9	(932)	185.8	(932)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110.8	(153)	188.9	(1,069)
250~350만 원 미만	70.2	(671)	119.3	(529)
350만 원 이상	56.0	(955)	130.5	(181)
종사상 지위				
상용직	58.5	(1,218)	110.7	(627)
임시·일용직	95.9	(10)	187.2	(39)
자영업·가족종사자	65.6	(176)	129.8	(88)
종사자수				
5인 미만	62.8	(182)	140.8	(134)
5~30명 미만	65.6	(292)	130.0	(172)
30~100명 미만	56.7	(392)	97.1	(214)
100명 이상	56.7	(525)	112.7	(2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주말 가사 시간(하루 평균)은 116.8분으로 평일의 66.1분보다 50.7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 시간이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대학원 졸(122.6분), 혼인 연차가 3~5년(121.6분), 맞벌이(115.8분), 종사자수가 5~30명 미만(118.7분)에서 긴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는 205.2분으로 평일의 162.2분보다 43.0분 증가했고, 남편보다 88.4분 더 많이 가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218.6분), 학력이 고졸 이하(218.2분), 외벌이(215.6분),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215.4분),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216.2분), 종사자수가 5인 미만(211.2분)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가사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가사 시간에서도 평일에 나타났던 것처럼 남편은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사 시간이 길어지고, 아내는 짧아지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주말 가사 시간은 서울·경기 지역의 20대로 대학원 졸, 혼인 연차와 소득이 낮고, 자녀가 적고 맞벌이를 하며, 종사자수가 5~30명 미만인 직장에 근무하는 남편이 긴 경향이 있고, 광역시의 40대로 고졸 이하, 혼인 연차가 높고 소득이 낮으며, 자녀가 많고 외벌이면서 임시·일용직으로 5인 미만의 직장에 근무하는 아내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8〉 가사 시간(주말)

(단위: 분, 명)

구분	남편		아내	
	평균 시간	(N)	평균 시간	(N)
전체	116.8	(1,779)	205.2	(1,779)
지역				
서울·경기	124.6	(852)	192.1	(852)
광역시	110.5	(454)	218.6	(454)
그 외	108.9	(473)	216.0	(473)
연령				

구분	남편		아내	
	평균 시간	(N)	평균 시간	(N)
20대	129.4	(125)	192.9	(345)
30대	120.2	(1,286)	207.9	(1,214)
40대	100.5	(368)	209.8	(220)
학력				
고졸 이하	120.1	(226)	218.2	(277)
대졸	116.1	(1,496)	202.6	(1,463)
대학원 졸	122.6	(56)	210.9	(40)
혼인지속기간				
1~2년	121.5	(378)	182.7	(378)
3~5년	121.6	(806)	202.8	(806)
6~7년	107.4	(595)	222.8	(595)
자녀수				
0명	126.8	(601)	185.0	(601)
1명	115.4	(764)	212.3	(764)
2명 이상	104.9	(415)	221.5	(4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5.8	(613)	183.3	(613)
외벌이	112.5	(932)	215.6	(932)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153.3	(153)	215.4	(1,069)
250~350만 원 미만	115.7	(671)	189.0	(529)
350만 원 이상	111.7	(955)	192.4	(181)
종사상 지위				
상용직	111.3	(1,218)	184.5	(627)
임시·일용직	113.9	(10)	216.2	(39)
자영업·가족종사자	110.8	(176)	194.7	(88)
종사자수				
5인 미만	111.0	(182)	211.2	(134)
5~30명 미만	118.7	(292)	192.7	(172)
30~100명 미만	106.5	(392)	157.1	(214)
100명 이상	108.3	(525)	196.1	(2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하루 평균 육아시간에 대해 살펴보면⁷⁶⁾ 남편은 114.8분으로 나타났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 쪽으로 올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육아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이 대학원 졸(217.0분), 혼인 연차가 3~5년(128.1분), 자녀수가 2명 이상(116.8분), 외벌이(114.5분),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가족종사자(108.5분), 종사자수가 5~30명 미만(109.8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경우는 374.7분으로 남편보다 259.9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남편과 유사하게 서울·경기 지역으로 올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가사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 자녀가 2명 이상(396.6분), 외벌이(427.5분),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262.8분), 종사자수가 5인 미만(246.7분)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종합하면, 서울·경기 지역의 20대로 대학원 졸에 혼인 연차가 3~5년 차, 자녀수가 2명 이상에 외벌이로 현재 소득이 낮고, 자영업·가족종사자에 5~30명 미만의 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경우 육아시간이 길고, 서울·경기 지역의 20대로 대학원 졸에 혼인 연차가 짧으며, 자녀가 2명 이상 있고, 외벌이에 소득이 낮고⁷⁷⁾ 5인 미만의 기업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내의 경우 육아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76) 자녀가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함.

77) 250만 원 미만 층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의 육아시간은 475.6분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250만 원 미만의 333.2분보다 긴 것을 볼 수 있음.

〈표 9-19〉 육아시간(평일)

(단위: 분, 명)

구분	남편		아내	
	평균 시간	(N)	평균 시간	(N)
전체	114.8	(1,178)	374.7	(1,178)
지역				
서울·경기	121.7	(551)	394.7	(551)
광역시	109.4	(309)	378.9	(309)
그 외	108.2	(318)	335.8	(318)
연령				
20대	150.5	(33)	420.6	(142)
30대	118.7	(831)	379.9	(862)
40대	100.6	(314)	311.8	(175)
학력				
고졸 이하	121.4	(133)	364.8	(192)
대졸	110.1	(1,008)	374.0	(961)
대학원 졸	217.0	(38)	476.3	(25)
혼인지속기간				
1~2년	109.7	(56)	490.8	(56)
3~5년	128.1	(574)	407.5	(574)
6~7년	101.4	(549)	328.6	(549)
자녀수				
1명	113.7	(764)	362.7	(764)
2명 이상	116.8	(415)	396.6	(4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0.4	(293)	228.9	(293)
외벌이	114.5	(727)	427.5	(727)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217.0	(72)	430.7	(801)
250~350만 원 미만	112.0	(400)	259.2	(269)
350만 원 이상	106.0	(706)	247.6	(109)
종사상 지위				
상용직	107.3	(819)	227.8	(284)
임시·일용직	81.8	(4)	262.8	(26)
자영업·가족종사자	108.5	(128)	242.4	(52)
종사자수				
5인 미만	99.4	(126)	246.7	(73)
5~30명 미만	109.8	(185)	231.6	(68)
30~100명 미만	106.8	(261)	211.0	(107)
100명 이상	108.4	(368)	246.6	(1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주말 평균 육아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246.9분으로 평일(114.8분)보다 132.1분 더 육아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291.3분), 자녀가 2명 이상(248.6분), 맞벌이(256.4분),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288.4분),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245.9분), 종사자수가 5~30명 미만(254.2분)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육아시간이 감소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주말 육아시간은 430.6분으로 남편보다 183.7분 더 길고, 평일보다 55.9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으로 올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와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육아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연령이 30대(443.4분), 자녀수가 2명 이상(437.9분), 외벌이(441.9분), 상용직(396.3분), 종사자수가 5~30명 미만(410.5분)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남편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20대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혼인한 지 1~2년 정도에 맞벌이를 하며 현재 소득이 비교적 낮고 상용직에 5~30명 미만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육아시간이 길고, 아내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30대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혼인한 지 1~2년 정도에 외벌이를 하며 현재 소득이 비교적 낮고 상용직으로 5~30인 미만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 긴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0〉 육아시간(주말)

(단위: 분, 명)

구분	남편		아내	
	평균 시간	(N)	평균 시간	(N)
전체	246.9	(1,178)	430.6	(1,178)
지역				
서울·경기	291.3	(551)	440.1	(551)
광역시	205.2	(309)	438.7	(309)
그 외	210.7	(318)	406.2	(318)
연령				
20대	271.1	(33)	416.9	(142)
30대	252.5	(831)	443.4	(862)
40대	229.7	(314)	378.2	(175)
학력				
고졸 이하	207.2	(133)	419.3	(192)
대졸	249.2	(1,008)	430.0	(961)
대학원 졸	325.8	(38)	537.9	(25)
혼인지속기간				
1~2년	259.8	(56)	472.7	(56)
3~5년	253.1	(574)	448.0	(574)
6~7년	239.2	(549)	408.1	(549)
자녀수				
1명	246.1	(764)	426.6	(764)
2명 이상	248.6	(415)	437.9	(4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6.4	(293)	385.6	(293)
외벌이	241.3	(727)	441.9	(727)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288.4	(72)	450.4	(801)
250~350만 원 미만	240.3	(400)	391.2	(269)
350만 원 이상	246.5	(706)	381.6	(109)
종사상 지위				
상용직	245.9	(819)	396.3	(284)
임시·일용직	150.7	(4)	347.4	(26)
자영업·가족종사자	225.2	(128)	343.8	(52)

구분	남편		아내	
	평균 시간	(N)	평균 시간	(N)
종사자수				
5인 미만	216.2	(126)	354.4	(73)
5~30명 미만	254.2	(185)	410.5	(68)
30~100명 미만	236.3	(261)	377.3	(107)
100명 이상	247.8	(368)	400.0	(1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2절 일·가정 양립

본 절에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현재 다니는 직장 또는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대체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율⁷⁸⁾이 남편은 29.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그 외 지역(36.2%), 연령이 30대(30.5%)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광역시(11.0%), 연령이 20대(19.1%), 학력이 고졸 이하(24.1%), 혼인 연차가 3~5년(9.9%),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18.6%)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는 27.3%로 나타나 남편보다 2.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78)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다. 이 외에 연령이 30대에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광역시(14.0%), 연령이 20대(12.5%), 학력이 대학원 졸(22.9%), 혼인 연차가 1~2년(13.5%),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14.7%), 종사자수가 5인 미만(16.5%)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9-2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남편)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8.8	24.8	36.6	26.3	3.4	100.0	(1,576)
지역 ($\chi^2=24.1^{**}$)							
서울·경기	6.9	25.5	39.7	25.4	2.4	100.0	(771)
광역시	11.0	25.9	36.4	23.2	3.5	100.0	(400)
그 외	10.4	22.4	31.0	30.9	5.3	100.0	(404)
연령 ($\chi^2=22.3^{**}$)							
20대	19.1	22.3	28.2	25.6	4.8	100.0	(108)
30대	8.4	24.2	36.9	26.8	3.7	100.0	(1,133)
40대 이상	7.0	27.8	38.5	24.6	2.2	100.0	(336)
학력 ($\chi^2=81.2^{***}$)							
고졸 이하	24.1	21.3	26.4	24.1	4.2	100.0	(197)
대졸	6.4	25.3	38.6	26.6	3.1	100.0	(1,332)
대학원 졸	13.1	26.6	24.4	26.1	9.8	100.0	(46)
혼인지속기간 ($\chi^2=19.0^*$)							
1~2년	8.9	19.3	35.1	31.4	5.3	100.0	(324)
3~5년	9.9	25.3	35.2	26.3	3.3	100.0	(700)
6~7년	7.5	27.5	39.4	23.2	2.4	100.0	(552)
본인현재소득 ($\chi^2=43.2^{***}$)							
250만 원 미만	18.6	30.3	30.2	17.4	3.5	100.0	(117)
250~350만 원 미만	11.1	25.8	37.9	21.7	3.7	100.0	(593)
350만 원 이상	6.0	23.4	36.7	30.6	3.3	100.0	(86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9-2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아내)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10.3	30.7	31.7	24.8	2.5	100.0	(1,507)
지역 ($\chi^2=44.3^{***}$)							
서울·경기	6.8	35.0	33.5	23.4	1.2	100.0	(741)
광역시	14.0	28.8	28.9	25.8	2.5	100.0	(376)
그 외	13.3	24.2	31.0	26.6	4.9	100.0	(390)
연령 ($\chi^2=19.4^*$)							
20대	12.5	27.7	34.1	22.9	2.8	100.0	(273)
30대	9.8	29.5	31.5	26.9	2.3	100.0	(1,044)
40대	10.1	41.2	29.6	16.1	3.0	100.0	(191)
학력 ($\chi^2=84.1^{***}$)							
고졸 이하	22.3	33.0	26.3	16.9	1.5	100.0	(234)
대졸	7.7	30.7	32.8	26.5	2.4	100.0	(1,243)
대학원 졸	22.9	11.8	30.4	20.0	14.8	100.0	(31)
혼인지속기간 ($\chi^2=27.4^{**}$)							
1~2년	13.5	22.3	32.3	28.2	3.8	100.0	(317)
3~5년	9.5	32.0	29.5	26.3	2.8	100.0	(675)
6~7년	9.4	34.2	34.2	20.9	1.3	100.0	(516)
본인현재소득 ($\chi^2=98.8^{***}$)							
250만 원 미만	14.7	34.3	30.9	18.8	1.3	100.0	(878)
250~350만 원 미만	4.6	26.5	33.9	31.6	3.5	100.0	(478)
350만 원 이상	3.0	22.8	29.4	38.9	5.9	100.0	(151)
종사자수 ($\chi^2=66.8^{***}$)							
5인 미만	16.5	36.4	25.8	15.8	5.4	100.0	(134)
5~30명 미만	11.0	28.0	32.4	28.5	-	100.0	(172)
30~100명 미만	4.8	23.8	30.3	38.2	3.0	100.0	(214)
100명 이상	2.2	20.2	34.5	37.0	6.0	100.0	(22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10점 척도⁷⁹⁾를 기준으로 남편은 5.7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에서 5.9점으로 제일 높고, 그 외 지역이 5.8점, 서울·경기 지역에서 5.6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5.5점, 30, 40대 이상은 5.7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에서 6.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는데, 1~2년 차(5.4점)와 6~7년 차(6.0점)의 점수 차이는 0.6점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를 살펴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6.1점, 1명일 때 5.8점, 0명일 때 5.2명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5.9점), 종사자수가 5인 미만(5.9점)일 때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6.4점으로 남편의 5.7점에 비하여 0.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가 6.5점으로 가장 높고(서울·경기: 6.4점, 그 외: 6.2점), 연령별로는 30, 40대에서 6.4점으로 20대의 6.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지속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한편, 종사자수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지만, 100명 이상(6.3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학력이 높고, 혼인 연차가 높고, 자녀가 많을수록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이 어렵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79) 1로 갈수록 '그렇지 않다', 10으로 갈수록 '그렇다'의 의미를 지님.

〈표 9-23〉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

(단위: 점, 명)

구분	남편		아내	
	점수	(N)	점수	(N)
전체	5.7	(1,576)	6.4	(1,507)
지역				
서울·경기	5.6	(771)	6.4	(741)
광역시	5.9	(400)	6.5	(376)
그 외	5.8	(404)	6.2	(390)
연령				
20대	5.5	(108)	6.1	(273)
30대	5.7	(1,133)	6.4	(1,044)
40대	5.7	(336)	6.4	(191)
학력				
고졸 이하	5.7	(197)	6.1	(234)
대졸	5.7	(1,332)	6.4	(1,243)
대학원 졸	6.1	(46)	6.9	(31)
혼인지속기간				
1~2년	5.4	(324)	5.8	(317)
3~5년	5.7	(700)	6.4	(675)
6~7년	6.0	(552)	6.6	(516)
자녀수				
0명	5.2	(513)	5.8	(497)
1명	5.8	(684)	6.6	(647)
2명 이상	6.1	(379)	6.8	(363)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5.7	(117)	6.5	(878)
250~350만 원 미만	5.9	(593)	6.3	(478)
350만 원 이상	5.6	(866)	5.7	(151)
종사자수				
5인 미만	5.9	(182)	6.2	(134)
5~30명 미만	5.6	(292)	5.9	(172)
30~100명 미만	5.6	(392)	6.1	(214)
100명 이상	5.8	(525)	6.3	(220)

주: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10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직장과 가정생활의 중요도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편은 직장이 58.4%, 가정이 41.6%로 직장을 16.8%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가 60.2%, 40대 이상에서 59.6%, 대졸이 58.6%, 혼인지속기간이 1~2년일 경우 58.7%, 자녀가 1명일 경우 58.7%,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이 59.1%로 다른 범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직장이 44.5%, 가정이 55.5%로 가정을 11.0%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더욱 중요시하는 남편과 비교하면, 남편보다 13.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결과에서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광역시에서 56.8%, 30대가 56.0%, 대학원 졸이 58.3%, 혼인 연차가 3년 차 이상⁸⁰⁾의 경우 56.8%,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60.0%,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는 자녀수에 따른 직장 과 가정생활 병행의 중요도에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아내의 경우는 자녀가 많을수록 가정의 중요도가 커지는 경향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반면 종사자수에 따른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표 9-24〉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의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직장	가정	계(%)	(N)	직장	가정	계(%)	(N)
전체	58.4	41.6	100.0	(1,779)	44.5	55.5	100.0	(1,779)
지역								
서울·경기	58.2	41.8	100.0	(852)	44.8	55.3	100.0	(852)
광역시	60.2	39.8	100.0	(454)	43.2	56.8	100.0	(454)

80) 6~7년 차 포함.

346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남편				아내			
	직장	가정	계(%)	(N)	직장	가정	계(%)	(N)
그 외	57.0	43.0	100.0	(473)	45.3	54.8	100.0	(473)
연령								
20대	53.1	46.9	100.0	(125)	45.3	54.7	100.0	(345)
30대	58.5	41.5	100.0	(1,286)	44.0	56.0	100.0	(1,214)
40대	59.6	40.4	100.0	(368)	45.9	54.1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57.2	42.8	100.0	(226)	41.9	58.1	100.0	(277)
대졸	58.6	41.4	100.0	(1,496)	45.1	55.0	100.0	(1,463)
대학원 졸	56.0	44.1	100.0	(56)	41.7	58.3	100.0	(40)
혼인지속기간								
1~2년	58.7	41.3	100.0	(378)	49.4	50.6	100.0	(378)
3~5년	58.2	41.8	100.0	(806)	43.2	56.8	100.0	(806)
6~7년	58.4	41.6	100.0	(595)	43.2	56.8	100.0	(595)
자녀수								
0명	58.1	41.9	100.0	(601)	50.8	49.2	100.0	(601)
1명	58.7	41.3	100.0	(764)	41.9	58.1	100.0	(764)
2명 이상	58.1	41.9	100.0	(415)	40.0	60.0	100.0	(41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50.8	49.2	100.0	(153)	40.7	59.4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59.0	41.0	100.0	(671)	50.2	49.8	100.0	(529)
350만 원 이상	59.1	40.9	100.0	(955)	50.3	49.7	100.0	(181)
종사자수								
5인 미만	59.3	40.7	100.0	(182)	51.6	48.5	100.0	(134)
5~30명 미만	59.3	40.7	100.0	(292)	49.6	50.4	100.0	(172)
30~100명 미만	59.2	40.8	100.0	(392)	51.9	48.1	100.0	(214)
100명 이상	59.5	40.6	100.0	(525)	50.5	49.5	100.0	(220)

주: 100을 기준으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중요도를 비율로 응답함. 예를 들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50%, 50%로 응답되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신혼부부가 임신·출산한 이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당시 일자리 경험에 있는 경우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자녀 양육에서 남편과 아내의 가사·육아 시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분석 중 미취학 자녀의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정리하면, 첫째 자녀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정 민간 어린이집’이 37.5%로 가장 높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15.6%, ‘사립 유치원’이 13.9%로 나타나고, 둘째 자녀의 경우는 ‘가정 민간 어린이집’이 39.7%로 가장 높고, ‘이용 안 함’이 36.4%, ‘국공립 어린이집’이 16.4%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정리하면, 첫째 자녀는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69.2%, 다음으로 ‘학습지’가 15.0%, ‘시간제 학원’이 13.2%, ‘반일제 이상 학원’이 7.3%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이들은 주로 서울·경기 지역에 살며, 40대로 고졸 이하 및 대졸자이며, 혼인한 이후 6~7년이 지나서 자녀 나이가 3세 이상 정도 되었을 때 그리고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이며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가족종사자로 종사자수 5인 미만에 근무하는 아내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습지’는 7.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돌봄 서비스 기관 또는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시간 이외에도 자녀의 돌봄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 첫째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부모’가 79.3%, ‘조부모 및 삼촌·이모 등’은 28.6%, 둘째 자녀도 첫째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8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조부

모 및 삼촌·이모 등'으로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되어 첫째 자녀의 평균 양육 비용은 '사교육 외 돌봄 서비스'는 12만 1000원,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은 8만 6000원, '사교육'은 4만 8000원의 순으로 총액은 25만 5000원, 둘째 자녀는 '사교육 외 돌봄 서비스'는 6만 7000원,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은 3만 7000원, '사교육'은 1만 3000원의 순으로 총액은 11만 6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12.7%, '대학교 졸업까지'가 45.9%, '취직할 때까지'가 28.1%, '결혼할 때까지'가 11.7%로 조사되었다. 아내도 남편과 유사한 수준과 경향을 나타냈는데,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13.7%, '대학교 졸업까지'가 44.6%, '취직할 때까지'가 28.5%, '결혼할 때까지'가 11.3%로 보고되었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서 힘든 점에 대해서 남편은 '돌봄 및 교육 비용'이 37.6%, '없음'이 22.7%, '의식주 비용'이 11.9%, '체력'이 11.2%, '진학·가정 교육'이 9.9%, '나의 일을 하지 못함'이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는 '돌봄 및 교육 비용'이 28.0%로 가장 높다는 점은 남편과 유사하나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체력'으로 24.8%이고, '나의 일을 하지 못함'이 18.0%, '없음'이 16.7%, '진학·가정 교육'이 6.4%, '의식주 비용'이 6.1%의 순이었다. 대다수의 남편이 돌봄 및 교육 등의 경제적인 비용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라고 선택한 반면, 아내는 비용뿐만 아니라 체력과 경력 단절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경력 단절 요인은 현재 소득이 높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사 및 육아 관련 사항에 대해 분석

한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가사 분담 비율은 남편 34.1%, 아내 65.9%, 육아 분담 비율은 남편이 36.5%, 아내가 63.5%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평일 남편의 가사 시간은 하루 평균 66.1분, 아내는 162.2분으로 나타났고, 서울·경기 지역의 20대로 고졸 이하이면서 혼인 연차가 1~2년 차, 자녀가 없거나 외벌이를 하고, 소득이 낮으면서 종사자수가 5~30명 미만의 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경우 긴 것을 알 수 있다. 아내는 광역시의 30대로 고졸 이하에 혼인 연차가 6~7년이고, 자녀가 2명 이상에 외벌이를 하고, 소득이 낮고 임시·일용직이면서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 가사 시간이 긴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말의 경우 남편은 116.8분, 아내는 205.2분으로 나타나 남편은 평일보다 주말에 50.7분, 아내는 43.0분 늘어났고, 남편에 비하여 아내가 88.4분 주말에 가사를 더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말 가사 시간의 경우, 남편은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사 시간이 길어지고, 아내는 짧아지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주말 가사 시간은 서울·경기 지역의 20대로 대학원 졸 그리고 혼인 연차와 소득이 낮고, 자녀가 적고 맞벌이를 하며, 종사자수가 5~30명 미만인 직장에 근무하는 남편이 긴 경향이 있고, 광역시의 40대로 고졸 이하, 그리고 혼인 연차가 높고 소득이 낮으며, 자녀가 많고 외벌이면서 임시·일용직으로 5인 미만의 직장에 근무하는 아내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가사 시간을 비율로 환산하면, 평일은 남편 29.0%, 아내 71.0%, 주말은 남편 36.3%, 아내 63.7%로 나타나, 이를 평균하면 남편 32.6%, 아내 67.3%로 산출되어, 실제 조사된 비율(남편: 34.1%, 아내: 65.9%)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¹⁾

81) 남편의 경우, 남편 가사 시간 비율=남편 가사 시간/(남편의 가사 시간+아내의 가사 시간)으로 산출됨.

그리고 하루 평균 육아시간은 남편이 114.8분, 아내는 374.7분으로 남편보다 259.9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20대로 대학원 졸에 혼인 연차가 3~5년 차, 자녀수가 2명 이상에 외벌이로 현재 소득이 낮고, 자영업·가족종사자에 5~30명 미만의 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경우 육아시간이 길고, 서울·경기 지역의 20대로 대학원 졸에 혼인 연차가 짧으며, 자녀가 2명 이상 있고, 외벌이에 소득이 낮고⁸²⁾ 5인 미만의 기업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내의 경우 육아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주말 평균 육아시간은 246.9분으로 평일보다 132.1분 더 육아에 시간을 사용했고, 아내의 주말 육아시간은 430.6분으로 남편보다 183.7분 더 길고, 평일보다 56.9분 긴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체적으로 주말 평균 육아시간은 남편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20대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혼인한 지 1~2년 정도에 맞벌이를 하며 현재 소득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상용직에 5~30명 미만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육아시간이 길고, 아내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30대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혼인한 지 1~2년 정도에 맞벌이를 하며 현재 소득이 낮은 경향이 있으나 상용직으로 5~30인 미만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 긴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기 육아시간을 비율로 환산하면, 남편은 23.5%, 아내는 76.5%, 주말은 남편 36.4%, 아내 63.6%로 나타나 이를 평균하면 남편 30.0%, 아내 70.0%로 산출되어, 실제 조사된 비율(남편: 36.5%, 아내: 63.5%)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혼부부의 일·가정 양립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

82) 250만 원 미만 층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의 육아시간은 475.6분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250만 원 미만의 333.2분보다 긴 것을 볼 수 있음.

면, 현재 직장에서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남편은 29.7%, 아내는 27.3%로 남편에 비하여 2.4%포인트 낮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부부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남편은 광역시, 20대, 고졸 이하, 혼인 연차가 3~5년,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에서 높고, 아내도 남편과 유사하게 광역시(14.0%), 20대(12.5%), 학력이 대학원 졸(22.9%), 혼인 연차가 1~2년(13.5%),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14.7%), 종사자수가 5인 미만(16.5%)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남편은 5.7점, 아내는 6.4점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0.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학력이 높고, 혼인 연차가 높고, 자녀가 많을수록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이 어렵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직장과 가정생활의 중요도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편은 직장이 58.4%, 가정이 41.6%로 직장을 16.8%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경우는 직장이 44.5%, 가정이 55.5%로 가정을 11.0%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더욱 중요시하는 비율이 남편과 13.9%포인트의 차이로 나타나, 남편이 아내보다 직장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 아내는 남편보다 가정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4 부

조사 결과 Ⅲ (현재 특성 및 가치관·정책 욕구)

제10장 현재의 경제적 특성

제11장 부모 관련 사항 및 부부간의 관계·가치관 특성

제12장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1절 일자리 특성

조사에 응답한 신혼 부부 중 남편이 현재 일자리가 있는 비율은 78.9%로 나타났다.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일자리가 있는 비율이 82.0%로 광역시나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았고,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남편(80.8%)이 고졸 이하(71.1%)나 대학원 졸업(60.2%)의 학력을 가진 남편보다 일자리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일자리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 현재 일자리(남편): 일자리 유무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유무		계(%)	(N)
	있음	없음		
전체	78.9	21.1	100.0	(1,779)
지역 ($\chi^2=9.7^{**}$)				
서울·경기	82.0	18.0	100.0	(852)
광역시	75.7	24.3	100.0	(454)
그 외	76.4	23.6	100.0	(473)
연령 ($\chi^2=3.5$)				
20대	75.2	24.8	100.0	(125)
30대	78.4	21.6	100.0	(1,286)
40대 이상	82.1	17.9	100.0	(368)
학력 ($\chi^2=22.4^{***}$)				
고졸 이하	71.1	28.9	100.0	(226)
대졸	80.8	19.2	100.0	(1,496)
대학원 졸	60.2	39.8	100.0	(56)

구분	일자리 유무		계(%)	(N)
	있음	없음		
혼인지속기간 ($\chi^2=8.4^*$)				
1~2년	76.5	23.5	100.0	(378)
3~5년	77.2	22.8	100.0	(806)
6~7년	82.9	17.1	100.0	(59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조사에 응답한 아내 중 현재 일자리가 있는 비율은 42.4%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도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일자리가 있는 비율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는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일자리 있는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아내의 경우 49.8%가 일자리가 있는 반면, 30대와 40대 아내의 경우는 현재 일자리가 없는 비율이 약간 낮은 양상을 볼 수 있다. 학력에 따른 현재 일자리 유무에서도 남성과 다른 경향이 나타났는데, 여성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일자리가 있는 비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혼인지속기간이 1~2년인 경우의 아내는 일자리가 있는 비율이 63.7%로 높지만, 3년 이상이 되면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결혼, 임신-출산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혼인지속기간에 따른 차이와 남편의 결과와 다른 점에 잘 드러나 있다.

〈표 10-2〉 현재 일자리(아내): 일자리 유무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유무		계(%)	(N)
	있음	없음		
전체	42.4	57.6	100.0	(1,779)
지역 ($\chi^2=10.4^{**}$)				
서울·경기	45.9	54.1	100.0	(852)
광역시	41.4	58.6	100.0	(454)
그 외	36.9	63.1	100.0	(473)
연령 ($\chi^2=9.9^{**}$)				
20대	49.8	50.2	100.0	(345)
30대	40.5	59.5	100.0	(1,214)
40대	41.1	58.9	100.0	(220)
학력 ($\chi^2=14.3^{**}$)				
고졸 이하	32.5	67.5	100.0	(277)
대졸	44.0	56.0	100.0	(1,463)
대학원 졸	52.0	48.0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90.0^{***}$)				
1~2년	63.7	36.3	100.0	(378)
3~5년	36.8	63.2	100.0	(806)
6~7년	36.4	63.6	100.0	(59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현재 일자리가 있는 남편의 직종을 보면, 52.3%가 사무종사자로 가장 많았고, 판매종사자(9.0%)와 서비스종사자(8.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8.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8.0%)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였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편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의 비율이 21.9%로 가장 높고,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9.4%로 다른 학력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판매종사자(18.8%)와 서비스종사자(16.6%)의 비율이 다른 학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반면, 대졸의 경우는 사무종사자(58.8%)에, 대학원 졸의 경우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6.0%)와 사무종사자(38.1%)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표 10-3〉 현재 일자리(남편): 직종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N)
전체	5.1	8.0	52.3	8.7	9.0	0.6	8.6	6.4	0.4	0.9	100.0	(1,404)
지역												
서울·경기	6.4	10.0	57.6	8.0	8.3	0.2	4.3	3.9	0.1	1.2	100.0	(699)
광역시	3.6	7.1	54.1	7.1	12.1	0.3	9.3	6.3	-	0.0	100.0	(343)
그 외	4.1	5.0	40.4	11.7	7.1	1.5	16.2	11.3	1.5	1.1	100.0	(361)
연령 ($\chi^2=55.9^{***}$)												
20대	4.9	9.1	37.7	9.4	12.2	0.5	7.4	12.5	2.2	4.0	100.0	(94)
30대	4.2	8.5	55.1	8.2	8.3	0.3	8.9	5.4	0.3	0.8	100.0	(1,008)
40대 이상	8.5	5.9	47.6	10.4	10.0	1.4	7.9	7.7	0.5	0.1	100.0	(302)
학력												
고졸 이하	7.4	1.7	6.6	16.6	18.8	3.4	21.9	19.4	1.7	2.5	100.0	(161)
대졸	4.9	7.8	58.8	7.9	7.8	0.2	7.0	4.7	0.3	0.6	100.0	(1,209)
대학원 졸	4.7	46.0	38.1	2.1	4.3	-	-	2.9	-	1.9	100.0	(34)
혼인지속기간												
1~2년	3.0	8.0	56.5	9.5	9.2	0.1	6.7	5.5	0.3	1.1	100.0	(289)
3~5년	6.3	8.4	49.5	9.9	8.3	0.5	9.2	6.2	0.8	1.1	100.0	(622)
6~7년	5.0	7.5	53.4	6.8	9.6	0.9	9.0	7.1	0.1	0.4	100.0	(493)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관리자,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업·임업·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아내 중 57.5%는 사무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종사자는 17.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서비스종사자(25.8%)의 비율이 20대와 30대보다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아내 역시 대학원 졸업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6.8%)와 사무종사자(31.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은 기능원이나 장치·기계조작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고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남편과 달리 아내의 경우는 서비스 종사자(44.2%)와 판매종사자(31.9%)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0-4〉 현재 일자리(아내): 직종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N)
전체	1.5	9.6	57.5	17.7	9.5	-	2.3	0.7	0.5	0.3	0.4	100.0	(753)
지역													
서울·경기	2.9	7.8	62.9	15.3	6.4	-	2.3	1.3	-	0.2	0.8	100.0	(391)
광역시	-	13.6	57.7	16.3	11.9	-	0.5	-	-	-	-	100.0	(188)
그 외	-	9.5	45.1	24.4	14.0	-	4.3	-	2.1	0.5	-	100.0	(174)
연령													
20대	3.2	6.1	59.9	15.6	10.8	-	3.6	-	-	0.9	-	100.0	(172)
30대	1.2	10.8	58.9	16.9	7.9	-	2.0	1.1	0.7	0.1	0.6	100.0	(491)
40대	-	10.2	45.6	25.8	16.2	-	1.7	-	0.4	-	-	100.0	(91)
학력													
고졸 이하	2.5	-	13.1	44.2	31.9	-	6.6	1.2	0.5	-	-	100.0	(90)
대졸	1.4	9.5	64.6	14.5	6.7	-	1.6	0.6	0.5	0.1	0.5	100.0	(643)
대학원 졸	-	56.8	31.4	-	-	-	7.1	-	-	4.6	-	100.0	(21)
혼인지속기간													
1~2년	0.8	9.6	60.3	18.5	8.5	-	1.5	-	0.2	0.8	-	100.0	(241)
3~5년	3.2	7.2	60.9	15.6	7.1	-	2.7	1.3	1.1	-	1.1	100.0	(297)
6~7년	-	13.1	49.8	19.7	14.0	-	2.7	0.7	-	-	-	100.0	(216)

주: ① 관리자,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
무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일을 하는 남편 중 86.8%는 상용직이고, 12.4%는 자영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직(0.5%)이나 일용직(0.3%), 가족종사자(0.1%)는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0대에서 상용직 비율(89.7%)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30대 이상에서는 자영업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40대 이상의 경우는 자영업 비율이 20.5%로 20대의 5.9%과 비교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편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21.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표 10-5〉 현재 일자리(남편):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가족 종사자	계(%)	(N)
전체	86.8	0.5	0.3	12.4	0.1	100.0	(1,404)
지역							
서울·경기	88.1	-	0.1	11.6	0.1	100.0	(699)
광역시	84.7	0.7	-	14.6	-	100.0	(343)
그 외	86.1	1.1	0.7	11.9	0.2	100.0	(361)
연령							
20대	89.7	3.1	1.4	5.9	-	100.0	(94)
30대	89.0	0.2	0.1	10.6	0.2	100.0	(1,008)
40대 이상	78.4	0.5	0.5	20.5	-	100.0	(302)
학력							
고졸 이하	75.8	1.3	1.2	21.2	0.5	100.0	(161)
대졸	88.3	0.3	0.1	11.2	0.1	100.0	(1,209)
대학원 졸	83.5	2.3	-	14.2	-	100.0	(34)
혼인지속기간							
1~2년	89.5	0.6	0.4	9.5	-	100.0	(289)
3~5년	86.5	0.4	0.4	12.5	0.3	100.0	(622)
6~7년	85.5	0.4	-	14.0	-	100.0	(493)

주: 가족종사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지칭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현재 일을 하는 아내의 83.2%는 상용직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은 10.9%, 임시직은 4.6%, 가족종사자는 0.7%, 그리고 일용직은 0.5%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보다 임시직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상용직의 비율이 86.8%로 광역시(80.0%)나 그 외 지역(78.7%)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와 다르게 40대에서는 상용직의 비율이 60.6%로 낮아지고, 자영업의 비율은 30.7%로 매우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연령이 상승하면서 자영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남편의 결과와 경향은 비슷하지만 그 차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남편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졸 이하의 아내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21.6%)이 대졸(9.8%)이나 대학원 졸(0.0%) 아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연차 1~2년인 경우에 89.6%이던 상용직 비율이 6~7년에는 75.2%로 하락하고, 임시직의 비율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들은 남편보다 아내의 경우 결혼 생활에 따라 일자리 유무나 종사상 지위 등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표 10-6〉 현재 일자리(아내):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가족 종사자	계(%)	(N)
전체	83.2	4.6	0.5	10.9	0.7	100.0	(753)
지역							
서울·경기	86.8	2.5	0.4	9.4	0.9	100.0	(391)
광역시	80.0	5.6	1.2	12.9	0.4	100.0	(188)
그 외	78.7	8.5	-	12.3	0.5	100.0	(174)
연령							
20대	90.6	4.0	-	5.1	0.2	100.0	(172)
30대	84.8	4.6	0.3	9.3	1.0	100.0	(491)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가족 종사자	계(%)	(N)
40대	60.6	6.3	2.4	30.7	-	100.0	(91)
학력							
고졸 이하	63.1	14.1	-	21.6	1.2	100.0	(90)
대졸	86.1	3.5	-	9.8	0.7	100.0	(643)
대학원 졸	82.4	-	17.6	-	-	100.0	(21)
혼인지속기간							
1~2년	89.6	4.1	-	6.2	0.2	100.0	(241)
3~5년	84.0	4.5	-	10.3	1.2	100.0	(297)
6~7년	75.2	5.4	1.7	17.1	0.6	100.0	(216)

주: 가족종사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지칭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97.7%로 일하는 남편의 대부분이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1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 10-7〉 현재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전일제	계(%)	(N)
전체	2.3	97.7	100.0	(1,404)
지역 ($\chi^2=0.6$)				
서울·경기	2.5	97.5	100.0	(699)
광역시	2.1	97.9	100.0	(343)
그 외	1.9	98.1	100.0	(361)
연령 ($\chi^2=0.2$)				
20대	2.1	97.9	100.0	(94)
30대	2.4	97.6	100.0	(1,008)
40대 이상	1.9	98.1	100.0	(302)
학력				
고졸 이하	2.7	97.3	100.0	(161)

구분	시간제	전일제	계(%)	(N)
대졸	1.8	98.2	100.0	(1,209)
대학원 졸	16.0	84.0	100.0	(34)
혼인자속기간 ($\chi^2=0.7$)				
1~2년	2.3	97.7	100.0	(289)
3~5년	2.5	97.5	100.0	(622)
6~7년	1.9	98.1	100.0	(493)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현재 일하고 있는 아내의 경우 전일제 근무는 93.3%로 남편의 경우 (97.7%)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아내는 학력에 따라 근로시간 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시간제 근무를 하는 비율이 고졸 이하의 경우 14.2%, 대졸은 5.1%, 대학원 졸업은 22.2%로 나타나, 전일제 근무를 하는 비율이 대학 졸업의 경우가 가장 높고, 대학원 졸업을 한 경우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 남편은 대학원 졸의 경우에 시간제로 일하는 비율이 나머지 다른 층과 격차가 컸던 반면, 아내의 경우는 대졸과 나머지 다른 층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8〉 현재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전일제	계(%)	(N)
전체	6.7	93.3	100.0	(753)
지역 ($\chi^2=0.7$)				
서울·경기	6.0	94.0	100.0	(391)
광역시	6.7	93.3	100.0	(188)
그 외	8.1	91.9	100.0	(174)
연령 ($\chi^2=0.5$)				
20대	5.8	94.2	100.0	(172)
30대	7.1	92.9	100.0	(491)
40대	5.8	94.2	100.0	(91)

구분	시간제	전일제	계(%)	(N)
학력 ($\chi^2=20.8^{***}$)				
고졸 이하	14.2	85.8	100.0	(90)
대졸	5.1	94.9	100.0	(643)
대학원 졸	22.2	77.8	100.0	(21)
혼인지속기간 ($\chi^2=4.8$)				
1~2년	3.8	96.2	100.0	(241)
3~5년	8.1	91.9	100.0	(297)
6~7년	7.8	92.2	100.0	(21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편의 일자리는 정규직이 대부분으로 9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비정규직인 경우가 12.6%로 다른 연령대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대학원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비정규직이 20.2%로 높은 경향이 있다.

〈표 10-9〉 현재 일자리(남편): 정규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N)
전체	96.9	3.1	100.0	(1,225)
지역 ($\chi^2=3.1$)				
서울·경기	96.6	3.4	100.0	(616)
광역시	98.4	1.6	100.0	(293)
그 외	96.0	4.0	100.0	(315)
연령 ($\chi^2=29.6^{***}$)				
20대	87.4	12.6	100.0	(87)
30대	97.3	2.7	100.0	(899)
40대 이상	98.8	1.2	100.0	(238)
학력				
고졸 이하	92.2	7.8	100.0	(124)
대졸	97.9	2.1	100.0	(1,071)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N)
대학원 졸	79.8	20.2	100.0	(29)
혼인자속기간 ($\chi^2=2.1$)				
1~2년	96.6	3.4	100.0	(260)
3~5년	96.3	3.7	100.0	(541)
6~7년	97.9	2.1	100.0	(42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경우는 정규직이 87.6%로 남편 96.9%와 비교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9.3%포인트 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결과에서와는 다르게 20대부터 40대까지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10.0% 내외로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인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29.8%로 높고, 대학원 졸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22.8%로 다소 높은 특징을 보여 대졸(10.0%)과 2~3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남편의 결과에서 대학원 졸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특히 높았지만, 아내의 경우는 대학원 졸보다 고졸 이하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10〉 현재 일자리(아내): 정규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N)
전체	87.6	12.4	100.0	(662)
지역 ($\chi^2=2.4$)				
서울·경기	87.6	12.4	100.0	(349)
광역시	90.5	9.5	100.0	(161)
그 외	84.7	15.3	100.0	(152)
연령 ($\chi^2=1.8$)				
20대	90.6	9.4	100.0	(163)
30대	86.7	13.3	100.0	(439)
40대	86.2	13.8	100.0	(61)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N)
학력 ($\chi^2=25.2^{***}$)				
고졸 이하	70.2	29.8	100.0	(69)
대졸	90.0	10.0	100.0	(576)
대학원 졸	77.2	22.8	100.0	(17)
혼인지속기간 ($\chi^2=2.2$)				
1~2년	90.2	9.8	100.0	(226)
3~5년	85.9	14.1	100.0	(262)
6~7년	86.9	13.1	100.0	(17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345만 9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남편의 경우 361만 8000원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3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이상이 되면 월평균 3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입도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학력에서도 연령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고, 대학원 졸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0-11〉 현재 일자리(남편): 월평균 소득

(단위: 만 원, 명)

구분	월평균 소득	(N)
전체	345.9	(1,404)
지역		
서울·경기	361.8	(699)
광역시	338.1	(343)
그 외	322.6	(361)
연령		
20대	289.3	(94)

구분	월평균 소득	(N)
30대	337.5	(1,008)
40대 이상	391.8	(302)
학력		
고졸 이하	320.2	(161)
대졸	347.0	(1,209)
대학원 졸	429.5	(34)
혼인지속기간		
1~2년	315.2	(289)
3~5년	349.0	(622)
6~7년	360.1	(4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월평균 소득은 259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아내 역시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271만 7000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광역시가 255만 4000원, 그 외 지역은 235만 7000원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 증가와 함께 소득도 상승했던 남편의 결과와 같이 아내의 경우도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이 높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그 상승 폭이 남편의 경우보다 작아서 연령에 따른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소득도 높아지는 것 또한 남편의 결과와 같은 양상이다.

〈표 10-12〉 현재 일자리(아내): 월평균 소득

(단위: 만 원, 명)

구분	월평균 소득	(N)
전체	259.3	(753)
지역		
서울·경기	271.7	(391)
광역시	255.4	(188)
그 외	235.7	(174)

구분	월평균 소득	(N)
연령		
20대	244.4	(172)
30대	263.1	(491)
40대	267.0	(91)
학력		
고졸 이하	203.7	(90)
대졸	264.7	(643)
대학원 졸	332.8	(21)
혼인지속기간		
1~2년	247.3	(241)
3~5년	252.6	(297)
6~7년	281.9	(21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본인 일자리에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남편의 비율이 91.8%이고, 이 경우 정규근로시간은 8.3시간, 주 5.2일,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는 주 2.7일이고, 초과근로를 하게 되면 평균 2.1시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근로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남편에 대해서 실제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9.3시간, 주 5.7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남편이 40대 이상인 경우 정규근로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14.2%)이 20, 30대와 비교해 높고, 고졸 이하의 정규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가 15.6%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10-13〉 현재 일자리(남편):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일, 명)

구분	정규 근로 시간 유무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N)	실제 근로시간		(N)
	있음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전체	91.8	8.3	5.2	2.1	2.7	(1,288)	9.3	5.7	(116)
지역 ($\chi^2=0.7$)									
서울·경기	92.4	8.3	5.2	2.1	2.5	(646)	9.3	5.6	(53)
광역시	91.1	8.2	5.2	2.1	3.0	(313)	9.6	5.6	(30)
그 외	91.1	8.3	5.2	2.1	3.0	(329)	9.2	5.9	(32)
연령 ($\chi^2=18.4^{***}$)									
20대	94.5	8.4	5.2	2.3	2.9	(89)	10.0	5.7	(5)
30대	93.3	8.3	5.2	2.1	2.7	(941)	9.4	5.7	(68)
40대 이상	85.8	8.2	5.2	2.0	2.6	(259)	9.2	5.7	(43)
학력 ($\chi^2=13.6^{**}$)									
고졸 이하	84.4	8.6	5.4	2.6	3.1	(136)	8.6	5.6	(25)
대졸	92.6	8.2	5.2	2.0	2.6	(1,119)	9.6	5.7	(90)
대학원 졸	98.1	8.1	5.2	2.5	3.2	(33)	8.0	5.0	(1)
혼인지속기간 ($\chi^2=1.4$)									
1~2년	91.8	8.3	5.2	2.0	2.7	(265)	9.1	5.6	(24)
3~5년	92.6	8.3	5.2	2.2	2.7	(576)	9.4	5.8	(46)
6~7년	90.7	8.2	5.2	2.0	2.7	(447)	9.4	5.7	(4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일하는 아내의 경우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91.8% 이고, 이때 정규근로시간은 8.1시간, 주 5.1일이며, 초과근로시간은 주 2.5일,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평균 1.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근로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아내의 실제근로시간은 하루 8.0시간, 주 5.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는 비율(94.4%)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높아지면서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곳에서 일

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와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비율이 각각 83.9%와 84.2%로 나타났으나, 대학 졸업의 경우는 9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곳에서 일 하는 비율이 낮아졌다.⁸³⁾

〈표 10-14〉 현재 일자리(아내):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일, 명)

구분	정규 근로 시간 유무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N)	실제 근로시간		(N)
	있음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전체	91.8	8.1	5.1	1.9	2.5	(692)	8.0	5.6	(62)
지역 ($\chi^2=7.4^*$)									
서울·경기	94.4	8.1	5.1	2.0	2.3	(369)	7.9	5.4	(22)
광역시	89.5	8.1	5.1	1.7	2.4	(168)	7.8	5.8	(20)
그 외	88.5	8.1	5.2	1.7	3.2	(154)	8.2	5.5	(20)
연령 ($\chi^2=6.0^*$)									
20대	95.2	8.2	5.1	1.8	2.5	(163)	7.4	5.2	(8)
30대	91.6	8.1	5.1	1.9	2.4	(450)	7.8	5.5	(41)
40대	86.7	8.2	5.2	2.7	3.7	(78)	9.0	6.1	(12)
학력 ($\chi^2=11.5^{**}$)									
고졸 이하	83.9	8.3	5.4	2.1	3.1	(75)	8.4	6.0	(14)
대졸	93.2	8.1	5.1	1.8	2.4	(599)	7.6	5.5	(44)
대학원 졸	82.4	7.9	5.2	3.2	2.8	(17)	10.4	5.0	(4)
혼인지속기간 ($\chi^2=7.5^*$)									
1~2년	95.1	8.1	5.1	1.9	2.6	(229)	8.4	5.7	(12)
3~5년	91.8	8.2	5.1	1.9	2.2	(272)	7.5	5.5	(24)
6~7년	88.0	8.0	5.2	1.9	2.7	(190)	8.1	5.5	(2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83)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표본수가 적어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남편이 일하는 일자리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종사자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일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30~99인은 27.9%, 5~29인은 20.8%, 100~299인은 19.6%, 1~4인은 13.0%, 300~999인은 11.9%, 1,000인 이상은 5.9%로 나타나 30~99인의 규모에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0~99인 규모에서 일하는 비율이 25.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100~299인 규모에서 일하는 비율이 22.2%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30~99인 규모에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두 번째는 5~29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나타나, 그 외 지역과 서울·경기나 광역시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5~29인 규모에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30~99인의 규모에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30대와 40대 이상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종사자수가 300~9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을 보면, 고졸 이하는 6.4%, 대졸은 12.2%, 대학원 졸은 29.2%였고, 이보다 더 큰 규모인 1,000인 이상에서 일하는 비율은 고졸 이하는 1.8%, 대졸은 6.1%, 대학원 졸은 18.8%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10-15〉 현재 일자리(남편): 종사자수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전체	13.0	20.8	27.9	19.6	11.9	5.9	1.0	100.0	(1,404)
지역 ($\chi^2=31.3^{**}$)									
서울·경기	9.9	22.3	28.9	19.9	10.5	7.6	1.0	100.0	(699)
광역시	16.7	21.6	28.1	16.2	14.2	2.3	0.9	100.0	(343)
그 외	15.3	17.2	25.7	22.2	12.7	5.9	0.9	100.0	(361)
연령 ($\chi^2=31.9^{**}$)									
20대	13.1	30.5	22.9	17.6	10.5	3.4	2.1	100.0	(94)
30대	11.1	20.3	28.5	20.1	13.1	6.3	0.5	100.0	(1,008)
40대 이상	19.1	19.6	27.3	18.4	8.4	5.1	2.0	100.0	(302)
학력 ($\chi^2=91.7^{***}$)									
고졸 이하	28.8	29.1	19.0	14.7	6.4	1.8	0.3	100.0	(161)
대졸	10.8	20.2	29.5	20.4	12.2	6.1	0.9	100.0	(1,209)
대학원 졸	14.2	4.2	14.3	14.0	29.2	18.8	5.3	100.0	(34)
혼인지속기간 ($\chi^2=11.7$)									
1~2년	11.5	20.1	27.4	21.7	12.6	5.9	0.8	100.0	(289)
3~5년	12.7	21.9	29.8	19.4	11.2	4.3	0.9	100.0	(622)
6~7년	14.1	19.9	25.8	18.6	12.6	7.9	1.2	100.0	(493)

주: 1) * $p<0.05$, ** $p<0.01$, *** $p<0.001$

① 1~4인, ② 5~29인, ③ 30~99인, ④ 100~299인, ⑤ 300~999인, ⑥ 1,000인 이상,

⑦ 잘 모르겠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일하는 아내의 경우는 30~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2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29인 규모가 22.8%, 1~4인 규모는 17.7%, 100~299인 규모는 14.6%, 300~999인 규모는 8.6%, 1,000인 이상의 규모는 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아내의 경우는 30~99인 규모에서 일하는 비율이 34.0%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5~29인 인 경우가 각각 24.0%와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소규모 사업장인 1~4인 규모에서 일하는 비율은 서울·경기에서는 13.9%였으나,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의 경우는 각각 20.9%와 22.9%

로 서울경기와 비교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서울경기는 300~999인 사업장 규모에서 일하는 비율이 10.5%로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의 각각 6.6%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보면, 40대 아내의 경우 가장 소규모인 1~4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38.5%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혼인지속기간이 6년 이상이 되면, 1~2년이나 3~5년의 경우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아져 혼인지속기간에 따른 차이도 찾아볼 수 있다.

남편의 경우는 지역, 연령, 학력에 따라 일하는 사업장 규모에 차이가 나타나고, 아내의 경우는 지역, 연령, 혼인지속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남편과 아내의 일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된 요인에 약간 차이가 있다.

〈표 10-16〉 현재 일자리(아내): 종사자수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전체	17.7	22.8	28.5	14.6	8.6	6.0	1.8	100.0	(753)
지역 ($\chi^2=31.9^{**}$)									
서울·경기	13.9	21.1	34.0	11.7	10.5	7.3	1.5	100.0	(391)
광역시	20.9	24.0	21.1	21.4	6.6	4.0	1.9	100.0	(188)
그 외	22.9	25.3	23.9	13.7	6.6	5.4	2.3	100.0	(174)
연령 ($\chi^2=58.7^{***}$)									
20대	12.1	26.7	28.1	21.3	6.7	4.1	0.9	100.0	(172)
30대	15.9	21.6	31.5	14.0	8.0	7.1	1.9	100.0	(491)
40대	38.5	22.1	12.9	4.8	15.5	3.9	2.4	100.0	(91)
학력									
고졸 이하	42.9	29.6	20.4	5.0	2.1	-	-	100.0	(90)
대졸	14.4	22.6	30.1	15.7	9.5	6.4	1.4	100.0	(643)
대학원 졸	12.8	-	13.2	20.8	9.5	21.4	22.2	100.0	(21)
혼인지속기간 ($\chi^2=48.6^{***}$)									
1~2년	12.0	28.7	25.2	14.8	12.9	5.0	1.5	100.0	(241)
3~5년	15.8	20.4	34.1	17.8	6.6	4.6	0.7	100.0	(297)
6~7년	26.9	19.5	24.4	10.0	6.7	9.1	3.4	100.0	(216)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1~4인, ② 5~29인, ③ 30~99인, ④ 100~299인, ⑤ 300~999인, ⑥ 1,000인 이상,

⑦ 잘 모르겠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2절 주거 특성

현재 주거가 이전⁸⁴⁾의 주거와 같은지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다르다(이사한) 비율이 14.4%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그 외 지역에서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이사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데, 1~2년 차는 1.4%, 3~5년 차는 10.3%인데 반하여 6~7년 차는 28.2%로 연차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0-17〉 이전 주거와 현재 주거가 같은 비율

(단위: %, 명)

구분	같은	다름	계 (%)	(N)
전체	85.6	14.4	100.0	(1,779)
지역 ($\chi^2=3.7$)				
서울·경기	87.1	12.9	100.0	(852)
광역시	85.1	14.9	100.0	(454)
그 외	83.3	16.7	100.0	(473)
혼인지속기간 ($\chi^2=155.9^{***}$)				
1~2년	98.6	1.4	100.0	(378)
3~5년	89.7	10.3	100.0	(806)
6~7년	71.8	28.2	100.0	(595)
가구소득 ($\chi^2=0.7$)				
450만 원 미만	86.0	14.0	100.0	(638)
450~600만 원 미만	86.2	13.8	100.0	(529)
600만 원 이상	84.6	15.4	100.0	(612)

주: 1) * $p<0.05$, ** $p<0.01$, *** $p<0.001$

2) 자녀가 있는 경우는 첫 자녀를 출산한 당시의 집, 자녀가 없는 경우는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집(신혼집)과 같은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84)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 출산 당시의 주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첫 신혼집을 지칭하며,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이전 시점에서의 주거 정보를 포함함.

현재 주거의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이 69.9%, 연립주택이 11.4%, 다세대 주택(원룸 등)은 8.4%로 나타났다. 일반 단독 주택은 4.7%, 다가구 단독 주택은 4.9%이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아파트/주상복합의 비율은 서울·경기 지역이 59.9%인 반면, 광역시는 79.5%, 그 외 지역은 78.8%로 서울·경기 지역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립주택 비율이 서울·경기에서 16.5%로 다른 지역보다 약 2배 이상 높다(광역시: 7.9%, 그 외: 5.5%). 혼인지속기간별로 보면, 연차가 높을수록 아파트/주상복합의 비율도 높아지는데, 1~2년 차는 58.4%, 3~5년 차는 68.8%, 6~7년 차는 78.8%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연립주택은 연차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파트/주상복합 비율은 450만 원 미만에서 71.9%로 높은 편이고, 연립주택의 비율은 600만 원 이상에서 15.5%로 가장 높다.

〈표 10-18〉 현재 주거: 주택 유형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N)
전체	4.7	4.9	69.9	11.4	8.4	0.6	0.1	100.0	(1,779)
지역 ($\chi^2=114.0^{***}$)									
서울·경기	3.8	7.0	59.9	16.5	11.7	0.9	0.1	100.0	(852)
광역시	3.7	2.1	79.5	7.9	6.3	0.5	-	100.0	(454)
그 외	7.2	3.9	78.8	5.5	4.4	0.2	0.1	100.0	(473)
혼인지속기간									
1~2년	5.5	4.7	58.4	15.1	13.7	2.3	0.3	100.0	(378)
3~5년	4.4	5.9	68.8	12.4	8.3	0.2	-	100.0	(806)
6~7년	4.6	3.7	78.8	7.7	5.2	-	0.1	100.0	(595)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6.6	5.0	71.9	8.8	6.8	0.6	0.2	100.0	(638)
450~600만 원 미만	4.8	5.4	68.1	9.9	11.1	0.8	-	100.0	(529)
600만 원 이상	2.6	4.4	69.5	15.5	7.7	0.4	-	100.0	(612)

주: 1) * $p<0.05$, ** $p<0.01$, *** $p<0.001$

2) ① 일반 단독 주택, ② 다가구 단독 주택, ③ 아파트/주상복합,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 주택(원룸 등), ⑥ 오피스텔, ⑦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현재 주거의 점유 형태는 전세가 5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자가 35.1%, 보증부 월세가 7.4%, 무상이 6.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세의 비율이 62.4%로 가장 높은 반면, 자가의 비율은 24.5%로 가장 낮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전세의 비율은 낮아지고, 자가의 비율은 높아지지만, 가구소득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10-19〉 현재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N)
전체	35.1	50.0	7.4	0.2	0.3	6.9	100.0	(1,779)
지역								
서울·경기	24.5	62.4	6.2	-	0.4	6.5	100.0	(852)
광역시	41.4	46.1	6.2	0.6	-	5.6	100.0	(454)
그 외	48.3	31.3	10.8	0.3	0.6	8.7	100.0	(473)
혼인지속기간								
1~2년	18.2	60.9	11.6	-	0.7	8.7	100.0	(378)
3~5년	33.1	51.4	7.0	0.5	0.4	7.6	100.0	(806)
6~7년	48.6	41.2	5.3	0.1	-	4.8	100.0	(595)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35.2	44.7	9.8	0.3	0.6	9.3	100.0	(638)
450~600만 원 미만	31.7	54.6	8.0	-	0.2	5.5	100.0	(529)
600만 원 이상	38.0	51.6	4.4	0.3	0.2	5.5	100.0	(612)

주: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기타(연세, 사글세, 일세, 기숙사 등), ⑥ 무상(부모님 집, 친척 집, 사택, 관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현재의 주거 비용은 자가의 경우, 2억 7377만 원, 전세가 1억 9424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이 5084만 원에 월세가 32만 5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는 32만 1000원, 기타가 40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대체로 평균보다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가의 경우 3억 9510만 원, 전세가 2억 3211만 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이 7412만 원에 월세가 35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와 전세의 금액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20〉 현재 주거: 주택 비용

(단위: 만 원,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매매가	보증금	보증금	월세	월세	
전체	27,376.6	19,423.7	5,083.9	32.5	32.1	40.7
지역						
서울·경기	39,509.5	23,210.6	7,412.8	35.7	-	43.5
광역시	24,242.3	15,788.1	5,246.6	30.4	36.4	-
그 외	18,867.9	10,950.6	2,585.2	30.3	24.1	37.5
혼인지속기간						
1~2년	23,364.8	17,334.5	5,708.8	32.8	-	30.9
3~5년	27,351.3	18,158.5	4,946.3	33.8	30.9	48.1
6~7년	28,354.3	23,523.8	4,463.0	29.7	40.0	-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23,335.8	18,204.0	4,520.9	32.6	-	35.5
450~600만 원 미만	24,500.9	18,279.4	5,695.7	29.6	26.0	40.0
600만 원 이상	33,347.7	21,573.7	5,431.0	36.8	38.6	60.0
(N)	(625)	(890)	(132)	(132)	(4)	(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주택 규모는 평균 25.5평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24.5평으로 가장 작고, 광역시(25.9평), 그 외 지역(26.8평) 순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 혼인지속기간별로 살펴보면, 연차가 높을수록 규모가 큰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구소득과 주택 규모와의 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 10-21〉 현재 주거: 주택 규모

(단위: 평, 명)

구분	주택 규모(평)	(N)
전체	25.5	(1,779)
지역		
서울·경기	24.5	(852)
광역시	25.9	(454)
그 외	26.8	(473)
혼인지속기간		
1~2년	23.2	(378)
3~5년	25.6	(806)
6~7년	26.7	(595)
가구소득		
450만 원 미만	25.6	(638)
450~600만 원 미만	25.0	(529)
600만 원 이상	25.7	(6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3절 금융 자산 및 부채

1. 금융자산

현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남편이 가진 금융자산을 알아보면,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해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평균은 약 5328만 원이고,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약 595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광역시보다 많고, 광역시는 그 외 지역보다 많아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남편이 가장 금융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은 경향을 보였는데, 20대와 30대 간 금융자산 차이는 30대와

40대 이상 간 차이보다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학력 역시 높을수록 자산이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혼인지속기간의 증가에 따라서도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도 많았는데, 현재 월소득이 350만 원 이상인 경우가 350만 원 미만인 경우보다 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0-22〉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남편)

(단위: 만 원, 명)

구분	0을 포함한 경우	0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N)
전체	5,327.6	5,958.7	(1,591)
지역			
서울·경기	6,278.2	6,824.3	(784)
광역시	5,100.1	5,687.3	(407)
그 외	3,831.9	4,535.8	(399)
연령			
20대	2,521.6	3,436.8	(92)
30대	5,214.9	5,843.9	(1,148)
40대 이상	6,677.2	6,994.2	(351)
학력			
고졸 이하	4,033.2	4,810.5	(190)
대졸	5,523.4	6,106.2	(1,354)
대학원 졸	5,324.4	6,342.3	(47)
혼인지속기간			
1~2년	3,423.0	3,950.0	(327)
3~5년	4,694.3	5,314.0	(712)
6~7년	7,396.3	7,986.9	(551)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3,174.7	4,636.0	(105)
250~350만 원 미만	4,008.9	4,490.7	(599)
350만 원 이상	6,598.8	7,106.1	(887)

주: 예·적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 및 보장성 보험, 현재 붓고 있는 계, 타인에게 빌려준 돈 등을 포함함(부동산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약 3462만 원이고,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한 평균은 4017만 원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자산은 남편의 자산보다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광역시, 그 외 지역 순이었다. 그러나 서울 및 경기 지역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내의 금융자산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이 증가하는 경향은 남편의 결과와 같지만, 남편은 20대와 30대 간에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었고, 아내에서는 20대와 30대 간의 차이보다 30대와 40대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에서 고졸 이하와 대졸의 금융자산은 대졸이 더 많기는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대학원 졸 아내는 큰 차이로 금융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은 자산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매우 편향된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금융자산이 늘어나는 경향은 남편의 경향과 같았으며, 현재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도 많았는데, 350만 원 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만보다 큰 차이로 금융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350만 원 이상인 아내의 금융자산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대학원 졸의 학력을 가진 아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10-23〉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아내)

(단위: 만 원, 명)

구분	0을 포함한 경우	0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N)
전체	3,461.7	4,017.2	(1,533)
지역			
서울·경기	3,898.4	4,267.6	(779)
광역시	3,548.6	4,189.4	(384)
그 외	2,591.2	3,311.2	(370)
연령			
20대	3,135.9	3,677.3	(294)
30대	3,366.1	3,916.5	(1,044)
40대	4,498.8	5,064.8	(196)
학력			
고졸 이하	2,354.7	2,890.9	(225)
대졸	3,536.8	4,045.8	(1,279)
대학원 졸	8,413.2	11,504.5	(29)
혼인지속기간			
1~2년	2,445.9	2,785.6	(332)
3~5년	3,392.4	4,036.1	(678)
6~7년	4,201.3	4,773.2	(523)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2,771.8	3,392.2	(873)
250~350만 원 미만	3,847.0	4,126.0	(493)
350만 원 이상	6,406.2	6,972.7	(167)

주: 예·적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 및 보장성 보험, 현재 붓고 있는 계, 타인에게 빌려준 돈 등을 포함 (부동산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2. 부채

남편의 부채는 약 4251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도 금융자산의 결과와 같은 경향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남편이 부채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광역시, 그 외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30대와 40대

이상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이고, 20대는 비교적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졸의 학력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대학원 졸, 고졸 이하 순으로 부채가 많았다. 혼인 연차에 비례해 부채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본인의 현재 소득과도 비례해 부채도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10-24〉 현재 부채 총액(남편)

(단위: 만 원, 명)

구분	부채 총액	(N)
전체	4,251.5	(1,779)
지역		
서울·경기	4,545.0	(852)
광역시	4,321.0	(454)
그 외	3,655.6	(473)
연령		
20대	2,900.0	(125)
30대	4,352.0	(1,286)
40대 이상	4,359.7	(368)
학력		
고졸 이하	3,371.3	(226)
대졸	4,396.0	(1,496)
대학원 졸	3,949.4	(56)
혼인지속기간		
1~2년	3,309.4	(378)
3~5년	4,371.4	(806)
6~7년	4,687.5	(59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3,314.3	(153)
250~350만 원 미만	3,801.9	(671)
350만 원 이상	4,717.5	(955)

주: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부채, 타인에게 빌린 돈, 핸드폰 할부 등을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아내의 부채 총액은 약 1456만 원으로 남편의 약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181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서울 및 경기 지역, 그 외 지역 순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에 따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 부채가 가장 많아 1513만 원이었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졸업이 3036만 원으로 가장 부채가 많았고, 대졸의 경우는 1514만 원, 고졸 이하는 926만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지속기간이 3~5년인 경우가 부채가 가장 많은 시기로 1599만 원으로 나타났고, 다음 6~7년은 1504만 원 정도로 3~5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50만 원 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경우의 부채가 2269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5〉 현재 부채 총액(아내)

(단위: 만 원, 명)

구분	부채 총액	(N)
전체	1,456.3	(1,779)
지역		
서울·경기	1,339.8	(852)
광역시	1,813.4	(454)
그 외	1,323.8	(473)
연령		
20대	1,119.6	(345)
30대	1,513.0	(1,214)
40대	1,670.6	(220)
학력		
고졸 이하	925.6	(277)
대졸	1,513.8	(1,463)
대학원 졸	3,036.0	(40)

구분	부채 총액	(N)
혼인지속기간		
1~2년	1,076.9	(378)
3~5년	1,599.3	(806)
6~7년	1,503.5	(59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1,237.0	(1,069)
250~350만 원 미만	1,621.1	(529)
350만 원 이상	2,268.7	(181)

주: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부채, 타인에게 빌린 돈, 핸드폰 할부 등을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의 현재 일자리와 주거, 자산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일자리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남편은 78.9%, 아내는 42.4%로 나타나 남편과 36.5%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혼인 연차가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 비율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남편의 직종을 보면, 사무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의 순이었다. 반면, 아내는 사무종사자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남편과 유사하나,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남편은 86.8%가 상용직이고, 12.4%는 자영업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83.2%가 상용직, 자영업은 10.9%, 임시직은 4.6%로 조사되었다. 남편의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97.7%, 아내는 93.3%이고, 정규직인 경우는 남편이 96.9%, 아내가 87.6%로 파악되었다. 남편의 현재 월평균 소득은 345만 9000원,

아내는 259만 3000원으로 나타났고,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편과 아내 모두 91.8%로 보고되었다. 남편 일자리의 종사자수는 30~99인, 5~29인, 100~299인, 1~4인, 300~999인, 1,000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아내는 30~99인, 5~29인은 남편과 동일하나 다음은 1~4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거와 이전 주거와 다른 비율은 14.4%로 나타났는데, 혼인지속 기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점유 형태는 전세, 자가, 보증부 월세, 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비용은 자가의 경우, 2억 7377만원, 전세가 1억 9424만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이 5084만원에 월세가 32만 5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는 32만 1000원, 기타가 40만 7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주택 규모는 25.5평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평균은 약 5328만원, 아내는 3462만원이고, 남편의 부채는 약 4251만원, 아내는 약 145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11

부모 관련 사항 및 부부간의 관계·가치관 특성

제1절 부모 관련 사항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중 부모에게 주는 금액에 대해 살펴보면,⁸⁵⁾ 남편의 경우, 연평균 154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181만 3000원으로 가장 많고, 광역시가 128만 원, 그 외 지역이 126만 40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93만 1000원, 30대가 145만 7000원, 20대가 125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주는 용돈의 금액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고졸 이하와 대학원 졸 간에 약 100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주는 금액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는 연평균 146만 6000원으로 남편보다 8만 200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⁸⁶⁾ 지역별로 보면, 남편과 유사하게 서울·경기 지역에서 161만 6000원으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40대에서 158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대학원 졸인 경우, 169만 원, 대졸이 152만 8000원, 고졸 이하가 104만 80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과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단, 혼인 연차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파악되지 않았다.

85) 부모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로,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주는 용돈 등을 모두 포함함.

86)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남편이 81.1%, 아내가 79.1%로 나타난다.

〈표 11-1〉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부모에게 주는 금액

(단위: 만 원, 명)

구분	남편		아내	
	연평균 금액	(N)	연평균 금액	(N)
전체	154.8	(1,442)	146.6	(1,407)
지역				
서울·경기	181.3	(735)	161.6	(712)
광역시	128.0	(371)	141.5	(360)
그 외	126.4	(336)	120.4	(336)
연령				
20대	125.0	(76)	124.0	(254)
30대	145.7	(1,058)	150.4	(974)
40대	193.1	(309)	158.0	(179)
학력				
고졸 이하	120.1	(148)	104.8	(189)
대졸	156.8	(1,249)	152.8	(1,192)
대학원 졸	213.1	(45)	169.0	(26)
혼인지속기간				
1~2년	155.4	(294)	134.8	(280)
3~5년	146.9	(648)	154.4	(637)
6~7년	164.7	(500)	143.3	(491)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117.9	(105)	127.0	(837)
250~350만 원 미만	120.9	(531)	172.2	(433)
350만 원 이상	181.9	(806)	185.3	(138)

주: 명절 등 특별한 날 드리는 용돈도 모두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반대로 부모에게 받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남편은 연평균 17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210만 3000원으로 가장 많고, 광역시가 152만 2000원, 그 외 지역이 142만 80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높아지지만, 학력의 경우는 대졸이 160만 3000원으로 가장 낮고 고졸 이하가 323만

원, 대학원 졸이 233만 4000원으로 양쪽이 높은 양상을 띤다. 혼인지속기간별로는 1~2년 차일 때 183만 2000원,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294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부모에게 받는 금액은 연평균 151만 9000원으로 남편보다 26만 1000원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⁷⁾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184만 4000원,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64만 2000원, 혼인 연차가 3~5년일 경우 168만 5000원,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일 때 196만 6000원으로 가장 높은 경향이 있다. 단, 학력이 높아지면 받는 금액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의 101만 7000원에 비하여 대학원 졸은 338만 2000원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⁸⁸⁾

〈표 11-2〉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부모에게 받는 금액

(단위: 만 원, 명)

구분	남편		아내	
	연평균 금액	(N)	연평균 금액	(N)
전체	178.0	(670)	151.9	(744)
지역				
서울·경기	210.3	(322)	184.4	(383)
광역시	152.2	(194)	116.9	(199)
그 외	142.8	(153)	118.4	(162)
연령				
20대	251.1	(35)	98.0	(117)
30대	174.4	(504)	164.2	(544)
40대	172.2	(130)	147.7	(83)
학력				
고졸 이하	323.0	(63)	101.7	(98)
대졸	160.3	(585)	155.5	(632)

87)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남편이 37.7%, 아내가 41.4%로 나타남.

88) 다만, 대학원 졸의 표본수가 14명으로 나타나 특수한 케이스(outlier)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구분	남편		아내	
	연평균 금액	(N)	연평균 금액	(N)
대학원 졸	233.4	(22)	338.2	(14)
혼인지속기간				
1~2년	183.2	(133)	145.5	(148)
3~5년	175.1	(309)	168.5	(339)
6~7년	178.9	(228)	133.9	(257)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294.0	(52)	159.6	(446)
250~350만 원 미만	125.4	(229)	119.2	(217)
350만 원 이상	193.6	(389)	196.6	(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2절 부부간의 관계 및 가치관 특성

지난 1년간 가사 분담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⁸⁹⁾ 남편의 50.4%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54.2%), 외벌이(54.4%),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55.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53.9%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남편의 50.4%보다 3.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가 56.4%, 광역시 51.7%, 그 외 지역 51.4%로 지방으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율이 유의하게 높

89)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게 나타났다. 단, 맞벌이(52.1%)보다는 외벌이(56.1%)가 높고,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56.4%로 가장 높았다.

〈표 11-3〉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가사 분담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13.1	36.5	47.3	3.1	2.4	100.0	(1,779)
지역 ($\chi^2=64.0^{***}$)							
서울·경기	7.4	38.4	49.4	4.8	2.5	100.0	(852)
광역시	21.0	32.9	44.9	1.2	2.3	100.0	(454)
그 외	15.8	36.5	45.7	2.0	2.3	100.0	(473)
연령 ($\chi^2=22.0^{**}$)							
20대	18.0	47.1	29.4	5.5	2.2	100.0	(125)
30대	13.2	36.2	47.9	2.7	2.4	100.0	(1,286)
40대 이상	11.2	33.9	51.0	4.0	2.5	100.0	(368)
학력 ($\chi^2=4.6$)							
고졸 이하	15.9	31.7	49.4	3.0	2.4	100.0	(226)
대졸	12.6	37.2	47.1	3.1	2.4	100.0	(1,496)
대학원 졸	14.1	38.1	42.6	5.2	2.4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28.5^{***}$)							
1~2년	15.4	44.3	37.6	2.7	2.3	100.0	(378)
3~5년	13.6	35.7	46.9	3.9	2.4	100.0	(806)
6~7년	11.1	32.6	53.9	2.4	2.5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5.0^*$)							
맞벌이	15.0	39.7	42.9	2.4	2.3	100.0	(613)
외벌이	11.2	34.4	50.8	3.6	2.5	100.0	(932)
자녀수 ($\chi^2=94.8^{***}$)							
0명	21.4	41.6	34.4	2.6	2.2	100.0	(601)
1명	9.2	36.4	51.1	3.2	2.5	100.0	(764)
2명 이상	8.2	29.3	58.8	3.7	2.6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25.1^{***}$)							
250만 원 미만	13.9	30.6	46.3	9.2	2.5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13.6	38.6	44.8	3.0	2.4	100.0	(671)
350만 원 이상	12.6	36.0	49.2	2.2	2.4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4〉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가사 분담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11.7	34.4	50.4	3.5	2.5	100.0	(1,779)
지역 ($\chi^2=48.0^{***}$)							
서울·경기	6.8	36.8	53.2	3.2	2.5	100.0	(852)
광역시	19.0	29.3	48.5	3.2	2.4	100.0	(454)
그 외	13.5	35.0	47.2	4.2	2.4	100.0	(473)
연령 ($\chi^2=23.1^{**}$)							
20대	17.2	38.7	40.2	3.8	2.3	100.0	(345)
30대	10.6	33.8	52.3	3.4	2.5	100.0	(1,214)
40대	9.2	31.3	56.1	3.4	2.5	100.0	(220)
학력 ($\chi^2=15.1^*$)							
고졸 이하	11.6	32.6	48.9	6.9	2.5	100.0	(277)
대졸	11.7	34.6	51.0	2.7	2.5	100.0	(1,463)
대학원 졸	13.1	40.6	39.5	6.7	2.4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28.7^{***}$)							
1~2년	14.2	41.3	41.2	3.4	2.3	100.0	(378)
3~5년	12.1	34.5	49.2	4.3	2.5	100.0	(806)
6~7년	9.6	30.0	57.8	2.5	2.5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7.1$)							
맞벌이	12.7	35.2	48.9	3.2	2.4	100.0	(613)
외벌이	10.2	33.7	52.3	3.8	2.5	100.0	(932)
기타	15.1	35.2	46.5	3.1	2.4	100.0	(234)
자녀수 ($\chi^2=85.4^{***}$)							
0명	18.9	40.7	37.8	2.7	2.2	100.0	(601)
1명	7.9	33.6	54.9	3.6	2.5	100.0	(764)
2명 이상	8.4	26.9	60.4	4.4	2.6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25.8^{***}$)							
250만 원 미만	11.0	32.6	52.1	4.3	2.5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10.6	39.7	48.3	1.5	2.4	100.0	(529)
350만 원 이상	18.9	29.9	46.5	4.7	2.4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경제적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⁹⁰⁾ 남편의 42.5%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쪽으로 올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⁹¹⁾ 그리고 맞벌이(36.5%)보다 외벌이(45.7%)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현재 소득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내는 42.8%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남편의 42.5%와 0.3%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쪽으로 올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남편과 경향이 유사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 것과 소득에 따른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은 남편과 다른 특징이다.

〈표 11-5〉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경제적 문제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17.2	40.3	38.9	3.6	2.3	100.0	(1,779)
지역 ($\chi^2=44.1***$)							
서울·경기	12.0	39.2	45.4	3.4	2.4	100.0	(852)
광역시	21.5	40.7	34.3	3.5	2.2	100.0	(454)
그 외	22.4	41.8	31.7	4.1	2.2	100.0	(473)
연령 ($\chi^2=11.9$)							
20대	18.6	43.0	34.7	3.7	2.2	100.0	(125)
30대	17.7	41.5	37.2	3.7	2.3	100.0	(1,286)
40대 이상	15.1	35.1	46.4	3.4	2.4	100.0	(368)

90)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91) 단, 연령은 유의하지 않음.

39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학력 ($\chi^2=19.7^{**}$)							
고졸 이하	17.0	34.6	41.0	7.4	2.4	100.0	(226)
대졸	16.9	41.4	38.8	2.9	2.3	100.0	(1,496)
대학원 졸	26.4	34.0	33.0	6.6	2.2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33.3^{***}$)							
1~2년	18.2	47.8	30.7	3.4	2.2	100.0	(378)
3~5년	17.5	41.3	36.7	4.5	2.3	100.0	(806)
6~7년	16.1	34.2	47.2	2.6	2.4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25.0^{***}$)							
맞벌이	16.5	47.0	32.4	4.1	2.2	100.0	(613)
외벌이	17.0	37.3	42.0	3.7	2.3	100.0	(932)
자녀수 ($\chi^2=51.6^{***}$)							
0명	23.0	43.9	29.8	3.3	2.1	100.0	(601)
1명	15.0	41.2	40.6	3.2	2.3	100.0	(764)
2명 이상	12.8	33.4	49.0	4.8	2.5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5.6^*$)							
250만 원 미만	15.6	35.9	42.0	6.4	2.4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16.3	41.9	36.9	4.9	2.3	100.0	(671)
350만 원 이상	18.1	39.8	39.8	2.2	2.3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6〉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경제적 문제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15.9	41.3	39.5	3.3	2.3	100.0	(1,779)
지역 ($\chi^2=43.8^{***}$)							
서울·경기	10.7	42.6	44.4	2.2	2.4	100.0	(852)
광역시	20.7	39.1	35.7	4.5	2.2	100.0	(454)
그 외	20.5	41.0	34.4	4.2	2.2	100.0	(473)
연령 ($\chi^2=13.9^*$)							
20대	17.3	38.8	38.4	5.5	2.3	100.0	(345)
30대	16.3	42.4	38.4	2.9	2.3	100.0	(1,214)
40대	11.6	39.2	47.0	2.2	2.4	100.0	(220)
학력 ($\chi^2=35.5^{***}$)							
고졸 이하	14.4	32.0	46.1	7.5	2.5	100.0	(277)
대졸	16.3	42.7	38.6	2.4	2.3	100.0	(1,463)
대학원 졸	9.8	55.1	26.9	8.2	2.3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6.5$)							
1~2년	15.7	45.7	35.0	3.6	2.3	100.0	(378)
3~5년	16.0	41.2	39.4	3.4	2.3	100.0	(806)
6~7년	15.8	38.6	42.5	3.0	2.3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7.3^{**}$)							
맞벌이	16.1	46.7	34.1	3.2	2.2	100.0	(613)
외벌이	14.9	38.8	42.6	3.7	2.4	100.0	(932)
자녀수 ($\chi^2=25.7^{***}$)							
0명	19.0	44.6	33.7	2.7	2.2	100.0	(601)
1명	15.1	41.2	41.0	2.7	2.3	100.0	(764)
2명 이상	12.8	36.7	45.1	5.3	2.4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26.8^{***}$)							
250만 원 미만	15.3	38.1	42.3	4.3	2.4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14.8	46.2	36.7	2.3	2.3	100.0	(529)
350만 원 이상	22.2	46.0	31.2	0.6	2.1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본인의 취미 및 휴일의 시간 사용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⁹²⁾ 남편의 32.5%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으로 올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연령에서는 20대(34.7%),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34.7%), 혼인지속기간에서는 3~5년(32.8%), 외별이(33.1%)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29.4%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남편의 32.5%와 비교하면, 남편이 3.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편의 경향과 같이 서울·경기 쪽으로 올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에서는 30대(30.8%), 학력에서는 대학원 졸(41.3%), 외별이(30.5%),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31.3%)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7〉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본인 취미 및 휴일 시간 사용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25.4	42.1	30.2	2.3	2.1	100.0	(1,779)
지역 ($\chi^2=10.3$)							
서울·경기	23.0	42.5	31.3	3.2	2.2	100.0	(852)
광역시	28.4	40.9	29.4	1.4	2.0	100.0	(454)
그 외	27.0	42.5	28.9	1.6	2.1	100.0	(473)
연령 ($\chi^2=4.1$)							
20대	23.8	41.5	30.6	4.1	2.2	100.0	(125)
30대	26.4	41.8	29.8	2.1	2.1	100.0	(1,286)
40대 이상	22.7	43.4	31.5	2.5	2.1	100.0	(368)
학력 ($\chi^2=4.3$)							
고졸 이하	22.4	43.0	31.9	2.8	2.2	100.0	(226)

92)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대졸	26.0	41.8	30.0	2.1	2.1	100.0	(1,496)
대학원 졸	21.3	45.1	28.2	5.4	2.2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5.7$)							
1~2년	29.9	38.3	29.4	2.3	2.0	100.0	(378)
3~5년	24.3	42.9	30.7	2.1	2.1	100.0	(806)
6~7년	24.2	43.4	30.0	2.5	2.1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1.3$)							
맞벌이	28.7	40.7	28.3	2.3	2.0	100.0	(613)
외벌이	23.8	43.0	30.3	2.8	2.1	100.0	(932)
자녀수 ($\chi^2=17.4^{**}$)							
0명	28.8	42.3	26.5	2.4	2.0	100.0	(601)
1명	25.6	41.1	31.8	1.5	2.1	100.0	(764)
2명 이상	20.2	43.6	32.6	3.7	2.2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8.5^{**}$)							
250만 원 미만	21.8	37.1	35.5	5.6	2.3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25.8	39.6	32.8	1.8	2.1	100.0	(671)
350만 원 이상	25.7	44.6	27.5	2.1	2.1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8〉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본인 취미 및 휴일 시간 사용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24.2	46.4	26.7	2.7	2.1	100.0	(1,779)
지역 ($\chi^2=19.2^{**}$)							
서울·경기	21.0	48.1	26.9	4.0	2.1	100.0	(852)
광역시	28.3	43.6	26.6	1.5	2.0	100.0	(454)
그 외	26.2	46.0	26.3	1.5	2.0	100.0	(473)
연령 ($\chi^2=8.4$)							
20대	26.4	49.5	21.0	3.2	2.0	100.0	(345)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30대	24.1	45.1	28.2	2.6	2.1	100.0	(1,214)
40대	21.8	48.7	27.3	2.3	2.1	100.0	(220)
학력 ($\chi^2=27.7^{***}$)							
고졸 이하	24.0	45.5	26.4	4.2	2.1	100.0	(277)
대졸	24.3	46.9	26.7	2.1	2.1	100.0	(1,463)
대학원 졸	23.7	35.0	26.7	14.6	2.3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6.1$)							
1~2년	25.7	48.8	22.7	2.9	2.0	100.0	(378)
3~5년	24.0	47.0	26.2	2.7	2.1	100.0	(806)
6~7년	23.6	44.0	29.8	2.6	2.1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3.4$)							
맞벌이	25.1	46.5	26.4	2.0	2.1	100.0	(613)
외벌이	23.8	45.8	27.2	3.3	2.1	100.0	(932)
자녀수 ($\chi^2=25.8^{***}$)							
0명	29.8	46.4	21.1	2.7	2.0	100.0	(601)
1명	19.8	48.1	29.5	2.6	2.2	100.0	(764)
2명 이상	24.4	43.1	29.5	3.0	2.1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7.7$)							
250만 원 미만	23.5	46.9	26.2	3.3	2.1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24.5	47.2	26.8	1.6	2.1	100.0	(529)
350만 원 이상	27.9	40.8	29.0	2.3	2.1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취미 및 휴일의 시간 사용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⁹³⁾ 남편의 23.0%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26.0%), 연령이 40대 이상(23.2%), 학력이 대학원 졸(24.9%), 혼인지속기간이 3~5년(25.0%),

93)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외벌이(23.3%)에서 높은 경향이 있고, 자녀수가 많고,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33.4%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으로 올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고, 외벌이(34.0%),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에서 35.5%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11-9〉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배우자 취미 및 휴일 시간 사용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27.8	49.2	19.9	3.1	2.0	100.0	(1,779)
지역 ($\chi^2=20.2^{**}$)							
서울·경기	24.9	49.2	21.6	4.4	2.1	100.0	(852)
광역시	32.4	47.6	17.7	2.4	1.9	100.0	(454)
그 외	28.7	50.9	19.0	1.3	1.9	100.0	(473)
연령 ($\chi^2=8.2$)							
20대	21.6	55.3	18.0	5.1	2.1	100.0	(125)
30대	29.1	48.0	20.2	2.6	2.0	100.0	(1,286)
40대 이상	25.3	51.4	19.4	3.8	2.0	100.0	(368)
학력 ($\chi^2=10.9$)							
고졸 이하	25.5	50.3	18.9	5.3	2.0	100.0	(226)
대졸	28.5	48.8	20.1	2.6	2.0	100.0	(1,496)
대학원 졸	19.4	55.7	17.8	7.1	2.1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7.8$)							
1~2년	30.5	48.1	18.9	2.5	1.9	100.0	(378)
3~5년	25.8	49.1	21.1	3.9	2.0	100.0	(806)
6~7년	28.8	50.1	18.8	2.2	2.0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7.2$)							
맞벌이	29.4	49.9	17.3	3.4	2.0	100.0	(613)
외벌이	27.2	49.4	20.3	3.0	2.0	100.0	(932)

400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자녀수 ($\chi^2=11.2$)							
0명	31.0	48.3	17.5	3.2	1.9	100.0	(601)
1명	25.2	52.0	19.8	3.0	2.0	100.0	(764)
2명 이상	28.0	45.4	23.6	3.0	2.0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5.8^*$)							
250만 원 미만	24.8	43.1	26.2	5.9	2.1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25.1	52.6	19.9	2.3	2.0	100.0	(671)
350만 원 이상	30.2	47.8	18.9	3.1	2.0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10〉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배우자 취미 및 휴일
시간 사용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24.7	42.0	30.1	3.3	2.1	100.0	(1,779)
지역 ($\chi^2=36.4^{***}$)							
서울·경기	20.1	43.0	32.1	4.7	2.2	100.0	(852)
광역시	31.8	36.3	29.9	2.0	2.0	100.0	(454)
그 외	26.0	45.7	26.5	1.8	2.0	100.0	(473)
연령 ($\chi^2=16.6^*$)							
20대	28.8	45.8	22.3	3.0	2.0	100.0	(345)
30대	24.1	41.0	31.3	3.6	2.1	100.0	(1,214)
40대	21.2	41.4	35.5	1.9	2.2	100.0	(220)
학력 ($\chi^2=8.3$)							
고졸 이하	26.2	43.2	26.3	4.2	2.1	100.0	(277)
대졸	24.5	42.0	30.5	3.0	2.1	100.0	(1,463)
대학원 졸	18.1	34.0	41.2	6.7	2.4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1.2$)							
1~2년	27.3	43.9	26.0	2.8	2.0	100.0	(378)
3~5년	24.3	43.2	28.7	3.9	2.1	100.0	(806)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6~7년	23.5	39.2	34.5	2.7	2.2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5.5$)							
맞벌이	27.2	41.3	27.8	3.7	2.1	100.0	(613)
외벌이	23.1	42.8	30.8	3.2	2.1	100.0	(932)
자녀수 ($\chi^2=39.8^{***}$)							
0명	32.4	42.0	22.9	2.8	2.0	100.0	(601)
1명	20.0	43.4	33.0	3.6	2.2	100.0	(764)
2명 이상	22.2	39.5	35.0	3.4	2.2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4.4^*$)							
250만 원 미만	22.5	42.0	31.7	3.8	2.2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28.0	43.7	25.8	2.5	2.0	100.0	(529)
350만 원 이상	27.9	36.9	32.9	2.2	2.1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성생활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⁹⁴⁾ 남편의 19.7%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21.1%), 연령별로는 20대(23.5%),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29.0%), 혼인지속기간별로는 3~5년 차(21.3%), 외벌이(20.1%), 자녀수가 2명 이상(21.9%),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28.9%)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23.1%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남편 19.7%와 3.4%포인트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23.7%), 연령에서는 30대(24.1%), 학력에서는 대학원 졸(33.3%), 혼인 연차가 3~5년 차(26.6%), 외벌이(25.3%), 자녀수가 1명(26.2%),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26.5%)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94)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표 11-11〉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성생활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33.9	46.5	17.4	2.3	1.9	100.0	(1,779)
지역 ($\chi^2=26.5^{***}$)							
서울·경기	32.6	46.4	17.7	3.3	1.9	100.0	(852)
광역시	39.4	39.5	19.4	1.7	1.8	100.0	(454)
그 외	31.1	53.1	14.8	0.9	1.9	100.0	(473)
연령 ($\chi^2=3.3$)							
20대	33.0	43.5	20.7	2.8	1.9	100.0	(125)
30대	34.8	46.2	16.7	2.3	1.9	100.0	(1,286)
40대 이상	31.1	48.3	18.6	2.1	1.9	100.0	(368)
학력 ($\chi^2=5.2$)							
고졸 이하	34.3	44.4	18.3	2.9	1.9	100.0	(226)
대졸	34.1	46.9	16.9	2.1	1.9	100.0	(1,496)
대학원 졸	28.7	42.2	25.7	3.3	2.0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4.8^*$)							
1~2년	41.9	42.2	14.3	1.6	1.8	100.0	(378)
3~5년	31.2	47.5	18.9	2.4	1.9	100.0	(806)
6~7년	32.5	47.8	17.2	2.4	1.9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9.9^{**}$)							
맞벌이	40.1	42.5	15.3	2.1	1.8	100.0	(613)
외벌이	31.2	48.7	17.5	2.6	1.9	100.0	(932)
자녀수 ($\chi^2=34.2^{***}$)							
0명	42.8	41.4	14.5	1.3	1.7	100.0	(601)
1명	29.0	49.6	18.7	2.7	2.0	100.0	(764)
2명 이상	30.1	48.0	19.1	2.8	2.0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7.2^{**}$)							
250만 원 미만	32.8	38.3	25.3	3.6	2.0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32.8	50.7	14.7	1.8	1.9	100.0	(671)
350만 원 이상	34.9	44.8	18.0	2.3	1.9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12〉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성생활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31.4	45.6	19.6	3.5	2.0	100.0	(1,779)
지역 ($\chi^2=13.1^*$)							
서울·경기	31.8	44.5	19.4	4.3	2.0	100.0	(852)
광역시	35.0	43.4	18.2	3.5	1.9	100.0	(454)
그 외	27.2	49.5	21.4	1.9	2.0	100.0	(473)
연령 ($\chi^2=4.3$)							
20대	33.6	46.5	16.7	3.1	1.9	100.0	(345)
30대	31.3	44.6	20.5	3.6	2.0	100.0	(1,214)
40대	28.1	49.3	19.4	3.2	2.0	100.0	(220)
학력 ($\chi^2=13.9^*$)							
고졸 이하	28.8	48.2	21.1	1.8	2.0	100.0	(277)
대졸	32.0	45.1	19.3	3.5	1.9	100.0	(1,463)
대학원 졸	24.3	42.4	20.5	12.8	2.2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22.1^{**}$)							
1~2년	36.5	45.0	14.6	3.9	1.9	100.0	(378)
3~5년	30.7	42.7	23.6	3.0	2.0	100.0	(806)
6~7년	29.0	49.8	17.4	3.8	2.0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4.0^*$)							
맞벌이	35.9	44.2	16.2	3.6	1.9	100.0	(613)
외벌이	29.4	45.4	22.0	3.3	2.0	100.0	(932)
자녀수 ($\chi^2=38.1^{***}$)							
0명	39.9	43.0	14.6	2.5	1.8	100.0	(601)
1명	26.4	47.4	22.0	4.2	2.0	100.0	(764)
2명 이상	28.1	45.8	22.6	3.5	2.0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28.0^{***}$)							
250만 원 미만	29.0	44.5	22.9	3.6	2.0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34.6	49.0	14.1	2.3	1.8	100.0	(529)
350만 원 이상	35.5	41.8	16.6	6.1	1.9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본인의 친구관계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⁹⁵⁾ 남편의 28.9%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34.1%), 혼인 연차가 3~5년(31.3%), 외벌이(30.4%),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31.9%)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는 20.4%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남편의 28.9%와 비교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8.5%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으로 갈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외벌이(21.2%),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22.5%)일 경우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3〉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본인 친구관계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29.4	41.6	26.6	2.3	2.0	100.0	(1,779)
지역 ($\chi^2=15.6^*$)							
서울·경기	27.7	41.5	27.6	3.3	2.1	100.0	(852)
광역시	34.2	38.5	25.2	2.0	2.0	100.0	(454)
그 외	28.1	44.8	26.3	0.8	2.0	100.0	(473)
연령 ($\chi^2=11.2$)							
20대	23.7	46.5	26.3	3.5	2.1	100.0	(125)
30대	31.3	41.3	25.2	2.2	2.0	100.0	(1,286)
40대 이상	25.0	40.9	31.8	2.3	2.1	100.0	(368)
학력 ($\chi^2=10.9$)							
고졸 이하	25.7	39.3	32.4	2.6	2.1	100.0	(226)
대졸	30.1	41.4	26.2	2.3	2.0	100.0	(1,496)
대학원 졸	27.5	55.9	14.0	2.6	1.9	100.0	(56)

95)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혼인지속기간 ($\chi^2=15.5^*$)							
1~2년	31.1	46.9	20.3	1.7	1.9	100.0	(378)
3~5년	28.0	40.7	28.2	3.1	2.1	100.0	(806)
6~7년	30.3	39.5	28.5	1.7	2.0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1.8$)							
맞벌이	33.2	41.2	23.9	1.7	1.9	100.0	(613)
외벌이	27.7	41.9	27.4	3.0	2.1	100.0	(932)
자녀수 ($\chi^2=14.2^*$)							
0명	32.3	43.5	22.0	2.2	1.9	100.0	(601)
1명	29.2	40.1	28.8	1.9	2.0	100.0	(764)
2명 이상	25.7	41.8	29.3	3.3	2.1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8.3$)							
250만 원 미만	26.0	42.1	26.8	5.1	2.1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29.7	41.8	27.0	1.5	2.0	100.0	(671)
350만 원 이상	29.8	41.4	26.3	2.5	2.0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14〉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본인 친구관계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32.0	47.7	17.6	2.8	1.9	100.0	(1,779)
지역 ($\chi^2=18.4^{**}$)							
서울·경기	30.2	47.1	18.4	4.2	2.0	100.0	(852)
광역시	35.6	45.3	17.3	1.7	1.9	100.0	(454)
그 외	31.6	50.9	16.4	1.1	1.9	100.0	(473)
연령 ($\chi^2=10.2$)							
20대	34.3	48.7	13.1	3.8	1.9	100.0	(345)
30대	32.1	47.2	18.4	2.3	1.9	100.0	(1,214)
40대	27.7	48.3	20.5	3.5	2.0	100.0	(220)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학력 ($\chi^2=11.5$)							
고졸 이하	33.6	43.4	20.6	2.5	1.9	100.0	(277)
대졸	31.8	48.4	17.1	2.6	1.9	100.0	(1,463)
대학원 졸	25.0	49.8	16.1	9.2	2.1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5.0$)							
1~2년	35.6	45.9	16.2	2.3	1.9	100.0	(378)
3~5년	30.7	48.8	17.3	3.2	1.9	100.0	(806)
6~7년	31.3	47.3	19.0	2.4	1.9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5.9^*$)							
맞벌이	36.2	46.0	15.3	2.5	1.8	100.0	(613)
외벌이	30.9	47.9	17.9	3.3	1.9	100.0	(932)
자녀수 ($\chi^2=12.4$)							
0명	36.5	46.3	15.2	2.0	1.8	100.0	(601)
1명	29.5	49.1	18.6	2.8	2.0	100.0	(764)
2명 이상	30.0	47.0	19.2	3.8	2.0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7.5^{**}$)							
250만 원 미만	30.2	47.2	18.7	3.8	2.0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35.7	48.0	15.1	1.1	1.8	100.0	(529)
350만 원 이상	31.2	49.4	18.2	1.2	1.9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친구관계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⁹⁶⁾ 남편의 19.1%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20.0%), 학력이 고졸 이하(23.3%), 혼인 연차가 1~2년 차(20.2%), 외벌이(20.4%), 자녀수가 2명 이상(24.3%)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

96)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경우는 28.0%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남편의 19.1%와 비교하면 아내가 8.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으로 올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혼인 연차가 3~5년 차(29.8%), 외벌이(28.1%)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1-15〉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배우자 친구관계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33.6	47.4	17.3	1.8	1.9	100.0	(1,779)
지역 ($\chi^2=11.2$)							
서울·경기	32.4	47.9	17.2	2.5	1.9	100.0	(852)
광역시	36.1	44.0	19.2	0.8	1.9	100.0	(454)
그 외	33.4	49.6	15.5	1.5	1.9	100.0	(473)
연령 ($\chi^2=11.4$)							
20대	25.3	52.1	18.4	4.1	2.0	100.0	(125)
30대	34.6	46.2	17.9	1.4	1.9	100.0	(1,286)
40대 이상	33.0	49.9	14.8	2.4	1.9	100.0	(368)
학력 ($\chi^2=14.8^*$)							
고졸 이하	30.4	46.3	18.8	4.5	2.0	100.0	(226)
대졸	34.5	47.2	17.0	1.4	1.9	100.0	(1,496)
대학원 졸	22.9	55.6	18.9	2.6	2.0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4.0$)							
1~2년	33.5	46.3	17.9	2.3	1.9	100.0	(378)
3~5년	33.1	48.2	16.6	2.2	1.9	100.0	(806)
6~7년	34.3	46.9	17.8	1.0	1.9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8.9$)							
맞벌이	35.7	48.3	14.3	1.6	1.8	100.0	(613)
외벌이	32.9	46.7	18.3	2.1	1.9	100.0	(932)
자녀수 ($\chi^2=16.2^*$)							
0명	36.2	45.8	15.8	2.3	1.8	100.0	(601)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1명	32.4	50.5	16.1	0.9	1.9	100.0	(764)
2명 이상	32.0	43.8	21.6	2.7	2.0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7.7^{**}$)							
250만 원 미만	30.5	40.9	25.0	3.6	2.0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32.6	46.4	18.8	2.2	1.9	100.0	(671)
350만 원 이상	34.8	49.1	14.9	1.2	1.8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16〉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배우자 친구관계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27.7	44.3	26.3	1.7	2.0	100.0	(1,779)
지역 ($\chi^2=16.3^*$)							
서울·경기	25.2	43.4	29.0	2.3	2.1	100.0	(852)
광역시	32.0	42.1	24.2	1.7	2.0	100.0	(454)
그 외	28.1	47.9	23.4	0.6	2.0	100.0	(473)
연령 ($\chi^2=13.7^*$)							
20대	31.4	41.9	23.7	3.0	2.0	100.0	(345)
30대	26.8	45.8	26.3	1.1	2.0	100.0	(1,214)
40대	26.8	39.9	30.5	2.8	2.1	100.0	(220)
학력 ($\chi^2=36.0^{***}$)							
고졸 이하	29.2	45.5	22.7	2.7	2.0	100.0	(277)
대졸	27.4	44.2	27.3	1.2	2.0	100.0	(1,463)
대학원 졸	30.8	40.0	16.5	12.8	2.1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7.3$)							
1~2년	31.7	44.9	22.4	1.1	1.9	100.0	(378)
3~5년	26.2	44.0	28.0	1.8	2.1	100.0	(806)
6~7년	27.2	44.3	26.5	1.9	2.0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8.8^{**}$)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맞벌이	30.8	45.2	23.2	0.9	1.9	100.0	(613)
외벌이	26.9	45.0	26.1	2.0	2.0	100.0	(932)
자녀수 ($\chi^2=20.4^{**}$)							
0명	32.7	44.7	21.7	0.9	1.9	100.0	(601)
1명	24.5	45.0	28.5	1.9	2.1	100.0	(764)
2명 이상	26.3	42.5	28.8	2.4	2.1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25.1^{***}$)							
250만 원 미만	26.7	42.4	28.5	2.4	2.1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29.9	45.2	24.9	0.1	2.0	100.0	(529)
350만 원 이상	27.5	52.7	17.5	2.3	2.0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본인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⁹⁷⁾ 남편의 26.3%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으로 올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0대 이상(29.0%), 혼인 연차가 3~5년 차(27.0%), 외벌이(26.9%),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30.5%)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23.9%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아내가 남편보다 2.4%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25.3%), 연령은 40대(29.4%), 학력이 대학원 졸(30.9%), 혼인지속기간이 3~5년(24.9%), 외벌이(25.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자녀가 많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97)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표 11-17〉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본인 부모와의 관계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29.9	43.8	24.2	2.1	2.0	100.0	(1,727)
지역 ($\chi^2=10.5$)							
서울·경기	26.6	45.8	24.9	2.7	2.0	100.0	(832)
광역시	33.3	41.5	23.3	1.9	1.9	100.0	(441)
그 외	32.6	42.2	23.7	1.4	1.9	100.0	(454)
연령 ($\chi^2=5.5$)							
20대	28.3	45.9	21.4	4.4	2.0	100.0	(124)
30대	30.7	43.6	23.9	1.8	2.0	100.0	(1,265)
40대 이상	27.2	43.7	26.4	2.6	2.0	100.0	(338)
학력 ($\chi^2=14.5^*$)							
고졸 이하	29.7	39.3	26.6	4.4	2.1	100.0	(215)
대졸	30.4	43.9	23.9	1.8	2.0	100.0	(1,455)
대학원 졸	17.6	58.0	21.8	2.6	2.1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5.8$)							
1~2년	32.7	41.4	23.2	2.7	2.0	100.0	(373)
3~5년	30.3	42.6	24.8	2.2	2.0	100.0	(777)
6~7년	27.4	46.9	24.0	1.6	2.0	100.0	(576)
맞벌이 여부 ($\chi^2=4.6$)							
맞벌이	30.6	45.3	21.9	2.2	2.0	100.0	(596)
외벌이	29.4	43.8	24.6	2.3	2.0	100.0	(900)
자녀수 ($\chi^2=24.2^{***}$)							
0명	34.4	45.1	18.2	2.3	1.9	100.0	(587)
1명	27.4	44.4	26.8	1.4	2.0	100.0	(735)
2명 이상	27.8	40.7	28.2	3.2	2.1	100.0	(405)
본인현재소득 ($\chi^2=23.1^{**}$)							
250만 원 미만	30.6	41.2	22.6	5.7	2.0	100.0	(149)
250~350만 원 미만	29.0	40.5	28.1	2.4	2.0	100.0	(651)
350만 원 이상	30.3	46.5	21.7	1.4	1.9	100.0	(92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18〉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본인 부모와의 관계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29.9	46.2	21.6	2.3	2.0	100.0	(1,732)
지역 ($\chi^2=15.3^*$)							
서울·경기	26.9	48.0	21.9	3.2	2.0	100.0	(842)
광역시	32.6	42.1	23.1	2.2	2.0	100.0	(439)
그 외	32.7	46.8	19.5	1.0	1.9	100.0	(452)
연령 ($\chi^2=12.7^*$)							
20대	35.0	39.9	21.9	3.1	1.9	100.0	(340)
30대	29.4	47.9	20.6	2.1	2.0	100.0	(1,193)
40대	24.0	46.6	26.8	2.6	2.1	100.0	(199)
학력 ($\chi^2=14.8^*$)							
고졸 이하	29.4	50.2	17.9	2.5	1.9	100.0	(255)
대졸	30.2	45.4	22.2	2.1	2.0	100.0	(1,438)
대학원 졸	20.2	48.8	21.7	9.2	2.2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6.0$)							
1~2년	30.9	47.6	20.2	1.3	1.9	100.0	(372)
3~5년	28.7	46.5	21.7	3.2	2.0	100.0	(781)
6~7년	30.9	45.0	22.3	1.8	2.0	100.0	(580)
맞벌이 여부 ($\chi^2=8.1$)							
맞벌이	31.7	46.9	20.0	1.4	1.9	100.0	(601)
외벌이	29.0	45.8	22.1	3.2	2.0	100.0	(903)
자녀수 ($\chi^2=22.2^{**}$)							
0명	34.2	47.8	16.8	1.2	1.9	100.0	(582)
1명	27.0	47.0	23.0	3.0	2.0	100.0	(744)
2명 이상	29.0	42.5	25.8	2.7	2.0	100.0	(407)
본인현재소득 ($\chi^2=14.1^*$)							
250만 원 미만	27.9	45.6	23.5	3.0	2.0	100.0	(1,038)
250~350만 원 미만	32.2	47.3	19.3	1.2	1.9	100.0	(517)
350만 원 이상	34.6	46.9	16.9	1.6	1.9	100.0	(178)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⁹⁸⁾ 남편의 21.4%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으로 갈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벌이(21.5%), 자녀수가 1명(22.9%)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27.8%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남편보다 6.4% 포인트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으로 갈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대학원 졸(33.4%), 외벌이(27.9%), 자녀수가 1명(31.7%)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표 11-19〉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31.5	47.1	19.7	1.7	1.9	100.0	(1,779)
지역 ($\chi^2=28.6^{***}$)							
서울·경기	26.7	48.8	22.0	2.5	2.0	100.0	(852)
광역시	33.4	46.3	19.7	0.6	1.9	100.0	(454)
그 외	38.5	44.8	15.5	1.3	1.8	100.0	(473)
연령 ($\chi^2=2.4$)							
20대	29.1	46.1	22.7	2.1	2.0	100.0	(125)
30대	31.4	47.2	19.7	1.8	1.9	100.0	(1,286)
40대 이상	32.9	47.2	18.7	1.2	1.9	100.0	(368)
학력 ($\chi^2=12.0$)							
고졸 이하	39.1	41.7	17.1	2.2	1.8	100.0	(226)
대졸	30.9	47.7	19.9	1.5	1.9	100.0	(1,496)
대학원 졸	18.8	54.2	22.7	4.4	2.1	100.0	(56)

98)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혼인지속기간 ($\chi^2=4.2$)							
1~2년	30.9	45.4	21.6	2.2	2.0	100.0	(378)
3~5년	32.3	46.2	19.7	1.8	1.9	100.0	(806)
6~7년	30.9	49.5	18.4	1.2	1.9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0.8$)							
맞벌이	31.7	47.7	19.2	1.4	1.9	100.0	(613)
외벌이	30.6	48.0	19.2	2.3	1.9	100.0	(932)
자녀수 ($\chi^2=9.8$)							
0명	35.8	45.9	16.6	1.7	1.8	100.0	(601)
1명	29.4	47.7	21.3	1.6	2.0	100.0	(764)
2명 이상	29.3	47.8	21.0	1.8	2.0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5.2$)							
250만 원 미만	34.1	40.6	23.7	1.7	1.9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31.5	46.0	20.6	1.9	1.9	100.0	(671)
350만 원 이상	31.2	48.9	18.4	1.5	1.9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20〉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29.5	42.8	24.8	3.0	2.0	100.0	(1,779)
지역 ($\chi^2=16.4^*$)							
서울·경기	26.3	44.1	26.4	3.3	2.1	100.0	(852)
광역시	34.5	37.8	23.8	3.9	2.0	100.0	(454)
그 외	30.4	45.2	22.8	1.6	2.0	100.0	(473)
연령 ($\chi^2=17.1^{**}$)							
20대	33.0	40.4	21.8	4.7	2.0	100.0	(345)
30대	28.5	44.7	24.2	2.6	2.0	100.0	(1,214)
40대	29.2	35.7	32.8	2.2	2.1	100.0	(220)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학력 ($\chi^2=16.3^*$)							
고졸 이하	32.3	39.6	24.0	4.1	2.0	100.0	(277)
대졸	29.0	43.4	25.0	2.5	2.0	100.0	(1,463)
대학원 졸	25.8	40.8	21.7	11.7	2.2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7.1$)							
1~2년	29.2	45.9	23.0	1.9	2.0	100.0	(378)
3~5년	29.9	43.0	23.5	3.6	2.0	100.0	(806)
6~7년	29.0	40.5	27.6	2.8	2.0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6.0$)							
맞벌이	30.6	42.0	25.4	2.0	2.0	100.0	(613)
외벌이	28.8	43.2	24.1	3.8	2.0	100.0	(932)
자녀수 ($\chi^2=26.0^{***}$)							
0명	33.1	46.1	18.8	2.0	1.9	100.0	(601)
1명	27.6	40.7	28.8	2.9	2.1	100.0	(764)
2명 이상	27.6	41.6	26.1	4.6	2.1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5.6^*$)							
250만 원 미만	28.2	41.2	26.9	3.7	2.1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30.0	46.5	21.7	1.8	2.0	100.0	(529)
350만 원 이상	35.5	41.3	21.1	2.1	1.9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자녀를 갖는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의 불일치 및 갈등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⁹⁹⁾ 남편의 21.0%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일수록 유의하게 높고, 연령이 30대(21.9%), 학력이 고졸 이하(22.8%), 혼인 연차가 3~5년(24.7%), 외벌이(22.7%), 자녀가 1명(23.8%),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29.4%)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99)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아내의 경우는 23.3%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남편 21.0%보다 2.3%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으로 갈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력이 대학원 졸(25.0%), 혼인지속기간이 3~5년(25.4%), 자녀가 1명(24.2%), 현재 소득이 250~350만원 미만(25.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1-21〉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자녀를 갖는 문제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34.2	44.7	20.3	0.7	1.9	100.0	(1,779)
지역 ($\chi^2=31.9^{***}$)							
서울·경기	31.7	41.8	25.5	1.0	2.0	100.0	(852)
광역시	37.4	46.1	16.2	0.3	1.8	100.0	(454)
그 외	35.8	48.8	14.9	0.6	1.8	100.0	(473)
연령 ($\chi^2=9.7$)							
20대	32.3	53.3	12.8	1.6	1.8	100.0	(125)
30대	34.6	43.5	21.2	0.7	1.9	100.0	(1,286)
40대 이상	33.8	46.3	19.6	0.3	1.9	100.0	(368)
학력 ($\chi^2=6.2$)							
고졸 이하	32.4	44.8	21.2	1.6	1.9	100.0	(226)
대졸	34.8	44.5	20.1	0.6	1.9	100.0	(1,496)
대학원 졸	26.7	51.9	21.4	-	2.0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3.8^*$)							
1~2년	37.3	46.8	15.3	0.7	1.8	100.0	(378)
3~5년	32.0	43.3	23.9	0.8	1.9	100.0	(806)
6~7년	35.3	45.4	18.7	0.6	1.9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6.0^*$)							
맞벌이	38.5	43.1	18.4	-	1.8	100.0	(613)
외벌이	32.4	44.9	21.5	1.2	1.9	100.0	(932)
자녀수 ($\chi^2=20.4^{**}$)							
0명	39.6	40.8	18.9	0.7	1.8	100.0	(601)
1명	29.0	47.2	23.0	0.8	2.0	100.0	(764)
2명 이상	36.1	45.9	17.5	0.5	1.8	100.0	(415)

416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본인현재소득 ($\chi^2=18.9^{**}$)							
250만 원 미만	36.2	34.5	26.6	2.8	2.0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33.7	46.9	18.6	0.8	1.9	100.0	(671)
350만 원 이상	34.3	44.9	20.5	0.3	1.9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22〉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자녀를 갖는 문제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34.1	42.6	21.4	1.9	1.9	100.0	(1,779)
지역 ($\chi^2=37.4^{***}$)							
서울·경기	29.9	42.5	24.4	3.3	2.0	100.0	(852)
광역시	40.2	39.7	20.0	0.1	1.8	100.0	(454)
그 외	35.9	45.6	17.3	1.2	1.8	100.0	(473)
연령 ($\chi^2=1.4$)							
20대	35.1	41.3	21.5	2.2	1.9	100.0	(345)
30대	33.8	42.6	21.7	1.9	1.9	100.0	(1,214)
40대	34.3	44.4	19.8	1.4	1.9	100.0	(220)
학력 ($\chi^2=15.6^*$)							
고졸 이하	34.7	41.7	21.4	2.2	1.9	100.0	(277)
대졸	33.9	42.9	21.5	1.6	1.9	100.0	(1,463)
대학원 졸	37.2	37.8	15.8	9.2	2.0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8.0$)							
1~2년	36.9	43.3	17.9	1.9	1.9	100.0	(378)
3~5년	32.0	42.5	23.0	2.4	2.0	100.0	(806)
6~7년	35.2	42.2	21.4	1.2	1.9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6.6^*$)							
맞벌이	37.6	40.9	19.9	1.6	1.9	100.0	(613)
외벌이	32.2	44.4	20.8	2.6	1.9	100.0	(932)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자녀수 ($\chi^2=22.9^{**}$)							
0명	38.0	39.1	21.1	1.8	1.9	100.0	(601)
1명	28.2	47.6	22.4	1.8	2.0	100.0	(764)
2명 이상	39.4	38.4	19.9	2.3	1.9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7.4^{**}$)							
250만 원 미만	31.6	44.5	22.0	2.0	1.9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36.3	38.7	22.8	2.2	1.9	100.0	(529)
350만 원 이상	42.9	42.9	13.7	0.5	1.7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¹⁰⁰⁾ 남편의 35.7%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39.7%), 연령이 40대 이상(39.3%), 혼인 연차가 3~5년(37.0%), 외벌이(37.8%), 자녀가 2명 이상(37.7%),¹⁰¹⁾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44.0%)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34.6%로 나타나 남편의 35.7%와 비교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1.1%포인트 높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 지역(39.9%)에서 높고, 외벌이(35.4%), 자녀 2명 이상(36.7%),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35.2%)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단, ‘항상 있었다’는 응답이 대학원 졸의 경우 10.6%로 고졸 이하, 대졸 집단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101) 자녀 양육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는 응답하지 않음.

〈표 11-23〉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자녀 양육 문제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26.2	38.1	33.6	2.1	2.1	100.0	(1,178)
지역 ($\chi^2=11.3$)							
서울·경기	23.5	36.7	36.7	3.0	2.2	100.0	(551)
광역시	30.2	38.6	30.3	0.9	2.0	100.0	(309)
그 외	26.8	40.1	31.3	1.8	2.1	100.0	(318)
연령 ($\chi^2=6.8$)							
20대	15.4	49.0	32.1	3.5	2.2	100.0	(33)
30대	27.2	38.5	32.7	1.7	2.1	100.0	(831)
40대 이상	24.6	36.1	36.0	3.3	2.2	100.0	(314)
학력 ($\chi^2=6.3$)							
고졸 이하	24.7	38.3	35.6	1.5	2.1	100.0	(133)
대졸	26.3	37.6	33.9	2.3	2.1	100.0	(1,008)
대학원 졸	28.5	53.2	18.3	-	1.9	100.0	(38)
혼인지속기간 ($\chi^2=3.2$)							
1~2년	30.7	38.4	28.4	2.6	2.0	100.0	(56)
3~5년	24.0	39.0	35.0	2.0	2.2	100.0	(574)
6~7년	28.0	37.2	32.6	2.2	2.1	100.0	(549)
맞벌이 여부 ($\chi^2=10.8$)							
맞벌이	27.8	42.5	29.0	0.7	2.0	100.0	(293)
외벌이	26.0	36.2	34.9	2.9	2.2	100.0	(727)
자녀수 ($\chi^2=2.6$)							
1명	26.0	39.4	32.8	1.8	2.1	100.0	(764)
2명 이상	26.4	35.9	34.9	2.8	2.1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7.3^{**}$)							
250만 원 미만	26.0	30.0	41.8	2.2	2.2	100.0	(72)
250~350만 원 미만	22.6	45.9	29.3	2.2	2.1	100.0	(400)
350만 원 이상	28.2	34.6	35.1	2.1	2.1	100.0	(70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24〉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자녀 양육 문제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25.1	40.3	32.3	2.3	2.1	100.0	(1,178)
지역 ($\chi^2=16.8^*$)							
서울·경기	24.1	36.0	37.8	2.1	2.2	100.0	(551)
광역시	26.2	46.6	24.8	2.4	2.0	100.0	(309)
그 외	25.7	41.5	30.3	2.5	2.1	100.0	(318)
연령 ($\chi^2=5.5$)							
20대	27.8	39.2	29.8	3.2	2.1	100.0	(142)
30대	25.8	39.8	32.2	2.2	2.1	100.0	(862)
40대	19.1	43.5	35.2	2.1	2.2	100.0	(175)
학력 ($\chi^2=12.9^*$)							
고졸 이하	25.3	38.2	33.8	2.6	2.1	100.0	(192)
대졸	25.3	40.4	32.3	2.0	2.1	100.0	(961)
대학원 졸	15.3	51.2	23.0	10.6	2.3	100.0	(25)
혼인지속기간 ($\chi^2=16.8^*$)							
1~2년	46.4	36.0	17.7	-	1.7	100.0	(56)
3~5년	23.6	41.7	32.4	2.2	2.1	100.0	(574)
6~7년	24.5	39.2	33.7	2.6	2.1	100.0	(549)
맞벌이 여부 ($\chi^2=5.5$)							
맞벌이	28.0	37.7	31.4	2.9	2.1	100.0	(293)
외벌이	23.6	40.9	33.1	2.3	2.1	100.0	(727)
자녀수 ($\chi^2=4.0$)							
1명	24.5	42.0	31.7	1.8	2.1	100.0	(764)
2명 이상	26.1	37.2	33.5	3.2	2.1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5.2$)							
250만 원 미만	25.2	39.9	32.0	2.9	2.1	100.0	(801)
250~350만 원 미만	23.9	40.8	33.9	1.3	2.1	100.0	(269)
350만 원 이상	27.3	41.7	31.0	-	2.0	100.0	(10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본인의 음주 및 흡연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¹⁰²⁾ 남편의 29.1%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30.8%), 혼인 연차 3~5년 차(31.7%), 외벌이(33.0%)에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현재 소득이 많을수록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13.3%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남편 29.1%와 비교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15.8%포인트 높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연령·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혼인 연차가 3~5년 차(14.0%), 외벌이(13.3%), 현재 소득이 350만 원 미만(13.8%)¹⁰³⁾에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5〉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본인 음주 및 흡연 문제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33.6	37.4	27.2	1.9	2.0	100.0	(1,779)
지역 ($\chi^2=4.4$)							
서울·경기	32.0	37.1	28.7	2.1	2.0	100.0	(852)
광역시	35.7	37.6	24.8	1.9	1.9	100.0	(454)
그 외	34.4	37.7	26.6	1.4	2.0	100.0	(473)
연령 ($\chi^2=17.4^{**}$)							
20대	36.9	40.9	21.0	1.2	1.9	100.0	(125)
30대	35.4	36.5	26.0	2.1	2.0	100.0	(1,286)
40대 이상	26.3	39.5	33.2	1.1	2.1	100.0	(368)

102)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103) 250만 원 미만과 250~350만 원 미만의 수치가 동일함.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학력 ($\chi^2=5.8$)							
고졸 이하	34.7	33.5	29.0	2.8	2.0	100.0	(226)
대졸	33.3	37.8	27.2	1.7	2.0	100.0	(1,496)
대학원 졸	36.6	42.9	17.4	3.1	1.9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3.6^*$)							
1~2년	39.0	36.7	22.4	1.8	1.9	100.0	(378)
3~5년	32.0	36.3	29.2	2.5	2.0	100.0	(806)
6~7년	32.3	39.3	27.4	1.0	2.0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20.0^{**}$)							
맞벌이	35.1	40.4	23.0	1.5	1.9	100.0	(613)
외벌이	33.4	33.7	30.9	2.1	2.0	100.0	(932)
자녀수 ($\chi^2=27.4^{***}$)							
0명	39.8	36.6	21.3	2.3	1.9	100.0	(601)
1명	29.4	39.3	30.1	1.2	2.0	100.0	(764)
2명 이상	32.4	35.1	30.2	2.3	2.0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8.1$)							
250만 원 미만	39.7	32.3	23.8	4.2	1.9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33.4	37.6	27.3	1.7	2.0	100.0	(671)
350만 원 이상	32.7	38.1	27.6	1.6	2.0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26〉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본인 음주 및 흡연 문제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46.7	39.9	11.9	1.4	1.7	100.0	(1,779)
지역 ($\chi^2=9.5$)							
서울·경기	46.6	38.9	12.3	2.2	1.7	100.0	(852)
광역시	45.2	40.6	13.3	0.9	1.7	100.0	(454)
그 외	48.5	41.1	9.8	0.7	1.6	100.0	(473)
연령 ($\chi^2=8.7$)							
20대	51.9	36.8	9.2	2.1	1.6	100.0	(345)
30대	46.0	40.5	12.2	1.2	1.7	100.0	(1,214)
40대	42.4	41.5	14.5	1.6	1.8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48.0	41.5	9.1	1.4	1.6	100.0	(277)
대졸	46.2	40.2	12.1	1.5	1.7	100.0	(1,463)
대학원 졸	58.3	17.7	24.1	-	1.7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3$)							
1~2년	48.1	39.6	11.2	1.1	1.7	100.0	(378)
3~5년	46.5	39.5	12.4	1.6	1.7	100.0	(806)
6~7년	46.2	40.7	11.7	1.4	1.7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1.5$)							
맞벌이	47.6	41.5	10.0	0.9	1.6	100.0	(613)
외벌이	46.8	39.9	11.7	1.6	1.7	100.0	(932)
자녀수 ($\chi^2=7.0$)							
0명	49.3	39.4	10.1	1.2	1.6	100.0	(601)
1명	45.0	41.6	12.0	1.3	1.7	100.0	(764)
2명 이상	46.3	37.5	14.3	1.9	1.7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7.0$)							
250만 원 미만	46.4	39.8	12.0	1.8	1.7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45.9	40.3	12.7	1.1	1.7	100.0	(529)
350만 원 이상	51.4	39.7	8.9	-	1.6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음주 및 흡연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¹⁰⁴⁾ 남편의 13.1%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14.4%), 연령이 30대(13.7%), 외벌이(12.9%), 자녀가 2명 이상(15.4%)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지속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내의 경우는 28.8%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남편 13.1%보다 15.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그 외 지역(30.6%), 연령이 30대(30.4%), 학력이 대졸(29.7%), 외벌이(30.8%)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표 11-27〉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배우자 음주 및 흡연 문제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49.0	37.9	12.2	0.9	1.7	100.0	(1,779)
지역 ($\chi^2=8.6$)							
서울·경기	50.4	35.6	12.9	1.2	1.7	100.0	(852)
광역시	45.0	40.6	13.5	0.9	1.7	100.0	(454)
그 외	50.3	39.3	9.7	0.6	1.6	100.0	(473)
연령 ($\chi^2=4.9$)							
20대	55.1	32.6	11.5	0.8	1.6	100.0	(125)
30대	49.0	37.3	12.7	1.0	1.7	100.0	(1,286)
40대 이상	46.8	41.6	10.7	0.9	1.7	100.0	(368)
학력 ($\chi^2=8.3$)							
고졸 이하	52.3	31.0	14.8	1.9	1.7	100.0	(226)
대졸	48.4	38.9	11.9	0.8	1.7	100.0	(1,496)
대학원 졸	52.5	38.7	8.8	-	1.6	100.0	(56)

104)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42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혼인지속기간 ($\chi^2=3.1$)							
1~2년	49.1	36.1	13.7	1.2	1.7	100.0	(378)
3~5년	49.6	37.1	12.2	1.0	1.7	100.0	(806)
6~7년	48.1	40.0	11.2	0.7	1.7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6.5$)							
맞벌이	49.9	38.4	11.0	0.7	1.6	100.0	(613)
외벌이	49.0	38.0	11.8	1.1	1.7	100.0	(932)
자녀수 ($\chi^2=5.4$)							
0명	51.1	35.9	12.2	0.8	1.6	100.0	(601)
1명	47.8	40.2	11.1	1.0	1.7	100.0	(764)
2명 이상	48.1	36.4	14.3	1.1	1.7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29.4^{***}$)							
250만 원 미만	50.3	24.4	22.8	2.5	1.8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48.5	38.8	11.9	0.7	1.7	100.0	(671)
350만 원 이상	49.1	39.3	10.7	0.9	1.6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28〉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배우자 음주 및 흡연 문제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36.4	34.7	26.8	2.0	1.9	100.0	(1,779)
지역 ($\chi^2=7.6$)							
서울·경기	37.7	33.7	26.9	1.7	1.9	100.0	(852)
광역시	34.5	38.1	26.2	1.2	1.9	100.0	(454)
그 외	36.1	33.3	27.4	3.2	2.0	100.0	(473)
연령 ($\chi^2=13.7^*$)							
20대	42.6	33.7	21.0	2.7	1.8	100.0	(345)
30대	35.4	34.3	28.7	1.7	2.0	100.0	(1,214)
40대	32.7	38.7	25.8	2.8	2.0	100.0	(220)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학력 ($\chi^2=15.0^*$)							
고졸 이하	36.2	36.0	24.7	3.0	2.0	100.0	(277)
대졸	35.8	34.5	27.8	1.9	2.0	100.0	(1,463)
대학원 졸	61.0	32.1	6.9	-	1.5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3.3$)							
1~2년	39.4	34.8	24.3	1.5	1.9	100.0	(378)
3~5년	36.2	34.7	27.0	2.1	2.0	100.0	(806)
6~7년	34.9	34.6	28.2	2.3	2.0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3.0^*$)							
맞벌이	38.0	35.1	26.3	0.6	1.9	100.0	(613)
외벌이	36.0	33.3	27.9	2.9	2.0	100.0	(932)
자녀수($\chi^2=14.6^*$)							
0명	40.8	35.5	21.9	1.8	1.9	100.0	(601)
1명	34.1	35.2	28.9	1.8	2.0	100.0	(764)
2명 이상	34.5	32.7	30.2	2.6	2.0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2.8^*$)							
250만 원 미만	35.8	33.8	27.7	2.8	2.0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35.7	37.3	25.8	1.2	1.9	100.0	(529)
350만 원 이상	42.4	32.4	25.0	0.1	1.8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지난 1년간 기타(도박 및 이성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난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¹⁰⁵⁾ 남편의 5.9%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7.1%), 연령이 30대(6.2%), 혼인 연차가 1~2년(6.7%), 외벌이(6.1%)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105) '가끔 있었음'과 '항상 있었음'을 합한 수치임.

아내의 경우는 7.1%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남편 7.3%보다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이 30대(7.6%), 혼인 연차가 6~7년(7.5%), 외벌이(7.6%),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7.7%)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11-29〉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남편): 기타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61.7	32.4	5.7	0.2	1.5	100.0	(1,779)
지역							
서울·경기	60.8	33.3	5.6	0.3	1.5	100.0	(852)
광역시	64.4	28.5	6.7	0.4	1.4	100.0	(454)
그 외	60.5	34.6	4.9	-	1.4	100.0	(473)
연령							
20대	59.5	34.8	5.8	-	1.5	100.0	(125)
30대	62.3	31.4	5.9	0.3	1.4	100.0	(1,286)
40대 이상	60.2	35.0	4.8	-	1.5	100.0	(368)
학력							
고졸 이하	61.2	30.0	8.8	-	1.5	100.0	(226)
대졸	61.6	32.7	5.4	0.3	1.4	100.0	(1,496)
대학원 졸	65.9	34.1	-	-	1.3	100.0	(56)
혼인지속기간							
1~2년	61.6	31.7	6.6	0.1	1.5	100.0	(378)
3~5년	61.1	33.5	5.1	0.3	1.5	100.0	(806)
6~7년	62.5	31.4	5.9	0.2	1.4	100.0	(59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4.3	31.9	3.6	0.2	1.4	100.0	(613)
외벌이	61.1	32.8	5.8	0.3	1.5	100.0	(932)
자녀수							
0명	62.4	31.9	5.6	0.1	1.4	100.0	(601)
1명	60.0	34.2	5.5	0.4	1.5	100.0	(764)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2명 이상	63.6	29.8	6.3	0.3	1.4	100.0	(41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65.1	26.4	8.2	0.3	1.4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61.7	31.0	7.0	0.4	1.5	100.0	(671)
350만 원 이상	61.1	34.4	4.4	0.2	1.4	100.0	(95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30〉 지난 1년간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 이유(아내): 기타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전체	63.0	30.0	6.7	0.4	1.4	100.0	(1,779)
지역							
서울·경기	63.3	29.0	7.0	0.7	1.5	100.0	(852)
광역시	65.4	28.1	6.6	-	1.4	100.0	(454)
그 외	60.1	33.5	6.3	0.1	1.5	100.0	(473)
연령							
20대	64.2	31.0	4.1	0.7	1.4	100.0	(345)
30대	64.0	28.3	7.3	0.3	1.4	100.0	(1,214)
40대	55.4	37.2	7.4	-	1.5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58.5	35.0	5.9	0.5	1.5	100.0	(277)
대졸	63.5	29.2	7.0	0.3	1.4	100.0	(1,463)
대학원 졸	74.9	22.7	2.4	-	1.3	100.0	(40)
혼인지속기간							
1~2년	63.7	28.9	7.4	-	1.4	100.0	(378)
3~5년	62.6	30.7	6.2	0.4	1.4	100.0	(806)
6~7년	63.0	29.5	7.0	0.5	1.5	100.0	(59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7.7	26.5	5.7	0.2	1.4	100.0	(613)
외벌이	61.6	30.9	7.1	0.5	1.5	100.0	(932)

구분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평균	계(%)	(N)
자녀수							
0명	65.8	27.7	6.3	0.2	1.4	100.0	(601)
1명	59.5	33.5	6.5	0.5	1.5	100.0	(764)
2명 이상	65.2	26.7	7.7	0.4	1.4	100.0	(41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60.8	32.0	6.6	0.6	1.5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65.4	26.9	7.7	-	1.4	100.0	(529)
350만 원 이상	68.4	26.8	4.7	-	1.4	100.0	(1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몇 분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 대화하는 시간은 만나서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먼저 남편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111.1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112.9분으로 가장 길고, 광역시 112.8분, 그 외 지역이 106.4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대화시간이 감소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107.2분)와 비교하여 외벌이(111.3분)의 대화시간이 많으며, 자녀수가 적을수록 대화시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대화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아내가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은 116.5분으로 나타나 아내가 남편보다 5.4분 더 이야기한다고 보고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119.0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가 116.7분, 그 외 지역이 111.7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남편과 유사하게 20대에서 129.8분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115.4분이며, 40대가 101.3분으로 가장 짧다. 학력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졸업이 166.1분으로 가장 긴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대화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특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에서 남편과 아내의 공통 특징은 서울·경기, 20대, 대학원 졸, 혼인 연차가 1~2년 차일 경우에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표 11-31〉 평일 기준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단위: 분, 명)

구분	남편		아내	
	시간	(N)	시간	(N)
전체	111.1	(1,779)	116.5	(1,779)
지역				
서울·경기	112.9	(852)	119.0	(852)
광역시	112.8	(454)	116.7	(454)
그 외	106.4	(473)	111.7	(473)
연령				
20대	140.5	(125)	129.8	(345)
30대	112.9	(1,286)	115.4	(1,214)
40대	94.8	(368)	101.3	(220)
학력				
고졸 이하	114.8	(226)	111.3	(277)
대졸	108.7	(1,496)	116.1	(1,463)
대학원 졸	160.5	(56)	166.1	(40)
혼인지속기간				
1~2년	127.1	(378)	132.8	(378)
3~5년	113.8	(806)	119.6	(806)
6~7년	97.4	(595)	101.9	(59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7.2	(613)	111.4	(613)
외벌이	111.3	(932)	115.3	(932)
자녀수				
0명	129.2	(601)	131.7	(601)
1명	103.7	(764)	111.5	(764)
2명 이상	98.7	(415)	103.4	(41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146.8	(153)	117.7	(1,069)
250~350만 원 미만	113.0	(671)	112.3	(529)
350만 원 이상	104.1	(955)	121.2	(181)

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만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은 배우자와의 대화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는 만나서 대화하는 것, 전화 통화, 카카오톡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배우자와 소통하는 전반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대화의 충분한 정도에 대한 것이다.

아내와 충분히 대화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비율¹⁰⁶⁾은 71.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외 지역이 79.2%로 가장 높고, 광역시가 76.8%, 서울·경기 지역이 63.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대화시간이 충분하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충분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학원 졸(69.1%)에서 가장 높고, 외벌이(70.3%)보다 맞벌이(72.5%)에서 높고, 자녀가 적을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으나, 현재 소득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남편과 충분히 대화한다고 생각하는 아내의 비율은 65.7%로, 남편의 71.1%보다 5.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에서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58.1%로 낮게 나타난 점은 남편의 경향과 유사하다. 연령별로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20대에서 72.9%로 높고, 학력에서는 대학원 졸이 66.3%, 현재 소득에서는 350만원 이상이 79.2%로 가장 높다. 그리고 맞벌이(68.8%)가 외벌이(63.2%)보다 높고, 자녀가 적을수록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남편과 유사하게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충분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6)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표 11-32〉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도(남편)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3.2	25.7	65.0	6.1	100.0	(1,779)
지역 ($\chi^2=48.5^{***}$)						
서울·경기	4.7	31.8	57.9	5.7	100.0	(852)
광역시	1.8	21.4	70.8	6.0	100.0	(454)
그 외	1.8	19.0	72.2	7.0	100.0	(473)
연령 ($\chi^2=17.2^{**}$)						
20대	3.3	21.5	62.8	12.3	100.0	(125)
30대	2.9	24.7	66.7	5.7	100.0	(1,286)
40대 이상	4.3	30.9	59.6	5.3	100.0	(368)
학력 ($\chi^2=7.6$)						
고졸 이하	3.5	26.3	61.2	9.0	100.0	(226)
대졸	3.2	25.5	65.8	5.5	100.0	(1,496)
대학원 졸	1.6	29.3	57.9	11.2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35.1^{***}$)						
1~2년	2.4	16.1	72.4	9.1	100.0	(378)
3~5년	3.0	27.4	63.3	6.4	100.0	(806)
6~7년	4.0	29.6	62.6	3.8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1.0$)						
맞벌이	2.1	25.4	66.1	6.4	100.0	(613)
외벌이	3.1	26.6	64.4	5.9	100.0	(932)
자녀수 ($\chi^2=49.0^{***}$)						
0명	3.6	17.0	69.9	9.5	100.0	(601)
1명	2.6	29.4	63.5	4.5	100.0	(764)
2명 이상	3.7	31.6	60.4	4.3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7.7^{**}$)						
250만 원 미만	2.2	27.0	58.1	12.8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3.0	24.5	67.7	4.8	100.0	(671)
350만 원 이상	3.5	26.4	64.2	6.0	100.0	(955)

주: 1) * $p<0.05$, ** $p<0.01$, *** $p<0.001$ 2) 만나서 대화하는 것, 전화 통화, 카카오톡 등으로 배우자와 소통하는 전반에 대해 느끼는
충분함 정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33〉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도(아내)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4.6	29.7	59.7	6.0	100.0	(1,779)
지역 ($\chi^2=47.0^{***}$)						
서울·경기	5.2	36.8	53.5	4.6	100.0	(852)
광역시	3.6	22.0	66.5	7.9	100.0	(454)
그 외	4.4	24.3	64.3	6.9	100.0	(473)
연령 ($\chi^2=18.6^{**}$)						
20대	2.9	24.2	64.3	8.6	100.0	(345)
30대	5.4	30.7	58.2	5.7	100.0	(1,214)
40대	2.6	32.7	60.9	3.8	100.0	(220)
학력 ($\chi^2=1.5$)						
고졸 이하	4.8	29.4	60.4	5.4	100.0	(277)
대졸	4.4	29.8	59.6	6.2	100.0	(1,463)
대학원 졸	7.5	26.2	59.9	6.4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48.0^{***}$)						
1~2년	4.6	16.3	70.0	9.1	100.0	(378)
3~5년	3.8	33.2	57.5	5.5	100.0	(806)
6~7년	5.6	33.5	56.1	4.8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8.8$)						
맞벌이	3.4	27.8	63.0	5.8	100.0	(613)
외벌이	5.0	31.8	57.2	6.0	100.0	(932)
자녀수 ($\chi^2=83.7^{***}$)						
0명	3.1	18.5	69.1	9.2	100.0	(601)
1명	3.9	36.8	55.4	3.9	100.0	(764)
2명 이상	7.9	32.9	53.9	5.3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6.9^*$)						
250만 원 미만	5.0	30.9	58.3	5.8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4.8	30.7	58.7	5.8	100.0	(529)
350만 원 이상	1.4	19.4	70.8	8.4	100.0	(181)

주: 1) * $p<0.05$, ** $p<0.01$, *** $p<0.001$

주: 2) 만나서 대화하는 것, 전화 통화, 카카오톡 등으로 배우자와 소통하는 전반에 대해 느끼는 충분함 정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배우자와의 대화 주제 1순위는 남편의 경우 ‘자녀’가 39.3%로 가장 높고, ‘일(회사)’가 23.9%, ‘주제 없음’이 20.2%로 나타났다. ‘자녀’가 주제인 경우에는 광역시(45.0%), 40대 이상(49.7%), 대학원 졸(43.5%), 혼인 연차 6~7년(52.7%), 외벌이(44.2%), 자녀 2명 이상(57.8%), 현재 소득 350만 원 이상(43.4%)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일(회사)’의 경우는 그 외 지역(26.2%), 20대(28.8=7%), 고졸 이하(27.7%), 혼인 연차 1~2년(35.3%), 맞벌이(30.5%), 자녀가 없는 경우(36.4%), 현재 소득 250~350만 원 미만(27.1%)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제 없음’은 서울·경기 지역(23.8%), 20대(28.0%), 고졸 이하(29.5%), 혼인 연차 1~2년(24.2%), 맞벌이(21.8%), 자녀가 없는 경우(27.2%), 현재 소득 250만 원 미만(24.4%)에서 높은 특징이 있다.

아내의 경우도 ‘자녀’가 42.0%로 가장 높고, ‘주제 없음’과 ‘일(회사)’가 각각 22.0%, 21.6%로 남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광역시(48.9%), 40대(46.8%), 대학원 졸(50.8%), 혼인 연차 6~7년(57.6%), 외벌이(45.9%), 자녀가 2명 이상(61.5%), 현재 소득 350만 원 이상(46.8%)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주제 없음’의 경우는 서울·경기 지역(25.8%), 20대(25.1%), 고졸 이하(27.4%), 혼인 연차 1~2년(25.1%), 맞벌이와 외벌이가 동일하게 나타났고(23.2%), 자녀가 없는 경우(29.4%), 현재 소득 250만 원 미만(22.9%)에서 높은 특징이 있다. ‘일(회사)’은 그 외 지역(25.5%), 20대(30.1%), 대졸(22.2%), 혼인 연차 1~2년(35.6%), 맞벌이(29.0%), 자녀가 없는 경우(37.2%), 현재 소득 250~350만 원 미만(30.2%)에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표 11-34〉 대화 주제(남편) - 1순위

(단위: %, 명)

구분	일 (회사)	자녀	여행 취미	주변 사람	시사 뉴스	경제 재테크	주제 없음	기타	계(%)	(N)
전체	23.9	39.3	7.3	5.7	1.4	2.1	20.2	0.0	100.0	(1,779)
지역 ($\chi^2=56.5^{***}$)										
서울·경기	21.7	36.5	9.7	4.7	2.1	1.5	23.8	-	100.0	(852)
광역시	25.8	45.0	6.3	7.4	0.8	1.9	12.7	0.1	100.0	(454)
그 외	26.2	39.0	4.2	5.9	0.5	3.3	20.9	-	100.0	(473)
연령										
20대	28.7	18.0	12.3	10.1	0.9	2.0	28.0	-	100.0	(125)
30대	24.8	38.5	8.0	5.3	1.6	2.3	19.5	0.0	100.0	(1,286)
40대 이상	19.5	49.7	3.4	5.7	0.7	1.3	19.8	-	100.0	(368)
학력										
고졸 이하	27.7	26.0	6.1	6.5	1.2	3.0	29.5	0.1	100.0	(226)
대졸	23.5	41.2	7.7	5.7	1.3	1.7	18.9	-	100.0	(1,496)
대학원 졸	20.2	43.5	3.7	2.5	4.2	9.0	16.9	-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210.1^{***}$)										
1~2년	35.3	11.7	15.5	10.0	1.7	1.5	24.2	0.1	100.0	(378)
3~5년	21.7	42.4	7.4	4.4	1.5	2.7	19.9	-	100.0	(806)
6~7년	19.7	52.7	2.1	4.8	1.0	1.7	18.1	-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83.1^{***}$)										
맞벌이	30.5	29.7	10.3	4.1	1.7	1.9	21.8	0.0	100.0	(613)
외벌이	20.1	44.2	4.9	6.8	1.2	1.4	21.3	-	100.0	(932)
자녀수 ($\chi^2=527.3^{***}$)										
0명	36.4	4.2	16.3	11.3	1.7	3.0	27.2	0.1	100.0	(601)
1명	16.0	57.0	3.7	2.9	1.4	1.2	17.7	-	100.0	(764)
2명 이상	20.6	57.8	1.1	2.9	0.8	2.3	14.6	-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23.6$)										
250만 원 미만	24.0	30.5	7.5	10.5	1.1	2.0	24.4	-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27.1	35.6	8.0	5.3	1.6	2.4	19.8	-	100.0	(671)
350만 원 이상	21.7	43.4	6.8	5.2	1.2	1.9	19.8	0.0	100.0	(955)

주: 1) * $p<0.05$, ** $p<0.01$, *** $p<0.001$

2) 만나서 대화하는 것, 전화 통화, 카카오톡 등 배우자와의 소통 전반에 대해 느끼는 충분함 정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35〉 대화 주제(아내) - 1순위

(단위: %, 명)

구분	일 (회사)	자녀	여행 취미	주변 사람	시사 뉴스	경제 재테크	주제 없음	기타	계(%)	(N)
전체	21.6	42.0	6.1	5.5	1.6	1.4	22.0	0.0	100.0	(1,779)
지역 ($\chi^2=43.6^{***}$)										
서울·경기	18.4	39.8	6.5	5.8	2.4	1.2	25.8	-	100.0	(852)
광역시	23.4	48.9	6.4	4.5	0.8	1.4	14.6	0.1	100.0	(454)
그 외	25.5	39.2	5.1	5.8	0.7	1.7	22.0	-	100.0	(473)
연령										
20대	30.1	26.4	9.1	5.0	3.6	0.6	25.1	0.1	100.0	(345)
30대	20.0	45.5	5.5	5.1	1.1	1.9	21.0	-	100.0	(1,214)
40대	16.9	46.8	4.6	8.3	1.1	-	22.3	-	100.0	(220)
학력										
고졸 이하	19.7	39.3	5.3	5.1	1.6	1.5	27.4	-	100.0	(277)
대졸	22.2	42.2	6.1	5.5	1.3	1.4	21.2	0.0	100.0	(1,463)
대학원 졸	13.6	50.8	11.0	4.2	8.6	-	11.8	-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244.4^{***}$)										
1~2년	35.6	12.9	15.1	8.1	2.1	0.9	25.1	0.1	100.0	(378)
3~5년	20.2	44.0	4.3	5.6	1.8	1.8	22.2	-	100.0	(806)
6~7년	14.5	57.6	2.7	3.6	0.9	1.1	19.6	-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85.3^{***}$)										
맞벌이	29.0	31.4	8.1	6.6	0.7	1.0	23.2	0.0	100.0	(613)
외벌이	18.5	45.9	4.3	5.0	1.7	1.4	23.2	-	100.0	(932)
자녀수 ($\chi^2=559.4^{***}$)										
0명	37.2	5.1	14.1	9.3	3.3	1.6	29.4	0.1	100.0	(601)
1명	12.7	60.4	2.7	4.0	0.6	1.5	18.2	-	100.0	(764)
2명 이상	15.4	61.5	0.7	2.6	0.9	0.9	18.2	-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73.7^{***}$)										
250만 원 미만	16.7	46.3	5.5	5.0	2.0	1.5	22.9	0.0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30.2	31.6	6.6	6.2	0.6	0.7	24.1	-	100.0	(529)
350만 원 이상	25.1	46.8	7.8	5.8	1.6	2.5	10.3	-	100.0	(181)

주: 1) * $p<0.05$, ** $p<0.01$, *** $p<0.001$

2) 만나서 대화하는 것, 전화 통화, 카카오톡 등 배우자와의 소통 전반에 대해 느끼는 충분함 정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배우자와의 2순위 대화 주제는 남편의 경우 ‘주변 사람’이 33.3%, ‘일(회사)’이 21.4%, ‘여행·취미’가 17.0%의 순으로 나타났고, 아내의 경우도 남편과 유사하게 ‘주변 사람’이 34.8%, ‘일(회사)’이 22.3%, ‘여행·취미’가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36〉 대화 주제 - 2순위: 남편, 아내

(단위: %, 명)

구분	일 (회사)	자녀	여행· 취미	주변 사람	시사 뉴스	경제 재테크	주제 없음	기타	계(%)	(N)
남편	21.4	17.2	17.0	33.3	2.8	8.3	-	0.0	100.0	(1,379)
아내	22.3	15.0	16.1	34.8	2.9	8.8	-	-	100.0	(1,353)

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전화 통화, 카카오톡 등 배우자와의 소통 전반에 대해 느끼는 충분함 정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한 남편의 생각에 대해 살펴보면, 긍정하는 비율¹⁰⁷⁾이 49.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그 외 지역(52.1%), 외벌이(49.7%), 현재 소득이 250만 원~350만 원(50.9%)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긍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내를 살펴보면, 긍정하는 비율이 57.8%로 나타나 남편보다 8.2%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59.1%), 연령별로는 30대(60.3%), 맞벌이(58.7%),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61.0%)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이 외에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긍정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7)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표 11-37〉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한 견해: 남편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7.7	42.7	44.3	5.3	100.0	2.5	(1,779)
지역 ($\chi^2=19.7^{**}$)							
서울·경기	5.5	44.9	43.3	6.2	100.0	2.5	(852)
광역시	10.6	42.1	44.2	3.1	100.0	2.4	(454)
그 외	8.7	39.2	46.2	5.9	100.0	2.5	(473)
연령 ($\chi^2=6.5$)							
20대	10.9	41.7	39.8	7.7	100.0	2.4	(125)
30대	7.5	43.6	43.8	5.2	100.0	2.5	(1,286)
40대 이상	7.2	39.9	47.9	5.1	100.0	2.5	(368)
학력 ($\chi^2=13.5^*$)							
고졸 이하	6.5	36.6	48.8	8.1	100.0	2.6	(226)
대졸	7.7	43.1	44.2	5.0	100.0	2.5	(1,496)
대학원 졸	10.6	56.7	28.6	4.1	100.0	2.3	(56)
혼인지속기간 ($\chi^2=16.8^*$)							
1~2년	8.5	44.6	39.2	7.7	100.0	2.5	(378)
3~5년	8.9	43.4	43.2	4.6	100.0	2.4	(806)
6~7년	5.5	40.5	49.1	4.9	100.0	2.5	(595)
맞벌이 여부 ($\chi^2=36.1^{***}$)							
맞벌이	5.7	45.7	42.7	5.9	100.0	2.5	(613)
외벌이	7.0	43.3	43.9	5.8	100.0	2.5	(932)
자녀수 ($\chi^2=20.4^{**}$)							
0명	10.6	46.0	38.5	4.9	100.0	2.4	(601)
1명	6.0	41.7	46.4	5.9	100.0	2.5	(764)
2명 이상	6.6	39.7	48.9	4.9	100.0	2.5	(415)
본인현재소득 ($\chi^2=8.4$)							
250만 원 미만	13.3	39.2	41.0	6.4	100.0	2.4	(153)
250~350만 원 미만	7.2	42.0	45.8	5.1	100.0	2.5	(671)
350만 원 이상	7.1	43.7	43.8	5.4	100.0	2.5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38〉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한 견해: 아내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6.5	35.7	50.6	7.2	2.6	100.0	(1,779)
지역 ($\chi^2=16.2^*$)							
서울·경기	5.0	35.8	49.9	9.2	2.6	100.0	(852)
광역시	8.5	36.7	50.0	4.8	2.5	100.0	(454)
그 외	7.1	34.6	52.4	5.9	2.6	100.0	(473)
연령 ($\chi^2=18.6^{**}$)							
20대	5.3	43.9	46.1	4.8	2.5	100.0	(345)
30대	6.7	33.0	52.8	7.5	2.6	100.0	(1,214)
40대	7.0	37.8	45.6	9.6	2.6	100.0	(220)
학력 ($\chi^2=17.1^{**}$)							
고졸 이하	6.2	29.1	55.1	9.6	2.7	100.0	(277)
대졸	6.3	36.9	50.2	6.6	2.6	100.0	(1,463)
대학원 졸	12.8	37.3	34.0	15.9	2.5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7.0^{**}$)							
1~2년	6.7	40.2	47.5	5.6	2.5	100.0	(378)
3~5년	6.9	37.1	49.8	6.2	2.6	100.0	(806)
6~7년	5.7	30.9	53.7	9.7	2.7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9.0^{**}$)							
맞벌이	5.4	36.0	51.7	7.0	2.6	100.0	(613)
외벌이	6.0	35.7	49.8	8.6	2.6	100.0	(932)
자녀수 ($\chi^2=34.5^{***}$)							
0명	7.9	43.8	42.6	5.7	2.5	100.0	(601)
1명	5.5	32.2	54.0	8.3	2.7	100.0	(764)
2명 이상	6.3	30.4	55.8	7.5	2.7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34.1^{***}$)							
250만 원 미만	6.0	36.0	50.5	7.5	2.6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4.3	34.7	54.1	6.9	2.6	100.0	(529)
350만 원 이상	15.8	36.5	41.2	6.5	2.4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를 갖는 것이다」에 대한 남편의 생각을 살펴 보면, 긍정하는 비율¹⁰⁸⁾이 31.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34.8%), 연령이 30대(32.6%), 외벌이(34.2%),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31.9%)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지속 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의 경우는 30.2%로 남편보다 1.4%포인트 낮다. 상세한 속성별 특성은 대체로 남편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광역시(32.0%), 연령이 40대(31.3%), 학력이 대학원 졸(36.1%), 혼인 연차가 6~7년(34.9%), 외벌이(33.2%),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32.2%)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9〉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를 갖는 것이다」에 대한 견해: 남편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17.9	50.5	25.7	5.9	100.0	2.2	(1,779)
지역 ($\chi^2=30.9^{***}$)							
서울·경기	21.1	46.1	27.0	5.8	100.0	2.2	(852)
광역시	11.7	53.4	26.7	8.1	100.0	2.3	(454)
그 외	18.1	55.6	22.3	4.0	100.0	2.1	(473)
연령 ($\chi^2=13.0^*$)							
20대	23.8	52.1	19.6	4.6	100.0	2.1	(125)
30대	16.2	51.2	26.3	6.3	100.0	2.2	(1,286)
40대 이상	21.9	47.7	25.6	4.7	100.0	2.1	(368)
학력 ($\chi^2=7.3$)							
고졸 이하	15.9	50.0	26.8	7.3	100.0	2.3	(226)

108)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대출	18.1	50.3	26.0	5.6	100.0	2.2	(1,496)
대학원 졸	20.5	58.8	11.6	9.0	100.0	2.1	(56)
혼인지속기간 ($\chi^2=10.2$)							
1~2년	21.1	51.9	20.4	6.6	100.0	2.1	(378)
3~5년	16.3	51.4	26.5	5.8	100.0	2.2	(806)
6~7년	18.1	48.4	27.9	5.5	100.0	2.2	(595)
맞벌이 여부 ($\chi^2=22.8^{**}$)							
맞벌이	21.1	53.7	20.0	5.2	100.0	2.1	(613)
외벌이	16.8	49.0	28.6	5.6	100.0	2.2	(932)
자녀수 ($\chi^2=10.9$)							
0명	20.3	52.4	21.5	5.9	100.0	2.1	(601)
1명	17.2	50.1	27.2	5.6	100.0	2.2	(764)
2명 이상	15.9	48.6	29.0	6.5	100.0	2.3	(415)
본인현재소득 ($\chi^2=8.3$)							
250만 원 미만	19.9	46.0	25.4	8.8	100.0	2.2	(153)
250~350만 원 미만	15.8	53.6	25.3	5.2	100.0	2.2	(671)
350만 원 이상	19.1	49.1	26.0	5.9	100.0	2.2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40〉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를 갖는 것이다」에 대한 견해: 아내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20.7	49.0	25.0	5.2	2.2	100.0	(1,779)
지역 ($\chi^2=13.1^*$)							
서울·경기	22.0	46.4	25.9	5.7	2.2	100.0	(852)
광역시	17.4	50.7	25.4	6.6	2.2	100.0	(454)
그 외	21.5	52.2	23.3	3.0	2.1	100.0	(473)
연령 ($\chi^2=6.8$)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20대	22.5	46.4	27.6	3.5	2.1	100.0	(345)
30대	20.3	49.9	24.0	5.9	2.2	100.0	(1,214)
40대	20.4	48.3	27.1	4.2	2.2	100.0	(220)
학력 ($\chi^2=2.0$)							
고졸 이하	19.7	48.7	25.5	6.1	2.2	100.0	(277)
대졸	20.9	49.3	24.8	5.0	2.1	100.0	(1,463)
대학원 졸	21.7	42.1	29.4	6.7	2.2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6.0^*$)							
1~2년	24.9	46.6	23.5	5.0	2.1	100.0	(378)
3~5년	20.5	51.8	22.2	5.4	2.1	100.0	(806)
6~7년	18.3	46.8	29.9	5.0	2.2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21.5^{**}$)							
맞벌이	23.2	52.3	19.7	4.8	2.1	100.0	(613)
외벌이	18.7	48.1	27.2	6.0	2.2	100.0	(932)
자녀수 ($\chi^2=19.2^{**}$)							
0명	25.8	47.9	21.4	4.9	2.1	100.0	(601)
1명	18.3	50.3	25.7	5.8	2.2	100.0	(764)
2명 이상	17.7	48.5	29.3	4.5	2.2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7.3^{**}$)							
250만 원 미만	18.1	49.7	26.7	5.5	2.2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23.6	49.7	22.7	4.0	2.1	100.0	(529)
350만 원 이상	27.7	43.5	21.9	6.9	2.1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자녀가 어릴 때 엄마가 일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견해에 대한 남편의 생각을 살펴보면, 동의하는 비율¹⁰⁹⁾이 5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51.3%), 외벌이(55.7%), 현재

109)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소득이 250만 원 미만(53.1%)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아내의 경우는 48.7%로 남편의 50.4 %와 비교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1.7%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50.8%), 외벌이(52.9%),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51.6%)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이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질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¹¹⁰⁾

〈표 11-41〉 「자녀가 어릴 때 엄마가 일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에 대한 견해: 남편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12.5	37.1	44.4	6.0	100.0	2.4	(1,779)
지역 ($\chi^2=20.0^{**}$)							
서울·경기	15.2	33.6	45.0	6.3	100.0	2.4	(852)
광역시	10.4	40.5	44.8	4.3	100.0	2.4	(454)
그 외	9.5	40.4	42.8	7.3	100.0	2.5	(473)
연령 ($\chi^2=15.5^*$)							
20대	19.7	40.0	31.1	9.1	100.0	2.3	(125)
30대	12.3	37.4	44.5	5.7	100.0	2.4	(1,286)
40대 이상	10.5	35.1	48.4	6.1	100.0	2.5	(368)
학력 ($\chi^2=8.2$)							
고졸 이하	8.3	35.2	48.3	8.2	100.0	2.6	(226)
대졸	12.9	37.6	43.8	5.7	100.0	2.4	(1,496)
대학원 졸	18.0	33.0	42.4	6.5	100.0	2.4	(56)
혼인지속기간 ($\chi^2=27.7^{***}$)							
1~2년	16.0	40.3	39.9	3.7	100.0	2.3	(378)

110) 연령은 유의하지 않지만, 학력, 혼인 연차, 자녀수는 유의함.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3~5년	14.0	37.2	42.3	6.5	100.0	2.4	(806)
6~7년	8.0	35.1	49.9	7.0	100.0	2.6	(595)
맞벌이 여부 ($\chi^2=43.3^{***}$)							
맞벌이	17.3	41.5	36.1	5.1	100.0	2.3	(613)
외벌이	9.4	34.9	48.5	7.2	100.0	2.5	(932)
자녀수 ($\chi^2=39.6^{***}$)							
0명	17.4	38.5	40.8	3.4	100.0	2.3	(601)
1명	11.2	37.8	43.3	7.8	100.0	2.5	(764)
2명 이상	7.7	33.9	51.6	6.8	100.0	2.6	(415)
본인현재소득 ($\chi^2=16.0^*$)							
250만 원 미만	14.9	32.0	43.2	9.9	100.0	2.5	(153)
250~350만 원 미만	10.7	39.7	45.6	3.9	100.0	2.4	(671)
350만 원 이상	13.3	36.1	43.7	6.9	100.0	2.4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42〉 「자녀가 어릴 때 엄마가 일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에
대한 의견: 아내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10.4	40.9	42.1	6.6	2.5	100.0	(1,779)
지역 ($\chi^2=13.9^*$)							
서울·경기	11.6	37.6	43.8	7.0	2.5	100.0	(852)
광역시	10.5	45.7	39.1	4.7	2.4	100.0	(454)
그 외	8.2	42.2	41.9	7.7	2.5	100.0	(473)
연령 ($\chi^2=9.6$)							
20대	12.8	43.3	38.1	5.8	2.4	100.0	(345)
30대	10.5	40.4	42.6	6.4	2.5	100.0	(1,214)
40대	6.5	39.6	45.2	8.8	2.6	100.0	(22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학력 ($\chi^2=22.3^{**}$)							
고졸 이하	5.5	39.5	45.2	9.7	2.6	100.0	(277)
대졸	11.2	41.1	41.9	5.8	2.4	100.0	(1,463)
대학원 졸	14.2	44.7	25.2	15.9	2.4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30.3^{***}$)							
1~2년	13.6	43.3	36.2	6.9	2.4	100.0	(378)
3~5년	12.0	39.6	43.7	4.7	2.4	100.0	(806)
6~7년	6.3	41.1	43.5	9.1	2.6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27.1^{***}$)							
맞벌이	13.7	43.8	37.5	5.0	2.3	100.0	(613)
외벌이	7.5	39.7	45.2	7.7	2.5	100.0	(932)
자녀수 ($\chi^2=48.5^{***}$)							
0명	16.5	43.2	34.7	5.6	2.3	100.0	(601)
1명	8.0	40.2	45.4	6.4	2.5	100.0	(764)
2명 이상	6.2	38.8	46.6	8.4	2.6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35.6^{***}$)							
250만 원 미만	8.8	39.8	44.1	7.3	2.5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10.8	47.2	36.7	5.3	2.4	100.0	(529)
350만 원 이상	19.2	29.2	45.6	6.0	2.4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가 가정을 지키는 삶의 방식은 바람직하다」에 대한 남편의 생각을 살펴보면, 긍정하는 비율¹¹¹⁾이 47.4%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광역시(49.9%), 외벌이(49.1%), 자녀가 1명(51.7%),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50.5%)에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비

111)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아내의 경우는 긍정하는 비율이 43.5%로 남편의 47.4%보다 3.9%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49.4%), 연령이 40대(52.3%), 외벌이(44.9%)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긍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11-43〉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가 가정을 지키는 삶의 방식은 바람직하다」에 대한 견해: 남편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12.3	40.3	42.1	5.3	100.0	2.4	(1,779)
지역 ($\chi^2=33.9^{***}$)							
서울·경기	16.6	38.7	40.7	4.0	100.0	2.3	(852)
광역시	7.9	42.3	42.2	7.7	100.0	2.5	(454)
그 외	8.8	41.3	44.5	5.3	100.0	2.5	(473)
연령 ($\chi^2=4.6$)							
20대	12.8	42.7	37.1	7.5	100.0	2.4	(125)
30대	12.3	40.5	41.7	5.5	100.0	2.4	(1,286)
40대 이상	12.1	39.0	45.1	3.9	100.0	2.4	(368)
학력 ($\chi^2=21.7^{**}$)							
고졸 이하	8.8	38.1	43.1	10.0	100.0	2.5	(226)
대졸	12.6	40.2	42.6	4.5	100.0	2.4	(1,496)
대학원 졸	17.4	51.7	24.3	6.5	100.0	2.2	(56)
혼인지속기간 ($\chi^2=15.9^*$)							
1~2년	15.0	42.4	37.3	5.2	100.0	2.3	(378)
3~5년	13.2	40.5	40.4	5.9	100.0	2.4	(806)
6~7년	9.3	38.8	47.4	4.6	100.0	2.5	(595)
맞벌이 여부 ($\chi^2=11.5$)							
맞벌이	15.2	41.4	37.6	5.8	100.0	2.3	(613)
외벌이	10.8	40.1	44.2	4.9	100.0	2.4	(93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자녀수 ($\chi^2=29.8^{***}$)							
0명	16.9	42.3	35.6	5.2	100.0	2.3	(601)
1명	10.4	37.9	47.1	4.6	100.0	2.5	(764)
2명 이상	9.2	41.9	42.3	6.6	100.0	2.5	(415)
본인현재소득 ($\chi^2=15.2^*$)							
250만 원 미만	17.3	39.0	34.6	9.0	100.0	2.4	(153)
250~350만 원 미만	10.5	39.0	45.0	5.5	100.0	2.5	(671)
350만 원 이상	12.8	41.4	41.3	4.5	100.0	2.4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44〉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가 가정을 지키는 삶의 방식은 바람직하다」에
대한 견해: 아내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14.1	42.4	37.9	5.6	2.4	100.0	(1,779)
지역 ($\chi^2=31.8^{***}$)							
서울·경기	17.6	43.1	33.1	6.2	2.3	100.0	(852)
광역시	11.7	39.0	42.7	6.7	2.4	100.0	(454)
그 외	10.0	44.5	42.0	3.5	2.4	100.0	(473)
연령 ($\chi^2=16.3^*$)							
20대	15.4	41.4	38.3	5.0	2.3	100.0	(345)
30대	14.3	43.8	35.8	6.2	2.3	100.0	(1,214)
40대	11.1	36.6	48.9	3.4	2.5	100.0	(220)
학력 ($\chi^2=12.2$)							
고졸 이하	10.7	41.3	42.5	5.5	2.4	100.0	(277)
대졸	14.4	42.6	37.5	5.5	2.3	100.0	(1,463)
대학원 졸	26.0	45.3	19.6	9.1	2.1	100.0	(4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혼인지속기간 ($\chi^2=6.4$)							
1~2년	17.3	39.7	38.1	4.9	2.3	100.0	(378)
3~5년	13.7	43.0	36.9	6.4	2.4	100.0	(806)
6~7년	12.6	43.4	39.0	5.0	2.4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37.9^{***}$)							
맞벌이	20.3	38.7	36.1	4.9	2.3	100.0	(613)
외벌이	9.5	45.5	38.7	6.2	2.4	100.0	(932)
자녀수 ($\chi^2=27.4^{***}$)							
0명	19.5	37.6	36.5	6.4	2.3	100.0	(601)
1명	12.4	44.6	38.0	5.0	2.4	100.0	(764)
2명 이상	9.4	45.3	39.7	5.6	2.4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50.7^{***}$)							
250만 원 미만	10.8	43.7	39.8	5.8	2.4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15.3	42.6	36.1	6.1	2.3	100.0	(529)
350만 원 이상	30.1	34.5	32.0	3.4	2.1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부모는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남편의 생각을 살펴보면, 긍정하는 비율¹¹²⁾이 51.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56.4%), 외벌이(54.5%), 자녀가 1명(55.4%),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58.8%)에서 높은 편이었다. 이 외에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긍정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긍정하는 비율이 54.5%로 남편의 51.9%보다 2.6%포

112)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59.4%), 학력이 대학원 졸(64.1%), 외
별이(56.7%), 자녀가 1명(59.6%),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56.1%)에
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지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45〉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부모는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견해: 남편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9.4	38.8	44.4	7.5	100.0	2.5	(1,779)
지역 ($\chi^2=44.2^{***}$)							
서울·경기	14.0	37.4	41.4	7.2	100.0	2.4	(852)
광역시	5.4	38.2	48.2	8.2	100.0	2.6	(454)
그 외	4.8	41.8	46.2	7.3	100.0	2.6	(473)
연령 ($\chi^2=15.0^*$)							
20대	15.0	43.3	35.4	6.4	100.0	2.3	(125)
30대	9.7	38.6	43.8	7.9	100.0	2.5	(1,286)
40대 이상	6.2	37.9	49.6	6.3	100.0	2.6	(368)
학력 ($\chi^2=21.8^{**}$)							
고졸 이하	3.5	42.1	41.6	12.8	100.0	2.6	(226)
대졸	10.1	38.3	44.8	6.8	100.0	2.5	(1,496)
대학원 졸	12.9	39.2	43.8	4.1	100.0	2.4	(56)
혼인지속기간 ($\chi^2=25.1^{***}$)							
1~2년	11.4	41.0	41.1	6.5	100.0	2.4	(378)
3~5년	10.7	37.6	42.1	9.6	100.0	2.5	(806)
6~7년	6.2	38.9	49.7	5.2	100.0	2.5	(595)
맞벌이 여부 ($\chi^2=28.9^{***}$)							
맞벌이	12.7	40.3	38.5	8.5	100.0	2.4	(613)
외벌이	6.4	39.0	47.5	7.0	100.0	2.6	(932)
자녀수 ($\chi^2=36.1^{***}$)							
0명	14.6	40.4	38.7	6.4	100.0	2.4	(601)
1명	6.8	37.9	46.8	8.6	100.0	2.6	(76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2명 이상 본인현재소득 ($\chi^2=33.8^{***}$)	6.6	38.0	48.4	6.9	100.0	2.6	(415)
250만 원 미만	9.8	31.4	46.3	12.5	100.0	2.6	(153)
250~350만 원 미만	5.8	45.0	43.1	6.1	100.0	2.5	(671)
350만 원 이상	11.8	35.6	45.0	7.6	100.0	2.5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46〉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부모는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견해: 아내

(단위: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9.2	36.3	49.0	5.5	2.5	100.0	(1,779)
지역 ($\chi^2=47.0^{***}$)							
서울·경기	13.4	36.1	44.5	6.0	2.4	100.0	(852)
광역시	5.9	34.6	52.2	7.2	2.6	100.0	(454)
그 외	4.9	38.3	53.8	3.0	2.6	100.0	(473)
연령 ($\chi^2=9.8$)							
20대	7.4	41.3	47.2	4.2	2.5	100.0	(345)
30대	10.2	34.9	49.1	5.7	2.5	100.0	(1,214)
40대	6.3	36.1	51.2	6.4	2.6	100.0	(220)
학력 ($\chi^2=17.1^{**}$)							
고졸 이하	3.3	37.8	53.4	5.5	2.6	100.0	(277)
대졸	10.3	36.3	48.0	5.4	2.5	100.0	(1,463)
대학원 졸	10.9	24.9	53.7	10.4	2.6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2.9^*$)							
1~2년	9.5	40.3	44.8	5.3	2.5	100.0	(378)
3~5년	11.1	34.4	49.2	5.3	2.5	100.0	(806)
6~7년	6.4	36.4	51.3	5.9	2.6	100.0	(59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맞벌이 여부 ($\chi^2=41.7^{***}$)							
맞벌이	14.9	33.7	46.8	4.6	2.4	100.0	(613)
외벌이	5.3	38.0	50.7	6.0	2.6	100.0	(932)
자녀수 ($\chi^2=28.0^{***}$)							
0명	12.9	36.4	45.9	4.8	2.4	100.0	(601)
1명	7.5	32.9	53.6	6.0	2.6	100.0	(764)
2명 이상	6.9	42.6	44.9	5.6	2.5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78.5^{***}$)							
250만 원 미만	6.3	37.7	50.0	6.1	2.6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9.8	39.1	45.6	5.4	2.5	100.0	(529)
350만 원 이상	24.7	20.1	52.7	2.5	2.3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하면 가정을 위해 자신의 개성과 인생을 반 정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대한 남편의 생각을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¹¹³⁾이 53.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55.5%), 외벌이(57.0%)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긍정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아내의 경우는 긍정하는 비율이 53.8%로 남편의 53.7%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58.8%), 학력이 대학원 졸(61.1%), 외벌이(55.3%), 현재소득이 250만 원 미만(55.7%)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113)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표 11-47〉 「결혼하면 가정을 위해 자신의 개성과 인생을 반 정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대한 견해: 남편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8.0	38.4	47.4	6.3	2.5	100.0	(1,779)
지역 ($\chi^2=26.3^{***}$)							
서울·경기	10.9	36.3	46.3	6.5	2.5	100.0	(852)
광역시	6.6	37.9	50.7	4.8	2.5	100.0	(454)
그 외	4.0	42.7	46.1	7.2	2.6	100.0	(473)
연령 ($\chi^2=21.3^{**}$)							
20대	9.9	45.7	36.5	7.8	2.4	100.0	(125)
30대	9.0	38.4	46.5	6.1	2.5	100.0	(1,286)
40대 이상	3.5	35.9	54.3	6.3	2.6	100.0	(368)
학력 ($\chi^2=12.6^*$)							
고졸 이하	5.6	40.0	44.5	9.9	2.6	100.0	(226)
대졸	8.4	37.6	48.3	5.8	2.5	100.0	(1,496)
대학원 졸	6.4	53.3	35.8	4.4	2.4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27.2^{***}$)							
1~2년	8.3	45.7	41.8	4.2	2.4	100.0	(378)
3~5년	9.7	38.0	45.4	7.0	2.5	100.0	(806)
6~7년	5.4	34.3	53.7	6.6	2.6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48.2^{***}$)							
맞벌이	12.9	38.3	44.4	4.4	2.4	100.0	(613)
외벌이	5.4	37.6	50.9	6.1	2.6	100.0	(932)
자녀수 ($\chi^2=25.7^{***}$)							
0명	11.1	41.1	42.0	5.8	2.4	100.0	(601)
1명	7.3	37.9	49.3	5.5	2.5	100.0	(764)
2명 이상	4.6	35.3	51.8	8.3	2.6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3.6^*$)							
250만 원 미만	7.6	36.1	45.3	11.0	2.6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6.3	39.8	49.1	4.8	2.5	100.0	(671)
350만 원 이상	9.2	37.8	46.6	6.5	2.5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48〉 「결혼하면 가정을 위해 자신의 개성과 인생을 반 정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대한 견해: 아내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9.5	36.8	48.0	5.8	2.5	100.0	(1,779)
지역 ($\chi^2=28.0^{***}$)							
서울·경기	12.3	35.8	45.3	6.6	2.5	100.0	(852)
광역시	8.1	33.1	52.4	6.4	2.6	100.0	(454)
그 외	5.7	42.0	48.5	3.8	2.5	100.0	(473)
연령 ($\chi^2=26.4^{***}$)							
20대	8.3	45.8	39.4	6.5	2.4	100.0	(345)
30대	10.4	34.5	48.9	6.1	2.5	100.0	(1,214)
40대	6.1	35.1	56.0	2.7	2.6	100.0	(220)
학력 ($\chi^2=8.6$)							
고졸 이하	5.6	39.1	48.1	7.1	2.6	100.0	(277)
대졸	10.2	36.5	47.9	5.4	2.5	100.0	(1,463)
대학원 졸	7.7	31.1	50.7	10.4	2.6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41.5^{***}$)							
1~2년	10.1	41.8	40.9	7.2	2.5	100.0	(378)
3~5년	11.8	38.8	45.2	4.2	2.4	100.0	(806)
6~7년	5.9	30.9	56.2	7.1	2.7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24.9^{***}$)							
맞벌이	13.6	36.5	45.6	4.3	2.4	100.0	(613)
외벌이	8.0	36.7	48.9	6.4	2.5	100.0	(932)
자녀수 ($\chi^2=27.8^{***}$)							
0명	12.5	38.4	43.5	5.6	2.4	100.0	(601)
1명	7.4	38.2	47.2	7.2	2.5	100.0	(764)
2명 이상	8.9	31.8	55.8	3.5	2.5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27.4^{***}$)							
250만 원 미만	7.4	36.9	49.8	5.9	2.5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10.6	38.6	46.0	4.7	2.5	100.0	(529)
350만 원 이상	18.1	30.6	43.1	8.2	2.4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을 했더라도 인생에서는 배우자 및 가족과는 다른 자신만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한 남편의 생각을 살펴보면, 긍정하는 비율¹¹⁴⁾이 58.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65.8%), 연령이 30대(59.7%), 외벌이(58.9%)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이 외에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긍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긍정하는 비율이 59.1%로 남편의 58.2%보다 0.9%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62.6%), 연령이 30대(60.6%), 혼인 연차가 6~7년(66.7%),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61.8%)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긍정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9〉 「결혼을 했더라도 인생에서는 배우자 및 가족과는 다른 자신만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견해: 남편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8.5	33.3	51.4	6.8	2.6	100.0	(1,779)
지역 ($\chi^2=75.9^{***}$)							
서울·경기	14.0	33.3	45.0	7.8	2.5	100.0	(852)
광역시	4.0	30.2	58.7	7.1	2.7	100.0	(454)
그 외	3.1	36.3	55.8	4.8	2.6	100.0	(473)
연령 ($\chi^2=11.9$)							
20대	7.3	41.7	45.6	5.4	2.5	100.0	(125)
30대	9.0	31.3	52.1	7.6	2.6	100.0	(1,286)
40대 이상	7.3	37.3	50.8	4.6	2.5	100.0	(368)
학력 ($\chi^2=19.8^{**}$)							
고졸 이하	2.8	40.4	47.3	9.5	2.6	100.0	(226)

114)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45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대졸	9.5	32.3	51.8	6.4	2.6	100.0	(1,496)
대학원 졸	5.8	30.2	57.0	6.9	2.7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8.7$)							
1~2년	9.7	33.9	50.5	5.9	2.5	100.0	(378)
3~5년	9.8	33.6	49.8	6.9	2.5	100.0	(806)
6~7년	6.0	32.5	54.2	7.3	2.6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33.4^{***}$)							
맞벌이	13.2	31.0	49.2	6.6	2.5	100.0	(613)
외벌이	5.7	35.4	51.3	7.6	2.6	100.0	(932)
자녀수 ($\chi^2=21.4^{**}$)							
0명	11.8	31.9	51.4	4.9	2.5	100.0	(601)
1명	7.6	33.5	50.2	8.7	2.6	100.0	(764)
2명 이상	5.5	34.9	53.4	6.2	2.6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18.1^{**}$)							
250만 원 미만	5.9	32.9	52.8	8.4	2.6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5.5	35.2	52.4	6.9	2.6	100.0	(671)
350만 원 이상	11.1	32.0	50.4	6.4	2.5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50〉 「결혼을 했더라도 인생에서는 배우자 및 가족과는 다른 자신만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견해: 아내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8.0	32.9	51.4	7.7	2.6	100.0	(1,779)
지역 ($\chi^2=46.8^{***}$)							
서울·경기	12.3	32.3	47.1	8.3	2.5	100.0	(852)
광역시	4.8	32.6	56.6	6.0	2.6	100.0	(454)
그 외	3.5	34.2	54.2	8.2	2.7	100.0	(47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연령 ($\chi^2=18.8^{**}$)							
20대	9.9	36.5	46.1	7.5	2.5	100.0	(345)
30대	8.4	30.9	52.3	8.3	2.6	100.0	(1,214)
40대	2.7	37.8	54.7	4.8	2.6	100.0	(220)
학력 ($\chi^2=8.2$)							
고졸 이하	4.2	33.8	55.0	7.0	2.7	100.0	(277)
대졸	8.7	32.7	50.8	7.8	2.6	100.0	(1,463)
대학원 졸	8.7	33.9	48.0	9.4	2.6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36.3^{***}$)							
1~2년	10.2	31.8	49.8	8.2	2.6	100.0	(378)
3~5년	10.1	35.8	46.5	7.5	2.5	100.0	(806)
6~7년	3.8	29.5	59.1	7.6	2.7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22.9^{**}$)							
맞벌이	11.6	31.7	48.7	8.0	2.5	100.0	(613)
외벌이	5.2	33.7	53.4	7.7	2.6	100.0	(932)
자녀수 ($\chi^2=26.0^{***}$)							
0명	12.1	31.7	49.2	7.0	2.5	100.0	(601)
1명	6.6	33.0	51.4	9.0	2.6	100.0	(764)
2명 이상	4.7	34.4	54.8	6.2	2.6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63.5^{***}$)							
250만 원 미만	4.7	33.5	53.2	8.6	2.7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10.7	34.3	47.6	7.3	2.5	100.0	(529)
350만 원 이상	19.8	25.0	51.9	3.3	2.4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에 대한 남편의 생각을 살펴보면, 동의하는 비율¹¹⁵⁾이 29.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34.3%), 연령이 30대(30.1%), 혼인 연차가 3~5년 차(30.6%), 외벌이(29.8%), 자녀가 1명(32.0%)에서 높은 편이다. 그리고 학력과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아내의 경우는 동의하는 비율이 30.6%로 남편의 29.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35.1%), 외벌이(33.3%)에서 높은 편이었고, 연령과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학력과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1〉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에 대한 견해: 남편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18.5	52.3	27.2	1.9	2.1	100.0	(1,779)
지역 ($\chi^2=20.8^{**}$)							
서울·경기	22.0	51.7	24.2	2.1	2.1	100.0	(852)
광역시	16.0	49.7	32.1	2.2	2.2	100.0	(454)
그 외	14.6	55.9	28.1	1.5	2.2	100.0	(473)
연령 ($\chi^2=8.8$)							
20대	18.0	61.0	19.2	1.7	2.1	100.0	(125)
30대	19.4	50.5	28.1	2.0	2.1	100.0	(1,286)
40대 이상	15.7	55.5	27.1	1.7	2.2	100.0	(368)
학력 ($\chi^2=27.2^{***}$)							
고졸 이하	16.5	49.8	28.1	5.6	2.2	100.0	(226)
대졸	18.7	52.3	27.7	1.4	2.1	100.0	(1,496)
대학원 졸	21.2	64.2	12.8	1.8	2.0	100.0	(56)

115)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혼인지속기간 ($\chi^2=6.1$)							
1~2년	19.6	53.5	24.8	2.1	2.1	100.0	(378)
3~5년	19.4	50.0	28.3	2.3	2.1	100.0	(806)
6~7년	16.6	54.7	27.4	1.3	2.1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2.4$)							
맞벌이	22.2	51.0	25.0	1.7	2.1	100.0	(613)
외벌이	16.8	53.4	28.1	1.7	2.2	100.0	(932)
자녀수 ($\chi^2=11.1$)							
0명	20.8	52.4	24.5	2.3	2.1	100.0	(601)
1명	17.2	50.8	30.6	1.4	2.2	100.0	(764)
2명 이상	17.6	55.0	25.1	2.3	2.1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30.7^{***}$)							
250만 원 미만	18.1	46.2	28.4	7.3	2.3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17.6	52.0	28.1	2.2	2.2	100.0	(671)
350만 원 이상	19.2	53.5	26.4	0.8	2.1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52〉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에
대한 견해: 아내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19.3	50.1	28.4	2.2	2.1	100.0	(1,779)
지역 ($\chi^2=17.2^{**}$)							
서울·경기	21.8	51.2	24.7	2.3	2.1	100.0	(852)
광역시	18.6	46.3	33.3	1.8	2.2	100.0	(454)
그 외	15.4	51.7	30.5	2.4	2.2	100.0	(473)
연령 ($\chi^2=10.0$)							
20대	16.5	55.4	25.8	2.3	2.1	100.0	(345)

458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30대	20.0	49.6	28.5	1.9	2.1	100.0	(1,214)
40대	19.4	44.6	32.2	3.8	2.2	100.0	(220)
학력 ($\chi^2=23.6^{***}$)							
고졸 이하	14.4	50.9	30.7	4.1	2.2	100.0	(277)
대졸	20.1	50.0	28.3	1.6	2.1	100.0	(1,463)
대학원 졸	24.2	50.0	16.6	9.2	2.1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3$)							
1~2년	19.0	50.9	27.9	2.1	2.1	100.0	(378)
3~5년	20.1	49.2	28.7	2.0	2.1	100.0	(806)
6~7년	18.2	50.8	28.4	2.6	2.2	100.0	(595)
맞벌이 여부 ($\chi^2=15.7^*$)							
맞벌이	23.1	50.7	24.6	1.6	2.1	100.0	(613)
외벌이	16.3	50.3	30.7	2.6	2.2	100.0	(932)
자녀수 ($\chi^2=4.4$)							
0명	20.9	49.8	26.8	2.4	2.1	100.0	(601)
1명	18.8	50.3	28.4	2.4	2.1	100.0	(764)
2명 이상	17.8	50.1	30.8	1.3	2.2	100.0	(415)
본인현재소득 ($\chi^2=24.3^{***}$)							
250만 원 미만	16.3	51.8	29.1	2.8	2.2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21.9	49.2	27.7	1.3	2.1	100.0	(529)
350만 원 이상	29.5	42.7	26.6	1.2	2.0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 전 주변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기나 어린아이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남편의 비율¹¹⁶⁾은 47.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57.7%), 학력이 고졸 이하(51.5%),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48.4%)에서 높은 편이다. 이 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7.8%로 남편의 47.6%보다 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57.1%)에서 높은 편이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질수록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표 11-53〉 결혼 전 상황(남편): 아기나 어린아이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었다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8.4	44.0	44.0	3.6	2.4	100.0	(1,779)
지역 ($\chi^2=51.9^{***}$)							
서울·경기	8.0	51.5	36.9	3.5	2.4	100.0	(852)
광역시	5.8	36.5	53.3	4.4	2.6	100.0	(454)
그 외	11.5	37.8	47.8	2.9	2.4	100.0	(473)
연령 ($\chi^2=9.0$)							
20대	13.1	47.4	36.5	3.0	2.3	100.0	(125)
30대	8.6	43.3	44.2	3.9	2.4	100.0	(1,286)
40대 이상	6.1	45.6	45.5	2.8	2.5	100.0	(368)
학력 ($\chi^2=17.9^{**}$)							
고졸 이하	12.3	36.2	45.9	5.6	2.5	100.0	(226)
대졸	7.6	45.5	43.8	3.2	2.4	100.0	(1,496)
대학원 졸	13.4	36.8	41.9	7.9	2.4	100.0	(56)

116)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혼인지속기간 ($\chi^2=12.4$)							
1~2년	10.6	47.2	40.1	2.1	2.3	100.0	(378)
3~5년	7.3	44.0	44.0	4.7	2.5	100.0	(806)
6~7년	8.4	42.1	46.4	3.0	2.4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28.5^{***}$)							
250만 원 미만	18.5	34.4	40.9	6.3	2.4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6.6	45.1	44.7	3.7	2.5	100.0	(671)
350만 원 이상	8.0	44.9	43.9	3.1	2.4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54〉 결혼 전 상황(아내): 아거나 어린아이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었다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9.1	43.1	43.4	4.4	2.4	100.0	(1,779)
지역 ($\chi^2=63.3^{***}$)							
서울·경기	9.3	51.7	36.1	2.9	2.3	100.0	(852)
광역시	8.6	34.3	52.7	4.4	2.5	100.0	(454)
그 외	9.3	35.9	47.5	7.3	2.5	100.0	(473)
연령 ($\chi^2=19.3^{**}$)							
20대	10.8	45.0	37.8	6.3	2.4	100.0	(345)
30대	9.4	43.5	43.1	4.0	2.4	100.0	(1,214)
40대	4.5	38.0	53.7	3.8	2.6	100.0	(220)
학력 ($\chi^2=42.9^{***}$)							
고졸 이하	9.6	37.0	49.7	3.7	2.5	100.0	(277)
대졸	8.4	44.4	42.9	4.3	2.4	100.0	(1,463)
대학원 졸	29.2	37.2	18.3	15.3	2.2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7.0$)							
1~2년	9.5	45.8	40.1	4.6	2.4	100.0	(378)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3~5년	9.7	43.9	42.0	4.4	2.4	100.0	(806)
6~7년	8.0	40.2	47.4	4.4	2.5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9.0$)							
250만 원 미만	10.2	42.2	42.5	5.2	2.4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7.3	44.7	45.0	2.9	2.4	100.0	(529)
350만 원 이상	7.9	43.3	44.1	4.7	2.5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 전에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부럽다고 생각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남편의 비율¹¹⁷⁾은 57.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60.9%), 연령이 30대(58.6%), 학력이 대졸(58.0%)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아내의 경우는 57.5%로 남편의 57.0%보다 0.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역은 광역시(62.2%), 연령은 30대(58.8%), 학력은 대졸(59.4%), 혼인 연차는 3~5년(58.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7)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표 11-55〉 결혼 전 상황(남편):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부럽다고 생각했다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5.2	37.8	47.8	9.2	2.6	100.0	(1,779)
지역 ($\chi^2=21.3^{**}$)							
서울·경기	6.8	35.7	47.9	9.6	2.6	100.0	(852)
광역시	2.6	36.5	49.7	11.2	2.7	100.0	(454)
그 외	4.6	43.0	45.8	6.5	2.5	100.0	(473)
연령 ($\chi^2=13.1^*$)							
20대	9.0	37.9	41.7	11.4	2.6	100.0	(125)
30대	5.1	36.2	49.8	8.8	2.6	100.0	(1,286)
40대 이상	3.9	43.4	42.9	9.8	2.6	100.0	(368)
학력 ($\chi^2=8.8$)							
고졸 이하	6.8	40.1	42.4	10.7	2.6	100.0	(226)
대졸	4.8	37.2	49.1	8.9	2.6	100.0	(1,496)
대학원 졸	8.8	46.4	35.4	9.4	2.5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1.3$)							
1~2년	7.0	33.6	49.7	9.8	2.6	100.0	(378)
3~5년	4.5	36.5	49.7	9.4	2.6	100.0	(806)
6~7년	4.9	42.4	44.1	8.5	2.6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26.3^{***}$)							
250만 원 미만	12.3	42.1	39.3	6.3	2.4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5.6	38.0	48.0	8.4	2.6	100.0	(671)
350만 원 이상	3.7	37.1	49.1	10.2	2.7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56〉 결혼 전 상황(아내):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부럽다고 생각했다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5.6	37.0	48.7	8.8	2.6	100.0	(1,779)
지역 ($\chi^2=26.9^{***}$)							
서울·경기	6.2	34.1	49.9	9.8	2.6	100.0	(852)
광역시	3.1	34.6	53.5	8.7	2.7	100.0	(454)
그 외	6.9	44.4	41.7	7.0	2.5	100.0	(473)
연령 ($\chi^2=7.9$)							
20대	7.3	38.5	45.9	8.3	2.6	100.0	(345)
30대	5.5	35.7	50.0	8.8	2.6	100.0	(1,214)
40대	3.2	41.8	45.4	9.7	2.6	100.0	(220)
학력 ($\chi^2=25.0^{***}$)							
고졸 이하	6.9	44.0	42.1	7.0	2.5	100.0	(277)
대졸	5.0	35.7	50.4	9.0	2.6	100.0	(1,463)
대학원 졸	18.7	37.1	31.3	12.9	2.4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2.7^*$)							
1~2년	4.7	38.3	46.3	10.7	2.6	100.0	(378)
3~5년	7.1	34.4	50.5	7.9	2.6	100.0	(806)
6~7년	4.0	39.6	47.6	8.8	2.6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16.2^*$)							
250만 원 미만	5.7	38.2	48.6	7.5	2.6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5.2	38.5	45.8	10.5	2.6	100.0	(529)
350만 원 이상	6.0	25.6	57.1	11.3	2.7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 전에 「결혼한 주변 친구를 보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에 대해 71.0%의 남편이 그렇다고 응답했다.¹¹⁸⁾ 지역별로는 광역시(76.5%), 학력이 대졸(71.8%)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 학력,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아내는 68.1%가 그렇다고 응답해 남편의 71.0%보다 2.9%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73.3%), 연령이 30대, 40대(각각 68.8%), 학력이 대졸(69.4%)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표 11-57〉 결혼 전 상황(남편): 결혼한 주변 친구를 보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3.5	25.4	62.2	8.8	2.8	100.0	(1,779)
지역 ($\chi^2=17.1^{**}$)							
서울·경기	5.0	26.7	60.6	7.7	2.7	100.0	(852)
광역시	1.4	22.0	66.8	9.7	2.9	100.0	(454)
그 외	3.0	26.5	60.7	9.9	2.8	100.0	(473)
연령 ($\chi^2=29.9^{***}$)							
20대	11.4	24.9	55.5	8.2	2.6	100.0	(125)
30대	3.4	25.1	62.9	8.5	2.8	100.0	(1,286)
40대 이상	1.2	26.7	62.1	10.1	2.8	100.0	(368)
학력 ($\chi^2=9.8$)							
고졸 이하	4.5	29.2	54.9	11.4	2.7	100.0	(226)
대졸	3.3	24.9	63.6	8.2	2.8	100.0	(1,496)
대학원 졸	5.9	23.6	56.0	14.5	2.8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8.5$)							
1~2년	4.0	28.8	58.2	9.0	2.7	100.0	(378)

118)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3~5년	4.1	23.9	62.5	9.5	2.8	100.0	(806)
6~7년	2.4	25.4	64.5	7.7	2.8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23.4^{**}$)							
250만 원 미만	9.7	24.8	57.3	8.2	2.6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3.6	27.0	60.4	9.0	2.8	100.0	(671)
350만 원 이상	2.5	24.5	64.3	8.8	2.8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58〉 결혼 전 상황(아내): 결혼한 주변 친구를 보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4.1	27.8	61.4	6.7	2.7	100.0	(1,779)
지역 ($\chi^2=17.4^{**}$)							
서울·경기	5.6	29.6	58.4	6.4	2.7	100.0	(852)
광역시	1.7	25.0	66.8	6.5	2.8	100.0	(454)
그 외	3.5	27.1	61.9	7.4	2.7	100.0	(473)
연령 ($\chi^2=14.9^*$)							
20대	7.4	27.0	58.2	7.4	2.7	100.0	(345)
30대	3.4	27.8	62.0	6.8	2.7	100.0	(1,214)
40대	2.2	29.0	63.5	5.3	2.7	100.0	(220)
학력 ($\chi^2=37.0^{***}$)							
고졸 이하	3.7	31.1	57.2	8.0	2.7	100.0	(277)
대졸	3.7	26.8	63.0	6.4	2.7	100.0	(1,463)
대학원 졸	19.2	38.3	32.8	9.7	2.3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5.5$)							
1~2년	2.8	29.9	59.5	7.9	2.7	100.0	(378)
3~5년	5.0	26.7	61.9	6.4	2.7	100.0	(806)
6~7년	3.6	27.8	62.1	6.5	2.7	100.0	(59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본인현재소득 ($\chi^2=9.4$)							
250만 원 미만	4.6	26.6	61.5	7.3	2.7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3.8	28.9	62.4	4.9	2.7	100.0	(529)
350만 원 이상	1.5	31.1	58.4	8.9	2.8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 전 주변에 「같은 또래의 친구나 형제자매 중 자녀가 있는 이들이 많았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남편의 비율¹¹⁹⁾은 52.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68.1%), 학력이 대학원 졸(66.3%), 혼인 연차가 3~5년 차(54.5%)에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과 현재 소득이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아내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2.6%로 남편의 52.9%보다 0.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67.2%), 학력이 대학원 졸(56.1%),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55.5%)에서 높고,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9)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표 11-59〉 결혼 전 상황(남편): 같은 또래의 친구나 형제자매 중 자녀가 있는 이들이 많았다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6.1	41.1	47.3	5.6	2.5	100.0	(1,779)
지역 ($\chi^2=103.0^{***}$)							
서울·경기	8.6	49.2	37.0	5.2	2.4	100.0	(852)
광역시	1.0	30.9	63.4	4.7	2.7	100.0	(454)
그 외	6.5	36.2	50.2	7.1	2.6	100.0	(473)
연령 ($\chi^2=55.4^{***}$)							
20대	17.7	40.7	33.3	8.3	2.3	100.0	(125)
30대	6.2	42.5	46.5	4.7	2.5	100.0	(1,286)
40대 이상	1.9	36.0	54.5	7.6	2.7	100.0	(368)
학력 ($\chi^2=38.0^{***}$)							
고졸 이하	11.8	35.7	41.7	10.8	2.5	100.0	(226)
대졸	5.2	42.4	47.8	4.6	2.5	100.0	(1,496)
대학원 졸	7.3	26.5	54.8	11.5	2.7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2.4$)							
1~2년	8.9	43.7	41.5	5.9	2.4	100.0	(378)
3~5년	6.0	39.5	49.3	5.2	2.5	100.0	(806)
6~7년	4.5	41.4	48.1	5.9	2.6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37.4^{***}$)							
250만 원 미만	15.1	37.6	36.6	10.7	2.4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6.6	40.4	48.1	4.9	2.5	100.0	(671)
350만 원 이상	4.3	42.1	48.4	5.2	2.5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1-60〉 결혼 전 상황(아내): 같은 또래의 친구나 형제자매 중 자녀가 있는 이들이 많았다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N)
전체	8.2	39.2	47.3	5.3	2.5	100.0	(1,779)
지역 ($\chi^2=102.5^{***}$)							
서울·경기	11.0	47.1	36.4	5.5	2.4	100.0	(852)
광역시	3.1	29.6	63.8	3.4	2.7	100.0	(454)
그 외	8.0	34.2	51.3	6.6	2.6	100.0	(473)
연령 ($\chi^2=61.5^{***}$)							
20대	12.8	47.2	33.6	6.5	2.3	100.0	(345)
30대	7.9	39.1	48.4	4.6	2.5	100.0	(1,214)
40대	2.4	27.2	63.0	7.4	2.8	100.0	(220)
학력 ($\chi^2=8.9$)							
고졸 이하	9.0	38.4	48.3	4.3	2.5	100.0	(277)
대졸	8.0	39.5	47.3	5.2	2.5	100.0	(1,463)
대학원 졸	10.6	33.3	41.7	14.4	2.6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7.9$)							
1~2년	8.7	41.7	45.0	4.7	2.5	100.0	(378)
3~5년	9.1	39.8	45.4	5.6	2.5	100.0	(806)
6~7년	6.6	36.8	51.4	5.2	2.6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16.2^*$)							
250만 원 미만	9.4	37.4	46.8	6.4	2.5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6.5	43.2	47.3	3.1	2.5	100.0	(529)
350만 원 이상	6.2	38.3	50.6	4.9	2.5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경제적 교류를 하는 것 그리고 가치관 차이에 따른 배우자와의 충돌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남편이 부모에게 주는 금액은 연평균 154만 8000원, 아내는 연평균 146만 6000원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8만 200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이 부모에게 받는 금액은 연평균 178만 원, 아내가 부모에게 받는 금액은 연평균 151만 9000원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26만 1000원 적게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비율은 남편이 81.1%, 아내가 79.1%인 반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남편이 37.7%, 아내가 41.4%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는 금액과 받는 금액의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참고로 산출해 보면, 남편은 부모에게 23만 2000원을 더 받고 있고, 아내는 5만 3000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을 한 비율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가사 분담에서는 남편의 50.4%, 아내의 53.9%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아내가 남편보다 3.5%포인트 높고, 경제적 문제는 남편이 42.5%, 아내가 42.8%로 아내가 남편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취미 및 휴일의 시간 사용에서는 남편이 32.5%, 아내가 29.4%로, 배우자의 취미 및 휴일의 시간 사용에서는 남편이 23.0%, 아내가 33.4%로 응답했다. 남편이 생각하는 본인의 취미 및 휴일의 시간 사용은 아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취미 및 휴일의 시간 사용에 대한 생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비교하면, 전자가 32.5%, 후자가 33.4%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0.9%포인트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내를 산출하면 6.4%포인트¹²⁰⁾로 나타난다. 즉, 남편의 취미 및 휴

일의 시간 사용 때문에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이 있었다고 생각한 비율은 아내가 남편 자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0.9%포인트 더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내 자신의 취미 및 휴일의 시간 사용 때문에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이 있었다고 생각한 비율도 아내가 남편보다 6.4%포인트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성생활과 관련되어서는 남편의 19.7%, 아내의 23.1%가 의견 불일치나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여 아내가 3.4%포인트 높았다. 본인의 친구관계는 남편이 28.9%, 아내가 20.4%로 남편이 8.5%포인트 높고, 배우자의 친구관계는 남편이 19.1%, 아내가 28.0%로 아내가 남편보다 8.9%포인트 높게 보고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친구관계로 인하여 배우자와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충돌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의 차이에 대해 앞서 계산한 방법과 동일하게 산출하면, 남편 본인의 친구관계 때문에 아내와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비율은 남편이 아내보다 0.9%포인트 높고, 아내의 친구관계 때문에 남편과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비율은 아내가 남편보다 1.3%포인트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26.3%, 아내가 23.9%로 남편이 아내보다 2.4%포인트 높고,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는 남편이 21.4%, 아내가 27.8%로 아내가 남편보다 6.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앞서 산출한 방법을 이용하면, 아내 본인이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로 남편과 의견의 불일치 및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한 비율은 아내가 남편보다 2.5%포인트 더 높았고, 남편 본인이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 아내와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이 있었다고 생각한 비율은 아내가 남편보다 1.5%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120) $29.4\% - 23.0\% = 6.4\%$

자녀를 갖는 문제에서는 남편이 21.0%, 아내가 23.3%로 응답하여 아내가 남편보다 2.3%포인트 더 높은 비율로 자녀를 갖는 문제로 인하여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문제에서는 남편이 35.7%, 아내가 34.6%로 나타나 아내보다 남편이 1.1%포인트 더 높은 비율로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하여 충돌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음주 및 흡연 문제에서는 남편이 29.1%, 아내가 13.3%로 아내가 남편보다 15.8%포인트 낮고, 배우자의 음주 및 흡연 문제는 남편이 13.1%, 아내가 28.8%로 아내가 남편보다 15.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앞서 산출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남편 본인의 음주 및 흡연 문제로 인하여 아내와 충돌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아내보다 남편이 0.3%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 본인의 음주 및 흡연 문제로 인하여 아내와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아내보다 남편이 0.2%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도박 및 이성 문제 등)에서는 남편이 5.9%, 아내가 7.1%로 나타나 아내가 남편보다 1.2%포인트 더 많이 남편과 의견이 안 맞거나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혼부부의 소통과 관련한 분석을 정리하면, 남편은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111.1분으로, 아내는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을 116.5분으로 응답하여 아내가 남편보다 5.4분 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에서 남편과 아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서울·경기, 20대, 대학원 졸, 혼인 연차가 1~2년 차일 경우에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자와 소통하는 정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남편의 71.1%, 아내의 65.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편이 아내보다 5.4%포인트 더 많이 배우자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대화 주제 1순위는 남편의 경우 ‘자녀’

가 39.3%이고, '일(회사)'이 23.9%, '주제 없음'이 20.2%이고, 아내도 남편과 유사하게 '자녀'가 42.0%로 가장 높고, '주제 없음'과 '일(회사)'이 각각 22.0%, 21.6%로 나타났다. 2순위 대화 주제는 남편의 경우 '주변 사람' 33.3%, '일(회사)' 21.4%, '여행·취미' 17.0% 순으로 나타났고, 아내의 경우도 남편과 유사하게 '주변 사람' 34.8%, '일(회사)' 22.3%, '여행·취미' 1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가치관에 대한 부부의 생각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남편은 49.6%, 아내는 57.8%로 아내가 8.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를 갖는 것이다」에 대해 긍정하는 남편의 비율은 31.6%, 아내는 30.2%로 남편이 아내보다 1.4%포인트 높았다. 「자녀가 어릴 때 엄마가 일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견해에 긍정하는 남편은 50.4%, 아내는 48.7%로 남편이 아내보다 1.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가 가정을 지키는 삶의 방식은 바람직하다」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남편은 47.4%, 아내는 43.5%로 남편이 아내보다 3.9%포인트 높았다.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부모는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남편은 51.9%, 아내는 54.5%로 남편이 아내보다 2.6%포인트 낮았다. 「결혼하면 가정을 위해 자신의 개성과 인생을 반 정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대해 긍정하는 남편의 비율은 53.7%, 아내는 53.8%로 아내가 남편보다 0.1%포인트 높았다. 「결혼을 했더라도 인생에서는 배우자 및 가족과는 다른 자신만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 남편은 58.2%가, 아내는 59.1%가 긍정하여 남편이 아내보다 0.9%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남편의 비율은 29.1%, 아내는 30.6%

로 아내가 남편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결혼 전 주변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기나 어린아이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남편의 비율은 47.6%, 아내는 47.8%로 0.2%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부럽다고 생각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남편은 57.0%, 아내는 57.5%로 아내가 남편보다 0.5%포인트 높았다. 결혼 전에 「결혼한 주변 친구를 보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에 대해 남편의 71.0%, 아내의 68.1%가 그렇다고 응답해 아내가 남편보다 2.9%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결혼 전 주변에 「같은 또래의 친구나 형제자매 중 자녀가 있는 이들이 많았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남편은 52.9%, 아내는 52.6%로 남편이 아내보다 0.3%포인트 높았다.

12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1절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결혼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¹²¹⁾을 살펴보면, 남편은 79.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86.0%)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장려에 긍정적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에서는 66.1%로 40대 이상의 83.3%보다 17.2%포인트 낮아 세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81.6%로 높은 경향이 있고, 혼인지속기간이 3~5년일 경우 81.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아내의 경우는 77.4%로 나타나 남편의 79.6%와 비교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2.2%포인트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그 외 지역과 광역시에서 각각 79.9%, 82.3%로 서울·경기 지역의 73.3%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연령별로는 30대(78.9%), 혼인 연차가 6~7년(79.8%)에서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긍정적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도 유의하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아내의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학원 졸에서 긍정적인 비율이 고졸 및 대졸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는 것으로 대졸과 비교하면 30.1%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의견이 52.0%로 나타났다.

121)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표 12-1〉 정책에 대한 의견(남편): 국가에서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2.9	17.5	62.3	17.3	100.0	(1,779)
지역 ($\chi^2=45.9^{***}$)						
서울·경기	4.0	20.4	63.1	12.5	100.0	(852)
광역시	1.7	12.3	61.1	24.9	100.0	(454)
그 외	1.9	17.2	62.1	18.8	100.0	(473)
연령 ($\chi^2=29.9^{***}$)						
20대	9.2	24.7	46.6	19.5	100.0	(125)
30대	2.7	17.4	63.3	16.6	100.0	(1,286)
40대 이상	1.3	15.4	64.2	19.1	100.0	(368)
학력 ($\chi^2=22.7^{**}$)						
고졸 이하	5.3	25.3	54.1	15.3	100.0	(226)
대졸	2.4	16.0	64.0	17.6	100.0	(1,496)
대학원 졸	5.6	24.3	52.4	17.7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11.2$)						
1~2년	4.0	18.0	63.1	14.9	100.0	(378)
3~5년	3.2	15.8	64.0	17.0	100.0	(806)
6~7년	1.7	19.4	59.6	19.3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60.1^{***}$)						
250만 원 미만	10.6	25.0	46.2	18.2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2.6	20.7	61.1	15.6	100.0	(671)
350만 원 이상	1.8	14.0	65.8	18.4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2-2〉 정책에 대한 의견(아내): 국가에서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4.0	18.6	60.1	17.3	100.0	(1,779)
지역 ($\chi^2=37.8^{***}$)						
서울·경기	5.7	20.9	59.0	14.3	100.0	(852)
광역시	2.6	15.1	57.6	24.7	100.0	(454)
그 외	2.5	17.6	64.5	15.4	100.0	(473)
연령 ($\chi^2=9.5$)						
20대	5.0	20.7	56.4	17.9	100.0	(345)
30대	4.1	17.0	61.6	17.3	100.0	(1,214)
40대	2.3	23.7	58.0	16.1	100.0	(220)
학력 ($\chi^2=61.9^{***}$)						
고졸 이하	3.1	19.6	58.8	18.5	100.0	(277)
대졸	3.6	18.2	61.0	17.2	100.0	(1,463)
대학원 졸	28.0	24.0	37.7	10.4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0.1$)						
1~2년	4.1	16.1	64.5	15.4	100.0	(378)
3~5년	4.7	20.8	57.2	17.3	100.0	(806)
6~7년	3.2	17.0	61.4	18.4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15.4^*$)						
250만 원 미만	5.2	19.3	59.1	16.4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2.6	19.2	60.3	17.8	100.0	(529)
350만 원 이상	1.5	12.1	65.9	20.6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국가의 결혼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결혼 장려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¹²²⁾고 한 남편

의 비율은 39.0%로 나타났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광역시(54.5%), 30대(39.6%), 대졸(39.7%), 혼인 연차 1~2년(40.2%)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내는 37.5%로 남편의 39.0%와 비교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속성별로 살펴보면, 광역시(51.5%), 20대(41.4%), 혼인 연차 1~2년(41.9%)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이 외에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긍정적인 비율이 낮아져, 현재 소득에서는 남편과 반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정책에 대한 의견(남편): 국가의 결혼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15.7	45.3	28.9	10.1	100.0	(1,779)
지역 ($\chi^2=76.4^{***}$)						
서울·경기	18.3	50.0	22.5	9.1	100.0	(852)
광역시	12.1	33.4	38.7	15.8	100.0	(454)
그 외	14.3	48.1	31.0	6.6	100.0	(473)
연령 ($\chi^2=9.7$)						
20대	14.4	51.3	21.3	13.0	100.0	(125)
30대	16.0	44.3	28.9	10.7	100.0	(1,286)
40대 이상	14.8	46.6	31.5	7.2	100.0	(368)
학력 ($\chi^2=3.8$)						
고졸 이하	17.7	45.4	28.7	8.1	100.0	(226)
대졸	15.2	45.1	29.2	10.5	100.0	(1,496)
대학원 졸	19.3	48.5	22.1	10.1	100.0	(56)

122)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혼인지속기간 ($\chi^2=14.0^*$)						
1~2년	13.5	46.3	30.5	9.7	100.0	(378)
3~5년	17.4	44.8	25.8	12.0	100.0	(806)
6~7년	14.7	45.2	32.1	7.9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21.1^{**}$)						
250만 원 미만	26.0	44.7	24.8	4.5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15.6	45.1	30.0	9.2	100.0	(671)
350만 원 이상	14.0	45.5	28.8	11.7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2-4〉 정책에 대한 의견(아내): 국가의 결혼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17.3	45.2	28.2	9.3	100.0	(1,779)
지역 ($\chi^2=82.8^{***}$)						
서울·경기	22.7	47.0	23.1	7.1	100.0	(852)
광역시	10.6	37.9	35.6	15.9	100.0	(454)
그 외	14.0	49.1	30.2	6.7	100.0	(473)
연령 ($\chi^2=14.9^*$)						
20대	15.8	42.8	30.3	11.1	100.0	(345)
30대	18.3	45.4	26.6	9.7	100.0	(1,214)
40대	14.3	48.1	33.6	4.0	100.0	(220)
학력 ($\chi^2=23.3^{**}$)						
고졸 이하	15.4	47.0	30.2	7.4	100.0	(277)
대졸	17.0	45.6	27.8	9.6	100.0	(1,463)
대학원 졸	42.6	20.1	28.7	8.6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9.3$)						
1~2년	13.7	44.4	31.3	10.6	100.0	(378)
3~5년	18.8	45.4	26.0	9.8	100.0	(806)
6~7년	17.6	45.6	29.2	7.7	100.0	(59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본인현재소득 ($\chi^2=17.6^{**}$)						
250만 원 미만	18.4	42.6	29.7	9.3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17.3	45.9	27.2	9.7	100.0	(529)
350만 원 이상	11.1	58.8	22.3	7.7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출산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¹²³⁾을 살펴보면, 남편은 75.6%로 나타났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⁴⁾ 지역은 광역시인 경우에 79.1%, 학력은 대졸인 경우 78.1%로 다른 층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는 75.1%로 남편의 75.6%와 비교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0.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70.0%로 가장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졸의 경우는 출산 장려 정책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35.0%로 나타나 다른 어떤 층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졸 이하: 75.1%, 대졸: 76.3%). 또한,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비율이 높았고, 현재 소득에서는 350만 원 이상인 경우 81.6%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124) 연령은 유의하지 않지만, 혼인 연차, 현재 소득은 유의함.

〈표 12-5〉 정책에 대한 의견(남편):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3.5	20.9	55.0	20.6	100.0	(1,779)
지역 ($\chi^2=35.7^{***}$)						
서울·경기	5.3	22.7	55.2	16.8	100.0	(852)
광역시	1.2	19.7	51.8	27.3	100.0	(454)
그 외	2.4	19.0	57.7	20.9	100.0	(473)
연령 ($\chi^2=11.0$)						
20대	7.5	25.8	49.5	17.2	100.0	(125)
30대	3.5	20.3	55.5	20.7	100.0	(1,286)
40대 이상	2.0	21.6	55.2	21.2	100.0	(368)
학력 ($\chi^2=34.5^{***}$)						
고졸 이하	7.2	30.1	46.9	15.9	100.0	(226)
대졸	2.9	19.1	56.6	21.5	100.0	(1,496)
대학원 졸	5.6	33.0	46.6	14.8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7.8$)						
1~2년	3.7	22.2	54.8	19.2	100.0	(378)
3~5년	4.5	21.2	54.1	20.2	100.0	(806)
6~7년	2.0	19.8	56.3	21.9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41.4^{***}$)						
250만 원 미만	10.5	21.5	52.2	15.7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3.9	22.9	56.4	16.8	100.0	(671)
350만 원 이상	2.1	19.5	54.5	23.9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12-6〉 정책에 대한 의견(아내):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4.5	20.3	55.0	20.1	100.0	(1,779)
지역 ($\chi^2=80.6^{***}$)						
서울·경기	6.7	23.2	54.4	15.6	100.0	(852)
광역시	2.4	16.3	48.6	32.7	100.0	(454)
그 외	2.5	19.0	62.4	16.2	100.0	(473)
연령 ($\chi^2=14.9^*$)						
20대	6.5	24.1	50.2	19.2	100.0	(345)
30대	4.3	20.1	55.0	20.6	100.0	(1,214)
40대	2.2	15.9	62.8	19.2	100.0	(220)
학력 ($\chi^2=96.1^{***}$)						
고졸 이하	4.6	20.2	55.3	19.8	100.0	(277)
대졸	3.6	20.1	55.8	20.5	100.0	(1,463)
대학원 졸	35.8	29.2	25.6	9.4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6.5$)						
1~2년	4.4	21.9	54.4	19.3	100.0	(378)
3~5년	5.0	21.2	55.0	18.7	100.0	(806)
6~7년	3.8	18.2	55.5	22.6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10.1$)						
250만 원 미만	5.1	20.2	54.1	20.6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4.5	21.5	55.4	18.7	100.0	(529)
350만 원 이상	0.7	17.8	59.6	22.0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남편은 39.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¹²⁵⁾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29.8%로 가장 낮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39.7%로 가장 높고, 학력에서는 대졸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높으면 비율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혼

125)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인지속기간별로는 1~2년에서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38.6%가 출산 장려 정책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남편의 39.0%와 비교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0.4%포인트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51.4%), 20대(39.7%)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인지속기간과 현재 소득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표 12-7〉 정책에 대한 의견(남편):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17.6	43.4	34.8	4.2	100.0	(1,779)
지역 ($\chi^2=95.6^{***}$)						
서울·경기	21.4	48.9	27.4	2.4	100.0	(852)
광역시	8.9	36.6	46.3	8.2	100.0	(454)
그 외	19.2	40.2	37.0	3.5	100.0	(473)
연령 ($\chi^2=7.0$)						
20대	19.5	42.2	31.3	7.0	100.0	(125)
30대	17.7	43.5	34.4	4.4	100.0	(1,286)
40대 이상	16.8	43.5	37.2	2.5	100.0	(368)
학력 ($\chi^2=12.0$)						
고졸 이하	24.4	37.9	34.2	3.5	100.0	(226)
대졸	16.5	44.1	34.9	4.4	100.0	(1,496)
대학원 졸	19.3	46.6	34.1	-	100.0	(56)
혼인지속기간 ($\chi^2=2.6$)						
1~2년	17.1	42.0	37.1	3.9	100.0	(378)
3~5년	18.8	43.4	33.6	4.2	100.0	(806)
6~7년	16.3	44.4	34.9	4.3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20.7^{**}$)						
250만 원 미만	28.6	42.7	24.2	4.4	100.0	(153)
250~350만 원 미만	18.0	44.6	33.5	3.9	100.0	(671)
350만 원 이상	15.6	42.7	37.4	4.3	100.0	(9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48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표 12-8〉 정책에 대한 의견(아내):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N)
전체	19.5	41.9	34.5	4.1	100.0	(1,779)
지역 ($\chi^2=84.8^{***}$)						
서울·경기	25.3	44.6	26.9	3.2	100.0	(852)
광역시	10.5	38.2	43.8	7.6	100.0	(454)
그 외	17.7	40.5	39.4	2.5	100.0	(473)
연령 ($\chi^2=12.2$)						
20대	22.0	38.2	34.0	5.7	100.0	(345)
30대	19.7	41.9	34.4	4.1	100.0	(1,214)
40대	14.6	47.5	36.1	1.9	100.0	(220)
학력 ($\chi^2=19.7^{**}$)						
고졸 이하	18.5	41.7	37.0	2.8	100.0	(277)
대졸	19.0	42.3	34.4	4.4	100.0	(1,463)
대학원 졸	45.6	28.7	22.0	3.7	100.0	(40)
혼인지속기간 ($\chi^2=12.7^*$)						
1~2년	16.7	38.8	41.5	3.0	100.0	(378)
3~5년	20.2	42.9	32.0	4.9	100.0	(806)
6~7년	20.3	42.4	33.5	3.8	100.0	(595)
본인현재소득 ($\chi^2=23.4^{**}$)						
250만 원 미만	21.7	37.9	36.1	4.3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18.1	46.2	32.0	3.7	100.0	(529)
350만 원 이상	10.8	52.4	32.7	4.1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2절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본 절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인지한 경우에는 이용한 경험에 있는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만족도)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임대주택 지원¹²⁶⁾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90.3%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90.9%), 연령은 30대(90.4%), 학력은 고졸 이하(91.7%), 혼인 연차는 6~7년(92.0%)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도 높아졌다.

아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기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90.0%로 나타나 남편이 아내보다 0.3%포인트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90.7%), 연령이 30대(90.7%), 혼인 연차가 6~7년(91.7%)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이 외에 학력이 낮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9〉 정책에 대한 의견: 임대주택 지원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알고 있음	모름	계 (%)	(N)	알고 있음	모름	계 (%)	(N)
전체	90.3	9.7	100.0	(1,779)	90.0	10.0	100.0	(1,779)
지역 (남편: $\chi^2=2.1$) (아내: $\chi^2=1.8$)								
서울·경기	90.9	9.1	100.0	(852)	90.7	9.3	100.0	(852)
광역시	88.6	11.4	100.0	(454)	88.3	11.7	100.0	(454)
그 외	90.8	9.2	100.0	(473)	90.3	9.7	100.0	(473)

126) 임대주택 지원에는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주택자금대출(버팀목·디딤돌·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인지하고 있는 주택 정책이 있으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구분	남편				아내			
	알고 있음	모름	계 (%)	(N)	알고 있음	모름	계 (%)	(N)
연령 (남편: $\chi^2=0.1$) (아내: $\chi^2=4.8$)								
20대	89.9	10.1	100.0	(125)	89.6	10.4	100.0	(345)
30대	90.4	9.6	100.0	(1,286)	90.7	9.3	100.0	(1,214)
40대	90.1	9.9	100.0	(368)	86.1	13.9	100.0	(220)
학력 (남편: $\chi^2=0.6$) (아내: $\chi^2=2.3$)								
고졸 이하	91.7	8.3	100.0	(226)	92.2	7.8	100.0	(277)
대졸	90.0	10.0	100.0	(1,496)	89.6	10.4	100.0	(1,463)
대학원 졸	91.5	8.5	100.0	(56)	87.2	12.8	100.0	(40)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2.8$) (아내: $\chi^2=2.9$)								
1~2년	89.4	10.6	100.0	(378)	89.7	10.3	100.0	(378)
3~5년	89.4	10.6	100.0	(806)	88.8	11.2	100.0	(806)
6~7년	92.0	8.0	100.0	(595)	91.7	8.3	100.0	(595)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5.4$) (아내: $\chi^2=1.8$)								
250만 원 미만	85.6	14.4	100.0	(153)	89.6	10.4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89.8	10.2	100.0	(671)	89.6	10.4	100.0	(529)
350만 원 이상	91.4	8.6	100.0	(955)	92.9	7.1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임대주택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¹²⁷⁾은 남편이 27.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31.3%), 연령이 30대(28.8%), 학력이 대졸(28.2%), 혼인 연차가 3~5년 차(29.6%)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22.6%로 나타나 남편의 27.4%와 비교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4.8%포인트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26.5%), 혼인 연차가 3~5년 차(23.2%),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

127) '현재 이용'과 '이용 경험 있음'을 합한 수치임.

만(26.8%)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0〉 정책에 대한 의견: 임대주택 지원 이용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	(N)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	(N)
전체	16.8	10.6	72.6	100.0	(1,606)	13.2	9.4	77.4	100.0	(1,600)
지역 (남편: $\chi^2=26.8^{***}$) (아내: $\chi^2=20.4^{***}$)										
서울·경기	19.0	8.4	72.6	100.0	(775)	13.3	6.1	80.7	100.0	(773)
광역시	14.3	17.0	68.7	100.0	(402)	13.3	13.2	73.5	100.0	(401)
그 외	15.4	8.4	76.2	100.0	(429)	13.0	11.9	75.2	100.0	(427)
연령 (남편: $\chi^2=11.1^*$) (아내: $\chi^2=8.1$)										
20대	8.7	6.8	84.5	100.0	(113)	11.5	5.9	82.6	100.0	(309)
30대	18.3	10.5	71.2	100.0	(1,162)	13.7	9.9	76.4	100.0	(1,102)
40대	14.6	12.2	73.2	100.0	(331)	13.1	12.1	74.8	100.0	(190)
학력 (남편: $\chi^2=4.6$) (아내: $\chi^2=4.4$)										
고졸 이하	11.9	11.5	76.6	100.0	(207)	9.5	10.6	79.8	100.0	(255)
대졸	17.7	10.5	71.8	100.0	(1,347)	13.8	9.1	77.1	100.0	(1,310)
대학원 졸	14.4	9.8	75.9	100.0	(52)	18.1	9.6	72.3	100.0	(35)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6.1$) (아내: $\chi^2=10.1^*$)										
1~2년	18.2	8.2	73.6	100.0	(338)	15.6	7.2	77.2	100.0	(339)
3~5년	17.7	11.9	70.4	100.0	(721)	14.3	8.9	76.8	100.0	(716)
6~7년	14.8	10.3	74.9	100.0	(547)	10.3	11.4	78.3	100.0	(545)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6.5$) (아내: $\chi^2=12.7^*$)										
250만 원 미만	14.6	7.3	78.1	100.0	(131)	10.9	9.7	79.5	100.0	(958)
250~350만 원 미만	17.7	8.9	73.3	100.0	(602)	17.5	9.3	73.2	100.0	(474)
350만 원 이상	16.6	12.2	71.2	100.0	(873)	14.4	8.1	77.5	100.0	(168)

주: 1) * $p<0.05$, ** $p<0.01$, *** $p<0.001$

2)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 경험 유무를 응답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임대 주택 지원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된 정도(만족도)를 살펴보면,¹²⁸⁾ 남편은 93.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95.3%), 학력이 대졸(94.9%), 혼인 연차가 1~2년(95.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연령과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는 93.5%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93.2%로 응답했던 남편과 비교하면 아내가 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97.3%), 학력별로는 대졸(95.4%), 혼인 연차가 3~5년 차(94.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표 12-11〉 정책에 대한 의견: 임대주택 지원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	(N)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	(N)
전체	0.9	6.0	62.7	30.5	100.0	(440)	0.4	6.0	61.3	32.2	100.0	(362)
지역												
서울·경기	1.1	6.5	54.1	38.3	100.0	(213)	0.7	7.2	48.7	43.4	100.0	(149)
광역시	0.8	4.0	74.0	21.3	100.0	(126)	-	2.7	74.7	22.6	100.0	(106)
그 외	0.6	7.3	66.4	25.7	100.0	(102)	0.5	7.7	65.7	26.2	100.0	(106)
연령												
20대	-	16.0	46.3	37.7	100.0	(17)	-	4.0	53.4	42.6	100.0	(54)
30대	1.2	5.7	64.2	29.0	100.0	(334)	0.6	6.1	63.5	29.8	100.0	(260)
40대	-	5.0	60.2	34.8	100.0	(89)	-	8.0	58.4	33.7	100.0	(48)
학력												
고졸 이하	1.3	19.1	60.5	19.0	100.0	(49)	0.3	15.4	56.4	27.9	100.0	(51)
대졸	0.9	4.2	63.1	31.8	100.0	(379)	0.5	4.1	62.5	32.9	100.0	(301)
대학원 졸	-	7.4	57.8	34.8	100.0	(12)	-	15.3	49.5	35.2	100.0	(10)

128) '도움이 됨'과 '매우 도움이 됨'을 합한 수치임.

구분	남편					(N)	아내					(N)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	
혼인지속기간												
1~2년	-	4.7	69.4	25.9	100.0	(89)	0.7	5.0	73.1	21.2	100.0	(77)
3~5년	1.8	7.0	60.6	30.5	100.0	(214)	0.7	4.5	55.2	39.7	100.0	(166)
6~7년	-	5.1	61.5	33.4	100.0	(137)	-	8.8	62.2	29.0	100.0	(118)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	18.4	54.7	26.9	100.0	(29)	0.8	7.8	62.6	28.8	100.0	(197)
250~350만 원 미만	1.7	8.6	67.8	22.0	100.0	(161)	-	3.9	57.3	38.8	100.0	(127)
350만 원 이상	0.5	2.9	60.3	36.3	100.0	(251)	-	3.6	68.3	28.1	100.0	(38)

주: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도움 정도를 응답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¹²⁹⁾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76.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그 외 지역 (77.8%), 혼인 연차가 1~2년(78.4%)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를 보면, 76.7%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남편의 76.9%와 비교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0.2%포인트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에서는 서울·경기 지역(77.0%), 학력에서는 대졸(78.5%),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 (85.1%)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지속 기간이 짧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9) 취업 성공 패키지, 내일 배움 카드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인지하고 있는 주택 정책이 있으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표 12-12〉 정책에 대한 의견: 청년 일자리 정책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알고 있음	모름	계 (%)	(N)	알고 있음	모름	계 (%)	(N)
전체	76.9	23.1	100.0	(1,779)	76.7	23.3	100.0	(1,779)
지역 (남편: $\chi^2=0.4$) (아내: $\chi^2=0.1$)								
서울·경기	76.8	23.2	100.0	(852)	77.0	23.0	100.0	(852)
광역시	76.1	23.9	100.0	(454)	76.2	23.8	100.0	(454)
그 외	77.8	22.2	100.0	(473)	76.6	23.4	100.0	(473)
연령 (남편: $\chi^2=1.5$) (아내: $\chi^2=13.8^{**}$)								
20대	80.9	19.1	100.0	(125)	79.0	21.0	100.0	(345)
30대	76.9	23.1	100.0	(1,286)	77.8	22.2	100.0	(1,214)
40대	75.5	24.5	100.0	(368)	66.9	33.1	100.0	(220)
학력 (남편: $\chi^2=6.8^*$) (아내: $\chi^2=16.4^{***}$)								
고졸 이하	70.7	29.3	100.0	(226)	67.4	32.6	100.0	(277)
대졸	77.5	22.5	100.0	(1,496)	78.5	21.5	100.0	(1,463)
대학원 졸	84.7	15.3	100.0	(56)	71.7	28.3	100.0	(40)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1.6$) (아내: $\chi^2=0.9$)								
1~2년	78.4	21.6	100.0	(378)	78.3	21.7	100.0	(378)
3~5년	75.5	24.5	100.0	(806)	76.7	23.3	100.0	(806)
6~7년	77.7	22.3	100.0	(595)	75.7	24.3	100.0	(595)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1.3$) (아내: $\chi^2=8.9^*$)								
250만 원 미만	74.9	25.1	100.0	(153)	76.4	23.6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76.0	24.0	100.0	(671)	74.4	25.6	100.0	(529)
350만 원 이상	77.9	22.1	100.0	(955)	85.1	14.9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
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¹³⁰⁾은
남편이 9.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10.8%), 혼인 연차가 3~5

130) '현재 이용'과 '이용 경험 있음'을 합한 수치임.

년 차(11.1%),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15.7%)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내는 청년 일자리 정책 중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7%로 조사되었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으로 갈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대학원 졸(20.9%)에서 이용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3〉 정책에 대한 의견: 청년 일자리 정책 이용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	(N)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	(N)
전체	0.7	9.2	90.1	100.0	(1,368)	1.2	8.5	90.3	100.0	(1,364)
지역 (아내: $\chi^2=11.6^*$)										
서울·경기	0.4	9.5	90.1	100.0	(655)	0.3	7.8	91.9	100.0	(656)
광역시	0.6	10.2	89.2	100.0	(345)	1.5	8.3	90.2	100.0	(346)
그 외	1.2	7.7	91.0	100.0	(368)	2.6	10.0	87.4	100.0	(362)
연령 (남편: $\chi^2=9.4$) (아내: $\chi^2=2.7$)										
20대	0.6	7.4	92.0	100.0	(101)	1.1	6.1	92.7	100.0	(272)
30대	0.8	8.1	91.1	100.0	(989)	1.3	9.0	89.7	100.0	(944)
40대	0.2	13.7	86.0	100.0	(278)	0.7	9.8	89.5	100.0	(147)
학력										
고졸 이하	0.6	11.9	87.5	100.0	(160)	1.2	8.4	90.4	100.0	(187)
대졸	0.7	8.8	90.5	100.0	(1,160)	1.2	8.3	90.5	100.0	(1,149)
대학원 졸	-	9.1	90.9	100.0	(48)	1.5	19.4	79.1	100.0	(28)
혼인지속기간 (아내: $\chi^2=2.6$)										
1~2년	0.3	9.2	90.4	100.0	(296)	1.3	7.5	91.2	100.0	(296)
3~5년	0.7	10.4	88.9	100.0	(609)	0.8	9.0	90.3	100.0	(618)
6~7년	0.9	7.5	91.5	100.0	(462)	1.7	8.6	89.7	100.0	(450)

구분	남편					아내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	(N)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	(N)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6.0$) (아내: $\chi^2=6.0$)										
250만 원 미만	0.5	15.2	84.3	100.0	(115)	1.5	9.6	88.9	100.0	(816)
250~350만 원 미만	1.0	8.1	91.0	100.0	(509)	1.0	7.3	91.7	100.0	(393)
350만 원 이상	0.5	9.0	90.5	100.0	(744)	0.3	6.0	93.7	100.0	(154)

주: 1) * $p<0.05$, ** $p<0.01$, *** $p<0.001$
 2)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 경험 유무를 응답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청년 일자리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된 정도(만족도)를 살펴보면,¹³¹⁾ 남편은 80.8%의 비율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으로 올수록,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에서는 40대(92.3%), 학력에서는 대졸(83.5%)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아내의 경우는 84.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비교하여 아내가 3.4%포인트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고, 연령에서는 30대(84.8%), 학력에서는 대졸(89.4%), 혼인 연차가 1~2년 차(90.6%),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98.7%)에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 '도움이 됨'과 '매우 도움이 됨'을 합한 수치임.

〈표 12-14〉 정책에 대한 의견: 청년 일자리 정책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	(N)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	(N)
전체	2.9	16.3	68.5	12.3	100.0	(135)	3.1	12.7	74.5	9.7	100.0	(133)
지역												
서울·경기	-	15.6	70.7	13.8	100.0	(65)	-	9.3	77.3	13.4	100.0	(53)
광역시	2.6	13.2	74.0	10.2	100.0	(37)	1.8	16.6	66.0	15.6	100.0	(34)
그 외	8.8	21.4	58.1	11.8	100.0	(33)	7.6	13.9	77.4	1.1	100.0	(46)
연령												
20대	-	22.8	58.3	18.9	100.0	(8)	3.2	13.9	78.2	4.6	100.0	(20)
30대	3.9	20.0	63.9	12.2	100.0	(88)	1.6	13.6	77.9	6.9	100.0	(97)
40대	1.1	6.7	81.2	11.1	100.0	(39)	12.4	5.9	47.8	33.9	100.0	(15)
학력												
고졸 이하	3.2	23.0	66.5	7.3	100.0	(20)	14.2	30.4	55.4	-	100.0	(18)
대졸	2.9	13.6	70.7	12.8	100.0	(110)	1.4	9.2	77.6	11.8	100.0	(109)
대학원 졸	-	55.4	21.9	22.7	100.0	(4)	-	24.8	75.2	-	100.0	(6)
혼인지속기간												
1~2년	4.0	25.3	58.4	12.3	100.0	(28)	3.8	5.6	79.6	11.0	100.0	(26)
3~5년	3.4	14.6	65.9	16.1	100.0	(67)	4.2	14.5	71.5	9.8	100.0	(60)
6~7년	1.1	12.9	80.2	5.8	100.0	(39)	1.2	14.4	75.4	8.9	100.0	(46)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4.0	37.2	49.3	9.5	100.0	(18)	4.5	15.7	72.8	7.0	100.0	(90)
250~350만 원 미만	5.9	15.5	65.7	12.9	100.0	(46)	-	1.3	81.5	17.2	100.0	(33)
350만 원 이상	0.6	11.6	75.2	12.7	100.0	(71)	-	23.5	66.6	9.9	100.0	(10)

주: 이용 경험에 있는 경우에만 도움 정도를 응답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임신·출산 정책¹³²⁾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85.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그 외 지역(88.4%)에서 높은 편이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혼인 연

132) 국민행복카드,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사업,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인지하고 있는 주택 정책이 있으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차가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의 경우는 90.4%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그 외 지역(91.4%), 연령은 30대(92.2%),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92.9%)에서 높은 경향이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5〉 정책에 대한 의견: 임신·출산 정책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알고 있음	모름	계(%)	(N)	알고 있음	모름	계(%)	(N)
전체	85.9	14.1	100.0	(1,779)	90.4	9.6	100.0	(1,779)
지역 (남편: $\chi^2=4.3$) (아내: $\chi^2=1.6$)								
서울·경기	85.7	14.3	100.0	(852)	90.6	9.4	100.0	(852)
광역시	83.6	16.4	100.0	(454)	89.0	11.0	100.0	(454)
그 외	88.4	11.6	100.0	(473)	91.4	8.6	100.0	(473)
연령 (남편: $\chi^2=2.1$) (아내: $\chi^2=23.9^{***}$)								
20대	81.7	18.3	100.0	(125)	83.4	16.6	100.0	(345)
30대	86.2	13.8	100.0	(1,286)	92.2	7.8	100.0	(1,214)
40대	86.4	13.6	100.0	(368)	91.4	8.6	100.0	(220)
학력 (남편: $\chi^2=1.4$) (아내: $\chi^2=9.1^*$)								
고졸 이하	85.7	14.3	100.0	(226)	86.6	13.4	100.0	(277)
대졸	85.7	14.3	100.0	(1,496)	90.9	9.1	100.0	(1,463)
대학원 졸	91.5	8.5	100.0	(56)	98.8	1.2	100.0	(40)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29.9^{***}$) (아내: $\chi^2=40.9^{***}$)								
1~2년	78.2	21.8	100.0	(378)	83.2	16.8	100.0	(378)
3~5년	86.0	14.0	100.0	(806)	89.9	10.1	100.0	(806)
6~7년	90.7	9.3	100.0	(595)	95.6	4.4	100.0	(595)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1.1$) (아내: $\chi^2=21.8^{***}$)								
250만 원 미만	83.5	16.5	100.0	(153)	92.5	7.5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85.5	14.5	100.0	(671)	85.4	14.6	100.0	(529)
350만 원 이상	86.6	13.4	100.0	(955)	92.9	7.1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임신·출산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¹³³⁾은 남편이 57.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이용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소득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할 수 없으나, 소득이 350만 원 이상(62.0%)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60.5%의 비율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속성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으로 올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지속기간이 짧을수록 이용 경험이 적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현재 소득 250만 원 미만(65.7%)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2-16〉 정책에 대한 의견: 임신·출산 정책 이용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N)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N)
전체	18.8	38.8	42.4	100.0	(1,528)	21.1	39.4	39.5	100.0	(1,608)
지역 (남편: $\chi^2=44.6^{***}$) (아내: $\chi^2=29.0^{***}$)										
서울·경기	13.1	39.2	47.7	100.0	(731)	16.6	39.4	44.1	100.0	(773)
광역시	19.9	37.3	42.7	100.0	(379)	21.9	39.1	39.0	100.0	(404)
그 외	27.7	39.5	32.8	100.0	(418)	28.4	39.7	31.9	100.0	(432)
연령 (남편: $\chi^2=88.2^{***}$) (아내: $\chi^2=49.8^{***}$)										
20대	11.2	17.6	71.1	100.0	(102)	15.9	26.3	57.8	100.0	(287)
30대	18.7	36.2	45.1	100.0	(1,109)	22.3	41.6	36.1	100.0	(1,120)
40대	21.7	54.7	23.6	100.0	(318)	21.7	45.7	32.7	100.0	(201)
학력 (남편: $\chi^2=0.4$) (아내: $\chi^2=9.5^*$)										
고졸 이하	19.6	37.2	43.2	100.0	(194)	19.8	46.5	33.7	100.0	(240)
대졸	18.8	39.0	42.3	100.0	(1,283)	21.0	38.5	40.5	100.0	(1,330)
대학원 졸	16.8	41.2	42.0	100.0	(52)	31.9	27.2	40.9	100.0	(39)

133) '현재 이용'과 '이용 경험 있음'을 합한 수치임.

구분	남편					아내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N)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N)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252.6^{***}$) (아내: $\chi^2=304.2^{***}$)										
1~2년	12.4	8.6	79.0	100.0	(295)	11.7	9.5	78.9	100.0	(315)
3~5년	19.4	39.3	41.3	100.0	(693)	21.8	40.1	38.0	100.0	(725)
6~7년	21.7	54.7	23.7	100.0	(540)	25.3	55.0	19.6	100.0	(569)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16.1^{**}$) (아내: $\chi^2=30.1^{***}$)										
250만 원 미만	15.6	37.1	47.3	100.0	(128)	22.4	43.3	34.3	100.0	(989)
250~350만 원 미만	15.9	36.5	47.6	100.0	(573)	18.2	33.7	48.1	100.0	(452)
350만 원 이상	21.3	40.7	38.0	100.0	(827)	20.9	32.1	47.0	100.0	(168)

주: 1) * $p<0.05$, ** $p<0.01$, *** $p<0.001$

2)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 경험 여부를 응답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임신·출산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된 정도(만족도)를 살펴보면,¹³⁴⁾ 남편은 93.0%, 지역별로는 그 외 지역(95.0%), 학력에서는 대졸(93.7%), 혼인 연차가 6~7년(93.9%),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93.2%)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94.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남편과 비교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1.3% 더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과 그 외 지역이 94.6%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96.7%), 혼인 연차가 3~5년 차(94.6%),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95.6%)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4) '도움이 됨'과 '매우 도움이 됨'을 합한 수치임.

〈표 12-17〉 정책에 대한 의견: 임신·출산 정책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N)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N)
전체	0.2	6.8	72.8	20.2	100.0	(881)	0.4	5.3	73.4	20.9	100.0	(973)
지역												
서울·경기	-	7.4	74.9	17.7	100.0	(383)	0.2	5.2	77.2	17.4	100.0	(432)
광역시	0.4	8.5	60.6	30.4	100.0	(217)	0.5	6.1	62.0	31.4	100.0	(246)
그 외	0.4	4.6	79.4	15.6	100.0	(281)	0.4	4.9	77.2	17.4	100.0	(294)
연령												
20대	-	5.4	69.5	25.0	100.0	(29)	0.7	6.6	69.6	23.1	100.0	(121)
30대	0.3	6.0	74.1	19.5	100.0	(609)	0.4	5.1	73.6	20.9	100.0	(716)
40대	-	8.9	70.0	21.2	100.0	(243)	-	5.2	75.6	19.2	100.0	(136)
학력												
고졸 이하	0.6	7.8	78.0	13.7	100.0	(110)	-	3.3	80.1	16.6	100.0	(159)
대졸	0.2	6.2	72.6	21.1	100.0	(741)	0.3	5.9	72.3	21.5	100.0	(791)
대학원 졸	-	17.4	60.5	22.2	100.0	(30)	5.4	-	62.8	31.8	100.0	(23)
혼인지속기간												
1~2년	-	7.2	73.3	19.5	100.0	(62)	1.4	7.8	76.0	14.8	100.0	(66)
3~5년	0.4	7.5	70.5	21.6	100.0	(407)	0.5	4.9	70.8	23.8	100.0	(449)
6~7년	0.1	6.0	75.0	18.9	100.0	(412)	0.1	5.4	75.5	19.0	100.0	(457)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	7.0	77.1	15.9	100.0	(67)	0.1	5.8	73.5	20.7	100.0	(649)
250~350만 원 미만	0.5	6.8	73.0	19.7	100.0	(301)	0.9	3.5	73.7	21.9	100.0	(234)
350만 원 이상	0.1	6.7	72.2	21.0	100.0	(513)	0.9	6.9	71.5	20.6	100.0	(89)

주: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도움 정도를 응답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마지막으로 보육·돌봄 정책¹³⁵⁾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79.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외 지역(81.7%)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 학력, 혼인 연차, 현재 소득이

135)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 등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인지하고 있는 주택 정책이 있으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높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의 인지도는 84.4%로 나타나 남편보다 4.5%포인트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그 외 지역(85.5%), 연령별로는 30대(86.5%),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88.1%), 현재 소득이 350만 원 이상(90.1%)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이 외에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8〉 정책에 대한 의견: 보육·돌봄 정책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알고 있음	모름	계(%)	(N)	알고 있음	모름	계(%)	(N)
전체	79.9	20.1	100.0	(1,779)	84.4	15.6	100.0	(1,779)
지역 (남편: $\chi^2=6.6^*$) (아내: $\chi^2=0.7$)								
서울·경기	81.1	18.9	100.0	(852)	84.4	15.6	100.0	(852)
광역시	75.7	24.3	100.0	(454)	83.4	16.6	100.0	(454)
그 외	81.7	18.3	100.0	(473)	85.5	14.5	100.0	(473)
연령 (남편: $\chi^2=0.9$) (아내: $\chi^2=14.6^{**}$)								
20대	76.9	23.1	100.0	(125)	78.2	21.8	100.0	(345)
30대	80.0	20.0	100.0	(1,286)	86.5	13.5	100.0	(1,214)
40대	80.6	19.4	100.0	(368)	82.8	17.2	100.0	(220)
학력 (남편: $\chi^2=3.0$) (아내: $\chi^2=0.3$)								
고졸 이하	75.7	24.3	100.0	(226)	84.2	15.8	100.0	(277)
대졸	80.5	19.5	100.0	(1,496)	84.4	15.6	100.0	(1,463)
대학원 졸	81.7	18.3	100.0	(56)	88.1	11.9	100.0	(40)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21.9^{***}$) (아내: $\chi^2=43.3^{***}$)								
1~2년	72.8	27.2	100.0	(378)	74.9	25.1	100.0	(378)
3~5년	79.4	20.6	100.0	(806)	84.4	15.6	100.0	(806)
6~7년	85.1	14.9	100.0	(595)	90.5	9.5	100.0	(595)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5.8$) (아내: $\chi^2=11.3^{**}$)								
250만 원 미만	76.5	23.5	100.0	(153)	85.4	14.6	100.0	(1,069)
250~350만 원 미만	77.7	22.3	100.0	(671)	80.5	19.5	100.0	(529)
350만 원 이상	82.0	18.0	100.0	(955)	90.1	9.9	100.0	(18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보육·돌봄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한 경험¹³⁶⁾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한 경험¹³⁶⁾이 있는 비율¹³⁶⁾은 남편이 24.5%로 보고되었다. 지역에서는 광역시(31.5%), 학력에서는 대졸(25.4%)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령, 혼인 연차,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¹³⁷⁾

아내의 경우에는 26.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30.2%),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27.5%)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이 외에 연령, 학력,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¹³⁸⁾

〈표 12-19〉 정책에 대한 의견: 보육·돌봄 정책 이용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N)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N)
전체	10.0	14.5	75.5	100.0	(1,421)	11.7	14.6	73.7	100.0	(1,502)
지역 (남편: $\chi^2=19.9^{**}$) (아내: $\chi^2=16.7^{**}$)										
서울·경기	9.5	12.4	78.2	100.0	(692)	11.5	13.0	75.5	100.0	(719)
광역시	9.8	21.7	68.5	100.0	(343)	9.7	20.5	69.8	100.0	(378)
그 외	11.3	12.0	76.8	100.0	(386)	13.9	11.9	74.2	100.0	(404)
연령 (남편: $\chi^2=48.8^{***}$) (아내: $\chi^2=50.6^{***}$)										
20대	2.9	4.3	92.7	100.0	(96)	7.2	8.1	84.7	100.0	(269)
30대	10.2	12.4	77.4	100.0	(1,029)	12.7	13.8	73.6	100.0	(1,050)
40대	11.8	25.1	63.1	100.0	(296)	12.9	28.8	58.3	100.0	(182)
학력 (남편: $\chi^2=8.7$) (아내: $\chi^2=0.5$)										
고졸 이하	7.0	12.6	80.3	100.0	(171)	10.4	14.6	74.9	100.0	(233)
대졸	10.2	15.2	74.7	100.0	(1,204)	11.9	14.6	73.5	100.0	(1,234)
대학원 졸	17.1	4.4	78.4	100.0	(46)	11.6	15.6	72.8	100.0	(35)

136) '현재 이용'과 '이용 경험 있음'을 합한 수치임.

137) 연령은 유의하지 않지만, 혼인 연차, 현재 소득은 유의함.

138) 학력은 유의하지 않지만, 연령, 혼인 연차는 유의함.

구분	남편					아내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N)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N)
혼인지속기간 (남편: $\chi^2=122.0^{***}$) (아내: $\chi^2=128.1^{***}$)										
1~2년	0.9	1.9	97.3	100.0	(275)	2.1	1.5	96.3	100.0	(283)
3~5년	8.6	14.9	76.5	100.0	(640)	10.7	14.2	75.0	100.0	(680)
6~7년	16.8	20.9	62.4	100.0	(506)	17.9	22.0	60.1	100.0	(538)
본인현재소득 (남편: $\chi^2=9.6^*$) (아내: $\chi^2=5.9$)										
250만 원 미만	7.7	10.7	81.6	100.0	(117)	12.3	15.2	72.4	100.0	(913)
250~350만 원 미만	7.7	14.2	78.1	100.0	(521)	9.2	14.3	76.5	100.0	(426)
350만 원 이상	11.9	15.2	72.8	100.0	(783)	14.8	11.8	73.4	100.0	(163)

주: 1) * $p<0.05$, ** $p<0.01$, *** $p<0.001$

2)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 경험 유무를 응답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보육·돌봄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된 정도(만족도)를 살펴보면,¹³⁹⁾ 남편은 95.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98.3%), 연령에서는 20대(100.0%),¹⁴⁰⁾ 현재 소득이 250만 원 미만(98.1%)에서 높고, 학력과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경우에는 94.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97.4%), 연령이 40대(100.0%), 현재 소득이 250~350만 원 미만(98.6%)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력,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9) '도움이 됨'과 '매우 도움이 됨'을 합한 수치임.

140)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12-20〉 정책에 대한 의견: 보육·돌봄 정책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N)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N)
전체	0.1	4.0	66.1	29.8	100.0	(349)	0.7	4.6	68.7	26.0	100.0	(395)
지역												
서울·경기	-	3.3	61.7	34.9	100.0	(151)	0.8	6.4	69.0	23.8	100.0	(176)
광역시	0.4	1.3	64.5	33.8	100.0	(108)	0.4	2.2	59.8	37.6	100.0	(114)
그 외	-	8.4	75.4	16.1	100.0	(90)	0.8	4.3	78.0	17.0	100.0	(104)
연령												
20대	-	-	43.7	56.3	100.0	(7)	3.4	3.4	69.5	23.7	100.0	(41)
30대	0.2	4.8	66.1	28.9	100.0	(232)	0.4	6.1	65.0	28.5	100.0	(278)
40대	-	2.6	67.6	29.8	100.0	(109)	-	-	81.9	18.1	100.0	(76)
학력												
고졸 이하	1.3	7.9	82.3	8.4	100.0	(34)	-	12.1	74.3	13.6	100.0	(58)
대졸	-	3.7	63.7	32.6	100.0	(305)	0.8	3.4	67.0	28.8	100.0	(327)
대학원 졸	-	-	85.2	14.8	100.0	(10)	-	-	92.0	8.0	100.0	(10)
혼인지속기간												
1~2년	-	11.8	85.4	2.8	100.0	(8)	3.5	7.0	87.5	2.0	100.0	(10)
3~5년	-	4.0	60.3	35.7	100.0	(151)	0.8	5.2	63.8	30.1	100.0	(170)
6~7년	0.2	3.7	69.9	26.1	100.0	(190)	0.4	4.0	71.6	23.9	100.0	(215)
본인현재소득												
250만 원 미만	-	1.9	76.7	21.4	100.0	(22)	0.5	6.9	68.6	24.0	100.0	(252)
250~350만 원 미만	0.4	5.9	63.4	30.3	100.0	(114)	1.4	-	64.6	34.0	100.0	(100)
350만 원 이상	-	3.2	66.5	30.3	100.0	(213)	-	2.1	78.5	19.4	100.0	(43)

주: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도움 정도를 응답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결혼과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과 인지 및 이용 경험,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결혼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결혼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79.6%, 아내는 77.4%로 나타나 남편이 아내보다 2.2%포인트 높게 결혼 장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속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경우, 세대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낮은 층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에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은 층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에서, 공통적으로 현재 소득이 높은 층에서 출산 장려 정책에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남편은 39.0%, 아내는 37.5%로 응답하여 남편이 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간의 차이점은 남편은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장려 정책이 충분하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아내는 반대의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출산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남편은 75.6%, 아내는 75.1%로 남편이 아내보다 0.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20대에서 긍정적인 비율이 낮고, 특히 대학원 졸의 아내는 출산 장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남편은 39.0%, 아내는 38.6%로 0.4%포인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임대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남편의 90.3%, 아내의 90.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편의 27.4%, 아내의 22.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에서 남편의 93.2%, 아내의 93.5%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남편의 76.9%, 아내의 76.7%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편의 9.9%, 아내의 9.7%가 이용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에서 남편의 80.8%, 아내의 84.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임신·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남편의 85.9%, 아내의 90.4%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남편 57.6%, 아내 60.5%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에서 남편의 93.0%, 아내의 94.3%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보육·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남편의 79.9%, 아내의 84.4%가 인지하고 있으며,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편의 24.5%, 아내의 26.3%가 이용했고, 이들 중 남편의 95.9%, 아내의 94.7%가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5 부

결론부

제13장 종합분석

제14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조사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와 주거라는 요인에 관하여 가족 형성기의 시점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앞의 조사 결과에서 시점별로 분석하고 정리하였으나 마지막으로 모든 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의 일자리와 주거 변화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 정리한다. 또한, 본 조사는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조사하였으므로 부부의 특성을 살려 간단하게 쌍 분석(pair analysis)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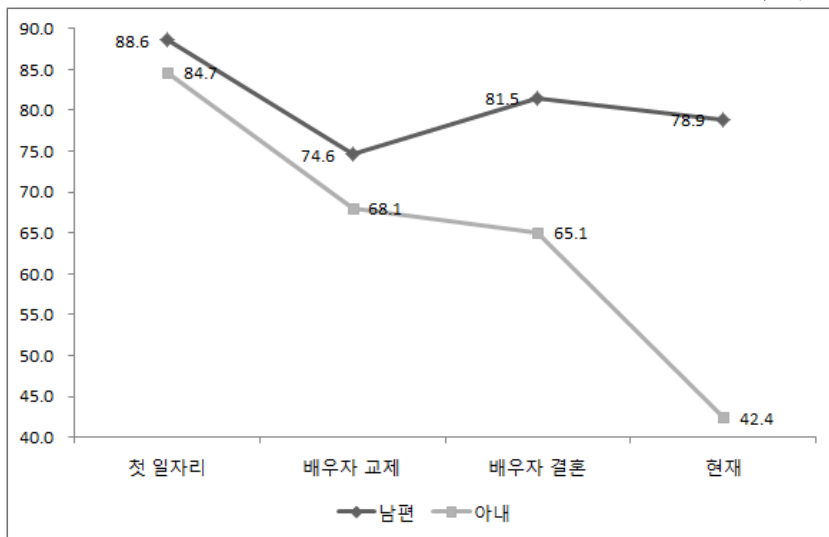
제1절 신혼부부의 일자리 변화

먼저 일자리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첫 일자리 비율은 남편이 88.6%였으나,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는 74.6%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배우자와 결혼할 시점에는 81.5%로 증가하였고, 현재에도 비슷한 수준(78.9%)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아내의 경우는 첫 일자리 비율이 84.7%였으나, 교제 시점에는 68.1%로 감소하였고, 배우자와 결혼할 시점에도 약간 감소하여 65.1%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보다 더욱 감소하여 42.4%를 나타내어 결혼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일자리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유사한 연령대의 일자리 비율을 산출해 보았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20~44세 미혼 남녀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을 산출한 결과, 남성은 60.1%, 여성은 62.9%로 나타나 본 조사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일자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3-1] 가족 형성기 시점별 일자리 유무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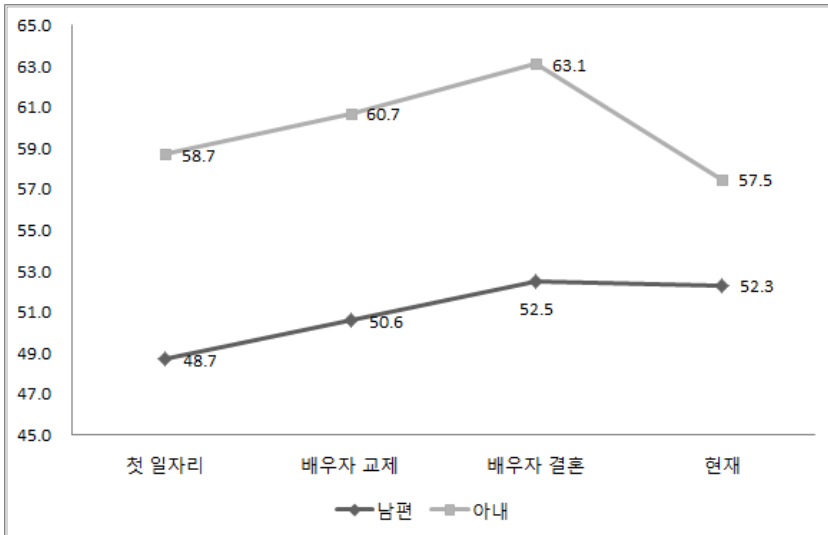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직종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사무 종사자 비율이 첫 일자리에서 48.7%,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는 50.6%로 증가하였고, 이후 결혼 시에도 52.5%로 증가한 반면, 현재 시점에서는 52.3%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사무 종사자인 아내의 비율은 남편보다 높은 편으로 첫 일자리에서 58.7%로 나타났다. 이후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 60.7%로 증가하고,

결혼 시에도 63.1%까지 증가하지만 현재는 57.5%로 감소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결혼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이후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사무직보다는 다른 직종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다음 직종을 분석할 때 다시 살펴본다.

[그림 13-2] 가족 형성기 시점별 사무 종사자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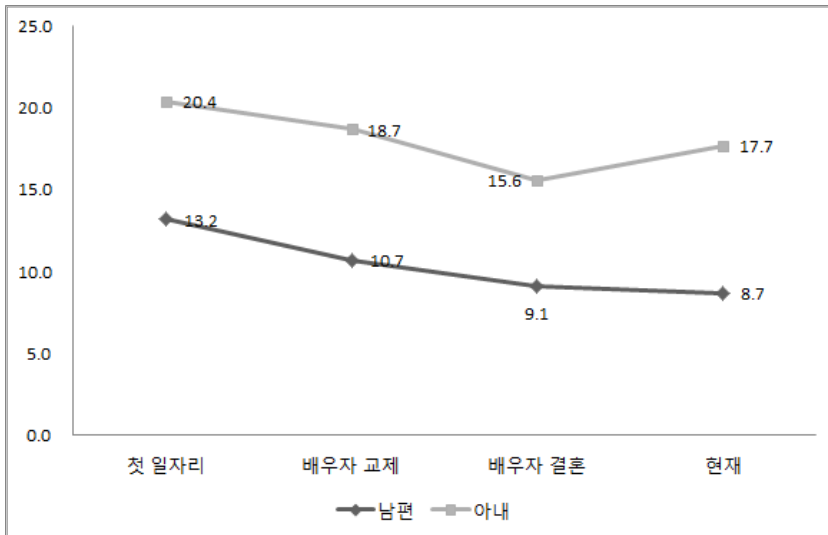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첫 일자리에서 13.2%,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 10.7%, 결혼 시에 9.1%로 나타났고, 현재 시점에서는 더 낮아져 8.7%를 기록했다. 반면, 아내의 경우는 첫 일자리에서 20.4%로 남편보다 7.2%포인트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는 18.7%, 결혼 시에는 15.6%로 가장 낮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17.7%로 소폭 반등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의

사무직 비율 감소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때, 서비스직 이외에도 직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3-3] 가족 형성기 시점별 서비스 종사자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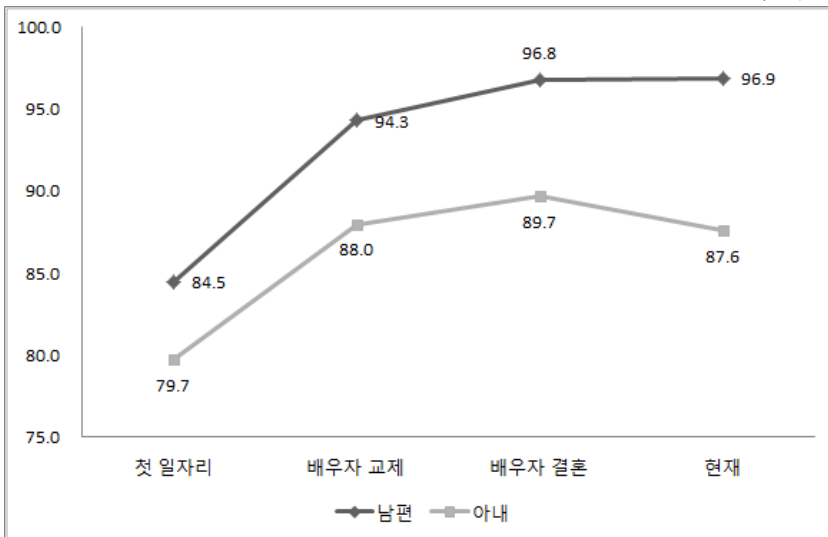
정규직 비율을 시점별로 보면, 남편의 경우 첫 일자리에서의 정규직 비율은 84.5%,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는 94.3%, 결혼 시에는 96.8%, 현재는 96.9%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첫 일자리에서 79.7%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는 88.0%, 결혼 시에는 89.7%로 나타났고, 이후 약간 감소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87.6%를 나타냈다.

남편과 아내의 정규직 비율이 90% 내외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

나, 비교를 위해서 유사한 연령대의 정규직 비율을 산출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20~44세 미혼 남녀의 정규직 비율을 산출한 결과, 남성 63.6%, 여성 62.6%로 나타나, 신혼부부의 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4] 가족 형성기 시점별 정규직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일자리 변화의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남편의 첫 일자리 소득은 272만 1000원이었으나,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326만 1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결혼 시에는 337만 9000원, 현재 시점에서는 345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첫 일자리는 210만 4000원으로 남편과는 61만 7000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도 증가하여

239만 2000원으로 나타났으나, 남편과의 차이는 첫 일자리에서보다 더 증가하여 86만 9000원으로 커졌다. 그리고 결혼 시의 소득은 249만 5000원으로 교제 시보다 약 10만 원 증가하였으나, 남편과의 차이는 88만 4000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후 현재 소득은 259만 3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과의 차이는 약간 감소하여 86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20~44세 미혼 남녀의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 결과, 남성은 262만 7000원, 여성은 147만 9000원으로 나타나 신혼부부의 소득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일자리와 관련지어 유의해야 할 점은 [그림 13-1]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아내의 비율이 첫 일자리에서부터 현재로 올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높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아내의 일자리 속성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신혼부부의 주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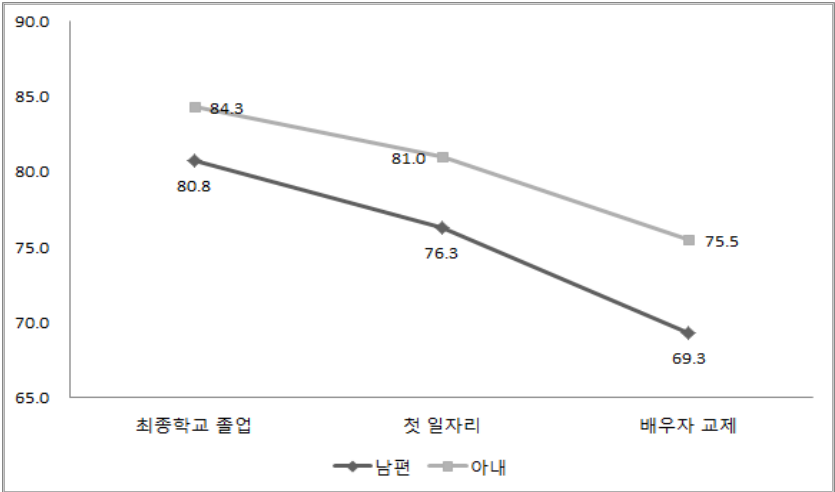
주거의 경우는 신혼집이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신혼집을 기준으로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주거 변화에 대해 정리한다.

1. 결혼 이전

결혼 이전에서는 최종학교 졸업, 첫 일자리, 배우자와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같이 산 사람 중 부모 및 조부모와 같이 산 경우에 대해 정리하면, 남편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시점에서는 80.8%, 첫 일자리 당시는 76.3%, 배우자와의 교제 시 69.3%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아내의 경우도 남편과 같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있으나, 남편보다 대략 5%의 차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시점에서 15.0%였던 것이 첫 일자리 시에는 19.4%, 배우자와의 교제 당시에는 27.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도 남편과 유사하게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약 3~7% 정도의 차이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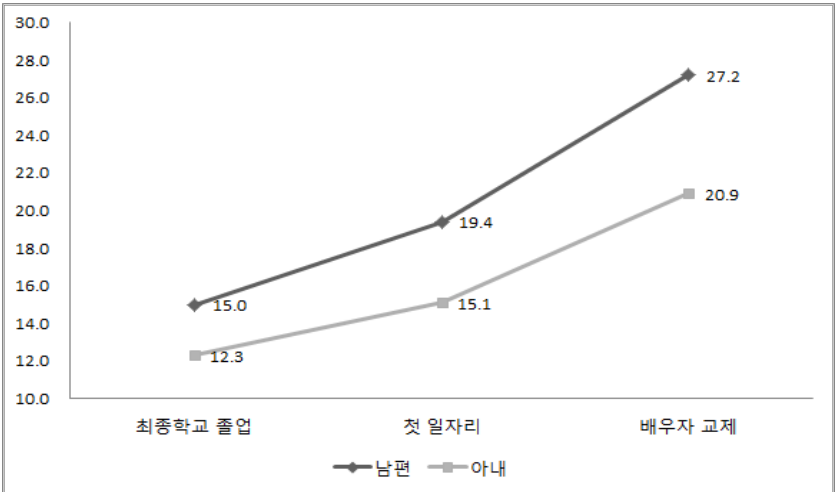
주택 유형에 대해 정리하면, 남편의 경우, 아파트/주상복합에 사는 비율은 최종학교 졸업 시점에서 44.1%, 첫 일자리 시점에서 43.9%,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는 46.3%로 증가했으며, 아내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다세대 주택(원룸 등)에 사는 비율을 보면, 남편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시점에서 10.4%, 이후 첫 일자리 시점에서 12.0%, 배우자와의 교제 당시 12.4%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내도 최종학교 졸업 시에는 9.1%로, 이후 첫 일자리 시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각각 10.3%, 11.5%로 점차 증가했다.

[그림 13-5] 결혼 이전 같이 산 사람(부모 및 조부모)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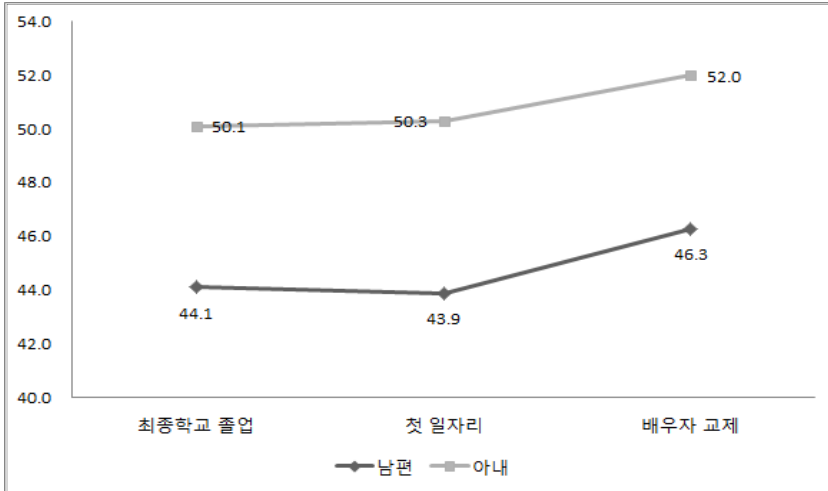
[그림 13-6] 결혼 이전 혼자 산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그림 13-7] 결혼 이전 아파트/주상복합에서 산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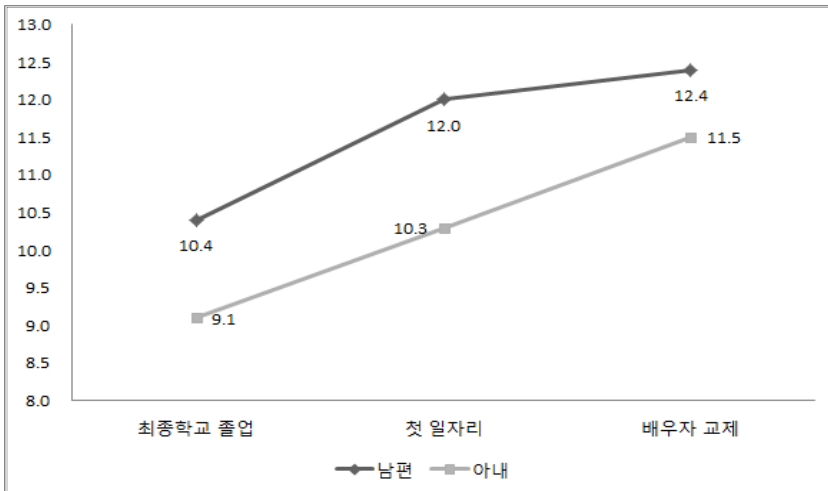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그림 13-8] 결혼 이전 다세대 주택(원룸 등)에서 산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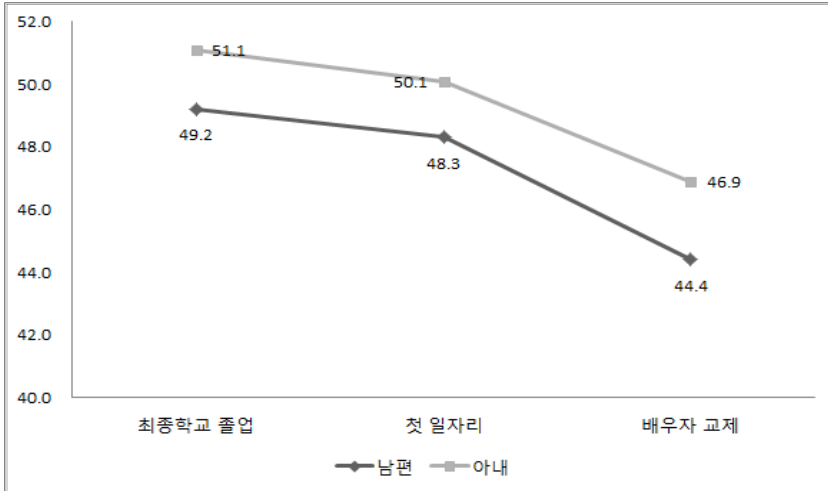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다음으로 점유 형태에 따라 정리하면, 남편의 경우, 무상으로 사는 비율이 최종학교 졸업 시점에서는 49.2%, 첫 일자리 시점에는 48.3%,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는 44.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아내에서도 나타나 최종학교 졸업 시점에서 51.1%, 이후 첫 일자리,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각각 50.1%, 46.9%로 점차 감소하였다.

전세로 사는 비율을 정리하면, 남편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시점에서 6.5%였던 것이 이후의 첫 일자리 시점에서는 8.0%,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는 10.5%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내의 경우에도 시점별로 각각 7.3%, 8.5%, 10.2%로 나타나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9] 결혼 이전 무상으로 살고 있던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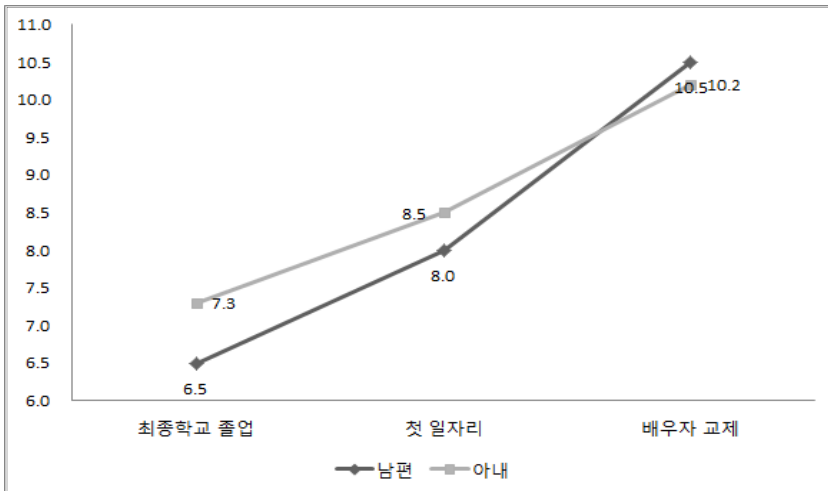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그림 13-10] 결혼 이전 전세로 살고 있던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2. 신혼 주거

신혼 주거에서 주택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이 64.7%, 연립주택이 12.6%,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10.7%로 나타났고, 점유 형태가 전세인 경우가 53.7%로 가장 높고, 자가가 29.7%, 보증부 월세가 8.6%로 나타났다. 마련 방법은 새로 구입한 경우가 87.4%로 가장 높고, 남편이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6.6%, 아내가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주택 비용은 남편(부모 포함)의 부담 비율이 79.5%, 신혼집 명의는 남편이 72.0%, 아내가 7.1%이며, 공동인 경우도 17.9%로 나타났다.

신혼집 주거 비용을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가 2억 6188만 원, 전세가 1억 8171만 원,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282만 원에 월세 33만 1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가 20만 7000원, 기타가 47만 9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신혼 집의 경우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는데 서울·경기 신혼집과 그 외 지역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산출해 보면, 자가가 2억 3145만 원, 전세가 1억 1766만 원으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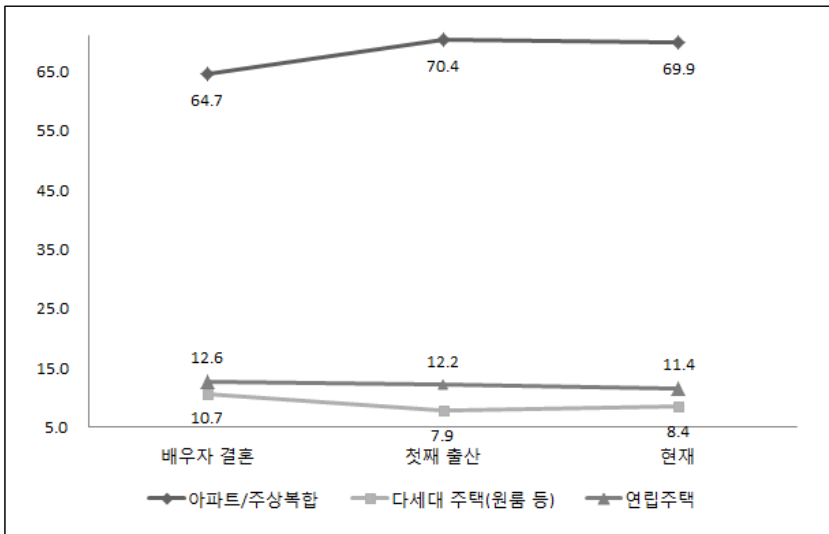
3. 결혼 이후

결혼 이후 주거의 변화를 정리하면, 주택 유형은 배우자와의 결혼 당시에는 아파트/주상복합이 64.7%였던 것이 첫째 출산 시점에서 70.4%로 나타났고, 현재는 69.9%로 결혼 당시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첫째 출산 시점에서는 첫째를 출산한 샘플만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는 출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 순서대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엄밀하게는 배우자 결

혼 시점과 첫째 출산 시점과 비교하고, 배우자 결혼 시점과 현재 시점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하면 결혼 시점보다 아파트/주상복합에 사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연립주택은 결혼 시점에서 12.6%였던 것이 첫째 출산과 현재 시점에서 각각 12.2%, 11.4%로 감소하였고, 다세대 주택(원룸 등)은 배우자 결혼 시점에서는 10.7%에서 첫째 출산, 현재 시점에 각각 7.9%, 8.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11] 결혼 이후 주거 유형 변화 추이: 신혼부부 주거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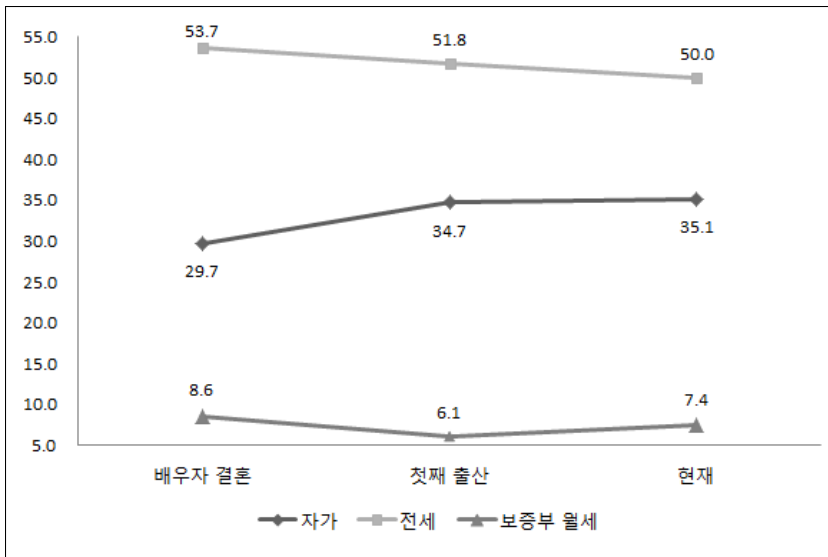
점유 형태 별로 정리하면, 결혼 당시의 자가 비율은 29.7%였지만, 첫째 출산, 현재 시점에서 각각 34.7%, 35.1%로 증가했고, 전세는 결혼 시점에서 53.7%였으나, 첫째 출산, 현재 시점에서 각각 51.8%, 50.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증부 월세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

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신혼부부는 전세 및 보증부 월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려 하며, 다세대 주택 및 연립 주택에서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3-12] 결혼 이후 주거 점유 형태 변화 추이: 신혼부부 주거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3절 신혼부부 특성에 따른 분석

본 조사의 특성 중의 하나는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가치관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본 절에서는 부부의 속성 및 가치관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하여 분석한다. 여기에서 부부의 속성은 학력과 연령

으로 이것은 3장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력이 같은 경우, 남편이 높거나 아내가 높은 경우, 연령도 동갑인 경우, 남편이 높거나 아내가 높은 경우로 분류하여, 이러한 속성에 따라 신혼부부의 자녀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가치관은 자녀에 대한 것으로 ‘결혼의 목적은 자녀를 갖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표 13-13〉은 신혼부부의 학력과 연령 속성 그리고 가치관 차이에 따라 자녀수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단, 혼인 연차에 따라 자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연차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학력 전체로 보면, 남편과 아내의 학력이 같은 경우 0.91명, 남편이 높은 경우는 0.98명, 아내가 높은 경우는 0.75명으로, 아내의 학력이 높은 경우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혼인 연차별로 살펴보면, 혼인 연차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의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6~7년에서는 학력이 같은 경우에 자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동갑일 경우에 0.77명, 남편이 높은 경우 0.95명, 아내가 높은 경우 0.89명으로 동갑인 경우의 자녀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연차별로 보면, 동갑일 경우에는 일관되게 자녀수가 적고, 혼인 연차가 짧거나 긴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자녀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경향이 있다.

가치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의 목적이 자녀라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자녀수가 1.01명으로 가장 많고, 둘 다 부정적인 경우가 0.86명으로 가장 적으며, 한쪽만이 긍정 또는 부정인 경우는 0.96명으로 가운데 위치하였다. 혼인 연차별로 보면, 연차가 낮거나 높거나 둘 다 긍정적일 경우에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혼

인 연차가 3~5년일 경우에는 한쪽만 긍정 또는 부정일 경우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부 둘 다 부정적일 경우에는 일관되게 적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 13-13〉 신혼부부 속성에 따른 자녀수의 차이

(단위: 명)

속성	구분	혼인 연차			
		전체	1~2년	3~5년	6~7년
학력	같음	0.91	0.13	0.89	1.46
	남편이 높은 경우	0.98	0.26	0.90	1.43
	아내가 높은 경우	0.75	0.11	0.70	1.33
연령	동갑	0.77	0.11	0.77	1.28
	남편이 높은 경우	0.95	0.16	0.90	1.48
	아내가 높은 경우	0.89	0.16	0.79	1.46
가치관	둘 다 긍정	1.01	0.24	0.86	1.53
	둘 다 부정	0.86	0.14	0.83	1.41
	한쪽만 긍정 또는 부정	0.96	0.13	0.96	1.45
합계 (N)		(1,779)	(378)	(806)	(59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제1절 요약

이 연구는 출산과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 자리와 주거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출산율 감소 배경의 특성 및 정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 변동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은 신혼부부(결혼지속기간 5년 이하)가 전체 출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신혼부부의 출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출산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조사 시점에서 출산을 한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이성교제, 결혼, 출산을 경험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생애주기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미혼 시절에 대한 회고적 조사(retrospective survey)가 필요하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생애주기 중에서 가족 형성기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가족 형성기는 이성교제와 만나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시기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현재의 문제점과 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본 조사는 신혼부부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부부간의 차이를 파악하

면서 이러한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결혼 형성기의 남편 일자리 비율은 첫 일자리 시점에서 88.6%,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74.6%, 결혼 시점에서 81.5%로 나타났고, 아내는 첫 일자리 비율이 84.7%,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68.1%, 결혼 시점에서 65.1%로 조사되었다. 이 중 정규직 비율은 남편의 경우 첫 일자리 시점에서 84.5%,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94.3%, 결혼 시점에서 96.8%였으나 현재는 96.9%로 첫 일자리 시점 이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는 첫 일자리 시점에서 79.7%,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88.0%, 결혼 시점에서 8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87.6%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소득은 272만 1000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는 326만 1000원, 결혼 시점에서는 337만 9000원, 현재 시점에서는 345만 9000원으로 첫 일자리 이후 점차 증가했다. 한편, 아내의 경우도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소득은 210만 4000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는 239만 2000원, 결혼 시점에서는 249만 5000원, 현재 소득은 259만 3000원으로 점차 증가했으나, 남편과의 소득 차이는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61만 7000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86만 6000원으로 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주거에서 주택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이 64.7%, 연립주택이 12.6%,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10.7%로 나타났고, 점유 형태가 전세인 경우가 53.7%로 가장 높고, 자가 29.7%, 보증부 월세가 8.6%로 나타났다. 신혼집 마련 방법은 새로 구입한 경우가 87.4%로 가장 높고, 남편이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6.6%, 아내가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신혼집을 새로 마련한 경우의 비용은 남편(부모 포함)의 부담이 79.5%로 나타났고, 새로 마련한 신혼집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72.0%, 아내가 7.1%이며, 공동인 경우도 17.9%로 조사되었다.

신혼집 주택 비용을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2억 6188만 원, 전세가 1억 8171만 원,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282만 원에 월세 33만 1000 원, 보증금 없는 월세가 20만 7000원, 기타가 47만 9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신혼집의 경우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는데 서울·경기 신혼집과 그 외 지역의 비용 격차는 자가의 경우 2억 3145만 원, 전세는 1억 1766만 원으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것이 본 조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을 살려 분석한 결과, 자녀수는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경우, 남편의 연령이 아내보다 많은 경우에 가장 많고, 또한, 결혼의 목적이 자녀를 갖는 것이라고 남편과 아내 모두가 긍정할 때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속성 차이가 이들의 행동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남편과 아내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이 조사에서 밝혀진 신혼부부의 미혼 시절부터 결혼 그리고 결혼 이후 현재까지의 일자리 및 주거 변화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해 준다. 결혼 이전의 미혼 남녀는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하고,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으로 이행한 신혼부부들은 같은 연령대의 미혼 남녀들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안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결혼으로 이행

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년 고용 정책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어야 하며 고용 정책을 청년 정책의 핵심으로 하여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거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한데 특히 조사 결과 우리나라 신혼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주거를 새로 마련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비용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조사 결과에서 서울과 지방의 주거 비용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최근 서울시에서 정책을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9년 10월에 발표된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있는 예비부부와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기본적인 출발선인 주거만큼은 공공에서 해결해 준다는 목표로 매년 2만 5천 쌍에 대한 주거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론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결혼하는 2쌍 중 1쌍은 금융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무주택이면서 소득이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정책 대상이 된다. 또한 그간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지만 소득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금융지원의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였고, 서울시 주거 정책으로서는 최초로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지원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가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려 지원을 연평균 5,000호에서 10,500호로 확대한다. 금융지원의 경우 부부 기준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함에 따라, 사실혼 부부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법률을 참고하여 추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12,000호에서 14,500호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에 살다가 자

녀 출생으로 인해 넓은 평형으로 이사를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3조 10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고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2019년 11월에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2020년부터는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6조 4000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7조 8000억 원이며 3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매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 현재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로 하는데 지원 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자녀수별 차등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전세 대출 및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를 둘 이상 낳게 되면 이자 납입을 면제해 주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 정책에서는 무엇보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면 집이 본인의 소유가 된다는 신호(signal)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신문에 보도된 헝가리의 사례는 이러한 시도를 해 볼 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헝가리 정부는 수년 전부터 41세 미만의 여성이 결혼할 경우, 부부에게 약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며, 5년 이내에 한 명의 자녀를 낳으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고, 3명 이상을 낳게 되면 대출 금액 상환을 면제해 주었는데, 이렇게 하자 결혼 붐이 일 정도였다는 것이 보도되었다.¹⁴¹⁾

141) 전성훈. (2019. 12. 2.). '결혼하면 4천만원 대출' 헝가리서 혼인건수 30년 만에 최고.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2153000109>에서 2019. 12. 5. 인출.

이러한 관점에서 신혼부부에게 결혼과 동시에 주거를 제공하고,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한 명 낳게 되면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또 한 명을 낳게 되면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자녀를 둘 이상 낳게 되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한,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큰 평수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녀를 둘 이상 낳고 2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서울시의 정책이 다른 지역보다 혜택이 많게 되면 지방의 신혼부부들이 서울로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동은 주거만이 아닌 일자리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봤을 때 편익이 충분히 크다면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평가가 좋다면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관련 청년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본 조사에서는 신혼부부의 미혼 시절부터 배우자와의 교제, 결혼, 출산에 이르는 과정까지 파악하였다. 본 조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거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정책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및 신혼부부 정책은 매우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청년 정책은 미혼 청년뿐만 아니라 유배우 청년(신혼부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이어야 하나, 현재 미혼은 일자리 정책, 신혼부부는 주거 정책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미혼 청년이 결혼 이행으로 유배우 청년이 되고, 출산 과정을 거치는 현실에서 이 과정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정책에는 생애 과업 이행 관점이 결여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기에는 진학 및 취업 등으로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현 정책에는 이동에 대한 관점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과 신혼부부로 분절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 관점에서 ‘청년 생애주기 정책’으로 통합하여 미혼에서 결혼 및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 생애주기 정책’ 안에는 일자리와 주거 이외에 자녀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총망라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르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창출하여 지방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어떤 청년이든 원하는 일을 지방으로 분산되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자리, 주거, 보육 및 교육으로 나뉘어 다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 ‘청년 생애주기 정책’으로 국무조정실 등에서 총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될 수 있는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는 이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청년들의 정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자녀 청년을 위해 출산과 양육을 중심으로 주거와 보육 및 교육을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배우 청년이 양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보육 및 교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⁴²⁾

142) 김정은. (2019. 11. 20.).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립 어린이집 우선권으로 신혼부부에 인기. 스트레이트뉴스.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03>에서 2019. 11. 22. 인출.

참고문헌 <<

- 강미나, 김혜승, 김근용, 이수옥, 박미선, 이재춘, … 권건우. (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세종: 국토연구원.
- 강순희. (2010). 청년 일자리 탐색 방법이 취업성가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3(2), 77-99.
- _____. (2014).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여성연구, 87(2), 317-347.
- _____. (2018)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18(4), 1-29.
- 곽윤철. (2017) 경제적 요인이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 상대임금과 주거비 부담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권기현, 정지은, 전명진. (2013). 주거이동이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1(2), 189-213.
- 금재호. (2012a). 청년취업난의 악화(I): 피해자는 누구인가?, 월간 노동리뷰, 2012년 4월호, 17-38.
- _____. (2012b). 청년취업난의 악화(II): 일자리 질은 개선되었는가?, 월간 노동리뷰, 2012년 8월호, 39-57.
- _____. (2013). 청년의 고용불안과 재취업, 월간 노동리뷰, 2012년 4월호, 66-81.
- 김경범, 이주현, 노진원, 권영대. (2016). 청년 취업자의 이직 준비 관련 요인: 청년패널 2007-2013 자료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480-491.
- 김근용, 김혜승, 강미나, 김태환, 조경은, 김천일, … 이다희. (2007).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 통계보고서 -. 건설교통부, 서울: 국토연구원.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청년 니트(NEET).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이운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II -기초 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a).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b).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2015).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서울: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남정 외. (2014). 1차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신혼부부가구 주거 실태 파악을 위한 패널 구축 및 조사-.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 연구원.
- 김남정 외. (2016). 3차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승권. (201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건·복지 Issue&Focus, 68호, 1-8.
- 김연우. (2012).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제187호, 50-59.
- 김유빈, 이지은, 신선옥, 이혜정, 정현상. (2018). 한국노동패널유저가이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빈, 이지은, 최승주, 신선옥, 이혜정, 정현상. (2018). 제20차(2017)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우, 남춘호, 김혜경, 이순미, 이순아. (2018). 전주시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 희망도시 기본계획.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정우. (2015).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한 청년층의 노조가입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패널분석, 산업노동연구, 21(2), 1-34.
- 김종욱, 김형균, 김도관, 박경옥. (2018).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김주섭. (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5(2), 1-29.

- 김학모, 김정희, 문현주, 문소연, 윤연희, 박영선, ...현미래. (2017).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 제주: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김현식. (2018).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 출신 국가별 출산력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2), 43-70.
- 류기철, 박영화. (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1), 1-23.
- 류장수. (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8(2), 1-27.
- 문소희, 이현정. (2017).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년 1인 임차가구의 가족 지원 및 주거비 부담에 따른 주거 실태 및 주거 기대,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8(3), 11-22.
- 문영만, 홍장표. (2017). 청년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산업노동연구, 23(2), 195-230.
- 민현주, 김은지. (2011). 출산순위별 출산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45(4), 198-222.
- 민현주. (2007). 엄마의 취업과 자녀태움에 관한 동태적분석. 한국사회학, 41(3), 106-126.
- 박가열, 천영민. (2011). 대졸자 고용의 질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고용과 직업연구, 5(1), 27-49.
- 박미려, 양영석, 김명숙. (2017). 청년창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44.
- 박상현, 장재호, 최형아, 김귀성, 조지용, 김기현 ..., 최영섭. (2007). 청년패널 종합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박서연. (2019).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HLM을 활용한 신혼부부의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5(1), 59-72.
- 박종서, 김문길, 임지영. (201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모성 보호제도와 출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 (2013). 가족 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 제199호, 28-38.
- 박종훈, 이성우. (2017). 신혼부부 가구는 왜 독립적이지 못하는가? - 주거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3(3), 31-47.
- 박천규, 이영. (2010). 결혼 후 3년 이내 출산이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18(1), 27-39.
- 배상률, 황여정, 김소라. (2013). 2013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서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호중, 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204-238.
- 백순근, 길혜지, 김미림, 박경인. (2012).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한 대학(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3), 285-308.
- 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2018).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미숙. (2013).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여성 출산율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10(1), 63-79.
- 서안나, 여창환, 김재익(201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특성 및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24(3), 27-47.
- 손상락, 윤동준. (2011). 2010 주거실태조사로 본 도시민의 은퇴 후 주거선택의향과 정책제언. 정책포커스, 1-43.
- 손희주, 남궁미. (2018). 가구 생애 주기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1), 169-196.
- 신영식, 이현석. (2017). 신혼부부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부동산·도시연구, 9(2), 135-150.
- 안주엽, 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1), 47-74.
- 양계민, 강경균, 김주영.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총

- 팔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정호. (2004).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 - 청년패널조사의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 연구 -, 교육사회학연구, 14(1), 17~37.
-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창형. (2015). 주거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한 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학연구, 21(1), 57-74.
-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이병희. (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1-18.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2014). 가임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4), 153-184.
- 이상림, 이지혜. (2018). 시·군·구 지역 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 보건복지 ISSUE & FOCUS, 35, 1-8.
- 이상포, 노정현. (2017). 주거환경이 신혼부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 한부동산학회지, 35(1), 273-289.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2016). 산전·산후관리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236호. 37-50.
- 이연숙, 박지연, 이동주. (2015). 장애인 맞춤형 주택 계획 관점에서 본 농촌지역 지체장애인 주거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4(6), 154-162.
- 이창효. (2015). 자가주택 마련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 GRI연구논총, 17(3), 7-33.
- 이현정. (2015).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청년 임차가구의 지역별 주거 실태 비교,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81-90.

- 임세희. (201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결정요인: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사
회복지정책, 42(4), 47-73.
- 장혜경, 황정임, 최인희, 김영란, 주재선, 김소영 ... 김수지. (2015). 2015년 가
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관석, 이재우. (2018).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주택자금대출이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연구, 28(4), 7-22.
- 정병호, 정재호. (2015).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63, 256-267.
- 조성호, 스가 케이타, 와타나베 유이치, 시카타 마사토, 김유경, 김지민. (2017).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세종: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조성호. (2016). 결혼 및 자녀 출산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143-174.
- 조성호. (2018). 청년층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
연구, 38(4), 398-430.
- 주희진, 주효진. (2017).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들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청
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2),
51-74.
-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 (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
미시 접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필선, 민인식. (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
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57-83.
- 최효진. (2016). 아동의 성장단계별 돌봄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
236호, 51-6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 호정균, 박문일. (2011). 임신 전 남성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대한의사협회지,
54(8), 808-817.
- 황광훈, 조민수, 박정아. (2018). 청년패널2007 11차(2017) 조사 기초분석보고

- 서.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황광훈. (2018). 청년취업자의 주관적 미스매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산
업노동연구, 24(2), 181-214.
- Arnett,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ecker, G. S.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813-846.
- Furstenberg, F. (2010). On a New Schedule: Transitions to Adulthood
and Family Change, *The Future of Children*, 20(1), 67-87.
- GGP. (2004).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Full Questionnaire for Wave 1: Core + Four Optional Sub-Modules*.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 Retrieved from [https://www.ggp-i.org/sites/default
/files/questionnaires/GGP_QuestW1Full.pdf](https://www.ggp-i.org/sites/default/files/questionnaires/GGP_QuestW1Full.pdf)
- GGP JAPAN. (2004).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urvey on Marriage
and the Family(JGS) Questionnaire*. Retrieved from [https://w
ww.ggp-i.org/sites/default/files/questionnaires/JapanQreWave
1.pdf](https://www.ggp-i.org/sites/default/files/questionnaires/JapanQreWave1.pdf)
- Gibson-Davis. (2009). Money, Marriage, and Children: Testing the
Financial Expectations and Family Formation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 146-160.
- Hughes, M. (2003). Home Economics: Metropolitan Labor and Housing
Markets and Domestic Arrangements in Young Adulthood,
Social Forces, 81(4), 1399-1429.
- Keeley, M. (1977). The Economics of Family Formation, *Economic
Inquiry*, 15(2), 238-250.
- Oppenheimer, V.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3), 563-591.

經濟産業省. (2006). 「少子化時代の結婚関連産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經濟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サービス産業課.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7). 「社会保障・人口問題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現代日本の結婚と出産—第15回出生動向基本調査(独身者調査ならびに夫婦調査) 報告書—」.

-온라인 자료-

통계청. (2018).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62004&themaId=A#A2.2 에서 2019.10.29. 인출

통계청. (2018.12.11.)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http://m.kostat.go.kr/board/file_dn.jsp?aSeq=371979&ord=2 에서 2019.08.30. 인출

통계청. (2019).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511&call_from=seoul_paper 에서 2019.09.11. 인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원자료).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do> 에서 2019.08.14. 다운로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통계결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3&conn_path=I2 에서 2019.08.14. 인출.

-온라인 기사-

김정은. (2019.11.20.).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으로 신혼부부에 인기. 스트레이트뉴스.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03>에서 2019.11.22. 인출

전성훈. (2019.12.02.). '결혼하면 4천만원 대출' 헝가리서 혼인건수 30년 만에 최고.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2153000109>에서 2019.12.05. 인출

부록



02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가구대표자) Gallup 2019-166-00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대한 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 만 18-49세 중 혼인 후 7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응답 소요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및 거절, 참여 중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홍식

연구책임자: 인구정책연구실 조성호 부연구위원

주관기관

조사기관

2019년 8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이사 박계형

담당연구원 조민수/이성화

실시연구원 김도희

전화 02-3702-2648



가구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동·읍·면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일반사항, 출산 및 양육 경험, 주거 관련 사항, 경제 관련사항, 개인 및 가족 관련 사항, 정책욕구

[개인정보 수집 목적]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 관련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및 보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은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19년 월 일 조사대상자 서명 :

540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응답자 특성

SQ1) 귀하는 현재 결혼을 했거나 결혼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1. 예 2. 아니오 ☐ 조사종료

SQ2) 귀하의 생년월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생년월 : 년 월

성별 : 1. 남성 2. 여성

☐ 여성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거나 50세 이상이면 조사종료 (1970 ≤ 여성 기준 출생연도 ≤ 2001)

SQ2-1) 배우자의 생년월은 언제입니까?

년 월

☐ 여성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거나 50세 이상이면 조사종료 (1970 ≤ 여성 기준 출생연도 ≤ 2001)

SQ3) 귀하는 현재의 배우자와 언제부터 같이 사셨습니까?

☐ 기존에 동거를 하시던 분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고 느끼는 시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년 월

☐ 2012년 7월 이전인 경우에는 조사종료 (2012년 8월부터 조사대상)

A. 가구원 및 주거 관련 사항

A1) 현재 귀하의 가구에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까?

명

☐ 가구에 같이 살고 있는 분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와는 상관없이 가구 내에서 동거하면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분을 말합니다.

☐ 학업(학외 유학 포함), 지방 군부(해외 근무 포함), 군복무, 치료 및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직계가족은 포함됩니다.

☐ 입주 도우미 등 함께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2) 귀하의 가구에 같이 살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귀하 본인도 포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1) 응답자와의 관계 [아래 보기 참고]	2) 생년월	3) 성별	4) 동거여부
1	0. 본인	년 월	1. 남 2. 여	1. 동거 2. 비동거
2	1. 배우자	년 월	1. 남 2. 여	1. 동거 2. 비동거 3. 주말부부
3		년 월	1. 남 2. 여	1. 동거 2. 비동거
4		년 월	1. 남 2. 여	1. 동거 2. 비동거
5		년 월	1. 남 2. 여	1. 동거 2. 비동거
6		년 월	1. 남 2. 여	1. 동거 2. 비동거

1) [응답자와의 관계 코드]			
0. 본인	1. 배우자	4. 배우자의 아버지	
2. 본인의 아버지	3. 본인의 어머니	7. 본인의 형제자매	
5. 배우자의 어머니	6.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10. 기타(적을 것 :)	
8. 배우자의 형제자매	9. 기타 친인척(적을 것 :)		

A3) 귀하가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집(신혼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 부부가 따로 살았던 경우(주말부부 등)에는 주된 거주지 한 곳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반드시 새로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현 배우자와 본격적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신혼집, 또는 본인이 신혼집이라고 생각하는 집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한 시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배우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	년 월		
2) 같이 산 사람 (복수응답)	1. (주말부부 아닌) 배우자 4. 형제자매 및 친인척 7. 기타(가족사, 학숙 등)	2. (주말부부) 배우자 5. 친구 및 지인 8. 다세대주택(원룸 등)	3. 부모 및 조부모 6. 기타(적을 것 :) 9. 아파트/주상복합 10. 오피스텔
3) 주택 유형			
4) 점유 형태	· 본인 기준으로 응답 · 예: 월세/전세인 부모 및 친척 집에서 무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생필비조로 부모 및 친척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부모 및 친척과 공적인 계약을 통해 집을 마련한 경우 →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응답		
5) 주택비용	· 일세 등의 경우 월로 환산 (점유형태가 1일 경우) 매세가 _____억 _____만 (점유형태가 2일 경우) 보증금 _____억 _____만 (점유형태가 3일 경우) 보증금 _____억 _____만, 월세 _____만 (점유형태가 4, 5일 경우) 월세 _____만 (점유형태가 6일 경우) ☐ 주대규모로 이동		
6) 주택규모	· m ² 과 평수 중 편한 단위로 하나만 응답 _____m ² / _____평		
7) 시군구	· 외국인 경우 '_____'시에 국가명을 기재 _____시 _____군/구		

☐ A3)을 끝까지 응답한 뒤에, A3)의 4)점유 형태에서 5~6번 응답한 분은 A4로 이동

542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A3-1) (A3의 4) 점유 형태에서 1~4번 응답자만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집(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한 것입니까?

1. 결혼 전부터 본인이 혼자 살던 집 _____
2.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혼자 살던 집 _____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친척이 거주하던 집 _____
4. 결혼하면서 새로 마련한 집 _____
5. 기타(적을 것 : _____)

A3-3)으로 이동
• A3)의 4)점유 형태에서
3번(보증금 있는 월세) 응답한
분은 A4로 이동

A3-1)을 응답한 뒤에, A3)의 4)점유 형태에서 4번(보증금 없는 월세) 응답한 분은
A3-2), A3-3)은 응답하지 않고 A4로 이동

A3-2) (A3의 4) 점유 형태에서 1~3번(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응답 & A3-1의 4번 응답자만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집(신혼집)** 마련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습니까?

- ▶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 비용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기타'에 해당하는 지출비용이 없는 경우 응답하지 않습니다.

항목	비용
1) (금융권 대출을 제외한) 순수 본인 지출 금액	____ 억 ____ 만원
2) (금융권 대출을 제외한) 순수 배우자 지출 금액	____ 억 ____ 만원
3) 본인 금융권 대출 금액	____ 억 ____ 만원
4) 배우자 금융권 대출 금액	____ 억 ____ 만원
5) 본인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	____ 억 ____ 만원
6)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	____ 억 ____ 만원
7) 기타(적을 것 : _____)	____ 억 ____ 만원
합계	____ 억 ____ 만원

A3-2)를 응답한 뒤에, A3)의 4)점유 형태에서 3번(보증금 있는 월세) 응답한 분은 A4로 이동

A3-3) (A3의 4) 점유 형태에서 1~2번(자가, 전세) 응답자만 **결혼하면서 새로 마련하신 첫 주택(신혼집)**의 명의를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전세인 경우, 전세 계약자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A3-1)의 응답과 관계없이, A3)의 4)점유형태가 '1.자가' 또는 '2.전세'인 분은 A3-3)을 응답해 주십시오.

1. 본인
2. 배우자
3.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4. 본인의 부모/조부모
5.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6. 기타(적을 것 : _____)

A4) (현재 배우자와의)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에도 첫 집(신혼집)에서 계속 살고 계셨습니까?

1. 예 _____
2. 아니오 _____
3. (현재 배우자와 출산한) 자녀 없음 →

A5)로 이동

A4-1) 그렇다면, (현재 배우자와의)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 부부가 따로 살았던 경우(주말부부 등)에는 주된 거주지 한 곳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1달이 산 사람에 자녀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첫 자녀를 출산할 당시 시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같이 산 사람 (복수응답)	1. (주말부부 아닌)배우자 4. 형제자매 및 친인척	2. (주말부부)배우자 5. 친구 및 지인	3. 부모 및 조부모 6. 기타(적용 것 : _____)
2) 주택 유형	1. 일반단독주택 4. 연립주택 7. 기타(기숙사, 학숙 등)	2. 다가구단독주택 5. 다세대주택(원룸 등)	3. 아파트/주상복합 6. 오피스텔
3) 점유 형태	· 본인 기준으로 응답 · 예: 월세/전세인 부모 및 친척 집에서 무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생활비조로 부모 및 친척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 6.무상'으로 응답 부모 및 친척과 공적인 계약을 통해 집을 마련한 경우 →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응답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4. 보증금 없는 월세 5. 기타(년세, 사글세, 일세, 기숙사 등) 6. 무상(부모님 데, 친척집, 사택, 관사)		
4) 주택비용	· 일세 등의 경우 월토 환산 (점유형태가 1일 경우) 매대가 _____억 _____만 (점유형태가 2일 경우) 보증금 _____억 _____만 (점유형태가 3일 경우) 보증금 _____억 _____만, 월세 _____만 (점유형태가 4, 5일 경우) 월세 _____만 (점유형태가 6일 경우) ☐ 5)주택규모로 이동		
5) 주택규모	· m ² 과 평수 중 편한 단위로 하나만 응답 _____m ² / _____평		
6) 시군구	· 외국인 경우 '_____'시에 국가명을 기재 _____시 _____군/구		

54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A5) (자녀가 있는 분만) 현재도 첫 자녀(현재 배우자와의 자녀)를 출산할 당시 살고 계셨던 집에 계속 살고 계십니까?
(자녀가 없는 분만) 현재도 결혼하면서 살게 된 첫 집(신혼집)에 계속 살고 계십니까?

1. 예 ☞ B. 가족형성 및 양육 파트로 이동

2. 아니오

A5-1) 그렇다면, 현재 살고 계신 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부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주말부부 등)에는 주된 거주지 한 곳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1) 주택 유형	1. 일반단독주택 4. 연립주택 7. 기타(기숙사, 하숙 등)	2. 다가구단독주택 5. 다세대주택(원룸 등)	3. 아파트/주상복합 6. 오피스텔
2) 점유 형태	• 본인 기준으로 응답 • 예: 월세/전세인 부모 및 친척 집에서 무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6.무상'으로 응답 생활비조로 부모 및 친척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 '6.무상'으로 응답 부모 및 친척과 공적인 계약을 통해 집을 마련한 경우 →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응답		
3) 주택비용	1. 자가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5. 기타(년세, 사글세, 일세, 기숙사 등) 2. 전세 4. 보증금 없는 월세 6. 무상(부모님 데, 친척집, 사택, 판사) • 일세 등의 경우 월로 환산 (점유형태가 1일 경우) 매대가 _____억 _____만 (점유형태가 2일 경우) 보증금 _____억 _____만 (점유형태가 3일 경우) 보증금 _____억 _____만, 월세 _____만 (점유형태가 4, 5일 경우) 월세 _____만 (점유형태가 6일 경우) ☞ 4)주택규모로 이동		
4) 주택규모	• m² 평수 중 편한 단위로 하나만 응답 _____m² / _____평		
5) 시군구	• 외국인 경우 '_____'시에 국가명을 기재 _____시 _____군/구		

B. 가족형성 및 양육

B1) 다음은 배우자와의 교제 및 결혼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배우자를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 (2) 배우자와 언제부터 교제를 시작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 (3) 결혼식을 하셨나요?
1. 했음 _____년 _____월
2.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할 예정
3.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의향 없음
- (4) 혼인신고를 하셨나요?
1. 했음 _____년 _____월
2.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할 예정
3.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의향 없음

B2) 귀하와 배우자의 가사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몇 % 정도를 분담하고 있는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 속아 분담 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예) 내가 30%, 배우자가 70%로 가사 분담을 하고 있다면, 본인 기준으로 30%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기준 %

B3) (자녀가 있는 분만) 귀하와 배우자의 육아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몇 % 정도를 분담하고 있는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 예) 내가 30%, 배우자가 70%로 육아 분담을 하고 있다면, 본인 기준으로 30%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기준 %

C. 경제적 상황

C1)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을 제외하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시가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 부동산에는 주택, 건물, 임야, 토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0을 기입해 주십시오.

만원

제공된 개인정보는 본 연구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잠금이 가능한 곳에 보관할 예정이며
본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응답 날짜	2019년	월	일
응답 시간	시	분	- 시 분
	총 분간 응답		
조사원	성명		
	ID		
자료 검증원	성명		
	ID		
	검증여부	1. 완료	2. 미완료
		(서명)	

546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개인)

Gallup 2019-166-009

--	--	--	--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대한 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 만 18-49세 중 혼인 후 7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응답 소요시간은 약 20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및 거절, 참여 중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연구책임자: 인구정책연구실 조성호 부연구위원

주관기관

조사기관

2019년 8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이사 박계형
담당연구원 조민수/이성화
실사연구원 김도희
전화 02-3702-2648

가구번호					주소	_____시도 _____사.군 _____동·읍·면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일반사항, 출산 및 양육 경험, 주거 관련 사항, 경제 관련사항, 개인 및 가족 관련 사항, 정책복구 [개인정보 수집 목적]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 관련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및 보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19년 월 일 조사대상자 서명 :						

A. 교육·경제활동 및 경제적 상황

A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제학·중퇴·휴학·수료한 경우에는 해당 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 경우, '5. 4년제 대학'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2-3년제 대학
5. 4년제 대학
6. 대학원 석사
7. 대학원 박사
- A2로 이동

A1-1) (A1의 4-7번 응답자만) 귀하의 최종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해외에 있는 대학을 다닌 경우, 학교 소재지에서 기타 선택 후 국가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1) 학교 소재지 [아래 보기활동]	2) 입학연월	3) 졸업여부	4) 졸업연월
	년 월	1. 졸업 2. 졸업안함 (제학, 중퇴, 휴학, 수료 등)	년 월

1) [학교 소재지 코드]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18. 기타(적을 것 : _____)		

A2) 만 19세(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이후의 일자리 변화에 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주 1시간 이상 일하여 소득을 창출한 경우 모두 일자리에 포함됩니다. 혹은 급여를 받지 않는 가족종사자와 합치라도 주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일자리로 간주합니다.
- ☐ 동일한 시기에 두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한 일자리를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수입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응답해 주십시오.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 없이 본인의 의지로 지속적인 노동이 가능한 경우
 - 임시직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년 이내 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일용직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 일정한 장소 없이 일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 ☐ 근로시간 형태
- 시간제 :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동일한 업무 종사자보다 단시간 일하는 경우, 시급으로 일급을 받는 경우
 - 전일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합니다.
- ☐ 종사자 수는 전체 계열사를 모두 합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548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A2-1) 귀하는 만 19세(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이후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 **A4)로 이동**

A2-1-1) 귀하는 언제 첫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를 가지셨습니까?

☐ 최중학교란 귀하의 최종 학력이 해당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 최중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하신 경우는 '1. 최중학교 입학 이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 최중학교 입학 이전에 학교 재학 중에 하신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1) 고등학교 졸업 후 - 대학교 입학 전에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한 경우 (○)
예2) 대학교 졸업 후 - 대학원 입학 전에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한 경우 (○)
예3) 대학교 재학 중,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X)

1. 최중학교 입학 이전
2. 최중학교 입학(재학, 중퇴, 수료, 휴학 포함) 이후 ☐ **A2-2)로 이동**

A2-1-2) 귀하의 최중학교 입학 이전 첫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시기	년 월 - 년 월	
2) 직종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직 및 관련기능종사자 8.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10. 군인 11. 기타(직을 적어:)	
3)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자영업 5. 무급가족종사자	
4) 근로시간 형태	1. 시간제 2. 전일제 ☐ 종사상 지위에서 3-5번 응답한 분은 4)근로시간 형태를 응답한 뒤에, 6)월평균 소액으로 이동	
5) 정규직 여부	1. 정규직 2. 비정규직	
6) 월평균 소득(세전)	※ 6개월을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받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만원	
7) 근로시간	※ 해당 일자리에 대해 6개월 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7-1) 해당 일자리는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 예 ☐ 7-2)와 7-3) 응답한 뒤에, 8)종사자 수로 이동 2. 아니요 ☐ 7-4) 응답한 뒤에, 8)종사자 수로 이동 7-2) 해당 일을 하실 때 정규근로시간은 휴게(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 근무했습니까? 하루 기준 시간 일주일 기준 일 7-3) 해당 일을 하실 때 초과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며칠 초과근로를 하셨습니까? 초과근로를 한 적이 없었던 경우,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하루 기준 시간 일주일 기준 일 7-4) 해당 일을 하실 때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며칠 일하셨습니까? 하루 기준 시간 일주일 기준 일	
8) 종사자 수	1. 1-4인 2. 5-29인 3. 30-99인 4. 100-299인 5. 300-999인 6. 1,000인 이상 7. 잘 모르겠다	

A2-2) 귀하의 최종학교 졸업(재학, 중퇴, 수료, 휴학 포함) 이후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 ☐ 최중 학교란 귀하의 최종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예) 대학교 졸업인 경우, 대학교 졸업 후의 일자리 여부
 ☐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인 경우, 현재 일자리 여부로 생각하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 '최종학교 졸업(재학, 중퇴, 수료, 휴학 포함)이후 일자리'는 있으나, '최종학교 입학 이전 일자리'가 없는 경우
 '1. 예'의 ① 최종학교 입학 이전 일자리와 다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예 ☐ ① 최종학교 입학 이전 일자리와 다름
 2. 아니요 ☐ ② 최종학교 입학 이전 일자리와 같음 → A2-3)으로 이동

A2-2-1) 귀하의 최종학교 졸업(재학, 중퇴, 수료, 휴학 포함) 이후 첫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최종 학력이 대학교 중퇴 : 대학교 2학년 때 아르바이트A를 함, 중퇴 후, 아르바이트B를 함 → 아르바이트B 기준 응답
 예2)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 : 4학년 2학기에 취직하여 계속 다님 → 1) 시기에 4학년 2학기도 포함하여 응답
 ☐ 최종학교 졸업(재학, 중퇴, 수료, 휴학 포함)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대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3개월 하다가 정규직에 취직한 경우, 정규직 기준으로 응답

1) 시기	년 월 - 년 월	
2) 직종	1. 관리자 2. 전문직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업·농림업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경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10. 군인 11. 기타(직을 적으시오)	
3)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자영업 5. 두급가족종사자	
4) 근로시간 형태	1. 시간제 2. 전일제 ☐ ③종사상 지위에서 3-5번 응답한 분은 4)근로시간 형태를 응답한 뒤에, 6)월평균 소득으로 이동	
5) 월평균 소득(세전)	1. 정규직 2. 비정규직 * 6개월을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받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6) 월평균 소득(세전)	월평균 만원	
7) 근로시간	* 해당 일자리에 대해 6개월 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7-1) 해당 일자리는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 예 ☐ 7-2)와 7-3) 응답한 뒤에, 8)종사자 수로 이동 2. 아니요 ☐ 7-4) 응답한 뒤에, 8)종사자 수로 이동 7-2) 해당 일을 하실 때 정규근로시간은 휴게(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 근무했습니까? - 격주휴무제일 경우 일주일에 5.5일 일한다고 기입해 주십시오. 하루 기준 시간 일주일 기준 일 7-3) 해당 일을 하실 때 초과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며칠 초과근로를 하셨습니까? - 초과근로를 한 적이 없었던 경우,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하루 기준 시간 일주일 기준 일 7-4) 해당 일을 하실 때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며칠 일하셨습니까? 하루 기준 시간 일주일 기준 일	
8) 종사자 수	1. 1~4인 2. 5~29인 3. 30~99인 4. 100~299인 5. 300~999인 6. 1,000이상 7. 잘 모르겠다	

550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A2-3)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가 있었습니까?

☞ 첫 일자리란: A2-1-2)를 응답하신 분은 해당하는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고, A2-1-2)를 응답하지 않으신 분은 A2-2-1)에 해당하는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예 ☞ ① 첫 일자리와 다름
② 첫 일자리와 같음
2. 아니요

A2-4)로 이동

A2-3-1) 귀하가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시기	년 월 - 년 월	
2) 직종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10. 군인 11. 기타(직을 갖: _____)	
3)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자영업 5. 무급가족종사자	
4) 근로시간 형태	1. 시간제 2. 전일제 ☞ 3)종사상 지위에서 3~6번 응답한 분은 4)근로시간 형태를 응답한 뒤에, 6)월평균 소득으로 이동	
5) 정규직 여부	1. 정규직 2. 비정규직	
6) 월평균 소득(세전)	☞ 6개월을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받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만원	
7) 근로시간	☞ 해당 일자리에 대해 6개월 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7-1) 해당 일자리는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 예 ☞ 7-2)와 7-3) 응답한 뒤에, 8)종사자 수로 이동 2. 아니요 ☞ 7-4) 응답한 뒤에, 8)종사자 수로 이동 7-2) 해당 일을 하실 때 정규근로시간은 휴게(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 근무했습니까? · 격주휴무제일 경우 일주일에 5.5일 일한다고 기입해 주십시오. 하루 기준 시간 일주일 기준 일 7-3) 해당 일을 하실 때 초과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며칠 초과근로를 하셨습니까? · 초과근로를 한 적이 없었던 경우,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하루 기준 시간 일주일 기준 일 7-4) 해당 일을 하실 때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며칠 일하셨습니까? 하루 기준 시간 일주일 기준 일	
8) 종사자 수	1. 1~4인 2. 5~29인 3. 30~99인 4. 100~299인 5. 300~999인 6. 1,000인 이상 7. 잘 모르겠다	

A2-4)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사실혼 포함)할 당시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가 있었습니까?

☐ 예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는 있으나,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가 없는 경우,
'1. 예'의 '①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와 다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예 ☐ ① A2-3)의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와 다름
② A2-3)의 현재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일자리와 같음
2. 아니요 ☐

A2-6)로 이동

A2-4-1) 귀하가 현재 배우자와 결혼(사실혼 포함)할 당시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시기	[] [] [] [] 년 [] [] 월 - [] [] [] [] 년 [] [] 월	
2) 직종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기술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정치·경제조사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10. 군인 11. 기타(직을 것: [])	
3)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자영업 5. 무급가족종사자	
4) 근로시간 형태	1. 시간제 2. 전일제 예 ☐ 3) 종사상 지위에서 3-5번 응답한 본인 4) 근로시간 형태를 응답한 뒤에, 6) 월평균 소득으로 이동	
5) 정규직 여부	1. 정규직 2. 비정규직	
6) 월평균 소득(세전)	※ 6개월을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받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 [] [] [] 만원	
7) 근로시간	※ 해당 일자리에 대해 6개월 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7-1) 해당 일자리는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 예 ☐ 7-2)와 7-3) 응답한 뒤에, 8) 종사자 수로 이동 2. 아니요 ☐ 7-4) 응답한 뒤에, 8) 종사자 수로 이동 7-2) 해당 일을 하실 때 정규근로시간은 휴게(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 근무했습니까? · 격주휴무제일 경우 일주일에 5.5일 일한다고 기입해 주십시오. 하루 기준 [] [] 시간 일주일 기준 [] [] 일 7-3) 해당 일을 하실 때 초과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며칠 초과근로를 하셨습니까? · 초과근로를 한 적이 없었던 경우,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하루 기준 [] [] 시간 일주일 기준 [] [] 일 7-4) 해당 일을 하실 때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며칠 일하셨습니까? 하루 기준 [] [] 시간 일주일 기준 [] [] 일	
8) 종사자 수	1. 1-4인 2. 5-29인 3. 30-99인 4. 100-299인 5. 300-999인 6. 1,000人以上 7. 잘 모르겠다	

552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A2-5) 귀하는 **현재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A3)으로 이동**

A2-5-1) **현재** 일자리는 귀하의 **첫**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와 같은 곳입니까?

1. 예 ☐ **A4)로 이동**
2. 아니오 ☐ ① A2-4)의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와 다름
② A2-4)의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일자리와 같음 ☐ **A3)으로 이동**

A2-5-2) 귀하의 **현재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시기	년 월 - 년 월	
2) 직종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10. 군인 11. 기타(직을 적어주세요)	
3)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자영업 5. 무급가족종사자	
4) 근로시간 형태	1. 시간제 2. 전일제 ☐ 3)종사상 지위에서 3-6번 응답한 본인 4)근로시간 형태를 응답한 뒤에, 6)월평균 소득으로 이동	
5) 정규직 여부	1. 정규직 2. 비정규직	
6) 월평균 소득(세전)	※ 6개월을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받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만원	
7) 근로시간	※ 해당 일자리에 대해 6개월 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7-1) 해당 일자리는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 예 ☐ 7-2)와 7-3) 응답한 뒤에, 8)종사자 수로 이동 2. 아니오 ☐ 7-4) 응답한 뒤에, 8)종사자 수로 이동 7-2) 해당 일을 하실 때 정규근로시간은 휴게(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 근무했습니까? • 격주휴무제일 경우 일주일에 5.5일 일한다고 기입해 주십시오. 하루 기준 시간 일주일 기준 일 7-3) 해당 일을 하실 때 초과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며칠 초과근로를 하셨습니까? • 초과근로를 한 적이 없었던 경우,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하루 기준 시간 일주일 기준 일 7-4) 해당 일을 하실 때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며칠 일하셨습니까? 하루 기준 시간 일주일 기준 일	
8) 종사자 수	1. 1~4인 2. 5~29인 3. 30~99인 4. 100~299인 5. 300~999인 6. 1,000인이상 7. 잘 모르겠다	

A3) 첫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를 그만두신 **가장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첫 일자리란: A2-1-2)를 응답하신 분은 해당하는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고, A2-1-2)를 응답하지 않으신 분은 A2-2-1)에 해당하는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직장 파산, 폐업, 휴업
2. 일감이 없거나 정리해고 및 권고사직 등으로
3. 정년 및 명예퇴직
4. 일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5. 소득·보수 등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
6.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의 장래성이 없어서
7. 적성, 지식, 기술 등이 맞지 않아서
8.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등의 근로여건이 나빠서
9. 자기(가족) 사업을 하기 위해
10.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 때문에(결혼·육아·가사 등)
11. 건강 및 교령 등의 이유로
12.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13. 전근·발령을 받아서
14. 회사 및 자택 이사
15. 권학으로 인하여
16. 기타(적을 것 : _____)

A4) 현재 귀하의 **월평균 총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전 소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총 소득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현금만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 현금 및 바꾸치 형태의 지원은 제외

□ □ □ □ 만원

9999. 모름/무응답

“월평균 총 소득을 모르실 경우, 아래 구간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1. 소득 없음 | 2. 50만원 미만 |
| 3.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 5.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6.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
| 7.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8.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
| 9.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10. 40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
| 11. 4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12. 50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
| 13. 55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14. 600만원 이상 - 650만원 미만 |
| 15. 65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16. 700만원 이상 - 750만원 미만 |
| 17. 75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18. 800만원 이상 |

55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A5) 귀하가 **소유하고 계신 금융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 금융자산에는 예·적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 및 보장성 보험, 현재 갖고 있는 채, 타인에게 빌려준 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 0을 기입해 주십시오.

억 만원

A6) 귀하의 **부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 부채에는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부채, 타인에게 빌린 돈, 핸드폰 할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채가 없는 경우, 0을 기입해 주십시오.

억 만원

B. 주거 및 결혼 준비

B1) 귀하가 만 **14세(중학교 졸업할 무렵)일 무렵 주로 성장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 16. 경남 | 17. 제주 | 18. 기타(적용 것 : _____) |

B2) **최종학교 졸업(재학, 중퇴, 수료, 휴학 포함) 이후의 주거 변화**에 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최종 학교란 귀하의 최종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 ☐ 해당 시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곳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해당 시점 직전에 주거상황이 달라진 경우 (예. 며칠 전에 이사한 경우 등)에는 주거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곳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동일한 집에서 살았지만 점유 형태가 달라진 경우(예. 전세→자가) 또는 같이 산 사람이 달라진 경우 (예. 혼자 살다가 친구와 같이 살게 된 경우 등)는 주거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구분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 병역기간의 경우, 3)같이 산 사람: 6. 기타(군대)
4)주택 유형: 7. 기타
5), 6), 7)은 SKIP
8) 시군구에 북부지역을 응답해 주십시오.
- ☐ B2-2)의 첫 직장에는 주 1시간 이상 일하여 소득을 창출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B2-1) 최종학교(재학, 중퇴, 수료, 휴학 포함)를 졸업한 시기 년 월

B2-2) 최종학교 졸업(재학, 중퇴, 수료, 휴학 포함) 이후 첫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 시작한 시기 년 월

☐ 최종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일한적 없음

B2-3) 현재의 배우자와 교제 시작한 시기 년 월

☞ B2-2에서 '최종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일한적 없음'에 체크하신 분은 B3-1)과 B3-2)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B3-1) 다음 중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1. 최종학교 졸업 2. 첫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입사 3. 현재의 배우자와 교제 시작	B3-2) 다음 중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1. 최종학교 졸업 2. 첫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입사 3. 현재의 배우자와 교제 시작	B3-3) 다음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1. 최종학교 졸업 2. 첫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입사 3. 현재의 배우자와 교제 시작
※ 해당 시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곳에 대해 아래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1)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같습니다니까?	1. 현재집과 같음 ☞ B3-2)로 이동	1. 현재집과 같음 ☞ B3-3)로 이동	1. 현재집과 같음 ☞ B4)로 이동
	2. 현재집과 다름 ☞ 3)같이 산 사람으로 이동	2. 현재집과 다름 ☞ 2)주거 변화여부로 이동	2. 현재집과 다름 ☞ 2)주거 변화여부로 이동
2) 주거 변화여부		1. B3-1)과 주거상황이 다름 ☞ 3)같이 산 사람으로 이동	1. B3-2)와 주거상황이 다름 ☞ 3)같이 산 사람으로 이동
		2. B3-1)과 주거상황이 같음 ☞ B3-3)으로 이동	2. B3-2)와 주거상황이 같음 ☞ B4)로 이동
3) 같이 산 사람 (복수응답)	1. 부모 및 조부모 2. 형제자매 및 친인척 3. 친구 및 지인 4. 현재 배우자(당시 애인) 5. 없음(혼자 살았음) 6. 기타(직을 것 : _____)	1. 부모 및 조부모 2. 형제자매 및 친인척 3. 친구 및 지인 4. 현재 배우자(당시 애인) 5. 없음(혼자 살았음) 6. 기타(직을 것 : _____)	1. 부모 및 조부모 2. 형제자매 및 친인척 3. 친구 및 지인 4. 현재 배우자(당시 애인) 5. 없음(혼자 살았음) 6. 기타(직을 것 : _____)
4) 주택유형	1. 일반단독주택 2. 다가구단독주택 3. 아파트/주상복합 4. 연립주택 5. 다세대주택(원룸 등) 6. 오피스텔 7. 기타(기숙사, 학숙 등)	1. 일반단독주택 2. 다가구단독주택 3. 아파트/주상복합 4. 연립주택 5. 다세대주택(원룸 등) 6. 오피스텔 7. 기타(기숙사, 학숙 등)	1. 일반단독주택 2. 다가구단독주택 3. 아파트/주상복합 4. 연립주택 5. 다세대주택(원룸 등) 6. 오피스텔 7. 기타(기숙사, 학숙 등)
· 본인 기준으로 응답 · 예: 월세/전세인 부모 및 친척 집에서 무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6.무상'으로 응답 생활비조로 부모 및 친척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응답 부모 및 친척과 공적인 계약을 통해 집을 마련한 경우 →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응답			
5) 점유형태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4. 보증금 없는 월세 5. 기타(년세, 사글세, 일세, 기숙사 등) 6. 무상(부모님대, 친척집, 사택, 판사)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4. 보증금 없는 월세 5. 기타(년세, 사글세, 일세, 기숙사 등) 6. 무상(부모님대, 친척집, 사택, 판사)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4. 보증금 없는 월세 5. 기타(년세, 사글세, 일세, 기숙사 등) 6. 무상(부모님대, 친척집, 사택, 판사)
· 일세 등의 경우 월로 환산			
6) 주택비용	(점유형태가 1일 경우) 매대가 _____만 (점유형태가 2, 3일 경우) 보증금 _____만 (점유형태가 3, 4, 5일 경우) 월세 _____만 (점유형태가 6일 경우) ☞ 7)주택규모로 이동	(점유형태가 1일 경우) 매대가 _____만 (점유형태가 2, 3일 경우) 보증금 _____만 (점유형태가 3, 4, 5일 경우) 월세 _____만 (점유형태가 6일 경우) ☞ 7)주택규모로 이동	(점유형태가 1일 경우) 매대가 _____만 (점유형태가 2, 3일 경우) 보증금 _____만 (점유형태가 3, 4, 5일 경우) 월세 _____만 (점유형태가 6일 경우) ☞ 7)주택규모로 이동
7) 주택규모	· m ² 와 평수 중 한단위로 하나만 응답 _____ m ² / _____ 평		
8) 시군구	· 외국인 경우 '_____'시/제 국가명을 기재 _____시 _____군/구		

556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B4) 귀하가 결혼할 당시 주택 이외에 결혼을 위해 본인 및 본인의 부모님이 지출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 주택 이외에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결혼식 비용(결혼식장, 결혼예복, 사진촬영 등), 예단 및 혼수, 신혼여행 등 결혼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항목	비용
1) (금융기관 및 타인에게 빌린 금액을 제외함) 본인 지출 금액	억 만원
2) (금융기관 및 타인에게 빌린 금액을 제외함) 본인 부모님 지출 금액	억 만원
3) 기타(본인 및 부모님의 대출 및 차용 등)	억 만원
합계	억 만원

B5) 본인이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부담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C. 배우자와의 교제 및 결혼

C1) 배우자와 교제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 한 번도 일주일 한 적이 없는 경우 '3)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교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항목	전혀 안함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1) 취미·학원 등의 활동	1	2	3	4
2) 종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	1	2	3	4
3)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교류	1	2	3	4
4) 친구들과의 만남	1	2	3	4

C2) 배우자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는 경우 '2. 직장 및 일(아르바이트 포함) 관계로'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1. 학교에서
2. 직장 및 일(아르바이트 포함) 관계로
3. 어릴 적부터 친구 및 가까이에 살아서
4. 학교 이외의 동아리나 학원 등에서
5. 소개팅을 통해서
6.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7. 결혼을 전제로 한 선을 봐서
8.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9. 길거리나 여행 중에 알게 되어서
10. 종교 및 봉사활동 하는 곳에서
11. 기타(적을 것 : _____)
12. 잘 모름/무응답

C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 동거·사실혼
2. 초혼
3. 재혼

C4) 귀하가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한 후, 실제로 결혼을 하기까지 계획한대로 연기 없이 진행되었습니까?

1. 예 ☞ C5)로 이동

2. 아니오

C4-1)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는 경우 '6.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에'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업 상태여서
2.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해서
3.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4. 상대방의 소득이 적어서
5. 나의 소득이 적어서
6.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7.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8. 집 강만 이외의 결혼비용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9. 학업 때문에
10. 집안의 반대로 인하여
11. 상대 집안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12. 건강문제로 인하여
13.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4. 기타(적을 것 : _____)

558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C5) 결혼 이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귀하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항목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변함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1) 생활수준	1	2	3	4	5
2)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1	2	3	4	5
3) 취직 및 승진 기회	1	2	3	4	5
4)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판	1	2	3	4	5
5) 마음의 안정(행복감 등)	1	2	3	4	5
6) 주변 사람과의 관계	1	2	3	4	5

C6) 결혼 이후 지금까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C7) 귀하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불만족									만족	
1	2	3	4	5	6	7	8	9	10	

D. 임신·출산

D1) (여성만 응답) 지금까지 총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셨습니까?

 현재 임신 중이시라면,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들			명
2) 딸			명
합계			명
임신 중인 경우	3) 아들		명
	4) 딸		명
	5) 성별 모름		명
합계			명

D2) 귀하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다음 페이지의 D3)으로 이동

D2-1) 임신이 어려워서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 포함)에 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1. 특별히 의료기관에 간 적은 없음
2. 과거에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3. 현재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있음

D3) 임신을 위하여 준비하는(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등) 기간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개월) ☞ D4)로 이동

2. 없었음

D3-1) 앞으로 임신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등)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1. 있음(개월)

2. 없음

D4) 결혼 전에 희망했던 자녀수와 현재 희망하는 자녀수가 같습니까?

1. 같음(명) ☞ D5)로 이동

2. 다름

D4-1) 결혼 전과 현재 희망하고 있는 자녀수는 각각 몇 명입니까?

결혼 전(명), 결혼 후(명)

D5) 귀하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자녀의 성별 조합이 있습니까?

☞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할 의향이 없는 경우에도 '출산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응답해 주십시오.

☞ 자녀가 없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1. 이상적인 조합이 있음'에서 각각 0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이상적인 조합이 있음(아들 명, 딸 명)

2. 특별히 없음

D6)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현재 임신 중이시라면, 임신 중인 자녀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반드시 낳을 것임

2. 낳을 것임

3. 낳지 않을 것임

4. 절대 낳지 않을 것임 → D7)로 이동

5. 모르겠음 ☞ B. 양육 및 가정·일 양립 파트로 이동

D6-1) 언제 다음 자녀를 낳으실 예정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이시라면, 임신 중인 자녀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앞으로 곧 ☞ D6-3)으로 이동

2. 3년 이내

3. 3~4년 후

4. 5년 이상 지난 후

5. 언제인지 알 수 없음 → D6-2)로 이동

560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D6-2) 자녀를 곧(바로) 낳지 않으시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 터울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1. 마음을 조정하기 위하여
2. 소득이 적어서
3.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4. 자녀양육비용 때문에
5.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6. 출산으로 인해 경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차별 받을까봐
7. 사회활동에 걱정을 주어서
8.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인호선생활을 즐기기 위해)
9. 가계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10. 경제 또는 만질결혼 등의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11. 기타(직을 갓 :)

D6-3) 향후 자녀를 몇 명 더 낳으실 계획이십니까?

☞ 현재 임신 중이시라면, 임신 중인 자녀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illegible]

D6-4) 향후 자녀를 낳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7. 첫째 아이를 위해서'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1순위

2순위

1. 정작작으로 아이를 양육하기에 생활이 어렵기 않기 때문에
2.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 직장을 그만두고(직장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4. 본인 및 배우자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5.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6. 부모님, 주변 어른들의 권유 때문에
7. 첫째 아이를 위해서
8. 기타(직을 위해: _____)

➡ D6-4) 응답한 뒤에, B. 양육 및 가정·일 양립 파트로 이동

D7) (D6의 3-4번 응답자만) 향후 자녀를 낳으실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
2.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3. 부부간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4. 본인이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5.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6. 본인의 결혼 및 건강 때문에
7.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8.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9.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에서
10. 이미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았거나, 별다른 이유는 없지만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11. 기타(직접 적어 : _____)

E. 양육 및 일·가정 양립

E1) (자녀가 있는 여성만 응답) 다음은 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저출비용은 월평균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저출비용에는 본인부담금(가정에서 보육 또는 양육 시설에 낸 돈)만 기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직접 보내진 정부지원금 제외)

☞ 부모 및 친지에게 보육의 대가로 용돈 등을 지불할 경우에 실제 금액을 기재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0을 기입해 주십시오.

☞ 6)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에서 '1.아이의 부모', '8.아이의 형제, 자매', '9.아이 혼자 지냄'을 응답한 경우에는 저출비용에 0을 기입해 주십시오.

☞ 4) 사교육 외 돌봄서비스, 5) 사교육의 경우, 자녀의 취학 여부에 따라 보기 항목이 다릅니다.

17p 문항 작성 시, 아래 보기 항목을 활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4) 사교육 외 돌봄서비스

< 미취학자녀 >	< 취학자녀 >
1. 국공립 어린이집 2. 가정·민간 어린이집 3. 직장 어린이집 4. 기타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단체, 부모협동 등) 5. 국공립유치원 6. 사립 유치원 7. 기타(적을 것 : _____) 8. 이용하지 않음	1. 초등돌봄교실 2. 방과후 학교 3. 지역아동센터 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5.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 지역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예체능·교과목 등 돌봄 프로그램 6. 기타(적을 것 : _____) 7. 이용하지 않음

5) 사교육

< 미취학자녀 >	< 취학자녀 >
1.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포함) 2. 시간제 학원(예체능, 영어, 보습 등) 3. 개인그룹과외 4. 학습지 5. 기타(적을 것 : _____) 6. 이용하지 않음	1. 사설 예체능 학원 2. 사설 교과목 학원 3. 사설 공부방 4. 학습지, 방문교육 5. 개인과외, 그룹과외 6. 기타(적을 것 : _____) 7. 이용하지 않음

6)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

1. 아이의 부모(본인 또는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및 형제, 자매
3. 친구나 지인
4. 기타 친인척
5. 아이돌보미 서비스
6. 출퇴근 베이비시터
7. 입주 베이비시터
8. 아이의 형제, 자매
9. 아이 혼자 지냄
10. 기타(적을 것 : _____)

562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자녀	1) 생년월	3) 취학여부	4) 사교육 외 돌봄서비스		5) 사교육		6)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	
			종류 [보기 활용]	지출 비용	종류 [보기 활용]	지출 비용	종류 [보기 활용]	지출 비용
1	년 월	1. 미취학 2. 취학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2) 성별			() 만원		() 만원		() 만원
	1. 남 2. 여		사교육 외 돌봄서비스 비용 합계	() 만원	사교육 비용 합계	() 만원	돌봐주는 사람 지출 비용 합계	() 만원
자녀 1 합계						() 만원		
2	년 월	1. 미취학 2. 취학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2) 성별			() 만원		() 만원		() 만원
	1. 남 2. 여		사교육 외 돌봄서비스 비용 합계	() 만원	사교육 비용 합계	() 만원	돌봐주는 사람 지출 비용 합계	() 만원
자녀 2 합계						() 만원		
3	년 월	1. 미취학 2. 취학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2) 성별			() 만원		() 만원		() 만원
	1. 남 2. 여		사교육 외 돌봄서비스 비용 합계	() 만원	사교육 비용 합계	() 만원	돌봐주는 사람 지출 비용 합계	() 만원
자녀 3 합계						() 만원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가인) | 17/23

자녀	1) 생년월	3) 취학여부	4) 사교육 외 돌봄서비스		5) 사교육		6) 이 외 시간에 돌봐주는 사람	
			종류 [보기 활용]	지출 비용	종류 [보기 활용]	지출 비용	종류 [보기 활용]	지출 비용
4	년 월	1. 미취학 2. 취학		()		()		()
				(만원)		(만원)		(만원)
				()		()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성별	1. 남 2. 여		()		()		()	
			(만원)		(만원)		(만원)	
		사교육 외 돌봄서비스 비용 합계	()	사교육 비용 합계	()	돌봐주는 사람 지출 비용 합계	()	
자녀 4 합계					() 만원			
5	년 월	1. 미취학 2. 취학		()		()		()
				(만원)		(만원)		(만원)
				()		()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성별	1. 남 2. 여		()		()		()	
			(만원)		(만원)		(만원)	
		사교육 외 돌봄서비스 비용 합계	()	사교육 비용 합계	()	돌봐주는 사람 지출 비용 합계	()	
자녀 5 합계					() 만원			
6	년 월	1. 미취학 2. 취학		()		()		()
				(만원)		(만원)		(만원)
				()		()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성별	1. 남 2. 여		()		()		()	
			(만원)		(만원)		(만원)	
		사교육 외 돌봄서비스 비용 합계	()	사교육 비용 합계	()	돌봐주는 사람 지출 비용 합계	()	
자녀 6 합계					() 만원			

귀하가 작성하신 돌봄 지출 총액은 원(한 달 기준)입니다.

(자녀1 합계 + 자녀2 합계 + 자녀3 합계 + 자녀4 합계 + 자녀5 합계 + 자녀6 합계)

☞ 돌봄 지출 총액이란, 모든 자녀에 대한 보육 및 양육서비스, 사교육, 돌봐주는 사람 지출비용의 합을 의미합니다.

564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E2)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를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 대학교(대학원 등 포함)를 졸업할 때까지
3. 취직할 때까지
4. 결혼할 때까지
5. 손자녀가 다 클 때까지
6. 평생

E3) (자녀가 있는 분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돌봄 및 교육 등에 비용이 많이 들
2. 의식주에 비용이 많이 들
3. 건강문제·가정교육 등에 대한 고민
4. 체력적으로 힘들
5.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움
6. 기타(적을 것 : _____)
7.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음

E4) 귀하의 하루 기준 평균 기사·육아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평일과 주말/공휴일로 나누어 기입해 주십시오.

☞ 기사 시간에 육아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육아 시간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항목	평일 기준	주말/공휴일 기준
기사 시간	하루 평균 시간 분	하루 평균 시간 분
육아 시간	하루 평균 시간 분	하루 평균 시간 분

E5) (A2-1)의 1번 응답자만) 본인의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신 분은 직전 회사의 상황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E6) (A2-1)의 1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신 분은 직전 회사의 상황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E7) 귀하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제활동 외부에 관계없이 본인의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 직장 생활의 %, 가정 생활의 %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 예)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의 중요성이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직장 생활 50%, 가정 생활 50%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직장 생활 % : 가정 생활 %

F. 부모 관련 사항 및 부부간의 관계·가치관

F1) 다음은 귀하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에는 **명절 등 특별한 날 드리는 용돈도 모두 포함**됩니다.

☐ 드리는 돈이 없거나 받는 돈이 없는 경우, 0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항목	아버지	어머니
1) 현재 생존해 계십니까?	1. 예 2. 아니요 ☐ ③부모님의 생년으로 이동	1. 예 2. 아니요 ☐ ③부모님의 생년으로 이동
2)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가 있습니까? (현금만 해당)	드리는 금액 연 평균 만원	드리는 금액 연 평균 만원
	받는 금액 연 평균 만원	받는 금액 연 평균 만원
3) 부모님의 생년	년	년
4) 부모님의 학력 (출입여부에 관계없이 최종학력응답)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2-3년제 대학 6. 4년제 대학 7. 대학원 석사 이상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2-3년제 대학 6. 4년제 대학 7. 대학원 석사 이상

566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F2)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난 1년 간 배우자와 의견의 불일치 및 말다툼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F1의 1)에서 모두 2. 아니요 응답한 경우) '8)본인 부모와의 관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없는 경우 '11)자녀 양육 문제(진학 문제 등)'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항목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가끔 있었음	항상 있었음
1) 가사 분담	1	2	3	4
2) 경제적 문제	1	2	3	4
3) 본인의 취미 및 휴일의 시간 사용	1	2	3	4
4) 배우자의 취미 및 휴일의 시간 사용	1	2	3	4
5) 성생활	1	2	3	4
6) 본인의 친구 관계	1	2	3	4
7) 배우자의 친구 관계	1	2	3	4
8) 본인 부모와의 관계	1	2	3	4
9)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1	2	3	4
10) 자녀를 갖는 문제	1	2	3	4
11) 자녀 양육 문제(진학 문제 등)	1	2	3	4
12) 본인의 음주 및 흡연 문제	1	2	3	4
13) 배우자의 음주 및 흡연 문제	1	2	3	4
14) 기타(도박 및 이성 문제 등)	1	2	3	4

F3) 배우자와 평일 기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여기서 대화시간이란,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시간 □□ 분

F3-1) 배우자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나서 대화하는 것, 전화 통화, 카카오톡 등 배우자와의 소통 전반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충분함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F3-2) 대화의 주제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일(회사)
2. 자녀
3. 여행 및 오락(취미)
4. 주변 사람(부모·지인·친인척 등)
5. 시사(정치)·뉴스
6. 경제·체택
7. 특별한 주제 없음
8. 기타(적을 것 : _____)

F4) 다음의 사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1	2	3	4
2)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를 갖는 것이다	1	2	3	4
3) 자녀가 어릴 때 엄마가 일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1	2	3	4
4)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가 가정을 지키는 삶의 방식은 바람직하다	1	2	3	4
5)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부모는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	1	2	3	4
6) 결혼하면 가정을 위하여 자신의 개성과 인생을 반 정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1	2	3	4
7) 결혼을 했더라도 인생에는 배우자 및 가족과는 다른 자신만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1	2	3	4
8)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	1	2	3	4

F5) 귀하의 결혼 전까지의 주변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거나 어린 아이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었다	1	2	3	4
2) 부모님과 같은 부부관계를 부럽다고 생각했다	1	2	3	4
3) 결혼한 주변 친구를 보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1	2	3	4
4) 같은 또래의 친구나 형제자매 중 자녀를 갖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1	2	3	4

G.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G1) 국가의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가에서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2) 국가의 결혼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3)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4)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68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G2)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1) 인지여부에서 1. 알고있음 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제시된 정책 이외에도 관련 정책을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1)인지여부에서 1. 알고있음 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정책	1) 인지여부		2) 이용경험			3) 도움정도			
	알고 있음	모름	현재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권한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임대주택 지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주택자금대출 (비임목·다임목·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1	2	1	2	3	1	2	3	4
2) 청년 일자리 정책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1	2	1	2	3	1	2	3	4
3) 임신·출산 정책 (국민영복카드,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사업,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정책 등)	1	2	1	2	3	1	2	3	4
4) 보육·돌봄 정책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 등)	1	2	1	2	3	1	2	3	4

제공된 개인정보는 본 연구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접근이 가능한 곳에 보관할 예정이며
본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응답자 이름	_____		
응답자 연락처	_____		
응답 날짜	2019년 [] [] 월 [] [] 일		
응답 시간	[] [] 시 [] [] 분 - [] [] 시 [] [] 분 총 [] [] 분간 응답		
조사원	성명	_____	
	ID	_____	
자료 검증원	성명	_____	
	ID	_____	
검증여부		1. 완료	2. 미완료 (시정)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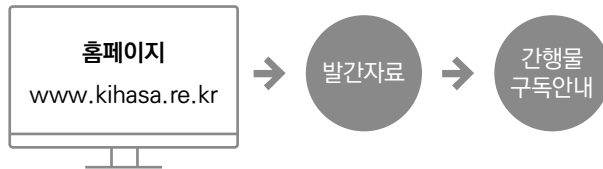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